
譯註 日本書紀
3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125

역주 일본서기 3

연민수
김은숙
이근우
정효운
나행주
서보경
박재용

『일본서기』 역주본의 간행은 국내 역사학계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서기』 번역서는 한두 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룬 역주본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책에는 『일본서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주석과 해제 그리고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어 단순한 역주본을 뛰어넘어 『일본서기』 연구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주지하듯이 『일본서기』는 일본의 고대사를 다룬 역사서이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기술이 많아 사료가 영성한 한국고대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서기』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 사서가 일본 고대국가가 완성되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통치 이념,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왜곡된 한국사관을 바로잡아 한국사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서기』는 일본국을 통일한 천황가의 역사로서 천황의 절대적 존엄성을 강조하고 타씨족, 타민족에 우월한 극도의 일본 중심적 이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찬 이데올로기는 근대에 들어 일본의 한국 침략기에 『일본서기』의 조작된 내용과 왜곡된 기술을 근거로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배타적이고 침략주의적인 역사관도 이 역사서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서로서의 『일본서기』는 전시대를 관통하면서 일본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고, 위정자들은 하나의 성전과 같이 인식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서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본학계에서 대외관계사를 보는 기본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의 우익사상의 원류도 알고 보면 『일본서기』에 내재되어 있는 ‘천황’이라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인격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며,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일본서기』 역주본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역주사업은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주본이 일본고대사 연구와 한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원문

- 원문은 岩波書店의 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書紀』上·下(天理大學 도서관 소장 卜部兼 右本 日本書紀에 의거, 1965·1967)를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 자구의 판본 비교는 小學館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日本書紀』1~3(1994~1998)에 의거하였다.
- 원문의 일본식 略字는 가능한 한 정자체로 고쳐 적었다.
- 『일본서기』 원문에 포함된 細註는 [] 안에 넣었다.
- 원문의 기사는 연별, 월별로 행을 바꾸었다.
- 원문의 마침표(。)와 쉼표(、)는 모두 마침표(.)와 쉼표(,)로 바꾸어 적었다.
- 一書, 或本 등은 ‘어떤 책(一書, 或本)에는 ~이라고 한다.’로 해석하였다.
- 一云, 一曰 등은 ‘어떤 책(一)에서 ~라고 말하였다.’로 해석하였다.

번역문

- 번역은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고자 하였다. 한자의 음을 그대로 적은 경우에는 ‘호상(胡床)’과 같이 () 안에 한자를 넣었고, 한자어를 번역한 경우에는 각주에 원문의 한자를 드러내어 번역상의 부족한 점을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우리에게 없는 한자일 경우는 ‘일본음(한자)’으로 표기하고 각주에서 ‘우리 한자에는 없는 음이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 한자가 가운데 문맥상으로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였다. 특히 연월일의 경우 ‘2년 봄 3월 경술삭 임자(3일)’와 같이 표기하였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百 단위를 넘는 경우는 ‘3백’과 같이 표기하였다.
- 인명과 지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소아한자숙네(蘇我韓子宿禰 ; 소가노카라코노스쿠네)’와 같이 한글음(한자 ; 일본음)으로 표기하였다.
- 일본음을 표기할 때는 岩波書店의 『日本書紀』에 표기된 음가대로 표기하였고, 이중 모음 살려서 ‘ゐ’는 ‘웨’로 표기하였다. ‘つ’의 경우는 ‘츠’로 표기하였으나, 對馬島(つしま)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쓰시마’로 표기하였고, 天皇(てんわう)의 경우도 ‘텐노’로 표기하였다.
- 각 天皇紀 시작 부분에서 해당 천황의 생애를 각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 천황이나 왕 등의 죽음에 관한 표기는 ‘귀수왕이 죽었다(薨).’와 같이 ‘죽었다.’로 해석하고 () 안에 薨과 崩 등의 한자를 넣었다.

간행사_ 4

일러두기_ 6

	[역주]	[원문]
권 제21 용명천황 用明天皇	12	38
승준천황 崇峻天皇	22	40
권 제22 추고천황 推古天皇	44	91
권 제23 서명천황 舒明天皇	106	124
권 제24 황극천황 皇極天皇	132	164
권 제25 효덕천황 孝德天皇	174	256
권 제26 제명천황 齊明天皇	274	319

	[역주]	[원문]
권 제27 천지천황天智天皇	330	380
권 제28 천무천황天武天皇 상	392	429
권 제29 천무천황天武天皇 하	438	519
권 제30 지통천황持統天皇	544	587

찾아보기_ 604

1권 차례

권 제1 신대神代 상

권 제2 신대神代 하

권 제3 신무천황神武天皇

권 제4 수정천황綏靖天皇

안녕천황安寧天皇

의덕천황懿德天皇

효소천황孝昭天皇

효안천황孝安天皇

효령천황孝靈天皇

효원천황孝元天皇

개화천황開化天皇

권 제5 송신천황崇神天皇

권 제6 수인천황垂仁天皇

권 제7 경행천황景行天皇

성무천황成務天皇

권 제8 중애천황仲哀天皇

권 제9 신공황후神功皇后

권 제10 응신천황應神天皇

참고문헌

찾아보기

2권 차례

권 제11 인덕천황仁德天皇

권 제12 이증천황履中天皇

반정천황反正天皇

권 제13 윤공천황允恭天皇

안강천황安康天皇

권 제14 웅략천황雄略天皇

권 제15 청녕천황淸寧天皇

현종천황顯宗天皇

인현천황仁賢天皇

권 제16 무열천황武烈天皇

권 제17 계체천황繼體天皇

권 제18 안한천황安閑天皇

선화천황宣化天皇

권 제19 흠명천황欽明天皇

권 제20 민달천황敏達天皇

부록

찾아보기

일본서기 권 제21

日本書紀 卷第廿一

제31대 고평일천황(橘豐日天皇) 용명천황(用明天皇)

제32대 박뢰부천황(泊瀨部天皇) 송준천황(崇峻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21

굴풍일천황(橘豐日天皇; 타치바나노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 **용명천황**(用明天皇; 요우메이텐노)

굴풍일(橘豐日; 타치바나노토요히)¹천황은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아메쿠니노오시하라키히로니하노스메라미코토)²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견염원(堅鹽媛; 키타시히메)³이라고 한다. 천황은 불법(佛法)을 믿고⁴ 신도(神道)⁵를 존송하

1 제31대 천황(재위: 585~587)이다. 蘇我氏를 외척으로 하는 최초의 천황이자, 불교를 지지한 최초의 천황이기도 하다. 敏達(欽明의 둘째 아들)이 죽은 후 왕위계승 후보자로는 欽明의 아들인 用明天皇(池邊皇子, 어머니는 蘇我堅鹽媛), 穴穗部皇子(어머니는 蘇我小姉君), 崇峻天皇(泊瀨部皇子, 어머니는 蘇我小姉君)이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외삼촌인 蘇我馬子가 지지하는 用明이 즉위하자, 穴穗部皇子는 馬子와 대립관계에 있던 物部守屋과 손을 잡았다. 그는 敏達의 황후이자 배다른 남매 간인 炊屋姫皇后를 범하려고, 敏達의 빈소에 난입하려고 하였다. 취옥회와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의 즉위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막는 大三輪君逆을 物部守屋에게 명하여 죽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穴穗部皇子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와중에 用明은 천연두에 걸려 즉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이 시기는 蘇我馬子の 영향력이 극적으로 증대하는 시기이자, 불교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橘은 飛鳥의 지명으로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지역이다.

2 欽明天皇이다.

3 蘇我稻目の 딸이다. 『日本書紀』 欽明天皇 2년(541) 3월조 참조.

4 欽明天皇 13년에 백제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이후 천황이 처음으로 불법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敏達天皇은 佛法을 믿지 않고 文史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日本書紀』 敏

였다. 14년 가을 8월에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누나쿠라노후토타마 시키노스메라미코토)⁶이 죽었다(崩).

9월 갑인삭 무오(5일)에 천황이 황위에 올랐다. 반여(磐餘; 이하레)⁷에 궁을 짓고, 지변쌍규궁(池邊雙規宮; 이케노베노나미즈키노미야)⁸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를 대신으로 삼고 물부궁삭수옥련(物部弓削守屋連;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무라지)을 대련으로 삼으니, 모두 전과 같았다. 임신(일)에 조를 내려 초향수희황녀(酢香手姬皇女; 스카테히메노미코)를 이세신궁(伊勢神宮; 이세노오호미카미노미야)에 보내어, 일신(日神)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이 황녀는 지금의 천황 때부터 취옥희천황(炊屋姬天皇; 카시키야히메노스메라미코토)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신(日神)의 제사를 받들었다. 스스로 갈성(葛城;

達天皇 즉위전기). 敏達天皇 때 천연두의 유행과 관련하여 불교의 신앙을 중단토록 하고 元興寺를 파괴하였다고 한다(『日本書紀』 민달천황 14년 3월조).

5 일본의 고유한 민간신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神道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佛法에 대항하기 위하여 『後漢書』 등 중국 문헌에서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6 敏達天皇이다.

7 磐餘는 현재 櫻井市 南西部의 池之内, 橋本, 阿部에서 橿原市の 東池尻町을 포함하는 南東部に 걸친 지역의 옛 이름이다. 履中天皇 2년 11월의 磐餘池를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관개를 위한 인공저수지가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8 『上宮法王帝說』에는 伊波禮池邊雙規宮으로 되어 있어, 磐餘池 가에 조성된 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雙規는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磐餘池는 아직까지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1년에 橿原市 남동부의 香具山에서 북동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6세기 중후반의 堤防 유구가 발견되어 이곳을 磐餘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5세기 전반인 履中天皇代에 磐餘池가 축조되었다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의문이 남는다. 주변에는 池之内라는 지명이 있고, 제방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동남쪽으로 2km 안에 上宮太子, 즉 聖德太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上宮寺, 上之宮遺跡 등이 있다.

9 推古天皇이다.

카즈라키)으로 물러나 죽었다(薨). 취옥희천황기(炊屋姬天皇紀)¹⁰에 보인다. 어떤 책(或本)에서는 37년간 일신의 제사를 받들고 스스로 물러나 죽었다고 하였다.].

원년 봄 정월 임자삭에 혈수부간인황녀(穴穗部間人皇女; 아나호베노하시히토노 히메미코)¹¹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네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구호황자(麿戶皇子; 우마야도노미코)¹²라고 한다[또한 풍이충성덕(豐耳聰聖德; 토요미미토쇼오토쿠)이라고 한다. 혹은 풍충이법대왕(豐聰耳法大王; 토요토미미노노리노오호키미)이라고 한다. 혹은 법주왕(法主王; 노리노우시노오호키미)이라고 한다.]. 이 황자는 처음에 상궁(上宮; 카미츠미야)¹³에 살았다가 후에 반구(斑鳩; 이카루가)¹⁴로 옮겼다. 풍어식취옥희천황(豐御食炊屋姬天皇; 토요미케카시키노야히메노스메라미코토)¹⁵의 시대에 동궁(東宮)이 되었으며,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천황을 대행하였다. 이 이야기는 풍어식취옥희천황기(豐御食炊屋姬天皇紀)에 보인다. 둘째는 내목황자(來目皇子; 쿠메노미코)¹⁶라고 한다. 셋째는 식을황자(殖粟皇子; 웨쿠리노미코)¹⁷라고 한다. 넷째

10 推古天皇紀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1 欽明天皇의 셋째 딸로 어머니는 蘇我稻目の 딸인 小姉君이다. 用明天皇과 혼인하여 麿戶・來目・殖粟・茨田을 낳았고, 用明이 죽은 후에는 用明의 첫째 황자(어머니는 蘇我稻目の 딸 蘇我石寸名)와 다시 결혼하여 佐富女王을 낳았다. 同母兄으로 穴穗部皇子가 있다.

12 用明天皇의 둘째 아들(574~622)로 어머니는 欽明天皇의 딸인 穴穗部間人皇女이다. 推古天皇 때 東宮으로 攝政하였다. 蘇我馬子와 협조하여 국제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物部氏の 타도, 四天王寺의 건립, 冠位 12제의 제정, 17조 憲法の 반포, 遣隋使의 파견 등을 실현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왕권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불교 진흥에도 노력하였다.

13 聖德太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궁으로 池邊雙槻宮의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 奈良縣 櫻井市 上之宮遺跡을 上宮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14 奈良盆地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生駒郡 斑駒町의 동부에 해당한다. 大和와 河內를 연결하는 龍田道가 이곳을 지나며, 남쪽에는 大和川이 흐르고 있어 교통의 요지이다. 法隆寺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藤の木古墳이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15 推古天皇이다.

16 推古天皇 10년에 신라 정벌 장군이 되었으며 다음해 筑紫에서 죽었다. 『新撰姓氏錄』에

는 자전황자(茨田皇子; 마무타노미코)라고 한다. 소아대신도목숙네(蘇我大臣稻目宿禰; 소가노오호오미이나메노스쿠네)의 딸 석촌명(石寸名; 이시키나)을 세워 빈(嬪)으로 삼았다. (석촌명은) 전목황자(田目皇子; 타메노미코)¹⁸[또한 풍포황자(豐浦皇子; 토유라노미코)¹⁹라고 한다.]를 낳았다. 갈성직반촌(葛城直磐村; 카즈라키노아타히히하무라)²⁰의 딸 광자(廣子; 히로코)는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들은 마려자황자(麻呂子皇子; 마로코노미코)²¹라고 하는데, 이는 당마공(當麻公; 타기마노키미)²²의 시조다. 딸은 초향수희황녀(酢香手姬皇女; 스카테히메노미코)라고 하는데, 3대에 걸쳐 일신(日神)을 받들었다.

여름 5월에 혈수부황자(穴穗部皇子; 아나호베노미코)²³가 취옥희황후(炊屋姬皇后; 카시키야히메노키사키)²⁴를 범하려고, 스스로 빈궁(嬪宮)에 들어갔다. 총신(寵臣)인 삼륜군역(三輪君逆; 미와노키미사카후)²⁵이 병위(兵衛)²⁶를 불러 궁문(宮門)²⁷

서는 登美眞人の始祖로 되어 있다.

17 『新撰姓氏錄』에는 蛭淵眞人の始祖로 되어 있다.

18 用明의 첫째 아들이며 多米王으로도 표기한다. 父王인 用明 사후에 義母인 穴穗部間人皇后와 혼인하였다.

19 豐浦는 飛鳥 甘檜丘의 북쪽, 飛鳥川의 서쪽 지역을 말한다. 주변에 豐浦寺跡·小墾田宮跡 등이 전한다. 蘇我蝦夷가 豐浦大臣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므로, 蘇我氏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 『上宮法王帝說』에는 葛木當麻倉首比里古의 딸 伊比古郎女, 用明記에는 當麻倉首比呂의 딸 飯之子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1 『古事記』 用明段 및 『日本書紀』 推古天皇 11년(603) 4월조에는 當麻皇子로 되어 있다.

22 『新撰姓氏錄』에는 當麻眞人이 用明天皇의 황자 鷹古王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다.

23 欽明天皇의 아들이며, 이 사건은 『日本書紀』 敏達天皇 14년 8월조에 보인다.

24 敏達天皇의 皇后이자, 推古天皇이다.

25 敏達天皇의 寵臣이었다.

26 궁중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말한다. 다만 兵衛는 天武天皇 때 정해진 제도라고 하므로

을 엄중히 하여²⁸,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혈수부황자가 “누가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병위가 “삼륜군역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일곱 번 문을 열라고 호령하였으나, 끝내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혈수부황자가 대신(大臣)과 대련(大連)²⁹에게 “역(逆; 사카후)이 몹시 무례하다. 그는 빈정(殯庭)에서 ‘조정을 어지럽히지 않고 거울³⁰의 앞면처럼 깨끗하게 하여, 신은 태평하게 다스려지도록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조사를 읽었다. 즉 이는 무례한 것이다. 지금 천황의 자제(子弟)가 많이 있고, 두 대신도 조정을 섬기고 있다. 어찌 멋대로 오로지 봉사하겠다고 말하는가. 또한 내가 빈소 안을 보려고 하는데,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몹소 문을 열라고 호령하여도 일곱 번이나 듣지 않았다. 원컨대 그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두 대신은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혈수부황자는 몰래 천하의 왕이 되는 일을 꾀하여, 구실을 만들어 역군(逆君; 사카후노키미)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반여(磐餘)의 지변(池邊)을 포위하였다. 역군이 그것을 알고, 삼제약(三諸岳; 미모로노위카)³¹에 숨었다. 그리고 이 날 밤중에 몰래 산으로부터 빠져나가서, 후궁(後宮)³²에 숨었

후대의 용어에 의한 윤색이다. 율령제의 병위는 6위 이하 8위 이상의 嫡子로 21세 이상인 자와 郡司의 자제로서 弓馬에 능한 자로 충원하였으며, 左右兵衛府에 각각 4백 명씩 소속되어 있었다. 『日本書紀』 敏達天皇 14년(585) 8월조에서는 殯을 隼人이 지키게 하였다.

- 27 殯宮의 문이다. 敏達天皇의 궁 자체가 殯宮으로 쓰였다면 궁문과 빈궁의 문은 일치한다.
 28 원문은 重璫이다. 엄중하게 막는다는 뜻이다. 璫은 珪의 원자이고, 璫과 통한다. 鎖는 鎖와 같다. 쇠사슬 혹은 잠근다는 뜻이다.
 29 蘇我馬子와 物部守屋이다.
 30 원문은 鏡面이다.
 31 三輪山을 가리키며 三輪君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32 敏達皇后의 궁을 말한다.

다[취옥희황후(炊屋姫皇后)의 별업(別業)³³을 말한다. 이곳은 해석류시궁(海石榴市宮; 츠바키이치노미야)³⁴이라고 한다.], 그런데 역(逆)의 일족³⁵인 백제(白堤; 시라츠즈미)와 횡산(横山; 요코야마)이 역군(逆君)이 있는 곳을 알렸다. 혈수부황자는 즉시 수옥대련(守屋大連; 모리야노오무라지)[어떤 책(或本)에는 혈수부황자와 박뢰부황자(泊瀨部皇子; 하츠세노미코)³⁶가 서로 의논하여 수옥대련을 보냈다고 한다.]을 보내어 “너는 가서 역군과 그 두 명의 자식을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대련은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는 밖에서 이러한 계책을 듣고, 황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곧 문 앞에서 만났다[황자의 집 문을 말한다.], (황자는) 대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때 “왕은 죄지은 사람³⁷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몸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황자는 듣지 않고 갔다. 마자숙네(馬子宿禰; 우마코노스쿠네)는 곧 다시 따라가서 반여(磐餘)에 이르러서도[어떤 책에는] 가서 지변(池邊)에 이르렀다.] 간절히 간언하였다. 황자가 이에 간언에 따라 멈추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호상(胡床)에 앉아서 대련을 기다렸다. 이후 한참 지나서 대련이 도착하였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역(逆) 등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어떤 책에서는 혈수부황자가 스스로 활로 쏘아 죽였다고 한다.], 이에 마자숙네가 슬퍼하며 “천하가 머지않아 어지러워질 것이다.”라고 탄식하였다. 대련이 듣고 “너는 소신(小臣)³⁸이어서 알 수 없는 바이다.”라고 대답하였다[삼륜군역은 역어전천황(譯語田天皇; 위사타노스메라미코토)³⁹

33 別莊을 뜻한다.

34 현재 櫻井市 金屋에 있던 궁이다. 海石榴는 동백나무를 말한다. 이곳에 海石榴市라고 하는 市場이 있어서 물자의 교환을 비롯하여 형벌의 집행 등을 행하였다.

35 원문은 同姓이다.

36 穴穂部皇子의 同母弟로 후에 崇峻天皇이 된다.

37 원문은 刑人이다.

38 大臣인 蘇我馬子宿禰를 희롱하는 표현이다.

39 譯語田幸玉宮에 거처하였던 敏達天皇을 말한다.

의 충애를 입어, 내외의 모든 일을 맡았다. 취옥희황후와 마자숙네는 이로 말미암아 모두 혈수부황자를 원망하였다.],

이 해의 간지는 병오이다.

2년 여름 4월 을사삭 병오(2일)에 반여(磐餘)의 강가에서 신상제⁴⁰를 지냈다. 이 날 천황이 병을 얻어서 궁에 돌아오니 군신(群臣)들이 모였다. 천황은 군신에게 “짐은 삼보(三寶)에 귀의하고자 생각한다. 경들은 이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군신들은 입조하여 의논하였다.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과 중신승해련(中臣勝海連; 나카토미노카즈미노무라지)은 천황의 명과는 달리 “어찌 국신(國神)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소아마자숙네대신(蘇我馬子宿禰大臣)은 “천황의 명에 따라서 도와야 합니다.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제황자(皇弟皇子)[황제황자라고 말한 것은 혈수부황자, 즉 천황의 서제(庶弟)이다.]는 풍국법사(豐國法師)[이름이 빠졌다.]⁴¹를 데리고 내리(內裏)로 들어갔다. 물부수옥대련은 노려보면서 크게 화냈다. 이때 압반부사모시(押坂部史毛屎; 오시사카베노후비토케쿠소)⁴²가 급히 돌아와서 은밀히 대련(大連)에게, “지금 여러 신하들이 경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장차 귀로를 차단할 것입니다⁴³.”라고 말하였다. 대련은 듣고 곧 아도(阿都; 아토)⁴⁴로 물러나서[아도는 대련의 별업(別業)이 있는 곳

40 원문은 新嘗이다.

41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法師라는 호칭이 처음 보인다.

42 『坂上系圖』에 인용된 『新撰姓氏錄』의 逸文에 응신천황대에 귀화한 漢人 중 李姓을 가진 자가 刑部史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押坂은 지명으로 櫻井市 忍坂이다.

43 物部守屋大連의 퇴로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다.

44 河內國 澁川郡 跡部郷으로 지금의 大阪府 八尾市 跡部이다. 大和川이 生駒山을 지나 河內로 흘러 들어가는 北岸으로, 교통의 요지에 해당한다.

의 지명이다.] 사람을 모았다. 중신승해련은 집에 무리를 모아서 대련을 쫓아가 도왔다. 그리고 태자 언인황자(彦人皇子; 히코히토노미코)⁴⁵의 상과 죽전황자(竹田皇子; 타케타노미코)⁴⁶의 상을 만들어 저주하였다⁴⁷. 그런데 갑자기 일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수파궁(水派宮; 미마타노미야)⁴⁸으로 돌아와서 언인황자(彦人皇子)에게 귀부하였다[水派는 미마타(美麻多)라고 읽는다.], 사인(舍人) 적견적도(迹見赤禰; 토미노이치히)[적견은 성이고, 적도는 이름이다. 赤禰는 이치히(伊知毗)라고 읽는다.]⁴⁹는 승해련(勝海連; 카츠미노무라지)이 언인황자의 처소에서 물러나기를 엿보다가 칼을 빼어 죽였다. 대련(大連)은 아도(阿都)의 집에서 물부팔판(物部八坂; 모노노베노야사카)과 대시조소판(大市造小坂; 오호치노미야즈코워사카), 칠부조형(漆部造兄; 누리베노미야즈코아니)⁵⁰을 시켜서 마자대신(馬子大臣)에게 “나는 여러 신하들이 나를 노린다는 책모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말하였다. 마자대신은 곧 토사팔도련(土師八嶋連; 하지노야시마노무라지)⁵¹을 대반비라부련(大伴毗羅夫連; 오호토모노히라부노무라지)⁵²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자

45 敏達天皇의 황후 廣姬의 아들인 押坂彦人大兄皇子이다. 그가 太子였다는 것은 이 기사에 서만 보인다.

46 敏達天皇과 황후 炊屋姬의 아들이다.

47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을 만들어 이를 훼손함으로써 저주하는 것이다.

48 『日本書紀』 무열천황 3년 11월조에서 水派邑을 城上이라고 부른 점으로 보아 大和國 廣瀨郡 城戶郷, 지금의 北葛城郡 廣陵町 大塚으로 생각된다.

49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에 迹見首로 보인다. 『新撰姓氏錄』 和泉皇別에는 登美首가 보이며, 『續日本紀』 和銅 7년(714) 11월조에 大和國 添下郡 登美鳥見莊이 보인다. 현재 奈良市 富雄元町, 櫻町市에 鳥見山이 있다.

50 漆部造는 大和國 宇陀郡 漆部郷(지금의 宇陀郡 曾爾村) 등을 본거지로 하는 漆部の 伴造氏이다.

51 八島는 이름일 수도 있고, 土師氏의 複姓일 수도 있다. 大和國 添上郡에 八島郷이 있다. 土師聯은 出雲系 씨족으로서 원래 土師器라는 토기와 관련된 집단으로, 대대로 喪葬에 관련된 일을 맡았다.

52 여기에서만 보인다. 毗羅夫는 猿田彦이 比良夫貝에 손이 끼어서 빠져 죽었다는 조개의

세하게 대련(大連)의 말을 알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비라부련(毗羅夫連; 히라부노무라지)은 손에 활과 화살·가죽방패를 들고 규곡(槻曲; 츠키쿠마)⁵³의 집으로 가서 밤낮으로 물러나지 않고 대신(大臣)을 호위하였다[규곡(槻曲)의 집은 대신의 집이다.]. 천황의 두창(痘瘡)⁵⁴은 점차 심해졌다. 장차 죽으려고 할 때, 안부다수내(鞍部多須奈; 쿠라츠클리노타스나)[사마달등(司馬達等)의 아들이다.]⁵⁵가 나아가서 “신은 천황을 위하여 출가해서 수도하겠습니다. 또 장육(丈六) 불상 및 절을 지어 바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은 이 때문에 슬프게 울었다. 지금 남연(南淵; 미나부치)⁵⁶의 판전사(坂田寺; 사카타테라)⁵⁷의 나무로 만든 장육불상(丈六佛像)⁵⁸과 협시보살(挾侍菩薩)⁵⁹이 그것이다.

계축(9일)에 천황이 대전(大殿)에서 죽었다(崩)⁶⁰.

가을 7월 갑술삭 갑오(21일)에 반여지상릉(磐餘池上陵; 이하레노이케노베노미사자키)에 장사지냈다.

명칭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53 위치를 알 수 없다.

54 원문은 瘡이다. 痘瘡, 즉 천연두로 생각된다. 당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천연두가 유행하였고, 이를 國神의 저주라고 생각하였다.

55 유명한 佛師인 鞍作鳥의 아버지이다. 승준천황 3년(590)에 출가하여 德齊法師가 되었다.

56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있는 南淵山 일대로 생각된다. 현재 稻淵(이나부치)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57 현재 明日香村 坂田에 金剛寺가 있는데, 坂田寺의 法燈을 잇고 있다고 한다. 그 북쪽에 坂田寺址로 생각되는 유적이 있다.

58 부처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2배라는 불교 교리에 따라 1장 6척으로 조성한 불상을 말한다.

59 본존불의 좌우에 모신 보살을 말한다. 挾侍·脇侍·脇土라고도 한다.

60 『古事記』 崇峻段에서는 정미년 4월 15일에 죽었다고 하였다. 죽을 때 나이는 41세 혹은 69세라는 전승이 있다.

박뢰부천황(泊瀨部天皇; 하츠세베노스메라미코토) **송준천황**(崇峻天皇; 스순텐노)⁶¹

박뢰부(泊瀨部; 하츠세베)천황은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아메쿠니노 시하라키노히로니하노스메라미코토)⁶²의 열두째 아들로, 어머니는 소자군(小姉君; 워아네노키미)이다[도목숙네(稻目宿禰; 이나메노스쿠네)의 딸이다. 이미 앞의 글에 나왔다.].

2년 여름 4월에 곱풍일천황(橘豐日天皇; 타치바나노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⁶³이 죽었다(崩).

5월에 물부대련(物部大連;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의 군세가 (사람들을) 세 번 놀라게 하였다⁶⁴. 대련(大連)은 본래 다른 황자들을 제거하고 혈수부황자(穴穗部皇子; 아나호베노미코)를 천황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사냥을 기회삼아 웅립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혈수부황자에게 보내어 “원컨대 황자와 함께 담로(淡路; 아하지)에서 말을 달리며 사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음모가 누설되었다.

61 제32대 천황(재위: 587~592)이다. 欽明天皇과 蘇我市姉君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敏達天皇, 用明天皇, 推古天皇의 異母弟이다. 穴穗部皇子를 지지하는 物部守屋과의 대립 속에서 蘇我馬子の 추천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穴穗部皇子와 物部守屋은 蘇我馬子에 의하여 토멸된다. 한편 불교 公傳 이래 蘇我氏와 物部氏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崇佛 排佛論의 대립이 종결되고, 본격적으로 사찰의 조영이 시작된다. 그러나 蘇我馬子の 전횡에 불만을 품은 채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죽은 그 날에 능에 묻힌 것으로 전한다. 崇峻의 행적보다는 즉위하기 전에 蘇我馬子が 穴穗部皇子 및 物部守屋을 제거하는 과정과 승려의 출가, 사찰의 건립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崇峻紀의 특징이다.

62 欽明天皇이다. 崇峻은 欽明의 15명의 아들 중 열두째이며, 어머니는 蘇我稻目の 딸인 小姉君으로 다섯째 아들이다.

63 用明天皇이다. 崇峻는 用明의 매다른 동생이다.

64 『元興寺緣起』에서는 ‘天皇의 薨을 세 차례 놀라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用明天皇의 상 기간 중에 휘하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6월 갑진삭 경술(7일)에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 등이 취옥희존(炊屋姬尊; 카시키야히메노미코토)⁶⁵을 받들어 좌백련단경수(佐伯連丹經手; 사헤키노무라지니후테)⁶⁶, 토사련반촌(土師連磐村; 하지노무라지이후무라)⁶⁷, 적신진교(的臣眞嚙; 이쿠하노오미마쿠히)⁶⁸에게 “너희들은 병사를 갖추어 속히 가서 혈수부황자와 택부황자(宅部皇子; 야카베노미코)⁶⁹를 주살하라.”고 명하였다. 이 날 밤중에 좌백련단경수 등이 혈수부황자의 궁을 에워쌌다. 이때 위사(衛士)가 먼저 망루 위에 올라 혈수부황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황자는 망루 아래로 떨어져서 옆 건물로 달려 들어갔다. 위사 등이 횃불을 들고 찾아서 그를 죽였다.

신해(8일)에 택부황자를 죽였다[택부황자는 회외천황(檜隈天皇; 히노쿠마노스메라미코토)⁷⁰의 아들이자 상여왕(上女王; 카미즈히메노오호키미)의 부친이다. 자세히 알 수 없다.], 혈수부황자와 친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갑자(21일)에 선신아니(善信阿尼; 켄신노아마)⁷¹ 등이 대신(大臣)에게 “출가(出家)의 법도는 계를 받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원컨대 백제로 가서 수계법(受戒法)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⁷².

65 用明天皇의 皇后이며, 崇峻 사후에 推古天皇으로 즉위하여 최초의 여성 천황이 되었다.

66 『聖德太子傳曆』에 蘇我大臣이 佐伯連丹經綱手 등을 이끌고 血太부황자를 죽이고자 하였는다는 기록이 보일 뿐 자세히 알 수 없다. 丹, 經은 綱의 誤字 내지 通用字로 생각된다.

67 여기에서만 보인다.

68 여기에서만 보인다. 的臣은 『日本書紀』 仁德天皇 12년 8월조 등 참조.

69 아래 내용에서 宣化天皇의 아들로 보이지만, 宣化紀에는 보이지 않는다. 『聖德太子傳曆』 및 『扶桑略記』에는 穴太部皇子和 宅部皇子가 用明의 형제로 되어 있다.

70 宣化天皇이다.

71 司馬達等の 딸이며 이름은 嶋이다. 출가한 사정은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584) 시제조에 보인다. 阿는 친근한 감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72 『元興寺緣起』에 「時三尼等官白, 傳聞出家之人以戒爲本, 然無戒師, 故度百濟國欲受戒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달에 백제의 사신이 내조(來朝)하였다. 대신(大臣)이 사신에게 “이 비구니들을 이끌고 너희 나라로 건너가서 계법(戒法)을 익히도록 하라. 일을 마치면 돌려보내라.”고 말하였다⁷³. 사신이 “신 등이 귀국하여 먼저 국왕⁷⁴께 말씀드린 후에 보내셔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가을 7월에 소아마자숙네대신(蘇我馬子宿禰大臣)이 여러 황자와 군신(群臣)에게 권하여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을 멸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박퇴부황자(泊瀨部皇子; 하츠세베노미코)⁷⁵, 죽전황자(竹田皇子; 타케다노미코)⁷⁶, 구호황자(厩戸皇子; 우마야도노미코), 난파황자(難波皇子; 나니하노미코)⁷⁷, 춘일황자(春日皇子; 카스가노미코)⁷⁸, 소아마자숙네대신(蘇我馬子宿禰大臣)⁷⁹,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 키노워마로노스쿠네), 거세신비량부(巨勢臣比良夫; 코세노오미히라부)⁸⁰, 선신하타부(膳臣賀狹夫; 카시하데노오미카타부), 갈성신오나라(葛城臣烏那羅; 카즈라키노오미위나라)⁸¹가 모두 군대를 이끌고 대련(大連)을 토벌하러 나아갔다. 대반련

73 『元興寺緣起』에 「丁未年百濟客來, 官問言, 此三尼等欲度百濟國受戒, 是事應云何耶, 時蕃客答曰, 尼等受戒法者尼寺之法, 先請十尼師, 受本戒已, 即詣法師寺請十法師, 先尼師十合廿師所受本戒也, 然此國者, 但有尼寺, 無法師寺及僧, 尼等若爲如法者, 設法師寺, 請百濟國之僧尼等, 可令受戒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74 원문은 國主이다.

75 崇峻天皇이다.

76 敏達天皇과 推古天皇 사이의 아들이다.

77 敏達天皇의 황자이다.

78 難波皇子의 同母弟이다.

79 蘇我稻目の 아들이며, 用明의 嬪인 石寸名, 欽明의 妃인 堅鹽媛(崇峻의 母)의 남동생이다. 그는 蘇我氏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80 여기에서만 보인다.

81 『日本書紀』 승준천황 4년(591) 11월조에 烏奈良, 『聖德太子傳曆』에 小樽으로 보인다. 葛城臣은 武内宿禰를 시조로 하는 씨족으로 大和國 葛城을 본거지로 하는 고대의 大豪族이었다. 蘇我氏 이전에 王妃를 배출하는 등 유력한 씨족이었으며, 葛城襲津彦은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교(大伴連嚙; 오호토모노무라지쿠히)⁸², 아배신인(阿倍臣人; 아베노오미히토)⁸³, 평균신신수(平群臣神手; 해구리노오미카무테)⁸⁴, 판본신강수(坂本臣糠手; 사카모토노오미아라테)⁸⁵, 춘일신(春日臣; 카스가노오미)[이름이 빠졌다.]⁸⁶은 모두 군병(軍兵)을 이끌고 지기군(志紀郡; 시키노코호리)⁸⁷으로부터 삼하(澁河; 시부노카와)⁸⁸의 집에 이르렀다.

대련(大連)은 직접 자제(子弟)와 사병[奴軍]⁸⁹을 이끌고 도성(稻城)⁹⁰을 쌓아서 싸웠다. 이때 대련이 의해(衣摺; 키누스리)⁹¹의 후박나무⁹² 가지 사이에 올라 화

82 嚙는 昨·昨子로도 표기한다. 6세기 후반에 군사·외교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였다. 『尊卑分脈』에서는 藤原鎌足の 외조부로, 『大伴系圖』에는 大化改新期の 右大臣 長徳의 아버지로 되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승준천황 4년(591) 신라 정벌을 위해 筑紫에 출병하였다가 추고천황 3년(595)에 돌아왔으며, 추고천황 9년에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이듬해 백제를 거쳐 귀국하였다. 16년에는 수나라 사신 裴世清을 응대하였다.

83 여기에서만 보인다.

84 『聖徳太子傳曆』에 阿倍臣 등으로 보인다.

85 『聖徳太子傳曆』에 坂本糖手로 보이는데, 糖은 糠의 誤字로 생각된다. 추고천황 9년(601) 3월에 백제에 파견되었다가 다음해 6월에 귀국하였다.

86 春日臣仲君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日本書紀通釋』).

87 河内國의 郡名이며 현재 大阪府 藤井寺市 美陵町, 八尾市 남부 등의 지역에 해당한다.

88 河内國 澁川郡으로 현재 大阪府 東大阪市 衣摺 지역이다. 주변인 大阪府 八尾市 太子堂의 大聖勝軍寺에는 物部守屋의 墓가 있다. 太子堂이라는 지명 역시 物部守屋과 싸우던 聖徳太子가 四天王寺를 세우겠다고 발원하고, 難波의 四天王寺와 함께 건립한 것이라고 전한다.

89 物部守屋이 사유한 예속민들을 뜻한다. 奴라고 하였지만 奴婢와는 성격이 다르며, 物部氏が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속민들로 후에 民部·家部로 불리게 된다. 그 중 民部는 율령제 속에서 公民으로 파악되었고, 家部는 예속민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90 벼 이삭을 쌓아 성을 만든 것으로 『日本書紀』 수인천황 5년 10월조에도 나온다.

91 河内國 澁川郡의 지명으로 현재 大阪府 八尾市에 澁川町이 있고 바로 이웃하여 東大阪시에 衣摺(키누스리)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92 원문은 차이고 일본 훈으로는 ‘에노키’로 되어 있다. 에노키는 팽나무를 뜻한다. 차은 ‘호오노키’로도 읽히는데, 이는 일본목련, 떡갈후박, 왕후박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후

살을 비 오듯이 쏘았다. 그의 군대가 강성하여 집에 가득하였고, 들판에 넘칠 정도였다. 황자들의 군대와 군신(群臣)들의 병사들은 겁을 먹고 무서움에 떨면서 세 번이나 퇴각하였다.

이때 구호황자가 이마에 속발(束髮)을 하고[옛 풍속에 나이가 어린 아이가 15~16세가 되면 이마에 속발을 하고 17~18세이면 나누어 각자(角子)⁹³를 하였다. 지금도 또한 그렇다.] 군대의 뒤에서 스스로 헤아려 보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기원하지 않고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백교목[白膠木은 누리테(農利泥)라고 읽는다.]⁹⁴을 잘라내어[斷]⁹⁵ 급히 사천왕상(四天王像)⁹⁶을 만들어 정수리에 올리고 “지금 만약 우리가 적을 이기도록 하여 주시면 반드시 호세천황(護世四王)⁹⁷을 위하여 절과 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소아마자대신(蘇我馬子大臣)도 또한 “무릇 제천왕(諸天王)과 대신왕(大神王)⁹⁸께서 나를 도와 지키시고 승리의 기회를 잡게 해주신다면 원컨대 제천(諸天)과 대신왕을 위해서 절과 탑을 세우고, 삼보(三寶)를 널리 통하게 하겠습니다.”라

박나무로 번역하였다.

93 머리카락을 중앙으로 가르마를 타고 좌우로 나누어서 귀 위에 둥글게 말아서 묶어 올린 형태를 말한다. 앞에서 보면 두 개의 뿔이 난 것처럼 보여 角卍, 角髮, 角子, 總角 등으로 표기한다.

94 불나무, 불나무, 오배자나무, 뿔나무, 굴나무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학명은 *Rhus javanica*). 진딧물이 기생하여 벌레집을 만드는데 이를 오배자라고 하며, 염색이나 잉크의 재료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이 나무의 즙을 불단에 바르거나, 목재를 불상의 心木으로 사용하였다.

95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다.

96 『金光明經』·『最勝王經』 등에 보이는 四天王을 말한다. 동방은 持國天王, 서방은 廣目天王, 북방은 多聞天王, 남방은 增長天王이다.

97 護國四天王이라고도 하며 四天王을 말한다.

98 『金光明經』에 이 불경을 가진 자는 大弁天神, 尼連河神, 鬼子母神, 地神堅牢大梵尊天, 三十三天, 大神龍王 등이 옹호해 준다고 하였다.

고 맹세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여러 병기를 갖추어 나아가 토벌하였다.

이에 직견수적수(迹見首赤耨; 토미노오비토이치히)가 화살을 쏘아 대련(大連)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고, 대련과 그의 아들 등을 죽였다. 이로 인해 대련의 군대는 갑자기 스스로 무너졌다. 군사들은 모여 모두 조의(阜衣)⁹⁹를 입고 광뢰(廣瀨; 히로세)의 구원(勾原; 마가리노하라)¹⁰⁰에서 사냥하듯 흩어졌다. 이 전쟁에서 대련의 자식과 권속(眷屬)들 중 어떤 자는 갈대밭으로 달아나 숨고 성(姓)을 같고 이름을 바꾸는 자가 있었고, 어떤 자는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소아대신(蘇我大臣)의 처(妻)가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의 누이이다¹⁰¹. 대신(大臣)이 망령되어 처의 계락을 써서 대련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섭진국(攝津國; 세츠노쿠니)에 사천왕사(四天王寺)¹⁰²를 짓고, 대련의 노비 절반과 집을 나누어 대사(大寺)의 노비와 전장(田莊)¹⁰³으로 삼았다. 그리고 논 1만 경(頃)¹⁰⁴을 직견수적도(迹見首赤耨)에게 주었다. 소아대신(蘇

99 도토리코 물을 들인 검은색 옷을 말한다. 律令에서는 家人과 奴婢의 옷으로 규정하고 있다.

100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廣瀨郡 勾郷이 보이지만 현재는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101 『日本書紀』에서는 蘇我馬子の 처가 物部守屋의 누이라고 되어 있고, 『紀氏家牒』 등에는 物部守屋의 누이 太媛으로 되어 있다.

102 『日本書紀』 추고천황 원년(593) 시세조에 荒陵에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推古 31년에는 신라에서 보내온 舍利, 金塔, 灌頂幡 등을 四天王寺에 봉납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므로, 推古 말년에 현재의 위치에 대체로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탑과 금당을 남북으로 배열하고, 남쪽의 中門에서 북쪽의 講堂까지 回廊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四天王寺式 배치를 하고 있다.

103 호족이나 사찰의 사유지를 말한다. 이 토지를 奴婢나 部曲(家部·家人)을 부려 경작토록 하여, 경제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104 頃은 원래 중국의 토지 면적 단위로 100畝에 해당한다. 畝는 원래 밭의 이랑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100개의 이랑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에는 이랑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고, 대신 代(시로)라고 하여 1束의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뜻하는 단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頃이

我大臣)도 또한 원래 기원한대로 비조(飛鳥; 아스카)의 땅에 법흥사(法興寺)¹⁰⁵를 세웠다.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의 자인(資人)¹⁰⁶ 포조부만(捕鳥部萬; 토토리베노요로즈)[만(萬)은 이름이다.]¹⁰⁷은 1백 인을 이끌고 난파(難波; 나니하)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대련(大連)이 패망하였다는 것을 듣고 말을 타고 밤에 달아나 모정현(茅渟縣; 치누노아가타)¹⁰⁸ 유진향읍(有眞香邑; 아리마카무라)¹⁰⁹으로 향하

라고 쓰고 '시로'라고 읽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의 토지 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頃이란 한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려의 도량형제가 들어오면서 고려적 5척 사방(1步)을 다섯 개 합친 면적을 1대(5步)라고 하였다. 步는 시대에 따라 5尺 혹은 6尺이 되었고, 尺 역시 23~30cm로 변화하므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어렵다. 隋代에는 1步가 길이로는 1.77m, 면적으로는 3.14㎡에 해당하였다.

105 元興寺라고도 하며 현재 飛鳥寺로 불린다. 587년에 蘇我馬子が 物部守屋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발원하여 609년에 완성하였다. 다만 『元興寺緣起』에는 善信尼 등이 수계를 하고자 백제로 건너가려 하였고, 백제의 사신들은 일본에 尼寺는 있으나 僧寺(法師寺)가 없으니 승사를 짓고 백제의 승려를 초빙하여 수계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用明天皇이 聖德太子 등에게 명하여 절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588년에 백제에서 승려와 寺工, 露盤博士, 瓦博士, 畫工 등을 파견하였고, 飛鳥의 眞神原에 있던 飛鳥衣縫造的 조상 樹葉의 저택을 부수고 법흥사 조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한다. 590년에 법흥사를 지을 목재를 벌채하였고, 592년에 佛堂과 步廊을 짓기 시작하였다. 593년(추고천황 원년)에는 찰주 기초 가운데 불사리를 안치하고 찰주를 세웠다. 596년에는 법흥사의 조영을 마치고 백제의 승려를 머물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탑이 완성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605년에 鞍作鳥가 석가삼존상의 조립을 발원하였고, 608년에 수의 사신 裴世清이 가져온 황금을 이용하여 609년에 불상을 완성하였다. 蘇我氏 本宗家の 멸망 이후에도 법흥사에 대한 신앙은 두터워서 文武天皇 시대에 大官大寺, 川原寺, 藥師寺와 더불어 四大寺의 寺格을 유지하였다.

106 物部守屋의 近侍者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資人은 귀족을 近侍하는 시종에 대한 율령제의 용어이다.

107 여기에서만 보인다. 捕鳥部는 鳥取造가 관장하는 品部로 새를 잡아 천황에게 바치는 일을 맡은 집단으로 보인다.

108 이곳은 원래 천황의 직할지였던 곳이다. 『日本書紀』 安閑天皇 원년 10월조 참조.

109 『延喜式』 神名式에 보이는 阿里莫神社의 소재지로 생각된다. 현재 貝塚市 동북부 및 岸

였다. 그리고 처의 집을 지나서 결국 산에 숨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 “만(萬)은 역심(逆心)을 품었으므로 산속에 숨었다. 빨리 멸족해야 하니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의논하였다. 만은 옷이 찢어지고 형색이 초췌해졌지만, 활을 잡고 검을 차고 홀로 스스로 나왔다. 유사(有司)가 수백 명의 위사(衛士)를 보내어 만을 포위하자 만은 놀라 대나무숲으로 숨어 밧줄로 대나무를 매어서 끌고 다니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들어간 곳을 헛갈리게 하였다. 위사들이 속아서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달려가서 “만이 여기 있다.”고 말하자 만은 곧바로 활을 쏘았는데, 한 발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위사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자 만은 곧 활시위를 풀어 겨드랑이에 끼고 산으로 달아났다. 위사들이 곧 강을 끼고 따라가 추격하며 활을 쏘았으나 모두 맞출 수 없었다. 이에 한 위사가 빨리 달려 만을 앞질러서 강가에 엎드려 활을 겨누고 무릎을 맞추었다. 만은 곧 화살을 빼서 활을 당겨 쏘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만은 천황의 방패가 되어 용맹함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죄상을 신문당하고, 도리어 이런 궁지에 몰려 핍박받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할 자는 오라. 원컨대 죽일지 사로잡을지를 듣고 싶다.”고 소리쳤다. 위사들이 다투어 달려오며 만을 쏘자, 만이 곧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30여 인을 죽였다. 또한 가지고 있던 칼로 그의 활을 세 토막으로 자르고 그 검을 다시 구부려 강물 속에 던지고 다른 칼¹¹⁰로 목을 찔러 죽였다. 하내국사(河内國司)가 만이 죽은 상황을 조정에 보고[牒]하니¹¹¹ 조정은 명령[符]¹¹²을 내려 “여덟 토막으로 참하여 여덟 나라에 나누어 효시하라.”고

和田市 서남부 지역이다.

110 단검을 말한다.

111 율령제에서 내외관인 중 主典 이상이 각 관사에 신청할 때 혹은 통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다.

112 律令制에서 上官이 下官에게 내리는 문서형식으로, 대표적으로 太政官이 내리는 官府, 각 省이 내리는 省符 등이 있다.

명하였다. 하내국사가 곧 그 명령대로 참하여 효시하니, 벼락이 치고 큰 비가 내렸다. 이때 만이 기르던 흰 개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신의 옆에서 울었다. 그리고 곧 그 머리를 물어서 거두어 오래된 무덤에 두고 옆에 누워서 굶어 죽었다. 하내국사가 그 개를 기이하다고 여겨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 슬퍼서 차마 듣지 못하였다. 명령을 내려 “그 개는 세상에서 보기 드물구나. 가히 후세까지 볼 만하다. 만의 일족으로 하여금 묘를 만들고 장사지내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만의 일족은 유진향읍에 나란히 묘를 만들어서 만과 그 개를 장사지냈다.

하내국사가 “이향천(餌香川; 웨가노카하)¹¹³ 강가에서 참형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헤아려보니 수백 명이 됩니다. 머리와 몸이 이미 문드러져서 성(姓)과 이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옷 색깔로 몸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애정전부련담정(櫻井部連膽滄; 사쿠라위노타베노무라지이누)¹¹⁴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그 시신의 몸과 머리를 물어다 놓고 옆에 엎드려 굳게 지켰습니다. 그 주인(의시신)을 수습하니 곧 일어나 가버렸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8월 계묘삭 갑진(2일)에 취옥희존(炊屋姬尊)이 군신(群臣)과 더불어 천황에게 권하여 천황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를 대신(大臣)으로 삼은 것은 전과 같았다. 경(卿)과 대부(大夫)¹¹⁵의 자리도 또한 전과 같았다.

이 달에 창제(倉梯; 쿠라하시)¹¹⁶에 궁을 지었다.

113 河内國 古市郡(현재의 大阪府 羽曳野市)의 惠我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日本古典文學大系本). 石川郡에서 발원하는 石川을 古市郡에 이르러 惠我川이 되고, 다시 志紀郡을 거쳐 大和川으로 합류한다고 하여 石川을 惠我川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惠我라는 지명은 松原市 西除川 바로 옆에 남아 있다.

114 여기에서만 보인다.

115 大臣과 大連 아래에 위치하는 의정관들을 말하며 ‘마에즈키미’라고 읽는다.

원년 봄 3월에 대반강수련(大伴糠手連; 오호토모노아라테노무라지)¹¹⁷의 딸 소수자(小手子; 코테코)¹¹⁸를 세워 왕비로 삼았다. 봉자황자(蜂子皇子; 하치노코노미코)와 금대황녀(錦代皇女; 니시키테노히메미코)를 낳았다.

이 해에 백제국이 사신과 승려 혜총(惠總)¹¹⁹·영근(令斤)¹²⁰·혜식(惠寔)¹²¹ 등을 보내어 불사리(佛舍利)를 바쳤다. 백제국이 은솔(恩率) 수신(首信)¹²², 덕솔(德率) 개문(蓋文)¹²³, 나솔(那率) 복부미신(福富味身)¹²⁴ 등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아울러 불사리와 승려 영조율사(聆照律師)¹²⁵, 영위(令威)¹²⁶, 혜중(惠衆)¹²⁷, 혜숙(惠宿), 도엄(道嚴)¹²⁸, 영개(令開)¹²⁹ 등과 사공(寺工) 태랑미태(太良未太)¹³⁰와 문

116 『古事記』에는 倉桺柴垣宮이라고 하였다. 현재 櫻井市 倉橋(쿠라하시)로 추정된다.

117 『日本書紀』 민달천황 12년(583) 시세조에는 大伴糠手子連으로 보인다.

118 『日本書紀』 승준천황 5년(592) 11월조에는 大伴嬪小手子로 보인다. 妃와 嬪은 지위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

119 『元興寺緣起』에는 「次棕攝天皇治下時，戊申年送六口僧，名令照律師弟子惠怱，令威法師弟子惠勳，道嚴法師弟子令契及恩卒首眞等四口工人并金堂本樣奉上，今此寺在是也。」라고 하여 惠怱으로 기재되어 있고, 同緣起에 인용된 「塔露盤銘」에는 釋惠聰法師라고 나온다. 한편 『元亨釋書』 卷16 願雜11 古德1에 의하면 崇峻 元年(588) 3월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聖德太子의 스승인 고구려의 惠慈와 함께 三寶의 棟梁으로 추앙받는다. 596년 惠慈와 함께 法興寺에 머물렀다.

120 『元興寺緣起』에는 令契로 나오기 때문에 후문에 나오는 令開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聖德太子傳曆』에서는 令欣이라고 하였다.

121 여기에서만 보인다. 아래 내용의 惠宿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122 『元興寺緣起』에는 恩率 首眞으로 보인다.

123 여기에서만 보인다.

124 여기에서만 보인다. 福富와 味身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25 『元興寺緣起』의 令照律師로 생각된다.

126 『元興寺緣起』의 令威法師이다.

127 위 문장의 惠總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128 『元興寺緣起』의 道嚴法師이다.

129 『元興寺緣起』의 令契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고고자(文賈古子), 노반박사(鑑盤博士)¹³¹ 장덕(將德) 백매순(白昧淳), 와박사(瓦博士)¹³² 마나문노(麻奈文奴)와 양귀문(陽貴文)·능귀문(陵貴文)·석마제미(昔麻帝彌), 화공(畫工) 백가(白加)¹³³를 바쳤다.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는 백제의 승려들을 청하여 수계(受戒)의 법에 대하여 물었다. 그리고 선신니(善信尼) 등을 백제 국의 사신 은술 수신 등에게 딸려서, 학문을 배우도록 파견하였다. 한편 비조 의봉조(飛鳥衣縫造; 아스카노키누누히노미야츠코)의 조상 수엽(樹葉; 코노하)의 집을 부수고, 처음으로 법흥사(法興寺)¹³⁴를 지었다. 이곳의 지명은 비조(飛鳥; 아스카)의 진신원(眞神原; 마카미노하라)이라고 한다. 또한 비조의 점전(苗田; 토마타)이라고도 한다.

이 해의 간지는 무신(戊申)이다.

2년 가을 7월 임진삭(1일)에 근강신만(近江臣滿; 아후미노오미미츠)¹³⁵을 동산도(東山道)¹³⁶의 사신으로 보내어, 하이(蝦夷; 에미시)와의 국경을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육인신안(穴人臣鴈; 시시히토노오미카리)¹³⁷을 동해도(東海道)¹³⁸의 사신

130 인명이 아니고 서역에서 기술자를 뜻하는 일반명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131 탑의 상륜부를 만드는 기술자를 말한다. 목탑 위에는 구리로 만든 상륜부를 올렸으므로, 주물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32 기와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133 『元興寺緣起』에 인용된 「露盤銘」에는 百加로 나온다.

134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元興寺·飛鳥寺라고도 하였다. 이 해에 착공하여 推古 4년에 완성하였다.

135 『聖德太子傳曆』에는 滿이 蒲, 『日本紀略』에도 蒲로 되어 있고, 『日本書紀集解』에서도 蒲를 ‘카마후’라고 읽고, 近江國에 蒲生郡이 있다고 하였다.

136 東山道는 景行紀에서 처음 보이고, 여기서 두 번째로 나타난다. 그러나 道制가 성립된 것은 天武天皇경이므로, 이 용어는 편찬자의 윤색으로 생각된다.

137 穴人臣은 穴人部の 伴造氏族이다. 穴은 肉과 통용되는 글자이며, 穴人部는 새나 짐승의 고기를 조리하는 일을 맡은 집단으로, 후에 內膳司 膳部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으로 보내어, 동쪽 바닷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경계를 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아배신(阿倍臣; 아베노오미)을 북륙도(北陸道)¹³⁹의 사신으로 보내어, 월(越)¹⁴⁰ 등의 국경을 살피도록 하였다.

3년 봄 3월에 학문니(學問尼) 선신(善信) 등이 백제로부터 돌아왔다. 행정사(櫻井寺; 사쿠라위데라)¹⁴¹에 머물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산에 들어가 절에 쓸 재목을 베었다¹⁴².

이 해에 출가한 비구니는 대반협수언련(大伴狹手彦連; 오호토모노사데히코노무

세기경에 확립된 人制는 7세기부터 部制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인다.

138 奈良 지역에서 일본열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東北 지역으로 북상하는 길 혹은 그 도로 상에 위치한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일본어의 고힌은 ‘우미즈미치’ 즉 ‘바다에 연한 길’이라는 뜻이다. 율령제하에서는 伊賀, 伊勢, 志摩, 尾張, 三河, 遠江, 駿河, 伊豆, 甲斐, 相模, 武藏, 安房, 上総, 下総, 常陸國이 이 지역에 포함되었다. 현재도 도로나 철도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9 奈良 지역에서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越 지역까지 북상하는 길 혹은 그 도로 상에 위치한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율령제하에서는 若狹, 越前, 加賀, 能登, 越中, 越後, 佐渡國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140 越은 원래 현재의 福井縣 敦賀市에서 山形縣 庄内の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奈良의 大和政權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新潟縣 지역은 硬玉의 산지로도 유명하다. 이 지역은 越前, 越中, 越後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三越이라고도 부르며, 能登과 加賀도 포함한다.

141 『元興寺緣起』에 蘇我稻目が 불상을 안치한 牟久原(向原)의 집을 민달천황 11년(582)에 楷井(사쿠라이)으로 옮기고 민달천황 12년에 櫻井道場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櫻井道場이 櫻井寺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蘇我氏의 向原의 집을 豐浦寺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櫻井寺와 豐浦寺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尼寺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櫻井寺를 豐浦寺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142 法興寺 건립에 쓸 목재를 벌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절의 건립에는 절터의 정비, 목재의 벌채와 건조, 탑의 건립, 금당의 건설과 불상의 주조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 최종 완성이 대체로 20~30년이 걸렸다. 법흥사의 경우도 609년에 최종적으로 불상의 주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지)의 딸 선덕(善德; 젠토쿠)¹⁴³, 대반박(大伴狛; 오호토모노코마) 부인(夫人)¹⁴⁴, 신라원선묘(新羅媛善妙; 시라키노히메젠메우)¹⁴⁵, 백제원묘광(百濟媛妙光; 쿠다라노히메메우과우), 한인선충(漢人善聰; 아야히토젠소우)·선통(善通; 젠츠소우)·묘덕(妙德; 메우토쿠)·법정조(法定照; 호후자우세우)·선지충(善智聰; 젠치소우)·선지혜(善智惠; 젠치에)·선광(善光; 젠과우) 등이었다. 안부사마달등(鞍部司馬達等; 쿠라츠쿠리노시메노타치토)의 아들 다수나(多須奈; 타수나)도 함께 출가하였다. 이름을 덕제법사(德齊法師)라고 하였다¹⁴⁶.

4년 여름 4월 임자삭 갑자(13일)에 역어전천황(譯語田天皇; 위사타노스메라미코토)¹⁴⁷을 기장릉(磯長陵; 시나가노미사자키)¹⁴⁸에 장사지냈다. 이곳은 돌아가신 모후(毗皇后)¹⁴⁹를 장사지낸 능(陵)이다.

가을 8월 경술삭(1일)에 천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짐(朕)은 임나(任那)를 세우려고 생각한다¹⁵⁰. 경(卿)들은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임나의 관가(官家)를 세우는 것은, 모두 폐하의 명하신 바와 뜻을 같이 합니다.”라

143 여기에서만 보인다.

144 大伴氏の 高句麗 출신 부인을 말한다. 부인은 본래 제후의 정처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귀족의 처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145 이하의 인명은 모두 여기에만 보인다.

146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 시세조 참조.

147 敏達天皇이다.

148 『古事記』 敏達段에서는 능이 川内の 科長에 있다고 하였고, 『延喜式』에서는 磯長中尾陵이며 河内國 石川郡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大阪府 南河内郡 太子町에 있는 전장 113m의 太子西山古墳이라고 불리는 前方後圓墳이 敏達陵으로 지정되어 있다. 敏達이 죽은 이후 장례까지 5년 8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록을 신뢰하면 이 능이 최후의 전방후 원분이다.

149 欽明天皇의 첫 황후였던 石姬를 가리키며, 敏達天皇의 어머니이다.

150 『日本書紀』 흠명천황 23년 정월조에 신라가 임나를 멸한 기사가 보인다.

고 아뢰었다.

겨울 11월 기묘삭 임오(4일)에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 키노워마로노스쿠네)¹⁵¹, 거세원신(巨勢猿臣; 코세노사루노오미)¹⁵², 대반설련(大伴嚙連; 오호토모노쿠히노무라지)¹⁵³, 갈성오나량신(葛城烏奈良臣; 카즈라키노워나라노오미)¹⁵⁴을 뽑아서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씨족을 거느리는 신련(臣連)을 비장(裨將)¹⁵⁵으로 삼고, 부대(部隊)¹⁵⁶ 2만여 명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축자(筑紫; 츠쿠시)에 나가 머물렀다. 또한 길사금(吉士金; 키시노카네)¹⁵⁷을 신라에 보내고, 길사목련자(吉士木蓮子; 키시노이타비)¹⁵⁸를 임나에 보내서 임나의 일을 물었다.

5년 겨울 10월 계유삭 병자(4일)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다. 천황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언제가 이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평상시와 달랐다.

임오(10일)에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가 천황이 한 말을 듣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무리¹⁵⁹를 불러 천황을 죽이고자 하였다.

151 『日本書紀』 흙명천황 23년 7월조 참조.

152 『日本書紀』 흙명천황 31년 7월 是月條 참조.

153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에 大伴嚙連로 보인다.

154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에 葛城臣烏那羅로 나온다.

155 대장을 도우는 將官, 즉 部將을 말한다. 裨는 돕는다는 뜻이다.

156 군사적인 편제로 조직한 병력을 말한다. 2만여 명의 군사를 大將軍과 裨將 아래 일정하게 편제하였다는 뜻이다.

157 『日本書紀』 민달천황 4년 4월조 참조.

158 『日本書紀』 민달천황 4년 4월조 참조.

159 원문은 儻者이다. 儻者の 훈은 ‘야카라’, 즉 무리(輩)라는 뜻이다. 儻은 그런 뜻이 없으므로, 무리 黨이라는 글자에 사람을 뜻한 人을 더해서 黨의 무리라는 뜻을 강조한 일본적인 용법으로 생각된다.

이 달에 대법흥사(大法興寺)에 불당(佛堂)¹⁶⁰과 보랑(步廊)¹⁶¹을 세웠다.

11월 계묘삭 을사(3일)에 마자숙네(馬子宿禰)는 여러 신하들을 속여 “오늘 동국(東國)의 조(調)¹⁶²를 올린다.”라고 말하고 곧 동한직구(東漢直駒; 아마토노아야노아타히코마)¹⁶³로 하여금 천황을 죽이게 하였다[어떤 책에서는, 동한직구(東漢直駒)는 동한직반정(東漢直磐井; 아마토노아야노아타히이하위)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 날, 천황을 창제강릉(倉梯岡陵; 쿠라하시노워카노미사자키)에 장사지냈다¹⁶⁴[어떤 책에서는 대반빈소수자(大伴續小手子; 오호토모노미메코테코)가 충애가 사라진 것을 원망하여 사람을 소아마자숙네에게 보내어 “근래에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천황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언젠가 짐이 생각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내리(內裏)에서는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자숙네(馬子宿禰)는 이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160 法興寺의 金堂 및 步廊 등 일부 시설이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절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석가삼존불의 조성이 끝나 금당에 안치하는 것은 609년의 일이다. 法興寺에는 원래 금당이 세 곳이 있는 형식이었는데, 어느 금당인지는 알 수 없다.

161 중문에서 출발하여 세 개의 금당과 탑이 있는 구역을 에워싸는 회랑을 말한다. 강당의 금당 북쪽 회랑의 바깥쪽에 있었다.

162 東國 지역에 설치된 천황 및 황족의 사유민인 子代와 名代가 바친 물품으로 보인다. 천황은 자신의 사유민들이 바치는 물품을 정전에 나아가 직접 받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3 東漢氏は 원래 도래계 씨족으로 6세기 후반에 蘇我氏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古語拾遺』는 5세기 후반 雄略天皇대에 蘇我麻智宿禰의 휘하에 있으면서 三藏(齋藏, 內藏, 大藏)을 관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駒는 『聖德太子傳曆』에도 보인다.

164 『古事記』 崇峻段에서는 倉橋의 언덕 위에 있다고 하였고, 『延喜式』에서는 大和國 十市郡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倉梯宮 터로 생각되는 櫻井市 倉橋의 金福寺跡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倉橋에 있는 한 변 42~45m의 方墳 天王山古墳을 崇峻의 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천황이 죽은 당일에 장례를 마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따로 陵을 조영하지 않고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미(5일)에 역사(驛使)¹⁶⁵를 축자(筑紫)의 장군¹⁶⁶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안으로 어지러우니 바깥 일을 태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 달에 동한직구가 소아빈하상낭(蘇我嬪河上娘; 소가노미메카하카미노이라츠메)¹⁶⁷을 몰래 범하고 처로 삼았다[하상낭(河上娘; 카하카미노이라츠메)은 소아마자숙네의 딸이다.]. 마자숙네는 구(駒)가 갑자기 하상낭(河上娘)을 범한 것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구는 빈을 더럽힌 일이 밝혀져서 대신(大臣)에 의해 살해되었다.

일본서기 권 제21

165 驛使란 율령제하에서 驛馬를 타고 驛路를 달려 문서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을 말한다. 6세기 말에는 아직 驛路制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말을 타고 급하게 연락하는 사자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66 『日本書紀』 승준천황 4년(591) 11월에 紀男麻呂 등 4인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사실이 보인다.

167 崇峻天皇의 嬪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시기에 율령제와 같이 夫人과 嬪의 구별이 명확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日本書紀 卷第廿一

橘豐日天皇 用明天皇

橘豐日天皇，天國排開廣庭天皇第四子也。母曰堅鹽媛。天皇信佛法尊神道。

十四年秋八月，淳中倉太珠敷天皇崩。

九月甲寅朔戊午，天皇卽天皇位。宮於磐餘。名曰池邊雙槻宮。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物部弓削守屋連爲大連，竝如故。

壬申，詔曰，云云。以酢香手姬皇女，拜伊勢神宮，奉日神祀[是皇女，自此天皇時，逮乎炊屋姬天皇之世，奉日神祀。自退葛城而薨。見炊屋姬天皇紀。或本云，卅七年間，奉日神祀。自退而薨。]。

元年 春正月壬子朔，立穴穗部間人皇女爲皇后。是生四男。其一曰廐戶皇子[更名豐耳聰聖德。或名豐聰耳法大王。或云法主王。]。是皇子初居上宮。後移斑鳩。於豐御食炊屋姬天皇世，位居東宮。總攝萬機。行天皇事。語見豐御食炊屋姬天皇紀。其二曰來日皇子。其三曰殖栗皇子。其四曰茨田皇子。立蘇我大臣稻目宿禰女石寸名爲嬪。是生田目皇子[更名豐浦皇子。]。葛城直磐村女廣子，生一男一女。男曰麻呂子皇子。此當麻公之先也。女曰酢香手姬皇女。歷三代以奉日神。

夏五月，穴穗部皇子，欲奸炊屋姬皇后，而自強入於殯宮。寵臣三輪君逆，乃喚兵衛，重環宮門，拒而勿入。穴穗部皇子問曰，何人在此。兵衛答曰，三輪君逆

在焉。七呼開門。遂不聽入。於是。穴穗部皇子。謂大臣與大連曰。逆頻無禮矣。於殯庭誅曰。不荒朝庭。淨如鏡面。臣治平奉仕。卽是無禮。方今天皇子弟多在。兩大臣侍。詎得恣情。專言奉仕。又餘觀殯內。拒不聽入。自呼開門。七迴不應。願欲斬之。兩大臣曰。隨命。於是。穴穗部皇子。陰謀王天下之事。而口詐在於殺逆君。遂與物部守屋大連。率兵圍繞磐餘池邊。逆君知之。隱於三諸之岳。是日夜半。潛自山出。隱於後宮〔謂炊屋姬皇后之別業。是名海石榴市宮也。〕。逆之同姓白堤與橫山。言逆君在所。穴穗部皇子。卽遣守屋大連〔或本云。穴穗部皇子與泊瀨部皇子。相計而遣守屋大連。〕曰。汝應往討逆君并其二子。大連遂率兵去。蘇我馬子宿禰。外聞斯計。詣皇子所。卽逢門底〔謂皇家家門也。〕。將之大連所。時諫曰。王者不近刑人。不可自往。皇子不聽而行。馬子宿禰。卽便隨去到於磐餘〔行至於池邊。〕。而切諫之。皇子乃從諫止。仍於此處。踞坐胡床。待大連焉。大連良久而至。率衆報命曰。斬逆等訖〔或本云。穴穗部皇子。自行射殺。〕。於是。馬子宿禰。惻然頽歎曰。天下之亂不久矣。大連聞而答曰。汝小臣所不識也〔此三輪君逆者。譯語田天皇之所寵愛。悉委內外之事焉。由是炊屋姬皇后與馬子宿禰。俱發恨於穴穗部皇子。〕。

是年也。太歲丙午。

二年 夏四月乙巳朔丙午。御新嘗於磐餘河上。是日。天皇得病。還入於宮。群臣侍焉。天皇詔群臣曰。朕思欲歸三寶。卿等議之。群臣入朝而議。物部守屋大連與中臣勝海連。違詔議曰。何背國神。敬他神也。由來不識若斯事矣。蘇我馬子宿禰大臣曰。可隨詔而奉助。詎生異計。於是。皇弟皇子〔皇弟皇子者。穴穗部皇子。卽天皇庶弟。〕。引豐國法師〔闕名也。〕。入於內裏。物部守屋大連。邪睨大怒。是時。押坂部史毛屎急來。密語大連曰。今群卿圖卿。復將斷路。大連聞之。卽退於阿都〔阿都大連之別業所在地名也。〕。集聚焉。中臣勝海連。於家集衆。隨助大連。遂作太子彥人皇子像與竹田皇子像厭之。俄而知事難濟。歸附彥人皇子於水派宮〔水派。此云美麻多。〕。舍人迹見赤檮。伺勝海連自彥人皇子所退。拔刀而殺〔迹見姓

也。赤禰名也。赤禰，此云伊知毗¹。大連，從阿都家，使物部八坂·大市造小坂·漆部造兄，謂馬子大臣曰，吾聞群臣謀我。我故退焉。馬子大臣，乃使土師八嶋連於大伴毗羅夫連所，具述大連之語。由是，毗²羅夫連，手執弓箭皮楯，就槻曲家，不離晝夜，守護大臣[槻曲家者，大臣家也。]。天皇之瘡轉盛，將欲終時，鞍部多須奈[司馬達等子也。]，進而奏曰，臣，奉爲天皇，出家脩道。又奉造丈六佛像及寺。天皇爲之悲慟。今南淵坂田寺木丈六佛像·挾侍菩薩是也。

癸丑，天皇崩于大殿。

秋七月甲戌朔甲午，葬于磐餘池上陵。

泊瀨部天皇 崇峻天皇

泊瀨部天皇，天國排開廣庭天皇第十二子也。母曰小姉君[稻日宿禰女也。已見上文也。]。

二年夏四月，橘豐日天皇崩。

五月，物部大連軍衆，三度驚駭。大連元欲去餘皇子等，而立穴穗部皇子爲天皇。及至於今，望因遊獵，而謀替立，密使人於穴穗部皇子曰，願與皇子，將馳獵於淡路。謀泄。

六月甲辰朔庚戌，蘇我馬子宿禰等，奉炊屋姬尊，詔佐伯連丹經手·土師連磐村·的臣眞嚙曰，汝等嚴兵速往，誅殺穴穗部皇子與宅部皇子。是日夜半，佐伯連丹經手等，圍穴穗部皇子宮。於是，衛士先登樓上，擊穴穗部皇子肩。皇子落於樓下，走入偏室。衛士等舉燭而誅。

辛亥，誅宅部皇子[宅部皇子，檜隈天皇之子，上女王之父也。未詳。]，善穴穗部皇子，故誅。

1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甲子，善信阿尼等，謂大臣曰，出家之途，以戒爲本，願向百濟，學受戒法。

是月，百濟調使來朝，大臣謂使人曰，率此尼等，將渡汝國，令學戒法。了時發遣，使人答曰，臣等歸蕃，先導國主，而後發遣，亦不遲也。

秋七月，蘇我馬子宿禰大臣，勸諸皇子與群臣，謀滅物部守屋大連，泊瀬部皇子·竹田皇子·厩戶皇子·難波皇子·春日皇子·蘇我馬子宿禰大臣·紀男麻呂宿禰·巨勢臣比良夫·膳臣賀夫·葛城臣烏那羅，俱率軍旅，進討大連，大伴連噺·阿倍臣人·平群臣神手·坂本臣糠手·春日臣[闕名字.]，俱率軍兵，從志紀郡，到澁河家，大連親率子弟與奴軍，築稻城而戰，於是，大連昇衣揩朴枝間，臨射如雨，其軍強盛，填家溢野，皇子等軍與群臣衆，怯弱恐怖，三廻却還。是時，厩戶皇子，束髮於額[古俗，年少兒年，十五六間，束髮於額，十七八間，分爲角子，今亦然之.]，而隨軍後，自忖度曰，將無見敗，非願難成，乃斫取白膠木，疾作四天王像，置於頂髮，而發誓言[白膠木，此云農利泥.]，今若使我勝敵，必當奉爲護世四王，起立寺塔，蘇我馬子大臣，又發誓言，凡諸天王·大神王等，助衛於我，使獲利益，願當奉爲諸天與大神王，起立寺塔，流通三寶，誓已嚴種種兵，而進討伐，爰有迹見首赤禱，射墮大連於枝下，而誅大連并其子等，由是，大連之軍，忽然自敗，合軍悉被皁衣，馳獵廣瀬勾原而散之，是役，大連兒息與眷屬，或有逃匿葦原，改姓換名者，或有逃亡不知所向者，時人相謂曰，蘇我大臣之妻，是物部守屋大連之妹也，大臣妄用妻計，而殺大連矣，平亂之後，於攝津國，造四天王寺，分大連奴半與宅，爲大寺奴田莊，以田一萬頃，賜迹見首赤禱，蘇我大臣，亦依本願，於飛鳥地，起法興寺，物部守屋大連資人捕鳥部萬[萬名也.]，將一百人，守難波宅，而聞大連滅，騎馬夜逃，向茅渟縣有眞香邑，仍過婦宅，而遂匿山，朝廷議曰，萬懷逆心，故隱此山中，早須滅族，可不怠歟，萬，衣裳弊垢，形色憔悴，持弓帶劍，獨自出來，有司遣數百衛士圍萬，萬卽驚匿篁藪，以繩繫竹，引動令他惑己所入，衛士等被詐，指搖竹馳言，萬在此，萬卽發箭，一無不中，衛士等恐不敢近，萬便弛弓挾腋，向山走去，衛士等卽夾河迫射，皆不能中，於是，有一衛

士，疾馳先萬，而伏河側，擬射中膝，萬卽拔箭，張弓發箭，伏地而號曰，萬爲天皇之楯，將効其勇，而不推問，翻致逼迫於此窮矣，可共語者來，願聞殺虜之際，衛士等競馳射萬，萬便拂捍飛矢，殺三十餘人，仍以持劍，三截其弓，還屈其劍，投河水裏，別以刀子，刺頸死焉，河內國司，以萬死狀，牒上朝廷，朝廷下符稱，斬之八段，散梟八國，河內國司，卽依符旨，臨斬梟時，雷鳴大雨，爰有萬養白犬，俯仰廻吠於其屍側，遂嚙舉頭，收置古家，橫臥枕側，飢死於前，河內國司，尤異其犬，牒上朝廷，朝廷哀不忍聽，下符稱曰，此犬世所希聞，可觀於後，須使萬族，作墓而葬，由是，萬族雙起墓於有眞香邑，葬萬與犬焉，河內國司言，於餌香川原，有被斬人，計將數百，頭身旣爛，姓字難知，但以衣色，收取身者，爰有櫻井田部連膽淳所養之犬，嚙續身頭，伏側固守，使收己主，乃起行之。

八月癸卯朔甲辰，炊屋姬尊與群臣，勸進天皇，卽天皇之位，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如故，卿大夫之位亦如故。

是月，宮於倉梯。

元年 春三月，立大伴糠手連女小手子爲妃，是生蜂子皇子與錦代皇女。

是歲，百濟國遣使并僧惠總·令斤·惠總等，獻佛舍利，百濟國遣恩率首信·德率蓋文·那率福富味身等，進調并獻佛舍利，僧聆照律師·令威·惠衆·惠宿·道嚴·令開等，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鑪盤博士將德白味淳，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倭貴文·昔麻帝彌，畫工白加，蘇我馬子宿禰，請百濟僧等，問受戒之法，以善信尼等，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發遣學問，壞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始作法興寺，此地名飛鳥眞神原，亦名飛鳥苦田。

是年也，太歲戊申。

二年 秋七月壬辰朔，遣近江臣滿於東山道使，觀蝦夷國境，遣宋人臣鴈於東海道使，觀東方滨海諸國境，遣阿倍臣於北陸道使，觀越等諸國境。

三年 春三月，學問尼善信等，自百濟還，住櫻井寺。

冬十月，入山取寺材。

是歲，度尼，大伴狹手彥連女善德·大伴狛夫人·新羅媛善妙·百濟媛妙光，又漢人善聰·善通·妙德·法定照·善智聰·善智惠·善光等，鞍部司馬達等子多須奈，同時出家，名曰德齊法師。

四年 夏四月壬子朔甲子，葬譯語田天皇於磯長陵，是妣皇后所葬之陵也。

秋八月庚戌朔，天皇詔群臣曰，朕思欲建任那，卿等何如，群臣奏言，可建任那官家，皆同陛下所詔。

冬十一月己卯朔壬午，差紀男麻呂宿禰·巨勢猿臣·大伴嚙連·葛城烏奈良臣，爲大將軍，率氏臣連，爲裨將部隊，領二萬餘軍，出居筑紫，遣吉士金於新羅，遣吉士木蓮子於任那，問任那事。

五年 冬十月癸酉朔丙子，有獻山猪，天皇指猪詔曰，何時如斷此猪之頸，斷朕所嫌之人，多設兵杖，有異於常。

壬午，蘇我馬子宿禰，聞天皇所詔，恐嫌於己，招聚儻者，謀殺天皇。

是月，起大法興寺佛堂與步廊。

十一月癸卯朔乙巳，馬子宿禰，詐於群臣曰，今日進東國之調，乃使東漢直駒，弑于天皇[或本云，東漢直駒，東漢直磐井之子也。]，是日，葬天皇于倉梯岡陵[或本云，大伴嬪小手子，恨寵之衰，使人於蘇我馬子宿禰曰，頃者有獻山猪，天皇指猪而詔曰，如斷猪頸，何時斷朕思人，且於內裏，大作兵仗，於是，馬子宿禰，聽而驚之。]

丁未，遣驛使於筑紫將軍所曰，依於內亂，莫怠外事。

是月，東漢直駒，偷隱蘇我嬪河上娘爲妻[河上娘，蘇我馬子宿禰女也。]，馬子宿禰，忽不知河上娘，爲駒所偷，而謂死去，駒，汙嬪事顯，爲大臣所殺。

日本書紀卷第廿一

일본서기 권 제22

日本書紀 卷第廿二

제33대 풍어식취옥희천황(豐御食炊屋姫天皇) 추고천황(推古天皇)



일본서기 권 제22

풍어식취옥희천황(豐御食炊屋姫天皇; 토요미케카시키야히메노스메라미코토) **추고천황**

(推古天皇; 스이코텐노)

풍어식취옥희천황¹은 천국배개광정(天國排開廣庭;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와)천황²의 둘째 황녀³로 굴풍일(橘豐日; 타치바나노토요히)천황⁴의 여동생이다. 어릴 때에는 액전부황녀(額田部皇女; 누카타베노히메미코)라고 불렸다.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으며 행동에는 규범이 있었다. 나이 18세에 정중창태옥부(淳中倉太玉敷;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천황⁵의 황후가 되었고⁶, 34세 때에 정중창태주

1 추고천황은 제33대 천황으로 欽明天皇 15년(554)에 태어나 추고 36년(628)에 사망하였다. 일본 최초의 女帝로 아버지는 흠명이고 어머니는 蘇我稻目の 딸인 堅鹽媛이라 한다. 敏達천황 4년(575)에 황후 廣姫가 죽자 다음해에 황후가 되었다. 민달과의 사이에 聖德太子의 왕비인 菟道貝蛸皇女와 竹田皇子, 押坂彦人大兄皇子의 왕비인 小墾田皇女, 聖德太子의 왕비 橘大郎女の 아버지인 尾張皇子, 제34대 舒明天皇인 田村皇子의 왕비인 田眼皇女, 宅毛理(廬鳥 혹은 茲鳥)皇女, 押坂彦人大兄皇子와 來目皇子의 왕비인 櫻井弓張皇女 등 2남 5녀를 두었다. 재위기간은 崇峻 5년(593)에서 추고 36년까지의 36년간인데, 『古事記』에서는 37년간이라고 한다.

2 欽明天皇이다.

3 『日本書紀』 흠명천황 2년(541) 3월조에는 왕비 堅鹽媛의 둘째 딸이라고 한다.

4 用明天皇으로 어머니는 견염원이다.

5 敏達천황이다.

부(淳中倉太珠敷)천황이 죽었다(崩)⁷. 39세 때인 박뢰부(泊瀨部; 하쓰세베)천황⁸ 5년 11월에 천황이 대신 마자숙네(馬子宿禰)에게 시해⁹되자 황위가 비었다. 신하들은 정중창태주부천황의 황후인 액전부황녀에게 황위에 즉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황후는 사양하였다. 그러나 모든 관료가 상표하여 거듭 권하였으므로 세 번 만에 겨우 승락하였다. 그래서 모든 관료는 천황의 도장(璽印)을 황후에게 바쳤다. 겨울 12월 임신삭 기유(8일)에 황후는 풍포궁(豐浦宮)¹⁰에서 황위에 올랐다.

원년 봄 정월 임신삭 병신(15일)에 불사리¹¹를 법흥사¹² 찰주(刹柱)의 초석¹³ 가운데 안치하였다. 정사(16일)에 탑의 찰주를 세웠다.

여름 4월 경오삭 기묘(10일)에 구호풍충이황자(厩戶豐聰耳皇子; 우마야토노토요토미미노미코)¹⁴를 세워서 황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일체의 정무를 집정하게 하고 국정을 모두 위임하였다. 황태자는 굴풍일(橘豐日; 타치바나노토요히)천황

6 봉년이 75세라면 18세는 흠명 32년(571)으로 이때 민달천황의 왕비가 되었고, 민달천황 5년(576) 23세에 황후가 되었다고 한다.

7 39세 즉위를 근거로 32세에 민달과 사별하고, 또 34세 때 용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은 32세의 연령 표기의 잘못이라는 설이 있고, 민달의 사망을 용명 사망의 오기라고 보는 설이 있다.

8 崇峻천황이다.

9 『日本書紀』 승준천황 5년(592) 11월조에 보인다.

10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는 ‘等由羅宮’이라고 하며, 현재 奈良縣 明日香村 豐浦의 豐浦寺 유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1993년 이후의 발굴에 의해 풍포사 하층에서 6세기 말의 건물유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풍포궁 유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1 석가불 혹은 성자의 유골로 ‘사리(sarira)’란 梵語를 음역한 것이다.

12 『日本書紀』 승신천황 원년 이 해조에는 飛鳥의 眞神原에 법흥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飛鳥寺라고 하였고, 뒤에 법흥사 혹은 원흥사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13 찰주는 불탑의 중심 기둥으로 주춧돌은 心礎라고도 한다.

14 聖德太子이다.

의 둘째 아들¹⁵이고 어머니인 황후는 혈수부간인황녀(穴穗部間人皇女; 아나호베노하시히토노히메미코)¹⁶이다. 황후가 임신하여 출산일에 궁중을 행차하며 모든 관사(官司)를 시찰하였다. 그러던 중 마관(馬官)¹⁷에 이르렀을 때 마구간(廐)의 입구에서 홀연히 힘들이지 않고 출산하였다. 황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였고, 성스러운 지혜가 있었다. 장성해서는 한 번에 열 사람의 소송을 들어도 틀리지 않고 판별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미리 알 수 있었다. 또 고구려¹⁸ 승려 혜자(慧慈)¹⁹에게 내교(內敎)²⁰를 배웠고 박사 각가(覺賀)에게 외전(外典)²¹을 배워 아울러 모두 습득하였다. 아버지 천황은 황태자를 사랑하여 궁의 남쪽의 상전(上殿)²²에 거하게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름을 상궁구호풍총이 태자(上宮廐戶豐聰耳太子; 우에노미야노우마야토노토요토미노히쓰기노미코)라 하였다.

가을 9월에 타치바나노토요히천황을 하내기장(河内磯長; 카우치노시나가)능²³에서 다시 장사지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사천왕사(四天王寺)²⁴를 난파(難波: 나

15 用明紀 원년 정월조에 의하면 태자는 혈수부간인황후의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라고 한다.

16 『日本書紀』 흙명천황 2년(541) 3월조와 용명천황 원년 정월조에도 보인다.

17 말 사육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律令制의 左右馬寮의 전신으로 보인다.

18 원문은 高麗이다.

19 『三國佛法傳通緣起』에는 삼론종의 학문승으로 성실종에도 통달하였다고 한다. 혜자는 추고 3년(595)에 왜로 와서 23년에 귀국하였다고 한다. 성덕태자의 불교 스승으로, '삼보의 동량'으로 일본 아스카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혜자의 도왜는 수, 신라 관계를 의식한 고구려의 외교 전략으로 보인다.

20 불교를 말한다.

21 유교 서적을 말한다.

22 태자가 반구(斑鳩; 이카루가)로 옮기기 이전의 궁이라고 보고 있는 설이 있다. 1988년 이후의 발굴조사에 의해 櫻井市 上宮지역에서 6세기 말의 귀족 저택지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23 『古事記』 용명천황단에는 「御陵在石寸掖上, 後遷科長中陵也,」라고 한다. 石寸掖上陵에 대해서는 『日本書紀』에는 보이지 않는다.

니와)의 황릉(荒陵; 아라하카)에 만들었다. 이 해의 간지는 계축이다.

2년 봄 2월 병인삭(1일)에 천황은 황태자와 대신에게 삼보(三寶)²⁵를 홍륜시키게 하였다. 이때에 모든 신(臣; 오미), 연(連; 무라지)들은 각각 군친(君親)²⁶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투어 불사(佛舍)를 지었다. 이를 절이라 하였다.

3년 여름 4월에 침수(沈水)²⁷가 담로(淡路; 아와지)섬에 표착하였다. 그 크기는 1위²⁸나 되었다. 섬 사람은 침수인줄 모르고 장작에 섞어서 부엌 아궁이에 넣어 불을 피우니 그 연기가 멀리까지 퍼져 좋은 향기를 풍겼다. 그래서 이를 괴이하게 여겨 헌상하였다.

5월 무오삭 정묘(10일)에 고구려 승려 혜자(慧慈)가 귀화(歸化)하였다. 즉시 황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해에 백제의 승려 혜충(慧聰)²⁹이 왔다. 이 두 승려는 불교를 널리 퍼뜨려 나란히 삼보의 동량³⁰이 되었다.

가을 7월에 장군³¹들이 축자(筑紫; 쓰쿠시)에서 돌아왔다.

4년 겨울 11월에 법흥사가 완성되었다³². 즉시 대신³³의 아들 선덕신(善德

24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조에 건립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25 삼보란 불·법·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를 뜻한다.

26 주군과 부모란 의미이다.

27 枕(沈)香이라고 하는 香木의 일종으로 목질이 무거워 물에 가라앉는다고 한다.

28 『養老令』 厩牧令에는 ‘둘레 3척을 위(圍)라 한다’고 한다.

29 『三國佛法傳通緣起』에 삼륜과 성실의 학문승으로 태자의 스승이라고 한다.

30 불교계의 중심 인물이란 의미이다.

31 『日本書紀』 崇峻천황 4년 11월조에 보이는 紀男麻呂 등을 말한다.

32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인용의 ‘塔露盤銘’에는 ‘병진년(추고 4) 11월에 마쳤다.’

臣 ; 젠토코노오미)을 사사(寺司)³⁴에 임명하였다. 이 날, 혜자와 혜충 두 승려가 처음으로 법흥사에 거주하였다.

5년 여름 4월 정축삭(1일)에 백제왕이 왕자³⁵ 아좌(阿佐)³⁶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계유삭 갑오(22일)³⁷에 길사(吉士) 반금(磐金 ; 이와카네)³⁸을 신라에 파견하였다.

6년 여름 4월에 난파길사(難波吉士) 반금이 신라에서 귀국하여 까치 두 마리를 바쳤다. 이것을 난파사(難波社)³⁹에서 키우게 하니 가지에 동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가을 8월의 기해삭(1일)에 신라가 공작을 한 마리 바쳤다.

겨울 10월 무술삭 정미(10일)에 월국(越國 ; 코시노쿠니)⁴⁰이 흰 사슴 한 마리를 바쳤다.

고 한다.

33 蘇我馬子를 말한다.

34 寺司란 사원에 소속된 행정 관리란 의미이며, 『日本書紀』 효덕천황 大化 원년 8월 8일조에도 보인다.

35 백제 威德王 44년(597)이다.

36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보아 威德王(재위 : 554~598)대 이기 때문에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聖德太子傳私記』에 따르면 그림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성덕태자상을 그렸다고 전한다.

37 계유삭이라면 갑자는 52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오의 잘못이라 보는 설이 있다.

38 추고천황 6년조의 難波吉士 磐金으로 추고천황 31년에도 신라에 파견되었다.

39 지금의 大阪市 城東區 森町이라는 설과 天王寺區 生玉町 소재의 生國魂神社란 설이 있다.

40 北陸道の 옛 명칭이다.

7년 여름 4월 을미삭 신유(27일)에 땅이 흔들려 가옥이 모두 파괴되었다. 즉시 전국에 명하여 지진의 신에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가을 9월 계해삭(1일)에 백제가 낙타 한 마리, 당나귀 한 마리, 양 두 마리, 흰 꿩 한 마리를 바쳤다.

8년 봄 2월에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⁴¹. 천황이 임나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경부신(境部臣; 사카이베노오미)⁴²을 대장군으로 삼고 수적신(穗積臣; 호즈미노오미)⁴³을 부장군으로 삼았다[모두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치려하였다. 이에 즉시 신라를 목표로 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그리고 신라에 이르러 5성⁴⁴을 공략하였다. 이에 신라왕은 두려워하여 백기를 들고 장군의 휘하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다라(多多羅)⁴⁵, 소나라(素奈羅), 불지귀(弗知鬼), 위타(委陀), 남가라(南迦羅)⁴⁶, 아라라(阿羅羅)⁴⁷의 6성을 할양하고 항복을 청하였다. 이때 장군은 함께 의논하여 “신라는 죄를 깨닫고 항복하였다. 구태여 공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

41 『삼국사기』에는 대응하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 기사를 사실로 보아 당시 임나지역에 그러한 종류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설이 있지만, 『日本書紀』 편자의 잘못된 가야관에 의한 오류이다. 한편 이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한 가지, 즉 540년의 사실이 혼재하여 한 갑자 내려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해조의 사료는 조작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도 있다.

42 蘇我씨의 일족이라고 하며, 이하의 境部臣摩理勢와 境部臣雄摩侶로 해석하는 설이 있다.

43 『日本書紀』 繼體天皇 6년(512) 4월조에 보인다.

44 아래 신라가 할양하였다는 6성과 대응한다. 5성이란 숫자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4년(530) 9월조에도 보인다.

45 多多羅 이하의 4성은 繼體紀 23년(529) 4월 이 달조의 4촌, 敏達紀 4년(575) 6월조의 4읍과 대응한다. 한편 다다라는 부산의 다대포로 추정된다.

46 ‘남가라’는 다다라, 소나라, 불지귀, 위타 등 4성의 총칭으로 보인다.

47 安羅國(함안)을 가리킨다.

였다. 그리고 그 사유를 주상하였다. 이에 천황은 다시 난파길사 신(神; 미와)⁴⁸을 신라에 파견하고 난파길사 목련자(木蓮子; 이타비)⁴⁹를 임나에 파견하여 각각 사정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신라와 임나⁵⁰왕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그리고 상표문을 올려 “천상에는 신이 있고 지상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을 제외하면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부터 이후로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또 배의 키[艫]가 마를 사이도 없이 해마다 반드시 조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사자를 보내어 장군을 소환하였다. 장군들이 신라에서 돌아오자 곧 신라는 또 임나를 침공하였다.

9년 봄 2월에 황태자가 처음으로 궁전을 반구(斑鳩; 이카루가)⁵¹에 세웠다.

3월 갑신삭 무자(5일)에 대반련설(大伴連禰; 오오도모노무라지쿠이)⁵²를 고구려에 파견하고, 판본신강수(坂本臣糠手; 사카모토노오미누카테)⁵³를 백제에 각각 파견⁵⁴하여 고하기를 “급히 임나를 구하라.”고 말하였다.

여름 5월에 천황은 이리(耳梨; 미미나시)⁵⁵의 행궁에 머물렀다. 이때 큰 비가

48 ‘難波吉師’는 ‘難波吉士’라고도 표기한다.

49 『日本書紀』 민달천황 5년(576) 여름 4월 을유삭조에 보인다.

50 가야제국은 562년에 모두 소멸한다. 이때의 임나는 신라의 왜왕권에 대한 외교적 의례행위라는 설이 있고, 한 간지를 상향시켜 역사적 사실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日本書紀』의 가야 內官家 사상에 의한 조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1 13년 10월조에는 斑鳩宮에 거하였다고 한다.

52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587) 추 7월조에 보인다.

53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 추 7월조에 보인다.

54 왜가 고구려와 백제에 동시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공동전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임나’문제와 관련되어 기술한 것은 후대의 윤색으로 믿기 어렵다.

55 지금의 奈良縣 橿原市 木原町이라고 한다.

내려 강물이 불어 행궁의 뜰에 가득 찼다.

가을 9월 신사삭 무자(8일)에 신라의 간첩 가마다(迦摩多; 카마타)⁵⁶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즉시 잡아 바치자 상야(上野; 가미쓰케노쿠니)에 유배하였다.

겨울 11월 경진삭 갑신(5일)에 신라를 공격하기로 의논하였다.

10년 봄 2월 기유삭(1일)에 내목황자(來目皇子; 쿠메노미코)⁵⁷를 신라를 공격하는 장군으로 삼고, 모든 신부(神部)⁵⁸, 국조(國造), 반조(伴造)⁵⁹ 등과 군사 2만 5천 명을 주었다⁶⁰.

여름 4월 무신삭(1일)에 장군 내목황자가 축자(筑紫; 츠쿠시)에 도착하였다. 즉시 나아가 도군(嶋郡; 시마노코오리)⁶¹에 주둔하여 선박을 모으고 군량을 운반하였다.

6월 정미삭 기유(3일)에 대반련설과 판본신강수가 함께 백제에서 왔다. 이때 내목황자가 병에 걸려 정벌하지 못하였다.

겨울 10월에 백제의 승려 관륵(觀勒)⁶²이 내조하여 역서(曆書)⁶³, 천문지리의 서적과 아울러 둔갑, 방술의 서적을 바쳤다. 이때 서생(書生) 3, 4명을 선발하

56 신라가 왜에 간첩을 파견한 기사로서는 유일하다.

57 『日本書紀』 용명천황 원년(586) 봄 정월 임자삭조에는 聖德太子的 남동생이라 한다.

58 향로의 안전과 전승을 기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59 國造와 伴造는 大和조정 지배하의 호족이다.

60 신라를 직접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왜왕권의 권력 집중 혹은 九州지역의 지배권 강화가 목적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61 筑前國 志摩郡(지금의 福岡縣 糸島郡 북부)이다.

62 이 시기는 백제 무왕 때이다. 삼론종에 정통하였고, 이후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역서와 천문지리서 및 둔갑술, 방술 등의 서적을 왜에 전하였다. 元興寺에 머물러 학생들을 가르쳤고, 624년 승려의 조부 살해 사건 시에는 왜왕에게 사면의 건의를 하였다. 또한 32년 4월에는 교단 통제를 위한 僧正과 僧都제의 도입을 건의하여 승정에 임명되었다.

63 이때의 曆은 隋 開皇 20년(600) 성립의 皇極曆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여 관륙에게 학습하게 하였다. 양호사(陽胡史; 야코노후비토)⁶⁴의 선조인 옥진(玉陳; 타마후루)은 역법(曆法)을 배우고 대우촌주고총(大友村主高聰; 오토모노스구리코 오소오)⁶⁵은 천문과 둔갑을 배웠으며, 산배신일립(山背臣日立; 야마시로노오미히타치)⁶⁶은 방술(方術)을 배웠다. 모두 배워서 학업을 성취하였다.

윤 10월 을해삭 기축(15일)에 고구려의 승려 승룡(僧隆)⁶⁷과 운총(雲聰)⁶⁸이 함께 귀화하였다.

11년 봄 2월 계유삭 병자(4일)에 내목황자가 축사에서 죽었다⁶⁹. 그래서 역사(驛使)⁷⁰를 보내어 주상하였다. 천황이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놀라 황태자와 소아대신(蘇我大臣; 소가노오호오미)을 불러 “정(征)신라대장군 내목황자가 죽었다. 큰일을 맡았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실로 슬픈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주방(周芳; 스와)⁷¹의 사파(娑婆; 사바)에 빈소를 차리게

64 『續日本紀』文武天皇 4년(704) 8월조에 승려 通德이 陽侯史 성을 받았고, 同 神護景雲 2년(768) 3월조에 人麻呂 이하에게는 새로 忌寸 성을 사여한 기사가 보인다. 『新撰姓氏錄』和泉國 諸蕃 楊侯史조에는 「楊侯忌寸同祖, 達率楊公阿了王之後也,」라고 보이고, 同書 左京 諸蕃 楊侯忌寸조에는 「出自隋煬帝之後達率楊侯阿子王也,」라고 보인다.

65 『續日本紀』延暦 6년(787) 7월조에 大友村主 廣道 등에게 ‘모두 本姓을 고쳐 志賀忌寸을 사여하였다.’고 하였고, 『新撰姓氏錄』攝津國 諸蕃 志賀忌寸조에는 「出自後漢孝獻帝也,」라고 한다.

66 『日本書紀』文武天皇 13년(686) 11월에 朝臣의 姓을 받았다.

67 여기에만 보인다.

68 여기에만 보인다.

69 내목황자의 죽음에 대해 『聖德太子傳曆』推古 11년 2월조에는 「大將軍來目皇子薨於筑紫, 太子謂侍從曰, 新羅奴等遂殺將軍,」이라고 하여 新羅奴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의 유무는 판단하기 어렵다.

70 『日本書紀』聖武天皇 5년(592) 11월 정미조에도 보인다. 驛馬를 이용하는 공용의 사신을 말한다.

71 후대의 周芳國 佐波郡 지역으로, 교통상의 요지라고 한다.

하고 토사련저수(土師連猪手; 하지노무라지이테)를 파견하여 장례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수련(猪手連; 이테노무라지)의 자손을 사파련(娑婆連; 사바노무라지)⁷²이라 하는 데에는 이러한 연유가 있다. 뒤에 하내(河内; 카우치)의 식생산(殖生山; 하니유우노야마) 언덕 위에 매장하였다.

여름 4월 임신삭(1일)에 내목황자의 형 당마황자(當摩皇子; 타기마노미코)⁷³를 다시 신라정토의 장군으로 삼았다.

가을 7월 신축삭 계묘(3일)에 당마황자는 난파(難波; 나니하)에서 배로 출발하였다. 병오(6일)에 당마황자가 파마(播磨; 하리마)에 도착하였다. 그때 따라왔던 처 사인희왕(舍人姬王; 토네리노히메미코)⁷⁴이 적석(赤石; 아카시)⁷⁵에서 죽었다. 그래서 적석의 회립강(檜笠岡; 히카사노오카) 위에 묻었다. 그 때문에 당마황자가 되돌아와서 마침내 정토하지 못했다.

겨울 10월 기사삭 임신(4일)에 소간전(小懇田; 오히리타)궁⁷⁶으로 천도하였다.

11월 기해삭(1일)에 황태자는 모든 대부들에게 “나에게는 존귀한 불상이 있다. 누가 이 불상을 가져가 예배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때 진조하승(秦造河勝; 하타노미야쓰코카와카쓰)⁷⁷이 나와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

72 皇極紀 2년 9월조에 ‘土師娑婆連猪手’가, 11월조에 ‘大仁 土師娑婆連’이 보인다.

73 『日本書紀』 용명천황 원년(586) 봄 정월 임자삭조에 보인다.

74 『日本書紀』 欽明天皇의 황녀인 舍人皇女로, 孝德天皇 2년(541) 3월조에 보인다.

75 『日本書紀』 云恭天皇 14년(425) 가을 9월 갑자조에 보인다.

76 『古事記』에는 小治田宮이라 한다. 奈良県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豊浦 부근으로 보는 설이 있다.

77 秦氏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應神天皇 14년(214) 이 해조에 보이는데, 백제에서 120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귀화한 弓月君을 조상으로 하는 설이 있다. 『新撰姓氏錄』에는 秦나라 始皇帝의 후예라는 설도 있지만, 대체로 신라계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秦氏의 본거지는 山背國 葛野郡 太秦(지금의 京都市 右京區 부근)로 보고 있는데, 河内國 讃良郡 太秦에도 같은 지명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의 広隆寺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天武天皇 14년(685)의 ‘八色姓’ 때에는 忌寸姓을 수여받았지

고 즉시 불상을 받았다. 그리고 봉강사(蜂岡寺; 하치오카데라)⁷⁸를 세웠다. 이 달에 황태자가 천황에게 청하여 큰 방패와 화살통을 만들고[靫, 여기서는 유키(由岐)라고 읽는다.], 또 깃발에 채색을 하였다.

12월 무진삭 임신(5일)에 처음으로 관위(冠位)⁷⁹를 시행하였다. 대덕(大德), 소덕(小德), 대인(大仁), 소인(小仁), 대례(大禮), 소례(小禮), 대신(大信), 소신(小信), 대의(大義), 소의(小義), 대지(大智), 소지(小智) 등 모두 12계(階)였는데, 해당하는 색⁸⁰의 깃(紵)으로 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수리 쪽은 모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고 비단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단지 정월 초하루에만 계화(髻花)⁸¹[髻花는 우쓰(于孺)라 읽는다.]를 꽂았다.

12년 봄 정월 무술삭(1일)에 처음으로 관위를 모든 신하에게 하사하였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여름 4월 병인삭 무진(3일)에 황태자가 직접 처음으로 헌법 17조(憲法十七條)⁸²를 만들었다.

만, 公과 宿禰 등을 칭하는 가계도 있었다고 한다. 平安천도와 조성에서는 秦氏의 재력과 기술력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同 18년 10월조와 皇極紀 3년 7월조에 관련기사가 보인다.

78 ‘廣隆寺, 太秦寺’라고도 하며, 창건을 推古 30년으로 보는 설이 있고, 31년 7월조에 신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葛野의 秦寺’에 안치하였다는 기사도 보이고 있다. 지금은 京都市 右京區 太秦 蜂岡町에 있다.

79 일본에서의 첫 관위 제정으로, 고구려 관위 13계와 백제 16계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서』 왜국전에도 왜국의 관위제 기록이 보인다.

80 12계의 인·예·신·의·지는 오행사상에 의한 것이고, 관위에 대응하는 색은 청·적·황·백·흑으로 최상위의 덕은 자색이라고 한다.

81 상투에 꽂는 꽃으로 『日本書紀』 경행천황 17년 봄 3월 을유조에도 보인다.

82 지배층 중 주로 관인에 대한 훈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작성자를 성덕태자로 보는 설도 있지만, 조문은 중국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내용으로 보아 천무조 이후에

첫 번째,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거슬리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사람은 모두 무리가 있고 또한 통달한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혹은 군부(君父)에 따르지 않고, 혹은 가까운 사람과 멀리한다. 그러나 상하가 화목하고 시비를 가리면 일은 스스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이다.

두 번째, 삼보를 두터이 섬겨라. 삼보는 불·법·승이다. 즉 모든 생물이 최후에 돌아가는 곳이며, 만국의 궁극의 근원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도 이 법을 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심히 나쁜 자는 드물다. 잘 가르침으로써 순종시킬 수가 있다. 불교에 귀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임금의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하늘은 덮고, 땅은 떠받든다. 사계가 순행하여 만물을 통하게 한다. 땅이 하늘을 덮으려 하면 질서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군주의 말에 신하는 반드시 승복하고, 위가 행할 때에는 아래는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받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네 번째, 군경이나 백료는 예법을 기본으로 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반드시 예에 있다. 위가 예가 없으면 아래를 다스릴 수 없고, 아래가 예가 없으면 반드시 죄를 범한다. 군신의 예가 있으면 서열도 문란하지 않고, 백성이 예가 있으면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진다.

다섯 번째, 식탐을 끊고 욕심을 버리며 소송을 공명하게 가려라. 대저 백성의 소송은 1일에 천 건에 이른다. 하루에도 그와 같으니 하물며 해를 거듭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 소송을 취급하는 자는 사리를 얻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뇌물(賄賂)을 받고 나서 죄를 의논함을 듣는다. 그래서 재산 있는 자의 소송은 돌을 물에 던지는 것 같고, 빈자의 소송은 물을 돌에 던지는 것 같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빈민은 어찌할지를 모르며 신하의 도리 또한 잃을 것이다.

여섯 번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것은 예로부터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행은 숨기는 일 없이 알리고, 악을 보면 반드시 고치게 하라. 사람에게 아첨하고 속이는 자는 국가를 전복하는 예리한 무기가 되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예리한 검이 된다. 또 아첨하는 자는 윗사람을 대할 때에는 반가워하며 아랫사람의 과실을 고해바치고, 아랫사람을 만나면 윗사람의 과실을 비난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군주에 대해서는 충의의 마음이 없고, 백성에게 대해서는 인애의 마음이 없다. 이것은 큰 난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는 각각 임무가 있다. 임용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자가 관에 있으면 칭송하는 소리가 즉시 일어나며, 간사한 자가 관에 있으면 화란(禍亂)이 빈발한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적다. 잘 생각하여 성인이 되는 것⁸³이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책임자를 얻어야 이를 수 있다. 빠르건 느리건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영구하게 되고 사직도 위협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옛 성왕은 벼슬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벼슬을 만들지는 않았다.

여덟 번째, 군경(群卿)이나 백료는 아침에 일찍 출사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라. 공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루 걸려도 다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늦게 출근하면 긴급한 용무에 대응하지 못한다. 빨리 퇴근하면 사무가 반드시 미진함이 생기는 법이다.

아홉 번째, 믿음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근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일의 선악과 성패는 반드시 믿음에 있다. 군신이 모두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고, 군신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실패할 것이다.

83 聖人の言行을 잘 생각하여 修養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聖人이 된다는 의미이다.

열 번째, 마음에 분함을 품지 말고 얼굴에 노여움을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화내지 말라. 사람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각각의 생각이 있다. 상대가 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드시 성인도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愚人)도 아니다. 다 함께 범부(凡夫)인 것이다. 시비의 이치를 누가 잘 정할 수가 있겠는가. 서로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한 것은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화를 내면 돌아보아 자기가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라. 자기 혼자서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행동하라.

열한 번째, 공적과 과실을 명확히 하여 합당한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라. 요즈음 공적에 상을 주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 일을 담당하는 군정은 상벌을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국사(國司)나 국조(國造)는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 나라에 두 군주가 없고, 백성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다스리는 땅 안의 모든 백성은 왕을 주인으로 삼는다. 담당 관사는 모두가 왕의 신하이다. 어찌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가.

열세 번째, 모든 관직을 맡은 자는 각각의 직장(職掌)을 숙지하라. 혹은 병 때문에 혹은 사명(使命) 때문에 그 일에서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직무를 잘 할 수 있을 때에는 이전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응하라.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이라 하여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열네 번째, 군신이나 백료는 질투하지 말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투기하면 그 사람도 또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 질투의 근심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지식이 자기보다 뛰어나면 싫어하고, 재능이 자기보다 우수하면 이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5백 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현인을 만나기 어렵고, 천 년이 지난다 해도 한 사람의 성인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현인과 성인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열다섯 번째, 사심을 버리고 공적으로 하라. 이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대저 사람은 사심이 있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원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협조할 수가 없고, 협조가 없으면 사심으로 인해 공사(公事)를 방해하게 된다. 원망이 일어나면 제도를 위반하고 법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에서 상하가 화합하고 화목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은 뜻이었다.

열여섯 번째, 백성을 사역할 때에는 때를 고려하라고 한 것은 예로부터의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 여유가 있을 때 백성을 사역해도 좋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농경과 양잠의 계절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역하여서는 안 된다. 농경을 안 하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양잠을 안 하면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열일곱 번째, 대체로 일은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큰 일을 의논함에 이르러서는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서로 논의하면, 일은 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가을 9월에 조정의 예법을 고쳤다. 그리고 “궁문을 출입할 때에는 양손을 땅에 짚고 양발을 꿇어앉고, 문지방을 넘으면 일어서서 걸어라⁸⁴.”라고 명하였다. 이 달에 처음으로 황서화사(黃書畫師; 키후미노에카키)⁸⁵와 산배화사⁸⁶(山背

84 중국식의 立禮와 대비되는 일본식의 匍腹禮이다.

85 『新撰姓氏錄』山城國 諸蕃 黃文連조에 「出自高麗國人久斯那王也。」라고 보인다. 黃書氏가 이 黃文氏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고구려 久斯那王을 선조로 하는 도래계 씨족의 畫師집단으로 볼 수 있다. 『聖德太子傳曆』에 따르면 “冬10월에 태자가 모든 절의 불상을 그려 장엄하게 하고자 黃文畫師, 山背畫師, 箕秦畫師, 河內畫師, 檜畫師 등을 정하여 그 호구의 과세를 면제하고 영원히 名業하게 하였다.”고 하여 職業部로서 조정에 봉사한 것을 알 수 있다. 藥師寺 소장 『佛足石碑』銘에 따르면, 唐의 王玄策이 中天竺에서 轉寫한 佛足圖를 日本使人 黃書本文實이 唐普光寺에서 다시 전사하여 가져왔다고 한다. 黃文의 姓

畫師 ; 야마시로노에카키)를 지정하였다.

13년 여름 4월 신유삭(1일)에 천황이 황태자, 대신 및 제왕, 제신에게 함께 서원(誓願)을 발표하고, 구리와 비단의 장육불상⁸⁷ 각각 1구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안작조(鞍作鳥 ; 쿠라츠클리노토리)⁸⁸에게 명하여 불상을 만드는 공인으로 삼았다. 이때 고구려의 대흥왕(大興王)⁸⁹이 일본국의 천황이 불상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황금 3백 냥⁹⁰을 보내왔다.

윤 7월 기미삭(1일)에 황태자는 제왕과 제신에게 명하여 습(褶 ; 히라오비)⁹¹을 덧입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황태자가 반구궁(斑鳩宮 ; 이카루가노미야)⁹²에 거주하였다.

14년 여름 4월 을유삭 임진(8일)에 구리와 비단의 장육불상을 함께 완성하였다. 이 날에 장육의 동상⁹³을 원흥사⁹⁴의 금당에 안치하였다. 이때 불상이

을 붙인 画師는 사서에 산견한다. 『日本書紀』天武 12년조에 黃文造가 連姓을 받았고, 奈良時代가 되면 758년(天平寶字 2)의 「畫工司移」로 기록된 黃文連乙萬呂 등의 이름이 보인다. 律令制하에서는 中務省 畫工司에 소속되어 회화제작에 종사했으며, 궁전 및 사원 종교벽화, 調度の 부설 때에는 장식, 문양, 채색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86 여기에만 보인다.

87 1장 6척(약 4.8m)이 되는 불상을 말한다.

88 『日本書紀』敏達천황 13년 是歲條에 보이는 司馬達等の 손자로 用明천황 2년 여름 4월 병오조에 보이는 多須奈의 아들이라 한다. 「法隆寺金堂釋迦像名」에는 「司馬鞍首止利佛師」라고 기록되어 있다.

8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왕은 제26대 嬰陽王(재위 : 590~618)이다.

90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인용된 「丈六光背銘」에는 320냥이라고 하였다.

91 습은 예복의 하나로 남자는 바지, 여자는 唐裳 위에 입었다.

92 일반적으로 推古 9년(601) 2월에 궁실을 斑鳩에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9년에 착공하여 13년에 완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93 현재 飛鳥寺(元興寺) 본당의 本尊 丈六金銅釋迦像이라는 설이 있다. 『元興寺伽藍緣起并

금당 문보다 높아서 집에 들일 수가 없었다. 이에 공인들이 의논하기를 “금당 문을 부수고 안으로 넣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안작조는 우수한 공인이라 문을 부수지 않고 집에 들여 넣을 수가 있었다. 그날 재회(齎會)⁹⁵를 열었는데 참가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해부터 처음으로 절마다 4월 8일⁹⁶과 7월 15일⁹⁷에는 재회를 행하였다.

5월 갑인삭 무오(5일)에 안작조에게 “짐이 내전(內典)⁹⁸을 널리 퍼뜨리려고 불사(佛寺)를 세우려 하였을 때 먼저 사리를 구하였다. 그때에 그대의 조부 사마달등(司馬達等; 시메다치토)⁹⁹이 즉시 사리를 헌상하였다. 또 국내에 승니가 없었는데 너의 아버지 다수나(多須那; 타스나)¹⁰⁰가 굴풍일(橘豐日; 타치바나노토요히)천황¹⁰¹을 위해 출가하여 불법을 공경하였다. 또 너의 이모 도녀(嶋女; 시마메)¹⁰²는 최초로 출가를 하여 비구니들의 지도자로서 불도를 수행하였다. 지금 또 짐이 장육의 불상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불상을 구하였다. 그대가 헌상한 부처의 도상¹⁰³은 짐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이었다. 또 불상을 완성하여 금당에 들여 놓지 못하였다. 모든 장인들이 손을 쓰지 못하여 금당의 문을 부수려

流記資財帳』에 인용된 「丈六光背銘」에 따르면 완성은 己巳年(推古 17)이다.

94 法興寺 또는 飛鳥寺라고도 한다.

95 불사공양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96 釋迦의 탄생을 축하하는 법회인 灌佛會이다.

97 선조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맞이하고 공물로 공양하는 행사인 盂蘭盆會이다.

98 불교의 경전을 말한다.

99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584) 是歲條에 보인다.

100 『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587) 4월조에 보인다.

101 용명천황이다.

102 嬬는 보통 이모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고모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 시세조에서 司馬達等の 딸 嶋가 출가하여 善信尼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103 불상의 원그림을 말한다.

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문을 부수지 않고 불상을 들었다. 이것들은 다 너의 공이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대인(大仁)¹⁰⁴의 관위를 사여하고 근강국(近江國; 아후미노쿠니) 판전군(坂田郡; 사카타노코오리)¹⁰⁵의 논 20정을 주었다. 조(鳥)는 이 논으로 천황을 위하여 금강사¹⁰⁶를 지었다. 이것은 지금의 남연(南淵; 미나부치) 판전니사(坂田尼寺; 사카타노아마테라)¹⁰⁷라고 말한다.

가을 7월에 천황은 황태자에게 청하여 승만경(勝鬘經)¹⁰⁸을 강의하게 하였다. 3일 만에 설법을 마쳤다. 이 해 황태자는 또 법화경(法華經)을 강본궁(岡本宮; 오카모토노미야)¹⁰⁹에서 강의하였다. 천황은 크게 즐거워하여 파마국(播磨國; 하리마노쿠니)의 논 1백 정을 황태자에게 주었다. 황태자는 이를 반구사(斑鳩寺; 이카루가테라)¹¹⁰에 바쳤다.

15년 봄 2월 경진삭(1일)에 임생부(壬生部; 미부베)¹¹¹를 정하였다. 무자(9일)에 “내가 듣기를 옛날 우리 선조 천황이 세상을 다스릴 때 천지에 몸을 맡기고 순응하여 열심히 신기(神祇)¹¹²를 공경하고, 두루 산천을 제사하여 멀리 천지에

104 11년 12월조에 따르면 12계 관위의 제3위이다.

105 坂田公·息長公 등의 본거지이다. 지금의 滋賀県 長浜市域이라 한다.

106 지금의 明日香村 大字坂田으로 1973년 이후의 발굴에서 奈良시대의 건물 기반과 회랑, 7세기 이전의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107 『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 하4월 을사삭조에서는 안작조의 아버지 다수나가 용명천황을 위하여 장육불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坂田寺에 모셔져 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坂田尼寺는 坂田寺라고도 불렸다.

108 「三經義疏」(勝鬘經義疏, 法華經義疏, 維摩經義疏)는 태자의 저서라고 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이 있다.

109 法隆寺의 북동쪽에 있는 法起寺의 前身 岡本宮이다.

110 法隆寺의 다른 이름이다.

111 律令制 이전에 황자의 양육에 종속한 직업집단이다. 『日本書紀』 皇極紀 원년 시세조에서는 ‘乳部’로 적고 있다.

통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음양이 잘 열려 화합하고 조화롭게 되었다. 지금 짐의 시대에 신기 제사를 어찌 게을리 할 것인가. 그러므로 군신은 함께 지성을 다하여 신기를 예배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갑오(15일)에 황태자와 대신, 백료를 거느리고 신기를 제사하고 예배하였다.

가을 7월 무신삭 경술(3일)에 대례¹¹³ 소야신매자(小野臣妹子; 오노노오미이모코)¹¹⁴를 대당(大唐)¹¹⁵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안작복리(鞍作福利; 쿠라쓰쿠리노후쿠리)¹¹⁶를 통역으로 삼았다. 이 해의 겨울, 왜국에 고시(高市; 타카이치)못¹¹⁷, 등원(藤原; 후지와라)못¹¹⁸, 견강(肩岡; 카타오카)못¹¹⁹, 관원(菅原; 스가하라)못¹²⁰을 만들었다. 산배(山背; 야마시로)국 울외(栗隈; 쿠루쿠마)¹²¹에 큰 수로를 만들고, 하

112 천신과 지신을 말한다.

113 12관위의 제5위이다.

114 小野臣은 和珥臣의 동족이라고 한다. 妹子는 『新撰姓氏錄』左京 皇別 小野朝臣조에 「大春日朝臣同祖，彦婁津命五世孫米餅搗大使主命之後也。大德小野臣妹子，家于近江國滋賀郡小野村，因以為氏。」라고 보이고 있다. 최초의 遣隋使로서 알려져 있고 중국 이름은 蘇因高이다.

115 여기서 대당이란 隋를 가리킨다. 『隋書』倭國傳에 의하면 일본 최초의 건당사는 開皇 20년(600)으로 되어 있지만, 『日本書紀』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遣隋使는 大業 3년(607)의 견수사로서 『隋書』倭國傳에도 대응하는 기사가 있다. 다만 이 견수사는 日出處天子란 國書를 바쳐 隋煬帝의 노여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 기사를 두고 일본학계에서는 종래의 중국왕조에 대해 藩臣으로서의 종속외교에서 대등한 외교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설이 있지만, 실태는 조공외교이다.

116 推古 16년 9월에 재차 通事로서 수에 파견되었지만, 17년 9월조에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117 高市郡의 연못이다.

118 高市郡 藤原의 연못이다.

119 ‘肩岡’은 葛下川 하류의 北葛城郡王寺와 河合, 上牧의 지역과 香芝市 일대를 총칭한다. 『大和志』에서는 王寺村(奈良縣 北葛城郡 王寺町)에 있는 葦田池라고 하였다.

120 添下郡 菅原(현재 奈良縣 菅原町)의 연못이다.

121 지금의 京都府 城陽市에서 久世郡 久御山町에 걸친 지역이다.

내(河內; 가후치)국에는 호예(戶茹; 토카리)못¹²², 의망(依綱; 요사노)못¹²³을 만들고, 또 나라마다 둔창(屯倉; 미야케)을 두었다.

16년 여름 4월에 소야신매자가 대당에서 귀국하였다. 당국(唐國)에서는 매자신을 소인고(蘇因高)¹²⁴라 불렀다. 대당의 사인 배세청(裴世淸)¹²⁵과 하객(下客) 12명이 매자신을 따라서 측자에 도착하였다. 천황은 난파길사 웅성(雄成; 오나라)¹²⁶을 보내 대당의 객 배세청 등을 부르고, 당의 객을 위해 새로운 관을 난파(難波; 나니하)의 고구려관 옆에 지었다.

6월 임인삭 병진(15일)에 객들이 난파진¹²⁷에 머물렀다. 이 날에 장식한 배 30척으로 객들을 강 하구에서 맞이하여 새로 지은 관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중신궁지련오마려(中臣宮地連烏摩呂; 나카토미노미야도코로노무라지오마로)¹²⁸와 대

122 古市郡 藏之内村(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藏之内와 羽曳의 언덕)의 戸池이다. 『河内志』에도 같은 설명이 보인다.

123 『日本書紀』 崇神紀 62년 10월조에 依綱池의 조성기사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년의 고고학 조사에서 연못의 제방으로부터 출토된 木樋의 연대가 7세기 초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의망지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124 『日本書紀』 推古天皇 15년 가을 7월 경술조에 보인다.

125 『隋書』 倭國傳에 “明年(大業 4)上(煬帝)이 文林郎裴淸을 倭國에 보냈다.”라고 하였으며, 9월에 귀국하였다고 한다. 裴淸은 裴世淸인데, 이는 당태종 李世民的 ‘世’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文林郎은 종8품의 관품인데 大使 신분이 종8품으로 낮은 것은 隋의 왜에 대한 국제의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9년조(608)에는 “隋의 文林郎 裴淸이 왜국에 받들어 사신을 감에 우리나라의 남로를 거쳐 갔다.”라는 관련 기사가 보이고 있다.

126 裴世淸의 귀국 시에 小使 자격으로 수에 파견되었으며, 그 국서에 大禮乎那利란 이름이 보인다.

127 고대 大阪灣에 있었던 港湾施設로 현재의 大阪市 中央區 付近으로 보고 있다.

128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中臣宮地連조에는 「大中臣同祖」라고 보인다. 20년 2월조에 堅塩媛의 改葬에 즈음하여 대신의 조사를 읽는 것이 보인다.

하내직강수(大河內直糠手; 오토시카우치노아타히아라테)¹²⁹, 선사왕평(船史王平; 후네노후비토오우헤이)¹³⁰을 장객(掌客)¹³¹으로 삼았다. 이때 매자신이 “신(臣)이 귀국할 때에 당제¹³²가 국서를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국을 지날 때 백제인이 찾아내서 탈취하여 갔기 때문에 이를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주상하였다. 이에 군신이 의논하여 “무릇 사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번 사자는 어찌 태만하여 대국의 국서를 잃었는가.”라고 말하고, 매자를 즉시 유형(流刑)에 처하였다. 이때 천황은 “매자가 비록 국서를 잃는 죄를 범하였으나 경솔하게 단죄할 수는 없다. 저 대국의 객들이 이것을 들으면 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시 사면되어 단죄되지 않았다.

가을 8월 신축삭 계묘(3일)에 당객이 왕경¹³³에 들어왔다. 이 날에 장식한 말 75필을 보내어 당객을 해석류시(海石榴市; 츠바키치)¹³⁴의 노상에서 영접하고, 액전부련비라부(額田部連比羅夫; 누카타베노무라지히라부)¹³⁵가 인사말을 하였다. 임자(12일)에 당의 객인을 조정에 불러 사자의 취지를 주상하게 하였다. 아배조신(阿倍鳥臣; 아베노토리노오미)¹³⁶과 물부의망련포(物部依網連抱; 모노노베노요사미노무라지이다기)¹³⁷ 두 사람을 객의 안내자¹³⁸로 삼고, 대당국의 신물(信物)을

129 『隋書』倭國傳에 “倭王이 小德阿輩臺를 보내고 수백 인을 팔려 의장을 설치하고 鼓角을 울리며 맞이하였다.”고 하였다. ‘何輩’를 ‘河內’의 ‘河’로, ‘臺’를 ‘內’로 해석하기도 한다.

130 船史는 『日本書紀』 흙명천황 14년 6월조에 보이고, ‘王平’은 여기에만 보인다.

131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직책이다.

132 隋煬帝를 말한다.

133 원문은 京이며, 이때 왕경은 飛鳥이다.

134 隋의 사신은 難波에서 뱃길을 이용하여 大和川를 거슬러 올라 海石榴市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135 額田部連은 『日本書紀』 흙명천황 22년 이 해조에 보인다.

136 18년 10월조에 ‘阿倍鳥子臣’, 20년 2월조에 ‘阿倍內臣鳥’ 등이 보인다.

137 『新撰姓氏錄』河內國 神別 物部依網連조에는 「神饒速日命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138 원문은 導者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다.

뜰 가운데 두었다. 이때에 사주(使主) 배세청은 직접 국서를 가지고 두 번 재배한 뒤 사자의 취지를 말하였다. 그 국서에서는 “황제가 왜황¹³⁹에게 묻는다. 사자인 장리(長吏)¹⁴⁰ 대례(大禮) 소인고¹⁴¹ 등이 와서 왕의 마음을 전하였다. 나는 보명(寶名)을 받아 천하에 군림하고 그 덕화를 넓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고 싶다. 사랑으로 키우는 정은 멀리 있어도 멀어지지 않는다. 왜황은 바다 저편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여 나라 안이 평안하고, 풍속도 잘 융화되었으며, 뜻이 깊어 성의를 다해 멀리서 조공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 정성에 짐은 기뻐하는 바이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나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홍려시(鴻臚寺)의 장객¹⁴² 배세청 등을 보내 방문하는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별도로 선물을 보낸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아배신(阿倍臣; 아베노오미)이 나아가서 그 국서를 받아 앞으로 나아 갔다. 대반설련(大伴嚙連; 쿠히노무라지)¹⁴³은 이를 맞이하여 국서를 받들어 대문 앞의 책상 위에 두고, 주상하고 나서 물러났다. 이때 황자나 제왕·제신은 모두 금으로 만든 계화(髻花)¹⁴⁴를 머리에 꽂고 또 의복은 모두 금(錦), 자(紫), 수(繡), 식(織) 및 오색의 능라를 사용하였다[어떤 책(一云)에는 복장의 색은 모두 관(冠)의 색을 썼다고 한다.]. 병진(16일)에 당객(唐客)들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9월 신미삭 을해(5일)에 객들을 난파의 대군(大郡; 오호고오리)¹⁴⁵에서 향응하

139 원래 ‘倭王’이었으나 『日本書紀』 편찬자가 개작한 것이다.

140 상급 관료를 의미한다.

141 추고천황 15년 가을 7월 경술조에 보인다.

142 鴻臚寺는 외국사신의 접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隋에서는 開皇 3년(583)에 大常寺를 병합하여 12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典客·司儀·崇元の 3署를 두었고, 掌客은 典客署의 직원으로 정원은 10명이다.

143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조(587)에 보인다.

144 머리 장식이다.

145 고대의 郡 가운데 큰 군을 일컫는 것으로 大化改新에서는 40리의 군을 말하고, 律令制

였다. 신사(11일)에 당의 객인 배세청이 돌아갔다. 즉시 다시 소야매자신을 대사로 하고 길사 웅성을 소사로, 복리를 통사¹⁴⁶로 삼아 당객을 수행시켰다. 이에 천황이 당의 황제¹⁴⁷에게 안부를 물었다. “동쪽의 천황이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아뢰입니다¹⁴⁸. 사신인 홍려시의 장객 배세청 일행이 오게 되어 오랜 기간의 회포가 풀렸습니다. 가을도 점차 저물어 가고 청량해졌는데 황제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평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평안합니다. 지금 대례 소인고¹⁴⁹와 대례 웅성 등을 보내어 삼가 아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당국으로 보낸 학생¹⁵⁰은 왜한직복인(倭漢直福因; 야마토노야아노아타이후쿠인)¹⁵¹과 나라역어혜명(奈羅譯語惠明; 나라노오사예묘)¹⁵², 고향한인현리(高向漢人玄理; 타카무쿠노야아히도겐리)¹⁵³, 신한인대국(新漢人大國; 이마키노야아히도오쿠니)¹⁵⁴ 및 학문승 일문(日文; 니치몬)¹⁵⁵, 남연한인청안(南淵漢人淸安; 미나부치노쇼안)¹⁵⁶, 지

에서는 20리 이하 16리 이상의 군을 말한다.

146 추고천황 15년 가을 7월 경술조에 보인다.

147 隋煬帝이다.

148 이때의 遣隋使에 대응하는 중국 측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149 추고천황 15년 가을 7월 경술조에 보인다.

150 학생은 사신을 따라 수에 도항하여 학예를 배우는 사람이다. 불교를 배우는 승려를 학문승이라 하였다.

151 추고천황 31년 7월에 귀국한 기사가 보인다.

152 惠明은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53 『日本書紀』에 의하면 欽明天皇 12년(551) 10월에 귀국하여 大化改新 때에는 國博士가 되었다. 白雉 5년(654) 2월에 遣唐押使가 되어 당에 가서 거기서 客死하였다.

154 ‘大國’은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155 『日本書紀』 舒明天皇 4년 8월조의 僧旻과 같은 인물로 본다. 귀국 후에 『周易』을 강의하였고, 大化改新 때는 國博士가 되었다. 白雉 4년 6월 사망하였다.

156 『日本書紀』에 의하면 舒明天皇 12년(640) 10월에 귀국하여 中大兄皇子와 中臣鎌足 등에게 유교를 가르쳤다.

하한인혜은(志賀漢人慧隱; 시가노아야히토에온)¹⁵⁷, 신한인광제(新漢人廣濟; 이마키 노아야히토코우사이)¹⁵⁸ 등 모두 8명이었다. 이 해에 신라인이 많이 귀화하였다.

17년 여름 4월 정유삭 경자(4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¹⁵⁹가 “백제승려인 도흔(道欣)과 혜미(惠彌)¹⁶⁰를 우두머리로 한 10명과 70명의 속인¹⁶¹들이 비후국(肥後國; 히노미치노시리노쿠니)의 위북(葦北; 아시키타)¹⁶²나루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주상하였다. 이때 난파길사 덕마려(德摩呂; 토코마로)와 선사룡(船史龍; 후나노후비토타쓰)¹⁶³을 보내어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백제왕¹⁶⁴의 명령으로 오국(吳國; 쿠레노쿠니)¹⁶⁵에 파견되었는데, 그 나라에 전란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홀연히 폭풍을 만나 해중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¹⁶⁶.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제(聖帝)의 변경에 도착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월 정묘삭 임오(16일)에 덕마려 등이 돌아와 주상하였다. 즉시 덕마려와 용 두 사람을 다시 보내 백제 사람들을 본국에 보내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

157 『日本書紀』에 의하면 舒明天皇 11년 9월에 귀국하여 다음 해 5월 『無量壽經』을 강연하였다.

158 ‘廣濟’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59 ‘大宰’가 처음 보인다. 율령제의 大宰府는 西海道 9국 2도(壱岐·對馬)를 관장하는 관청이었다.

160 도흔과 혜미는 여기에만 보인다.

161 세속, 즉 일반 사람을 말한다.

162 지금의 熊本縣 葦北郡이다.

163 이 두 사람은 여기에만 보인다.

164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이때의 백제왕은 제30대 武王(재위: 600~641)이다.

165 『日本書紀』에서는 중국 남조가 있었던 江南지역을 말한다.

166 표류라고 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이곳에 우연히 표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와 有明海지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기록으로 보는 설이 있다.

마에 이르러 도인¹⁶⁷ 등 11명 모두가 머물겠다고 요청하였다. 즉시 상표하고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원흥사(元興寺)¹⁶⁸에 살게 하였다.

가을 9월에 소야신매자(小野臣妹子; 오노노오미이모코) 등이 대당¹⁶⁹에서 귀국하였다. 오직 통역인 복리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18년 봄 3월에 고구려왕¹⁷⁰이 승려 담징(曇徵)¹⁷¹과 법정(法定)¹⁷¹을 바쳤다. 담징은 오경(五經)을 잘 알고, 또 채색과 종이, 목을 잘 만들고 맷돌(碾磑)¹⁷²을 만들었다. 대개 맷돌을 만든 것은 이때가 처음일 것이다.

가을 7월에 신라의 사인 사탁부(沙喙部)¹⁷³ 나말¹⁷⁴ 죽세사(竹世士)와 임나의 사인 탁부(喙部)¹⁷⁵ 대사(大舍) 수지매(首智買)¹⁷⁶가 축자에 도착하였다.

167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68 飛鳥寺 혹은 法興寺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奈良市에 있으며 南都 7大寺의 하나이다. 蘇我馬子が 飛鳥에 건립한 것으로 일본 최고의 사찰인 法興寺가 그 전신이다. 法興寺는 平城京 천도에 의해 飛鳥에서 奈良으로 이전되었다. 현재는 두 개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奈良市 中院町에 있는 것과 奈良市 芝新屋町에 있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것은 ‘古都 奈良의 문화재’로서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169 隋를 말한다.

170 이때는 고구려 영양왕 21년(610)에 해당한다.

171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담징에 대해서는 법륜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고구려계 화공집단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석가와 아미타·미륵·약사 등으로 구성된 四佛淨土圖인 이 벽화는 1949년 1월 수리 중에 화재를 당하여 소실되었다. 현재는 모사된 벽화가 일부 남아 있는데, 후대 자료인 917년(혹은 992년)에 성립된 『聖德太子傳曆』에는 聖德태자가 담징을 斑鳩宮에 불러 法隆寺에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172 맷돌 혹은 연자방아로 보는 설이 있다.

173 신라 6부의 하나로 沙喙部, 沙梁部, 沙喙部라고도 한다. 경상북도 상주의 옛 이름인 沙伐과 관련 있다는 설이 있다.

174 신라 17등 관위의 제11위이고, 竹世士는 24년 7월에 재차 來倭하였다.

175 신라 6부의 하나이다.

9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와 임나의 사인을 불렀다.

겨울 10월 기축삭 병신(8일)에 신라와 임나의 사인이 왕경¹⁷⁷에 도착하였다. 이 날 액전부련비라부(額田部連比羅夫; 누카타베노무라지히라부)¹⁷⁸에게 명하여 신라 객을 영접하기 위한 장식마(飾馬)의 장(長)으로 삼고, 선신대반(膳臣大伴; 가시와데노오미오호토모)¹⁷⁹을 임나 객을 영접하는 장식마의 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두(阿斗; 하토)¹⁸⁰ 강변에 있는 숙사에서 쉬게 하였다. 정유(9일)에 객인 등이 조정에서 배알하였다. 진조하승(秦造河勝; 하타노미야쓰코카와카쓰)¹⁸¹과 토사연토(土師連菟; 하지노무라지우스기)¹⁸²에게 명하여 신라 객의 안내역¹⁸³으로 삼고, 간인련염개(間人連鹽蓋; 하시히토노무라지시호후타)¹⁸⁴와 아폐신대롱(阿閉臣大籠; 아베노오미오호코)¹⁸⁵을 임나 객의 안내역으로 삼았다. 이들은 함께 인도하여 남문으로 들어와 뜰 안에 섰다. 이때에 대반사련(大伴咋連; 쿠이노무라지)¹⁸⁶과 소아풍포하이신(蘇我豐浦蝦夷臣; 소가노토유라노에미시노오미)¹⁸⁷, 판본강수신(坂本糠手

176 大舎는 신라 17등 관위의 제12위이다.

177 원문은 京이다.

178 16년 가을 8월 계묘조에 보인다. 『수서』 왜국전의 大禮 哥多毘로 보는 설이 있다.

179 大伴은 여기에만 보인다.

180 지금의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이라고 한다.

181 11년 11월 을해삭조에 보인다.

182 土師連은 『日本書紀』 수인천황 32년 가을 7월 을묘조에 보인다. 菟는 여기에만 보인다.

183 16년 8월 12일조 참조.

184 天武천황은 13년 12월 間人連에게 宿禰의 姓을 내렸다. 鹽蓋는 여기에만 보인다.

185 阿閉臣은 『新撰姓氏錄』의 河内國 皇別 阿閉臣조에 「阿閉朝臣同祖. 大彥命彥瀨立大稻起命之後也.」라고 보이며 阿倍臣과 동족이라 한다. 天武천황 13년 11월에 朝臣의 姓을 받았다. 大籠은 여기에만 보인다.

186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원년(588) 가을 7월조에 보인다.

187 馬子の 아들로 欽明紀 8년 7월조에 보이는 豐浦大臣이다. 皇極천황 4년 6월에 中大兄 황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자살하였다.

臣；사카모토노아라테노오미)¹⁸⁸, 아배조자신(阿倍鳥子臣；아베노토리코노오미)¹⁸⁹ 등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뜰에 엎드렸다. 이에 양국의 객들이 각각 재배하고 사신의 취지를 주상하였다. 즉시 4인의 대부¹⁹⁰가 일어나서 나아가 대신¹⁹¹에게 말하였다. 이때 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사 앞에 서서 들었다. 드디어 모든 객들에게 녹을 사하였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을축(17일)에 사인들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하내한직지(河內漢直贄；카우치노아야노아타히니에)¹⁹²를 신라 사인의 상대역¹⁹³으로 삼고, 금직수구승(錦織首久僧；니시코리노오비토쿠소)¹⁹⁴을 임나 사인의 상대역으로 삼았다. 신해(23일)에 객이 영접하는 의례를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19년 여름 5월 5일에 토전야(菟田野；우다노)¹⁹⁵에서 약렵(藥獵)¹⁹⁶을 하였다. 등원(藤原；후지하라)¹⁹⁷못 가에서 모여 새벽에 출발하였는데, 속전세목신(粟田細目臣；아하타노호소메노오미)¹⁹⁸을 전방의 부령(部領)¹⁹⁹으로 삼고 액전부비라부런

188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원년(588) 가을 7월조에 보인다.

189 16년 가을 8월 임자조에 보인다.

190 大伴昨連 이하의 4인을 말한다.

191 소아마자 대신이다.

192 『日本書紀』 천武천황 12년(684) 9월조에 河內漢直에게 連의 姓을 내렸고, 14년 6월조에는 忌寸의 성을 내렸다. 贄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93 원문은 共食者로 함께 식사하며 접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다.

194 錦織首는 欽明紀 31년 가을 7월 是月조의 ‘錦首’ 참조. 久僧은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95 지금의 奈良縣 宇陀郡 棒原町 足立이라 한다.

196 본래 사슴의 若角(鹿茸)을 취하는 사냥으로 후대에는 약초를 채집하는 것으로도 사용한다.

197 추고천황 15년 가을 7월 경술조에 보인다.

198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 栗田朝臣조에는 「大春日朝臣同祖，天足彦國忍人命之後也。」라고 보인다.

(額田部比羅夫連; 누카타베노히라부노무라지)²⁰⁰을 후방의 부령으로 삼았다. 이 날에 모든 신하의 옷 색깔은 모두 관(冠)의 색깔에 맞추고 각각 계화로 관을 장식하였다. 즉 대덕·소덕은 금(金)을, 대인·소인은 표범의 꼬리털을, 대례 이하는 새의 깃털²⁰¹을 사용하였다.

가을 8월에 신라는 사탁부 나말(奈末) 북질지(北叱智)²⁰²를, 임나는 습부(習部)²⁰³ 대사(大舍) 친지주지(親智周智)²⁰⁴를 파견하여 함께 조공하여 왔다.

20년 봄 정월의 신사삭 정해(7일)에 군경(群卿)을 불러 주연을 베풀었다. 이날 대신은 술잔을 들고 노래하였다.

우리 대군이 사시는 광대한 궁전,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참으로 훌륭합니다. 천대(千代) 만대(萬代)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고 배하하며 받들겠습니다. 축하의 노래를 바칩니다.

천황이 화답하였다.

소아씨여, 소아의 자손들은 말에 비유한다면 일향(日向; 히무카)의 말이요, 큰 칼이라면 오나라의 진짜 칼²⁰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소아의

199 지휘관을 뜻한다.

200 추고천황 16년 가을 8월 계묘조에 보인다.

201 꿩의 깃털이다.

202 北叱智는 여기에만 보인다.

203 習部는 習比部로, 신라 6부의 하나이다.

204 親智周智는 여기에만 보인다.

205 중국 삼국시대의 국명 중 하나인 ‘뒤틀나라’(지금의 江蘇省)를 말한다. ‘眞刀’란 『吳越春秋』 『荀子』의 「性惡篇」에 보이는 뒤틀나라의 칼 만드는 장인인 干將과 莫邪가 만든 칼이란 의

자손을 대군이 사용하는 것은.

2월 신해삭 경오(20일)에 황태부인²⁰⁶ 견염원(堅鹽媛; 키타시히메)²⁰⁷을 회의(檜隈; 히노쿠마)의 대릉에 개장(改葬)하였다. 그리고 이 날 경(輕; 카루)의 거리에서 조사를 읽었다. 제일 처음 아배내신조(阿倍内臣鳥; 아베노우치노오미토리)²⁰⁸가 천황의 추모사를 읽고 영전에 바쳤다. 명기(明器)²⁰⁹, 명의(明衣)의 종류가 1만 5천 종이였다. 두 번째는 황자들이 서열에 따라 각각 조사를 읽었고, 세 번째는 중신궁지련오마려(中臣宮地連烏摩侶; 나카토미노미야도고로노무라지오마로)²¹⁰가 대신의 추모사를 바쳤다. 네 번째는 대신이 팔복신(八腹臣; 아하라노오미)²¹¹들을 거느리고 경부신마리세(境部臣摩理勢; 사카이베노오미마리세)²¹²에게 씨성의 근본에 대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마리세와 오마려 두 사람은 조사를 잘 마쳤으나 조신(鳥臣)만은 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여름 5월 5일에 약렵을 개최하였다. 우전(羽田; 하타)²¹³에 모여 서로 열 지어 조정으로 갔다. 그날의 복장은 토전(菟田; 우다)에서 사냥할 때²¹⁴와 같았다.

이 해에 백제국에서 귀화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얼굴과 몸에 모두 흰 반점

미이다.

206 堅鹽媛은 欽明天皇의 비이며 用明·推古天皇의 모친이지만, 蘇我稻目の 딸로 皇族이 아니기 때문에 ‘황태부인’이라 하였다고 보는 설이 있다. 律令 公式令에서는 황족일 경우에는 황태후라 한다. 하지만 소아씨의 딸이기 때문에 ‘황태부’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207 『日本書紀』 孝德天皇 2년(541) 봄 3월조에 보인다.

208 推古天皇 16년 가을 8월 임자조에 보인다.

209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한 그릇을 모방하여 무덤에 묻는 그릇이다.

210 推古天皇 16년 6월 병진조에 보인다.

211 많은 씨족이란 의미이다.

212 推古天皇 8년 시세조에 보인다.

213 지금의 奈良県 高市郡 高取町이다.

214 推古天皇 19년 夏5월 5일조 참조.

이 있었다. 혹 백라(白癩)²¹⁵에 걸린 사람인가. 사람들과 다른 것을 싫어하여 바다 가운데 섬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반점이 있는 피부가 싫다면 국내에서 흰 반점의 소나 말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나는 약간 재주가 있어, 능히 산악의 형태를 만든다. 나를 머무르게 하고 사용한다면 나라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어찌 헛되이 바다의 섬에 버릴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만 두었다. 그래서 아미산(順彌山)²¹⁶ 모양과 오교(吳橋)²¹⁷를 남정(南庭)²¹⁸에 만들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노자공(路子工)이라 불렀다. 또한 이름을 지기마려(芝耆摩呂; 시키마로)²¹⁹라고도 하였다. 또 백제인 미마지(昧摩之; 미마시)²²⁰가 귀화하여 “오나라에서 배워서 기악(伎樂)²²¹의 춤을 출 줄 안다.”고 말하였다. 즉시 앵정(櫻井; 사쿠라이)²²²에 살게 하고 소년을 모아서 기악의 춤을 배우게 하였다. 이때 진야수제자(眞野首弟子; 마노노오비토데시)²²³와 신한제문(新漢濟文; 이마키노야야히토사이몬)²²⁴ 두 사람이 배워서 그 춤

215 사람 얼굴과 몸, 목의 피부 색깔이 희게 변하는 것이다.

216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가장 높은 산을 말한다.

217 『日本書紀』에서 ‘오’는 중국의 강남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오교는 다리 아래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무지개 형태로 만든 것이다.

218 궁의 남문 바깥 광장을 말한다.

219 ‘芝耆’는 ‘磯城’(시키)이라고도 하는데, 돌로 만든 성이라는 의미로 보는 설이 있다.

220 여기에만 보인다.

221 고대 티벳·인도의 가면극을 말한다. 고대 한국에 전래되어 불교행사에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아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 그 가면은 東大寺의 正倉院과 法隆寺, 동경국립박물관에 남아 있다.

222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과 『上宮聖德法王帝說』에 따르면 豐浦寺가 세워진 곳이다.

223 여기에만 보인다.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眞野造조에서는 「出自百濟國尙古王也,」라고 보며, 백제계 씨족인 眞野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4 여기에만 보인다.

을 전수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대시수(大市首; 오후치노오비토)²²⁵와 벽전수(辟田首; 사키타노오비토)²²⁶ 등의 선조이다.

21년 겨울 11월에 액상(掖上; 와키노카미)²²⁷의 못과 무방(畝傍; 우네비)²²⁸의 못, 화이(和珥; 와니)의 못²²⁹을 만들었다. 또 난파에서 왕경에 이르기까지 큰 길을 내었다²³⁰. 12월 경오삭(1일)에 황태자는 편강(片岡; 카타오카)²³¹에 갔다. 그때 굶주린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황태자가 보고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즉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걸인에게 덮어 주면서 “평안히 누워 있거라.”라고 말하고 노래하였다.

편강산(片岡山)에서 먹을 것에 굶주려 누워 있는 농부여, 가엽구나. 부모 없이 네가 태어났겠는가, 주군(主君)은 없는가. 먹을 것에 굶주려 누워 있는 농부여, 가엽구나.

신미(2일)에 황태자가 사자를 보내어 굶주린 자를 보고 오라고 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굶주린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황태자는

225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大市首조에는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라고 보인다.

226 『新撰姓氏錄』大和國 諸蕃 辟田首조에는 「出自任那國主都奴加阿羅志等也.」라고 보인다.

227 『地名辭典』에는 御所市 池之內村이라고 한다. 『日本書紀』持統天皇 4년 2월조에 보이는 ‘掖上陂’를 ‘액상지’의 제방으로 보는 설이 있다.

228 지금의 奈良縣 橿原市 畝傍町 부근의 연못으로 보는 설이 있다.

229 지금의 奈良市 池田町の 연못으로 보는 설이 있다.

230 고대의 難波와 飛鳥京을 연결하는 큰 도로는 지금의 大阪市 難波宮跡에서 남쪽으로 가면 堺市 金岡村 부근에서 竹内街道와 교차한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竹内峠을 넘어 奈良縣을 거쳐 北葛城郡 當麻町の 竹内에서 동쪽으로 가면 橿原市 八木町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231 지금의 奈良縣 香芝市 今泉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15년 이 해조에 보인다.

크게 슬퍼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매장시키고 흙을 쌓아 묘를 만들어 주었다. 수일 후 황태자가 측근을 불러 “전일 길가에 누워 있던 굶주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반드시 진인(眞人)²³²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신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이에 사자가 돌아와 “묘소에 이르러 봤더니 흙을 쌓아 묻은 곳은 변동이 없었으나 열어 보니 시체는 이미 없어지고, 다만 의복만이 차곡차곡 개어져 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황태자가 다시 사자를 보내 그 의복을 가져오게 하여 전과 같이 다시 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대단히 기이하게 생각하여 “성인(聖人)은 성인을 알아본다는 말은 과연 참말이구나.”라고 말하고 더욱 황공하게 여겼다.

22년 여름 5월 5일에 약령을 개최하였다.

6월 정묘삭 기묘(13일)에 견상군어전초(犬上君御田鉾; 이누카미노키미미타스키)²³³와 시전부조(矢田部造; 야타베노미야즈코)²³⁴[이름이 빠졌다.]를 대당²³⁵에 파견하였다.

가을 8월에 대신이 병에 걸렸다. 대신을 위해 남녀 합하여 1천 명을 출가시켰다.

23년 가을 9월에 견상군어전초와 시전부조가 대당에서 귀국하였다. 백제의 사자도 견상군을 따라 내조하였다.

232 도교에서 득도하여 신선이 된 사람을 말한다.

233 23년 9월에 귀국하였고, 舒明天皇 2년(630) 8월에는 제1차 견당사로 파견되어 서명천황 4년(632) 8월에 귀국하였다.

234 天武天皇 12년(684) 9월에 矢田部連으로 改姓하였다. 『新撰姓氏錄』左京 神別 矢田部連조에는 「伊香我色乎命之後也。」라고 보인다.

235 이때는 煬帝의 大業 10년(614)이지만 중국 측에는 대응하는 기사가 없다.

11월 기축삭 경인(2일)에 백제의 객을 향응하였다. 계묘(15일)에 고구려의 승려 혜자²³⁶가 귀국하였다.

24년 봄 정월에 복숭아와 오얏이 열매를 맺었다.

3월에 액구인(掖玖人)²³⁷ 3인이 귀화하였다.

여름 5월에 야구인(夜勾人)²³⁸ 7인이 왔다.

가을 7월에 또 액구인 20인이 왔다. 전후 합하여 30인이 된다. 모두 박정(朴井; 에노이)²³⁹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귀향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가을 7월²⁴⁰에 신라가 나말(奈末) 죽세사(竹世士; 지쿠세이시)²⁴¹를 파견하여 불상을 바쳤다²⁴².

25년 여름 6월에 출운국(出雲國; 이즈모노쿠니)이 “신호군(神戶郡; 카무토노코 호리)²⁴³에 참외가 열렸는데, 크기가 큰 부(缶)²⁴⁴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해에 오곡이 잘 익었다.

236 원년 여름 을묘조에 보인다.

237 九州 남단의 屋久島 사람이다.

238 액구인과 같다.

239 지금의 奈良市 西木辻町이라는 설과 大阪府 岸和田市 西之内의 榎井池라고 하는 설이 있다.

240 추7월조가 두 번 반복되고 있다.

241 추고천황 18년 봄 3월조에 보인다.

242 『扶桑略記』에 「七月, 新羅王貢金佛像高二尺, 置蜂岡寺. 此像放光, 時時有異.」라고 보인다.

243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出雲國 神門郡’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244 ‘缶’은 용량의 단위로 4斛, 16斗이다.

26년 가을 8월 계유삭(1일)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²⁴⁵하고 방물²⁴⁶을 바쳤다. 그리고 “수나라 양제(煬帝)²⁴⁷가 30만의 무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공격하다가 도리어 우리에게 패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포로 정공(貞公)과 보통(普通) 2인, 고취(鼓吹)·노(弩)²⁴⁸·포석(抛石)²⁴⁹ 등 10종류와 아울러 토산물과 낙타 1필을 바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해에 하변신(河邊臣; 카하에노오미)²⁵⁰[이름이 빠졌다.]을 안예국(安藝國; 아기노쿠니)²⁵¹에 보내 배를 만들게 하였다. 산에 들어가 배의 목재를 찾았는데, 마침 적합한 재목을 얻어 그것을 베려 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벼락 맞은 나무이니 베어서는 안 된다²⁵².”고 말하였다. 하변신이 “벼락의 신이라고 하여 천황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많은 폐백을 올려 제사하고 인부를 보내서 베게 하였다. 그러자 즉시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번쩍였다. 이에 하변신이 검을 굳게 쥐고 “벼락의 신이여, 인부를 다치게 해서 안 된다. 내 몸을 상하게 하라.”고 말하고 우러러보고 기다렸다. 10여 회나 벼락이 쳤지만 하변신을 상처줄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조그마한 물고기로 변하여 나뭇가지에 끼었다.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태워버렸다. 드디어 배를 완성하였다.

245 고구려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왜에 협조를 구하는 외교전략으로 생각된다.

246 그 지방의 특산물을 말한다.

247 隋煬帝는 614년(推古 22) 세 번째 대군을 고구려에 보내 공격하였지만, 양국의 피해가 커서 양제는 병사를 후퇴시켰다. 이후 수나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618년에 양제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당 高祖인 李淵이 당을 세웠다.

248 쇠노를 말한다.

249 돌을 쏘는 기계이다.

250 『日本書紀』 흠명천황 23년(562) 가을 7월 이 달조에 보인다.

251 『續日本紀』天平寶字 5년(761) 10월조에 遣唐使 선박 네 척을 安藝國에서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252 벼락을 맞은 나무를 神木으로 간주하였다.

27년 여름 4월 기해삭 임인(4일)에 근강국(近江國; 아후미노쿠니)에서 “포생하(蒲生河; 카마후가와)²⁵³에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 하였다. 가을 7월에 섭진국(攝津國; 츠노쿠니)에 한 어부가 망을 굴강(堀江)에 가 라앉혀 놓았더니 망에 걸린 것이 있었다. 그 형상이 어린애와 같았다. 물고기 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어서 이름을 지을 수 없었다²⁵⁴.

28년 가을 8월에 액구인 2명이 이두도(伊豆嶋; 이즈노시마)에 흘러 왔다.

겨울 10월에 사력(砂礫)²⁵⁵을 회외(檜隈; 히노구마)능²⁵⁶ 위에 덮었다. 또 능역의 주위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다. 씨(氏)마다 할당하여 큰 기둥을 그 토산 위에 세우게 하였는데, 왜한판상직(倭漢坂上直; 야마토노아야노사카노우에노아타히)²⁵⁷이 세운 기둥이 뛰어나게 크고 높았다. 때문에 사람들이 대주직(大柱直; 오호하시라노아타히)이라고 하였다.

12월 경인삭(1일)에 하늘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길이는 1장 정도이고 모양은 평의 꼬리와 닮았다. 이 해에 황태자와 도대신(嶋大臣; 시마노오호오미)²⁵⁸이 함께 의논하여 『천황기(天皇記)』²⁵⁹ 및 『국기(國記)』²⁶⁰, 신·연·반조·국조 180부²⁶¹와

253 현재 滋賀縣 湖東平野 남부에서 琵琶湖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254 人魚전설이다.

255 능의 葺石이다.

256 欽明天皇의 능인 檜隈坂合陵이다.

257 『日本書紀』 흙명천황 31년(570) 가을 7월 이 달조에 보인다.

258 蘇我馬子이며 島大臣 호칭에 대해서는 34년 5월조에 보인다.

259 천황의 계보와 치적 등을 기록한 서적으로 『古事記』 서문에 보이는 ‘帝紀’, ‘帝王本紀’, ‘帝皇日繼’ 등의 종류이다.

260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서적이다.

261 大和朝廷의 제 씨족을 가문의 순서대로 늘어세운 것으로 본다. 臣은 지명과 연관 있는 씨족이고, 連은 職掌에 따른 씨족이며, 伴造는 조정의 직무를 세습하는 신분의 상위의 씨족이다. 그 외에 造·首 등이 있으며, 國造는 大和朝廷의 지방관으로 지방호족이고,

아울러 공민(公民)²⁶² 등의 본기(本記)²⁶³를 기록하게 하였다.

29년 봄 2월 기축삭 계사(5일)에 한밤중에 구호풍총이황자명(虯戶豐聰耳皇子命; 우마야토노토요토미노미코노미코토)이 반구궁(斑鳩宮; 이카루가노미야)²⁶⁴에서 죽었다. 이때 제왕·제신과 천하의 모든 백성은 늙은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것처럼 소금이나 식초를 입에 넣어도 그 맛을 몰랐다. 어린아이는 인자한 부모를 잃은 듯이 우는 소리가 거리에 넘쳤다. 발을 가는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쌀을 찢는 여자는 절구질을 하지 않았다. 모두 “해도 달도 광채를 잃고 하늘도 땅도 무너져버린 것 같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이 달에 상궁태자를 기장(磯長; 시나가)의 능²⁶⁵에 장사하였다. 이때에 고구려의 승려 혜자²⁶⁶가 상궁황태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황태자를 위하여 승려를 모아 재회(齋會)를 열었다. 그리고 스스로 불경을 읽는 날에 서원하기를 “일본국에 성인이 있는데 상궁풍총이(上宮豐聰耳; 가미즈미야노토요토미미)황자이다. 진실로 하늘로부터 자질을 받고 현성(玄聖)의 덕을 가지고 일본국에 태어났다. 삼통(三統)²⁶⁷을 꿰뚫어 선성(先聖)²⁶⁸의 광대한 일을 계승하고 불교를 공경하고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제하였다. 이 분이야말로 진실한 대성(大聖)²⁶⁹이다. 지금 태자는 이미 죽었다. 나는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

‘180部’는 많은 일정의 직업에 종사하는 부족이라 할 수 있다.

262 여기에서 公民은 천황이나 조정 직속의 部民이다.

263 씨족의 근원이나 내력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264 추고천황 13년 겨울 10월조에 보인다.

265 『延喜式』 諸陵式에는 聖德太자의 묘를 ‘磯長墓’라고 하고 ‘河内國 石川郡에 있다. 兆域은 동서 3町이고 남북 2町이며 守戶는 3畑이다.’라고 주를 달고 있다.

266 원년 여름 4월 을묘조에 보인다.

267 중국 夏殷周 삼대의 曆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禹王, 湯王, 文王을 가리킨다.

268 夏殷周시대의 성인들을 말한다.

라도 마음은 태자와 단단히 맺어져 있다. 나 홀로 살아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
오. 나는 내년 2월 5일에 반드시 죽어서 상궁태자와 정토²⁷⁰에서 만나 함께 중
생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혜자는 정한 날에 맞추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상궁태자만이 성인이 아니었다. 혜자도 또한
성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해에 신라가 나말 이미매(伊彌買)²⁷¹를 파견하
여 조공하고, 상표하여 사자의 취지를 아뢰었다. 신라가 상표문을 올리는 것
은 아마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일까?

31년²⁷² 가을 7월에 신라가 대사 나말 지세이(智洗爾)²⁷³를, 임나가 달솔 나
말(達率奈末) 지(智)²⁷⁴를 파견하여 함께 내조하였다. 그리고 불상 1구 및 금탑
과 사리를 바쳤다. 또 큰 관정번(觀頂幡)²⁷⁵ 1구와 작은 번 12개를 바쳤다. 곧
불상은 갈야(葛野 ; 카도노)의 진사(秦寺 ; 우츠마사테라)²⁷⁶에 안치시켰다. 그 외 사
리와 금탑·관정번 등은 모두 사천왕사(四天王寺 ; 시텐와우지)²⁷⁷에 봉납하였다.
이때 대당²⁷⁸에 있던 학문승인 혜제(惠齊 ; 웨사이)²⁷⁹와 혜광(惠光 ; 웨쿠와우)²⁸⁰

269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270 번뇌와 미혹, 죄악 등이 없이 깨끗한 세계를 말한다.

271 여기에만 보인다.

272 岩崎本은 추고천황 31~34년을 추고천황 30~33년으로 놓고 34년을 공백으로 하였
고, 『書紀集解』는 추고천황 32년, 33년을 추고천황 31년, 32년으로 놓아 33년을 공백
으로 하였다.

273 여기에만 보인다.

274 達率은 백제 16등 관품의 제2품이고 奈末은 신라의 17관등 중 11위이다. 따라서 이중
의 관위가 된다. 智는 인명으로, 후문에서는 遲로 나오기도 한다.

275 부처의 덕을 알리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로 灌頂幡이라고도 한다.

276 秦河勝이 창건한 蜂岡寺(廣隆寺)로 11월 을해삭조에 보인다.

277 원년 이 해조에 보인다.

278 여기에서 大唐은 唐이다.

및 의원(醫) 혜일(惠日; 에니치)²⁸¹과 복인(福因; 후쿠인)²⁸²들이 모두 지세이(智洗爾)를 따라 귀국하였다. 그리고 혜일 등이 함께 “당나라에 유학한 자들은 다 학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소환함이 좋을 것입니다. 또 저 대당국은 법전과 의식이 정비된 훌륭한 나라입니다. 항상 통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²⁸³. 이때 천황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대신과 의논하고 군정에게도 의견을 들었다. 전중신(田中臣; 타나카노오미)²⁸⁴은 “급하게 정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정을 살펴 반역인지 확인하고 난 후에 쳐도 늦지 않습니다. 청컨대 한 번 사자를 파견하여 그 사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중신련국(中臣連國; 나카 토미노무라지쿠니)²⁸⁵은 “임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내관가(內官家)입니다. 지금 신라인이 쳐서 소유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세를 정비하여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어찌 신라가 영유하게 할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전중신이 “옳지 않습니다. 백제는 반복(反復)이 많은

279 여기에만 보인다.

280 『太子傳古今目錄抄』 인용의 「大同緣起延曆二十二年四天王寺資財帳逸文」에 ‘惠光法師’가 보인다.

281 『日本書紀』舒明天皇 2년(630) 8월조 참조.

282 추고천황 16년 9월 신사조에 보인다.

283 이 해의 기사에 대해서는 任那지방에 재차 신라에 배반하는 움직임이 있어 신라는 이것을 정벌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일본학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신라가 임나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기사는 한 간지를 상향시켜 흥명천황 23년(562) 춘정월조에 보이는 「新羅打滅任那官家」가 투영된 사건으로 보는 설이다. 한편으로는 가야 멸망 이후에도 가야의 존재가 계속되었듯이 『日本書紀』 편자의 가야관에 기초한 허구의 기록의 가능성이 높다.

284 『新撰姓氏錄』右京 皇別 田中朝臣조에는 「武内宿祢五世孫稻目宿祢之後也。」라고 보인다. 天武천황은 13년(685) 11월에 朝臣의 姓을 내렸다.

285 中臣連國은 『中臣氏族圖』에 인용된 延喜本系에 의하면 中臣可多能祢의 둘째 아들로 御食子の 동생으로, 鎌足에게는 숙부가 된다.

나라이고, 잠깐 사이에도 항상 속입니다. 무릇 저쪽이 청하는 바를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제에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토는 중지하였다. 이에 길사반금(吉士磐金; 키시노이와카네)²⁸⁶을 신라에 파견하고, 길사 창하(倉下; 쿠라지)를 임나에 파견²⁸⁷하여 임나의 일에 대해 묻게 하였다. 그때 신라국주²⁸⁸가 8명의 대부를 파견하여 신라국의 사정을 반금에게 알리고, 또 임나국의 사정을 창하에게 알렸다. 그리고 “임나는 소국이지만 천황에 의탁한 나라이다. 어찌 신라가 경솔하게 영유하겠는가. 지금과 같이 내관가로 정하고 걱정 말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말 지세지(智洗遲)²⁸⁹를 보내어 길사 반금을 따라가게 하고, 또 임나인 달솔 나말 지(遲)²⁹⁰에게 길사 창하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의 조(調)를 바쳤다. 그런데 반금 등이 아직 귀국하기 전인 같은 해에 대덕(大德)²⁹¹ 경부산웅마려(境部山雄摩侶; 사카이베노오마로)²⁹², 소덕(小德) 중신련국(中臣連國; 나카토미노무라지쿠니)을 대장군으로 삼고, 소덕 하변신네수(河邊臣禰受; 카하베노오미네즈)²⁹³, 소덕 물부의망련을등(物部依網連乙等; 모노노베노요사미노무라지오토)²⁹⁴, 소덕 파다신광정(波多臣廣庭; 하타노오미히로니와)²⁹⁵, 소덕 근강각신신반개(近江脚身臣飯蓋; 아후미노아나무

286 추고천황 5년 겨울 11월 갑오조에 보인다.

287 추고천황 11월조에 신라에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288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 신라왕은 제26대 眞平王(재위: 579~632)이다.

289 추고천황 31년 7월조의 智洗爾와 동일인이다.

290 추고천황 31년 7월조의 奈末智와 동일인이다.

291 推古 12계 관위의 제1위이다. 추고천황 11년 12월조에 보인다.

292 8년 이 해조에 보인다.

293 여기에만 보인다.

294 여기에만 보인다.

295 여기에만 보인다. 波多臣은 蘇我氏와 동족인 호족으로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 八多朝臣조에는 「石川朝臣同祖, 武内宿祢命之後也,」라고 보인다. 天武천황이 13년(685) 11월에 朝臣의 姓을 내렸다.

노오미이히후타)²⁹⁶, 소덕 평균신우지(平群臣宇志; 헤구리노오미우시)²⁹⁷, 소덕 대반련(大伴連; 오호토모노무라지)²⁹⁸[이름이 빠졌다.], 소덕 대택신군(大宅臣軍; 오호야게노오미이쿠사)²⁹⁹ 등을 부장군으로 삼아 수만의 군을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였다. 그때에 반금 등이 함께 항구에 모여서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 풍파의 형편을 살폈다. 그런데 배와 군사가 바다에 가득 차게 들어오고 있었다. 양국의 사인은 멀리에서 바라보고 겁이 나서 되돌아 가버렸다. 다시 감지대사(樞遲大舍; 탄지타사)³⁰⁰를 ‘임나조(任那調)³⁰¹’를 바치는 사자로 삼아 보냈다. 이에 반금 등이 서로 “이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전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래서는 임나의 일은 이번에도 또한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즉시 배를 출발시켜 귀국하였다. 그런데 장군들은 처음에 임나에 도착하자 상의하여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그러자 신라국주는 군사가 많이 왔다는 말을 듣고 미리 겁이 나서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장군들은 함께 의논하여 상표하였고, 천황도 허락하였다.

겨울 11월에 반금과 창하 등이 신라에서 귀국하였다. 그때 대신³⁰²이 그 나라의 상황을 물었다. “신라는 명을 받들어 대단히 두려워하여 함께 전사(專

296 여기에만 보인다.

297 여기에만 보인다.

298 『日本書紀』 승준천황 즉위전기 가을 7월조에 보이는 大伴連嚙로 보는 설이 있다.

299 여기에만 보인다. 『新撰姓氏錄』 河內國 皇別 大宅臣조에는 「大春日同祖, 天足彦國押人命之後也,」라고 보인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의 姓을 받았다.

300 樞遲는 인명이다.

301 이에 대해서는 5, 6세기 이전의 역사를 전제로 왜왕권의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여 신라가 왜왕권에 임나조를 의무적으로 바쳤다고 하는 설과 왜왕권의 임나지배를 부정하지만 신라에 의한 외교의례로서 이해하려는 설이 있다. 반면 『日本書紀』 편찬시기의 율령국가가 지배층의 조작과 윤색으로 보는 설과 왜왕권의 임나지배를 부정한 위에 임나가 존재한 시기의 역사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설이 있다.

302 소아마자이다.

使)³⁰³를 파견하여 양국의 조를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토하러 군선이 오는 것을 보고 조공사는 다시 돌아가버리고 조(調)만 바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신은 “아깝구나. 너무 일찍 군대를 파견하였구나.”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이번 정토는 경부신(境部臣; 사카이베노오미)과 아담련(阿曇連; 아즈미노무라지)이 일찍이 신라에서 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대신에게 권유한 것이다. 그래서 사자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정벌군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반금 등이 신라에 건너가던 날, 배가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장식한 배 한 척이 해변에서 영접하였다. 반금이 “이 배는 어느 나라의 영접선인가?”라고 물으니, “신라의 배다.”라고 대답하였다. 반금은 또 “어찌하여 임나의 영접선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즉시 임나의 배 한 척이 왔다. 신라가 영접선을 두 척 준비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장마로 홍수 때문에 오곡이 열매 맺지 않았다.

32년 여름 4월 병오삭 무신(3일)에 한 승려가 도끼로 조부를 때렸다. 천황이 듣고 대신을 불러 “대저 출가한 자는 오로지 삼보(三寶)³⁰⁴에 귀의하여 자세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 어찌 참회하고 삼가하는 마음 없이 경솔하게 악한 일을 범하는가. 짐이 승려가 조부를 구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사찰의 승니(僧尼)를 모아서 물어보아라. 만약 사실이면 중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든 승니를 모아 추문하였다. 그리고 악역을 행한 승려뿐만 아니라 모든 승니들을 다 벌주려 하였다. 그때 백제의 승려 관륙(觀勒)³⁰⁵이 “대저 불법은 서국³⁰⁶에서 한(漢)³⁰⁷으로 건너와 3백 년이 지난 후에 백제국에 전해

303 특별하게 파견한 사자를 말한다.

304 불교를 말한다.

305 추고천황 10년 겨울 10월조에 보인다.

306 인도를 말한다.

진지³⁰⁸ 겨우 1백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³⁰⁹. 그런데 우리 왕³¹⁰이 일본천황이 영명하다는 것을 듣고 불상과 경전을 헌상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아직 1백 년³¹¹도 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승니가 세속의 법을 잘 모르고 쉽게 악역을 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승니는 몹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원컨대 악역을 범한 자 이외의 승니는 모두 사면하여 벌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큰 공덕³¹²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를 받아들였다. 무오(13일)에 “무릇 출가자³¹³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속인³¹⁴을 가르쳐 선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승정(僧正), 승도(僧都)³¹⁵를 임명하여 승니를 감독시키기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임술(17일)에 관록을 승정으로 삼고, 안부덕적(鞍部德積; 쿠라쓰쿠리노토쿠샤쿠)³¹⁶을 승도로 삼았다. 같은 날에 아담련(阿曇連; 아즈미노무라지)[이름이 빠졌다.]을 법두³¹⁷로 삼았다.

307 이에 대해서는 後漢 明帝 永平 10년설(67)과 『魏略』 西戎傳에 의한 前漢 哀帝 元壽 원년설(기원전 2)이 있다.

308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에 불법이 전래된 것은 枕流王 원년(384) 9월의 일이라 하고, 왜국 전래는 『日本書紀』에 의하면 欽明 13년(552), 『上宮聖德法王帝說』에 의하면 戊午년(538)이라고 한다.

309 欽明朝에 불교가 전해졌던 것이 538년이라고 한다면 154년이 된다.

310 백제 聖(明)王을 말한다.

311 欽明 13년(552)부터라면 72년이고, 538년부터라면 86년이 된다.

312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처의 혜택을 말한다.

313 불교의 수행자를 말한다.

314 세속의 사람을 말한다.

315 불교 통제기관으로 남조에서는 통제기관의 장을 ‘僧主·僧正’, 차관을 ‘僧都·都維那’라고 하였다. 이것이 백제에 전해져 推古朝에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율령제에서는 僧正·僧都·律師로 이루어진 僧綱의 제도가 성립하였고, 모든 승려가 선임되었다. 여기서 僧都是 속인을 말한다고 본다.

316 여기에만 보인다.

317 僧正과 僧都를 도와 불교를 통제하는 직원이다. 孝德紀 大化 원년 8월조에 俗人 2명을

가을 9월 갑술삭 병자(3일)에 사찰과 승니를 조사하고, 그 사찰을 만든 이유와 승니의 입도 연유³¹⁸, 득도³¹⁹ 연월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때 사찰은 46개소, 비구승 816인, 비구니 569인으로 합하여 1,385인이었다. 겨울 10월 계묘삭(1일)에 대신³²⁰이 아담련[이름이 빠졌다.]과 아배신마려(阿倍臣摩侶; 아해노오미마로)³²¹ 두 사람을 파견하여 천황에게 “갈성현(葛城縣; 카즈라키노아가타)³²²은 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縣)의 이름을 따서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영구히 이 현을 사여하여 저의 봉현(封縣)³²³으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천황이 “짐은 소아씨에서 나왔다. 대신 또한 짐의 숙부³²⁴이다. 그래서 대신의 말은 밤에 말한 것은 밤이 새기 전에, 낮에 말한 것은 날이 저물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짐의 치세 동안에 이 현을 잃어버리면 후대의 천황들이 ‘어리석은 부인이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현을 잃어 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어찌 짐이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끝날 것인가. 대신도 불충한 것이 되어 후대에 악명을 남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33년 봄 정월 임신삭 무인(7일)에 고구려왕³²⁵이 승려 혜관(惠灌)을 보냈다³²⁶.

法頭로 임명하는 기사가 보인다.

318 출가의 이유를 말한다.

319 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가를 허락하는 것을 得度라 하고, 득도한 사람을 得者라 한다.

320 蘇我馬子이다.

321 『日本書紀』舒明天皇 즉위전기(628)에 阿倍麻呂臣이 보인다.

322 縣은 천황이나 조정이 영유하는 토지로 직접적으로는 縣主의 칭호를 가진 토지의 호족이 관리한다. 葛城縣은 葛上和 葛下 2군의 지역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알 수 없다. 『延喜式』祈年祭의 祝詞에 보이는 大和의 6御縣에 葛木縣이 있다고 한다.

323 여기서는 천황으로부터 받은 현을 의미한다.

324 馬子は 堅鹽媛의 형제로 숙부가 된다.

이에 승정으로 임명하였다.

34년 봄 정월에 복숭아와 오얏꽃이 피었다. 3월에 춥고 서리가 내렸다. 여름 5월 무자삭 정미(20일)에 대신³²⁷이 죽었다. 그래서 도원묘(桃原墓; 모모하라 노하카)³²⁸에 장사하였다. 대신은 도목숙네(稻目宿禰; 이나메노스쿠네)³²⁹의 아들로 무용과 지략이 있고 또한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는 재능이 있었다. 또 불법을 공경하고, 비조(飛鳥; 아스카)강 근방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뜰에 작은 못을 파고, 작은 섬을 못 가운데에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嶋; 시마)대신이라고 불렀다. 6월에 눈이 내렸다. 이 해는 3월부터 7월까지 장마가 계속 되어 나라 안에 기근이 극심하였다. 노인은 풀뿌리를 먹으며 길거리에서 죽고, 어린이는 젓꼭지를 문 채 모자가 함께 죽었다. 또 강도와 절도가 자주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35년 봄 2월에 육오국(陸奥國; 미치노쿠노쿠니)³³⁰에서 담비가 사람으로 변하여 노래를 불렀다. 여름 5월에 파리떼가 생겨 그 크기가 10장(丈)이 되었다. 이들은 무리지어 신농판(信濃坂; 시나노노사카)³³¹을 넘어갔다. 그 우는 소리가

325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27대 榮留王(재위: 618~643)이다.

326 해관의 파견은 고구려가 신라, 수를 의식하여 왜와의 우호관계를 위해 파견하였다고 보인다.

327 蘇我馬子로 『扶桑略記』에는 향년 76세라고 한다.

328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島庄에 있는 石舞臺고분을 馬子の 묘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329 『日本書紀』 선화천황 원년(537) 2월 임신삭조에 보인다.

330 울령제의 한 國으로 東山道에 속하였는데, 처음에는 「道奥(미치노오쿠)」로 불렸고 平安時代까지는 「陸奥(미치노쿠)」로도 불렸다. 이후에는 「陸奥國(미치노쿠노쿠니)」이라고 하였다.

331 信濃國과 上野國 경계의 碓氷峠이라고 하는 설과 信濃國과 美濃國 경계의 神坂이라는

우레와 같았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상야국(上野國; 가미쓰케노쿠니)에 이르러서 저절로 흩어졌다.

36년 봄 2월 무인삭 갑진(27일)에 천황이 병에 걸렸다.

3월 정미삭 무신(2일)에 일식³³²이 있었다. 임자(6일)에 천황의 병이 심해져서 나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촌황자(田村皇子; 타무라노미코)³³³를 불러 “황위에 올라 나라의 기초를 닦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亭育)³³⁴ 것은 원래 안이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하고 잘 살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또 같은 날에 산배대형(山背大兄; 야마시로노오호에)³³⁵을 불러 “너는 아직 미숙하다.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하라.”고 타일렀다. 계축(7일)에 천황이 죽었다(崩)³³⁶[그때 나이 75세였다.]. 남정(南庭)에 빈궁을 지었다.

여름 4월 임오삭 신묘(10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복숭아 열매 정도였다. 임진(11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오얏 열매 같았다.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가물었다. 가을 9월 기사삭 무자(20일)에 비로소 천황의 장례(喪禮)를 치루었다. 이때 군신이 각각 빈궁³³⁷에서 조사를 읽었다. 이에 앞서 천황이

설이 있다.

332 日蝕기사로는 처음이다.

333 舒明天황으로 敏達천황의 손자이며, 彦人大兄皇子의 아들이다.

334 기르고 키운다는 의미이다.

335 聖德太子의 아들로 『上宮聖德法王帝說』에는 山代大兄王이라고 한다. 모친은 蘇我馬子の 딸인 刀自古郎女이다.

336 『古事記』에서는 ‘小治田宮에 머무르며 천하를 다스리기를 37년(戊子年 3월 15일 癸丑日에 죽었다)이다.’라고 적고 있다.

337 遺體를 안치하고 있는 임시 궁전을 말한다.

군신에게 “요즘 오곡이 맺지 않아 백성이 크게 굶주렸다. 짐을 위해 농을 만들고 후장하지 않도록 하라. 죽전(竹田 : 타케다)황자³³⁸의 능에 장사하여라.”라고 유언하였다. 임진(24일)에 죽전황자의 능에 장사지냈다.

일본서기 권 제22

338 竹田황자는 推古천황의 소생이다. 『古事記』에서는 ‘御陵은 大野언덕 위에 있고, 후에 科長의 大陵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卷第廿二

豐御食炊屋姬天皇 推古天皇

豐御食炊屋姬天皇，天國排開廣庭天皇中女也。橘豐日天皇同母妹也。幼曰額田部皇女。姿色端麗，進止軌制。年十八歲，立爲淳中倉太玉敷天皇之皇后。卅四歲，淳中倉太珠敷天皇崩。卅九歲，當于泊瀨部天皇五年十一月，天皇爲大臣馬子宿禰見殺。嗣位既空，群臣請淳中倉太珠敷天皇之皇后額田部皇女，以將令踐祚。皇后辭讓之。百寮上表勸進。至于三乃從之。因以奉天皇璽印。冬十二月壬申朔己卯，皇后卽天皇位於豐浦宮。

元年 春正月壬寅朔丙辰，以佛舍利置于法興寺刹柱礎中。丁巳，建刹柱。夏四月庚午朔己卯，立廐戶豐聰耳皇子爲皇太子。仍錄擲政，以萬機悉委焉。橘豐日天皇第二子也。母皇后曰穴穗部間人皇女。皇后懷妊開胎之日，巡行禁中監察諸司。至于馬官，乃當廐戶，而不勞忽產之。生而能言，有聖智。及壯一聞十人訴，以勿失能辨，兼知未然。且習內教於高麗僧慧慈，學外典於博士覺智，並悉達矣。父天皇愛之，令居宮南上殿。故稱其名，謂上宮廐戶豐聰耳太子。秋九月，改葬橘豐日天皇於河內磯長陵。是歲，始造四天王寺於難波荒陵。是年也，太歲癸丑。

二年 春二月丙寅朔，詔皇太子及大臣，令興隆三寶。是時諸臣連等各爲君親

之恩，競造佛舍，卽是謂寺焉。

三年 夏四月，沈水漂著於淡路嶋，其大一圍，嶋人不知沈水，以交薪燒於竈，其烟氣遠薰，則異以獻之。五月戊午朔丁卯，高麗僧慧慈歸化，則皇太子師之，是歲，百濟僧慧聰來之，此兩僧弘演佛教，並爲三寶之棟梁。秋七月，將軍等至自筑紫。

四年 冬十一月，法興寺造竟，則以大臣男善德臣拜寺司，是日慧慈·慧聰二僧，始住於法興寺。

五年 夏四月丁丑朔，百濟王遣王子阿佐朝貢，冬十一月癸酉朔甲午，遣吉士磐金於新羅。

六年 夏四月，難波吉士磐金至自新羅，而獻鵲二隻，乃俾養於難波杜，因以巢枝而產之。秋八月己亥朔，新羅貢孔雀一隻，冬十月戊戌朔丁未，越國獻白鹿一頭。

七年 夏四月乙未朔辛酉，地動舍屋悉破，則令四方，俾祭地震神。秋九月癸亥朔，百濟貢駱駝一匹·驢一匹·羊二頭·白雉一隻。

八年 春二月，新羅與任那相攻，天皇欲救任那，是歲，命境部臣爲大將軍，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則將萬餘衆，爲任那擊新羅，於是直指新羅，以泛海往之。乃到于新羅，攻五城而拔，於是新羅王惶之舉白旗，到于將軍之麾下而立，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加羅·阿羅羅六城，以請服，時將軍共議曰，新羅知罪服之，強擊不可，則奏上，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復遣難

波吉士木蓮子於任那，並檢校事狀，爰新羅·任那王，二國遣使貢調，仍奏表之曰，天上有神，地有天皇，除是二神，何亦有畏乎，自今以後，不有相攻，且不乾般柁，每歲必朝，則遣使以召還將軍，將軍等至自新羅，即新羅亦侵任那，

九年 春二月，皇太子初興宮室于斑鳩，三月甲申朔戊子，遣大伴連嚙于高麗，遣坂本臣糠手于百濟，以詔之曰，急救任那，夏五月，天皇居于耳梨行宮，是時大雨，河水漂蕩，滿于宮庭，秋九月辛巳朔戊子，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則捕以貢之，流于上野，冬十一月庚辰朔甲申，議政新羅，

十年 春二月己酉朔，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授諸神部及國造·伴造等，并軍衆二萬五千人，夏四月戊申朔，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乃進屯嶋郡，而聚船舶運軍糧，六月丁未朔己酉，大伴連嚙·坂本臣糠手，共至自百濟，是時來目皇子臥病以不果征討，冬十月，百濟僧觀勒來之，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并遁甲·方術之書也，是時選書生三四人，以俾學習於觀勒矣，陽胡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山背臣日並立學方術，皆學以成業，閏十月乙亥朔己丑，高麗僧僧隆·雲聰共來歸，

十一年 春二月癸酉朔丙子，來目皇子薨於筑紫，仍驛使以奏上，爰天皇聞之大驚，則召皇太子·蘇我大臣，謂之曰，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之，其臨大事而不遂矣，甚悲乎，仍殯于周芳娑婆，乃遣土師連猪手，令掌殯事，故猪手連之孫曰娑婆連，其是之緣也，後葬於河內殖生山岡上，夏四月壬申朔，更以來目皇子之兄當麻皇子爲征新羅將軍，秋七月辛丑朔癸卯，當麻皇子自難波發船，丙午，當麻皇子到播磨，時從妻舍人姬王薨於赤石，仍葬于赤石檜笠岡上，乃當麻皇子返之遂不征討，冬十月己巳朔壬申，遷于小墾田宮，十一月己亥朔，皇太子謂諸大夫曰，我有尊佛像，誰得是像以恭拜，時秦造河勝進曰，臣拜之，便受佛

像，因以造蜂岡寺。是月，皇太子請于天皇，以作大楯及鞞[鞞，此云由岐]，又繪于旗幟，十二月戊辰朔壬申，始行冠位，大德·小德·大仁·小仁·大禮·小禮·大信·小信·大義·小義·大智·小智，并十二階，並以當色絕縫之，頂撮總如囊，而著緣焉，唯元日着髻華[髻華，此云于孺]，

十二年 春正月戊戌朔，始賜冠位於諸臣，各有差，夏四月丙寅朔戊辰，皇太子親肇作憲法十七條，一曰，以和爲貴，無忤爲宗，人皆有黨，亦少達者，是以或不順君父，乍違于隣里，然上和下睦，詣於論事，則事理自通，何事不成，二曰，篤敬三寶，三寶者佛·法·僧也，則四生之終歸，萬國之極宗，何世何人，非貴是法，人鮮尤惡，能教從之，其不歸三寶，何以直枉，三曰，承詔必謹，君則天之，臣則地之，天覆地載，四時順行，萬氣得通，地欲覆天，則致壤耳，是以君言臣承，上行下靡，故承詔必慎，不謹自敗，四曰，群卿百寮以禮爲本，其治民之本，要在乎禮，上不禮而下非齊，下無禮以必有罪，是以群臣有禮，位次不亂，百姓有禮，國家自治，五曰，絕養棄欲，明辨訴訟，其百姓之訟，一日千事，一日尙爾，況乎累歲，頃治訟者得利爲常，見賄聽讞，便有財之訟，如石投水，乏者之訴，似水投石，是以貧民則不知所由，臣道亦於焉闕，六曰，懲惡勸善古之良典，是以无匿人善，見惡必匡，其諂詐者，則爲覆國家之利器，爲絕人民之鋒劍，亦佞媚者，對上則好說下過，逢下則誹謗上失，其如此人皆无忠於君，无仁於民，是大亂之本也，七曰，人各有任，掌宜不濫，其賢哲任官，頌音則起，姦者有官，禍亂則繁，世少生知，剋念作聖，事無大少，得人必治，時無急緩，遇賢自寬，因此國家永久，社稷勿危，故古聖王爲官以求人，爲人不求官，八曰，群卿百寮早朝晏退，公事靡監，終日難盡，是以遲朝不逮于急，早退必事不盡，九曰，信是義本，每事有信，其善惡成敗，要在于信，群臣共信，何事不成，群臣无信，萬事悉敗，十曰，絕忿棄瞋，不怒人違，人皆有心，心各有執，彼是則我非，我是則彼非，我必非聖，彼必非愚，共是凡夫耳，是非之理，詎能可定，相共賢愚，如鑲无

端。是以彼人雖瞋，還恐我失。我獨雖得，從衆同舉。十一曰，明察功過，賞罰必當。日者賞不在功，罰不在罪。執事群卿，宜明賞罰。十二曰，國司·國造，勿斂百姓。國非二君，民無兩主。率土兆民，以王爲主。所任官司，皆是王臣。何敢與公，賦斂百姓。十三曰，諸任官者，同知職掌。或病或使，有關於事然得知之日，和如曾識，其以非與聞，勿防公務。十四曰，群臣百寮，無有嫉妬。我既嫉人，人亦嫉我。嫉妬之患，不知其極。所以智勝於己則不悅，才優於己則嫉妬。是以五百之乃今遇賢，千載以難得一聖。其不得賢聖，何以治國。十五曰，背私向公，是臣之道矣。凡夫，人有私必有恨，有憾必非同。非同則以私妨公，憾起則違制害法。故初章云，上下和諧，其亦是情歟。十六曰，使民以時，古之良典。故冬月有間，以可使民。從春至秋，農桑之節，不可使民。其不農何食，不桑何服。十七曰，夫事不可獨斷，必與衆宜論。少事是輕，不可必衆。唯速論大事，若疑有失，故與衆相辨，辭則得理。

秋九月，改朝禮。因以詔之曰，凡出入宮門，以兩手押地，兩腳跪之，越柵則立行。是月，始定黃書畫師·山背畫師。

十三年 夏四月辛酉朔，天皇詔皇太子·大臣及諸王·諸臣，共同發誓願，以始造銅·繡丈六佛像，各一軀。乃命鞍作鳥爲造佛之工。是時高麗國大興王聞日本國天皇造佛像，貢上黃金三百兩。閏七月己未朔，皇太子命諸王·諸臣，俾著褶。冬十月，皇太子居斑鳩宮。

十四年 夏四月乙酉朔壬辰，銅·繡丈六佛像並造竟。是日也，丈六銅像坐於元興寺金堂。時佛像高於金堂戶，以不得納堂。於是諸工人等議曰，破堂戶而納之。然鞍作鳥之秀工，以不壞戶得入堂。卽日設齋。於是會集人衆不可勝數。自是年初每寺，四月八日，七月十五日設齋。

五月甲寅朔戊午，勅鞍作鳥曰，朕欲興隆內典，方將建佛刹，肇求舍利。時汝

祖父司馬達等便獻舍利，又於國無僧尼，於是汝父多須那爲橘豐日天皇，出家恭敬佛法，又汝姨嶋女初出家，爲諸尼導者，以修行釋教，今朕爲造丈六佛，以求好佛像，汝之所獻佛本，則合朕心，又造佛像既訖，不得入堂，諸工人不能計，以將破堂戶，然汝不破戶而得入，此皆汝之功也，則賜大仁位，因以給近江國坂田郡水田廿町焉，鳥以此田，爲天皇作金剛寺，是今謂南淵坂田尼寺，秋七月，天皇請皇太子，令講勝鬘經，三日說竟之。

是歲，皇太子亦講法華經於岡本宮，天皇大喜之，播磨國水田百町施于皇太子，因以納于斑鳩寺。

十五年 春二月庚辰朔，定壬生部，戊子，詔曰，朕聞之，曩者我皇祖天皇等宰世也，跼天躋地，敦禮神祇，周祠山川，幽通乾坤，是以陰陽開和，造化共調，今當朕世，祭祀神祇，豈有怠乎，故群臣共爲竭心，宜拜神祇，甲午，皇太子及大臣率百寮，以祭拜神祇，秋七月戊申朔庚戌，大禮小野臣妹子遣於大唐，以鞍作福利爲通事。

是歲冬，於倭國作高市池・藤原池・肩岡池・菅原池，山背國掘大溝於栗隈，且河內國作戶苅池・依網池，亦每國置屯倉。

十六年 夏四月，小野臣妹子至自大唐，唐國號妹子臣曰蘇因高，卽大唐使人裴世清・下客十二人，從妹子臣至於筑紫，遣難波吉士雄成，召大唐客裴世清等，爲唐客，更造新館於難波高麗館之上，六月壬寅朔丙辰，客等泊于難波津，是日以飾船卅艘，迎客等于江口安置新館，於是以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爰妹子臣奏之曰，臣參還之時，唐帝以書授臣，然經過百濟國之日，百濟人探以掠取，是以不得上，於是群臣議之曰，夫使人雖死之，不失旨，是使矣何怠之失大國之書哉，則坐流刑，時天皇勅之曰，妹子雖有失書之罪，輒不可罪，其大國客等聞之，亦不良，乃赦之不坐也，秋八月辛丑朔癸卯，唐

客入京。是日，遣飾騎七十五匹而迎唐客於海石榴市衢。額田部連比羅夫以告禮辭焉。壬子，召唐客於朝廷。令奏使旨。時阿倍鳥臣·物部依網連抱，二人爲客之導者也。於是大唐之國信物置於庭中。時使主裴世清親持書，兩度再拜，言上使旨而立。其書曰，皇帝問倭皇，使人長吏大禮蘇因高等至具懷。朕欽承寶命，臨仰區宇。思弘德化，覃被含靈。愛育之情，無隔遐邇。知皇介居表，撫寧民庶，境內安樂，風俗融和，深氣至誠，達脩朝貢。丹款之美，朕有嘉焉。稍暄，比如常也。故遣鴻臚寺掌客裴世清等，稍¹宣往意，并送物如別。時阿倍臣出進，以受其書而進行。大伴嚙連迎出承書置於大門前机上而奏之，事畢而退焉。是時皇子·諸王·諸臣悉以金髻華著頭。亦衣服皆用錦·紫·繡·織及五色綾羅[一云，服色皆用冠色。]。丙辰，饗唐客等於朝。

九月辛未朔乙亥，饗客等於難波大郡。辛巳，唐客裴世清罷歸。則復以小野妹子臣爲大使，吉士雄成爲小使，福利爲通事，副于唐客而遣之。爰天皇聘唐帝。其辭曰，東天皇敬白西皇帝，使人鴻臚寺掌客裴世清等至，久憶方解。季秋薄冷，尊何如。想清悉。此卽如常。今遣大禮蘇因高·大禮乎那利等往。謹白，不具。是時遣於唐國學生倭漢直福因·奈羅譯語慧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國·學問僧新漢人日文·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惠隱·新漢人廣齊等，并八人也。

是歲，新羅人多化來。

十七年 夏四月丁酉朔庚子，筑紫大宰奏上言，百濟僧道欣·惠彌爲首，一十人，俗人七十五人，泊于肥後國葦北津。是時遣難波吉士德摩呂·船史龍以問之曰，何來也。對曰，百濟王命以遣於吳國。其國有亂不入，更返於本鄉。忽逢暴風，漂蕩海中。然有大幸，而泊于聖帝之邊境。以歡喜。五月丁卯朔壬午，德摩呂等復奏之。則返德呂·龍二人，而副百濟人等，送本國。至于對馬，以道人等

1 소학관본에서는 '指'라고 적고 있다.

十一，皆請之欲留。乃上表而留之。因令住元興寺。秋九月，小野臣妹子等至自大唐。唯通事福利不來。

十八年 春三月，高麗王貢上僧曇微·法定。曇微知五經，且能作彩色及紙墨，并造碾磑。盖造碾磑始于是時歟。秋七月，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到于筑紫。九月，遣使召新羅·任那使人。冬十月己丑朔丙申，新羅·任那使人臻於京。是日，命額田部連比羅夫，爲迎新羅客莊馬之長，以膳臣大伴，爲迎任那客莊馬之長。卽安置阿斗河邊館。丁酉，客等拜朝庭。於是命秦造河勝·土部連菟，爲新羅導者，以間人連臨蓋·阿閉臣大龍，爲任那導者。共引以自南門入之，立于庭中。時大伴咋連·蘇我豐浦蝦兩臣·坂本糠臣·阿倍鳥子臣，共自位起之，進伏于庭。於是兩國客等各再拜，以奏使旨。乃四大夫起進啓於大臣。時大臣自位起，立廳前而聽焉。既而賜祿諸客。各有差。乙巳，饗使人等於朝。以河內漢直贄爲新羅共食者，錦織首久僧爲任那共食者。辛亥，客等禮畢，以歸焉。

十九年 夏五月五日，藥獵於菟田野。取鷄鳴時集于藤原池上。以曾明乃往之。粟田細目臣爲前部領，額田部比羅夫連爲後部領。是日，諸臣服色，皆隨冠色，各著髻華。則大德·小德並用金。大仁·小仁用豹尾。大禮以下用鳥尾。秋八月，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共朝貢。

廿年 春正月辛巳朔丁亥，置酒宴群卿。是日，大臣上壽歌曰，夜須彌志斯，和餓於朋耆彌能，訶句理摩須，阿摩能椰蘇訶礙，異泥多多須，彌蘇羅烏彌禮麼，豫呂豆余珥，訶勾志茂餓茂，知余珥茂，訶勾志茂餓茂，知余珥茂，訶勾志茂餓茂，訶之胡彌呂，菟伽陪摩都羅武，烏呂餓彌呂，菟伽陪摩都羅武，宇多豆紀摩都流。天皇和曰，摩蘇餓豫，蘇餓能古羅破，宇摩奈羅麼，譬武伽能古摩，多智奈

羅麼，句禮能摩差比，宇倍之訶茂，蘇餓能古羅烏，於朋枳彌能，菟伽破須羅志枳。二月辛亥朔庚午，改葬皇太夫人堅臨媛於檜隈大陵。是日，誄誄於輕街。第一，阿倍內臣烏，誄天皇之命，則奠靈。明器·明衣之類，萬五千種也。第二，諸皇子等，以次第各誄之。第三，中臣宮地連烏摩侶，誄大臣之辭。第四，大臣引率八腹臣等，便以境部臣摩理勢，令誄氏姓之本矣。時人云，摩理勢·烏摩侶，二人能誄，唯烏臣不能誄也。夏五月五日，藥獵之，集于羽田，以相連參趣於朝。其裝束如菟田之獵。是歲，自百濟國有化來者，其面·身皆斑白。若有白癩者乎。惡其異於人，欲棄海中嶋。然其人曰，若惡臣之斑皮者，白斑牛馬不可畜於國中。亦臣有小才，能構山岳之形。其留臣而用，則爲國有利。何空之棄海嶋耶。於是聽其辭以不棄。仍令構須彌山形及吳橋於南庭。時人號其人曰路子工。亦名芝耆摩呂。又百濟人味摩之歸化曰，學于吳，得伎樂舞。則安置櫻井，而集少年，令習伎樂舞。於是眞野首弟子·新漢齊文二人，習之傳其儔。此今大市首·辟田首等祖也。

廿一年 冬十一月，作掖上池·畝傍池·和珥池。又自難波至京置大道。十二月庚午朔，皇太子遊行於片岡。時飢者臥道垂。仍問姓名，而不言。皇太子視之與飲食。卽脫衣裳覆飢者而言，安臥也。則歌之曰，斯那提流，箇多烏箇夜摩爾，伊比爾惠弓，許夜勢厘，諸能多比等阿波禮，於夜那斯爾，那禮奈理鷄迷夜，佐須陀氣能，枳彌波夜祇，伊比爾惠弓，許夜勢留，諸能多比等阿波禮。辛未，皇太子遣使令視飢者。使者還來之曰，飢者既死。爰皇太子大悲之，則因以葬埋於當處。墓固封也。數日之後，皇太子召近習先者，謂之曰，先日臥于道飢者，其非凡人，必眞人也。遣使令視。於是使者還來之曰，到於墓所而視之，封埋勿動。乃開以見屍骨既空。唯衣服疊置棺上。於是皇太子復返使者，令取其衣，如常且服矣。時人大異之曰，聖之知聖其實哉，逾惶。

廿二年 夏五月五日，藥獵也。六月丁卯朔己卯，遣犬上君御田鍬·矢田部造

[闕名.]於大唐.

秋八月, 大臣臥病, 爲大臣而男女并一千人出家.

廿三年 秋九月, 犬上君御田畝·矢田部造, 至自大唐. 百濟使則從犬上君而來朝. 十一月己丑朔庚寅, 饗百濟客矣. 癸卯, 高麗僧慧慈歸于國.

廿四年 春正月, 桃李實之. 三月, 掖玖人三口歸化. 夏五月, 夜句人七口來之. 秋七月, 亦掖玖人廿口來之. 先後并卅人, 皆安置於朴井. 未及還皆死焉. 秋七月, 新羅遣奈末竹世士, 貢佛像.

廿五年 夏六月, 出雲國言, 於神戶郡有瓜, 大如缶. 是歲, 五穀登之.

廿六年 秋八月癸酉朔, 高麗遣使貢方物. 因以言, 隋煬帝興卅萬衆攻我. 返之爲我所破. 故貢獻俘虜貞公·普通二人及鼓吹·弩·拋石之類十物, 并土物駱駝一匹.

是年, 遣河邊臣[闕名.]於安藝國, 令造船. 至山覓舶材. 便得好材, 以名將伐. 時有人曰, 霹靂木也. 不可伐. 河邊臣曰, 其雖雷神, 豈逆皇命耶, 多祭幣帛, 遣人夫令伐. 則大雨雷電之. 爰河邊臣案劍曰, 雷神無犯人夫. 當傷我身, 而仰待之. 雖十餘霹靂, 不得犯河邊臣. 卽化少魚, 以挾樹枝. 卽取魚焚之. 遂脩理其舶.

廿七年 夏四月己亥朔壬寅, 近江國言, 於蒲生河有物. 其形如人. 秋七月, 攝津國有漁父, 沈罟於堀江. 有物入罟. 其形如兒. 非魚非人, 不知所名.

廿八年 秋八月, 掖玖人二口流來於伊豆嶋. 冬十月, 以砂礫葺檜隈陵上. 則域

外積土成山，仍每氏科之，建大柱於土山上，時倭漢坂上直樹柱，瞻之太高，故時人號之曰大柱直也，十二月庚寅朔，天有赤氣，長一丈餘，形似雉尾，是歲，皇太子·嶋大臣共議之，錄天皇記及國記·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并公民等本記。

廿九年 春二月己丑朔癸巳，半夜廐戶豐聰耳皇子命薨于斑鳩宮，是時諸王·諸臣及天下百姓，悉長老如失愛兒，而鹽酢之味，在口不嘗，少幼者如亡慈父母，以哭泣之聲滿於行路，乃耕夫止耜，春女不杵，皆曰，日月失輝，天地既崩，自今以後，誰恃哉，是月，葬上宮太子於磯長陵，當是時，高麗僧慧慈聞上宮皇太子薨，以大悲之，爲皇太子，請僧而設齋，仍親說經之日，誓願曰，於日本國有聖人，曰上宮豐聰耳皇子，固天攸縱，以玄聖之德生日本之國，苞貫三統，纂先聖之宏猷，恭敬三寶，救黎元之厄，是實大聖也，今太子既薨之，我雖異國，心在斷金，某獨生之，有何益矣，我以來年二月五日必死，因以遇上宮太子於淨土，以共化衆生，於是慧慈當于期日而死之，是以時人之彼此共言，其獨非上宮太子之聖，慧慈亦聖也，是歲，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仍以表書奏使旨，凡新羅上表，蓋始起于此時歟。

卅一年 秋七月，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任那遣達率奈末智，並來朝，仍貢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卽佛像居於葛野秦寺，以餘舍利·金塔·觀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是時大唐學問者僧惠齊·惠光及醫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於是惠日等共奏聞曰，留于唐國學者皆學以成業，應喚，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國也，常須達。

是歲，新羅伐任那，任那附新羅，於是天皇將討新羅，謀及大臣，詢于群卿，田中臣對曰，不可急討，先察狀，以知逆後擊之不晚也，請試遣使觀其消息，中臣連國曰，任那是元我內官家，今新羅人伐而有之，請戒戎旅征伐新羅，以取任

那附百濟，寧非益有于新羅乎。田中臣曰，不然。百濟是多反覆之國。道路之間尙詐之。凡彼所請皆非之。故不可附百濟。則不果征焉。爰遣吉士磐金於新羅。遣吉士倉下於任那。令問任那之事。時新羅國主遣八大夫。啓新羅國事於磐金。且啓任那國於倉下。因以²約曰。任那小國。天皇附庸。何新羅輒有之。隨常定內官家。願無煩矣。則遣奈末智洗遲副於吉士磐金。復以任那人達率奈末遲副於吉士倉下。仍貢兩國之調。然磐金等未及于還。卽年以大德境部臣雄摩侶·小德中臣連國爲大將軍。以小德河邊臣禰受·小德物部依網連乙等·小德波多臣廣庭·小德近江脚身臣飯蓋·小德平群臣宇志·小德大伴連[闕名]·小德大宅臣軍爲副將軍。率數萬衆。以征討新羅。時磐金等共會於津。將發船以候風波。於是船師滿海多至。兩國使人望瞻之愕然。乃還留焉。更代堪遲大舍。爲任那調使而貢上。於是磐金等相謂之曰。是軍起之。既違前期。是以任那之事今亦不成矣。則發船而渡之。唯將軍等始到任那而議之。欲襲新羅。於是新羅國王聞軍多至。而豫懼之請服。時將軍等共議以上表之。天皇聽矣。冬十一月。磐金·倉下等至自新羅。時大臣問其狀。對曰。新羅奉命。以驚懼之。則並差專使。因以貢兩國之調。然見船師至。而朝貢使人更還耳。但調猶貢上。爰大臣曰。悔乎。早遣師矣。時人曰。是軍事者。境部臣·阿曇連。先多得新羅幣物之故。又勸大臣。是以未待使旨。而早征伐耳。初磐金等渡新羅之日。比及津。莊船一艘迎於海浦。磐金問之曰。是船者何國迎船。對曰。新羅船也。磐金亦曰。曷無任那之迎船。卽時更爲任那加一船。其新羅以迎船二艘。始于是時歟。自春至秋。霖雨大水。五穀不登焉。

卅二年 夏四月丙午朔戊申。有一僧。執斧毆祖父。時天皇聞之。召大臣詔之曰。夫出家者頓歸三寶。具懷戒法。何無懺忌。輒犯惡逆。今朕聞。有僧以毆祖父。故悉聚諸寺僧尼。以推問之。若事實者。重罪之。於是集諸僧尼而推之。則

2 소학관본에는 ‘以’가 없다.

惡逆僧及諸尼，並將罪。於是百濟觀³勤僧表上以言，夫佛法自西國至于漢經三百歲，乃傳之至於百濟國，而僅一百年矣。然我王聞日本天皇之賢哲，而貢上佛像及內典，未滿百歲。故當今時，以僧尼未習法律，輒犯惡逆，是以諸僧尼慙懼，以不知所如。仰願其除惡逆者以外僧尼，悉赦而勿罪，是大功德也。天皇乃聽之。戊午，詔曰，夫道人尙犯法，何以誨俗人。故自今已後，任僧正·僧都，仍應檢校僧尼。壬戌，以觀勒僧爲僧正，以鞍部德積爲僧都。卽日以阿曇連[闕名]，爲法頭。秋九月甲戌朔丙子，校寺及僧尼，具錄其寺所造之緣，亦僧尼入道之緣及度之年月日也。當是時，有寺卅六所，僧八百十六人，尼五百六十九人，并一千三百八十五人。冬十月癸卯朔，大臣遣阿曇連[闕名]·阿倍臣摩侶二臣，令奏天皇曰，葛城縣者元臣之本居也。故因其縣爲姓名。是以冀之常得其縣，以欲爲臣之封縣。於是天皇詔曰，今朕則自蘇我⁴出之。大臣亦爲朕舅也。故大臣之言，夜言矣夜不明，日言矣則日不晚，何辭不用。然今當朕之世，頓失是縣，後君曰，愚癡婦人臨天下以頓亡其縣，豈獨朕不賢耶。大臣亦不忠。是後葉之惡名，則不聽。

卅三年 春正月壬申朔戊寅，高麗王貢僧惠灌，仍任僧正。

卅四年 春正月，桃李華之。三月，寒以霜降。夏五月戊子朔丁未，大臣薨。仍葬于桃原墓。大臣則稻目宿禰之子也。性有武略，亦有辨才。以恭敬三寶，家於飛鳥河之傍。乃庭中開小池。仍興小嶋於池中。故時人曰嶋大臣。六月，雪也。

是歲，自三月至七月，霖雨。天下大飢之。老者噉草根而死于道垂，幼者含乳以母子共死。又強盜竊盜並大起之，不可止。

3 소학관본에서는 ‘勸’이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서는 ‘何’라고 적고 있다.

卅五年 春二月，陸奥國有貉化人以歌之。夏五月，有蠅聚集。其凝累十丈之，浮虛以越信濃坂。鳴音如雷。則東至上野國而自散。

卅六年 春二月戊寅朔甲辰，天皇臥病。三月丁未朔戊申，日有蝕盡之。壬子，天皇痛甚之，不可諱。則召田村皇子謂之曰，昇天位而經綸鴻基，馭萬機以亭育黎元，本非輒言。恒之所重。故汝愼以察之。不可輕⁵言。卽日，召山背大兄敎之曰，汝肝稚之。若雖心望，而勿誼言。必待群言以宣從。癸丑，天皇崩之[時年七十五.]。卽殯於南庭。夏四月壬午朔辛卯，雹零。大如桃子。壬辰，雹零。大如桃子。自春至夏旱之。秋九月己巳朔戊子，始起天皇喪禮。是時群臣各誅於殯宮。先是天皇遺詔於群臣曰，比年五穀不登。百姓太飢。其爲朕興陵以勿厚葬。便宜葬于竹田皇子之陵。壬辰，葬竹田皇子之陵。

日本書紀卷第廿二

5 소학관본에서는 ‘輒’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23

日本書紀 卷第廿三

제34대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서명천황(舒明天皇)



일본서기 권 제23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 **서명천황**(舒明天皇; 조메이텐노)

식장족일광액(息長足日廣額;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천황¹은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노스메라미코토)²의 손자이고, 언인대형황자(彦人大兄皇子; 히코히토노오호에노미코)³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강수희황녀(糠手姫皇女; 아라테히메노미코)라 한다. 풍어식취옥희천황(豐御食炊屋姫天皇; 토요미케카시키야히메노스메라미코토)⁴ 29년에 황태자 풍총이존(豐聰耳尊; 토요토미미노

1 서명천황(재위: 629~641)의 휘는 전촌(田村; 다무라), 和風 시호는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이다. 추고천황의 사후 후계자 논의에서 대신 蘇我蝦夷는 田村皇子를 옹립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아하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 다른 유력 호족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인 소아씨의 피를 이은 山背大兄皇子를 배제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서명의 시대에 실질적인 집권자는 소아하이였음은 명확하다. 이 시기의 대외적 특징으로는 최초로 견당사를 파견하였고, 당에서는 고표인을 보냈다. 신라는 견당사를 왜국에 보내는 送使외교를 추진하였고, 백제와는 백제궁, 백제천, 백제대빈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문화의 깊은 영향을 엿볼 수 있다.

2 敏達天皇이다.

3 舒明天황의 아버지 皇極천황의 조부에 해당하며,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즉위 전에 사망하였다.

미코토)⁵이 죽었다(薨). 그러나 아직 황태자를 세우지 않았다. (재위) 36년 3월에 천황이 죽었다(崩).

9월에 장례가 끝났는데도 후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때 소아하이신(蘇我蝦夷臣; 소가노에미시노오미)⁶이 대신이었다. 그는 혼자 후계를 정하려고 하였으나, 군신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안배마려신(安倍麻呂臣; 아헤노마로노오미)⁷과 상의하여, 군신들을 대신의 집에 모이게 하여 향응을 베풀었다. 연회를 끝내고 산회하려고 할 때 대신이 안배신(安倍臣; 아헤노오미)에게 명하여 군신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지금 천황이 붕어하시고 후사가 없다. 만일 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까 걱정이다. 지금 어느 왕을 후계로 해야 하는가. 천황이 와병 중일 때 전촌황자(田村皇子; 타무라노미코)⁸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대임(大任)이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전촌황자여, 신중하게 생각하라. 태만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산배대형왕(山背大兄王; 야마시로노오호에노미코)⁹에게 ‘그대는 혼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반드시 군신의 말에 따라 삼가며 그릇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이 천황의 유언이다. 지금 누구를 천황으로 할 것인가?”

그때에 군신이 침묵하여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다시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다. 그때 대반경련(大伴鯨連; 오호토모노쿠지라노무라

4 推古天皇이다.

5 聖德太子이다.

6 蘇我馬子の 아들이다.

7 推古紀 32년 10월조의 阿倍臣摩侶, 孝德紀 즉위전기 을묘년 6월 경술조의 阿倍內麻呂臣 등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8 舒明天皇이다.

9 성덕태자의 아들로 母는 蘇我馬子の 딸인 刀自古郎女이다. 皇極紀 2년 11월조에 蘇我入鹿의 공격을 받아 자결했다고 한다.

지)이 나아가 “천황의 유언을 따라야 합니다. 군신의 말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고 말하였다. 이에 안배신이 “무슨 말인가. 본심을 밝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천황이 어떤 생각에서 전촌황자에 ‘천하의 통치를 위임하는 일은 대업이다. 태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에 따르면 황위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채녀신마례지(采女臣摩禮志; 우네메노오미마례시), 고향신우마(高向臣宇麻; 타카무쿠노오미우마), 중신련미기(中臣連彌氣; 나카토미노무라지미케)¹⁰, 난파길사신자(難波吉士身刺; 나니하노키시무자시)¹¹ 등 네 명의 신하가 “대반련(大伴連)의 말에 전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허세신대마려(許勢臣大麻呂; 코세노오미오호마로), 좌백련동인(佐伯連東人; 사헤키노무라지아즈마히토), 기신염수(紀臣鹽手; 키노오미시호테) 3인이 나아가 “산배대형왕, 이분을 천황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소아창마려신(蘇我倉麻呂臣; 소가노쿠라마로노오미)¹²[다른 이름은 웅당(雄當; 오마사)이다.]만이 혼자 “신은 지금 당장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대신은 군신이 화합하지 못하여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러났다.

이에 앞서 대신이 홀로 경부마리세신(境部摩理勢臣; 사카히베노마리세노오미)¹³에게 “지금 천황이 붕어하시고, 후계자가 없다. 누구를 천황으로 세워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산배대형을 천황으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10 왜왕관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씨족으로 대화개신을 주도했던 中臣鎌足の 父이다. ‘彌氣’는 『家傳』에 ‘美氣祐’로 나온다.

11 難波吉士는 吉士를 姓으로 하는 신라계 도래씨족으로, 외교와 해외에 파견되는 사신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12 蘇我雄當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蘇我馬子이고, 아들로는 蘇我倉山田石川麻呂, 蘇我日向, 蘇我連子, 蘇我赤兄, 蘇我果安 등이 있다.

13 境部臣은 蘇我氏의 일족으로 蘇我馬子는 그의 숙부에 해당한다.

이때 산배대형은 반구궁(斑鳩宮 ; 이카루가노미야)에 있으면서 의논한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하여 삼국왕(三國王 ; 미쿠니노오호키미), 앵정신화자고(櫻井臣和慈古 ; 사쿠라이노오미와지코) 두 사람을 보내 몰래 대신에게 “전하여 듣건대, 숙부는 전춘황자를 천황으로 삼으려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서서 생각해도, 앉아서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바라건대 분명하게 숙부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대신은 산배대형이 전하는 말을 듣고 혼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안배신(安倍臣 ; 아헤노오미), 중신련(中臣連 ; 나카토미노무라지), 기신(紀臣 ; 키노오미), 하변신(河邊臣 ; 카하헤노오미), 고향신(高向臣 ; 타카무쿠노오미), 채녀신(采女臣 ; 우네메노오미), 대반련(大伴連 ; 오호토모노무라지), 허세신(許勢臣 ; 코세노오미) 등을 불러 상세히 산배대형의 말을 전하였다. 이윽고 또 대부들에게 “그대 대부들은 함께 반구궁에 가서 산배대형에게 ‘어찌 신하인 저 혼자서 후계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천황의 유언을 받들어 군신에게 말할 따름입니다. 군신들은 유언과 같이 전춘황자가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하며, 다시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라고 모두 말합니다. 이것이 군신의 뜻입니다. 신의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신에게 사사로운 뜻이 있더라도 삼가 두려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얼굴을 뵈는 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전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부들은 대신의 말을 듣고 반구궁으로 갔다. 그리고 삼국왕과 앵정신(櫻井臣)에게 대신의 말을 산배대형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때 대형왕(大兄王)은 여러 대부들에게 “천황의 유언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부들은) “신들은 깊은 것은 모릅니다. 오직 대신의 말에 따르면, 천황이 병석에 누워있던 날 전춘황자에게 ‘경솔하게 장래의 국정을 말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대 전춘황자는 신중하게 말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을 내리고, 다음에 대형왕에게는 ‘그대는 아직 어리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반드시 군신의 말에 따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가깝게 모시고 있던 여러 여왕 및 궁녀¹⁴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왕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대형왕은 “이 유언은 도대체 누가 들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신들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윽고 다시 대부들에게 “친애하는 숙부가 마음을 써서 사자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중신(重臣)들을 보내 깨우쳐 주셨다. 이것은 큰 은혜다. 그런데 지금 군경(群卿)이 말하는 천황의 유언은 내가 들은 것과 조금 다르다. 나는 천황이 와병 중이라는 것을 듣고 달려가 궁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중신련미기(中臣連彌氣; 나카토미노무라지미케)가 궁 안에서 나와 ‘천황이 부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아가 내전으로 향하였다. 율외채녀 흑녀(栗隈采女黒女; 쿠루쿠마노우네메쿠로메)¹⁵가 뜰에서 맞이하여 대전으로 안내하였다. 들어가 보니 근시인 율하녀왕(栗下女王; 쿠루모토노히메미코)을 위시하여, 궁녀 유녀(鮪女)¹⁶ 8인 등 모두 수십 인이 천황 옆에 있었다. 또 전춘황자도 있었다. 천황은 병이 위중하셔서 나를 보지 못하셨다. 그래서 율하녀왕이 ‘부르신 산배대형왕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천황이 몸을 일으켜 ‘짐은 덕이 없는 몸으로서 오랫동안 대업을 맡아왔다. 지금 명운이 다하여 병을 피할 수는 없다. 그대는 본래 짐의 심복이다. 총애하는 마음은 비할 데가 없다. 황위의 계승은 짐의 세대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에 충실하여라. 그대는 어리더라도 삼가하여 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일은 당시에 거기에 있던 측근들이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이 대언을 입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국가의 통치는 중대한 일이고, 나는 어리고 현명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대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여 숙부 및

14 원문은 采女이다.

15 궁중에서 봉사하는 채녀는 출신지명을 관칭하여 부르는 일이 많다. 栗隈는 『和名抄』의 「久世郡栗隈郷」으로, 현재 城陽市 서북부에서 久世郡 久御山町에 걸친 지역이다. 그 지역의 호족 栗隈氏が 공상한 채녀로 생각된다.

16 令制에서는 후궁으로 봉사하는 하급의 女官을 말한다.

군경들에게 상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이전에 숙부의 병문안을 하려고 왕경에 가서 풍포사(豐浦寺; 토유라데라)¹⁷에 묵은 적이 있다. 이 날 천황께서는 팔구채녀유녀(八口采女鮪女; 야쿠치노우네메시비메)를 보내 ‘너의 숙부인 대신은 항상 너를 걱정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황위가 그대에게 갈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삼가하고 자중하라.’고 명하였다. 전에 틀림없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내가 어찌 천하를 탐하겠는가. 오직 들은 것을 밝히는 것뿐이다. 천신지기(天神地祇)가 함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천황의 유칙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신이 보낸 여러 경들은 원래 신성한 창[嚴矛]¹⁸은 이카시호코(伊箇之倍虛)라고 읽는다.]의 가운데를 잡는 것처럼 공정하게 주상하는 사람들이니, 숙부에게 잘 말씀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앞서 박뢰중왕(泊瀨仲王; 하쓰세노나카노미코)¹⁹은 따로 중신련(中臣連)과 하변신(河邊臣)을 불러 “우리들 부자(父子)²⁰는 다 소아씨(蘇我氏)로부터 나왔다. 천하가 아는 바이다. 이 때문에 높은 산처럼 의지하고 있다. 바라건대 황위를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산배대형은 삼국왕과 행정신을 군경과 함께 대신에게 보내서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하도록 시켰다. 그러자 대신은 기신(紀臣)과 대반련을 보내 삼국왕과 행정신에게 “전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은 감히 어느 왕을 가볍게 여기고 어느 왕을 중하

17 飛鳥時代の 尼寺이다. 欽明 13년에 백제에서 보낸 석가상을 蘇我稻目이 向原의 집에 안치하여 절로 삼은 데서 시작되었다. 推古朝에 豐浦宮을 櫻井寺로서 재흥하여 等由良寺(豐浦寺)로 명명하였다. 근년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明日向村 豐浦에서 풍포사의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탑의 기단과 건물적이 발굴되었다.

18 山背大兄王과 蘇我大臣 사이를 중재, 화해시키는 여러 경들을 嚴矛에 비유하는 것이다.

19 山背大兄王의 異母弟이다.

20 성덕태자와 그 자식들이다.

게 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며칠 후에 산배대형은 또 앵정신을 보내 대신에게 “전일의 일은 내가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다. 오히려 숙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날 대신은 병이 나서 직접 앵정신을 만나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대신은 앵정신을 불러, 안배신·중신련·하변신·소간전신(小鑿田臣; 오히리다노오미)·대반련을 보내어 산배대형에게 “서명천황(舒明天皇)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군정은 모두 다 총명합니다. 오직 신만이 현명하지 못하지만, 때마침 인물이 없는 때를 만나서 어긋나게 군신의 윗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황위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중대합니다. 전언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신이 힘들어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칙을 거스르지 말자는 것으로, 신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미 대신은 안배신·중신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경부신(境部臣)²¹에게 “어느 왕을 천황으로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경부신은 “일전에 대신이 친히 물으셨을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다. 이때 소아씨의 일족이 모두 모여서 도대신(島大臣)²²을 위해 묘를 만들려고 묘소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때 마리세신(摩理勢臣)은 묘소의 막사를 부수고, 소아(蘇我)의 전가(田家)²³로 물러가서 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은 분노하여 신헌군승우(身狹君勝牛; 무사노키미카츠시)와 금직수적저(錦織首赤猪; 니시코리노오비토아카이)를 보내 “지금 나는 그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친족의 의리로서 해칠 수

21 境部臣麻理勢이다.

22 蘇我馬子이다.

23 蘇我氏の 사유지 혹은 이것을 경영하는 시설물이다.

는 없다. 다만 타인이 그르다고 하고 네가 옳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타인에 거슬러도 너를 따르겠다. 만일 타인이 옳다고 하고 네가 그르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너를 등지고 타인을 따를 것이다. 이 때문에 네가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틀어질 것이다. 나라도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우리 둘이 나라 일을 망쳤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오명이 될 것이다. 너는 삼가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따르지 않고 마침내 반구(斑鳩)로 가서 박뢰왕(泊瀨王; 하쓰세노미코)의 궁에서 머물렀다. 대신은 더욱 노하여 군경을 보내 산배대형에게 “요새 마리세가 저를 배반하여 박뢰왕의 궁에 숨어 있습니다. 마리세를 내보내 주시면 그 이유를 추문코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형왕이 “마리세는 원래 성황(聖皇)²⁴이 좋아하셨다. 지금 잠시 와 있을 뿐이다. 어찌 숙부의 마음과 다를 것인가. 허물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리세에게 “그대가 선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 것은 몹시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대 하나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울 것이다. 또 선왕이 임종하실 때 여러 아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좋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받들어 길이 훈계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사사로운 정이 있어도 참고 원망하지 않는다. 또 나는 숙부를 배반할 수 없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꺼리지 말고 여러 경들의 의견을 따라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이때 대부들은 마리세에게 “대형왕의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마리세신(摩理勢臣)은 의지할 바가 없어졌다. 이에 울면서 집에 돌아와 지낸 지 십여 일이 되던 날, 박뢰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薨). 이에 마리세신이 “나는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대신은 경부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 보냈다. 경부신은 군사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차남 아야(阿椰; 아야)²⁵를 데리고 문을 나가 결상에 앉아서 기다렸

²⁴ 聖德太子이다.

다. 곧 군사들이 와서 내목물부이구비(來目物部伊區比; 쿠메노모노노베노이쿠히)에게 목 졸라 죽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부자가 함께 죽었다. 이들을 같은 장소에 묻었다. 다만 장남인 모진(毛津; 케쓰)만은 니사(尼寺)의 기와집으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거기서 비구승 한둘을 범하였는데, 비구승 하나가 질투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다. 절을 포위하여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도망하여 무방산(畝傍山; 우네비야마)에 들어갔다. 그래서 산을 수색하였다. 모진은 도망갈 곳이 없었다. 결국 그는 목을 질러 산중에서 죽었다. 사람들이 노래하였다.

무방산은 들어선 나무가 적어도 거기에 의지하려고, 모진이라는 젊은 분은 여기에 숨어 있었던가.

원년 봄 정월 계묘삭 병오(4일)에 대신 및 군경이 같이 천황의 옥새를 전촌 황자에게 헌상하였다. 그랬더니 사양하며 “종묘를 맡는 일은 중대한 일인데 과인은 현명하지 못하다. 어찌 감히 그 일을 맡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군신들이 엎드려 간곡히 “대왕은 선황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셨고, 신도 사람도 모두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통을 이으셔서 만민에 광림하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날로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여름 4월 신미삭(1일)에 전부련(田部連)[이름이 보이지 않는다.]을 액구(掖久; 야쿠)²⁶에 보냈다. 이 해의 간지는 기축²⁷이다.

2년 봄 정월 정묘삭 무인(12일)에 보황녀(寶皇女; 타카라노히메미코)²⁸를 세워

25 여기에만 보인다.

26 현재 鹿兒島縣 熊毛郡의 屋久島이다.

27 629년이다.

28 皇極天皇이다.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2남 1녀를 낳았다. 첫째를 갈성황자(葛城皇子; 카즈라키노미코)²⁹라 한다[근강대진궁(近江大津宮; 아후미노오호쓰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황이다.], 둘째를 간인황녀(間人皇女; 하시히토노히메미코)³⁰라 한다. 셋째를 대해황자(大海皇子; 오호시아마노미)³¹라 한다[정어원궁(淨御原宮; 키요미하라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황(御宇天皇)이다.], 부인(夫人)³²인 소아도대신(蘇我島大臣)³³의 딸 법제랑원(法提郎媛; 호호테노이라쓰메)은 고인황자(古人皇子; 후루히토노미코)를 낳았다[다른 이름은 대형황자(大兄皇子; 오호에노미코)이다.], 또 길비국(吉備國)의 문옥채녀(蚊屋采女; 카야노우네메)를 맞이하여 문옥황자(蚊屋皇子; 카야노미코)를 낳았다.

3월 병인삭(1일)에 고구려의 대사 연자발(婁子拔)³⁴과 소사 약덕(若德)³⁵, 그리고 백제의 대사 은솔 소자(素子)와 소사 덕솔 무덕(武德)³⁶ 등이 함께 조공하였다.

가을 8월 계사묘삭 정묘(5일)에 대인(大仁) 견상군삼전사(犬上君三田耜; 이누카미노키미미타스키)³⁷와 대인 약사혜일(藥師惠日; 쿠스시에니치)³⁸을 대당(大唐)에 보

29 天智天皇이다.

30 孝德天皇 황후이다.

31 天武天皇이다.

32 율령제 후궁제도에서는 皇后, 妃, 夫人, 嬪의 4단계가 있는데, 夫人은 3위에 해당한다.

33 蘇我馬子이다.

34 여기에만 보인다.

35 여기에만 보인다.

36 여기에만 보인다.

37 추고 22년(614) 6월에 견수사로 파견되었다. 동 23년 9월에 귀국했으나 다시 수에 건너가 그곳에서 수당교체기를 보내고, 舒明 4년(632) 8월에 唐使 高表仁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38 推古 31년에도 견당사로 파견되고, 白雉 5년 2월에는 견당부사가 된다. 『續日本紀』 천평보자 2년에는 먼 조상 德來는 원래 고려인으로 백제에 도래하여 雄略朝에 일본에 왔는데, 그 5세손이 惠日로서 推古朝에 중국에 가서 의학을 배웠다고 하고, 자손은 難波藥師

냈다. 경자(8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9월 계해삭 병인(4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이 귀국하였다.

이 달에 전부련(田部連) 등이 액구(掖玖)³⁹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임진삭 병인(12일)에 천황이 비조강(飛鳥岡; 아스카노오카)⁴⁰ 근처로 옮겼다. 이를 강본궁(岡本宮; 오카모토노미야)⁴¹이라 한다.

이 해에 난파대군(難波大郡; 나니하노오호코호리) 및 삼한관(三韓館)⁴²을 수리하였다.

3년 봄 2월 신묘삭 경자(10일)에 액구인(掖玖人)이 귀화하였다.

3월 경신삭(1일)에 백제 의자왕이 왕자 풍장(豐章)⁴³을 인질로 보내었다.

를 姓으로 했다고 전한다.

39 일본 고대의 九州 남단 南西諸島の 총칭으로, 후에는 屋久島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推古紀에는 掖玖의 사절이 왕경을 방문하고 조정에서도 사절을 보낸 일이 있다. 일시적으로 독립국이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40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雷에 있는 표고 110m의 구릉으로 石舞臺고분 부근에서 飛鳥坐神社 주변까지를 가리킨다.

41 7세기 舒明天황과 齊明天황이 조영한 궁으로 舒明天황의 岡本宮은 飛鳥岡本宮, 齊明天황의 岡本宮은 後飛鳥岡本宮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현재 奈良縣 明日香村岡에 있는 飛鳥京跡으로 추정된다.

42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제국으로부터 오는 사신을 맞이하여 숙박시키는 영빈시설이다. 推古紀 16년 4월조에 당 사신을 위해 難波의 高麗館 옆에 새로운 관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43 舒明紀 3년조(631)의 풍장의 渡倭에 대해서는 기년상에 모순이 보인다. 舒明 3년은 백제 의자왕대가 아니고 그 전왕인 武王璋의 재위 32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舒明紀의 기록에 보이는 ‘百濟王義慈’를 ‘百濟王璋’의 誤記로 보는 說, 舒明 3년이라는 기년의 오류설, 혹은 백제왕을 追記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王孫이 파견되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년에 재검토한 바에 따르면 皇極紀 원년(641) 및 2년조에 보이는 백제왕자 翽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풍장의 도왜 연대도 641년 혹은 64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을 9월 정사삭 을해(19일)에 천황이 진국(津國; 쓰노쿠니)⁴⁴의 유간온천(有間溫泉)⁴⁵에 행차하였다.

겨울 12월 병술삭 무술(13일)에 천황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4년 가을 8월에 대당이 고표인(高表仁)⁴⁶을 파견하여 삼전사(三田耜)⁴⁷를 귀국시켰다. 함께 대마에서 머물렀다. 이때 학문승 영운(靈雲)⁴⁸과 승민(僧旻)⁴⁹, 승조양(勝鳥養)⁵⁰, 신라의 송사들이 따라왔다.

겨울 10월 신해삭 갑인(4일)에 당국의 사신 고표인 등이 난파진에 정박하였다. 곧 대반련마양(大伴連馬養; 오토모노무라지우마카히)⁵¹을 보내 강 입구에서 맞이하게 하고, 배 32척과 북·피리·깃발을 모두 갖추어 장식하였다. 그리고 고표인에게 “천자의 명을 받은 사자가 천황의 조정에 오신 것을 알고 마중을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고표인이 “바람이 찬 날에 배를 장식하여 마중 나오시어 황송하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난파길사소규(難波吉士小槻; 나니하노키시오쓰키)와 대하내직시복(大河内直矢伏; 오토시카후치노아타히야후시)을 안내자(導者)⁵²로 삼아 사신들을 객관 앞에 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기사을등(伊

44 울령시대의 攝津國이다.

45 攝津國 有馬郡(神戸市 北區)에 소재한 온천이다. 舒明紀 10년 겨울 10월조에 천황이 有間溫泉宮으로 순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46 일본에 온 유일한 당의 사절이다. 『舊唐書』 왜국전에도 당 태종이 高表仁을 파견한 기사가 보인다.

47 舒明天皇 2년조의 犬上郡 三田耜를 가리킨다.

48 파견연대는 미상이고 大化 元年(645) 8월에 十師에 임명되었다.

49 推古紀 16년 9월조에 견수사를 따라 학문승으로 파견된 新漢人日文과 동일인물이다. 舒明 9년 2월조에도 보인다.

50 파견연대는 미상이다. 도래계 姓인 椎를 勝으로도 표기한다.

51 皇極 원년에 舒明天皇의 빈궁에서 조문을 읽고, 大化 5년에는 大紫位로서 우대신을 역임하였다.

岐史乙等；이키노후비토오토)과 난파길사팔우(難波吉士八牛；나니하노키시야쓰시)를 보내 사신들을 안내하여 객관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날 신주(神酒)를 내렸다.

5년 봄 정월 기묘삭 갑진(26일)에 대당의 고표인 등이 귀국하였다. 송사 길사웅마려(吉士雄摩呂；키시노오마로)⁵³와 흑마려(黑麻呂)⁵⁴ 등이 대마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

6년 가을 8월에 긴 별(長星)이 남쪽에 보였다. 사람들이 혜성이라 하였다.

7년 봄 정월에 혜성이 돌아서 동쪽에 보였다.

여름 6월 을축삭 갑술(10일)에 백제가 달솔 유(柔)⁵⁵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7월 을미삭 신축(7일)에 백제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이 달에 상서로운 연꽃이 검지(劍池)⁵⁶에서 자라났다. 한 줄기에 두 개의 꽃이 있었다.

8년 봄 정월 임진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3월에 채녀(采女)를 범한 자를 조사하여 모두 처벌하였다. 이때 삼륜군소초료(三輪君小鷦鷯；미와노키미오사자키)⁵⁷가 조사받는 것이 괴로워 목을 찢러 죽었다.

52 欽命紀 23년 是歲條에 「掌客」이 신라사를 인도하고, 推古紀 16년 6월조에 隨使를 위해 掌客이 설치되었다. 導者和 掌客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인다.

53 여기에만 보인다.

54 여기에만 보인다.

55 여기에만 보인다.

56 橿原市 石川町에 있는 石川池를 가리킨다. 應神紀 11년 10월조에 劍池 등 연못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57 여기에만 보인다.

여름 5월에 장마가 내려 홍수가 났다.

6월에 강본궁에 화재가 났다. 천황이 전중궁(田中宮; 타나카노미야)⁵⁸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가을 7월 기축삭(1일)에 대파왕(大派王; 오호마타노오호키미)⁵⁹이 풍포대신(豐浦大臣; 토유라노오호오미)⁶⁰에게 “군경 및 백관이 조정에 출근하는 것이 태만하다. 금후에는 묘시(卯時)⁶¹가 되면 조정에 나오고 사시(巳時)⁶²가 끝난 이후에 나가도록 하라. 종을 쳐서 알리는 것을 규칙으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신(大臣)은 따르지 않았다.

이 해에 크게 가물어서 천하가 굶주렸다.

9년 봄 2월 병진삭 무인(23일)에 큰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다. 천둥소리와 비슷한 굉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유성의 소리다.”라고 말하였다. 또 “땅이 울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승려 민(旻)이 “유성이 아니다. 이는 천구(天狗)⁶³다. 그 짓는 소리가 천둥과 비슷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3월 을유삭 병술(2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 해에 하이(蝦夷; 에미시)가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인(大仁) 상모야군형명(上毛野君形名; 카미쓰케노노키미카타나)을 장군으로 삼아 토벌하게

58 豐浦宮 서북의 榎原市 田中町에 소재하고 있다. 舒明 12년 10월에 百濟宮으로 천궁하기까지 임시 궁궐로 사용되었다.

59 敏達천황의 황자이다.

60 蘇我蝦夷이다.

61 오전 5시이다.

62 오전 11시이다.

63 하늘을 날고 깊은 산에 산다고 하는 전설상의 괴물이다. 『한서』 天文志에 「天狗, 狀如大流星。」이라고 적혀 있다.

하였다. 그러나 하이에게 패배하고 도망쳐 보루로 숨어들었다. 결국 적에게 포위당하였다.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 성이 비어 있었으며,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담장을 넘어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방명군(方名君; 카타나노키미)⁶⁴의 처가 탄식하며 “슬프다. 하이 때문에 죽다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의 선조들은 바다를 건너 만 리를 넘어서 해외의 나라를 평정하고, 두려운 무위(武威)로써 후세까지 이름을 전하였습시다. 지금 당신이 선조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반드시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술을 따라 억지로 남편에게 먹이고, 스스로 남편의 겹을 차고 열 개의 활을 당기며 수십 명의 여인에 명령하여 활시위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자 남편도 일어나 무기를 들고 나아갔다. 하이는 병력이 아직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후퇴하였다. 이에 흠어져 있던 병졸들이 모여들어 군세가 정돈되었다. 이후 하이를 공격하여 크게 이기고 모두 포로로 삼았다.

10년 가을 7월 정미삭 을축(19일)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리고 집을 부수었다. 9월에 장마가 지고 복숭아와 오얏의 꽃이 피었다.

겨울 10월에 천황이 유간온탕궁(有間溫湯宮; 아리마노유노미야)에 행차하였다. 이 해에 백제, 신라, 임나가 함께 조공하였다.

11년 봄 정월 을사삭 임자(8일)에 천황이 온탕에서 돌아왔다. 을묘(11일)에 신상(新嘗)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아마도 유간에 행차하느라 신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병진(12일)에 구름이 없는데 번개가 쳤다. 병인(22일)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기사(25일)에 긴 별(長星)이 서북방에서 보였다. 그때 승려 민(旻)이 “혜성이다. 이것이 보이면 기근이 온다.”라고 말하였다.

64 앞의 上毛野君形名을 음이 같은 方名으로 표기한 것이다.

가을 7월에 “금년에 대궁 및 대사를 만들라. 백제천 옆을 궁터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서쪽의 백성은 궁을 짓고, 동쪽의 백성은 절을 지었다.⁶⁵ 서직현(書直縣; 후미노아타히아가타)을 대장(大匠)으로 삼았다.

가을 9월에 대당(大唐)의 학문승 혜은(惠隱)과 혜운(惠雲)이 신라의 송사를 따라 입경하였다.

겨울 11월 경자삭(1일)에 신라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관위(冠位) 1급을 수여하였다.

12월 을사삭 임오(14일)에 이에(伊豫; 이요)의 온천탕⁶⁶으로 행차하였다.

이 달에 백제천 옆에 9층탑을 세웠다.

12년 봄 2월 무진삭 갑술(7일)에 별이 달 안으로 들어갔다⁶⁷.

여름 2월 정묘삭 임오(16일)에 천황이 이에에서 돌아와 구판궁(麤坂宮; 우마야사가노미야)에 머물렀다.

5월 정유삭 신축(5일)에 대규모로 설재(設齋)⁶⁸를 거행하였다. 승려 혜은에게 청하여 무량수경을 강설하게 하였다.

겨울 10월 을축삭 을해(11일)에 대당에서 학문승 청안(淸安)⁶⁹과 학생 고향

65 여기서 東西는 東國과 西國, 즉 왕경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近江·越)과 서쪽에 있는 지역(遠江 서쪽과 安藝 동쪽)을 말한다.

66 『釋日本紀』에 인용된 『伊豫國風土記』에는 景行, 仲哀, 舒明, 齊明, 聖德太子 등이 행차했다고 전한다. 현재 松山市의 道後온천으로 추정되고 있다.

67 별이 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흉사로 여겨졌다.

68 법회의 독경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席)를 설치하는데, 이를 說齋라고 한다. 設齋供養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설파했듯이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모두를 존중하는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공양을 행하는 것이라면, 모두에게 공양하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69 南淵淸安, 淸安이라고도 표기한다.

한인현리(高向漢人玄理 ; 타카무쿠노아야히토구엔리)가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조공사가 함께 따라왔다. 각각 작(爵) 1급을 주었다.

이 달에 천황이 백제궁으로 옮겼다.

13년 겨울 10월 기축삭 정유(9일)에 천황이 백제궁에서 죽었다(崩). 병오(18일)에 궁의 북쪽에 빈궁을 설치하였다. 이를 백제의 대빈(大殯)이라 한다. 이때 동궁 개별황자(開別皇子 ; 히라카스와케노미코)⁷⁰가 열여섯 나이로 조문을 읽었다.

일본서기 권 제23

70 天智天皇이다.

日本書紀 卷第廿三

息長足日廣額天皇 舒明天皇

息長足日廣額天皇，淳中倉太珠敷天皇孫，彥人大兄皇子之子也。母曰糠手姬皇女。豐御食炊屋姬天皇廿九年，皇太子豐聰耳尊薨，而未立皇太子，以卅六年三月，天皇崩。

九月，葬禮畢之。嗣位未定。當是時，蘇我蝦夷臣爲大臣，獨欲定嗣位。顧畏群臣不從，則與阿倍麻呂臣議，而聚群臣，饗於大臣家。食訖將散，大臣令阿倍臣，語群臣曰，今天皇既崩無嗣，若急不計，畏有亂乎。今以詎王爲嗣。天皇臥病之日，詔田村皇子曰，天下大任，本非輒言。爾田村皇子，慎以察之，不可緩。次詔山背大兄王曰，汝獨莫誼謹，必從群言，慎以勿違，則是天皇遺言焉。今誰爲天皇。時群臣嘿之，無答。亦問之，非答。強且問之。於是，大伴鯨連進曰，既從天皇遺命耳，更不可待群言。阿倍臣則問曰，何謂也。開其意，對曰，天皇曷思歟。詔田村皇子，曰天下大任也，不可緩。因此而言，皇位既定，誰人異言。時采女臣摩禮志·高向臣宇摩·中臣連彌氣·難波吉士身刺，四臣曰，隨大伴連言，更無異。許勢臣大麻呂·佐伯連東八·紀臣鹽手，三人進曰，山背大兄王，是宜爲天皇。唯蘇我倉麻呂[更名雄當]臣獨曰，臣也當時，不得便言。更思之後啓。爰大臣知群臣不和，而不能成事，退之。先是，大臣獨問境部摩理勢臣曰，今天皇崩無嗣，誰爲天皇。對曰，舉山背大兄爲天皇。是時，山背大兄，居於斑鳩宮，漏

聆是議。卽遣三國王·櫻井臣和慈古二人，密謂大臣曰，傳聞之，叔父以田村皇子，欲爲天皇。我聞此言，立思矣居思矣，未得其理。願分明欲知叔父之意。於是，大臣得山背大兄之告，而不能獨對，則喚阿倍臣·中臣連·紀臣·河邊臣·高向臣·采女臣·大伴連·許勢臣等，仍曲舉山背大兄之語。旣而便且，謂大夫等曰，汝大夫等，共詣於斑鳩宮，當啓山背大兄王曰，賤臣何之獨輒定嗣位。唯舉天皇之遺詔，以告干群臣。群臣並言，如遺言，田村皇子自當嗣位。更詎異言。是群卿言也。特非臣心。但雖有臣私意，而惶之，不得傳啓。乃面日親啓焉。爰群大夫等，受大臣之言，共詣干斑鳩宮。使三國王·櫻井臣，以大臣之辭，啓於山背大兄。時大兄王，使傳問群大夫等曰，天皇遺詔奈之何。對曰，臣等不知其深。唯得大臣語狀稱，天皇臥病之日，詔田村皇子曰，非輕輒言來之國政。是以，爾田村皇子，慎以言之。不可緩。次詔大兄王曰，汝肝稚。而勿誼言。必宜從群臣言。是乃近侍諸女王及采女等悉知之。且大王所察。於是，大兄王，且令問之曰，是遺詔也，專誰人聆焉。答曰，臣等不知其密。旣而更亦，令告群大夫等曰，愛之叔父勞思，非一介之使，遣重臣等而教覺。是大恩也。然今群卿所遵天皇遺命者，少少違我之所聆。吾聞天皇臥病，而馳上之侍干門下。時中臣連彌氣，自禁省出之曰，天皇命以喚之。則參進向干閤門，亦栗隈采女黑女，迎於庭中，引入大殿。於是，近習者栗下女王爲首，女孺鮪女等八人，并數十人，侍於天皇之側。且田村皇子在焉。時天皇沈病，不能覩我。乃栗下女王奏曰，所喚山背大兄王參赴。卽天皇起臨之詔曰，朕以寡薄，久勞大業。今曆運將終。以病不可諱。故，汝本爲朕之心腹。愛寵之情，不可爲比。其國家大基，是非朕世。自本務之。汝雖肝稚，慎以言。乃當時侍之近習者，悉知焉。故，我蒙是大恩，而一則以懼，一則以悲。踊躍歡喜，不知所如。仍以爲，社稷宗廟重事也。我眇少以不賢，何敢當焉。當是時，思欲語叔父及群卿等。然未有可遵之時，於今非言耳。吾曾將訊叔父之病，向京而居豐浦寺。是日，天皇遣八口采女鮪女，詔之曰，汝叔父大臣，常爲汝愁言，百歲之後，嗣位非當汝乎。故慎以自愛矣。旣分明有是事，何疑也。然我豈養

天下，唯顯聆事耳。則天地祇共證之。是以，冀正欲知天皇之遺勅，亦大臣所遣群卿者，從來如嚴矛[嚴矛，此云伊箇之保虛。]取中事，而奏請人等也。故能宜白叔父。既而泊瀨仲王，別喚中臣連·河邊臣，謂之曰，我等父子，並自蘇我出之。天下所知。是以，如高山恃之。願嗣位勿輒言。則令三國王·櫻井臣，副群卿而遣之曰，欲聞還言。時大臣，遣紀臣·大伴連，謂三國王·櫻井臣曰，先日言訖，更無異矣。然臣敢之，輕誰王也，重誰王也。於是，數日之後，山背大兄，亦遣櫻井臣，告大臣曰，先日之事，陳聞耳。寧違叔父哉。是日，大臣病動，以不能面言於櫻井臣。明日，大臣喚櫻井臣，即遣阿倍臣·中臣連·河邊臣·小墾田臣·大伴連，啓山背大兄言，自磯城嶋宮御宇天皇之世，及近世者，群卿皆賢哲也。唯今臣不賢，而遇當乏人之時，誤居群臣上耳。是以，不得定基。然是事重也。不能傳導。故老臣雖勞，面啓之。其唯不誤遺勅者也。非臣私意。既而大臣，傳阿倍臣·中臣連，更問境部臣曰，誰王爲天皇。對曰，先是，大臣親問之日，僕啓既訖之。今何更亦傳以告耶。乃大忿而起行之。適是時，蘇我氏諸族等悉集，爲嶋大臣造墓，而次干墓所。爰摩理勢臣，壞墓所之廬，退蘇我田家，而不仕。時大臣慍之，遣身狹君勝牛·錦織首赤猪，而誨曰，吾知汝言之非，以干支之義，不得害。唯他非汝是，我必忤他從汝。若他是汝非，我當乖汝從他。是以，汝遂有不從者，我與汝有瑕。則國亦亂。然乃後生言之，吾二人破國也。是後葉之惡名焉。汝慎以勿起逆心。然猶不從，而遂赴干斑鳩，住於泊瀨王宮。於是，大臣益怒，乃遣群卿，請干山背大兄曰，頃者，摩理勢違臣，匿於泊瀨王宮。願得摩理勢，欲推其所由。爰大兄王答曰，摩理勢素聖皇所好，而暫來耳。豈違叔父之情耶。願勿瑕。則謂摩理勢曰，汝不忘先王之恩，而來甚愛矣。然其因汝一人，天¹下應亂。亦先王臨沒，謂諸子等曰，諸惡莫作，諸善奉行。余承斯言，以爲永戒。是以，雖有私情，忍以無怨。復我不能違叔父。願自今以後，勿憚改意。從群。而無退。是時，大夫

1 소학관본에서는 ‘而天’이라고 적고 있다.

等且誨摩理勢臣之曰，不可違大兄王之命。於是，摩理勢臣，進無所歸。乃泣哭更還之，居於家十餘日。泊瀨王忽發病薨。爰摩理勢臣曰，我生之誰恃矣。大臣將殺境部臣，而興兵遣之。境部臣聞軍至，率仲子阿榔，出干門坐胡床而待。時軍至，乃令來目物部伊區比以絞之。父子共死，乃埋同處。唯兄子毛津，逃匿于尼寺瓦舍。即斡一二尼。於是，一尼嫉妬令顯，圍寺將捕。乃出之入畝傍山。因以探山，毛津走無所入。刺頸而死山中。時人歌曰，干泥備椰摩，虛多智干須家苔，多能彌介茂，氣菟能和區吳能，虛茂邏勢利祁牟。

元年 春正月癸卯朔丙午，大臣及群卿，共以天皇之璽印，獻於田村皇子。則辭之曰，宗廟重事矣。寡人不賢，何敢當乎。群臣伏固請曰，大王先朝鍾愛，幽顯屬心。宜纂皇緒，光臨億兆。即日，即天皇位。

夏四月辛未朔，遣田部連[闕名]於掖玖。是年也太歲己丑。

二年 春正月丁卯朔戊寅，立寶皇女爲皇后。后生二男一女。一曰葛城皇子[近江大津宮御宇天皇]，二曰間人皇女，三曰大海皇子[淨御原宮御宇天皇]。夫人蘇我嶋大臣女法提郎媛，生古人皇子[更名大兄皇子]。又娶吉備國蚊屋采女，生蚊屋皇子。

三月丙寅朔，高麗大使宴子拔·小使若德，百濟大使恩率素子·小使德率武德，共朝貢。

秋八月癸巳朔丁酉，以大仁犬上君三田耜·大仁藥師惠日，遣於大唐。庚子，饗高麗百濟客於朝。

九月癸亥朔丙寅，高麗百濟客歸于國。是月，田部連等，至自掖玖。

冬十月壬辰朔癸卯，天皇遷於飛鳥岡傍。是謂岡本宮。是歲，改修理難波大郡及三韓館。

三年 春二月辛卯朔庚子，掖玖人歸化。

三月庚申朔，百濟王義慈入王子豐章爲質。

秋九月丁巳朔乙亥，幸干津國有間溫湯。

冬十二月丙戌朔戊戌，天皇至自溫湯。

四年 秋八月，大唐遣高表仁，送三田耜，共泊干對馬。是時，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新羅送使等從之。

冬十月辛亥朔甲寅，唐國使人高表仁等，泊于難波津。則遣大伴連馬養，迎於江口。船卅二艘及鼓吹旗幟，皆具整飾。便告高表仁等曰，聞天子所命之使，到干天皇朝迎之。時高表仁對曰，風寒之日，飾整船艘，以賜迎之，歡愧也。於是，令難波吉士小槻·大河內直矢伏，爲導者，到干館前。乃遣伊岐史乙等·難波吉士八牛，引客等入於館。卽日，給神酒。

五年 春正月己朔甲辰，大唐客高表仁等歸國，送使吉士雄摩呂·黑麻呂等，到對馬而還之。

六年 秋八月，長星見南方。時人曰彗星。

七年 春正月，彗星廻見于東。

夏六月乙丑朔甲戌，百濟遣達率柔等朝貢。

秋七月乙未朔辛丑，饗百濟客於朝。是月，瑞蓮生於劔池。一莖二花。

八年 春正月壬辰朔，日蝕之²。

² 소학관본에서는 ‘蝕’이라고 적고 있다.

三月，悉劾奸采女者，皆罪之。是時，三輪君小鷦鷯，苦其推鞠，刺頸而死。

夏五月，霖雨大水。

六月，災岡本宮。天皇遷居田中宮。

秋七月己丑朔，大派王謂豐浦大臣曰，群卿及百寮，朝參已懈。自今以後，卯始朝之，已後退之。因以鍾爲節。然大臣不從。

是歲，大旱，天下飢之。

九年 春二月丙辰朔戊寅，大星從東流西。便有音似雷。時人曰，流星之音，亦曰，地雷。於是，僧旻僧曰，非流星。是天狗也。其吠聲似雷耳。

三月乙酉朔丙戌，日蝕之。

是歲，蝦夷叛以不朝。卽拜大仁上毛野君形名，爲將軍令討。還爲蝦夷見敗，而走入壘。遂爲賊所圍。軍衆悉漏城空之。將軍迷不知所如。時日暮，踰垣欲逃。爰方名君妻歎曰，愴哉。爲蝦夷將見殺。則謂夫曰，汝祖等，渡蒼海，跨萬里，平水表政，以威武傳於後葉。今汝頓屈先祖之名，必爲後世見嗤。乃酌酒，強之令飲夫。而親佩夫之劍，張十弓，令女人數十俾鳴弦。旣而夫更起之，取仗而進之。蝦夷以爲，軍衆猶多，而稍引退之。於是，散卒更聚，亦振旅焉。擊蝦夷大敗，以悉虜。

十年 秋七月丁未朔乙丑，大風之，折木發屋。

九月，霖雨，桃李華。

冬十月，幸有間溫湯宮。

是歲，百濟新羅任那並朝貢。

十一年 春正月乙巳朔壬子，車駕還自溫湯。乙卯，新嘗。盖因幸有間，以闕新嘗歟。丙辰，無雲而雷。丙寅，大風而雨。己巳，長星見西北。時旻師曰，彗星也。

見則飢之.

秋七月, 詔曰, 今年, 造作大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宮處. 是以, 西民造宮. 東民作寺. 便以書直縣爲大匠.

秋九月, 大唐學問僧惠隱·惠雲, 從新羅送使入京.

冬十一月庚子朔, 饗新羅客於朝. 因給冠位一級.

十二月己巳朔壬午, 幸于伊豫溫湯宮. 是月, 於百濟川側, 建九重塔.

十二年 春二月戊辰朔甲戌, 星入月.

夏四月丁卯朔壬午, 天皇至自伊豫, 便居廐坂宮.

五月丁酉朔辛丑, 大設齋. 因以請惠隱僧, 令說無量壽經.

冬十月乙丑朔乙亥, 大唐學問僧清安·學生高向漢人玄理, 傳新羅而至之. 仍百濟·新羅朝貢之使, 共從來之. 則各賜爵一級. 是月, 徙於百濟宮.

十三年 冬十月己丑朔丁酉, 天皇崩于百濟宮. 丙午, 殯於宮北. 是謂百濟大殯. 是時, 東宮開別皇子, 年十六而誅之.

日本書紀卷第廿三

일본서기 권 제24

日本書紀 卷第廿四

제35대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姬天皇) 황극천황(皇極天皇)



일본서기 권 제24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姫天皇 ; 아메토요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노스메라미코토) **황극천황**(皇極天皇 ; 고교쿠텐노)

천풍재중일[重日は 이카시히(伊柯之比)라 읽는다.]족희천황¹은 정중창태주부(淳中倉太珠敷 ;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천황²의 증손(曾孫)으로 압판언인대형황자³(押坂彦人大兄皇子 ; 오시사가노히코히토노오호에노미코)의 손녀이며 모정왕(茅渟王 ; 치누노오호키미)⁴의 딸이다. 어머니는 길비희왕(吉備姫王 ; 기비쓰히메노오호키미)⁵이다.

1 황극천황은 제35대 천황으로 推古천황 2년(594)에 태어나 齊明天皇 7년(661)에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茅渟王이고 어머니는 吉備姫王이다. 舒明天皇과 결혼하여 天智천황과 孝德천황의 비인 間人皇女, 天武천황 등을 낳았다. 재위 기간은 642년부터 645년까지이다. 후일에 重祚하여 齊明天황이 되었다. 天豐財重日の ‘天豐’과 ‘重日足’은 美稱이고 ‘財’는 본명이다. 舒明紀 2년 정월조에는 ‘寶皇女’라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 用明天황의 손자인 高向王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舒明天황에게 시집갔다고 한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즉위전기조(654) 참조. 한편 ‘皇極’이란 말은 『尚書』 洪範에 「建用皇極」이란 문구가 보이고, 孔氏傳에는 ‘皇은 대이고 極은 중이다. 무릇 일을 세움에 있어 大中の 道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2 敏達천황이다.

3 舒明天황의 아버지이다.

4 茅渟을 지명으로 보는 설이 있다. 『延喜式』 諸陵에 ‘片岡葦田墓’, ‘茅渟皇子는 大和國 葛下郡에 있는데, 兆域은 東西가 5町이고 南北 5町이며 守戸가 없다.’고 한다.

5 2년 9월 정해조에 ‘吉備嶋皇祖母命이 죽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옛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였다.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카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⁶ 2년에 황후가 되었다⁷. 13년 10월에 식장족일광액천황이 죽었다(崩).

원년 봄 정월 정사삭 신미(15일)에 황후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전과 같이 소아신하이(蘇我臣蝦夷; 소가노오미에미시)⁸를 대신(大臣; 오호오미)으로 삼았다. 대신의 아들 입록(入鹿; 이루카)⁹[다른 이름은 안작(鞍作; 구라쓰쿠리)¹⁰]은 스스로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그 위세가 아버지 이상이였다. 이 때문에 도적도 그 위세에 두려워 떨어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을 정도였다. 을유(29일)에 백제사인(百濟使人)인 대인(大仁)¹¹ 아담련비라부(阿曇連比羅夫; 아즈미노무라지히라부)¹²가 축자국(筑紫國; 쓰쿠시노쿠니)에서 역마(驛馬)¹³를 타고 도착하여 “백제국¹⁴이 천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사(弔使)를 보내어 왔습니다. 신(臣)은 조사를 수행하여 함께 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장례에 참석하려는 생각에 조사에 앞서 혼자 왔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지금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¹⁵.”라고 말하였다.

6 舒明天황을 말한다.

7 『日本書紀』 舒明天皇 2년 정월조에 보인다.

8 蘇我馬子の 아들이다.

9 『藤氏家傳』에는 ‘宗我大郎’으로 蝦夷의 장남이라 한다.

10 『日本書紀』 황국천황 3년 6월조에 ‘蘇我鞍作’, 『家傳』에는 ‘宗我鞍作’이라고 한다.

11 推古朝 12계 관위의 제3위이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 12월 임신조에 보인다.

12 『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 2월조에는 ‘阿曇山背連比羅夫’라고 한다.

13 驛馬는 欽明紀 32년 4월조에 보이고, 驛使는 崇峻紀 5년 11월조에 보인다. 주요 간선 도로의 역에 말을 상비하여 정치 급변이나 내외 사자를 보내기 위해 대비하는 제도는 天智·天武朝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14 이때는 義慈王 시기로 武王은 재위 42년(641) 3월에 죽었다.

15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죽은 후에 대란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월 정해삭 무자(2일)에 아담산배련비라부(阿曇山背連比羅夫; 아즈미노야마시로노무라지히라부)와 초벽길사반금(草壁吉士磐金; 쿠사카베노키시이하카네)¹⁶, 왜한서직현(倭漢書直縣; 야마토노아야노후미노아타이아가타)¹⁷을 백제의 조사가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사정을 물었다. 조사는 “백제국주¹⁸가 신에게 ‘새상(塞上)¹⁹은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귀국하는 사자에게 팔려서 백제로 돌아오게 하려 해도 천황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제조사의 겸인(僉人)²⁰들이 “작년²¹ 11월에 대좌평(大佐平) 지적(智積)²²이 죽었습니다. 또한 백제의 사신이 곤륜(崙輪)²³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금년 정월에는 국왕의 어머니²⁴가 죽고(薨), 제왕자(弟王子)²⁵인 교기(翹岐)²⁶와

16 草壁吉士는 『日本書紀』 웅락천황 14년(470) 여름 4월삭조에 보인다.

17 『日本書紀』 서명천황 10년(549) 가을 7월조에 보인다.

18 의자왕을 말한다.

19 ‘塞城·忠誠’이라고도 한다. 『日本書紀』 孝德천황 白雉 원년(650) 2월 갑신조에는 豐璋의 동생으로, 『日本書紀』 齊明천황 6년(660) 10월조의 주에 따르면 豐璋의 숙부로 되어 있다. 백제 멸망 후에는 백제 부흥군의 수장이 된 백제왕 풍장과 함께 귀국하였다.

20 從者란 의미이다. 『延喜式』 大藏에 의하면 遣唐使인 유학생·학문승에게는 官費로 僉從을 붙이고, 그 외에도 僉人이 승선하였다고 한다.

21 百濟弔使의 파견을 皇極 2년의 調使의 증복으로 보아 ‘去年’을 ‘元年’으로 보는 설도 있다. 智積은 7월 을해조에 백제 사자로 파견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사망 설은 僉人에 의한 誤傳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22 백제 귀족으로 대좌평에 취임하고 있는 인물은 『日本書紀』 齊明紀 6년 7월조 인용의 「伊吉連博德書」에 보이는 沙宅千福과, 天武紀 2년 윤6월 경인조의 왜에서 죽은 沙宅昭明으로 모두 백제 大姓 8족의 하나인 沙(혹은 沙宅)氏에 해당한다. 智積에 대해서는 姓은 보이지 않지만 백제 의자왕대에 제작된 砂宅智積碑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砂宅智積은 654년(白雉 5)에 해당하는 갑인년까지 생존해 있기 때문에 641년에 사망하였다는 기록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23 崙崙이라고도 하며 인도차이나 반도 남동지역을 말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海難을 두려워하여 인신공양으로 바다에 던졌다고 보는 설이 있다.

24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의 왕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친여동생 4인, 내좌평(內佐平)²⁷인 기미(岐味)²⁸, 그 외에 신분이 높은 인물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²⁹.”라고 말하였다. 임진(6일)에 고구려³⁰ 사인이 난파진(難波津; 나니하노쓰)에 머물렀다. 정미(21일)에 대부들을 난파군(難波郡; 나니하노코호리)³¹에 보내어, 고구려국이 조공한 금, 은, 동과 그 현상물을 점검³²시켰다. 고구려의 사인은 바치는 일이 끝나자 “작년 6월에 제왕자(弟王子)³³가 죽었습니다. 가을 9월³⁴에는 대신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³⁵가 대왕을 죽이고 아울러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살해³⁶하였으며, 제왕자

25 ‘太子’로, ‘世子’에 다음가는 왕자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26 교기에 대해서는 2년 4월 경자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사가 보이는데, 이를 둘러싸고 백제왕통계에서의 위치, 백제왕자 豐璋과의 관계 그리고 교기의 도왜 목적과 質외교의 성격 등이 논쟁이 되고 있다. 풍장과 교기에 대해서는 풍장을 무왕의 아들로, 교기는 의자왕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 『당서』에 內臣좌평, 內頭좌평, 內法좌평 등의 세 좌평이 보인다.

28 여기에만 보인다.

29 이 사건을 백제 의자왕의 권력집중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의자왕의 정적을 우호관계에 있던 왜국으로 추방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본문의 추방설은 풍설에 불과하고 이들은 외교사절로서 파견된 인물들이다.

30 원문은 高麗이다.

31 『日本書紀』 欽明天皇 22년조에 難波大郡이 보인다.

32 『日本書紀』 推古天皇 13년(605) 4월 신유삭조에 고구려가 금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33 이 시기 고구려왕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27대 榮留王(618~642)으로 왕제는 大陽王이 된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이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

34 이 기사에 따르면 전년(641) 9월이 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25년(642) 겨울 10월에 蓋蘇文이 왕을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皇極 원년의 고구려 관련 기사는 원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5 淵蓋蘇文이다. 『日本書紀』 齊明天皇 6년(660) 7월 을묘조와 天智天皇 3년 10월 이 달조에는 ‘蓋金’이라고 보인다. 고구려 大對盧였던 부친의 사후 그 지위를 이어받아 642년 榮留王과 그 중신을 죽이고 왕의 조카 寶藏王을 옹립하여 스스로 莫離支의 지위에 앉아 권력을 장악하였다. 죽은 해는 664년, 665년, 666년 등 여러 설이 있다.

36 蓋蘇文과 같은 伊梨姓이기 때문에 동족으로 보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 개소문전에는

의 아들³⁷을 왕으로 삼고 동성(同姓)인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³⁸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무신(22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객(客)을 난파군에서 향응하였다. 천황은 대신에게 “진수련대해(津守連大海; 쓰모리노무라지오호아메)³⁹를 고구려에, 국승길사수계(國勝吉士水鷄; 쿠니카쓰키시쿠히나)⁴⁰[水鷄는 쿠히나(俱毗那)라 읽는다.]를 백제에, 초벽길사진적(草壁吉士眞跡; 쿠사카베노키시마토)⁴¹을 신라에, 판본길사장형(坂本吉士長兄; 사카모토노키시나가에)⁴²을 임나에 파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경술(24일)에 고기를 불러 아담산배련의 집에서 머물게 하였다. 신해(25일)에 고구려와 백제의 객을 향응하였다. 계축(27일)에 고구려의 사신과 백제의 사신이 함께 귀국하였다.

3월 병진삭 무오(3일)에 구름도 없는데 비가 내렸다. 신유(6일)에 신라가 하등극사(賀騰極使)⁴³와 조상사(弔喪使)⁴⁴를 파견하였다. 경오(15일)에 신라의 사인이 귀국하였다. 이 달에 장마가 있었다.

여름 4월 병술삭 계사(8일)에 대사인 교기가 종자를 데리고 천황을 배알하였다. 을미(10일)에 소아대신(蘇我大臣)⁴⁵은 무방(畝傍; 우네비)의 집⁴⁶에 백제의

그 수가 무려 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37 27대 榮留(建武)王의 王弟인 大陽의 아들로 寶藏王이라 한다. 최후의 고구려왕으로 재위는 642~668년이었다.

38 여기에만 보인다.

39 여기에만 보인다.

40 여기에만 보인다. 齊明紀 2년 이 해조에는 難波吉士 國勝이 백제로부터 돌아왔다고 한다.

41 여기에만 보인다.

42 여기에만 보인다.

43 皇極천황 즉위를 축하하는 사자로 보인다. 등극 축하 사자는 天武紀 2년 윤6월 기해조 등에도 보인다.

44 舒明天황의 죽음을 조문하는 사자로 볼 수 있다.

45 蘇我蝦夷를 말한다.

46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10월조에 대신(蘇我蝦夷)이 畝傍山의 동쪽에 집을 세웠다고 한다.

고기 등을 불러 친히 대화하고 좋은 말 1필과 철정 20개를 주었다. 그러나 새상은 부르지 않았다. 이 달에 장마가 들었다.

5월 을묘삭 기미(5일)에 하내국(河內國; 카후치노쿠니)의 의망둔창(依網屯倉; 요사미노미야케) 앞으로 고기 등을 불러 사렵(射獵)⁴⁷을 하였다. 경오(16일)에 백제국 조사(調使)의 배⁴⁸와 길사(吉士)⁴⁹의 배가 함께 난파진에 도착하였다[아마도 길사는 이보다 앞서 백제에 간 사자일 것이다.], 임신(18일)에 백제의 사인⁵⁰이 조(調)를 바쳤으며, 길사가 복명하였다. 을해(21일)에 고기의 종자 1명이 죽었다. 병자(22일)에 고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와 그 처는 아들의 죽음을 기피하여 끝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릇 백제나 신라의 풍습⁵¹에는 죽은 자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 부부자매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스스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육친을 사랑하지 않는 심한 정도가 새나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정축(23일)에 익은 벼⁵²가 처음으로 보였다. 무인(24일)에 고기는 처자를 데리고 백제대정(百濟大井)⁵³의 집으로 이사하고, 사람을 보내어 죽은 아들을 석천(石川)⁵⁴에 매장하게 하였다.

6월 을유삭 경자(16일)에 가랑비가 내렸다. 이 달에 크게 가물었다.

47 『日本書紀』 황국천황 2년 5월 5일조이기 때문에 ‘藥獵’설이 있고, ‘端午騎射’설이 있다.

48 『日本書紀』 황국천황 2년 6월 신축조에도 백제의 進調船이 보인다.

49 國勝吉士라고 보는 설이 있다.

50 翹岐라고 보는 설이 있다.

51 『翰苑』 인용의 『括地志』에는 백제의 葬制는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모두 喪을 3년으로 정한다. 나머지 육친은 장례가 마치면 벗는다. 그 장례는 시체를 산중에 둔다. 또 매장과 빈소가 있었다.’고 하였다. 『隋書』 百濟傳에는 ‘喪制는 高麗(고구려)와 같다.’고 하였다.

52 음력 5월에 벼가 익은 것(熟稻)을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53 『日本書紀』 민달천황 원년(572) 여름 4월 이 달조에도 보인다. 大阪府 河內長野市 太井 혹은 南河內郡 太子町 大井 지역으로 보는 설이 있다.

54 『日本書紀』 민달천황 12년(583) 이 해조에 보인다.

가을 7월 갑인삭 임술(9일)에 객성(客星)⁵⁵이 달 속으로 들어갔다. 을해(22일)에 백제의 사인⁵⁶ 대좌평 지적 등을 조정에서 향응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백제의 사인 대좌평 지적 및 그 아들 달술(이름이 빠졌다.)⁵⁷과 은술⁵⁸ 군선(軍善)⁵⁹이라고 하였다.], 즉시 건아(健兒)⁶⁰에게 명하여 교기 앞에서 씨름을 시켰다. 지적 등은 연회가 끝나고 물러나서 교기의 집에 이르러 배례하였다. 병자(23일)에 소아신입록의 수자(曙者)⁶¹가 흰 참새(雀) 새끼를 잡았다. 또 이 날 같은 시각에 흰 새를 삼태기에 넣어 소아대신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다. 무인(25일)에 군신(群臣)이 “여러 마을의 축부(祝部; 하후리베)⁶²가 명령받은 대로 소와 말을 죽여 여러 신사의 신에게 제사지내고, 혹은 빈번하게 시장을 옮기기도 하며 하백(河伯)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다. 소아대신이 “각각의 절에서 대승경전(大乘經典)⁶³을 전독(轉讀)⁶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교의 설법대로 과오를 뉘우치고 공경한 마음으로 기우(祈雨)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경진(27일)에 대사(大寺)⁶⁵의 남쪽 광장에 부처와 보살상과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많은 승려를 초청하여 대운경(大雲經) 등을 읽게 하였다. 소아대신은 손에

55 怪星이라고도 하며, 별이 달에 들어갔다는 것은 흉사라고 해석한다.

56 원년 2월 무자조에 보인다.

57 8월 병신조의 ‘百濟質達率長福’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58 백제 관위 16계 중 제3위이다.

59 귀국은 보이지 않지만, 2년 7월조에 백제 부사로서 재차 왜에 파견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60 율령제에서는 군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건장한 사람을 의미한다.

61 소년 혹은 從者이다.

62 神職의 명칭으로 神主·禰宜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지만 통상의 神社에서는 祝部가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한다.

63 大乘經典은 『華嚴經』, 『大集經』, 『般若經』, 『法華經』, 『涅槃經』의 5부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64 경전을 순서대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65 百濟大寺라고 보는 설이 있다.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며 발원하였다. 신사(28일)에 가랑비가 내렸다. 임오(29일)에 기원을 하여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8월 갑신삭(1일)에 천황이 남연(南淵)⁶⁶ 강의 상류로 행차하여 꿇어앉아 사방에 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원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렸다. 드디어 5일간이나 계속하여 비가 내려 나라 안을 두루 적셨다[어떤 책(或本)에는 5일간 연속하여 계속 비가 내려 구곡(九穀)⁶⁷이 잘 익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 안의 백성은 다 함께 만세를 부르고 “훌륭한 덕을 가진 천황이다.”라고 말하였다. 기축(6일)에 백제사신 참관(參官)⁶⁸ 등이 귀국하여 큰 배와 동선(同船)⁶⁹[同船은 모로키후네(母慮紀舟)라 읽는다.] 세 척을 주었다. 이 날 한밤중에 천둥이 서남쪽의 방위에서 울리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렸다. 그리하여 참관 등이 탄 선박이 해안에 부딪쳐 부서졌다. 병신(13일)에 백제 인질인 달솔 장복(長福)⁷⁰에게 소덕⁷¹의 관위를 내렸다. 그리고 중객(中客)⁷² 이하에게 작위 1등급을 주고 물건을 내렸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무술(15일)에 백제의 참관 등에게 배를 주어 출발하게 하였다. 기해(16일)에 고구려의 사인이 귀국하였다. 기유(26일)에 백제와 신라 사인이 귀국하였다.

9월 계축삭 을묘(3일)에 천황이 대신에게 “내가 대사(大寺)⁷³의 조영을 시작하려 하니 근강(近江 ; 오미)과 월(越 ; 고시)의 인부를 징발하도록 하라.”고 명하

66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稻淵의 지역이다.

67 黍, 稷, 秬, 稻, 麻, 大豆, 小豆, 大麥, 小麥이라 한다.

68 인명인지 직명인지 분명하지 않다. 副使로 보는 견해도 있다.

69 많은 나무를 접합하여 만든 배이다.

70 여기에만 보인다.

71 推古천황 12계 관위의 제2위이다.

72 『日本書紀』 孝德천황 大化 5년(649) 是歲條의 주와 『日本書紀』 天武천황 2년(674) 8월 戊申條의 신라 일행에 ‘中客’이 보인다.

73 百濟大寺를 지칭하며, 건축은 舒明 11년(639)에 시작되었다.

였다[백제대사(百濟大寺)이다.], 또 각국에 명하여 배를 만들게 하였다. 신미(19일)에 천황은 대신에게 “이 달부터 12월 사이에 궁실⁷⁴을 조영하고자 생각하니 각국에서 궁전을 만들기 위한 목재를 벌채하게 하라. 그리고 동쪽은 원강(遠江; 토호츠오미)에서 서쪽은 안예(安藝; 아기)⁷⁵까지 각국에서 궁전을 조영하기 위한 인부를 징발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계유(21일)에 월(越) 지역 변경의 하이(蝦夷) 수천 명이 귀복⁷⁶하였다.

겨울 10월 계미삭 경인(8일)에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렸다. 신묘(9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밤에도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갑오(12일)에 하이를 조정에서 향응하였다. 정유(15일)에 소아대신이 하이를 집에 초대하여 향응하고 친히 위문하였다. 이 날 신라 조사의 배와 하등극사가 일기도(壹岐嶋)에 머물렀다.⁷⁷ 병오(24일) 밤에 지진이 있었다. 이 달에 하령(夏令)⁷⁸을 행하였다. 구름도 없는데 비가 내렸다.

11월 임자삭 계축(2일)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병진(5일)에 한밤중에 천둥이 한 번 서북쪽 방향에서 쳤다. 기미(8일)에 서북쪽 방향에서 천둥이 다섯 번 쳤다. 경신(9일)에는 날씨가 따뜻하여 봄날과 같았다. 신유(10일)에 비가 내렸다. 임술(11일)에는 날씨가 따뜻하여 봄날과 같았다. 갑자(13일)에 천둥이 한 번 북쪽 방향에서 치고 바람이 일었다. 정묘(16일)에 천황이 신상(新嘗; 니이나헤)⁷⁹을 행하였다. 이 날에 황태자⁸⁰와 대신이 각각 신상의 의례를 행하였다.

74 12월조에 小墾田宮으로 옮기고 다음해 2년 4월조에 飛鳥蓋宮으로 옮겼다고 한다.

75 현재 廣島縣의 중서부지역이다.

76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77 신라의 弔喪使와 賀騰極使가 지난 3월 신유(6일)에 渡倭하여 경오(15일)에 귀국하지만, 도중에 지체하여 10월 정유(15일)에 壹岐嶋에 이르렀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78 여름 정지란 의미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神에게 災禍 없기를 비는 王者의 政令을 말한다.

79 ‘神嘗’이라고도 하는데, 神이 新穀을 먹는 것으로 이 제사는 매년 9월에 행한다고 한다.

80 天智천황을 말한다.

12월 임오삭(1일)에 날씨가 따뜻하여 봄과 같았다. 갑신(3일)에 천둥이 낮에 다섯 번 치고, 밤에 두 번 쳤다. 갑오(13일)에 처음으로 식장족일광액(息長足日廣額; 오키나가타라시히로누카노)천황⁸¹의 장례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에 소덕 거세신덕태(巨勢臣德太; 코세노오미토코다)⁸²가 대파황자(大派皇子; 오토마타노미코)⁸³를 대신하여 조사를 읽었다. 다음에 소덕 속전신세목(粟田臣細目; 아와타노오미호소메)⁸⁴이 경황자(輕皇子; 카루노미코)⁸⁵를 대신하여 조사를 읽었다. 다음에 소덕 대반련마사(大伴連馬飼; 오토모노무라자우마카히)⁸⁶가 대신을 대신하여 조사를 읽었다. 을미(14일)에 식장산전공(息長山田公; 오키나가노야마타노키미)⁸⁷이 일사(日嗣)⁸⁸를 받들어 조사를 읽었다. 신축(20일)에는 천둥이 세 번 동북쪽 방향에서 쳤다. 경인(9일)에는 천둥이 동쪽에서 두 번 치고 비바람이 불었다. 임인(21일)에 식장족일광액천황⁸⁹을 골곡강(滑谷岡; 나메하사마노오카)⁹⁰에서 장례지냈다. 이 날 천황은 소간전궁(小壘田宮; 오후리다노미야)⁹¹으로 천거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동궁⁹² 남쪽 뜰의 권궁(權宮)⁹³으로 옮겼다고 한다.], 갑진(23일)에 천둥이 밤에

81 舒明天황을 말한다.

82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643) 11월조에 入鹿의 명을 받아 山背王을 斑鳩宮에서 습격하였고, 孝德紀 大化 원년(645) 7월조에 고구려 사신을 접견하였으며, 5년(650) 4월조에 좌대신이 되었고, 齊明紀 4년(658) 정월조에 죽었다.

83 敏達천황의 황자로 舒明天황의 숙부이다.

84 『日本書紀』 추고천황 19년(611) 여름 5월 5일조에 보인다.

85 후대의 孝德천황으로 舒明天황의 조카이며 皇極천황의 동생이다.

86 『日本書紀』 서명천황 4년(632) 겨울 10월 갑인조에 보인다.

87 여기에만 보인다. 息長씨는 天武 13년 10월 真人을 賜姓받았다.

88 천황의 자리로 日の 御子로서 그 지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이다. 持統紀 2년 11월조에 ‘皇祖 등의 등극 순서’를 ‘옛날에는 日嗣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89 舒明天황을 말한다.

90 大和國 高市郡 冬野村 부근이다.

91 현재 奈良縣 高市郡 飛鳥지역이다.

한 번 쳤다. 그 소리가 찢어지는 듯하였다. 신해(30일)에 날씨가 따뜻하여 봄
날과 같았다. 이 해에 소아대신 하이는 스스로 선조의 사당⁹⁴을 갈성(葛城; 카
스라키)⁹⁵의 고궁(高宮; 타카미야)에 세워 팔일(八角; 야쓰라)⁹⁶의 춤을 추었다. 마
침내 노래를 지어 불렀다.

대화(大和; 야마토)의 인해(忍海; 오시미)강의 광뢰(廣瀨; 히로세)를 건너려고 다
리의 끈을 묶고 요대를 매어 몸단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안의 백성과 180부곡⁹⁷을 징발하여 미리 쌍묘(雙墓)를 금
래(今來; 이마키)⁹⁸에 만들었다. 하나는 대릉이라 부르고 대신의 묘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소릉이라 부르고 임록의 묘로 삼았다. 죽은 뒤에 묘를 조영하는
일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다시 상궁(上宮)⁹⁹의
유부(乳部; 미부)¹⁰⁰ 백성[乳部는 미부(美父)라 읽는다.]을 모아서 형조소(塋兆所)¹⁰¹
에서 사역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상궁대낭희왕(上宮大娘姬王; 카미쓰미야노이라
쓰메노미코)¹⁰²이 “소아신은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무례한 행동이 많다. 하늘에

92 후대의 天智천황이다.

93 임시 궁전이란 의미이다.

94 조상을 제사지내는 사당이다.

95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葛上郡 高宮郷」이라고 하였다. 현재 奈良縣 御所市 森脇·宮戸
부근이라고 한다.

96 8열이란 의미로 八角舞는 64인이 방형으로 추는 춤으로 천자만이 행하는 특권이며, 제
후는 36인으로 수가 적었다고 한다.

97 部曲은 大化改新 이전 호족의 사유민이다.

98 지금의 奈良縣 吉野郡 大淀町 大字今木지역이다.

99 『日本書紀』 추고천황 원년(593) 여름 4월 을묘조에 보인다.

100 황자녀의 출산, 양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집단을 乳部 혹은 壬生部라고도 한다.

101 묘지이다.

두 태양이 없는 것과 같이 나라에 두 군주가 없다. 무슨 이유로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가.”라고 분개하였다. 이러한 일 때문에 대신과 임록신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서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이 해의 간지는 임인이다.

2년 봄 정월 임자삭(1일)에 이른 아침 오색의 큰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었는데, 동북동 방향만 비어 있었다. 또한 한 가지 색깔의 푸른 안개가 지상의 사방에서 솟아올랐다. 신유(10일)에 태풍이 불었다.

2월 신사삭 경자(20일)에 처음으로 복숭아꽃이 피었다. 을사(25일)에 우박이 내려 초목의 꽃과 잎이 상하였다. 이 달에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이것은 동령(冬令)¹⁰³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무격(巫覡)¹⁰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목면을 거기에 걸치고¹⁰⁵, 대신¹⁰⁶이 다리를 건널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앞을 다투어서 신어(神語)¹⁰⁷ 같은 미묘한 말을 지껓었다. 무격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3월 신해삭 계해(13일)에 난파의 백제 객을 위한 관당(館堂)¹⁰⁸과 백성의 가옥

102 聖德太子의 딸로 春米女王이라는 설이 있다.

103 『禮記』의 月令에 의하면 달마다 계절에 따른 政令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2월이므로 춘령을 시행해야 하는데 동령을 시행하였으므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104 무당과 박수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이다.

105 삼나무와 닳나무로부터 채취한 흰 섬유인데, 이를 가지에 걸어 늘어뜨려 神事에 사용한다고 한다.

106 蘇我蝦夷를 말한다.

107 신들린 무당이 하는 신의 말을 뜻한다. 蝦夷에 아첨하는 神託이라고 보는 설과 비판적인 신탁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108 難波에 설치된 백제사신 접대의 숙박시설이다. 繼體紀 6년 12월조에는 ‘難波宮’, 『日本書紀』 推古天皇 16년 4월조에는 ‘高麗館’ 등이 보인다.

이 화재를 입었다. 을해(25일)에 서리가 내려 초목의 꽃과 잎이 상하였다. 이 달에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동령(冬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름 4월 경진삭 병술(7일)에 태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정해(8일)에 바람이 불어 날씨가 추웠다. 기해(20일)에 서풍이 불고 우박이 내렸다. 날씨가 추워 사람들은 면포(綿袍)¹⁰⁹를 3중으로 겹쳐 입을 정도였다. 경자(21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¹¹⁰가 급하게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국주의 아들 교기(翹岐)¹¹¹와 제왕자(弟王子)가 조사(調使)와 함께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정미(28일)에 천황은 권궁(權宮)에서 비조판개신궁(飛鳥板蓋新宮; 아스카노이타부키노니이미야)¹¹²으로 이사하였다. 갑진(25일)에 근강국(近江國)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직경이 일촌이나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5월 경술삭 을축(16일)에 월식이 있었다.

6월 기묘삭 신묘(13일)에 축자대재가 급사(急使)를 보내어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내조(來朝)하였습니다¹¹³.”라고 아뢰었다. 군경(群卿)이 이를 듣고 서로 상의하여 “고구려는 기해년¹¹⁴ 이래 내조하지 않았는데¹¹⁵ 금년에 내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신축(23일)에 조(調)를 헌상하는 백제의 배가 난파진에 도착하였다.

109 綿을 넣은 옷이란 의미이다.

110 『日本書紀』 추고천황 17년(609) 여름 4월 경자조에 보인다.

111 전년 2월조의 翹岐 관련 기사와는 모순되기 때문에, 重出기사로 보아 이 기사가 옳다고 보는 설이 있다.

112 지금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 언덕이라고 한다.

113 『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 2월 임진조에 고구려의 渡倭가 보이고 있다.

114 기해년은 舒明天皇 11년(639)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의해 皇極 원년(641) 고구려 遣使 기사의 誤傳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115 『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 2월 임진조에 고구려의 來朝하였다고 하고, 정미조에는 금과 은 등을 헌상하였다고 한다.

가을 7월 기유삭 신해(3일)에 몇 명의 대부를 난파군(郡)에 파견하여 백제국의 조와 헌상물을 점검시켰다. 대부는 조를 바친 사자에게 “헌상하는 백제국의 조가 전례에 비하여 부족하다. 대신¹¹⁶에게 보내는 물건도 지난 해에 반송한 것과 품목이 변한 것이 없고, 군경에게 보내는 물건은 전혀 없다. 전례에 어긋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이나?”라고 문책하였다. 대사 달솔¹¹⁷ 자사(自斯)와 부사 은솔 군선(軍善)은 모두 “즉시 정비하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자사는 인질인 달솔 무자(武子)¹¹⁸의 아들이다. 이 달에 자전지(茨田池 ; 마무타노이케)¹¹⁹의 물이 심하게 썩어, 작은 벌레들이 연못 수면 위를 덮었다. 그 벌레는 입이 검고 몸이 희었다.

8월 무신삭 임술(15일)에 자전지의 물이 또 변하여 쪽빛 물과 같았다. 죽은 벌레가 수면을 덮었다. 또한 도랑물¹²⁰의 흐름도 막히고, 두께가 3~4촌이나 쌓였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섞여 여름에 썩어 죽은 것과 같이 냄새가 났다. 그 때문에 마실 수 없었다.

9월 정축삭 임오(6일)에 식장죽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 오키나가타라시 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¹²¹을 압판릉(押坂陵)¹²²에서 장사지냈다[어떤 책(或本)에는 광액천황을 고시천황(高市天皇 ; 타케치노스메라미코토)이라 하였다.], 정해(11일)에 길비도황조모명(吉備嶋皇祖母命 ; 키비노시마노스메미오야노미코토)¹²³이 죽었다. 계

116 蘇我蝦夷이다.

117 ‘達率’은 백제 16관등 관품의 제2위이다. ‘自斯’는 여기에만 보인다.

118 여기에만 보인다.

119 지금의 大阪府 寝屋川市 平池라고 보는 설이 있다.

120 溝瀆은 논·의 용수를 끌어들이는 고랑이다. ‘瀆’은 ‘溝’와 같으며, 『禮記』 王制에 관련 예가 보이고 있다.

121 舒明天황을 말한다.

122 이전에 骨谷岡에서 장사지낸 舒明天황의 묘를 개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奈良縣 北葛城郡 廣陵町の 牧野고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

사(17일)에 토사사파련저수(土師娑婆連猪手; 하지노사바노무라지이테)¹²⁴에게 명을 내려 황조모명의 장례 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천황은 황조모명이 병으로 누웠을 때부터 장례 의례를 행할 때까지 침상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양(視養)¹²⁵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을미(19일)에 황조모명을 단궁강(檀弓岡; 마유미노오카)¹²⁶에서 장사지냈다. 이 날에 큰 비가 오고 우박이 내렸다. 병오(30일)에 황조모명의 묘를 만드는 공사가 끝나자 신(臣), 연(連), 반조(伴造)에게 각각 비단과 포(帛布)를 내렸다. 이 달에 자전지의 물이 점차 변하여 백색으로 되었다. 또한 썩은 냄새도 없어졌다.

겨울 10월 정미삭 기유(3일)에 군신(群臣)과 반조를 조당(朝堂)의 정원에서 향응하고 물건을 내렸다. 그리고 관위 사여를 의논하고 국사(國司)¹²⁷에게 “이 전에 조칙을 내린 것과 같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 임지(任地)에 나가서는 그 임무에 삼가 충실하라.”고 명령하였다. 임자(6일)에 소아대신하이가 병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였다. 마음대로 자관(紫冠)¹²⁸을 아들 입록에게 주어 대신의 자리에 준하게 하였다. 또 입록의 동생을 물부대신(物部大臣)이라 불렀다. 대신의 조모(祖母)는 물부궁삭대련(物部弓削大連)의 누이¹²⁹였다. 따라서 외갓집의 재력에 의지하여 위세를 세상에 떨친 것이다. 무오(12일)에 소아입록은 독단으로 상궁(上宮)의 왕자¹³⁰들을 폐하고 고인대형(古人大兄; 후루히토오호에)¹³¹을 천황에

123 皇極천황의 어머니로 皇極 즉위전기에는 ‘吉備姬王’이라 한다.

124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603) 봄 병자조에 보인다.

125 주의하여 양육한다는 뜻으로 간병을 의미한다.

126 지금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 平田으로 보는 설이 있다.

127 율령제 성립 이전에는 ‘國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128 大化 3년(647)에 제정된 13계 관위에서는 대소의 織冠·繡冠 다음에 대소의 紫冠이 있다.

129 蘇我馬子の 처로 入鹿과 그 동생에게는 조모가 된다.

130 聖德太子의 왕자들로 山背大兄王이 중심되는 인물이다.

세우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때 동요¹³²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서 작은 원숭이가 쌀을 굶고 있다. 적어도 이 구운 쌀이라도 먹고 가
라. 산양과 같은 (백발의) 아저씨여.

라고 하였다[소아신입록은 상공의 왕들이 위명¹³³을 천하에 떨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혼자 참람되게 왕이 되고자 하였다.].

이 달에 자전지의 물이 원래의 깨끗한 물로 되었다.

11월 병자삭(1일)에 소아신입록은 소덕(小德) 거세덕태신(巨勢德太臣; 코세노
토코타노오미)과 대인(大仁) 토사사파련(土師娑婆連; 하지노사바노무라지)¹³⁴을 파견
하여 산배대형왕(山背大兄王; 아마시로노오호에노미코)¹³⁵ 등을 반구(斑鳩; 이카루
가)에서 엄습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거세덕태신과 왜마사수(倭馬飼首; 아마토노우마
카히노오비토)¹³⁶를 장군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자 종자(奴) 삼성(三成; 미나리)¹³⁷
이 수십 명의 사인(舍人; 토네리)¹³⁸과 함께 나와 막고 싸웠다. 이에 토사사파(土
師娑婆; 하지노사바)는 화살에 맞아 죽고, 군세는 두려워하여 퇴각하였다. 그러
자 군대의 사람들이 서로 “한 사람이 천 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삼성과 같은 사
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였다. 산배대형은 말뼀을 내침(內寢)¹³⁹에 던

131 舒明天皇의 황자이다.

132 사회적 사건에 대해 예언하고 풍자한 노래이다.

133 위엄이 있는 평판을 의미한다.

134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603) 봄 2월 병자조에 보인다.

135 聖德太子의 아들이다.

136 天武紀 12년 9월조에 倭馬飼造에게 連을 賜姓하였다고 한다.

137 여기에만 보인다.

138 황실과 후궁, 諸王 등에 사적으로 소속되어 섬기는 측근을 말한다.

139 침실을 말한다.

져 놓고, 비(妃)와 자녀들을 데리고 틈을 타서 도주하여 담구산(膽駒山; 이코마야마)¹⁴⁰에 숨었다. 삼륜문옥군(三輪文屋君; 미와노후미야노키미)¹⁴¹, 사인인 전목련(田目連; 타메노무라지)¹⁴²과 그 딸 토전제석(菟田諸石; 우다노모로시)¹⁴³, 이세아부견경(伊勢阿部堅經; 이세노아베노카타후)¹⁴⁴ 등이 같이 따랐다. 거세덕태신 등은 반구궁을 불태우고 재 속에서 뼈를 발견하자 왕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 산배대형왕 등은 4, 5일 동안 산에 숨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였다. 삼륜문옥군은 나아가 “청컨대 일단 심장둔창(深章屯倉; 후카쿠사노미야케)¹⁴⁵으로 옮겨, 거기에서 말을 타고 동국으로 가서 유부(乳部)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를 일으킨 후에 돌아와서 싸우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산배대형왕 등이 “너의 말대로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 백성을 사역시키지 않기로 마음으로 바랐다. 자기 일신 때문에 어찌하여 만민에게 노고를 끼칠 수가 있겠는가. 또 후세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부모를 잃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 설사 싸움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야 어찌 장부가 할 수 있겠는가. 몸을 버려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장부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멀리서 상궁의 왕들이 산중에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소아신입록에게 알렸다. 입록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급히 군사를 일으키고, 왕의 소재를 고향신국압(高向臣國押; 타가무쿠노오미쿠니오시)¹⁴⁶에게 알

140 大和와 河内の 경계에 있는 生駒山으로, 斑鳩 북쪽의 松尾구릉에서 龍田川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늘어서 있다.

141 ‘文屋’을 이름으로 보는 설이 있다.

142 天武 13년 11월 宿禰를 賜姓받았다.

143 여기에만 보인다.

144 여기에만 보인다.

145 『和名類聚抄』에 ‘山城國 紀伊郡 沈草郷’이라고 보인다. 교통의 요지로 近江國을 거쳐 不破의 도로로부터 東海·東山の 양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한다.

리고 “급히 산으로 가서 그 왕들을 찾아서 잡아 와라.”고 말하였다. 국압은 “나는 천황의 궁을 지키고 있으므로 외부에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입록 스스로 출발하려 하고 있을 때, 고인대형황자(古人大兄皇子; 후루히토노오호에노미코)¹⁴⁷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어디에 가는가.”라고 물었다. 입록이 상세히 사정을 설명하자 고인황자가 “쥐는 구멍에 숨어서 살고 구멍을 잃으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입록은 가는 것을 중지하고 군장(軍將)들을 파견하여 담구산(膽駒山)을 수색하게 했으나 결국 왕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산배대형왕 등은 산에서 내려와 반구사(斑鳩寺)¹⁴⁸에 들어갔다. 군장들은 곧 군병으로 절을 포위하였다. 산배대형왕은 삼륜문옥군을 통하여 군장들에게 “내가 군세를 일으켜 입록을 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일신의 사정 때문에 백성들을 살상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한 몸을 입록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마침내 자제, 비첩(妃妾)과 (한날) 한시에 스스로 목을 매어 함께 죽었다.¹⁴⁹ 이때 오색의 번개(幡蓋)¹⁵⁰와 여러 가지 기악(伎樂)¹⁵¹이 공중에서 빛나며 절 위에 내려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감탄하고 입록에게 보도록 가리켰다. 그러자 번개 등이 검은 구름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입록은 볼 수가 없었다. 소아대신하이는 산배대형왕 등이 모두 입록에게 죽었다

146 高向國押은 蘇我入鹿의 명에 따르지 않고 蘇我氏에 따르는 漢直 등을 설득하여 무기를 버리도록 하고 있다.

147 舒明天황의 황자로 부인은 蘇我島大臣의 딸 法提郎媛이다.

148 후대에 法隆寺로 불렸다. 일반적으로는 天智 9년(670) 4월에 화재가 있기 전 창건 당시의 법륜사를 말하지만, 이때의 쟁란으로 불탔다는 설이 유력하다.

149 『上宮聖德法王帝說』에는 ‘山代大兄 및 그 형, 아우 등을 합하여 15명의 왕자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하였고, 『聖德太子傳補闕記』에는 “남녀 23명의 왕이 죄없이 해를 당했다”고 하며 태자 일족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150 欽明紀 13년 10월조의 불교전래 기사에 ‘幡蓋若干’이란 문구가 보이고 있다.

151 佛教의 舞樂을 말한다.

는 말을 듣고 “아아, 입록은 극히 어리석어 오로지 난폭한 짓을 행하였다. 너의 생명 또한 위태롭다.”라고 성내며 질책하였다. 사람들은 앞의 동요¹⁵²에 응답¹⁵³하기를 “바위 위¹⁵⁴라는 것은 상궁, ‘작은 원숭이’라는 것은 임신(林臣; 하야시노오미)¹⁵⁵에 비유된다[임신은 입록이다.]. 그리고 ‘쌀을 굶는다.’라는 것은 상궁을 태우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쌀이라도 먹고 있으라. 산양과 같은 백발의 늙은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산배왕의 두발이 얼룩진 것¹⁵⁶을 산양에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또 ‘그 궁을 버리고 깊은 산에 숨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해에 백제의 태자 여풍(餘豐)¹⁵⁷이 꿀벌¹⁵⁸ 둥지 네 개를 삼륜산(三輪山; 미와야마)¹⁵⁹에 풀어 사육하였다. 그러나 결국 번식시키지 못하였다.

3년 봄 정월 을해삭(1일)에 중신겸자련(中臣鎌子連; 나카토미노카마코노무라지)¹⁶⁰을 신기백(神祇伯; 카무쓰카사노카미)¹⁶¹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겸자련은 거듭 고사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병이라 칭하고 물러나 삼도(三島; 미시마)¹⁶²

152 10월조의 동요를 말한다.

153 대답의 동요는 山背大兄의 사건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154 上宮으로 비유한다는 해석인데, 이 경우에는 聖德太子的 아들인 山背大兄王을 말한다.

155 蘇我入鹿은 ‘林太郎’이라 불렸다고 한다.

156 山背大兄王의 머리카락이 얼룩져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157 ‘豊璋’을 말한다. 백제 말기 의자왕의 태자를 『舊唐書』 백제전에는 太子隆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후에 백제왕이 되었던 사실의 수식적 추기로 보인다.

158 양봉에 관한 최초의 기사이다.

159 지금의 奈良縣 櫻井市の 三輪山을 말한다.

160 ‘鎌子’는 후대의 鎌足으로, 『藤氏家傳』 上에 의하면 御食子の 아들이고 어머니는 大伴夫人이라고 한다.

161 律令制에서 神祇官의 장관으로 繼體紀 원년 2월조에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書紀』 편찬자의 윤색이다.

162 현재 大阪府 三島郡 島本町 및 高槻·茨木·摂津·吹田에 걸친 지역이라 한다.

에 거주하였다. 그때 경황자(輕皇子; 카루노미코)¹⁶³도 다리 병으로 조정에 출사하지 못하였다. 중신겸자련은 이전부터 경황자와 친하였으므로, 그 궁에 가서 시숙(侍宿)¹⁶⁴을 하려고 하였다. 경황자는 중신겸자련의 높은 품격과 범할 수 없는 인품을 깊이 깨닫고, 즉시 총애하는 비(妃)인 아배씨(阿倍氏; 아베시)¹⁶⁵에게 별전(別殿)을 청소하게 하고 새로운 욱(蓐)¹⁶⁶을 높이 깔아 만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정중히 받드는 것이 특별히 달랐다. 중신겸자련은 대접을 받고 감격하여 사인에게 “이와 같은 은택을 받는 것은 전에 바라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누가 능히 천하에 왕이 됨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사인(舍人)¹⁶⁷을 붙여서 부리게 한 것을 말한다.], 사인이 즉시 말을 황자에게 전하니 황자가 대단히 즐거워하였다. 중신겸자련은 사람됨이 충정(忠正)하고 광제(匡濟)¹⁶⁸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소아신입록이 군신장유의 질서를 잃고 사직을 흠칠 야망을 품고 있는 것에 분개하여, 왕족들을 두루 접촉하고 시험하여 공명을 세울 수 있는 영명(英明)한 주인을 구하였다. 그래서 중대형에게 마음을 두었으나, 소원하여 아직 심중의 생각을 토로할 기회가 없었다. 마침 범흥사의 느티나무 밑에서 타국(打毬)¹⁶⁹ 경기를 하였을 때 그 일행으로 참가하여, 중대형의 가족신발이 제기공¹⁷⁰과 함께 벗겨져 땅에 떨어지자 그것을 주

163 皇極전황의 동생으로 후대의 孝德천황을 말한다.

164 귀인의 곁에서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165 孝德紀 大化 원년 7월조에 ‘元妃, 阿倍倉梯麻呂大臣의 딸인 小足媛이라고 한다.’라고 보인다.

166 앉을 때 까는 깔개를 말한다.

167 輕皇子의 舍人을 말한다.

168 혼란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169 ‘打毬’은 蹴鞠과는 달리 打杖으로 공을 쳐서 승부를 다투는 것으로 오늘날의 폴로 또는 포켓 형태의 경기라고 보고 있다.

170 원문은 毬인데, 구는 鞠과 같고 공을 말한다.

위 두 손으로 들고 나아가 무릎 꿇고 공손하게 바쳤다. 그러자 중대형도 무릎을 꿇으며 정중하게 받았다. 이런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 친해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서로 숨김없이 말하게 되었다. 뒤에 두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의심할 것을 두려워하여, 함께 황권(黃卷)¹⁷¹을 손에 들고 주공(周孔)¹⁷²의 가르침을 남연선생(南淵先生)¹⁷³ 밑에서 배웠다. 그리고 오가는 길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중신겸자련은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협조자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소아창산전마려(蘇我倉山田石川麻呂; 소가노쿠라야마다노마로)¹⁷⁴의 장녀를 비로 하여 혼인의 연을 맺고, 그 뒤에 사정을 밝혀 함께 일을 도모함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성공에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중대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중신겸자련은 즉시 스스로 가서 중매인이 되어 혼약을 정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밤에 장녀를 일족에게 빼앗겼다¹⁷⁵[일족은 신협신(身狹臣; 무자시노오미)을 말한다.]. 이 때문에 창산전신은 두려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에 드러누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작은 딸이¹⁷⁶ 부친이 걱정하는 모습을 괴이하게 여겨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아버지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작은 딸은 “원하건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봉진(奉進)하여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즉시 크게 기뻐하고 드디어 그녀를 바쳤다. 그녀는 지성을 다하여 봉

171 고대의 서적은 방충을 위해 黃蘗으로 칠한 노란 종이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72 周公과 孔子의 가르침인 유교를 말한다.

173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608) 9월 신사조에 보인다.

174 入鹿의 종형제로 『公卿補任』에는 ‘右大臣 蘇我山田石河麻呂는 馬子大臣의 손자이며 雄正의 아들이다.’라고 한다.

175 『藤氏家傳』 상에 따르면 中大兄이 무력으로 죽이려 하였지만 鎌足이 이것을 말렸다고 한다.

176 天智紀 7년 2월조에 天智의 妃로 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의 딸 遠智娘이 보이는데, 이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녀는 大田皇女와 持統天皇의 어머니라고 한다.

사하였는데, 조금도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 중신겸자련이 좌백련자마려(佐伯連子麻呂; 사에키노무라지코마로)¹⁷⁷와 갈성치견양련망전(葛城稚犬養連網田; 카스라키노와카이누카히노무라지아미타)¹⁷⁸을 중대형에게 추천하였다, 운운(云云).

3월에 부영이가 풍포대신(豐浦大臣; 토유라노오미)¹⁷⁹의 대진(大津; 오후즈)¹⁸⁰의 집 창고에서 새끼를 낳았다. 또 왜국(倭國; 야마토노쿠니)에서 “요즘 토전군(菟田郡; 오다노코오리)¹⁸¹의 압판직(押坂直; 오시사카노아타히)¹⁸²[이름이 빠졌다.]이라는 사람이 눈 오는 날 동자(童子)를 데리고 놀러가 토전산에 올라갔더니 자주색 버섯이 눈 속에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이는 6촌 정도인데 4정(町)쯤 되는 넓은 곳에 가득하였다. 즉시 동자에게 따게 하고 돌아와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모두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독버섯인지 의심하였다. 그래서 압판직과 동자가 끓여 먹었다. 크게 향기로운 맛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압판직과 동자는 버섯을 먹은 덕택으로 병 없이 오래 살았다.”라고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서 지초(芝草)¹⁸³라고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보통) 버섯이라고 말하였구나.”라고 말하였다.

여름 6월 계묘삭(1일)에 대반마사련¹⁸⁴이 나리꽃을 헌상하였다. 줄기의 길이

177 佐伯連은 흙명천황 15년 봄 정월 병신조 참조. 子(古)麻呂는 入鹿 주살의 공이 있고, 孝德紀 大化 원년 9월 정축조 주의 或本에 따르면 11월 갑오조에 中大兄의 명을 받아 古人황자를 참하였다고 하고, 天智紀 5년 3월조에 천황 스스로 子麻呂의 병문안을 하였다고 하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續日本紀』天平寶字(757) 원년 12월조에는 功田 40町 6段을 上功田으로 사여 받았는데, 그 토지는 3세대에 전해졌다고 한다.

178 入鹿의 주살에 활약하였다. 稚犬養連은 天武 13년에 宿禰를 賜姓받았고, 『姓氏錄』河內和泉神別 등에는 火明命의 자손이라고 한다.

179 蘇我蝦夷를 말한다.

180 지금의 大阪府 泉大津市라고 하는 설이 있다.

181 지금의 奈良縣 宇陀郡 榛原町과 大宇陀町 부근 지역이라 한다.

182 여기에만 보인다.

183 영지버섯이라고 한다.

가 8척이나 되고 뿌리는 각각 달랐지만, 끝은 연결되어 있었다¹⁸⁵. 을사(3일)에 지기상군(志紀上郡; 시키노카미노코오리)¹⁸⁶에서 “어떤 사람이 삼륜산에서 원숭이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몰래 그 팔을 잡았지만 몸은 다치게 하지 않았습다. 원숭이는 계속 자면서,

저 건너편 산에 서 있는 남자의 부드러운 손이라면 내 손을 잡아도 좋지만, 아아, 대체 누구의 주름지고 갈라진 손인가. 갈라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 하느냐?

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원숭이의 노래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손을)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수년 후¹⁸⁷ 상궁 왕들이 소아안작¹⁸⁸에 의해 담구산¹⁸⁹에서 포위당하는 전조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무신(6일)에 검지(劔池)¹⁹⁰의 연꽃 가운데 한 줄기에서 두 개의 꽃받침이 나온 것이 있었다. 풍포대신¹⁹¹은 “이것은 소아신이 변영한다는 상서로운 징조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금묵(金墨)¹⁹²으로 그것을 그려 대법흥사의 장육불¹⁹³에 현상하였다. 이 달에 국내의 무력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목면을 걸어두고, 대신

184 『日本書紀』 서명천황 4년(632) 겨울 10월 갑인조에 보인다.

185 뿌리는 다른데 줄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連理花·連理木이라고 하는데, 상서로운 조짐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186 지금의 奈良縣 櫻井市の 北半과 天理市の 일부라고 한다.

187 三輪山の 원숭이 노래를 듣고 나서 수년 후라는 의미이다.

188 蘇我入鹿을 말한다.

189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11월조에 보인다.

190 『日本書紀』 서명천황 6년(634) 가을 7월 신축 이 달조에 보인다.

191 『日本書紀』 서명천황 8년(636) 가을 7월 을축삭조에 보인다.

192 金泥를 뜻한다.

193 『日本書紀』 推古천황 14년 4월 임진조(8일)에 보인다. 元興寺 금당에 안치된 丈六釋迦像이라는 설이 있다.

이 다리를 건너올 때를 엿보아 앞다투어 신묘한 말을 진술하였다. 그 무력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노인들은 “변화¹⁹⁴가 있을 전조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가요 세 수가 있었다. 첫 번째¹⁹⁵는

멀리서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섬의 덩불 벌판에서.

두 번째¹⁹⁶는

먼 곳의 천야(淺野 ; 아사노)의 꿩은 울지도 않는데, 우리가 잤다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세 번째¹⁹⁷는

숲속에 나를 유인하여 간음한 사람의 낮도 모른다. 집도 모른다.

라고 노래하였다.

가을 7월에 동국(東國 ; 아즈마노쿠니)의 부진(不盡 ; 후지)강 근방에 대생부다(大生部多 ; 오호후베노오호)라는 사람이 별레에게 제사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권하며 “이는 상세(常世)¹⁹⁸의 신이다. 이 신을 제사하는 사람은 부와 장수를 얻

194 원문은 移風이다.

195 첫 번째 노래는 남녀 야합의 노래라고 한다.

196 두 번째 노래는 아내를 방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킨 남자의 노래라고 한다.

197 세 번째 노래는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잔 여자의 노래라고 한다.

198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로불사의 神仙鄉이다. 신선향에서 온 신으로 별레를 믿은 것은 중국의 민간신앙인 도교의 영향이다.

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무격(巫覡)들도 드디어 (사람들에게) 신어(神語)라고 속이면서 “상세의 신을 제사하면 가난한 자는 부를 얻고 노인은 젊어진다.”고 말하였다. 이런 이유로 백성에게 권하며 재산을 버리게 하고, 술과 야채, 육축¹⁹⁹을 길바닥에 나란히 늘어놓고 “새로운 부가 들어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왕경²⁰⁰과 지방의 사람들은 상세의 별례를 잡아서 청좌(淸座)²⁰¹에 놓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행복을 구하고 귀한 재산을 버렸다. 이는 아무 이익이 없고 손해만 극심하였다. 이때 갈야(葛野; 카도노)²⁰²의 진조하승(秦造河勝; 하타노미야쓰코카하카쓰)²⁰³은 사람들을 미혹(迷惑)하게 하는 것을 미워하여 대생부다를 타도하였다. 그러자 무격들이 두려워하여 제사를 권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진(太秦; 우즈마사)²⁰⁴이 신 중의 신이라는 평판이 높은 저 상세의 신을 때려 징계한 일이며,

라고 노래하였다. 이 별례는 언제나 굴(橋)나무나 만초(曼椒)²⁰⁵[曼椒는 호소기(褒曾紀)라 읽는다.]에 살았다. 길이는 4촌 정도이고 크기는 손가락만하였다. 색깔은 녹색에 검은 반점이 있어 그 형상이 누에(蠶)와 흡사하였다.

겨울 11월에 소아대신하이와 아들 임록은 집을 감도강(甘櫛岡; 우마카시노오

199 馬, 牛, 羊, 豕, 狗, 鷄이다.

200 원문은 都이다.

201 神의 깔개, 좌석이다.

202 지금의 京都분지 서남부 일대의 지역이라 한다.

203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603) 11월 을해삭조에 보인다.

204 『日本書紀』 웅략천황 15년조에 秦河勝이 보인다.

205 山菝이다.

카)²⁰⁶에 나란히 지었다. 대신의 집을 위쪽의 궁문²⁰⁷이라 부르고, 임록의 집을 골짜기[谷]²⁰⁸의 궁문[谷은 하사마(波佐麻)라 읽는다.]이라 불렀다. 그리고 남녀 자식들을 왕자(王子; 미코)라 불렀다. 또한 집 밖에 성책을 만들고 문 옆에는 병기고를 지었다. 문마다 물을 가득 담은 배 한 척과 목구(木鉤)²⁰⁹ 수십 개를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했으며, 항상 힘이 센 장사에게 무기를 들게 하여 집을 지키게 하였다. 대신은 장직(長直; 나가노아타히)²¹⁰에게 명하여 대단수산(大丹穗山; 오니호노야마)²¹¹에 모삭사(杵削寺; 호코누키노테라)²¹²를 만들게 하였다. 또 무방산(畝傍山; 우네비노야마)의 동쪽에도 집을 세워 못을 파서 성을 만들고, 무기고를 세워서 화살을 비축하였다. 대신은 또 항상 50인의 병사를 거느리고 신변을 경호하게 하고 출입하였다. 힘센 이들을 이름하여 동방(東方)²¹³의 빈종자(飢從者)라 불렀다. 또한 제씨(諸氏)의 사람들이 들어가 그 문을 지켰다. 이름하기를 조자유자(祖子孺者; 오야노코와라하)²¹⁴라고 하였다. 한직(漢直; 아야노아타히)²¹⁵ 등에게는 전적으로 두 문²¹⁶을 지키게 하였다.

206 『日本書紀』 允恭천황 4년 9월조에는 ‘味糧丘’, 齊明天皇 5년 3월조에는 ‘甘糧丘’라고 보이고 있다.

207 원문은 上宮門이다.

208 원문은 谷宮門이다.

209 消火 때에 사용하는 갈고리 등의 도구를 말한다.

210 『日本書紀』 齊明天皇 5년 7월조에 ‘東漢長直阿利麻’라는 이름이 보인다.

211 현재 奈良縣 高市郡 高取町 生谷山이다.

212 『靈異記』 上 26話의 持統천황조에 백제승려 多羅常이 高市郡內 法器山寺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杵削寺가 이 ‘法器山寺’라는 설이 있다.

213 호위무사들이 동국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소아대신하이의 집이 畝傍山の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214 앞뒤에서 경호하는 從者이다.

215 東漢(倭漢)直을 말한다. 도래계 씨족으로 蘇我氏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蘇我蝦夷와 入鹿의 저택을 경호하였다.

4년 봄 정월에 부령(阜嶺)²¹⁷이나 강가 또는 궁사(宮寺) 사이에서 멀리 물체가 보이고 원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혹은 열 마리, 혹은 스무 마리 정도였다. 가까이 가서 보면 물체는 보이지 않는데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고, 그 형상은 볼 수 없었다[옛날 책(舊本)에는 이 해에 왕경²¹⁸을 난파(難波)로 옮겼는데, 이는 판개궁(坂蓋宮)이 폐허가 될 전조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세대신(伊勢大神)의 사자(使)이다.”라고 말하였다.

여름 4월 무술삭(1일)에 고구려에 파견한 학문승들이 “동학(同學)인 안작득지(鞍作得志; 쿠라쓰쿠리노토쿠시)²¹⁹는 범을 벗으로 하여 그의 술수²²⁰를 배웠다. 혹은 초복이 마른 산을 푸른 산으로 변하게 하고, 황토를 흰 물로 변하게 하였다. 많은 기술(奇術)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범이 침을 득지에게 주며 말하기를 ‘반드시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것으로 치료하면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다’고 말하였다. 과연 말한 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다. 득지는 언제나 그 침을 기둥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 범이 그 기둥을 부수고 침을 가지고 도주하여 버렸다. 고구려국²²¹은 득지가 귀국하려는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독을 써서 죽여 버렸다.”고 보고하였다.

6월 정유삭 갑진(8일)에 중대형이 비밀리에 창산전마려신²²²에게 “삼한(三韓)이 조(調)²²³를 바치는 날에 당신에게 상표문을 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

216 蝦夷의 上宮門과 入鹿의 谷宮門을 말한다.

217 언덕의 봉우리가 연결된 것이다.

218 원문에는 京이라 한다.

219 여기에만 보인다. 鞍作씨는 한반도계 도래인으로 鞍作鳥(推古紀 13년 4월조)와 鞍作福利(同 15년 7월조), 鞍作德積(同 13년 4월조) 등이 보인다.

220 方術, 道術, 奇術 등을 말한다.

221 원문은 高麗國이다.

222 入鹿의 종형제이다.

223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원년 7월 병자조에 삼국의 遣使와 進調를 전하는 기사가 있

였다. 드디어 입록(入鹿)을 참살하려는 모략을 알린 것이다. 마려신이 받들어 승낙하였다. 무신(12일)에 천황이 대극전(大極殿)²²⁴으로 나아갔다. 고인대형이 그 곁에서 모셨다. 중신겸자런은 소아입록신이 의심이 많아서 낮이나 밤이나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에게 시켜 방편(方便)²²⁵으로 칼을 풀어 놓도록 하였다. 입록신은 웃으면서 칼을 풀어 놓고 좌석에 들었다. 이윽고 창산전마려신이 앞으로 나아가 삼한의 상표문을 읽었다. 이때에 중대형은 위문부(衛門府)²²⁶에게 명하여 일제히 12개의 통용문을 모두 폐쇄하여 왕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문부 사람들을 한 곳에 소집하여 녹물(祿物)을 내리는 것처럼 하였다. 그때에 중대형은 스스로 긴 창을 들고 대극전 옆에 숨어 있었으며, 중신겸자런 등은 궁시(弓矢)를 가지고 그를 호위하였다. 그리고 해견양련승마려(海犬養連勝麻呂; 아마노이누카히노무라지카쓰마로)²²⁷에게 상자 속의 두 개의 칼을 좌백련자마려와 갈성치견양련망전에게 주며 “방심하지 말고 불시에 들어가 베어라.”라고 명하였다. 자마려 등은 밥을 물에 말아 삼키려 하였으나 두려움 때문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 토해 버렸다. 이에 중신겸자런은 질책하며 격려하였다. 창산전마려신은 상표문을 읽는 것이 끝나가는 데도 자마려 등이 나오지 않자 두려워하여 흐르는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목소리가 떨리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작신(鞍作臣)이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산전마려는 “천황 가까이에 있으니 황공하여 저절로 땀이 흐른다.”고 대답하였다. 중대형은 자마려 등이 입록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주저하며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라고 외치

으나, 이 기록은 『日本書紀』 편자의 수식으로 보고 있다.

224 朝堂院의 正殿으로 천황이 정무를 총람하고 각종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라 한다.

225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이 있다.

226 율령제 五衛府의 하나로 諸門의 禁衛, 출입의 예의 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227 여기에만 보인다.

면서 자마려 등과 함께 갑자기 뛰어나와 검으로 입록의 머리와 어깨를 베었다. 입록은 놀라서 일어났다. 이에 자마려도 칼을 휘둘러 한쪽 다리를 베었다. 입록이 구르듯이 천황의 어좌로 가서 머리를 부딪치며 “마땅히 황위에 있어야만 하는 분은 하늘의 자식입니다. 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명확히 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심히 놀라 중대형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중대형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안작은 천종(天宗)을 멸망시키고 일위(日位)²²⁸를 쇠하게 하려 합니다. 어찌 천손으로서 안작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소아신입록의 다른 이름은 안작이다.]²²⁹. 천황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백련자마려와 치견양련망전은 입록신을 참살하였다. 이 날에 비가 내려 뜰에 물이 가득 고였다. 거적과 문썩²³⁰으로 안작의 시체를 덮었다. 고인대형은 이 상황을 보고 사궁(私宮)²³¹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한인(韓人)²³²이 안작신을 죽였다[한정(韓政)²³³으로 인하여 주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마음은 비통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즉시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중대형은 곧바로 법흥사에 들어가 요새로 삼고 대비하였다. 무릇 제황자(諸皇子), 제왕, 제경대부(諸卿大夫), 신, 연, 반조, 국조²³⁴가 모두 따라가 모셨다. 한편 사람을 보내어 안작신의 시체를 대신 하이에게 주었다. 이때 한직 등이 권속을 모두 모아,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대신을

228 皇位를 말한다.

229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 정월조에도 같은 주가 나온다.

230 원문은 障子이다.

231 古人大兄의 私邸를 말한다.

232 일반적으로 韓人은 한반도계 사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233 三韓의 정치, 한반도제국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234 『日本書紀』 추고천황 28년(620) 시세조에 보인다.

도와서 진을 치려고 하였다. 중대형은 장군인 거세덕타신(巨勢德陀臣; 코세노토 코다노오미)²³⁵을 파견하여 천지개벽 이래 처음부터 군신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적당(賊黨)에게 설명하고 자신들이 거사한 이유를 알렸다. 이에 고향신국암은 한직 등에게 “우리들은 군대랑(君大郎; 키미타이로우)²³⁶ 때문에 살해될 것이다. 대신²³⁷ 또한 오늘 내일 사이에 곧 주살될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쓸데없이 싸우고 모든 사람이 처형당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 칼을 풀고 활을 내던져버리고 가버렸다. 적도들도 또한 따라서 흩어져 도주하였다. 기유(13일)에 소아신하이 등은 주살당하기 전에²³⁸ 천황기(天皇記)²³⁹·국기(國記) 및 진보(珍寶)를 남김없이 불태웠다. 선사혜척(船史惠尺; 후네노후비토에사카)²⁴⁰이 재빨리 불타던 국기를 집어내어 중대형에게 바쳤다. 이 날에 소아신하이 및 안작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곡하며 우는 것도 허락하였다. 이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가요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그 노래에 이른바

멀리서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섬의 덩불 벌판에서.

라고 하는 것은 곧 궁전을 도대신(嶋大臣; 시마노오오미)²⁴¹의 집과 인접하게 지

235 『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642) 12월 갑오조에 보인다.

236 入鹿을 말한다.

237 蘇我蝦夷이다.

238 『藤氏家傳』 大織冠傳에서는 豐浦大臣蝦夷가 자택에서 자살하였다고 적고 있다.

239 『日本書紀』 推古천황 28년 이 해조에 보이는 「錄天皇記及國記·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 并公民等本記,」 기사 가운데 天皇記와 國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40 『續日本紀』 文武天皇 4년(700) 3월조에 보이는 道照和尚傳에서는 ‘和尚은 河內國 丹比郡 사람이다. 俗姓은 船連이고, 아버지는 惠澤 小錦下이다.’라고 적고 있다.

241 蘇我馬子를 말한다.

은 중대형과 중신겸자련이 비밀리에 대의를 도모하여 입록을 모살하려는 전조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요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그 노래에 이른바

먼 곳의 천야(淺野; 아사노)의 꿩은 울지도 않는데, 우리가 왔다고 사람들을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상궁왕²⁴² 등이 성질이 온순하여 죄도 없는데 입록에게 살해되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으나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살시키는 전조이다²⁴³.”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요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그 노래에 이른바

숲속에 나를 유인하여 간음한 사람의 얼굴도 모른다. 집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입록신이 궁중에서 돌연 좌백련자마려와 치견양련망전에게 주살될 전조이다.”라고 말하였다. 경술(14일)에 천황은 황위를 경황자에게 양위하고 중대형을 황태자로 세웠다.

일본서기 권 제24

242 聖德太子의 아들을 말한다.

243 하늘이 中大兄으로 하여금 入鹿을 죽이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日本書紀 卷第廿四

天豐財重日足姬天皇 皇極天皇

天豐財重日[重日此云伊柯之比。]足姬天皇。淳中倉太珠敷天皇曾孫，押坂彥人大兄皇子孫，茅淳王女也。母曰吉備姬王。天皇順考古道，而爲政也。息長足日廣額天皇二年，立爲皇后。十三年十月，息長足日額天皇崩。

元年 春正月丁巳朔辛未，皇后卽天皇位。以蘇我臣蝦夷爲大臣如故。大臣兒入鹿[更名鞍作。]自執國政，威勝於父。由是盜賊恐懼，路不拾遺。乙酉，百濟使人大仁阿曇連比羅夫，從筑紫國乘驛馬來言，百濟國聞天皇崩，奉遣弔使。臣隨弔使，共到筑紫。而臣望仕於葬，故先獨來也。然其國者今大亂矣。二月丁亥朔戊子，遣阿曇山背連比良夫·草壁吉士磐金·倭漢書直縣，遣百濟弔使所，問彼消息。弔使報言，百濟國主謂臣言，塞上恒作惡之。請付還使，天朝不許。百濟弔使人等言，去年十一月，大佐平智積卒。又百濟使人擲崑崙使於海裏。今年正月，國主母薨。又弟王子兒翹岐及其母妹女子四人，內佐平岐味，有高名之人卅餘，被放於嶋。壬辰，高麗使人泊難波津。丁未，遣諸大夫於難波郡，檢高麗國所貢金銀等并其獻物。使人貢獻既訖，而諮云，去年六月，弟王子薨。秋九月，大臣伊梨柯須彌殺大王，并殺伊梨渠斯等百八十餘人，仍以弟王子兒爲王。以己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戊申，饗高麗·百濟於難波郡。詔大臣曰，以津守連大海可

使於高麗。以國膽吉士水鷄可使於百濟[水鷄, 此云俱毗¹那.], 以草壁吉士眞跡可使於新羅。以坂本吉士長兄可使於任那。庚戌, 召翹岐安置於阿曇山背連家。辛亥, 饗高麗·百濟客。癸丑, 高麗使人·百濟使人並罷歸。三月丙辰朔戊午, 無雲而雨。辛酉, 新羅遣賀騰極使與弔喪使。庚午, 新羅使人罷歸。是月, 霖雨。夏四月丙戌朔癸巳, 大使翹岐將其從者拜朝。乙未, 蘇我大臣於畝傍家喚百濟翹岐等, 親對語話, 仍賜良馬一匹·鐵廿挺, 唯不喚塞上。是月, 霖雨。五月乙卯朔己未, 於河內國依網屯倉前召翹岐等, 令觀射獵。庚午, 百濟國調使船與吉士船, 俱泊于難波津[蓋吉士前奉使於百濟乎.], 壬申, 百濟使人進調。吉士服命。乙亥, 翹岐從者一人死去。丙子, 翹岐兒死去。是時翹岐與妻, 畏忌兒死, 果不臨喪。凡百濟·新羅風俗, 有死亡者, 雖父母·兄弟·夫婦·姊妹, 永不自看。以此而觀, 無慈之甚, 豈別禽獸。丁丑, 熟稻始見。戊寅, 翹岐將其妻子, 移於百濟大井家。乃遣人葬兒於石川。六月乙酉朔庚子, 微雨。是月, 大旱。秋七月甲寅朔壬戌, 客星入月。乙亥, 饗百濟使人大佐平智積等於朝[或本云, 百濟使人大佐平智積及兒達率, 關名·恩率軍善.], 乃命健兒, 相撲於翹岐前。智積等宴畢而退拜翹岐門。丙子, 蘇我臣人鹿豎者, 獲白雀子。是日同時, 有人, 以白雀納籠, 而逆蘇我大臣。戊寅, 群臣相謂之曰, 隨村村祝部所教, 或殺牛馬祭諸社神, 或頻移市, 或禱河伯, 既無所効。蘇我大臣報曰, 可於寺寺轉讀大乘經典, 悔過如佛所說, 敬而祈雨。庚辰, 於大寺南庭, 嚴佛·菩薩像與四天王像, 屈請衆僧, 讀大雲經等。于時蘇我大臣手執香鑪, 燒香發願。辛巳, 微雨。壬午, 不能祈雨, 故停讀經。八月甲申朔, 天皇幸南淵河上, 跪拜四方, 仰天而祈。卽雷大雨, 遂雨五日, 溥潤天下[或本云, 五日連雨, 九穀登熟.], 於是天下百姓俱稱萬歲曰, 至德天皇。己丑, 百濟使·參官等罷歸。仍賜大舶與同船三艘[同般母慮紀舟.], 是日夜半, 雷鳴於西南角, 而風雨, 參官等所乘船舶, 觸岸而破。丙申, 以小德授百濟質達率長福。中客以下授位一

1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級，賜物各有差。戊戌，以船賜百濟參官等發遣。己亥，高麗使人罷歸。己酉，百濟·新羅使人罷歸。九月癸丑朔乙卯，天皇詔大臣曰，脫思欲起造大寺，宜發近江與越之丁[百濟大寺.]。復課諸國，使造船舶。辛未，天皇詔大臣曰，起是月限十二月以來，欲營宮室，可於國國取殿屋材。然東限遠江，西限安藝，發造宮丁。癸酉，越邊蝦夷，數千內附。冬十月癸未朔庚寅，地震而雨。辛卯，地震。是夜地震而風。甲午，饗蝦夷於朝。丁酉，蘇我大臣設蝦夷於家，而躬慰問。是日新羅弔使船與賀騰極使船，泊于壹岐嶋。丙午夜中，地震。是月，行夏令。無雲而雨。十一月壬子朔癸丑，大雨雷。丙辰，夜半雷一鳴於西北角。己未，雷五鳴於西北角。庚申，天暖如春氣。辛酉，雨下。壬戌，天暖如春氣。甲子，雷一鳴於北方而風發。丁卯，天皇御新嘗。是日，皇太子·大臣各自新嘗。十二月壬午朔，天暖如春氣。甲申，雷五鳴於晝。二鳴於夜。甲午，初發息長足曰廣額天皇喪。是日，小德巨勢臣德太，代大派皇子而誄。次小德栗田臣細目，代輕皇子而誄。次小德大伴連馬飼，代大臣而誄。乙未，息長山田公奉誄日嗣。辛丑，雷三鳴於東北角。庚寅，雷二鳴於東，而風雨。壬寅，葬息長足日廣額天皇于滑谷崗。是日，天皇遷移於小墾田宮[或本云。遷於東宮南庭之權宮.]。甲辰，雷一鳴於夜。其聲若裂。辛亥，天暖如春氣。

是歲，蘇我大臣蝦夷，立己祖廟於葛城高宮，而爲八佾之儔，遂作歌曰，野麻騰能 飢斯能毘稜栖鳴 倭柁羅務騰 阿庸比陀²豆矩梨 舉始豆矩羅符母 又盡發舉國之民，并百八十部曲，預造雙³墓於今來。一曰大陵爲大臣墓，一曰小陵爲入鹿臣墓。望死之後，勿使勞人。更悉聚上宮乳部之民[乳部，此云美父.]，役使塋埵所。於是上宮大娘姬王發憤而歎曰，蘇我臣專擅國政，多行無禮。天無二日，國無二王。何由任意悉役封民。自茲結恨，遂取俱亡。是年也，太歲壬寅。

2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쌍’이라고 적고 있다.

二年 春正月壬子朔旦, 五色大雲, 滿覆於天而闕於寅, 一色青霧周起於地, 辛酉, 大風, 二月辛巳朔庚子, 桃華始見, 乙巳, 雹傷草木華葉, 是月, 風雷雨水, 行冬令, 國內巫覡等折取枝葉縣挂木綿, 伺候大臣渡橋之時, 爭陳神語入微之說, 其巫甚多, 不可悉聽, 三月辛亥朔癸亥, 災難波百濟客館堂與民家室, 乙亥, 霜傷草木華葉, 是月, 風雷雨水, 行冬令, 夏四月庚辰朔丙戌, 大風而雨, 丁亥, 風起天寒, 己亥, 西風而雹天寒, 人著絺袍三領, 庚子, 筑紫大宰馳驛奏曰, 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 共調使來, 丁未, 自權宮移幸飛鳥板蓋新宮, 甲辰, 近江國言, 雹下, 其大徑一寸, 五月庚戌朔乙丑, 月有蝕之, 六月己卯朔辛卯, 筑紫大宰馳驛奏曰, 高麗遣使來朝, 群卿聞而, 相⁴謂之曰, 高麗自己亥年不朝而今年朝也, 辛丑, 百濟進調船, 泊于難波津, 秋七月己酉朔辛亥, 遣數大夫於難波郡, 檢百濟國調與獻物, 於是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所還之色, 送群卿物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 大使達率自斯·副使恩率軍善, 俱答諍曰, 卽今可備, 自斯質達率武子之子也, 是月, 茨田池水大臭, 小虫覆水, 其虫口黑而身白, 八月戊申朔壬戌, 茨田池水變如藍汁, 死虫覆水, 溝瀆之流亦復凝結厚三四寸, 大小魚如夏爛死, 由是不中喫焉, 九月丁丑朔壬午, 葬息長足日廣額天皇于押坂陵[或本云, 呼廣額天皇爲高市天皇也。], 丁亥, 吉備嶋皇祖母命薨, 癸巳, 詔土師娑婆連猪手, 視皇祖母命喪, 天皇自皇祖母命臥病及至發喪, 不避床側視養無倦, 乙未, 葬皇祖母命于檀弓崗, 是日, 大雨而雹, 丙午, 罷造皇祖母命墓役, 仍賜臣·連, 伴造帛布各有差, 是月, 茨田池水漸變成白色, 亦無臭氣, 冬十月丁未朔己酉, 饗賜群臣·伴造於朝堂庭, 而議授位之事, 遂詔國司, 如前所勅, 更無改換, 宜之厥任, 愼爾所治, 壬子, 蘇我大臣蝦夷, 緣病不朝, 私授紫冠於子入鹿, 擬大臣位, 復呼其弟, 曰物部大臣, 大臣之祖母物部弓削大連之妹, 故因母財取威於世, 戊午, 蘇我臣入鹿獨謀將廢上宮王等, 而

4 소학관본에는 ‘相’이 없다.

立古人大兄爲天皇。于時有童謠曰，伊波能杯爾 古佐屢渠梅野俱 渠梅多爾母 多礙底騰衰囉栖 歌麻之之能烏賦[蘇我臣入鹿深忌上宮王等威名振於天下，獨謨僭立.]，是月，茨田池水還清。十一月丙子朔，蘇我臣入鹿遣小德巨勢德太臣·大仁土師娑婆連，掩山背大兄王等於斑鳩[或本云，以巨勢德太臣·倭馬飼首爲將軍.]，於是奴三成與數十舍人，出而拒戰。土師娑婆連中箭而死，軍衆恐退。軍中之人相謂之曰，一人當千謂三成歟。山背大兄仍取馬骨投置內寢，遂率其妃并子弟等，得間逃出，隱膽駒山。三輪文屋君·舍人田目連及其女，菟田諸石·伊勢阿部堅經，從焉。巨勢德太臣等燒斑鳩宮，灰中見骨，誤謂王死，解圍退去。由是山背大兄王等四五日間淹留於山，不得喫飲。三輪文屋君進而勸曰，請移向於深草屯倉。從茲乘馬詣東國，以乳部爲本興師，還戰。其勝必矣。山背大兄王等對曰，如卿所善其勝必然，但吾情冀，十年不役百姓。以一身之故，豈煩勞萬民。又於後世，不欲民言由吾之故喪已父母。豈其戰勝之後，方言丈夫哉。夫損身固國，不亦丈夫者歟。有人遙見上宮王等於山中，還導蘇我臣入鹿，入鹿聞而大懼，速發軍旅，述王所在於高向臣國押曰，速可向山求捉彼王。國押報曰，僕守天皇宮，不敢出外。入鹿卽將自往。于時古人大兄皇子喘息而來問，向何處。入鹿具說所由。古人皇子曰，鼠伏穴而生，失穴而死。入鹿由是止行，遣軍將等，求於膽駒，竟不能覓。於是山背大兄王等自山還入斑鳩寺。軍將等卽以兵圍寺。於是山背大兄王使三輪文屋君謂軍將等曰，吾起兵伐入鹿者，其勝定之。然由一身之故，不欲傷殘百姓。是以吾之一身賜於入鹿，終與子弟·妃妾一時自經俱死也。于時五色幡蓋，種種伎樂，照灼於空，臨垂於寺。衆人仰觀稱嘆，遂指示於入鹿。其幡蓋等變爲黑雲。由是入鹿不能得見。蘇我大臣蝦夷聞山背大兄王等總被亡於入鹿，而嗔罵曰，噫，入鹿極甚愚癡⁵。專行暴惡。爾之身命，不亦殆乎。時人說前謠之應曰，以伊波能杯爾，而喻上宮。以古佐屢，而喻林臣[林臣入鹿也.]，以渠梅野俱，而喻

5 소학관본에서는 ‘痴’라고 적고 있다.

燒上宮，以渠梅施爾母 陀礙底騰褒⁶羅栖 柯麻之之能鳴膩，而喻山背王之頭髮斑雜毛似山羊，又曰棄捨其宮匿深山相也。

是歲，百濟太子餘豐以密蜂房四枚，放養於三輪山，而終不蕃息。

三年 春正月乙亥朔，以中臣鎌子連拜神祇伯，再三固辭不就，稱疾退居三嶋。于時輕皇子患脚不朝，中臣鎌子連曾善於輕皇子，故詣彼宮而將侍宿，輕皇子深識中臣鎌子連之意氣高逸，容止難犯，乃使寵妃阿倍氏，淨掃別殿高鋪新蓐，靡不具給，敬重特異，中臣鎌子連便感所遇而語舍人曰，殊奉恩澤，過前所望，誰能不使王天下乎[謂宛舍人爲驅使也]，舍人便以所語陳於皇子，皇子大悅，中臣鎌子連爲人忠正，有匡濟心，乃憤蘇我臣入鹿失君臣長幼之序，挾闕愈闕社稷之權，歷試接於王宗之中，而求可立功名哲主，便附心於中大兄，疏末獲展其幽抱，偶預中大兄於法興寺槻樹之下打毬之侶，而候皮鞋隨毬脫落，取置掌中，前跪恭奉，中大兄對跪敬執，自茲相善俱述所懷，既無所匿，後⁷恐他嫌頻接，而俱手把黃卷，自學周孔之教於南淵先生所，遂於路上，往還之間，並肩潛圖，無不相協，於是中臣鎌子連議曰，謀大事者，不如有輔，請納蘇我倉山田石川麻呂長女爲妃，而成婚姻之昵，然後陳說，欲與計事，成功之路，莫近於茲，中大兄聞而大悅，曲從所議，中臣鎌子連即自往媒要訖，而長女所期之夜被倫於族[族，謂身狹臣也]，由是倉山田石川麻呂憂惶仰臥不知所爲，少女怪父憂惶，就而問曰，憂悔何也，父陳其由，少女曰，願勿爲憂，以我奉進，亦復不晚，父便大悅遂進其女，奉以赤心，更無所忌，中臣鎌子連舉佐伯連子麻呂・葛城稚犬養連網田於中大兄曰，云云，三月，休留[休留茅鴟也]，產子於豐浦大臣大津宅倉，倭國言，頃者菟田郡人押坂直[闕名]，將一童子欣遊雪上，登菟田山，便見紫菌挺雪而生，高六寸餘，滿

6 소학관본에서는 ‘褒’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復’이라고 적고 있다.

四町許，乃使童子採取，還示隣家。總言，不知，且疑毒物。於是押坂直與童子煮而食之，大有氣味。明日，往見都不在焉。押坂直與童子由喫菌羹，無病而壽，或人云，盖俗不知芝草，而妄言菌乎。夏六月癸卯朔，大伴馬飼連獻百合華，其莖長八尺，其本異而末連。乙巳，志紀上郡言，有人於三輪山見猿晝睡，竊執其臂，不害其身。猿猶合眼歌曰，武舸都烏爾 陀底屢制羅我 爾古泥舉曾 倭我底鳴勝羅每 施我佐基泥 佐基泥曾母野 倭我底勝羅須謀野 其人驚怪猿歌，放捨而去。此是經歷數年，上宮王等爲蘇我鞍作，圍於膽駒山之兆也。戊申，於劍池蓮中，有一莖二萼者，豐浦大臣妄推曰，是蘇我臣將榮⁸之瑞也，卽以金墨書，而獻大法興寺丈六佛。是月，國內巫覡等折取枝葉，懸掛木綿。伺大臣度橋之時爭陳神語入微之說。其巫甚多，不可具聽。老人等曰，移風之兆也。于時有謠歌三首。其一曰，波魯波魯爾 渠騰曾枳舉喻屢 之麻能野父播羅 其二曰，烏智可挖能 阿婆努能枳枳始 騰余謀作儒 倭例播爾始柯騰 比騰曾騰余謀須 其三曰，烏麼野始爾 倭例烏比岐例底 制始比騰能 於謀提母始羅孺 伊弊母始羅孺母 秋七月，東國不盡河邊人大生部多，勸祭虫於村里之人曰，此者常世神也。祭此神者，到富與壽。巫覡等遂詐託於神語曰，祭常世神者，貧人到富，老人還少。由是加勸捨民家財寶，陳酒陳菜・六畜於路側，而使呼曰，新富入來，都鄙之人取常世虫置於清座，歌舞求福棄捨珍財，都無所益，損費極甚。於是葛野秦造河勝，惡民所惑，打大生部多。其巫覡等恐休其勸祭，時人便作歌曰，禹都麻佐波 柯微騰母柯微騰 枳舉曳俱屢 騰舉預能柯微乎 宇智岐多麻須母 此虫者常生於橘樹或生於曼椒[曼椒，此云袞曾紀]，其長四寸餘，其大如頭指許，其色綠而有黑點，其貌全似養蠶。冬十一月，蘇我大臣蝦夷・兒入鹿臣，雙起家於甘檮岡，稱大皇家曰宮門，入鹿家曰谷宮門[谷，此云波佐麻]，稱男女曰王子。家外作城柵，門傍作兵庫。每門置盛水舟一，木鉤數十，以備火災，恒使力人持兵守家。大臣使長直於大丹穗山造

8 소학관본에서는 ‘來’라고 적고 있다.

粹削寺，更起家於畝傍山東，穿池爲城，起庫儲箭，恒將五十兵士，繞身出入，名健人曰東方儼從者，氏氏人等入侍其門，名曰祖子孺者，漢直等全侍二門。

四年 春正月，或於阜嶺，或於河邊，或於宮寺之間，遙見有物而聽猿吟，或一十許，或廿許，就而視之，物便不見，尙聞鳴嘯之響，不能獲覩其身[舊本云，是歲移京於難波，而板蓋宮爲墟之兆也。]，時人曰，此是伊勢大神之使也。夏四月戊戌朔，高麗學問僧等言，同學鞍作得志，以虎爲友，學取其術，或使枯山變爲青山，或使黃地變爲白水，種種奇術不可殫究，又虎授其針曰，慎矣慎矣，勿令人知，以此治之，病無不愈，果如所言，治無不差，得志恒以其針隱置柱中，於後虎折其柱，取針走去，高麗國知得志欲歸之意，與毒殺之，六月丁酉朔甲辰，中大兄密謂倉山田麻呂臣曰，三韓進調之日，必將使卿讀唱其表，遂陳欲斬入鹿之謀，麻呂臣奉許焉，戊申，天皇御大極殿，古人大兄侍焉，中臣鎌子連知蘇我入鹿臣爲人多疑，晝夜持劍，而教俳優，方便令解，入鹿臣咲而解劍，入侍于座，倉山田麻呂臣進而讀唱三韓表文，於是中大兄戒衛門府，一時俱鑰十二通門，勿使往來，召聚衛門府於一所，將給祿，時中大兄卽自執長槍，隱於殿側，中臣鎌子連等持弓矢而爲助衛，使海犬養連勝麻呂授箱中兩劍於佐伯連子麻呂與葛城稚犬養連網田曰，努力努力，急須應斬，子麻呂等以水送飯，恐而反吐，中臣鎌子連噴而使勵，山田麻呂臣恐唱表文將盡，而子麻呂等不來，流汗沃身，亂聲動手，鞍作臣怪而問曰，何故掉戰，山田麻呂對曰，恐近天皇，不覺流汗，中大兄見子麻呂等畏入鹿威，使旋不進曰，咄嗟，卽共子麻呂等，出其不意，以劍傷割入鹿頭肩，入鹿驚起，子麻呂連手揮劍，傷其一脚，入鹿轉就御座，叩頭曰，當居嗣位，天之子也，臣不知罪，乞垂審察，天皇大驚詔中大兄曰，不知所作，有何事耶，中大兄伏地奏曰，鞍作盡滅天宗，將傾日位，豈以天孫代鞍作乎[蘇我臣入鹿更名鞍作。]，天皇卽起入於殿中，佐伯連子麻呂·稚犬養連網田，斬入鹿臣，是日雨下潦水溢庭，以席·障子覆鞍作屍，古人大兄見走入私宮，謂於人曰，韓人殺鞍

作臣[謂因韓政而誅]，吾心痛矣。卽入臥內，杜門不出。中大兄卽入法興寺，爲城而備。凡諸皇子·諸王·諸卿大夫·臣·連·伴造·國造，悉皆隨侍。使人賜鞍作臣屍於大臣蝦夷。於是漢直等聚眷屬，擐甲持兵，將助大臣處⁹設軍陣。中大兄使將軍巨勢德陀臣，以天地開闢君臣始有說於賊黨令知所赴¹⁰。於是高向臣國押謂漢直等曰，吾等由君大郎應當被戮，大臣亦於今日明日立俟其誅決矣。然則爲誰空戰盡被刑乎。言畢解劍投弓，捨此而去。賊徒亦隨散走。己酉，蘇我臣蝦夷等臨誅悉燒天皇記·國記·珍寶。船史惠尺卽疾取所燒國記而奉獻¹¹中大兄。是日，蘇我臣蝦夷及鞍作屍許葬於墓，復許哭泣。於是或人說第一謠歌曰，其歌所謂，波魯波魯儂爾 渠騰曾枳學喻屢 之麻能野父播羅 此卽宮殿接起於嶋大臣家，而中大兄與中臣鎌子連密圖大義，謀戮入鹿之兆也。說第二謠歌曰，其歌所謂，烏智可挖能 阿婆努能枳枳始 騰余謀佐儒 倭例播爾始柯騰 比騰會騰余謀須 此卽上宮王等性順，都無有罪，而爲入鹿見害，雖不自報，天使人誅之兆也。說第三謠歌曰，其歌所謂，烏麼野始爾 倭例烏比岐以例底 制始比騰能 於謀提母始羅孺 伊弊母始羅孺母也，此卽入鹿臣忽於宮中爲佐伯連子麻呂·稚犬養連網田所斬之兆也。庚戌，讓位於輕皇子，立中大兄爲皇太子。

日本書紀卷第廿四

9 소학관본에는 ‘處’가 없다.

10 소학관본에서는 ‘起’라고 적고 있다.

11 소학관본에는 ‘獻’이 없다.

일본서기 권 제25

日本書紀 卷第廿五

제36대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효덕천황(孝德天皇)



일본서기 권 제25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아메요로즈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 **효덕천황**(孝德天皇; 코우토쿠텐노)

천만풍일천황¹은 천풍재증일족희천황(天豐在載日足姬天皇; 아메토요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노스메라미코토)²의 남동생³이다. 불법(佛法)을 존중하고, 신도(神道)를 가볍게 여겼다⁴[생국혼사(生國魂社; 이쿠쿠니타마노야시로)⁵의 나무를 자른 것⁶이 그 예

1 孝德天皇(596~654, 재위: 645~654)은 일본의 제38대 천황이다. 휘는 輕이다. 일본식 시호는 天萬豐日天皇이다. 재위 중에 難波에 궁전이 있었으므로 후세에 그의 치세를 難波朝라고 부르기도 한다. 皇極天皇과 동복남매로 幼名는 輕皇子이다. 아버지는 敏達天皇의 손자이다. 황극천황 4년(645) 6월에 '大化改新'이 일어나자 황극천황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고, 황극의 장자인 中大兄皇子(天智天皇)를 황태자로 삼았으며, 연호를 大化라 하였다. 같은 해 말에 難波長柄豐碯宮으로 궁을 옮겼다. 間人皇女를 황후로 삼기 이전에 阿倍小足媛과의 사이에 有間皇子를 두고 있었다. 효덕천황대에는 중대형황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개신정치를 추진해 나갔다. 중대형황자는 백지 4년(653)에 이르자 천황의 뜻에 반대하며, 皇極上皇과 간인황후 이하 공경백관을 이끌고 大和의 飛鳥로 거처를 옮겼다. 난파에 남은 천황은 다음해인 白雉 5년 10월 10일에 궁에서 병사하였다. 같은 해 12월 河内の 大阪磯長陵에 장사지냈다.

2 皇極天皇을 가리킨다.

3 원문은 同母弟이다. 아버지는 민달천황의 손인 茅渟王이고, 어머니는 흙명천황의 손인 吉備姫王이다. 누이가 황극천황이고 아우가 경황자이다.

4 『日本書紀』 敏達即位前紀「天皇不信佛法而愛文史,」와 用明即位前紀「天皇不信佛法尊神

이다.], 사람됨이 부드럽고 인자하며, 유학자를 존중하였다. 또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주 은칙(恩勅)을 내렸다. 천풍재중일족희천황 4년 6월 경술⁷에 천풍재중일족희천황이 황위를 중대형(中大兄; 나카노오호에)⁸에게 전하라고 조를 내렸다. 운운(云云).⁹ 중대형은 물러나 중신겸자련(中臣鎌子連; 나카토미노카마코노무라지)¹⁰에게 말하였다. 이에 중신겸자련이 “고인대형(古人大兄; 후루히토노오호에)¹¹은 전하¹²의 형님이십니다. 경황자(輕皇子; 카루노미코)¹³는 전하의 숙부¹⁴이십니다. 바야흐로 고인대형이 있는 지금 전하가 황위에 오르신다면, 아우로서 형에게 공손해야 하는 마음가짐에 어긋납니다¹⁵. 당분간은 숙부를 세워 백

道.] 등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보인다.

- 5 『日本三代實錄』貞觀 원년 정월 27일 갑신조에는 「難波生國魂神.」이라 적혀 있다.
- 6 난파궁 조영과 관련된 별목일 듯하다.
- 7 『日本書紀』황국천황 4년 6월조에 나오는 卽位, 諸臣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은 『藤氏家傳』大織冠傳(鎌足傳)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8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뒤에 천지천황이 된다.
- 9 생략된 내용은 『日本書紀通釋』에서는 ‘천황의 宣命이기에 생략한 것’이라 적고 있다. 宣命體는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문을 사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 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작은 한자(萬葉가나)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한문식으로 기술한 『日本書紀』에서는 선명체를 넣지 않고 있다.
- 10 『日本書紀』황국천황 3년 정월조 참조.
- 11 古人大兄皇子를 가리킨다. 古人太子, 吉野太子라고도 한다. 『日本書紀』서명천황 2년 정월조 古人皇子 참조.
- 12 『養老令』儀制令 皇后條에는 「於三后皇太子上啓, 稱殿下, 自稱皆臣妾[對揚稱名.].」이라 적고 있다. 三后와 皇太子에게 아뢰는 때 殿下라고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전하’는 ‘중대형황자’이다.
- 13 효덕천황을 가리킨다.
- 14 원문은 舅이다. 『令集解』喪葬令 服紀條에서는 「古記云, 舅, 從母, 釋親云, 母之昆弟爲舅, 母之姉, 妹爲從母, 案外祖父之子, 母之兄弟姉妹也, 俗云, 母方乎遲, 乎婆也.」라고 적고 있다.
- 15 『藤氏家傳』大織冠傳(鎌足傳)에서는 「方今越古人大兄而殿下陟天皇位, 便違人弟恭遜之

성들의 바람에 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중대형이 그 의견을 매우 훌륭하다 여기어 조용히 천황에게 아뢰었다. 천풍재중일즉희천황은 새수(璽綬)¹⁶를 내리고 황위를 (경황자에게) 물려주며 칙을 내렸다. “아아! 경황자여, 운운(云云)”. 경황자는 거듭 사양하고 오히려 고인대형[다른 이름은 고인대시황자(古人大市皇子; 후루히토노오호치노미코)¹⁷이다.]에게 양보하며 “대형명(大兄命; 오호에노미코토)은 이전 천황¹⁸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이드 많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마땅히 황위에 올라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고인대형은 자리를 피하며 뒤로 물러나 두 손을 마주잡고 사양하며 “천황의 성지를 받들어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리하게 신에게 양보하십니까. 신은 출가하여¹⁹ 길야(吉野; 요시노)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지런히 불도를 닦아 천황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고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땅에 던졌다. 그리고 사인²⁰에게도 명하여 모두 칼을 풀게한 뒤 스스로 법흥사(法興寺)²¹의 불전과 탑 사이에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다. 이에 경황자도 고사할 수가 없어 단에 올라 즉위하였다. 그때 대반장덕련(大伴長德連; 오호토모노나가토코노무라지)[자(字)는 마사(馬飼; 우마카히)이다.]²²이

心且立舅以答民望, 不亦可乎, 中大兄從之, 密以白帝.”라고 적고 있다.

16 『三國志』魏書 文帝紀에는 「奉璽綬, 禪位, 冊曰, 咨爾魏王.」이라 적혀 있다. 이 기사에서 璽綬는神器, 策은 왕명을 전하는 글을 의미한다. 이때의 양위는 여성천황 최초의 양위이지만, 황극천황 이후로는 持統, 元明, 元正 등의 여성천황의 양위가 이어지며 聖武天皇부터는 남성천황의 양위도 나타난다.

17 古人大兄皇子를 가리킨다.

18 舒明天皇을 가리킨다.

19 『日本書紀』天智天皇 10년 10월조에서는 「東宮見天皇, 請之吉野脩行佛道, 天皇許焉, 東宮即入於吉野, 大海人皇子」라고 적고 있다.

20 원문은 帳內이다. 親王과 內親王의 호위나 잡역에 종사하는 하급 관인을 가리킨다.

21 元興寺라고도 하며 현재 飛鳥寺로 불린다. 587년에 蘇我馬子가 物部守屋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발원하여 609년에 완성하였다. 『日本書紀』崇峻即位前紀 法興寺(飛鳥寺) 참조.

금으로 된 전통[軛]²³을 차고 단의 오른쪽에 섰으며, 견상견부군(犬上健部君; 이누카미노타케베노키미)²⁴은 금으로 된 전통을 차고 단 왼쪽에 섰으며 신(臣)²⁵, 연(連), 국조(國造), 반조(伴造), 백팔십부(百八十部) 등의 관인은 줄을 지어 돌면서 절하였다. 이 날²⁶에 풍재천황(豐財天皇; 도요타카라노스메라미코토)²⁷을 황조모존(皇祖母尊; 스메미오야노미코토)²⁸이라 높여 부르게 하였으며, 중대형을 황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아베내마려신(阿倍內摩呂臣; 아베노우치마로노오미)²⁹을 좌대신(左大臣)으로, 소아창산전석천마려신(蘇我倉山田石川麻呂臣; 소가노쿠라노야마다노이 시카노마로노오미)³⁰을 우대신(右大臣)으로 삼았다. 또한 대금관(大錦冠)³¹을 중신겸자련³²에게 주어 내신(內臣)³³으로 삼았다. 식봉³⁴ 약간 호를 더하였다. 운

22 大伴連馬飼와 동일 인물이다.

23 좁고 긴 통 가운데 화살을 넣고 등에 지고 사용하는 武具의 일종이다.

24 『日本書紀通釋』에서는 建部를 이름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犬上建部가 복성일 가능성도 있다. 『日本書紀』景行天皇 51년 8월조에는 稻依別王이 犬上君과 武部君의 시조라고 했고, 『古事記』景行天皇段의 倭建命系譜에서도 日本武尊의 아들 稻依別王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25 이와 같이 臣, 連 이하 國造 이상을 연이어 칭하는 것은 당시의 관용구로 이후에도 자주 등장한다. 大和朝廷의 諸氏를 신분의 순서대로 칭한 것인 듯하다. 단 百官은 이러한 連稱에 등장한 사례가 없다.

26 6월 14일을 의미한다.

27 황극천황을 가리킨다.

28 皇祖母尊은 祖母 또는 그 이상의 皇統上의 女性尊長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이다.

29 뒤에는 倉梯麻呂라고 한다. 阿倍內麻呂를 ‘阿倍ノ内ノ麻呂’라고 읽고 ‘阿倍麻呂’(추고천황 32년 10월조의 阿倍臣摩侶)와 동일인이라 보기도 한다. 『日本書紀』 선화천황 원년 2월조 阿倍大麻呂臣 참조.

30 蘇我倉山田麻呂와 같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정월조 蘇我倉山田麻呂 참조.

31 『등씨가전』 대직관전에는 「仍拜大錦冠授內臣」이라 적혀 있다. 大錦冠은 大化 3년의 ‘七色十三階’ 冠位 중 제7위에 해당되므로 追記된 것이다.

32 中臣씨는 원래 連姓 씨족으로 조정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씨족이며, 大夫로서 조정회의에도 참석하는 존재였다. 『日本書紀』와 『등씨가전』에 따르면 중신겸자련(중신겸족)은 소

운(云云). 중신겸자런은 충성을 다할 마음을 지녀 재신(宰臣)으로서 관사(官司)를 다스렸다. 그래서 모든 일의 처리가 계획대로 잘 되었다³⁵, 운운(云云). 승려 민법사(旻法師; 민호후시)³⁶와 고향사현리(高向史玄理; 타카무쿠노후비토구엔리)³⁷를 국박사(國博士)³⁸로 삼았다. 신해(15일)에 금책(金策)³⁹을 아배장제마려대신(阿倍倉梯麻呂大臣; 아헤노쿠라하시마로노오호오미)과 소아산전석천마려대신에게 주었다[어떤 책(或本)에는 연금(鍊金)⁴⁰을 주었다고 한다.], 을묘(19일)에 천황, 황조모존, 황태자가 큰 느티나무 아래로 군신을 불러 모아 맹세하게 하였다⁴¹[모든 신⁴²에

아씨 타도 계획의 입안에서 실행, 거사 이후의 정치 일정에 관한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 33 왜 왕권에서 내신은 이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 ‘宰臣으로서 관사를 다스렸다.’는 내용과 『등씨가전』 대직관전에 「軍國機要任公處分」이라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천황 아래 여러 신하 위에서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직분임을 알 수 있다. 상설관이 아니며 율령제의 官制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직이다. 內臣에 관한 내용은 『日本書紀』 흙명천황 14년 8월조 內臣 참조.
- 34 『등씨가전』 대직관전에는 「封二千戶, 軍國機要, 任公處分, 大臣訪求林藪, 搜揚仄陋, 人得其官, 野无遺材, 所以九官克序, 五品咸諧」라고 적혀 있다.
- 35 『三國志』 魏書 武帝紀에는 「伊尹懷至忠之誠, 拋宰臣之勢, 処官司之上, 故進退廢置, 計從事立」이라 적혀 있다.
- 36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에 遣隋使 小野妹子를 따라 高向玄理, 南淵請安 등과 함께 隋에 건너갔다가 서명천황 4년 8월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 『周易』을 강론하였고, 대화 5년에는 고향현리와 함께 八省百官制를 입안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 백지 4년 5월에 병사하였다.
- 37 일명 黑麻呂라 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에 遣隋使 小野妹子를 따라 南淵請安, 僧旻 등과 함께 隋에 건너갔다. 그리고 서명천황 12년 10월에 귀국하여 대화 원년에 승려 민과 함께 국박사에 임용되었다. 승려 민이 사망한 뒤인 백지 5년 2월에는 遣唐押使로 渡唐하였으나 당에서 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8 秦漢 시기의 국박사와 같이 국정상의 고문역을 담당한 직책이다.
- 39 金策은 아교에 갠 금가루로 베껴 쓴 문서이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 5월조에는 복신에게 금책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
- 40 연금은 정련된 금을 의미한다. 『書紀集解』에서는 ‘鍊은 鍊의 誤記’라고 적고 있다.

게 “하늘은 만물을 덮고, 땅은 만물을 그 위에 싣는다. 제왕의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런데 말세가 되자 인정이 야박해져 군신의 질서가 없어졌다. 하늘은 내 손을 빌어 반역한 자를 주륙하였다. 이제 모두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부터 왕은 선정을 베풀어야 하고, 신은 조정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하늘에는 재앙이, 땅에는 괴이함이 일어나고 귀신과 사람을 주벌할 것이다. 그 명확함이 일월과 같다.”고 아뢰었다.]. 천풍재증일족희천황 4년을 고쳐 대화(大化)⁴³ 원년으로 하였다.

대화 원년 가을 7월 정묘삭 무진(2일)에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⁴⁴의 딸 간인황녀(間人皇女; 하시히토노히메미코)⁴⁵를 황후로 삼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비(妃)를 세웠다. 원비(元妃)는 아배창제마려대신의 딸 소족원(小足媛; 오타라시히메)⁴⁶이다. 유간황자(有間皇子; 아리마노미코)⁴⁷를 낳았다. 차비(次妃)는 소아산전석천마려대신의 딸 유낭(乳娘; 치노이라즈메)⁴⁸이다. 병자(10일)에 고구려⁴⁹, 백제, 신라가 함께 사신을 보

41 원문은 槻樹이다. 이른바 ‘樹下の盟約’이라 칭한다. 이것은 蘇我蝦夷 부자를 제거하고 새롭게 들어선 정권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천황에 대한 충성과 상호 간의 단결을 신에게 맹세한 것이다. 『日本書紀』 황국천황 3년 정월조 槻樹 참조.

42 원문은 天神地祇이다. 天神과 國神 등 모든 신을 가리킨다. 천신은 高天原에서 태어난 신 혹은 葦原 中國에서 天降한 신이며, 地祇는 국토의 신을 의미한다.

43 『日本書紀』에서 ‘大化’가 처음 나오는 연호이지만, 『法隆寺釋迦銘』에는 591년 崇峻天皇 4년을 1년으로 하는 연호 ‘法興’이 확인된다.

44 舒明天皇을 가리킨다.

45 효덕천황의 황후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서명천황 2년 정월조 間人皇女 참조.

46 『日本書紀』 황국천황 3년 정월조에 나오는 寵妃 阿倍氏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47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11월조에 모반죄로 죽음에 이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48 여기에만 보인다.

49 원문은 高麗이다. 『日本書紀』에 나오는 ‘高麗’는 모두 『三國史記』의 ‘高句麗’이다. 이하 ‘高麗’라 표기된 국명은 ‘고구려’라 번역하였다.

내 조를 바쳤다⁵⁰. 백제의 조사(調使)는 임나의 사신을 겸하여⁵¹ 임나의 조를 바쳤다⁵². 다만 백제의 대사(大使)⁵³ 좌평(佐平) 연복(緣福)⁵⁴은 병이 나서 진(津)⁵⁵에 있는 객관에 머물며 왕경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거세덕태신(巨勢德太臣; 고세노토코다노오미)⁵⁶은 고구려의 사신에게 “명신어우일본천황(明神御宇日本天皇; 아키텔미카미토아메노시타시라스야마토노스메라미코토)⁵⁷이 ‘천황이 사신을 파견하고 고구려의 신의 아들⁵⁸이 사신을 파견한 과거는 짧지만 장래는 길 것이다. 그러므로 온화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왕래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하였다. 또 백제의 사신에게 “명신어우일본천황이 ‘우리 먼 선조 시대⁵⁹에 처음으로 백제국

50 당시에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이 동시에 조공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권 수립과 그에 따른 대외 관계에서의 정당화 및 합리화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설정한 표현이라 추정된다.

51 『日本書紀』 추고천황 30년조 任那使 참조.

52 ‘임나의 조’에 대해서는 왜 왕권의 가야지배를 전제로 해서 그 연장선에서 보는 설과 왜 왕권의 가야지배를 부정하지만 그 실태를 인정하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 편찬의 이념에 따라 가야 內官家 사상에 의한 허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

53 『日本書紀』에는 大使는 물론이고 小使, 副使도 보인다.

54 여기에만 보인다.

55 외국에서 온 사신을 숙박시키는 객관으로 難波津의 객관을 의미한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3년 12월조 難波館 참조.

56 巨勢德太臣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 12월조 巨勢臣德太 참조.

57 『日本書紀』에는 본조의 기사에 明神御宇日本天皇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오지만, 최초의 확실한 사용례로는 일반적으로 大寶律令에 나오는 明神御宇日本天皇이라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明神御宇日本天皇은 편자의 수식이라 보아야 한다.

58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전하는 대표적인 자료들은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금석문인 「廣開土王碑文」, 「牟頭婁墓誌文」 그리고 『魏書』 등 중국의 사서를 들 수 있다. 각 서사는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조 주몽은 아버지가 天帝이고 어머니는 河伯의 딸이라 전하고 있다.

59 『日本書紀』 神功皇后攝政前紀에 실린 신라 정토 설화에 기초한 서술이다. 『日本書紀』 神功皇后攝政前紀 仲哀天皇 9년 10월조 참조.

을 내관가(內官家)⁶⁰로 삼은 것은 비유하자면 세 가닥의 끈을 하나로 합하여 끈 것과 같았다⁶¹. 그러다가 중간에 임나국을 백제에게 속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삼륜율외군동인(三輪栗隈君東人; 미와노쿠루쿠마노키미)⁶²을 보내 임나국의 경계를 살피게 하였다. 그래서 백제왕은 칙명에 따라 그 경계를 모두 보여 주었다. 그런데 조(調)를 빠뜨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조를 돌려보냈다⁶³. 임나에서 나는 물건은 천황이 훤히 아는 바이다. 앞으로는 그 국명과 내는 조를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여라. 그대 좌평 등은 마음⁶⁴을 바꾸지 말고 오너라. 빨리 명확하게 보고하여라. 지금 또 다시 삼륜군동인과 마사조(馬飼造; 우마카히노미야츠코)⁶⁵[이름이 빠졌다.]를 보낸다.’고 명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귀부(鬼部)⁶⁶ 달솔 의사(意斯)⁶⁷의 처자 등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무인(12일)에 천황이 아배창제만려대신(阿倍倉梯侶偶大臣; 아헤노쿠라하시마로노오호오미), 소아석천만려대신에게 “상고의 성왕(聖王)이 행한 바를 본받아 천하를 다스리려 한다. 또한 신의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 한다.”고 말하였다. 기묘(13일)에 천황이 아배

60 ‘미야케’는 ‘御宅, 倉庫’에 대한 敬稱이다. 따라서 郡家나 正倉 혹은 사적인 장원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 칭했다. 『日本書紀』 宣化天皇 원년 5월조 官家 참조.

61 백제를 내관가로 간주하는 인식은 백제를 일본의 번국으로 본 8세기 율령국가 지배층의 인식이며, 대화기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 기록을 제외하면 대화 연간에는 양국의 교섭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교섭 기사의 단절은 백제가 적극적인 對倭 공세를 취할 만큼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풍장을 비롯한 백제 왕족들이 장기 체류하며 왕족외교를 통해 양국의 친연관계가 유지된 데 있었다.

62 三輪君東人과 동일한 인물이다. 三輪栗隈君은 복성으로 栗隈에 거주한 삼륜군씨의 일족이다.

63 『日本書紀』 皇極天皇 2년 7월 신해조 참조.

64 원문은 面이다.

65 馬飼造는 조정의 마필을 관리하는 반조의 씨이다.

66 백제의 部名이라 여겨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67 여기에만 보인다.

창제마려대신, 소아석천마려대신에게 “널리 대부(大夫)⁶⁸와 수많은 반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백성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라.”고 명하였다. 경진(14일)에 소아석천마려대신이 “먼저 신기(神祇)를 제사지낸 연후에 정사를 의논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날에 왜한직비라부(倭漢直比羅夫; 아마토노아야노아타히히라부)⁶⁹와 미장국(尾張國; 오히리노쿠니)의 기부수자마려(忌部首子麻呂; 이미베노오비토코마로)⁷⁰를 미농국(美濃國; 미노노쿠니)에 보내어 신에게 바칠 폐물을 징발하게 하였다⁷¹.

8월 병신삭 경자(5일)에 동국 등의 국사(國司)⁷²를 임명하였다. 국사들에게 “천신이 명하신 대로⁷³ 지금부터 사방의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 그대들은 임지에 가서 무릇 국가가 소유한 공민(公民)⁷⁴이나 대소의 (호족이) 소유한 사람들을 그대들에게 맡기는 바, 모두 호적을 만들고 논밭의 넓이를 조사하라. 그 원(園), 지(池)의 수륙(水陸)의 이익은 백성과 함께 하여라⁷⁵. 또한 국사들은 그 국

68 大臣, 大連 다음 지위였다고 간주된다. 『日本書紀』宣化天皇 원년 2월조 大夫 참조.

69 대화 3년 시세조에는 工人 大山位 倭漢直荒田井比羅夫로, 백지 원년 10월조에는 將作大匠 荒田井直比羅夫라고 적혀 있다. 荒田井直은 倭漢氏의 『坂上系圖』에는 「志努直之第四子刀禰直. 是畝火宿禰, 荒田井忌村等三姓之祖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70 여기에만 보인다. 忌部首는 조정의 神事を 담당하는 伴造의 씨이다. 천무천황 9년 정월에 連姓을 받고, 동 천황 13년 12월에는 宿禰姓으로 改姓하였다. 忌部首, 忌部連, 忌部宿禰는 뒤에 齋部宿禰라 칭하였다.

71 大嘗祭를 위한 神幣라고 보는 설과 美濃, 尾張이 동국 지방과 경계지역에 해당되므로 뒤에 나오는 東國國司 파견 기사에 앞서 경계 지역에서 역귀를 지역 밖으로 내보내는 道饗祭라고 보는 설도 있다.

72 대화 2년 3월 갑자에 내린 조에는 ‘東方의 八道’라 한다. 동국을 여덟 개 지역으로 나누어 국사를 파견한 것을 의미한다.

73 『續日本紀』文武天皇 원년 8월 庚辰條의 宣命에는 천신의 아들이면서 하늘에 계시는 신의 위임을 받아 운운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74 『日本書紀』에는 ‘百姓, 民, 人民, 庶民, 庶人, 萬民, 兆民, 億兆, 黎民, 黎庶, 黎元, 公民, 居人’ 등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國)⁷⁶에서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타인⁷⁷의 뇌물을 받고 백성을 빈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왕정에 올라올 때 백성을 많이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단지 국조와 군령(郡領)⁷⁸만은 데리고 와도 좋다. 다만 공사(公事)로 왕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내⁷⁹의 말을 탈 수 있고, 관내의 밥을 먹을 수 있다. 차관[介]⁸⁰ 이상이 법을 충실히 지키면 반드시 포상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작위⁸¹를 떨어뜨려야 한다. 판관(判官)⁸² 이하가 타인에게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의 2배⁸³를 징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죄를 부과한다. 장관(長官)은 시종 9명, 차관(次官)은 시종 7명, 주전(主典)은 시종 5명으로 한다⁸⁴. 만일 이 한도를 넘어 사람을 거느릴 경우는 주인과 시종 모두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만일 지위를 구하는 자가 있어, 원래 국조, 반조, 현도치(縣稻置)⁸⁵가 아닌데도 ‘내 선

75 『養老令』雜令 國內條에서는「山川藪澤之利, 公私共之,」라고 적고 있다.

76 이 기사는 국사에게 재판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養老令』獄令 郡決條에는「凡犯罪, 答罪郡決之, 杖罪以上, 郡斷定送國,」이라고 적고 있다.

77 위반자에 관한 처벌은 대화 2년 3월 19일조에 그 실례가 기재되어 있다.

78 『養老令』職員令에서는 大郡의 長官을 大領, 次官을 少領이라고 부르고, 소군의 장관은 군령이라고 적고 있다. 효덕조는 율령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표현은 이후의 수식이다.

79 관내에서의 승마나 식사에 관한 내용은 대화 2년 3월 신사조 참조.

80 율령제에서는 국사인 장관을 守, 차관을 介라 한다. 효덕조는 율령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표현은 이후의 수식이다.

81 여기에서 작위는 冠位를 의미한다.

82 율령제에서는 四等官制(長官, 次官, 判官, 主典)의 3등관에 해당된다. 효덕조는 율령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표현은 이후의 수식이다.

83 『養老令』逋亡令 糺捉盜賊條에서「凡糺捉盜賊, 所徵倍贓,」이라고 적고 있다.

84 국사는 長官(시종 9인), 次官(시종 7인), 主典(시종 5인)의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85 縣은 천황의 직할지라는 설과 國縣制라는 2단계의 지방행정구획의 하급 단위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 ‘稻置’는 둔전이나 둔창 등의 관리와 징세를 담당한 관직이라는 설과 國 아래 하급조직인 縣(아가타) 혹은 評(고호리)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관직명이라는 설이 있다. 도치는 天武天皇 13년(684) ‘八色姓制定’ 때 제8위의 姓(가마네)으로 나온다.

조 때부터 이 관가(官家)⁸⁶를 영유하고 이 군현을 다스렸다.’고 주장하며 빈번히 허위로 소송하는 바를 그대 국사들은 경솔하게 조정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상세히 실상을 살핀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또한 공터에 무기⁸⁷를 짓고 국군의 칼, 갑옷, 활, 화살을 빠짐없이 거두어 모으고, 주변국⁸⁸이 하이(蝦夷)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무기의 수를 집계한 뒤에 원래 주인에게 맡기도록 하라⁸⁹. 왜국(倭國: 야마토)의 6현(縣)⁹⁰에 파견된 사신은 호적⁹¹을 만들고 아울러 전지의 면적을 조사하라⁹²[개간된 전지의 면적⁹³과 백성의 호구와 연령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대 국사들이여, 명확히 잘 알아듣고 물러가거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비단과 삼베를 각기 차등 있게 주었다. 이 날에 종(鐘)과 궤(匱)를 조정에 설치하고 “만일 소송할 사람이 있을 때, 반조가 있으면 그 반조

86 ‘관가’는 한반도 관계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여기에서는 東國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87 『令義解』軍防令 兵士備備條에서는 「凡兵士, 人別備備六斗, 鹽二升, 并當火供行戎具等, 并貯當色庫,」라 적고 있고, 備戎具條에서는 「凡兵士, 每火, 紺布幕一口…皆令自備, 不可闕少, 行軍之日, 自盡將去,」라 적고 있다.

88 蝦夷가 사는 동북에 가깝게 위치한 國에 대한 특수한 조치이다.

89 대화 원년(645)에 각 국사에게 명하여 각종 무기를 거두어들이게 하였지만, 하이와 근접한 邊國에 대해서는 병기를 검교하고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하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 대화 3년(647)에는 하이지역에 淳足柵을 세우고 그곳에 柵戶를 두었고, 동 4년(648)에는 磐舟柵을 세우고, 越과 信濃의 민을 선발하여 책호로 삼아 하이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전과 달리 공세적인 하이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하이 지역에 책을 설치한 것은 왜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조치였고, 책호를 선발한 것은 하이 지역으로 移民 정책을 실시한 것을 의미한다.

90 『延喜式』神祇式에는 祈年祭의 祝詞를 바치는 6縣으로 高市, 葛木, 十市, 志貴, 山邊, 曾布를 들고 있다. 이 6현은 천황에게 채소 등을 바치는 직할지였다.

91 대화 원년 8월 병신삭 경자조, 동 2년 정월조에 호적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日本書紀』흠명천황 원년 8월조 戶籍 참조.

92 대화 원년 8월 병신삭 경자조 校田畝 참조.

93 원문은 頃畝이다. 『日本書紀通証』에서는 頃畝를 田數, 즉 전지의 면적이라 해석하였다.

가 먼저 심의한 뒤에 아뢰어라. 존장(尊長)⁹⁴이 있는 경우는, 존장이 먼저 잘 심의한 뒤에 아뢰어라. 만일 반조나 존장이 그 소송한 바를 상세히 심의하지 않고 첩(牒)을 궤에 넣으면 그 죄⁹⁵를 처벌하겠다. 첩을 모으는 사람은 새벽에 첩을 거두어 가지고 내리(內裏)에 와서 주상하라. 짐은 문서에 연월을 기재한 뒤 곧 군경에게 보이겠다. 게을러서 심의하지 않거나, 한쪽을 편들어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소송하는 이는 종을 처라.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정에 종을 걸고 궤를 설치한 것이다. 천하의 백성은 모두 짐의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 남녀⁹⁶의 법에 관해 말하자면, 양남(良男)⁹⁷과 양녀(良女)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속한다. 만일 양남이 노비를 취하여 낳은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속한다. 양녀가 노비에게 시집가 낳은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속한다. 만일 두 집의 노와 비 사이에 낳은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속한다. 만일 절에서 일하는 사람[仕丁]의 아이일 경우는 양인(良人)의 법대로 하지만 특별히 노비가 된 경우는 노비의 법대로 한다. 지금 여러 사람에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고자 한다⁹⁸.”고 하였다. 계묘(8일)에 사신을 대사(大寺)⁹⁹에 파견하여 승니를 불러 모아놓고¹⁰⁰ “기성도궁어우천황(磯城嶋宮御宇天皇; 시키시마노미야니아메노시타시

94 尊長(히토코노카미)은 『日本書紀』에는 神武即位前紀 8월조 訓注의 「魁帥, 此云此登誤廼伽彌」라는 기사와 繼體天皇 22년 11월조의 「大將軍物部大連龜鹿火親與賊帥磐井交戰於筑紫御井郡」이라는 기사에 ‘帥(히토코노카미)’자의 사용례가 있다.

95 심의나 주상을 게을리 한 죄다.

96 『唐令』에서는 「良人相姦, 所生男女隨父」라고 적고 있고, 『養老令』戶令 良人家人條에서는 「凡良人及家人, 被壓略充賤, 配奴婢而生男女者, 後訴得免, 所生男女, 并從良人及家人」이라고 적고 있다.

97 『養老令』戶令 良人家人條에는 「凡良人及家人, 被壓略充賤, 配奴婢而生男女者, 後訴得免, 所生男女, 皆從良人及家人」이라는 규정이 보인다.

98 『日本書紀通證』에서는 「言使人人知爲制之始也」라고 적고 있다.

99 ‘大寺’는 ‘百濟大寺’ 혹은 ‘飛鳥寺’라 간주하기도 한다.

100 『日本書紀』欽明天皇 13년에 백제 聖王이 왜국에 불법을 전한 사실을 회고하며, 孝德天

라시메시시메라미코토)¹⁰¹ 13년에 백제의 명왕¹⁰²이 불법을 우리나라¹⁰³에 전했다. 이때 신하들¹⁰⁴이 모두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도목숙네(蘇我稻目宿禰; 소가노이나메노스쿠네)가 홀로 그 법을 믿었다¹⁰⁵. 천황이 이에 도목숙네에게 그 법을 받들게 하였다. 역어전궁어우천황(譯語田宮御宇天皇; 오사타노미야니아메노시타시라시메시시메라미코토)¹⁰⁶ 시대에는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가 돌아가신 아버지¹⁰⁷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¹⁰⁸의 가르침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믿지 않았다¹⁰⁹. 그래서 그 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천황은 마자숙네에게 그 법을 받들게 하였다¹¹⁰. 소간전궁어우

황이 사신을 大寺에 보내어 僧尼들을 모아 놓고 불교를 장려할 것에 대한 詔를 내린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소위 改新政權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적인 뒷받침이라 간주된다.

- 101 欽明天皇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孝德天皇 13년 10월조에 기재된 성명왕의 불상 전래 기사가 보인다.
- 102 明王은 백제의 성왕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欽明天皇 13년 10월조 분주 聖王 참조.
- 103 원문은 大倭이다.
- 104 『日本書紀』 欽明天皇 13년 10월조에는 物部, 中臣 두 씨만 예배에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나오는 관련 기사에서는 「餘臣等…他國神不可禮拜」, 운운하며 여신들의 반대가 기재되어 있다.
- 105 蘇我馬子宿禰의 숭불에 관한 기사는 『日本書紀』 孝德天皇 13년 10월조 참조.
- 106 敏達天皇을 가리킨다.
- 107 원문은 考父이다. 蘇我稻目宿禰를 가리킨다.
- 108 원문은 能仁이다. 범어 Śakya를 중국에서 釋迦牟尼, 또는 釋迦, 能仁 등으로 표기하였다. 석가모니를 能仁이라고 부른 것은 잘 참아 五濁惡世에 출현하였다는 뜻이다.
- 109 『日本書紀』에는 物部씨와 蘇我씨가 排佛과 崇佛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며 대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 실상은 양자 간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다.
- 110 『日本書紀』 敏達天皇 14년 6월조에는 「馬子宿禰奏曰, 臣之疾病至今未愈, 不蒙三寶之力難可救治, 於是詔馬子宿禰曰, 汝可獨行佛法, 宜斷餘人, 乃以三尼還付馬子宿禰, 馬子宿禰受而歡悅, 嘆未曾有頂禮三尼, 新營精舍, 迎入供養」이라 적혀 있다.

천황(小墾田宮御宇天皇; 오히리다노미야니아메노시타시라시메시시스메라미코토)¹¹¹ 시대에는 마자숙네가 천황을 위하여 장육(丈六)¹¹²의 수상(繡像)¹¹³과 장육의 동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불교를 선양하고 승니를 공경하였다. 짐¹¹⁴은 더욱 더 바른 가르침을 숭상하고 큰 법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그래서 승려 박대법사(狛大法師; 코마노다이호후시)¹¹⁵, 복량(福亮; 후쿠라우)¹¹⁶, 혜운(惠雲; 에운)¹¹⁷, 상안(常安; 자우안)¹¹⁸, 영운(靈雲; 라우운)¹¹⁹, 혜지(惠至; 에시)¹²⁰, 사주(寺主)¹²¹ 승려 민(몯; 민)¹²², 도등(道登; 다우토우)¹²³, 혜린(惠隣; 에린)¹²⁴, 혜묘(惠妙; 에메우)¹²⁵를

111 推古天皇을 가리킨다. 『上宮聖德法王帝說』의 「少治田宮御宇天皇之世」라는 기재와 『法隆寺藥師銘』의 「小治田大宮治天下大王天皇」이라는 문구에 「少治田宮(오히리다노미야)」이 보인다. 『日本書紀』推古天皇 11년 10월조 小墾田宮 참조.

112 『日本書紀』추고천황 13년 4월조 장육불상 참조.

113 『日本書紀』추고천황 13년 4월조 수상 참조.

114 효덕천황을 가리킨다.

115 『聖德太子傳補闕記』에는 ‘癸卯年(황국천황 2년)에 大狛法師가 弓削王을 살해하였다.’고 적혀 있다.

116 顯眞의 『聖德太子傳私記』에 인용된 『法隆寺塔露盤銘』에는 ‘戊戌年(舒明天皇 10년)에 福亮僧正이 彌勒像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扶桑略記』에는 ‘吳國인이 三論을 받아 齊明天皇 4년 陶原家精舍에서 中臣鎌子を 위해 維摩詰經을 강론했다.’고 적혀 있다.

117 『日本書紀』舒明天皇 11년 9월조에서는 신라 송사를 따라 귀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118 『日本書紀』추고천황 16년 9월조의 南淵漢人請安과 동일 인물이라 보기도 한다.

119 靈雲은 『日本書紀』舒明天皇 4년 8월조에는 「大唐遣高表仁送三田耜, 共泊于對馬. 是時學問僧靈雲, 僧旻, 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라고 적고 있다.

120 白雉 3년 4월 15일조의 惠資와 동일 인물이라 보기도 한다.

121 ‘寺主’는 寺院 내의 사무를 관할하는 승려의 직무 가운데 하나이다. 上座와 維那를 합하여 三綱이라 부른다. 사주는 산스크리트어 ‘vihāra-svāmin(毘訶羅沙彌)’을 한역한 것이다. 梁의 武帝가 法雲을 光宅寺의 寺主로 임명한 것이 사주의 효시이다.

122 舒明天皇 4년 8월조 이후에는 僧旻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23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第12話에는 ‘고(구)려에서 유학하고 元興寺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宇治橋斷碑」에는 ‘山尻惠滿(야마시로노에마로)의 집에서 태어나 宇治橋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십사(十師)¹²⁶로 삼는다. 특히 혜묘법사는 백제사(百濟寺)¹²⁷의 사주로 삼는다. 이 십사들은 여러 승려들을 가르치고 이끌며, 석가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불법에 따르게 하라. 무릇 천황으로부터 반조에 이르기까지 절을 세울 때에 조영할 수 없는 경우는 짐이 도와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사사(寺司)¹²⁸와 사주(寺主)들을 임명하겠다. 여러 절을 두루 둘러보고 승니, 노비, 전답의 실상을 조사하여 모두 명백히 아뢰라.”고 명하였다. 곧 내목신(來目臣; 구메노오미)¹²⁹[이름이 빠졌다.], 삼륜색부군(三輪色夫君; 미와노시코부노키미)¹³⁰ 액전부련생(額田部連甥; 누카타베노무라지오히)¹³¹을 법두(法頭)¹³²로 삼았다.

124 여기에만 보인다.

125 연령을 고려하면 백지 5년 2월조의 학문승 惠妙와는 다른 인물이지만, 천무천황 9년 11월조에 나오는 승려 惠妙와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

126 당에서는 武德 2년(619) 十大德을 두고 僧侶와 僧尼를 통제하게 하였다. 무덕 연간은 추고천황 16년에 파견된 승려 민과 청안 등이 당에서 유학하던 때였으므로, 이들이 귀국한 뒤에 僧正, 僧都 대신에 十師制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7 百濟大寺의 조영은 서명천황이 죽은 뒤 그의 황후 皇極(『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 9월조), 황국의 남동생인 孝德(『日本書紀』 대화 원년 8월, 백지 원년 10월 是月條, 백지 2년 3월조) 그리고 서명과 황국의 왕자인 천지(『大安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와 천무천황(『日本書紀』 천무천황 2년 12월조) 때까지 계속 추진되었다.

128 俗人 관리인을 가리킨다. 절은 속인 寺司와 승려 寺主 등에 의해 운영된다. 추고천황 4년 11월조에 ‘蘇我馬子の 男子 善德臣을 법흥사의 사사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日本書紀』 推古天皇 4년 11월조 寺司 참조.

129 久米臣이라고도 한다. 천무천황 13년 11월조에 朝臣姓을 받는다. 『新撰姓氏錄』 右京皇別 久米朝臣條에는 「武内宿禰五世孫, 稻目宿禰之後也,」라 적혀 있고, 大和國 皇別 久米臣條에는 「柿本同祖, 天足彦國押人命五世孫大難波命之後也,」라 적혀 있다.

130 大化 5년 5월조에는 「遣小華下三輪君色夫, 大山上掃部連角麻呂等於新羅,」라 적혀 있다. 三輪君에 관한 내용은 『日本書紀』 敏達天皇 14년 6월조 大三輪逆君 참조.

131 여기에만 보인다.

132 본 기사에 따르면 法頭는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승니, 노비, 전답의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 직무인 듯하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32년 4월조 法頭 참조.

9월 병인삭(1일)에 사신을 제국(諸國)에 파견하여 무기를 관리하게 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신을 전국¹³³에 파견하여 각종 무기를 모으게 하였다고 한다.], 무진(3일)에 고인황자(古人皇子; 후루히토노미코)가 소아전구신천굴(蘇我田口臣川堀; 소가노타구치노오미카하호리)¹³⁴, 물부박정련추자(物部朴井連椎子; 모노노베노에노웨노무라지시히노미), 길비립신수(吉備笠臣垂; 기비노카사노오미시다루)¹³⁵, 왜한문직마려(倭漢文直麻呂; 아마토노아야노후미노아타히마로)¹³⁶, 박시진조전내진(朴市秦造田來津; 에치노하다노미야츠코타쿠츠)¹³⁷과 함께 모반하였다¹³⁸[어떤 책(或本)에는 고인태자(古人太子; 후루히토노히즈기노미코)¹³⁹라고 한다. 또 어떤 책(或本)에는 고인대형(古人太兄; 후루히토노오호에)이라고 한다. 이 황자는 길야산(吉野山)¹⁴⁰에 들어갔다. 이러한 까닭에 길야태자(吉野太子; 요시노노히즈기노미코)라고도 한다. 垂는 시다루(之娜屢)라고 읽는다.], 정축(12일)에 길비립신수가 중대형에게 자수하여 “길야의 고

133 원문은 四方國이다. 율령제에서는 천황권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후의 畿内) 이외의 지역을 대략 동서남북의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四方의 國’이라 불렀다.

134 蘇我田口臣川堀은 蝙蝠(가하호리)이라고도 한다. 『新撰姓氏錄』 左京 皇別 田口朝臣條에는 「蝙蝠臣, 豐御食炊屋姫天皇[謚推古]御世, 家於大和國高市郡田口村, 仍田號田口臣。」이라 적혀 있다.

135 『續日本紀』 天平寶字 원년 12월 임자조에는 大錦下笠臣志太留가 吉野大兄(古人皇子)의 모반을 알린 공으로 功田 20정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136 倭漢文直麻呂는 白雉 5년 2월조에 당에 파견된 判官大乙上書直麻呂와 동일 인물이다. 倭漢文(書)直은 『日本書紀』 舒明天皇 11년 7월조 書直縣 참조.

137 朴市秦造田來津은 백제구원을 위해 파견된 인물이다. 『日本書紀』 天智即位前紀 8월조 분주에는 秦造田來津, 동 천황 원년 12월조에는 朴市田來津이라 적혀 있다. 朴市秦造는 近江 朴市(에치)에 있던 秦造이다.

138 『養老令』 八虐條에는 「一曰, 謀反, 謂謀危國家。」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國家’는 皇帝, 天皇 등의 존호를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피한 표현이다.

139 고인황자를 가리킨다. 그를 ‘太子’로 표현한 사례는 이 기사의 분주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140 고인황자가 길야에 들어간 일은 『日本書紀』 孝德即位前紀에 기재된 고인대형 참조.

인항자가 소아전구신천굴 등과 모반하려 합니다. 신도 그 무리에 가담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길비립신수가 아배대신¹⁴¹과 소아대신¹⁴²에게 ‘신이 길야황자의 모반 무리에 끼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 자수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대형은 곧 토전박실고(菟田朴室古; 우다노에무로노후루)¹⁴³, 고려 궁지(高麗宮知; 코마노미야시리)¹⁴⁴에게 군사 약간을 거느리고 고인대시황자(古人大市皇子; 후루히토노오호치노미코)¹⁴⁵ 등을 치게 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11월 갑오 30일¹⁴⁶에 중대형이 아배거중배신(阿倍渠曾倍臣; 아헤노코소헤노오미)¹⁴⁷, 좌백부자마려(佐伯部子麻呂; 사헤키베노코마로)¹⁴⁸ 두 사람에게 군사 30명을 이끌고 고인대형을 공격해 고인대형과 그의 아들을 참살하게 하였다. 그의 비첩(妃妾)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또 어떤 책(或本)에는 11월 길야대형왕(吉野大兄王; 요시노노오호에노미코)이 모반하려 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살되었다고 한다.], 갑신(19일)에 사신을 제국(諸國)에 파견하여 백성 전체의 숫자¹⁴⁹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부터 천황의 시대마다

141 阿倍內麻呂이다.

142 蘇我倉山田石川麻呂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皇極天皇 3년 정월조 蘇我倉山田麻呂 참조.

143 여기에만 보인다.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下 榎室連條에서는 「其門有大榎樹. 太子曰. 是樹爲室. 大雨漏. 賜榎室連.」이라 적고 있다. 여기에는 榎室連(에무로노무라지)의 씨성 유래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菟田朴室古를 複姓이라 보기도 한다.

144 여기에만 보인다.

145 古人大兄皇子를 가리킨다.

146 甲午가 3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甲午 三十’은 중복된 표기이다. 『日本書紀通釋』에서는 ‘三十日は 傍注였을 것’이라 적고 있다.

147 『新撰姓氏錄』 左京 皇別 許曾部朝臣條에서는 「阿倍朝臣同祖. 大彥命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148 天智天皇 5년 3월조에 나오는 佐伯連子麻呂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149 원문은 元數이다. 大化 원년 8월 丙申朔 경자조의 ‘호적 만들기’ 기사와 연관된 인구조사를 가리킨다.

대민(代民)¹⁵⁰을 두고 표시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신, 연들과 반조, 국조는 각기 자기의 백성을 두고 마음대로 부렸다. 또한 국현(國縣)의 산이나 바다, 임야, 못과 전지를 나누어 자기 재산으로 삼고 서로 다투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자는 수만 경(頃)¹⁵¹의 논을 겸병하는데 어떤 자는 바늘을 꽃을 만한 땅조차도 없다¹⁵². 조부(調賦)¹⁵³를 바칠 때 신, 연, 반조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 거두어 들이고 그런 연후에 (일부를) 떼어 바친다. 궁전을 수리하고 능을 축조할 때는 각기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사안에 따라 조영한다. 주역에서는 ‘위의 이익을 덜어 아래에 더한다. 제도를 정하여 지킨다면 재산을 잃지 않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도 않는다¹⁵⁴.’고 하였다. 지금 백성은 여전히 가난한데 권세를 가진 자는 전답¹⁵⁵을 분할하여 사유지로 삼고 백성에게 빌려주어¹⁵⁶ 해마다 그 대가를 요구한다. 앞으로 토지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토지의) 소유주가 되어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겨울 12월 을미삭 계묘(9일)에 천황은 도읍을 난파장병풍기(難波長柄豐碁; 나니하노나가라노토요사키)¹⁵⁷로 옮겼다. 노인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쥐가 난파로

150 천황이나 황후의 이름이나 궁의 이름을 붙인 部民이라는 의미이다.

151 ‘頃’은 원래 중국의 토지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百畝’를 의미한다. 일본에서 町段歩制가 시행되기 이전의 토지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日本書紀』 지통천황 3년 윤8월 병신조에도 관련 사례가 보인다.

152 『書紀集解』에서는 「顧況集, 遊子吟曰, 立身計幾誤, 道險無容針.」이라고 적고 있다.

153 ‘調’는 공납하는 물품, ‘賦’는 力役을 의미한다.

154 『三國志』 魏書 齊王芳紀 正始 원년 7월조에 보이는 「易稱, 損上益下.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方今百姓不足, 而御府多作金銀雜物, 云云.」이라는 문장이 참고가 된다.

155 원문은 水陸이다.

156 賣與는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매년 지대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57 백지 2년 12월 궁궐 조영이 거의 끝나 천도할 때까지 難波의 諸宮을 궁전으로 삼았다. 難波宮은 飛鳥, 奈良 시대의 난파(현재 大阪市 中央區) 지역에 있던 고대의 궁이다. 난

향한 것은 도읍을 옮기는 징조였구나¹⁵⁸.”라고 서로 이야기하였다. 무오(24일)에 월국(越國; 고시노쿠니)에서 “해변에 떠 있던 마른 나무 그루터기¹⁵⁹가 동쪽을 향해 이동해 갔습니다. 모래 위에 자국이 있습니다. 토지를 경작한 것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 해의 간지는 을사(乙巳)¹⁶⁰이다.

2년 봄 정월 갑자삭(1일)에 신년하례¹⁶¹가 끝나자 곧 개신(改新)의 조(詔)¹⁶²

파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大阪城 外堀 남쪽 부근에서 망새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難波宮地顯彰會의 노력으로 발굴과 조사가 진행되어 궁전의 유구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다. 굴립주양식 건축물의 흔적이 중층적으로 남아 있어, 4단계로 시기를 구별하고 있다. 제1기는 백치 3년에 완성된 難波長柄豐碕宮, 제2기는 천무천황 때 개조되어 주조 원년 정월에 불탄 난파궁이고, 제3기는 그 이후 재건된 난파궁, 제4기는 神龜 3년부터 天平 6년까지 개조되어 延暦 12년에 폐지된 난파궁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158 위의 이동을 궁을 옮기는 전조 기사로 기재하고 있다.

159 원문은 枯查(우키키)이다. 『和名類聚抄』에서는 「查, 楂, 宇岐岐(우키키), 水中浮木也.」라고 적고 있다.

160 645년에 해당된다.

161 원문은 賀正禮이다. ‘賀正, 朝賀, 朝拜’라고도 쓴다. 『日本書紀』에서는 처음 나오는 ‘하정례’ 기사이다.

162 대화 원년(645) 말 飛鳥에서 難波로 왕궁을 옮기고, 난파궁에서 대화 2년 정월 元日に新政의 대강을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大化改新의 詔라 칭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화개신의 조는 제3조의 전조의 경우 50년 이후에 만들어진 ‘大寶令’ 田令의 田長條(『大寶令』의 전문은 전하지 않지만, 『養老令』을 기본으로 하여 복원)의 문장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제2조에 보이는 지방제도 가운데 郡에 대한 규정도 『대보령』의 호령과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7세기대 금석문이나 당시의 고문서에는 ‘郡’이라는 문자는 없고 ‘評’자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군의 장관을 대령, 차관을 소령이라 부른 것은 개신의 조와 『대보령』이 공통되지만, 금석문이나 당시의 기록을 전하는 문헌에는 장관을 評督 또는 督領, 評造, 차관을 助督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 기초하면 『日本書紀』 편자가 개신의 조에 나오는 규정을 이후 시기의 율령에 맞추어 고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評(코오리)은 坪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구획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이미 행정구획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것인데, 대화개신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둘째, 이제 왕경¹⁷¹을 정비하고, 기내국(畿內國)의 사(司), 군사(郡司), 관새(關塞)¹⁷², 척후(斥候)¹⁷³, 방인(防人)¹⁷⁴, 역마(驛馬)¹⁷⁵, 전마(傳馬)¹⁷⁶를 두어 영(鈴)¹⁷⁷과 계(契)¹⁷⁸를 만들고, 산하(山河)의 구획을 정하라¹⁷⁹. 무릇 왕경에는 방(坊)마다 장(長) 한 명을 두고 네 개의 방(坊)에 영(令) 한 명을 두어¹⁸⁰ 호구를 조사하고 부정한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라. 방령은

171 원문은 京師이다. 京師는 帝王의 궁궐이 있는 수도를 가리킨다.

172 關은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6월조와 동 천황 8년 11월조에 보인다. 『양로령』 軍防令 置關條에는 3關, 즉 이세의 鈴鹿關, 미노의 不破關, 에치젠의 愛發關 등은 국사가 분담하여 지키라는 규정이 보인다. 塞가 일본 지명과 연결된 것은 『日本書紀』에는 보이지 않고, 『養老令』에도 관련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藤原宮跡出土木簡』에 塞職이라는 직명이 보인다. 『和名類聚抄』에는 「塞, 防要之處, 所以隔内外也.」라고 적혀 있다.

173 척후는 기본적으로 偵察, 攻撃, 追跡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養老令』 職員令 大國條에서 「其陸奥, 出羽, 越後等國, 兼知饗給, 征討, 斥候.」라고 적고 있듯이 斥候는 陸奥, 出羽, 越後 등에만 둔다. 『令集解』 職員令 大國條에는 「斥候[左傳斥山澤之險, 杜預曰斥候也, 逐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174 변경을 방비하는 병사를 일컫는다. 일본열도의 관문인 北九州 지방에 배치되어 방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방인제가 제도화 된 것은 천지천황 2년(663)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라 간주된다.

175 간선도로에 驛을 설치하고 말을 常備하는 제도이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32년 4월조 驛馬 참조.

176 『養老令』 廐牧令 置驛馬條에서는 「其傳馬每郡各五, 皆用官馬.」라고 적고 있다.

177 ‘鈴’은 驛鈴을 말한다. 역령은 律令時代에 관리의 공무로 출장할 때 조정에서 지급한鈴이다. 개신의 조에 의거한 역마, 전마 제도의 설치에 수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간주된다. 『養老令』 公式令 諸國給鈴條에는 「凡諸國給鈴者, 大宰府廿口, 三關及陸奥國各四口, 大上國三口, 中下國二口, 其三關國, 各給關契二枚並長官執.」이라 적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실물인 隱岐國 驛鈴 2개는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78 ‘契’는 『令集解』 公式令 諸國給鈴條에서는 「古記云, 問, 三關國各給契二枚, 未知, 契狀, 答, 木契也.」라고 적고 있다. ‘木契’는 관을 통행하기 위한 부절을 의미한다.

179 산하를 경계로 하여 지방의 구획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日本書紀』 成務天皇 5년조에는 「隔山河而分國縣.」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80 平城京에서의 一坊은 약 500m 4방을 의미한다. 坊에 관한 규정은 『養老令』 戶令 置坊

방내에서 청렴하고 강직하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가려내어 충당하라. 이(里)와 방(坊)의 장(長)도 이와 방의 백성 가운데 청렴하고 올바르며 용감한 자를 가려내어 충당하라. 만일 그 이나 방에 적임자가 없으면 인근의 이나 방에서 선발하여 쓰는 것을 허락한다¹⁸¹. 무릇 기내¹⁸²는 동으로는 명간(名間; 나바리)¹⁸³의 횡하(橫河; 요코카하)¹⁸⁴까지, 남으로는 기이(紀伊; 키)의 형산(兄山; 세노야마)¹⁸⁵[兄은 세(制)라고 읽는다.]까지, 서로는 적산(赤石; 아카시)¹⁸⁶의 즐연(櫛淵; 쿠시후치)¹⁸⁷까지, 북으로는 근강(近江; 오후미) 협협파(狹狹波; 사사나미)¹⁸⁸의 합판산(合坂山; 아후사카야마)¹⁸⁹까지를 기내국(畿內國)으로 삼는다. 무릇 군(郡)은 40리를 대군(大郡), 30리 이하 4리 이상을 중군(中郡), 3리를 소군(小郡)으로 하리¹⁹⁰. 군사

長條에 보이는 「凡京每坊置長一人, 四坊置令一人, 掌檢校戶口, 督察姦非.」라는 내용과 유사하다.

181 방령, 방장, 이장에 관한 임용규정을 기재한 내용이다. 『養老令』 戶令 取坊令條에서는 「凡坊令, 取正八位以下, 明廉強直, 堪時務者霽充, 里長坊長, 竝取白丁清正, 強幹者充, 若當里當坊無人, 聽於比里比坊簡用.」[若八位以下情願者聽.]이라고 적고 있다.

182 기내는 왕경 주변지역에 설정된 특별한 행정구역이다.

183 名譽은 伊賀國 名張郡을 가리킨다. 현재 三重縣 名張市에 해당된다.

184 橫河는 伊賀國 名張郡의 名張川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6월 갑신조에는 「將及橫河...天下兩分之祥也. 然朕遂得天下歟, 即急行到伊賀郡.」이라 적혀 있다.

185 현재 和歌山縣 伊都郡 葛城町에 있는 산이다.

186 播磨國 明石郡을 가리킨다. 이 군은 西國이나 대륙을 향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육로에는 山陽道 明石驛이 설치되어 말 30필이 상비되어 있었다. 해로에는 明石浦, 藤江, 林湖 등 수많은 항구가 있었다. 『日本書紀』 윤공천황 14년 9월 계축삭 赤石 참조.

187 현재 神戸市 須磨區 一ノ谷町에서 垂水區 鹽屋町을 가리킨다고 보거나, 지명의 음상사를 기초로 하여 播磨國 明石郡 押部谷村(현재 神戸市 押部谷町)의 奇淵(구시후치)이라고 보기도 한다.

188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 원년 3월조 狹狹浪 참조.

189 合坂山은 山背國과 近江國의 경계를 이루는 逢坂山을 가리킨다. 현재 京都市와 大津市の 경계는 봉판의 서쪽에 해당된다.

190 郡의 규모에 관한 규정이다. 『養老令』 戶令 定郡條에는 「凡郡, 以廿里以下十六里以上為

(郡司)¹⁹¹는 국조(國造) 가운데 품성이 청렴하고 사무를 능히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서 대령, 소령¹⁹²으로 삼고, 강하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민첩하며 서산(書算)을 잘하는 자를 주정(主政), 주장(主帳)¹⁹³으로 삼아라. 역마, 전마의 지급은 모두 영(鈴)¹⁹⁴이나 전부(傳符)¹⁹⁵에 새겨진 숫자에 의거하라. 제국 및 관(關)에는 영(鈴)과 계(契)를 지급한다. 이는 장관이 집행하지만, 없는 경우 차관이 맡아본다. 셋째, 호적(戶籍)¹⁹⁶, 계장(計帳)¹⁹⁷,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¹⁹⁸을 만든다. 무릇 50호를 1리(里)로 하고 이마다 장(長) 한 명을 두어, 호구를 조사하고 농업이나 양잠을 권장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를 감독하며 부역을 독려하는 일을 관

大郡十二里以上為上郡八里以上為中郡四里以上為下郡二里以上為小郡,」이라 적혀 있다. 내용상으로는 유사하지만, 郡의 등급에 관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 191 郡司 임용 규정은 『養老令』選敍令 郡司條에서는 「凡郡司, 取性識清廉, 堪時務者, 為大領少領, 強幹聰敏, 工書計者, 為主政主帳, 其大領外從八位上, 少領外從八位下敍之, [其大領少領, 才用同者, 先取國造,]」라고 적고 있다.
- 192 大領과 少領은 郡司의 장관과 차관에 해당된다.
- 193 율령제에서 주정은 郡司의 제3등관, 주장은 군사의 제4등관이다. 그러나 孝德朝에서는 아직 郡制가 시행되지 않고, 評制가 시행되었다. 評制에서의 칭호는 명확하지 않다.
- 194 영은 驛鈴을 가리킨다.
- 195 傳符는 傳馬를 징발하기 위한 부절이다. 傳符는 율령에서 관인이 전마를 사용하며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증서를 의미한다. 『養老令』公式令 給驛傳馬條에는 「凡給驛傳馬, 皆依鈴傳符剋數,」라고 적혀 있다.
- 196 백성의 이름과 연령, 가족 관계 등을 매 호마다 기재한 장부이다. 『養老令』戶令 造戶籍條에서는 「凡戶籍, 六年一造, 起十一月上旬依式勘造…二通申送太政官一通留國,」, 造計帳條에서는 「凡造計帳每年六月三十日以前, 京國官司…八月三十日以前, 申送太政官,」이라고 적고 있다.
- 197 計帳은 調, 庸, 歲役 등을 기록한 대장으로 매년 작성한다. 그 절차는 『養老令』戶令 計帳條에서는 「凡造計帳, 每年六月三十日以前, 京國官司, 責所部手實, 具注家口年紀, 若全戶不在鄉者, 即依舊籍轉寫, 并顯不在所由, 收訖, 依式造帳, 連署, 八月三十日以前, 申送太政官,」이라 적고 있다.
- 198 율령제에서는 일정액의 구분전을 양인 남녀와 노비에게 차등을 두어 호마다 지급하고 6년에 한 번 收授했다.

장하도록 한다. 만일 산이나 골짜기가 험하고 땅이 멀고 사람이 드문 곳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라. 무릇 전(田)은 길이[長] 30보(步), 넓이[廣] 12보를 1단(段)으로 하고¹⁹⁹ 10단을 1정(町)으로 한다. 단의 조도(租稻)는 2속(束) 2과(把)²⁰⁰이고, 정의 조, 도는 22속으로 한다. 넷째, 이전의 부역(賦役)²⁰¹을 파하고 전조(田調)를 시행한다. 고운 비단(絹), 거친 비단(縹)²⁰², 명주실[絲]²⁰³, 명주솜[綿]²⁰⁴은 모두 그 향토에서 생산되는 바에 따른다²⁰⁵. 전(田) 1정에 고운 비단 1장(丈)이며, 4정은 1필(匹)이 되는데 길이가 4장이고 넓이가 2척 반이다. 거친 비단은 2장 2정이 1필이 되는데 길이와 넓이는 견과 같다. 삼베[紵]는 4장인데, 길이와 넓이는 고운 비단, 거친 비단과 같으며 1정이 1단(端)이 된다²⁰⁶[명주실

199 『養老令』 田令 田長條에서는 「凡田，長三十步，廣十二步為段，十段為町，[段租稻二束二把，町租稻廿二束.]」이라고 적고 있다. 一段의 면적은 360步이고 一步는 五尺이다. 『養老令』 雜令 度地五尺為步條에는 「凡度地，五尺為步，三百步為里。」라 기재되어 있다.

200 租稻는 田租로, 벼이삭을 묶어서 납부하였다. 束은 그 단위이고, 把는 束의 1/10에 해당된다.

201 이전의 부역은 종래의 力役을 의미한다. 田調는 토지의 넓이에 대해 부과하는 調이다. 율령에서 調는 성년남자에 게 부과하는 인두세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202 ‘縹’는 견직물의 일종이다. 교환수단이며 과세와 급여의 대상이 되었고, 관인이나 승려의 제복 등에 사용되었다. 『日本書紀』의 훈독으로는 ‘후토기누’라 하고, 『和名類聚抄』에는 ‘아시기누’라고 적혀 있다. 또한 『令義解』에는 ‘실이 가는 것을 絹이라 하고, 굵은 것을 縹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건너간 정교한 견이 아니라, 일본 국내산 실로 짠 평직의 직조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東大寺 正倉院에 남아 있는 견과 시를 비교할 때,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를 찾기 어렵기에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자도 있다.

203 生絲를 가리킨다.

204 絹綿을 말한다.

205 『養老令』 賦役令 調絹縹條에는 「凡調絹縹糸綿布，並隨鄉土所出。」이라고 적혀 있다. 詔에는 綿 아래에 布(麻布)가 빠져 있지만, 바로 뒤에 布가 있으므로 脫字로 추정된다.

206 견, 시, 포의 단위량과 명칭으로 견과 시는 匹, 포는 端, 필은 2段, 1단은 2丈에 해당된다.

과 명주솜의 납부 단위²⁰⁷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별도로 호마다²⁰⁸ 조를 거두는데 호당 자포(紫布)²⁰⁹ 1장 2척이다. 무릇 조(調)²¹⁰에 부가해서 바치는 물건인 소금과 지(贄)²¹¹ 또한 향토에서 생산되는 바에 따른다. 무릇 관마(官馬)²¹²는 중마(中馬)²¹³라면 1백 호마다 한 필을 내게 한다. 세마(細馬)²¹⁴일 경우는 2백 호마다 한 필을 내게 하라. 그 말을 사는 값은 1호당 삼배 1장 2척으로 한다. 무릇 무기는 사람마다 칼, 갑옷, 활, 화살, 깃발²¹⁵, 복을 내게 하라. 무릇 사정(仕丁)²¹⁶은 이전에 30호마다 한 명이었던 것을 고쳐[한 명은 잡역에 충당한다.]²¹⁷ 50호마다 한 명[한 명은 잡역에 충당한다.]으로 하여 여러 관아에 보낸다. 50호가 사

- 207 명주실을 세는 단위는 絢이다. 『令集解』 賦役令 調絢條에는 ‘一絢는 16량이다. 屯은 綿을 계량하는 단위로 一屯은 2斤’이라고 적혀 있다.
- 208 이것은 호마다 부과하는 調를 의미한다.
- 209 『속일본기』 天平 8년 5월 신묘조에 보이는 「上總望陋細貨」는 上總國 望陋郡 부근의 특산물인 上質의 마포를 가리킨다. 望陋의 布는 賦役令 調絹絢條에도 보인다.
- 210 부가세로서의 調를 의미한다. 『養老令』 賦役令 絹絹絢條에서는 ‘木棉, 麻, 各種顔料, 魚類, 鹽, 手工業品’을 거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鹽과 贄만 제시하고 있다.
- 211 贄는 원래는 신이나 수장에게 바친 鳥獸나 魚貝, 果實 등의 품목이었다. 천황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지가 복속의 상징물이 되면서 조세의 일종이 되었다.
- 212 官馬의 징집에 관한 내용은 令에는 보이지 않는다. 관마에 관한 내용은 『魏書』 明元帝紀에 「邊有官馬, 今令民能畜官母馬者, 滿三歲歸之也. 及有蕃息, 與當出絹算者, 皆復令居新秦中, 又充勿之也. 謂與民母馬, 令得為馬種, 令十母馬還官一駒, 此為息什一也.」라고 적혀 있는 것이 참고가 된다.
- 213 중간 정도의 보통 말을 가리킨다. 『令義解』 廐牧條에는 「凡廐, 細馬一疋, 中馬二疋, 驚馬三疋, 各給丁一人.」이라 적혀 있고, 『延喜式』 左右馬寮式에는 「細馬十疋, 中馬五十疋, 下馬二十疋.」이라 적혀 있다.
- 214 細馬는 良馬, 즉 뛰어난 말을 의미한다.
- 215 幡은 천이나 종이 등으로 만들어 높이 걸어 두는 깃발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조정의 의식이나 제례에 사용되거나 군의 진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 216 민간에서 징발되어 조정의 각종 노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217 『養老令』 賦役令 歲役條 仕丁條에서 「凡仕丁者, 每五十戶二人[以一人充廐丁.], 三年一替.」라고 적고 있듯이 50호마다 2명이 소집되어 상경하고 3년마다 교체된다.

정 한 명의 양식을 제공한다. 한 호 당 용포(庸布) 1장 2척, 용미(庸米)²¹⁸ 5두이다. 무릇 채녀(采女)²¹⁹는 군(郡)의 소령 이상의 자매 및 자녀로 용모가 단정한 자를 현상한다[중정(從丁) 한 명, 종녀(從女) 두 명이다.], 1백 호가 채녀 한 명의 양식을 충당한다. 용포와 용미는 모두 사정에 준한다.

이 달에 천황이 자대이궁(子代離宮; 코시로노카리미야)²²⁰에 행차하였다. 사신을 보내 군국(郡國)²²¹에 “무기고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하이가 귀순하였[어떤 책(或本)에는 난파협옥부읍(難波狹屋部邑; 나니하노사야베노무라)²²²의 자대둔창을 열고 행궁(行宮)을 세웠다고 한다.].

2월 갑오삭 무신(15일)에 천황이 궁²²³의 동문으로 행차하였다. 그리고 소아우대신(蘇我右大臣)²²⁴에게 천황의 명을 고하게 하였다. “명신어우일본왜근자천황(明神御宇日本倭根子天皇; 아키히미카미토아메노시타시라스야마토네코노스메라미코토)²²⁵은 모여 기다리는 경들과 신, 연, 국조, 반조 및 여러 백성에게 말하노라. 짐이 듣건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군주는 종을 궁문에 걸어 백성의 근심을 파악

218 庸은 부역 대신에 공납하는 물품을 말한다. 용미는 米로, 용포는 布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 조문에서는 50호가 납부하는 용미가 직접 사정의 양식이 되는데, 율령에서는 국고에 수납된 용으로 사정의 양식과 그 외 비용을 지출하였다.

219 采女는 지방호족 출신의 여자를 중앙에 바친 경우가 많은데, 천황이나 황후의 주변에서 봉사하며 일상 잡무에 종사하였다.

220 자대둔창을 개축하여 만든 행궁이다. 難波長柄豐碕宮이 완성된 것이 649년이므로 그 사이에 子代離宮 등 난파 지방의 여러 궁에서 임시로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21 國郡과 같다. 『日本書紀』 欽明天皇 28년조에도 「郡國大水, 飢, 或人相食, 轉傍郡穀以相救,」라고 적혀 있다.

222 難波狹屋部邑의 狹屋部邑(사야베노무라)은 지명이다. 『和名類聚抄』에서는 攝津國 西成郡 讚楊郷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재 大阪市 内高津이 지역이다.

223 子代離宮이다.

224 蘇我倉山田石川麻呂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정월 을해삭 蘇我倉山田石川麻呂 참조.

225 孝德天皇을 가리킨다.

하고, 집을 대로에 지어 길 가는 사람의 비방을 듣고,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친히 물어 스승으로 삼는다고 한다. 짐이 전에 말했듯이²²⁶ 옛 성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조정에 선을 권하는 깃발²²⁷과 잘못을 지적하는 나무판²²⁸이 있었다. 이는 정치를 잘하여 간언하는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널리 아래 사람에게 묻기 위함이다. 관자(管子)²²⁹에 의하면 황제(黃帝)는 명당(明堂)²³⁰에서 정치를 논의하였으므로 위로는 현인을 잘 관찰하였고 요(堯)는 구실(衢室)²³¹에서 정치를 자문하였으므로 아래로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순(舜)은 선을 알리는 깃발을 세워 선한 자를 드러냈다. 우(禹)는 건고(建鼓)²³²를 조정에 세워 간하고 호소하는 일에 대비하였다. 탕(湯)은 총술(總術)의 뜰²³³이 있어 백성의 비난을 알았고 무왕(武王)은 영대(靈臺)²³⁴에 동산을 만들어 현자를 등용하였

226 대화 원년 8월 경자조에 내린 鐘匱制定의 詔를 가리킨다.

227 『漢書』文帝紀 2년 5월조의 조문에 나오는 ‘舜이 통치할 때 旗를 五達의 道에 설치하고,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旗 아래에 서서 이를 말하게 했다.’라는 고사를 가리킨다.

228 『漢書』文帝紀 2년 5월조의 인용된 「進善之旗」에 관한 顏師古의 注에 ‘堯의 시대, 나무를 교량 위에 세워 백성들에게 정치의 과실을 쓰도록 하여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229 皇帝 이하는 『三國志』魏書 文帝紀의 裴松之注와 『藝文類聚』에 나오는 「管子曰, 黃帝立明堂之議, 上觀於賢也, 堯有衢室之問, 下聽於民也, 舜有告善之旌, 而主不蔽也, 禹立諫鼓於朝, 而備訊也, 湯有總街之廷, 觀民非也, 武王有靈臺之宮, 賢者進也, 此古聖帝明王, 所以有而勿失, 得而勿止也,」라는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230 명당은 천자나 왕자가 정치를 행하는 궁전이나 조정을 가리킨다. 『三國志』魏書 裴松之注에는 「軒轅有明臺之議, 放勳有衢室之問, 皆所以廣詢於下也,」라고 적혀 있다. ‘明臺’는天子가 정치를 행하는 臺를 가리킨다.

231 衢室은 중국의 전설상의 천자인 堯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리에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232 諫鼓이다. 『管子』에는 「禹立諫鼓於朝,」라고 적혀 있다. 백성들이 간언하도록 조정의 내외에 세운 북이다.

233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 옆에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다. 이것이 성제명왕(聖帝明王)이 나라를 보존하면서 잃지 않고, 번영하며 망하지 않는 연유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짐은 종을 걸고 궤를 설치하고 표(表)²³⁵를 거두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걱정이 있거나 간언하는 사람은 궤에 표를 넣게 하고 표를 걷는 사람에게 명하여 아침마다 주청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짐이 주청한 것을 읽고 나서 군정에게 보여 즉시 처리하게 할 것이니 지체하지 않기 바란다. 만일 군정들이 게을리 적절히 처리하지 않거나 아부하여²³⁶ 한쪽 편을 들거나²³⁷ 또는 짐이 간언을 듣지 않으면 걱정이 있어 호소하려는 사람은 종을 치라고 이미 말하였다. 이리하여 백성이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풍토가 생겨 설치한 궤에 간언하는 문서를 넣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인 백성에게 보이겠다. 그 표에 의하면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왕정에 온 백성을 관에서 잡아두고 잡역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짐 역시 이를 걱정한다. 백성들도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궁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치 나그네와 같다²³⁸. 이 때문에 사역해서는 안 되는데 부득이 사역하게 되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편히 잠들지 못하였다. 짐은 이 표를 보고 기쁨과 감탄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간언에 따라 각처의 잡역을 중지시키겠다. 앞의 조(詔)²³⁹에서 간하는 자는 이름을 기재

234 周 왕조를 세운 文王이 음양, 천문,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臺이다. 여기에 동산이 있어 賢者들이 모였다 한다.

235 대화 원년 8월 5일조 鐘匱制定의 詔에는 牒이라 적혀 있다.

236 원문은 阿黨이다. 대화 원년 8월 5일조 鐘匱制定의 詔에는 ‘阿黨有曲’이라 적혀 있다.

237 원문은 比周이다. 『論語』 爲政篇에서는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 적고 있다.

238 難波遷都(대화 원년 12월 9일조)를 가리킨다. 도읍을 건설하는 중이라 자대이궁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안정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賓’과 유사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239 대화 원년 8월 5일조의 鐘匱制定의 조를 가리킨다. 원년 8월 5일조에는 題名(記名)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름을 기재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잘못된 것과 잊고 있는 것을 간하도록 하라.”

또 조를 내려 “여기에 모인 백성들[國民]은 고소할 것이 많다. 이제부터 심리하려 한다. 판결한 것을 잘 들어라. 의문을 해결하고자 왕정에 와서 조정에 모인 자는 흩어지지 말고, 조정에 모여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하였다.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보내 조부(調賦)를 바쳤다. 을묘(22일)에 천황이 자대이궁에서 돌아왔다.

3월 계해삭 갑자(2일)에 동국의 국사들에게 조(詔)²⁴⁰를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모여 있는 군경대부²⁴¹와 신, 연, 국조, 반조 및 여러 백성들이여, 다 함께 들어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군주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신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선조와 경들의 선조가 함께 다스려왔다. 짐도 또한 신의 가호에 힘입어 경들과 함께 다스리려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²⁴²에 양가(良家)²⁴³의 대부(大夫)에게 동방²⁴⁴ 팔도를 다스리게 하였다. 국사가 임지에 가서 여섯 명은 법을 잘 받들었지만, 두 명은 영을 위반하여 칭찬과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짐은 법을 준수한 것은 기쁘지만, 영을 위반한 것은 걱정스럽다. 무릇 정치를 하는 자는 군주나 신하나 먼저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타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가 바

240 대화 원년 8월 경자조의 ‘東國國司에 대한 詔’ 참조.

241 대화 2년 2월조에는 「卿等, 臣, 連, 國造, 伴造,」라고 적혀 있으며 大夫는 보이지 않는다.

242 대화 원년 경자에 ‘東國國司’에 관한 조를 내린 때를 가리킨다.

243 『藤氏家傳』 대직관전에는 「及岡本天皇御宇之初, 以良家子, 簡授錦冠, 令嗣宗業, 歸去三島之別業, 養素丘園, 高尚其事,」라 적혀 있다.

244 『古事記』崇神天皇段에서는 「此之御世, 大毘古命者, 遣高志道, 其子建沼河別命者, 遣東方十二道,」라고 적고 있다.

르지 않다면 어찌 타인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스스로 바르지 않은 자는 군신을 막론하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그대들이 따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누가 감히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전의 착에 의거하여 (국사들을) 처단하라.”

신사(19일)에 동국의 조집사(朝集使)²⁴⁵들에게 조(詔)를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모여 있는 군경대부 및 신, 연, 국조, 반조와 여러 백성들이여. 모두 들어라. 지난해 8월²⁴⁶에 짐이 ‘관(官)의 위세에 의지하여 공사(公私)의 물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 관할 지역 내의 음식물을 먹고 말을 타라. 만약 이 교시를 위반하면 차관 이상은 그 작위를 강등하고, 주전(主典)²⁴⁷ 이하는 태형(笞刑), 장형(杖刑)²⁴⁸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물품에 대해서는 두 배로 거두어 들어라.’ 이렇게 조(詔)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 조집사와 여러 국조²⁴⁹들에게 국사가 ‘임지에 도달하여 이 조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조집사들은 상세히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적신사(穗積臣咋; 호즈미노오미쿠히)²⁵⁰가 잘못을 범한 것은 백성에게 호별로 물품을 요구하고는 이를 후회하고 돌려주긴 했지만, 모두 돌려주지는 않았

245 율령제에서 朝集使는 지방 정치의 상황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朝集帳을 가지고 상경하는 使를 의미한다. 조집장은 국사가 매년 태정관에 제출한 國 내의 정부보고서를 가리킨다. 국, 군의 관인에 대한 勤務評定書, 計會帳 등 다수의 공문서를 총칭한다.

246 대화 원년 8월 5일에 내린 詔를 가리킨다.

247 본조에는 차관 이상, 즉 장관, 차관과 주전이 보이고 판관은 보이지 않는다.

248 율의 형벌(笞, 杖, 徒, 流, 死) 가운데 태와 장에 해당된다. 『養老令』 獄令 杖笞條에서는 竹鞭으로 등과 볼기를 50회까지 때리는 것을 ‘태’, 60회부터 100회까지 때리는 것을 ‘장’이라 적고 있다.

249 東國國司가 상경할 때 재지의 국조도 상경하였음을 시사한다. 대화 원년 8월 5일조의 「唯得使從國造郡領」이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250 穗積臣咋는 대화 5년 3월조에는 左大臣蘇我臣倉山田麿呂를 둘러싼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좌대신을 訊問하고 討伐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습니다. 그 차관[介] 부제신(富制臣; 후세노오미)²⁵¹[이름이 빠졌다.]과 거세신자단(巨勢臣紫檀; 코세노오미시타노)²⁵² 두 사람의 잘못은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은 것입니다. 운운. 하위 관인들도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거세덕네신(巨勢德禰臣; 코세노토크네노오미)이 잘못된 것은 백성들에게 호별로 물품을 요구하고는 반성하고 돌려주었지만, 모두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田部)²⁵³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 차관[介] 박정련(朴井連; 에노웨노무라지)²⁵⁴과 압판련(押坂連; 오시사카노무라지)²⁵⁵[두 사람은 모두 이름이 빠져 있다.] 두 사람은 상관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조(國造)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대직수미(臺直須彌; 우테나노아타히스미)²⁵⁶는 처음에는 윗사람에게 간언하였지만, 결국은 함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위 관인도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기마리기타신(紀麻利耆陀臣; 키노마리키타노오미)²⁵⁷이 잘못된 것은 사람을 조창군(朝倉君; 아사쿠라노키미)²⁵⁸과 정상

251 富制臣은 布勢臣과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新撰姓氏錄』左京 皇別 布勢朝臣條에는 ‘阿倍朝臣과 同祖’라고 적혀 있다.

252 巨勢臣紫檀은 紫檀辛을 檀努라고도 쓴다. 『日本書紀』천무천황 14년 3월 신유조에는 職大夫 直大參 巨勢朝臣辛檀努의 사망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속일본기』養老 원년 정월 기미조에는 「中納言從三位巨勢朝臣麻呂薨, 小治田朝小德大海之孫, 飛鳥朝京職直大參志丹之子也,」라고 적혀 있다.

253 田部는 둔창을 경작하는 농민을 가리킨다. 『日本書紀』安閑天皇 원년 10월조 田部 참조.

254 대화 원년 9월조의 物部朴井連稚子 참조.

255 朴井連과 같이 차관이다. 『新撰姓氏錄』左京 未定雜姓 忍坂連條에는 ‘火明命의 후예’라고 적혀 있다.

256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臺忌寸條에는 臺忌寸이 漢 孝獻帝의 男 白龍王의 후예라고 적혀 있다.

257 白雉 원년조에 나오는 ‘紀臣乎麻呂岐太’와 동일인이라 보기도 한다.

258 朝倉君은 국사가 아니라 재지호족이다. 『和名類聚抄』에는 「上野國 那波郡 朝倉郷,」(현재 群馬縣 前橋市 朝倉지역)이라 적혀 있으므로, 朝倉君은 上毛野公의 일족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續日本紀』延暦 6년 12월 庚辰朔條에는 「外正七位下朝倉公家長外從五位

군(井上君; 이노우에노키미)²⁵⁹ 두 사람에게 보내서 그들의 말을 끌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창군에게 칼을 만들게 하고, 조창군의 활과 삼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조가 보낸 무기²⁶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국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지에서 칼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왜국에서도 칼을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기신(紀臣; 키노오미)²⁶¹과 그 차관[介] 삼륜군대구(三輪君大口; 미와노키미오쿠치), 하변신백의(河邊臣百依; 카하헤노오미모모요리)²⁶² 등의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위 관인 하변신기박(河邊臣磯泊; 카하헤노오미시하츠)²⁶³, 단비심목(丹比深目; 타지히노후카메)²⁶⁴, 백설조장형(百舌鳥長兄; 모즈노나가에)²⁶⁵, 갈성복초(葛城福草; 카즈라키노사키쿠사)²⁶⁶, 난파선구(難波鸕龜; 나니하노쿠히카메)²⁶⁷[구비가매(俱毗柯梅; 구히카메).], 견양오십군(犬養五十君; 이누가히노이키미)²⁶⁸, 이기사마려(伊岐史麻呂; 이키노후비토마로)²⁶⁹, 단비대안(丹比大眼; 타

下, 以進軍糧於陸奧國也。」라고 적혀 있다.

- 259 井上君은 국사가 아니라 재지호족이다. 『속일본기』 천평 15년 9월 무오조에는 外從五位下 井上忌寸麻呂가 紀伊守로 임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260 원문은 兵代이다. ‘兵(츠와모노)’은 무사나 군인 혹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거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무기나 무구를 의미한다. ‘代物(시로모노)’은 매매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가리키거나,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 261 紀麻利耆陀臣을 의미한다.
- 262 三輪君大口와 같이 河邊臣百依도 세 번째 국의 차관이다.
- 263 여기에만 보인다.
- 264 여기에만 보인다. 丹比氏は 『日本書紀』 宣化天皇 원년 3월조에 丹比公이 보이고, 『新撰姓氏錄』 右京 神別 丹比宿禰條에는 ‘丹比宿禰가 火明命의 후예이며 丹比部の 宰’라고 기재되어 있다.
- 265 百舌鳥土師長兄과 동일 인물이라 보기도 한다. 『西琳寺緣起』에 土師長兄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百舌鳥土師는 和泉 大鳥郡 百舌(현재 大阪府 堺市 百舌鳥)지역의 土師氏이다.
- 266 여기에만 보인다.
- 267 여기에만 보인다.
- 268 天武天皇 원년 7월 임자조에는 임신의 난 때 근강 쪽의 장군으로 犬養連五十君이라는

지히노오호메)²⁷⁰ 등 여덟 명도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아담련(阿曇連; 아즈미노무라지)²⁷¹[이름이 빠졌다.]이 저지른 잘못은 화덕사(和德史; 와토코노후비토)²⁷²가 병이 들었을 때 국조에게 말하여 관물(官物)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탕부(湯部)²⁷³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차관[介] 선부신백의(膳部臣百依; 카시하데노오미 모모요리)²⁷⁴가 잘못된 것은 관의 목초²⁷⁵를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조의 말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하변신반관(河邊臣磐管; 카하헤노오미이하츠츠)과 탕마려(湯麻呂; 유마로)²⁷⁶ 형제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대시련(大市連; 오호치노무라지)²⁷⁷[이름이 빠졌다.]이 잘못된 것은 앞의 조²⁷⁸를 위반한 것입니다. 앞의 조에서 ‘국사들은 임지에서 백성들이 소송한 것을 스스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²⁷⁹.’고 명하였습니다. 이 조를 위반하여 토려(菟礪; 우토)²⁸⁰ 사람의 고소와 중신덕(中臣德; 나카토미노토코)²⁸¹의 종[奴]에 관한 사건을 친히

인물이 보인다. 犬養은 『新撰姓氏錄』攝津國 神別 犬養條에는 ‘神魂命의 19세손이며 田根連의 후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269 여기에만 보인다.

270 여기에만 보인다.

271 阿曇連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皇極天皇 원년 정월조 阿曇連比羅夫 참조.

272 『속일본기』神龜 2년 6월 정사조에는 ‘和德史龍麻呂 등이 大縣史라는 씨성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大縣史條에는 ‘大縣史가 百濟人 和德의 후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273 황자, 황녀의 양육을 위해 설치된 湯坐部를 가리킨다. 탕좌는 어릴 때 물을 데워 아이를 씻기는 일을 맡은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274 膳部臣은 『日本書紀』安閑天皇 원년 4월조 膳臣大麻呂 참조.

275 『養老令』廐牧令 馬戶分番條에는 馬戶가 목초를 調로 납부한 규정이 보인다.

276 이 두 사람은 여기에만 보인다.

277 여기에만 보인다.

278 대화 원년 8월 병신삭 경자조 東國의 詔를 가리킨다.

279 대화 원년 8월 병신삭 경자조 東國의 詔에 나오는 「國司等在國不得判罪.」를 가리킨다.

280 駿河國 有度郡(현재 静岡縣 静岡市, 清水市)지역이라 추정하고 있다.

재판하였습니다. 중신덕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애전신(涯田臣; 키시타노오미)²⁸²[이름이 빠져있다.]이 잘못된 것은 왜국에서 관의 칼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록신(小錄臣; 오미도리노오미)²⁸³과 단파신(丹波臣; 타니하노오미)²⁸⁴은 미숙하긴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모두 이름이 빠져 있다.]. 기부목련(忌部木栗; 이무베노코노미)²⁸⁵과 중신련정월(中臣連正月; 나카토미노무라지무츠키)²⁸⁶ 두 사람 또한 과실이 있습니다. 우전신(羽田臣; 하타노오미)과²⁸⁷ 전구신(田口臣; 타구치노오미) 두 사람은 모두 과실이 없습니다[이름이 빠져 있다.]. 평군신(平群臣; 헤구리노오미)[이름이 빠져 있다.]이 잘못된 것은 삼국인(三國人)²⁸⁸의 고소가 있었는데도 아직 심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마리기타신, 거세덕네신, 수적신사 너희 세 명은 태만하고 미숙하다. 이렇게 조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 무릇 임금의 신하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이끈다면 누가 부정을 저지르겠는가. 만일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다. 그러므로 무릇 여러 국사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 처벌할 것이다. 또 여

281 국사가 아닌 재지인이라 이해된다.

282 여기에만 보인다.

283 여기에만 보인다.

284 丹波直이라면 丹波의 國造家이다.

285 여기에만 보인다.

286 여기에만 보인다.

287 羽田臣과 田口臣은 波多臣廣庭, 蘇我田口臣川堀과 동일 인물이라 추정하고 있다. 平群臣은 여기에만 보인다.

288 越지방의 三國(越前國, 越中國, 越後國)을 가리킨다. 越은 현재 福井縣 敦賀市에서 山形縣 庄内 地方의 일부에 해당된다. 월국은 대보울령에서 越後, 越中, 越前の 3개국으로 분할되고 8세기 전반에 다시 能登國, 加賀國이 분할되었다.

러 국조는 조를 위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국사에게 보내어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늘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새로운 궁²⁸⁹으로 옮겨 처음 거주하여 올해는 여러 신들에게 폐백을 바치는²⁹⁰ 해이다. 또 본래 농사짓는 달²⁹¹에는 백성을 부리지 말아야 함에도 새로 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하여 천하에 대사를 내리겠다²⁹². 앞으로 국사와 군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삼가라. 사자를 파견하여 국중의 유망인과 옥중의 죄수들을 모두 방면하라. 특히 염옥옹어(鹽屋鯰魚; 시호야노코노시로)²⁹³[鯰魚는 코노시로(學能之盧)라고 읽는다.]와 신사복초(神社福草; 카무코소노사키쿠사)²⁹⁴, 조창군, 완자련(梔子連; 마로코노무라지)²⁹⁵, 삼하대반직(三河大伴直; 미카하노오호토모노아타이)²⁹⁶, 노미직(蘆尾直; 스스키오노아타이)²⁹⁷[네 명 모두 이름이 빠졌다.] 이 여섯

289 難波에서 조영 중인 새로운 궁을 의미하는 듯하다.

290 효덕천황의 卽位大嘗祭를 가리키는 것인 듯하다.

291 『令集解』 田令, 賦役令에는 ‘농사는 3월에 起耕하고 4월 말까지 播種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3월은 농월에 해당된다. ‘憲法十七條’에도 「使民以時, 古之良典,」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292 ‘大赦’는 恩赦의 일종으로 전국에 있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大赦 관계 기사는 본조에서 처음으로 보이지만, ‘赦天下’라는 문구는 『日本書紀』 현종천황 원년 정월 시월조에도 보인다.

293 有間皇子 사건에 연좌되어 참형에 처해진 인물이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11월조 鹽屋連鯰魚 참조. 鹽屋連은 『新撰姓氏錄』 河內國皇別 鹽屋連條에는 「武内宿禰男葛木曾都比古命之後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294 神社氏は 『新撰姓氏錄』에는 보이지 않는다. 『속일본기』 和銅 정월 무오조의 神社忌寸河內와 「天平勝寶二年勘籍斷簡」(『大日本古文書』 25)에 기재된 神社忌寸祖父麻呂, 石島 등이 참고가 된다.

295 梔子は 丸子와 통한다. 丸者連은 고대 東國에 많이 분포한 씨족이다.

296 三河는 국명으로도 존재한다. 直은 일반적으로 國造의 姓이다. 大伴直은 고대 동국에 많이 분포했다.

명²⁹⁸은 명을 잘 받들었다. 나는 그 마음을 칭찬하는 바이다. 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곳의 둔전과 길비도황조모(吉備嶋皇祖母 ; 키비노시마노스메미오야)²⁹⁹가 가지고 있던 대도(貸稻)³⁰⁰를 모두 폐지하라. 그 둔전은 군신과 반조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등록되지 않은 절³⁰¹에도 논[田]과 산을 주어라.”라고 명하였다.

임오(20일)에 황태자³⁰²는 사자를 파견하여 천황에게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옛날 천황들은 천하를 혼연일체로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나뉘어서 국가[국업(國業)을 말한다.]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황³⁰³이신 주군께서는 만민을 기르는 천운을 가져 하늘도 사람도 함께 호응하여³⁰⁴ 그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며 중하게 여겨 받들고 있습니다. 현위 명신어팔도국천황(現爲明神御八嶋國天皇)께서 ‘여러 신, 연과 반조, 국조가 소유하고 있는 과거 천황대에 둔 자대입부(子代入部)³⁰⁵, 황자들이 사유하고 있는 어명입부(御名入部)³⁰⁶, ‘황조대형(皇祖大兄)³⁰⁷의 어명입부[언인대형(彦人大兄 ; 히

297 여기에만 보인다.

298 『日本書紀通釋』에서는 이것이 2일의 조에 기재된 6명은 슈을 받들고, 2명은 슈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다.

299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9월조 吉備嶋皇祖母命 참조.

300 봄, 여름에 稻를 빌리고 가을에 수확한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하는 제도로 추정되며, 율령제의 出學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天武天皇下 朱鳥 원년 7월조 稻와 資財 참조.

301 『日本書紀』 추고천황 32년 9월조와 효덕천황 대화 원년 8월조에는 ‘절과 승니를 조사하여 절을 만든 이유와 승니의 출가 배경 그리고 승니, 노비, 전답의 실상을 조사하여 주상하라.’고 적혀 있다. 이 등록에서 누락된 절을 의미한다.

302 황태자는 중대형황자를 가리킨다.

303 황태자인 중대형황자가 효덕천황을 칭한 것이다.

304 『文選』 西都賦에는 「天人合應,」이라 적혀 있다.

305 子代入部는 子代와 같다. 자대는 천황, 황후, 황자 등의 교육을 위해 설치된 部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306 御名入部는 『古事記』에 나오는 御名代에 해당한다. 어명대나 어명입부는 왕족(황실)이 소유한 部이다.

코히토노오호에)을 일컫는다.] 및 그 둔창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은 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³⁰⁸. 그러므로 천하를 통일하여 만민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천황뿐입니다. 특별히 입부³⁰⁹ 및 봉지(封地)의 백성³¹⁰ 가운데서 사정(仕丁)을 뽑는 것은 앞에서 조치한 대로³¹¹ 따르겠습니다. 이외에 사사로이 마음대로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입부³¹² 524명과 둔창 181개소를 헌상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갑신(22일)에 조를 내려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짐이 듣기로 서쪽 땅의 군주는 백성에게 ‘옛날의 장례³¹³는 구릉을 묘로 삼았다. 흙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고 나무도 심지 않았다. 관과 곱³¹⁴은 뼈를 부패시킬 정도로 하고, 의복은 육체를 썩게 할 정도로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구릉이어서 경작이 어려운 땅에 묘지를 만들어서 몇 대가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바란다. 금, 은,

307 皇祖大兄은 황극천황, 효덕천황, 천지천황, 천무천황 등의 조부에 해당되는 押坂彥人大兄皇子이다.

308 『三國志』吳書 諸葛恪傳에서는 「夫天無二日, 土無二王, 王者不務兼并天下, 而欲垂祚後世, 古今未之有也,」라고 적고 있다. 憲法十七條 가운데 12조에 기재된 「十二曰, 國司, 國造, 勿歛百姓, 國非二君, 民無兩主, 率土兆民以王爲主,」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309 ‘入部’는 위에 나온 子代入部和 御名入部를 가리킨다.

310 귀족들의 食封을 가리킨다.

311 대화 2년 정월의詔를 가리킨다.

312 御名入部를 말한다. 524구는 部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 仕丁으로 징발된 남자의 숫자로 보거나, 180개의 둔창에서 출사한 仕丁의 인원수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313 『三國志』魏書 武帝紀 23년 6월조에는 「古之葬者, 必居瘠薄之地, 其規西門豹祠西原上爲壽陵, 因高爲墓, 不封不樹,」, 文帝紀 3년 10월 甲子條에는 「爲棺槨足以朽骨, 衣衾足以朽肉而已, 故吾營此丘墟不食之地, 欲使易代之後不知其處, 無施葦炭, 無藏金銀銅鐵, 一以瓦器, 合古塗車芻靈之義, 棺但漆際會, 三過, 飯含無以珠玉, 無施珠襦玉匣, 諸愚俗所爲也,」라고 적혀 있다.

314 棺은 內棺을, 槨은 外棺을 가리킨다.

동, 철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진흙으로 만들던 수레나 풀을 엮어 만든 인형³¹⁵ 대신에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넣어라. 관의 이음매에는 3년에 한번 옷칠하라. 죽은 자의 입에 주옥을 물리지 말라. 옥으로 장식한 옷[珠襦]³¹⁶과 옥으로 장식한 상자[珠柩]³¹⁷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리석은 속인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가르쳤다. 또 ‘무릇 장(葬)은 감춘다[藏]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바로 묘를 만드는 것 때문이다. 이에 제도를 정비하여 존비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다. 무릇 왕³¹⁸ 이상 무덤의 내부³¹⁹는 길이 9척, 넓이 5척, 외역(外域)³²⁰은 사방 9심(尋), 높이[長] 5심으로 1천 명의 인부를 7일간 부려 완성하도록 하라³²¹. 매장할 때에 관을 덮는 덮개³²²는 백포를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장차(葬車)³²³를 사용하라. 상신(上臣)³²⁴의 무덤의 내부는 길이, 넓이, 높

315 풀을 묶어 만든 인형에게 죽은 자를 따르며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예기』檀弓篇의「塗次芻靈」이라는 구절에 대해 鄭玄은「芻靈，束茅爲人馬，謂之靈者，神之類」라고 주를 달았다.

316 구슬을 꿰어서 장식한 기장이 짧은 의복을 말한다.

317 柩는 匣과 통한다. 주옥을 장식한 상자를 의미한다.

318 王은 皇族을 가리킨다.

319 원문은 內이다. 內는 玄室을 의미한다. 唐尺에 따르면 1척은 약 29.7cm이므로, 9척은 267.3cm이고, 濶 5척은 148.5cm에 해당된다.

320 봉토와 그것을 둘러싼 주위의 정원 지대를 포함한 전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된다. 분형은 ‘方’이라 하므로 方墳에 해당된다. 『說文解字』에서는「度人之兩臂爲尋，八尺也」라고 적고 있다.

321 『大唐六典』戶部에는 ‘一品은 十日に 延千人이라 하고, 五品은 二百人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22 원문은 帷帳이다. 帷帳은 관을 덮어 가리는 白布이다. 『養老令』喪葬令 親王一品條에서는「以外葬具及遊部，並從別式，五位以上及親王，並借輜具及帷帳，若欲私備者聽」이라고 적고 있다.

323 원문은 輜車이다. 『令集解』喪葬令 親王一品條에서「凡親王一品，方相輜車[輜車，葬車

이 모두 위와 같다. 외역은 사방 7심, 높이 3심으로 5백 명의 인부를 5일 동안 부려 완성하도록 하라. 매장할 때 관의 덮개는 백포를 사용하라. 관은 매고 가도록 하라[이것은 어깨에 상여를 매고 간다는 의미인가?]. 하신(下臣)³²⁵의 무덤은 내부의 길이, 넓이, 높이는 모두 위와 같다. 외역은 사방 5심, 높이 2심 반으로 250명의 인부를 3일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 장례시 장막 등에 백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위에 준한다. 대인(大仁), 소인(小仁)³²⁶의 묘는 내부는 길이 9척, 높이와 넓이 각 4척으로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으로 하라. 그리고 1백 명을 하루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게 하라. 대례(大禮)³²⁷ 이하 소지(小智)³²⁸ 이상의 묘는 모두 대인에 준한다. 50명을 하루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 왕 이하 소지 이상의 묘에는 작은 돌을 사용하라. 장막 등에는 백포를 사용하라. 서민³²⁹이 죽었을 경우는 거두어 땅에 묻어라. 장막 등에는 추포(麤布)³³⁰를 사용하라. 하루도 지체하지 말라. 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시체를 안치하는 곳(殯宮)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내를 비롯하여 제국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매장하라. 더럽게 여기저기에 매장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스스로 목을 매서 죽거나, 사람의 목을 졸라서 순사하게 하거나³³¹, 억

也, …輻車, 喪車也, 或云, 輻, 謂葬屋也, 車, 謂載之車,]라고 적고 있듯이 ‘輻’는 ‘葬屋’이고 ‘車’는 장육을 싣는 차이다.

- 324 아래는 上臣의 묘제에 관한 내용이다. 上臣, 下臣이라는 칭호는 여기에만 보인다.
- 325 상신과 하신은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 12월조의 관위 12계 가운데 大德, 小德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 326 大仁, 小仁은 推古朝의 12관위 중에서 제3, 4위에 해당한다.
- 327 大禮는 추고조 12관위의 제5위에 해당된다.
- 328 小智는 추고조 12관위의 제12위에 해당된다.
- 329 庶民은 無位者를 의미한다.
- 330 麤布는 말이 굵고 거칠게 짠 베를 가리킨다.
- 331 殉葬에 관한 내용이다. 『三國志』 魏書 倭人傳에서는 「殉葬者奴婢百餘人,」이라 적고 있고, 『令義解』 職員令 彈正尹條에서는 「信濃國俗, 夫死者卽以婦爲殉,」이라고 적고 있다.

지로 죽은 사람의 말을 죽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보물을 묘에 묻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머리털을 자르고³³² 허벅지를 찌르고 조사를 바치는 것³³³과 같은 옛 풍속은 일체 금지한다[어떤 책(或本)에는 금, 은, 비단, 무늬 있는 비단³³⁴,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인 비단³³⁵을 묻지 말라고 한다. 또 제신(諸臣)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 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일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한 바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족을 처벌하겠다³³⁶. 또한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고서 보았다고 말하거나, 듣고 듣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듣지 않고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보지 않고 교묘히 속이는 사람이 많다. 또 노비가 빈곤한 주인을 속이고 스스로 권세 있는 집에 몸을 의탁하여 살 길을 도모한다. 권세 있는 집에서는 억지로 이들을 사들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³³⁷. 그리고 처첩³³⁸이 이혼 당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³³⁹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 남편이 3, 4년 뒤에 새 남편에게 재물을 요구하여 자신의

『日本書紀』垂仁天皇 32년 7월조에는「自今以後，以是土物，更易生人，樹於陵墓，爲後葉之法則。」이라 기재되어 있다.

332 서역에서는 사망에 즈음하여 칼로 얼굴을 긋는 풍습이 존재하였다. 아이누족에게도 이와 유사한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333 殯宮의 주요 의례 가운데 하나이다. 『日本書紀』敏達天皇 14년 8월조 誅 참조.

334 원문은 綾이다. 綾은 직물의 표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양이나 문양, 특히 선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모양의 직물을 총칭한 것이다.

335 원문은 五綵이다. 『集韻』에는「綵綵，繪也。」라고 적혀 있다.

336 『삼국지』위서 왜인전에는「其犯法輕者沒其妻子，重者滅其門戶及種族。」이라고 적혀 있다.

337 노비가 가난한 주인을 버리고 권세가에게 붙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권세가의 욕심과 권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의 형편을 개선하려는 노비의 술책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本主’는 율령 용어이다. 『養老令』捕亡令 亡失家人條에는「奴婢，雜畜，貨物，皆申官司案記，若獲物之日，券證分明，皆還本主。」라고 적혀 있다.

338 妻(즈마)와 妾(메카케)은 적실과 측실을 가리킨다.

339 『爾雅』釋古에는「適，之，嫁，往也。」라고 적혀 있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멋대로 다른 사람의 딸과 부부가 될 것을 약속³⁴⁰하고서는 처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 언약한 남자가 화를 내며 양쪽 집안에 재물을 요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또 미망인이 10년 혹은 20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처가 되거나 미혼의 여자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을 때에, 이들 부부를 질투하여 불제(祓除)³⁴¹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 처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매우 부끄럽고 괴롭게 여겨 여자와 이혼[事暇]하고 비(婢)로 삼는³⁴² 경우가 있다[事暇는 코토사가(居藤作柯)라고 읽는다.]. 또 자주 자기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였다고 의심하여 관사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비록 명백한 삼증(三證)이³⁴³ 있더라도, 함께 이야기하여 명확하게 한 연후에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하여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는가. 또 요역을 담당하던 변경의 백성이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갑자기 병이 들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있다³⁴⁴. 그러면 길가에 있는 집의 사람이 ‘어찌하여 내 집 주변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의 일행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불제하게 한다. 이 때문에 형이 길에서 죽더라도 아우는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지 않는 일이 많다. 또 백성들이 냇가

340 원문은 要이다. ‘要’는 ‘約’과 통한다.

341 원래는 재앙을 없애기 위한 주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주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놓게 하거나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342 남편이 처에게 버려진 것에 원한을 품어 남편 쪽에서 인연을 끊은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미고 婢로 삼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남편이 그것을 원한으로 삼고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違約을 이유로 하여 여자를 억지로 婢로 삼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43 ‘三證’은 세 사람의 증인이나 세 가지의 증거를 의미한다.

344 『속일본기』和銅 5년 정월 乙酉條에 기재된 「詔曰. 諸國役民. 還鄉之日. 食糧絶乏. 多饑道路. 轉填溝壑. 其類不少. 國司等…如有死者. 且加埋葬. 録其姓名報本属也.」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에서 익사하는 것을 마침 지나가다가 목격한 사람이 ‘어떤 연유로 나에게 익사한 시체를 보게 했는가.’라고 말하며 익사한 사람의 일행을 붙들어 두고 억지로 불제하게 한다³⁴⁵. 이 때문에 형이 강에 빠져 죽어도 그 아우가 구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노역을 한 백성이 길가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길가 집의 사람이 곧 ‘어찌하여 마음대로 내 집 앞에서 밥을 지어 먹는가.’라고 말하며 강제로 불제하게 한다³⁴⁶. 또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시루³⁴⁷를 빌려 밥을 지어 먹었는데, 그 시루가 물건에 부딪쳐 엎어졌다. 그러면 시루의 주인은 불제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어리석은 풍속에 영향 받은 것이다. 이제 모두 금하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라. 또 백성이 상경하게 되어 타고 있던 말이 피로하고 여위어 움직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삼하(參河; 미카하)와 미장(尾張; 오히리) 양 국민들에게 삼배 2심, 마포 2속을 주고 고용하여 말을 사육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경으로 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보수로 가래 한 자루를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삼하인 등이 말을 사육하지 못하여 오히려 말라 죽게 하였다. 만일 양마³⁴⁸일 경우는 욕심을 내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여 도둑맞았다고 말한다. 만일 이것이 암말이어서 말은 집에서 새끼를 배면 불제하도록 시키고서는 그 말을 빼앗아 버린다.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들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여기서 제도를 만든다. 무릇 길가에 있는 국에 말을 맡겨 기르려는 사람은 피고용인을 데리고 촌수³⁴⁹[수는 장(長)이다.]에게 가서 확실히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어라. 귀향하는 날에 다

345 익사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꺼린 사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皇太神宮儀式帳』에서는 川入(물에 빠져 죽는 것)이나 火燒(불에 타 죽는 것) 등을 죄의 범주에 넣고 있다.

346 異郷人の 취사를 꺼리는 것은 불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347 『和名類聚抄』에는 「甌, 己志岐(고시키), 炊飯器也.」라고 적혀 있다.

348 大化 2년 정월조 細馬 참조.

349 大化 2년 갑사삭 村首 참조.

시 보수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만일 말을 쇠약하게 하거나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명령을 위반하면 중죄로 처벌하겠다. 시사(市司)³⁵⁰나 주요 도로의 나루터 뱃사공들이 거두던 수수료³⁵¹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전지를 지급하라. 무릇 기내³⁵²에서 사방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농사짓는 달에는 신속히 농사짓는 일에 힘쓰게 하라. 미식³⁵³과 술을 먹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³⁵⁴. 청렴한 사자를 파견하여 기내에 알려라. 사방 여러 나라의 국조들도 적절한 사자를 택하여 명령에 따라 노력하도록 격려하라.”

가을 8월 경신삭 계유(14일)에 다음과 같이 조를 내렸다. “모든 일의 근원을 살펴보면 천지음양은 사계절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다. 생각해보면 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한 것이다.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존재이다. 가장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성스러운 것이 임금[人主]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임금[聖主]³⁵⁵인 천황은 하늘을 모범으로 삼아 천하를 통치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각자에게 맞게 살도록 하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 그러나 신, 연, 반조, 국조가 자신들

350 市司는 각지의 市의 관리인을 가리킨다. 율령제에서는 京에 東西 市司가 설치되었다.

351 調賦는 원래는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이지만, 여기에서는 시사나 나루터 관리인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352 『養老令』에 京畿로 규정된 행정구역을 칭하며, 구체적으로는 大和, 河内, 山背, 和泉, 攝津의 5개국을 가리킨다.

353 원문은 美物이다. 『禮記』祭統篇에 기재된 「三牧之俎, 八簋之實, 美物備矣.」라는 문구에 따르면, 美物은 맛있는 음식을 가리킨다.

354 율령시대에 농민에게 魚酒를 금지한 것은 『類聚三格略』延暦九年四月十六日官付「應禁斷喫田夫魚酒事」에서 「凡制魚酒之狀, 頻年行下已訖, 如聞, 頃者畿内國司不遵格旨, 曾無禁制, 玆茲殷富之人多畜魚酒, 既樂産業之易就…專當人等親臨鄉邑子細檢察, 若有違犯者不論蔭贖隨犯決罪, 永爲恒例, 不得阿容.」라고 적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55 천황을 ‘聖’이라 표현한 사례로는 『속일본기』天平 15년 5월 계묘조에 기재된 「大八洲所知〈志〉聖〈乃〉天皇命天下〈乎〉」라는 문구를 들 수 있다.

의 품부(品部)³⁵⁶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왕의 이름을 붙였다. 또 그들의 사유민인 품부를 각 지방[國縣]에 흩어져 살게 하여 그로 인해 부자의 성(姓)이 바뀌고, 형제가 조상을 달리하고, 부부가 서로 이름을 달리하게 되어 일가가 분열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나라와 조정애 아주 많아졌다. 그래서 다스려지기는커녕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현 천황인 나부터 신, 연 등이 소유한 품부는 모두 폐지하여 국가의 백성으로 삼겠다³⁵⁷. 왕의 이름을 붙여서 반조가 된 사람이나 조상의 이름을 이어받아 신, 연이 된 사람들은 깊이 생각지도 않고 이 명³⁵⁸을 듣고 우리가 불러온 ‘선조의 이름이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내 생각을 알리고자 한다. 왕자(王者)의 자손이 대를 이어 천하를 통치한다면 당대의 천황과 그 선행의 이름은 대대로 잊혀질 리가 없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을 가볍게 강과 들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것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황공한 일이다³⁵⁹. 무릇 왕자(王者)의 이름은 일월과 더불어 멀리 흘러가고, 그 자손의 이름은 천지와 더불어 길이 전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명하는 것이다. 황자, 황손을 비롯하여 봉사하는 경대부, 신, 연, 반조와 여러 씨들의 사람들은[어떤 책(或本)에는

356 일본 고대에서 品部(시나베, 토모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첫째, 각종의 부 혹은 부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둘째, 대화전대에 조정에 직속된 부민(職業部, 名代)을 가리킨다. 셋째, 대화 이후 및 율령제 시대에는 관사에 소속되어 물품 생산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357 신, 연, 반조, 국조 등의 호족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민을 공민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358 품부 폐지에 관한 조를 가리킨다.

359 중국의 ‘避諱’ 사상이 참고가 된다. 일본에도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기사가 보인다. 『類聚三代格』 卷17 國諱追號并改姓名事의 七國諱追號并改姓名事條에는 「勅、頃者百姓之間曾不知禮、以御宇天皇及后等御名有着姓名者、自今以後不得更然、所司或不改正、」이라 적혀 있고, 『續日本後紀』 天長 10년 癸巳條에는 「天下諸國、人民姓名及郡鄉山川等號、有觸諱者、皆令改易、」이라 적혀 있다.

명명(名名)의 왕민(王民)³⁶⁰이라고 한다.] 모두 받들도록 하라. 앞으로 너희들을 출사(出仕)시키는 형태는 과거의 직책을 고쳐 백관을 새로 만들고, 위계를 정하여 관위(官位)³⁶¹를 주는 것이다. 지금 파견되는 국사와 국조는 명을 잘 받들도록 하라. 작년³⁶²에 조집사에게 전달한 조치는 이전에 정한대로 시행하고, 측량하여 거둔 전지는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라. 불공평함이 없게 하라. 무릇 전지를 급여할 때 백성의 집이 전지에 가까이 있다면 그 땅을 먼저 주도록 하라³⁶³. 이 명령을 잘 받들도록 하라. 무릇 조부(調賦)는 남자(男身)의 조(調)로 납부하도록 하라. 무릇 사정(仕丁)은 50호마다 한 명으로 하라³⁶⁴. 각국의 경계를 조사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지참하여 와서 제시하도록 하라. 각지의 국현의 이름은 그것을 지참하고 보고하러 왔을 때에 정하기로 한다. 각 나라에서 제방을 쌓거나 수로를 파거나 밭을 개간할 곳은 골고루 곳곳에 나누어 조성하게 하라.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이해하도록 하라.”

9월에 소덕(小德)³⁶⁵ 고향박사흑마려(高向博士黑麻呂; 타카무쿠노하카세쿠로마로)³⁶⁶를 신라에 파견하여³⁶⁷ 질(質)³⁶⁸을 바치게 하였다. 임나의 조(調)를 바치

360 각각의 氏名을 가지고 王(천황)의 지배하에 있는 민을 의미한다.

361 『令義解』 官位令에는 ‘大臣 이하 書吏 이상을 官이라 하고 一品 이하 初位 이상을 位라 한다. 위에는 귀천, 관에는 고위가 있고, 각기 등급이 있다.’고 적혀 있다.

362 대화 원년 8월에 동국국사에게 신정의 방침을 제시하였고, 2년 3월에는 이들의 귀경을 기다려 그 공과를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가리킨다.

363 『養老令』 田令 從便近條에는 「凡給口分田，務從便近，不得隔絕」이라고 적혀 있다.

364 개신의 조 네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日本書紀通釋』에서는 이를 衍文이라 적고 있다.

365 推古朝 12관위 가운데 제2위에 해당된다.

366 분주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高向博士黑麻呂는 高向史玄理라고도 부른다. 河內國 錦部郡 古向村(현재 大阪府 河內長野市 高向) 출신이다. 白雉 5년 2월에 견당압사로 당에 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 9월조 참조.

367 개신정권이 성립한 뒤 외국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이다. 개신정권의 외교 노선에 관해서

는 것을 중지하게 하였다³⁶⁹[후마려의 다른 이름은 현리(玄理 ; 구엘리)이다.].

이 달에 천황이 하마행궁(蝦蟇行宮 ; 카하즈노카리미야)³⁷⁰[어떤 책(或本)에는 이궁(離宮)이라고 한다.]에 행차하였다.

이 해에 월국의 쥐가 주야로 동쪽으로 옮겨 갔다.

3년 봄 정월 무자삭 임인(15일)에 조정에서 활을 쏘았다³⁷¹. 이 날에 고구려,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파견하여 조부를 바쳤다.

여름 4월 정사삭 임오(26일)에 조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신[惟神][惟神은 신도(神道)에 따름을 말한다. 또 스스로 신도를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은 그 자손에게 다

는 소아씨에 의한 親百濟노선에서 중대형-중신검족 등에 의한 친신라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설, 조정 내부에 대립하는 두 개의 권력인 친백제파와 친신라, 친당파에 의한 이원적 분열외교로 보는 설, 대립하는 신라와 백제의 균형 위에 양국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하여 공납수령체제를 유지했다는 설, 대화 연간의 일본, 신라, 당의 3국연합체제에서 백치 연간의 신라, 백제 등거리 외교로 전환했다는 설, 642년 이래 일관된 친백제책을 취했다는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368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전기 9년 겨울 10월조 質 참조.

369 본 기사에 대해 신라의 임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임나가 바쳐 온 임나의 조를 신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대화 2년에 와서 폐지하고, 인질을 바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임나 지배가 부정되고 있고 이후의 인질기사가 인질이 아닌 외교 사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향후마려의 신라 파견 목적은 개신정권의 정통성을 알리고 신라에 대한 우호적인 목적을 전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또한 『구당서』 왜국전에는 ‘貞觀 22년(648)에 新羅가 표를 바쳤다.’고 기록되었으므로, 646년에 신라에 입국한 고향후마려는 630년의 제1차 견당사와 632년의 당나라 사절 高表仁이 왜에 온 이후 단절되었던 왜국의 대당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 측에 그 중개를 요청할 목적으로 교섭사절의 사명을 띠고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370 攝津國 東生郡, 西成郡에 있는 高津(현재 近畿 上本町 六丁目 부근)이라는 설과 東生郡의 比賣許曾社가 있는 高津(현재 根鐵 鶴橋驛 부근)이라는 설이 있다.

371 조정의 연중행사 가운데 하나인 射禮를 의미하는 듯하다. 『日本書紀』 清寧天皇 4년 9월 조에 보인다. 정월에 射禮를 행한 것은 이 기사가 처음이다. 『養老令』 雜令 大射者條에는 「凡大射者, 正月中旬, 親王以下初位以上皆射之,」라고 적혀 있다.

스리도록 위임하셨다. 이렇게 천지의 시작부터 천황이 이 나라에 군림하였다³⁷². 신무천황³⁷³이 나라를 다스린 때부터 천하의 백성들이 평등하여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즈음³⁷⁴ 신의 이름과 천황의 이름을 가지고 나뉘어서 신, 연을 칭하는 씨족이 되거나, 조(造) 등을 칭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의 차이를 고집하고 구별하는 마음이 생겨 이름을 지키려 하고 있다. 또한³⁷⁵ 변변치 못한 신, 연, 반조, 국조들은 자신들의 성으로 갖고 있던 신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람들이나 이곳저곳[前前處處][전전이라 함은 사람들을 가리킨다.]에 붙이고 있다. 그래서 신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뇌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비로 들어가 깨끗한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게 되어 나라의 정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천신의 뜻대로 천하를 다스려야만 할 때이므로, 이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뒤로 할 것인가 오늘 내일이라도 계속하여 조를 내리겠다. 그러나 원래 천황의 은혜를 입고 옛 풍속에 익숙한 백성들은 조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황자, 군신부터 여러 백성에 이르기까지 용조(庸調)로 거둔 물건을 녹으로 하여 하사하겠다.”

이 해에 소군(小郡)³⁷⁶을 열고 궁전을 세웠다. 천황은 소군궁(小郡宮; 오고호리노

372 『日本書紀』神代 上 四神出生章에서 伊奘諾尊, 伊奘冉尊 두 신이 천하의 주인인 황조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73 원문은 始治國皇祖(하츠쿠니시라시시스메미오야)이다. 『日本書紀』신무천황 원년 정월 조에서는 신무천황을 始馭天下之天皇(하츠쿠니시라시시스메라미코토)이라 하고, 승신 천황 12년 9월조에서는 승신천황을 御肇國天皇(하츠쿠니시라시시스메라미코토)이라고 기재하였다.

374 대화 2년 8월 14일의 詔「其假借王名爲伴造,」와 같은 내용이다.

375 대화 2년 8월 14일의 詔에 나오는 「而始王之名名, 臣連, 伴造, 國造, 分其品部別彼名名,」이라는 내용과 같다.

미야³⁷⁷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법을 정하였다. “무릇 관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시(寅時)³⁷⁸에 남문³⁷⁹ 밖에서 좌우로 줄을 서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려 뜰에 들어가 재배하고 청사에 들어가 근무하라. 지각하는 사람은 들어가 근무할 수 없다. 오시(午時)³⁸⁰가 되어 종소리³⁸¹를 듣고 퇴근하라. 종을 치는 관리는 붉은 두건³⁸²을 앞으로 늘어뜨려라. 종을 놓는 대(臺)는 중정(中庭)³⁸³에 세워라.” 공인(工人)³⁸⁴ 대산위(大山位)³⁸⁵ 왜한직황전정비라부(倭漢直荒田井比羅夫; 야마토노 아야노아타히아라타웨노히라부)³⁸⁶는 수로를 잘못 파서 난파에 물을 끌어들여 다시 파게 되어 백성을 힘들게 하였다. 그래서 상소하여 간언하는 사람이 있었다. 천황이 “경솔하게 비라부의 잘못된 말을 듣고 수로를 잘못 판 것은 짐의 과실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날로 요역은 중지되었다.

376 難波의 小郡에 있었던 영빈시설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민달천황 12년 시세조 참조.

377 難波宮을 가리킨다.

378 오전 3시부터 5시에 해당된다.

379 小郡宮의 南門이다.

380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해당된다.

381 『日本書紀』 서명천황 8년 7월조에서는 「自今以後，卯始朝之，已後退之，因以鍾爲節。」이라 적고 있다. 『양로령』 官衛令 開閉門條에서는 鐘鼓로 알린다고 적혀 있다. 『令義解』에서는 「凡京官，皆開閉門前上[謂，第二開門鼓前也。]閉門後下[謂，退朝鼓後也。]」라 적고 있다.

382 『書紀集解』에서는 ‘周代에 궁중을 경호하고 시간을 알렸던 鷄人이 머리에 쓴 진홍빛 머리싸개인 絳幘과 같은 것.’이라 적고 있다.

383 庭과 廳이 있는 一郭(뒷날 朝堂院)의 안쪽에 천황이 생활하는 건물(뒷날 內裏)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뜰을 中庭이라 한 것이다.

384 토목기술자를 말한다. 백치 원년 20월 갑신조 將作大匠 참조.

385 大化 5년에 제정한 관위 19계 가운데 제11, 12위를 大山上, 大山下라 칭하였으므로, 이 관위는 追記일 가능성이 있다.

386 大化 원년 7월조의 倭漢直比羅夫와 동일 인물이다. 白雉 원년 10월조에는 荒田井直比羅夫라 적혀 있다.

겨울 10월 갑인삭 갑자(11일)에 천황이 유간온탕³⁸⁷에 행차하였다. 좌우대신³⁸⁸, 군경대부가 이를 따라갔다.

12월 그믐에 천황이 온탕을 끝내고 돌아갈 때 무고행궁(武庫行宮; 무코노카리미야)³⁸⁹[무고는 지명이다.]에 머물렀다. 이때 황태자궁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해에 7색(色)³⁹⁰ 13계(階)의 관제(冠制)를 만들었다³⁹¹. 첫째는 직관(織冠)이다. 대소(大小) 2등급이 있다. 관은 무늬 있는 비단[織]으로 만들고, 관의 테두리에 수를 놓는다. 옷의 색깔은 짙은 자색을 사용한다. 둘째는 수관(繡冠)³⁹²이다. 관은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다. 대소 2등급이 있다. 관의 테두리를 수놓는 것과 옷의 색깔은 직관과 같다. 셋째는 자관(紫冠)이다. 대소 2등급이 있다. 관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고, 무늬 있는 비단으로 관의 테두리를 만든다. 옷의 색깔은 연한 자주색을 쓴다. 넷째는 금관(錦冠)이다. 대소 2등급이 있다. 대금관(大錦冠)³⁹³은 대백선금(大百仙錦)³⁹⁴으로 만들고, 무늬 있는 비단으로 관의

387 『석일본기』에는 「攝津國風土記曰，有馬郡，又有鹽之原山，此山近在鹽湯，此邊因以爲名。」이라 적혀 있다. 현재 兵庫縣 神戸市 北區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서명천황 3년 9월조 有間溫湯 참조.

388 阿倍內麻呂와 蘇我倉山田石川麻呂를 가리킨다.

389 武庫는 『日本書紀』 神功皇后攝政 원년조의 務古水門, 응신천황 31년 8월조의 武庫水門 참조. 행궁지는 난파에서 유간온천으로 연결되는 古道가 통과하는 武庫川 西岸(현재 寶塚市の 高司, 小林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390 관위 12계의 제정은 추고조의 관위제와 같은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 보는 설과, 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원리상으로도 형태상으로도 크게 다른 것이라 보는 설이 있다.

391 ‘織, 繡, 紫, 錦, 青, 黑’의 6관이 大小로 나누어져 된 12계에 建武冠을 더해서 13계가 된다. 12계제는 유교의 덕목을 관위의 명칭으로 삼은 데 비해, 13계제에서는 관을 만드는 직물(織, 繡)과 색(紫, 青, 黑) 등을 명칭으로 삼고 있다.

392 繡는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려 다양한 문양을 나타낸 비단을 가리킨다.

393 대금관, 소금관은 『鄴中記』에 기재된 「織錦署在中尚方，錦有大登高，小登高，大明光，小光明，大博山，小博山 … 工巧百數，不可盡名也，」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테두리를 만든다. 소금관(小錦冠)은 소백선금(小伯仙錦)으로 만든다. 대백선금으로는 관의 테두리를 만든다. 옷 색깔은 진홍색을 사용한다. 다섯째는 청관(靑冠)이다. 푸른 비단(靑絹)으로 만든다. 대소 2등급이 있다. 대청관(大靑冠)은 대백선금으로 관의 테두리를 만든다. 소청관(小靑冠)은 소백선금으로 관의 테두리를 만든다. 옷의 색깔은 남색을 사용한다. 여섯째는 흑관(黑冠)이다. 대소 2등급이 있다. 대흑관(大黑冠)은 거형(車形)비단³⁹⁵으로 관을 만든다. 소흑관(小黑冠)은 능형(陵形)비단으로 관을 만든다. 옷의 색깔은 녹색을 사용한다. 일곱째는 건무(建武)³⁹⁶이다[초위(初位)³⁹⁷ 또는 입신(立身)이라 한다³⁹⁸]. 검정 비단(黑絹)으로 만들고, 관의 테두리는 남색(紺)을 댄다. 이외에 등관(鎧冠)이 있다. 검정 비단으로 만든다. 이 관의 배(背)³⁹⁹에는 얇은 비단(漆羅)을 대고, 테두리와 장식(釧)⁴⁰⁰으로 관 위의 고하를 나타낸다. 장식의 형태는 매미와 닮았다. 소금관 이상의 장식은 금과 은을 섞어 만들고, 대소청관의 장식은 은으로 만든다. 대, 소 흑관의 장식은 동으로 만든다. 건무의 관은 장식이 없다. 이들 관은 대회(大會)⁴⁰¹, 향객(饗客)⁴⁰²,

394 錦은 두 가지 색 이상의 실로 짜서 무늬를 낸 견직물이다. 大伯仙과 小伯仙 등은 그 무늬의 형태이다. 大伯仙과 小伯仙은 唐代書인 『初學記』에 비단의 일종으로 제시된 大博山과 小博山을 말하는 것으로, 海中에 있다고 하는 博山을 본뜬 문양으로 大小의 차이는 무늬의 크기 차이에 따른 것이다.

395 車形과 陵形은 비단의 무늬에 따른 구분이다.

396 推古朝의 관위 12계에 대응되는 것이 없지만, 『日本書紀通證』과 『書紀集解』에서는 鷄의 깃털로 장식한 관으로 漢代에는 무관이나 隱士나 賤子도 사용했다고 적고 있다.

397 최하위의 관이다.

398 大化 5년제에서는 최하위 관위가 立身이다. 『養老令』에서는 初位에 해당된다.

399 冠背란 관의 두건 부분을 비단을 재로 하여 만들고 옷칠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당대 군신의 禮冠인 進賢冠을 모방한 것이라 간주된다.

400 관의 정면에 붙인 장식을 가리킨다.

401 卽位, 元日の 의식 등을 의미하는 듯하다. 『養老令』衣服令 諸臣禮服條에 기재된 「大祀大嘗 元日則服之」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402 외국으로부터 온 사신을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 『養老令』職員令 大宰府條에 보이는 大

4월⁴⁰³과 7월⁴⁰⁴의 재일(齋日)⁴⁰⁵에 쓴다. 신라가 상신(上臣)⁴⁰⁶ 대아찬 김춘추⁴⁰⁷ 등을 파견하여⁴⁰⁸ 박사 소덕(小德) 고향흑마려(高向黑麻呂), 소산중(山中)⁴⁰⁹ 중신

宰帥의 직장에 ‘蕃客, 歸化, 饗讌’ 등이 포함되어 있다.

403 灌佛會는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법회를 가리킨다.

404 盂蘭盆會는 원래 安居를 마치는 날에 여러 승려들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뒤에는 7월 15일에 승려들을 접대하고 공양하여, 그 쌓은 공덕을 죽은 조상에게 돌림으로써 조상의 혼령이 고통스런 사후세계에서 구제되기를 기원하는 불교 행사를 가리킨다.

405 법회에서 식사를 공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4년 4월조 設齋 참조.

406 신라에서는 일본의 ‘大臣’에 해당되는 존재를 上臣이라 한다. 『日本書紀』 계제천황 23년 4월 시월조 上臣 참조.

407 김춘추는 신라 제29대 왕(604~661, 재위 : 654~661)이다. 眞智王의 손자로 伊湊 龍春(또는 龍俊)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眞平王의 딸인 天明夫人이고, 비는 金庾信의 누이동생 文明夫人이다. 당시 김춘추는 왕위 찬탈을 노린 비담의 난을 수습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다. 『三國史記』에는 진덕왕 2년(684) 김춘추가 당에 사신으로 가서 구원을 청해 당 태종이 허락한 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 간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신라는 관산성 전투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한반도에서 고립되고 있었다. 따라서 김춘추가 도일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신라는 선덕왕 11년(642) 7월에 백제에게 서쪽 변경의 40여 성을 빼앗기고, 8월에는 대야성을 함락당함과 함께 김춘추의 사위였던 都督 伊湊 品釋이 그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신라는 그해 겨울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고구려가 竹嶺 서북의 땅을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섭은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648년에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서 구원을 청했다. 요컨대 김춘추는 신라의 왕족으로 김유신과 함께 善德, 眞德 두 여왕을 보필하였으며, 뒤에 즉위하여 태종무열왕이 되어 한반도 통일을 추진했다. 642년 신라가 백제의 침입을 받아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정토하고자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고, 648년에는 당에도 들어가 외교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408 『三國史記』에는 진덕왕 2년에 김춘추가 渡唐한 기록은 보이지만 그의 渡倭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도왜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毗曇의 난’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김춘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점과 청병을 위해 渡唐한 사실 등에 의거하여 김춘추의 渡倭는 사실로 볼 수 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간 642년과 당에 간 648년의 사이에 해당되는 647년에 일본에 간 것이다. 또한 친백제 정권을 표방하던 蘇我氏를 타도하고 들어선 改新政權으로서 신라, 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大化 3년 신라에 왔던 高向玄理는 이듬해 김춘추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다. 당시 김춘추는 왕위 찬탈을 계획한 상대등 비담의 난을 수습하고 신라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최고

런압웅(中臣連押熊; 나카토미노무라지오시쿠마)⁴¹⁰을 보내 공작새⁴¹¹ 한 쌍과 앵무새⁴¹² 한 쌍을 바쳤다. 그리고 춘추를 질(質)로 삼았다. 춘추는 용모가 준수하고 담소를 잘하였다.⁴¹³ 정족책(淳足柵; 누타리노키)⁴¹⁴을 만들고 책호(柵戶)⁴¹⁵를

정점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도에는 개신정권으로부터 친신라 노선을 확약받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이해된다.

409 天智天皇 3년의 관위 26계 중 제18위에 해당된다.

410 여기에만 보인다.

411 『日本書紀』 추고천황 6년 8월 기해조와 『속일본기』 문무천황 4년 10월 계해조에도 신라에서 공작새를 보낸 기사가 보인다.

412 『日本書紀』에서 앵무새가 처음으로 등장한 기사이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2년 시세조와 천무천황 14년 5월 신미조에도 신라에서 앵무새를 보낸 기사가 보인다.

413 『日本書紀』에서 김춘추에 대해 ‘춘추의 용모가 수려하고 담소를 잘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김춘추는 아마토 정권의 지배층에 우호적인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에게 친신라 노선을 전달한 改新政權으로서의 다음해 입당한 김춘추야말로 632년 이래 단절되었던 唐과의 관계를 타개해 줄 적임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입당하는 김춘추에게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유학생 등을 받아줄 것을 당에 요청하는 표를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 외교를 일단락시킨 김춘추는 개신정권의 對唐 상표문을 가지고 귀국, 이듬해 입당하여 당과 일본 간의 통교를 중개하게 된다. 이어 649년 金多遂가 일본에 파견되어 김춘추가 중개 역할을 한 결과를 전했다. 그리고 653년과 654년에 연이어 일본에서 견당사가 파견되고 있는 사실은 김춘추의 중개외교가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신라에 와서 김춘추를 데리고 간 押使 高向玄理를 수석으로 하고, 推古 31년(623) 당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친신라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했던 副使 惠日이 포함된 654년의 견당사 때에는 「留連數月, 取新羅道。」라고 적혀 있듯이 사절단이 신라를 경유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신라에 체재하다가 당으로 들어가고 있어 改新政權의 대신라 관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우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춘추의 외교는 마침내 ‘신라-당-일본’의 3국 연합이라는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414 일본 최초의 성책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越國 북부의 淳垂郡에 비정되고 있다. 현재 北蒲原郡, 新發田市, 豊榮市와 新潟市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추정한다. 1990년 新潟市 서남방 三島郡 和島村 八幡林유적에서 養老의 年紀와 ‘沼垂城’이라는 목서가 있는 목간과 토루 등이 발견된 바 있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7월 갑신조에는 「授淳足柵造大伴君稻積小乙下。」라 적혀 있다.

415 일본 동북지방에 설치된 군사 시설을 柵이라 칭하며, 여기에 배치하기 위해 이주시킨 백

두었다. 노인들이 “수년 동안 쥐가 동쪽으로 향하여 간 것은 이 책⁴¹⁶을 만들 전조였던가⁴¹⁷.”라고 서로 말하였다.

4년 봄 정월 임오삭(1일)에 신년하례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저녁 천황이 난파기궁(難波碕宮 ; 나니하노사키노미야)에⁴¹⁸ 행차하였다.

2월 임자삭(1일)에 삼한(三韓)[三韓이라 함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한다.]에 학문 승⁴¹⁹을 파견하였다⁴²⁰. 기미(8일)에 아배대신(阿倍大臣 ; 아베노오호오미)⁴²¹이 사 중(四衆)⁴²²을 사천왕사(四天王寺)⁴²³에 초청하여 불상 4구를 맞아서 탑 속에 안

성이 柵戶이다.

416 柵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첫째, 군사적 기능으로 제명천황기에 阿倍比羅夫가 책에 속한 병력인 柵戶와 柵養하이를 동원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둘째, 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을 관할하는 官衙로서의 행정적 기능이다. 셋째, 교역센터로서 역할을 하였다. 책 관련 유적이 수운이 편리한 지역에 있었고 책 유적에서는 교역과 교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재한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이를 지배하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책에서 행해진 하이의 조공을 통해 왜와 하이는 정치적 관계도 맺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였다.

417 대화 2년 시세조에 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418 『書紀集解』에서는 崎자 위에 豐자를 보충하여 적고 있다. 대화 원년 12월조 難波長柄豐碕 참조.

419 한반도는 물론이고 수와 당에 파견되는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주로 불교에 관한 것을 배우는 승려를 학문승이라 불렀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 9월조 學文僧 참조.

420 본조에서는 삼한에 학문승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주에는 三韓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421 좌대신 阿倍內麻呂를 가리킨다. 효덕즉위전기 阿倍內麻呂臣 참조.

422 四衆은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를 가리킨다.

423 『日本書紀』 추고천황 원년(593) 시세조에 荒陵에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推古 31년에는 신라에서 보내온 舍利, 金塔, 灌頂幡 등을 四天王寺에 봉납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므로, 推古 말년에 현재의 위치에 대체로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통설에 대해서 孝德朝 창건설, 阿倍氏 창건설, 難波吉士의 氏寺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발

치하였다. 영취산(靈鷲山)⁴²⁴의 형태로 북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⁴²⁵.

여름 4월 신해삭(1일)에 이전의 관제⁴²⁶를 폐지하였다. 좌우대신은 여전히 이전의 관을 착용하였다⁴²⁷.

이 해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반주책(磐舟柵; 이하후네노키)⁴²⁸을 정비하여 하이(蝦夷; 에미시)에 대비하였고, 월(越; 코시)과 신농(信濃; 시나노)의 백성을 뽑아 처음으로 책호(柵戶)로 삼았다.

5년 봄 정월 병오삭(1일)에 신년하례 의식을 거행하였다.

2월에 관위 19계(冠位十九階)를 만들었다⁴²⁹. 첫째가 대직(大織), 둘째가 소직(小織), 셋째가 대수(大繡), 넷째가 소수(小繡), 다섯째가 대자(大紫), 여섯째가 소자(小紫), 일곱째가 대화상(大花上)⁴³⁰, 여덟째가 대화하(大花下), 아홉째가 소화상(小花上), 열째가 소화하(小花下), 열한째가 대산상(大山上)⁴³¹, 열두째가 대산하(大山下), 열셋째가 소산상(小山上), 열넷째가 소산하(小山下), 열다섯째가 대을

굴조사 성과에 기초하면 탑과 금당 등의 건물은 飛鳥시대에 완성되었으므로, 절의 창건은 7세기 초두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424 佛國淨土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20년 시세조 須彌山 참조.

425 북을 이용하여 만들었거나 북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426 새로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추고조에 제정한 12階冠制를 폐지한 것이다.

427 추고조에 제정된 12계관제에서 대신은 자관을 썼다. 그런데 새로운 관제에서 자관은 세 번째 관위에 해당되어 대신이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었다.

428 고대 일본의 城柵 가운데 하나로 越國에 들어진 것이다. 石船柵이라고도 쓴다. 정확한 장소는 판명되지 않고 있다. 『속일본기』 문무천황 2년 12월 정미조와 동 천황 4월 2일 기해조에 石船柵을 수리한 내용이 보인다.

429 대화 3년의 관위 13계와 비교하면 처음 6계는 이전과 같다. 나머지는 大小의 錦, 靑, 黑冠이라는 명칭을 花, 山, 乙로 상하로 나누었다. 마지막 관위인 建武는 立身이라 고친 것에 차이가 있다.

430 花는 華라고도 쓴다. 화는 꽃 모양의 관 모양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보기도 한다.

431 산은 산 모양의 관 모양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보기도 한다.

상(大乙上), 열여섯째가 대을하(大乙下), 열일곱째가 소을상(小乙上), 열여덟째가 소을하(小乙下), 열아홉째가 입신(立身)이다.

이 달에 박사 고향현리와 승려 민(旻; 민)에게 조를 내려 팔성⁴³²과 백관을 두게 하였다.

3월 기사삭 신유(17일)에 아배대신⁴³³이 죽었다(薨). 천황이 주작문⁴³⁴에 나가서 애도 의식을 거행하고 크게 통곡하였다. 황조모존⁴³⁵, 황태자⁴³⁶ 등과 공경이 모두 따라 통곡하였다. 무진(24일)에 소아신일향(蘇我臣日向; 소가노오미히 무카)⁴³⁷[日向의 자(字)는 신자(身刺; 무자시)이다.]⁴³⁸은 황태자에게 창산전대신(倉山田大臣; 쿠라로야마다노오호오미)⁴³⁹을 모함하였다. “저의 이복형 마려가 황태자가 해변에서 쉬는 때를 노려 해치려 합니다. 모반이 멀지 않았습시다.” 황태자는 그 말을 믿었다. 천황은 대반박련(大伴狛連; 오호토모노코마노무라지)⁴⁴⁰, 삼

432 八省은 율령제의 中務, 式部, 治部, 民部, 兵部, 刑部, 大藏, 宮内省을 총칭한 것이다. 대화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표현은 『日本書紀』 편찬자의 윤색이라 이해하는 입장과 신정 개시 이후 4년 정도 경과한 무렵이므로 중앙정부의 신관제가 거의 구비된 것이라 이해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433 左大臣 阿陪倉梯麻呂(阿陪内麻呂)를 가리킨다. 효덕즉위전기 阿陪内麻呂 참조.

434 궁성 남쪽에 중앙에 있는 정문을 의미하지만, 대화 5년경에 난파궁의 정문을 주작문이라 칭했는지는 의문이다.

435 皇極上皇을 가리킨다.

436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437 『藤氏家傳』 대직관전에는 「先作婚姻之昵, 然後布心腹之策, 中大兄從之, 遂聘女于山田臣之家, 山田臣許之, 及于三春忽至, 百兩新迎, 其弟武藏, 挑女將去, 山田臣憂惶, 不知所爲, 少女在傍, 見父愁色,」이라 적혀 있다.

438 『日本書紀』 황국천황 3년 정월조에는 蘇我倉山田麻呂의 딸을 中臣鎌足이 중매하여 중대형황자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는데, 시집가는 당일에 武藏(身狹臣)이 빼돌렸다는 내용이 보인다.

439 右大臣 蘇我倉山田麻呂를 가리킨다. 蘇我入鹿 암살에 가담하였고, 장녀와 차녀를 중대형의 비로 들었다. 『日本書紀』 황국천황 3년 정월조 蘇我倉山田麻呂 참조.

국마려공(三國麻呂公 ; 미쿠니노마로노키미)⁴⁴¹, 수적교신(穗積嚙臣 ; 호즈미노쿠히노 오미)을 소아창산전마려대신에게 보내어 모반하러 하였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대신은 “물어보신 것에 관한 답은 제가 천황을 뵈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황은 다시 삼국마려공과 수적교신을 보내 모반에 관한 사정을 다시 물었으나, 마려대신은 또 이전과 같이 답하였다. 그래서 천황은 군사를 일으켜 대신의 저택을 포위하러 하였다. 그러자 대신은 두 아들 법사(法師 ; 호후시)⁴⁴²와 적저(赤猪 ; 아카웨)[다른 이름은 진(秦 ; 하타)이다.]⁴⁴³를 데리고 모정도(茅渟道 ; 치누노미치)⁴⁴⁴에서 왜국(倭國 ; 야마토노쿠니)의 경계로 도망쳤다. 대신의 장자인 흥지(興志 ; 코고시)⁴⁴⁵가 이전에 왜에 머물면서[산전(山田 ; 야마다)⁴⁴⁶의 집에 있었음을 말한다.] 절⁴⁴⁷을 지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버지가 도망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금래(今來 ; 이마키)⁴⁴⁸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맞이하여

440 여기에만 보인다.

441 백치 원년 2월 갑신조에 보인다.

442 여기에만 보인다.

443 ‘赤猪’는 여기에만 보인다. 주에 나오는 ‘하타’라는 訓에 대해서는 『만엽집』에서 ‘肌(하타)’의 音訓으로 ‘秦’자가 사용되고 있고, 『新撰姓氏錄』과 『고어습유』에서는 秦氏의 씨명 유래를 肌에서 찾고 있다. 진씨와 한씨는 왜국 내에서 활동한 유력한 한반도계 씨족이다. 9세기 초의 『新撰姓氏錄』에서는 자신들이 진과 한의 황족의 후예라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진(하타)씨의 경우는 6세기 중엽에 다양한 도래인을 규합하여 만든 의제적인 씨족 조직이라 간주되고 있다.

444 茅渟道란 難波 방면에서 茅渟을 거쳐 大和로 들어가는 길이다.

445 여기에만 보인다.

446 현재 奈良縣 櫻井市 山田에 山田寺址가 있다. 櫻井市에서 山田을 통해 明日香村으로 가는 길을 山田道라 부른다.

447 蘇我倉山田氏の 氏寺이다. 강당, 탑, 금당 등의 터가 남아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四天王寺式’ 가람이라고 한다. 『上宮聖德法王帝説』 裏書에는 「辛丑(舒明十三年)年始平地, 癸卯(皇極二年)年立金堂之, 戊戌(大化四年)年始僧住, 己酉(大化五年)年三月二十五日, 大臣遇害。」라고 적혀 있다.

데리고 절에 들어갔다. 대신을 돌아보며 “제가 직접 가서 오는 군사를 맞이해 싸우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신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날 밤에 홍지는 궁을 불태우려고 마음먹고 사졸들을 모았다[궁이라 함은 소간전궁(小鑿田宮; 오히리다노미야)⁴⁴⁹을 말한다.].

기사(25일)에 대신이 장자인 홍지에게 “너는 자신의 몸을 아끼느냐.”라고 말하였다. 홍지가 “아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신은 이에 산전사의 여러 승려들과 장자 홍지 등 수십 명에게 말하였다. “무릇 신하된 자가 어찌 군주에게 역심을 품겠는가. 또한 어찌 아비에 대한 효심을 잃겠는가. 무릇 이 절은 원래 내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천황을 위하여 서원하여 지은 것이다⁴⁵⁰. 지금 나는 신자⁴⁵¹의 무고로 부당하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다만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황천에 가고 싶다. 절에 온 이유는 조용히 죽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고 불전⁴⁵²의 문을 열고 “나는 영원히 군주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처자 중에 따라 죽는⁴⁵³ 사람이 8명이었다. 이 날에 대반박련과 소아일향신을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대신을 쫓게 하였다. 장군 대반련 등이 흑산(黑山; 구로야마)⁴⁵⁴에 이르렀을 때 토사련신(土師連身; 하지

448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 시세조의 今來(현재 御所市 古瀨)라고 보는 설이 있다.

449 『日本書紀』 추고천황 11년 10월조 小鑿田宮 참조.

450 「長谷寺銅版法華說相圖銘」에서는 「奉爲飛鳥淨御原大宮治天下天皇(天武)敬造」라고 적고 있고, 「栗原寺露盤銘」에서는 「奉爲大倭國淨美原宮治天下天皇時日并御宇東宮(草壁皇子)敬造伽藍之。」라고 적고 있다.

451 대신의 異母弟 蘇我臣日向을 가리킨다.

452 『上宮聖德法王帝說』 裏書에서는 「癸卯(皇極二)年立金堂之。」라고 적고 있는데, 바로 이 금당을 가리킨다.

453 대화 2년 3월의 조에서 순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 바 있다.

454 『和名類聚抄』에서는 「河內國丹比郡黑山郷」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 大阪府 南河內郡 美

노무라지무)⁴⁵⁵과 채녀신사주마려(采女臣使主麻呂; 우네메노오미오미마로)⁴⁵⁶가 산전사에서 달려와 “소아대신은 이미 3남 1녀와 함께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장군들은 단비판(丹比坂; 타지히노사카)⁴⁵⁷에서 돌아갔다.

경오(26일)에 산전대신의 처자 및 종자 가운데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수적신교는 대신의 부하인 전구신축자(田口臣筑紫; 타구치노오미즈쿠시)⁴⁵⁸ 등을 잡아서 목갈⁴⁵⁹을 채우고 손을 뒤로 묶었다. 이 날 저녁 목신마려(木臣麻呂; 키노오미마로)⁴⁶⁰, 소아신일향, 수적신교가 군사를 이끌고 절을 에워쌌다. 그리고 물부이전조염(物部二田造鹽; 모노노베노후츠타노미야즈코시호)⁴⁶¹에게 명하여 대신의 목을 베게 하였다. 이에 이진염은 큰 칼을 빼서 그 시체를 찢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머리를 베었다.

갑술(30일)에 소아산전대신과 연좌하여 살해된 사람은 전구신축자, 이리도덕(耳梨道德; 미미나시노다우토코)⁴⁶², 고전추(高田醜; 타카타노시코)[醜는 시코(之

原町 黒山 일대를 가리킨다.

455 여기에만 보인다. 土師連은 『新撰姓氏錄』山城國 神別 土師宿禰條에서는 天穗日命의 14세손 野見宿禰의 후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456 여기에만 보인다. 『新撰姓氏錄』和泉國 神別 采女臣條에는 神饒速日命의 6세손 伊香我色雄命의 후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457 丹比는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서부, 美原町 동부, 松原市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458 여기에만 보인다.

459 『令集解』獄令에 인용된 『古記』에서는 ‘枷는 목에, 杻는 발에 채우는 기구’라고 적고 있다. 『令義解』도 마찬가지이다. 死罪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枷나 杻을, 流罪에 해당되는 경우는 枷를 사용했다.

460 여기에만 보인다.

461 율령제에서 物部는 衛門府에 소속되어 형의 집행을 담당한 伴造였다. 『新撰姓氏錄』右京 未定雜姓 二田物部條에서는 「神饒速日命天降之時從者, 二田天物部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先代舊事本紀』에서는 「五部造, 一曰, 二田造, 又天物部二十五部, 一曰, 二田物部,」라고 적고 있다.

渠)라고 읽는다.]웅(雄; 오)⁴⁶³, 액전부탕좌련(額田部湯坐連; 누카타베노유에노무라지)⁴⁶⁴[이름이 빠졌다.], 진오사(秦吾寺; 하다노아테라)⁴⁶⁵ 등 모두 14명이었다. 교수형⁴⁶⁶에 처해진 사람은 9명이고, 유배형⁴⁶⁷에 처해진 사람은 15명이었다.

이 달에 사신을 보내어 산전대신의 재산⁴⁶⁸을 몰수하였다. 재산 가운데 좋은 책 위에는 황태자의 책이라 쓰여 있었으며, 귀중한 보물 위에는 황태자의 물건이라 쓰여 있었다. 사신이 돌아와 재물을 거두어 들인 상황을 보고하였다. 황태자⁴⁶⁹는 비로소 대신의 마음이 올바르고 깨끗하였음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슬퍼하고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곧 일향신을 축자대재수(筑紫大宰帥)⁴⁷⁰에 임명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로는 유배형⁴⁷¹이 아닐까.”라고 말하였다. 황태자비 소아조원(蘇我造媛; 소가노미야츠코노히메)⁴⁷²은 아버지인

462 여기에만 보인다. 大和三山 가운데 하나로 耳梨山이 있으므로, 耳梨라는 씨가 지명에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463 여기에만 보인다. 古田氏は『新撰姓氏錄』右京 諸蕃 高田首條에는「出自高麗國人多高子使主也.」라고 적혀 있다.

464 『新撰姓氏錄』左京 神別 額田部湯坐連條에서는「天津彦根命子明立天御影命之後也.」라고 적고 있고, 河內國 神別 額田部湯坐連條에서는「天津彦根命五世孫乎田部連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465 여기에만 보인다.

466 律의 五刑 가운데 하나인 사형에는 絞, 斬刑 두 가지 종류가 있다.

467 『日本書紀』추고천황 9년 9월 무자조에는 신라 간첩을 上野에 유배한 기사가 보인다.

468 『養老令』賊盜律 謀反條에는 ‘모반자는 斬하고, 그 父子, 家人, 資財, 田宅 등은 沒官한다.’고 적혀 있다.

469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470 筑紫大宰는 『日本書紀』추고천황 17년 4월조에 보이지만, 축자수는 여기에서 처음 나온다. 『대보령』에서는 大宰帥이며, 천지천황 7년 7월조에는 筑紫率로 나온다. 『속일본기』문무천황 4년 6월조에는 ‘竺志惣領’, 동 10월조에는 ‘筑紫惣領’이라 표기되었으며 축자의 장관이다.

471 원문은 隱流이다.

472 美濃津子娘이라고도 한다. 蘇我山田石川麻呂의 딸로 遠智娘이라고 부른다. 『日本書

대신이 염에게 목이 베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염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였다. 이 때문에 조원의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자는 염이라 부르는 것을 꺼려하여 견염(堅鹽; 키타시)⁴⁷³이라 불렀다. 조원은 상심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 황태자는 조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해하며 울었다. 이에 야중천원사만(野中川原史滿; 노나카노카하라 노후비토미즈)⁴⁷⁴이 나아가 노래를 바쳤다.

산속 시냇가에 원앙새 한 쌍처럼 사이좋던 그녀를 누가 데려 갔나. [첫째 노래]⁴⁷⁵
나무마다 꽃은 피어나건만 어찌하여 사랑스런 그녀는 다시 피어나지 않는가.
[둘째 노래]

황태자는 탄식하며 “좋은 노래구나, 슬픈 노래구나.”라고 칭찬하였다. 이에 금(琴; 코토)을 주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비단 4필, 삼베 20단, 명주솜 2과⁴⁷⁶를 주었다.

여름 4월 을묘삭 갑오(20일)에 소자(小紫)⁴⁷⁷라는 관위를 내리고, 거세덕타

紀』 천지천황 7년 2월조에는 「有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女，曰遠智娘[或本云，美濃津子娘.]」이라 적혀 있다.

473 『古事記』 흙명천황단에서는 「又娶宗賀之稻目宿祢大臣之女，岐多斯比賣。」라고 적혀 있고, 『帝說』에서는 大后라 적혀 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20년 2월조에는 皇太夫人堅鹽媛을 檜隈大陵에 改葬한 기사가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흙명천황 2년 3월조 堅鹽媛 참조.

474 河原(川原)連에 관한 기록은 『新撰姓氏錄』 河內國 諸蕃 河原連條와 野上連條 등에 보인다.

475 其一, 其二是 『文選』의 시 가운데에 한 수가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될 경우, 각 장의 마지막에 기록하는 형태이다. 이것을 『日本書紀』 편자가 註記한 것이다.

476 褰는 자루나 포대(袋)에 넣은 물건을 세는 단위이다.

477 大化 5년의 19계 관위의 제6위에 해당된다.

고신(巨勢德陀古臣; 코세노토크다코노오미)⁴⁷⁸에게는 대자(大紫)⁴⁷⁹라는 관위를 내려 좌대신으로 삼았다. 소자 대반장덕련(大伴長德連; 오호토모노나가토코노무라지)⁴⁸⁰[자는 마사(馬飼; 우마카히)이다.]에게 대자를 내려 우대신으로 삼았다.

5월 계묘삭(1일)에 소화하(小花下)⁴⁸¹ 삼륜군색부(三輪君色夫; 미와노키미시코부), 대산상(大山上)⁴⁸² 소부련각마려(掃部連角麻呂; 카니모리노무라지츠노마로)⁴⁸³ 등을 신라에 파견하였다.

이 해에 신라왕이 사탁부(沙喙部)⁴⁸⁴ 사찬(沙漣) 김다수(金多遂)⁴⁸⁵를 보내 질로 삼았다. 시종은 37명이었다[승려 1명, 시랑(侍郎)⁴⁸⁶ 2명, 승(丞)⁴⁸⁷ 1명, 달관랑(達官

478 자세한 내용은 대화 원년 10월조 巨勢德太臣 참조.

479 大化 5년의 19계 관위의 제5위에 해당된다.

480 馬飼는 馬養이라고도 한다. 『日本書紀』 서명천황 3년 10월 신해삭조 大伴連馬養 참조.

481 大化 5년의 19계 관위의 제10위에 해당된다.

482 大化 5년의 19계 관위의 제11위에 해당된다.

483 여기에만 보인다. 掃部連은 掃守連이라고도 한다. 鋪設에 관한 업무를 대대로 職으로 삼은 伴造의 씨인이다.

484 신라 6부 가운데 하나이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8년 7월조 沙喙部 참조.

485 중국 측 기록인 『文館詞林』 644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에는 ‘去年에 김다수가 귀국할 때에 璽書를 전하며 당의 고구려 공격 계획을 알리고 신라가 당의 수군과 함께 군사행동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資治通鑑』 唐紀 太宗 貞觀 17년 (643) 9월 경진조에는 신라의 원병 요청을 받은 직후 당 태종이 司農丞 相里玄獎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친다면 다음해에 출병하겠다는 내용의 새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보인다. 즉 신라 조정에서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성과를 올린 김다수를 왜국에 파견한 것은 김춘추가 당에서 귀국한 648년의 이듬해로, 김춘추가 후대해 간 왜왕의 상표문에 대한 당 측의 반응, 즉 왜왕권의 대당통교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전하고 김춘추가 왜에 왔을 때 확실한 신라, 왜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다수의 도왜 이후 653년과 654년 연달아 2차, 3차 견당사가 파견된 것으로 보아 대당통교가 재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6 『삼국사기』 職官志에 신라 경덕왕대에 省, 部 등의 차관을 侍郎으로 고친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487 『養老令』 職員令 中務省條에서는 八省의 3등관을 丞이라 부른다.

郎)⁴⁸⁸ 1명, 중객(中客)⁴⁸⁹ 5명, 재기(才伎)⁴⁹⁰ 10명, 통역⁴⁹¹ 1명, 종자⁴⁹² 16명, 모두 37명이다.].

백치⁴⁹³ 원년 봄 정월 신축삭(1일)에 천황⁴⁹⁴이 미경궁(味經宮; 아지후노미야)⁴⁹⁵에 행차하여 신년하례 의식에 참여하였다[味經은 아지후(阿膩賦)라고 읽는다.]. 이 날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2월 경오삭 무인(9일)에 혈호국사(穴戶國司)⁴⁹⁶ 초벽련추경(草壁連醜經; 쿠사카베노무라지시코부)⁴⁹⁷이 백치(白雉)⁴⁹⁸를 바치며 “국조 수(首)의 동족 지(贊; 니

488 『禮記』檀弓篇에서는「達官，謂國之卿大夫士被君命者，」라 적고 있다. 郎은 중국의 관명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達官郎도 중국의 관명과 유사한 命名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489 次席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日本書紀』천무천황 2년 8월조와 황극천황 원년 8월조에 신라와 백제의 중객에 관한 사료가 보인다.

490 技藝에 능한 사람을 칭한다. 才伎(者)는 『日本書紀』웅략천황 7년 시세조와 동 14년 정월조, 인현천황 6년 9월조, 제명천황 원년 시세조 등에서 확인된다.

491 『日本書紀』추고천황 16년 9월조 奈羅譯語惠明 참조.

492 원문은 雜僊人이다. 『集韻』에는「僊，侍從也，」라고 적고 있다. 『延喜式』藏式에는 ‘유학생이나 학문승에게는 몇 사람씩 시중을 드는 僊人(僊從)이 관비로 붙여진다.’고 적고 있다.

493 穴戶國司의 白雉 헌상을 상서로 삼아 대화 다음의 연호를 백치로 정하였다.

494 원문은 車駕이다. 車駕는 『養老令』儀制令 天子條에서「車駕行幸所稱，」이라고 적고 있듯이, 천자가 行幸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다.

495 백치 2년 12월조에도 보인다. 성무천황이 난파에 행차하였을 때 笠金村이 지은 노래에 나오는 味經之原(味原之宮)과 같은 곳으로, 味原(아지후)이라 혼동된다. 『和名類聚抄』에서는 東生郡 味原郷이라 적고 있다. 현재 大阪市 天王寺區 味原町 주변을 관련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다.

496 穴戶는 下關海峽을 가리킨다. 혈호국은 뒤에 長門國으로 바뀌었다. 혈호국사는 장문국의 國司를 가리킨다. 『日本書紀』흠명천황 22년 시세조 穴門 참조.

497 草壁은 日下部라고도 한다. 『日本書紀』천무천황 13년 12월조에서는「草壁連…五十氏賜姓曰宿禰，」라고 적고 있고, 『新撰姓氏錄』山城國 皇別 日下部宿禰條에서는「開化天皇皇子彥坐命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498 『延喜式』治部省式 上瑞條에는「白雉[岱宗之精也，]」라고 적고 있다.

에)⁴⁹⁹가 정월 9일에 마산(麻山 ; 워노야마)⁵⁰⁰에서 잡아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백제군(百濟君 ; 쿠다라노키미)⁵⁰¹에게 물었다. 백제군은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영평(永平) 11년⁵⁰²에 흰 꿩이 어떤 곳에서 보였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승려들에게 물었다. 승려들은 “여태껏 귀로 들은 바 없고 눈으로 본 바 없습니다. 천하에 은사를 내려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도등(道登 ; 다우토우)법사는 “옛적에 고구려가 절을 지으려고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곳에서 흰 사슴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절을 건립하여 백록원사(白鹿園寺)라고 이름 붙이고 불법을 지켰습니다. 또 흰 참새가 어느 절의 전장(田莊)⁵⁰³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길조이다⁵⁰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당⁵⁰⁵에 파견한 사신이 죽은 삼족오(三足鳥)⁵⁰⁶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들이 또 ‘길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⁵⁰⁷은 미물이지만 길조라고 하는데, 더구나 흰 꿩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승려 민법사는 “이는 길조이며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삼가 듣건대 왕자의 (턱이) 사망에 두루 흘러 넘칠 때 흰 꿩이 나타납니다. 또 왕자가 제사를 지냄에 어긋남이 없고, 연회와 의복에 절도

499 국조는 穴戶國造이고 首와 贊는 이름인 듯하다.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서 ‘穴戶國造는 櫻井田部連과 同祖이며 邇伎都美命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500 美禰郡 赤村(현재 山口縣 美禰郡 美東町 赤)이라고 보기도 한다.

501 뒤에 보이는 百濟君豐璋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서명천황 3년 3월조 豐璋 참조.

502 『후한서』 明帝紀에 기재된 「永平十一年, 時麒麟, 白雉, 醴泉, 嘉木所在出焉.」이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

503 大化前代の 절이나 호족의 사유지를 일컫는다. 『日本書紀』 崇峻即位前紀 田莊 참조.

504 『爾雅』 釋言에 「休, 慶也.」라 한다. 상서로운 전조를 의미한다.

505 원문은 大唐이다.

506 『延喜式』 治部省式 大祥에는 「三足鳥[日之精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507 白鹿, 白雀, 三足鳥를 가리킨다.

가 있을 때에도 또한 나타납니다. 또 왕자가 청렴하고 검소하면 산에서 흰 꿩이 나옵니다. 또 왕자가 인자가 인덕이 있고 성인⁵⁰⁸일 때 나타납니다. 또 주(周)의 성왕(成王)⁵⁰⁹ 때에 월상씨(越裳氏)⁵¹⁰가 와서 흰 꿩을 헌상하고 ‘나라의 노인이 3년째 바람과 비와 물의 재해가 없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중국에 성인이 계시기 때문일 것인데, 어찌하여 입조하여 모시지 않는가. 나는 이 말을 듣고 먼 길을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진(晉)의 무제(武帝)⁵¹¹ 함녕(咸寧) 원년 송자(松滋)에 흰 꿩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흰 꿩은 길조입니다⁵¹². 천하에 은사를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흰 꿩을 들에 풀어 주었다.

갑신(15일)에 조정의 의장대⁵¹³가 원일(元旦)의식 때처럼 정열하였다. 좌우대신⁵¹⁴과 백관들이 금문⁵¹⁵ 밖에 네 줄로 늘어섰으며, 속전신반충(粟田臣飯蟲; 아하타노오미이히무시)⁵¹⁶ 등 네 명이 꿩이 든 가마를 들고 선두에서 나아갔다. 그

508 원문은 仁聖이다.

509 周 成王 이하 문장은 『藝文類聚』 水部 海水條에 기재된 「韓時外傳曰, 成王時, 有越裳氏, 重三譯而朝曰, 吾受命, 國之黃髮曰, 久矣, 天之不迅風雨, 海之不波溢也, 三年於茲, 意者中國有聖人乎, 蓋往朝之。」라는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黃髮, 黃耄는 노인을 의미한다.

510 현재 베트남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511 『宋書』 符瑞志에는 「晉武帝咸寧元年四月丁巳, 白雉見安豐松滋,」라고 적혀 있다. 安豐은 安豐國을, 松滋는 安徽省 霍丘縣의 동쪽에 있는 현 이름이다.

512 상서기사는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修辭로 해석되고 있다.

513 威儀를 갖춘 호위대를 가리킨다. 『令集解』 官衛令 有非違條에서는 衛士의 陣을 隊, 兵衛, 內舍人의 陣을 仗이라 한다.

514 좌대신은 巨勢德陀古臣, 우대신은 大伴長德連을 가리킨다.

515 원문은 紫門이다. 紫는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의미하기에 천황의 거소(內裏)를 자궁이라 표현한 것이다.

516 여기에만 보인다. 粟田臣은 和珙氏系의 씨인이다.

리고 좌우대신, 백관 및 백제군풍장(百濟君豐璋)⁵¹⁷, 아우 새성(塞城)⁵¹⁸, 충승(忠勝)⁵¹⁹, 고구려의 시의(侍醫) 모치(毛治)⁵²⁰, 신라의 시학사(侍學士)⁵²¹ 등을 거느리고 중정(中庭)에 이르렀다. 삼국공마려(三國公麻呂; 미쿠노노키미마로)⁵²², 저명공고견(猪名公高見; 웨나노키미타카미)⁵²³, 삼륜군웅수(三輪君甕穗; 미와노키미미카호)⁵²⁴, 기신희마려기태(紀臣乎麻呂岐太; 키노오미오마로키다)⁵²⁵ 등 네 명은 교대로 썰이 든 가마를 들고 대전 앞으로 나왔다. 이때 좌우대신이 나아가 가마의 앞쪽을 들고 이세왕(伊勢王; 이세노오호키미)⁵²⁶, 삼국공마려, 창신소시(倉臣小

517 『日本書紀』 서명천황 3년 3월조에는 백제에서 의자왕의 아들 豐璋(章)을 질자로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왜국에는 풍장을 비롯한 백제의 왕족들이 장기체류하면서 백제를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蘇我氏의 멸망과 개신정권의 득세와 함께 황국조에 진출하던 翹岐의 모습이 사서에서 사라진 데 비하여, 도왜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던 풍장이 재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反소아씨 세력과 풍장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밀착된 것이다.

518 『日本書紀』 황국천황 원년 2월조 塞上 참조.

519 충승은 『日本書紀』 제명천황 6년 10월조 분주에서는 ‘풍장의 숙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

520 毛治는 여기에만 보인다. 『養老令』 職員令 內藥司條에는 「侍醫四人[掌, 供奉診候, 醫藥事.]」이라 적혀 있다. 고구려 출신의 의사가 도래한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외교사절단 가운데 포함된 의사를 조정에서 불러 머물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

521 신라 출신으로 궁정에 속한 학사를 의미한다. 신라로부터의 의사 파견 기사와 마찬가지로 시학사 파견 기사도 보이지 않지만, 신라에서 김다수 등이 도래했을 때 왜 조정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22 대화 5년 3월조 三國公麻呂 참조.

523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12월 시월조에는 大紫韋那公高見의 흉거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524 여기에만 보인다. 三輪君은 『日本書紀』 민달천황 14년 8월조 大三輪君逆君 참조.

525 紀臣乎麻呂岐太和 紀摩利耆拖臣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대화 2년 3월조 참조.

526 『日本書紀』 제명천황 7년 6월조와 천치천황 7년 6월조에 흉거 기사가 전해진다. 모두 ‘七年六月’이라는 점으로 보아 중복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屎；쿠라노오미오쿠소)⁵²⁷가 가마의 뒷쪽을 들어 옥좌 앞에 내려놓았다. 천황이 곧 황태자⁵²⁸를 불러 함께 손에 들고 보았다. 황태자는 물리나서 재배하였다. 그리고 거세대신⁵²⁹으로 하여금 축사⁵³⁰를 바치게 하였다. “공경과 백관들이 여기에 축사를 바칩니다. 폐하가 깨끗하고 평온하게 천하를 다스리셨으므로, 백치가 서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천년만년 폐하께서 훌륭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리시어 공경, 백관과 여러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바랍니다.” 축사를 끝내고 재배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를 내렸다. “성왕이 세상에 나와 천하를 다스릴 때 하늘이 그에게 답하여 상서(祥瑞)를 보여준다. 옛적에 서토(西土)의 임금인 주(周) 성왕(成王) 때와 한(漢) 명제(明帝) 때에 흰 꿩이 나타났다. 우리 일본국 예전천황(譽田天皇；호무타노스메라미코토)⁵³¹ 때에는 흰 까마귀⁵³²가 궁에 동지를 틀었다. 대초료제(大鷦鷯帝；오호사카키노미카도)⁵³³ 때에는 용미⁵³⁴가 서쪽에 나타났다. 이렇게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서가 나타나 유덕함에 답하는 예⁵³⁵는 많다. 이른바 봉황⁵³⁶, 기린⁵³⁷, 흰 꿩, 흰 까마귀와 같은 조수(鳥獸)를 비롯하여 초목(草

527 여기에만 보인다. 倉臣은 大阪府 堺市 土塔町 大野寺址에서 출토된 文字瓦에 보인다.

528 中大兄皇子을 가리킨다.

529 左大臣 巨勢德陀古臣을 가리킨다.

530 賀詞, 壽詞라고도 한다. 천황의 장수와 행복을 축원하는 말이다. 『日本書紀』顯宗即位前紀의 室壽詞, 出雲國造 賀詞(『延喜式』祝詞), 中臣壽詞(『臺記』別記)가 유명하다.

531 應神天皇을 가리킨다.

532 이 일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延喜式』治部省式 祥瑞에 「白鳥[太陽之精]」가 보인다.

533 仁德天皇을 가리킨다.

534 이 일은 『日本書紀』와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書紀集解』潛確居類書 飛躍部에는 「龍馬者神馬也, 河水之精, 高八尺五寸, 長頸脰上有翼, 旁有垂毛, 鳴聲九音有明王則見。」이라 기재되어 있다.

535 『후한서』明帝紀에 「祥瑞之降, 以應有德,」이라고 적혀 있다.

木)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상서는 모두 천지가 만들어낸 길조[休祥嘉瑞]⁵³⁸이다. 무릇 성군이 이 상서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어리석고 능력도 없다. 어찌 이를 받겠는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오로지 나를 지키고 도와주는 공경, 신, 연, 반조, 국조들이 각기 충성된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제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공경에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삼가 천신지기를 제사지내고 함께 길조를 얻어서 천하를 번영하게 하자.”

또 조를 내려 “사방의 여러 국군(國郡)을 하늘이 맡겨 주셨으므로, 짐이 다스리고 있다. 지금 나의 친애하는 조상신이 다스리는 혈호국(穴戶國; 아나토노쿠니)에서 이 길조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천하에 대사(大赦)한다는 명을 내리고, 백치 원년이라고 정한다.”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혈호국에 매를 풀어놓는 것을 금하고, 공경대부 이하 영사(令史)⁵³⁹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각기 차등 있게 주었다. 그리고 국사 초벽련추경을 칭찬하고 대산(大山)⁵⁴⁰의 관위를 주고 많은 녹을 주었다. 혈호국의 조역⁵⁴¹을 3년 동안 면제하였다.

여름 4월에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쳤다[아편 책(或本)에는 이 천황 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매년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고 한다.],

겨울 10월에 궁궐 지을 터에 포함되어 무덤이 파헤쳐진 사람과 이주하게

536 『宋書』符瑞志에는 「鳳凰者, 仁鳥也. 不刳胎剖卵則至. 或翔或集. 雄曰鳳. 雌曰凰. 蛇頭燕領. 龜背鰐腹. 鶴頸雞喙.」라 적혀 있다.

537 『延喜式』治部省式의 大祥에는 「麒麟皆無種而生, 世不恒有, 故爲王者之瑞.」라고 적혀 있다.

538 『후한서』光武帝紀에서는 「宣帝每有嘉祥, 以改元.」이라 적고 있다.

539 律令制에서 司, 監, 署의 4등관인 主典(主事, 令史, 書令史)을 가리킨다.

540 大化 5년의 19계 관위의 제11위와 12위에 해당되고, 『養老令』官位令에서 國守는 중5 위상, 중6위하에 상당한다.

541 調와 勞役을 의미한다. 조역이라는 표현은 『日本書紀』승신천황 12년 9월조 이후 여기에 처음으로 보이지만, 天武朝와 持通朝에는 빈번히 보이다가 大寶 이후에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된 사람에게 물건을 각기 차등 있게 주었다⁵⁴². 곧 장작대장(將作大匠)⁵⁴³ 황전정직비라부(荒田井直比羅夫; 아라타웨노아타히히라부)를 보내 궁궐의 경계에 표를 세웠다.

이 달에 처음으로 장육의 수상(繡像), 협시(挾侍)⁵⁴⁴, 팔부(八部)⁵⁴⁵ 등 삼십육상(三十六像)을 만들었다.

이 해에 한산구직대구(漢山口直大口; 아야노야마구치노아타히오호쿠치)⁵⁴⁶가 명을 받들어 천불상(千佛像)⁵⁴⁷을 만들었다. 왜한직현(倭漢直縣; 아마토노야야노아타히아가타)⁵⁴⁸, 백발부련등(白髮部連鐙; 시라카베노무라지아부미)⁵⁴⁹, 난파길사호상(難波吉士胡床; 나니하노키시아구라)⁵⁵⁰을 안예국(安藝國; 아키노쿠니)⁵⁵¹에 파견하여

542 『속일본기』 景雲 원년(704) 11월 壬寅條에는 藤原遷都에 즈음해 가옥이 宮域에 들어간 백성에게 포를 사여한 사례가 있고, 和銅 2년(709) 10월 癸巳條에는 平城遷都 이후 경내에 존재한 묘에 관한 조치가 보인다.

543 唐에서는 궁실조영 등의 일을 담당한 관청을 將作監이라 부르고 그 長官을 大匠이라 칭하였다. 대화 5년의 百官 가운데 하나인 듯하다. 大匠에 관한 기록은 이보다 이전인 『日本書紀』 서명천황 11년 7월조에도 보인다.

544 挾侍(挾侍)보살이다.

545 『法華經』譬喻品에서 말하는 天龍八部로, 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螺, 摩睺羅이다.

546 동한씨의 일족이다. 「法隆寺金堂廣目天光背銘」에는 ‘山口大口費(直)’이라 적혀 있다.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山口宿禰條에서는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都黃直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547 『三劫三千佛名經』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겁에 각기 千佛이 출현한다고 적혀 있다.

548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 2월조의 倭漢直書直縣, 서명천황 11년 7월조의 書直縣과 동일인이다. ‘書直’은 東漢氏의 일족이다.

549 여기에만 보인다. 白髮部連은 白髮部の 伴造氏이다. 천무천황 13년 9월에 白髮部造는 連姓으로 개성하였다.

550 여기에만 보인다. 難波吉師는 難波吉士라고도 칭하는 도래계 씨족이다. 관련 씨족으로는 難波吉士, 難波忌寸, 難波, 難波連 등을 들 수 있다.

551 『日本書紀』 추고천황 26년 是年條에는 河邊臣에게 安藝國에서 배를 만들게 한 기록이

백제선(百濟船)⁵⁵² 두 척을 만들게 하였다.

2년 봄 3월 갑오삭 정미(14일)에 장육(丈六)의 수상 등이 완성되었다. 무신(15일)에 황조모존⁵⁵³이 십사(十師)⁵⁵⁴ 등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고 공양하였다⁵⁵⁵.

여름 6월에 백제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물건을 바쳤다.

겨울 12월 그믐에 미경궁⁵⁵⁶에 2천1백여 명의 승니를 초청하여 일체경(一切經)⁵⁵⁷을 읽게 하였다. 이 날 저녁에 2천7백여 개의 등을 조정의 뜰에 밝혀 안택(安宅), 토측(土側) 등의 경을 읽게 하였다⁵⁵⁸. 이때 천황은 대군(大郡; 오호고호리)⁵⁵⁹에서 옮겨 신궁(新宮)에 거주하였다. 난파장병풍기궁(難波長柄豐碕宮; 나니하노나가라노토요사키노미야)⁵⁶⁰이라 칭하였다.

이 해에 신라의 조공사 지만사찬(知萬沙漉)⁵⁶¹ 등이 당나라 복장을 하고⁵⁶²,

보인다.

552 많은 사료의 소실로 인하여 백제의 조선과 항해기술이 어떠했는지 그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본 기사의 백제선은 단순히 백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백제인이 만든 특유한 형식의 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553 皇極上皇을 가리킨다.

554 대화 원년 8월 계묘조에 제정한 十師 참조.

555 법회에서 식사를 공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齋’는 원래 不殺生 이하 八齋戒를 지키는 것인데, 八齋戒는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忘語, 不飲酒, 非時食, 不坐高廣狀, 不着香塗脂粉飾 등이다.

556 백지 원년 정월조의 味經宮 참조.

557 一切經은 經, 律, 論의 3藏 및 그 章疏, 注釋을 모은 불교경전을 총칭한 것이다.

558 이 불사는 새로 지은 난파궁의 安穩을 기원한 행사이다.

559 『日本書紀』舒明天皇 2년 시세조에는 「改修理難波大郡及三韓館」, 白雉 3년 정월조에는 「大郡宮」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 소재지는 東生郡, 현재 大阪市 중심부인 上町臺地 동편에 비정되고 있다.

560 大阪市 中央區 法圓坂 일대에 존재하는 前期難波宮 유적이라 간주된다. 1954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로 堀立柱양식으로 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지은 건축물임이 판명되었다.

축자(筑紫; 츠크시)에 정착하였다.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복제⁵⁶³를 바꾼 것을 불쾌히 생각하여 책망하며 쫓아 보냈다⁵⁶⁴. 이때 거세대신⁵⁶⁵이 “지금 신라를 치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치는 것은 무력을 쓸 것까지도 없습니다.⁵⁶⁶ 난파진에서 축자만까지 배를 붙여서 많이 띄워 놓고, 신라를 불러 그 죄를 물으면 쉽게 항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⁵⁶⁷.

3년 봄 정월 기미삭(1일)에 원일(元日)의 의식을 마치고 천황이 대군궁(大郡宮; 오후고호리노미야)에 행차하였다. 정월⁵⁶⁸부터 이 달에 이르기까지 반전(班田)을 끝마쳤다⁵⁶⁹. 무릇 전(田)⁵⁷⁰은 길이 30보(步)를 1단(段)으로 하고 10단을 1정(町)으로 한다[매 단⁵⁷¹에 조(租)는 벼 1속(束) 반(半), 매 정(町)에 조는 벼 15속이다.].

561 여기에만 보인다.

562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 2년(648) 冬條와 동 3년(649) 정월조에 의하면 신라는 648년 김춘추의 도당 이후에 당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649년에는 당의 의관제를 채용하였다.

563 원문은 俗이다.

564 당나라 복장을 하고 온 신라 사신과의 마찰 사건은 당의 권위를 내세운 신라의 동맹 참가 요구를 왜국이 거부하였음을 시사한다.

565 左大臣 巨勢德陀古臣을 가리킨다.

566 『書紀集解』에서는 力을 刀라 쓰고 舉刀, 즉 ‘병사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567 신라를 정토하자는 주장이 왜국 내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미 당시 왜국의 대외 노선이 ‘反新羅’로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 왜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신라의 반응은 제명천황 3년 시세조 참조.

568 班田을 정한 大化 2년 정월이다.

569 大化 2년 정월의 詔에는 「其三曰…班田收授之法,」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해는 반전제가 언급된 뒤로부터 6년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2회 반전이 실시되었다고 보는 설, 최초의 반전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설, 六年一班制의 지식에 기초하여 가공된 기사라는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570 大化 2년 정월의 조에서 제정한 田積과 내용이 같은데, 이 기사에는 「長三十步」 다음에 「廣十二步」가 생략되었거나 탈락되어 있다.

3월 무오삭 병인(9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여름 4월 무자삭 임인(15일)에 승려 혜은(惠隱; 에온)⁵⁷²을 내전⁵⁷³으로 불러 무량수경(無量壽經)을 강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승려 혜자(惠資; 예시)⁵⁷⁴를 토론자⁵⁷⁵로 삼았으며, 승려 1천 명을 청중으로 하였다. 정미(20일)에 강의가 끝났다. 이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계속 내렸다. 9일째가 되자 가옥이 무너지고 논이 모가 손상되었다. 사람과 우마가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달에 호적을 만들었다⁵⁷⁶. 무릇 50호(戶)를 1리(里)로 하였다⁵⁷⁷. 리마다 장(長) 한 사람을 두었다. 호주(戶主)는 모두 가정(家長)이 맡게 하였다⁵⁷⁸. 대개 호는 5가(家)로 1보를 만들었다. 한 사람을 장으로 하고 서로 감찰하게 하였다⁵⁷⁹. 신라와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물건을 바쳤다.

가을 9월에 궁전을 짓는 일을 마쳤다⁵⁸⁰. 궁전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겨울 12월 그믐에 천하의 승니를 내리(內裏)로 불러 법회를 열어 공양하고,

571 대화 2년 정월에 제정된 「租率二束二把」와는 다르고, 『令集解』景雲三年格 田令 田長條에 기재된 「令前租法 熟田百代租稻三束」과 같다.

572 『日本書紀』서명천황 12년 5월조에도 惠隱이 無量壽經을 강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73 원문은 內裏이다.

574 대화 원년 8월조에 十師로 임명된 惠至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575 惠隱이 강론하고 惠資가 질의하는 형식의 법문문답을 論議라 칭하고 있다.

576 호적에 관한 것은 大化 2년 正月詔에 「初造戶籍」이라 적혀 있다. 대보율령에서는 6년마다 만드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사에서 호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내용이다.

577 大化 2년 정월의 詔의 五十戶一里制와 같은 내용이다.

578 戶의 刑律 상의 책임을 家長에게 부가한다는 의미이다. 이 내용은 『養老令』戶令 家長條(「凡戶主, 皆以家長為之」)의 令文과 동일하다.

579 『養老令』戶令 五家條에는 「凡戶, 皆五家相保, 一人為長, 以相檢察」이라 기재되어 있다.

580 難波長柄豐踏宮을 가리킨다.

보시하며 연등을 밝혔다.

4년 여름 5월 신해삭 임술(12일)에 당⁵⁸¹에 파견하는 대사(大使) 소산상(小山上)⁵⁸² 길사장단(吉士長丹; 키시노나가니)⁵⁸³, 부사 소을상(小乙上)⁵⁸⁴ 길사구(吉士駒; 키시노코마)⁵⁸⁵ [駒의 다른 이름은 사(絲; 이토)이다.], 학문승 도엄(道嚴; 다우곤)⁵⁸⁶, 도통(道通; 다우츠우)⁵⁸⁷, 도광(道光; 다우쿠와우)⁵⁸⁸, 혜시(惠施; 에세)⁵⁸⁹, 각승(覺勝; 카쿠쇼우)⁵⁹⁰, 변정(辨正; 벤샤우)⁵⁹¹, 혜조(惠照; 에세우)⁵⁹², 승인(僧忍; 소우닌)⁵⁹³, 지총(知總; 치소우)⁵⁹⁴, 도소(道昭; 다우세우)⁵⁹⁵, 정혜(定惠; 자우에)⁵⁹⁶ [정혜는

581 원문은 大唐이다.

582 大化 5년 19계 관위의 제13위에 해당된다.

583 효덕천황 백치 5년 7월에 귀국한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3월 是月條 吉士老 참조.

584 大化 5년 19계 관위의 제17위에 해당된다.

585 吉士長丹과 함께 효덕천황 백치 5년 7월에 귀국한다.

586 『日本書紀』 승준천황 원년 시세조에 보이는 道嚴과는 다른 사람이다.

587 여기에만 보인다.

588 『日本書紀』 지통천황 8년 4월조에 '律師 道光에게 賻物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律師道光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589 『續日本紀』 문무천황 2년 3월 임오조에는 「惠施法師爲僧正。」이라 적혀 있다.

590 백치 5년 2월조에 註記된 「伊吉連博徳云」에서는 당에서 죽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591 『懷風藻』에서 俗姓 秦氏이며 大寶 연간에 당에 유학하고 당에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 弁正法師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592 여기에만 보인다.

593 여기에만 보인다.

594 백치 5년 2월조에 주어진 「伊吉連博徳云」에서는 당에서 죽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595 『속일본기』 문무천황 4년 3월조 기미조에는 '河内國 丹比郡人으로 俗姓은 船連으로, 당에서 현장에게 배우고 귀국한 뒤 元興寺에 거주하였다.'고 적혀 있다.

596 中臣鎌足の 아들로 당에서는 慧日道場에 거했다. 백치 5년 2월조에는 정혜가 유덕고 일행과 함께 乙丑年(665)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천지천황 4년(665) 9월조에는 唐使 유덕고의 來日 기사가 보인다.

내대신(內大臣)⁵⁹⁷의 장자이다.], 안달(安達; 안다치)⁵⁹⁸[安達는 중신거매련(中臣渠每連; 나카토미노코메노무라지)⁵⁹⁹의 아들이다.], 도관(道觀; 다우쿠완)⁶⁰⁰[道觀은 춘일속전신백제(春日粟田臣百濟; 카스가노아하타노오미쿠다치)⁶⁰¹의 아들이다.], 학생(學生)⁶⁰² 거세신약(巨勢臣藥; 코세노오미쿠스리)⁶⁰³[藥은 풍족신(豐足臣; 도요타리노오미)⁶⁰⁴의 아들이다.], 빙련노인(氷連老人; 히노무라지오키나)⁶⁰⁵[老人은 진옥(眞玉; 마타마)⁶⁰⁶의 아들이다. 어떤 책에는 학문승 지변(知辨; 치벤)⁶⁰⁷, 의덕(義德; 키토쿠)⁶⁰⁸ 학생 판합부련반적(坂合部連磐積; 사카히베노무라지이하즈미)을⁶⁰⁹ 더하였다.] 등 모두 121명이 한 척의 배에 탔다. 실원수어전(室原首御田; 무로하라노오비토미타)⁶¹⁰을 송사(送使)로 삼았다. 또한 대사 대산하(大山下)⁶¹¹ 고전수근마려(高田首根麻呂; 타카타노오비토

597 內臣 中臣鎌足을 가리킨다.

598 여기에만 보인다.

599 「大中臣本系帳」에는 ‘中臣金の弟’라고 적혀 있다.

600 여기에만 보인다.

601 여기에만 보인다.

602 한반도는 물론이고 수, 당에 파견되는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일반학예를 배우는 자를 ‘學生’이라 칭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 9월조 學生 참조.

603 여기에만 보인다. 巨勢臣은 『日本書紀』 계제천황 원년 정월조 許勢男人大臣 참조.

604 여기에만 보인다.

605 백지 5년 2월조에 인용된 『伊吉連博德書』에는 「今年歸國.」이라고 적혀 있다.

606 여기에만 보인다.

607 여기에만 보인다.

608 『日本書紀』 지통천황 4년 9월조에는 「大唐學問僧智宗, 義德, 淨願, 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 從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 還至筑紫.」라고 적혀 있다.

609 境部連石積이라고도 한다. 境部連은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성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坂合部宿禰條에서는 「火明命八世孫邇倍足尼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610 여기에만 보인다. 室原은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 城上郡 室原郷(현재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이라고 적혀 있다.

611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2위에 해당된다.

네마로)⁶¹²[다른 이름은 팔국경(八掬經; 야츠카하기)이다⁶¹³.], 부사 소을상(小乙上)⁶¹⁴ 소수련소마려(掃守連小麻呂; 카니모리노무라지오마로)⁶¹⁵, 학문승 도복(道福; 다우후쿠)⁶¹⁶, 의향(義向; 기카우)⁶¹⁷ 등 모두 120명이 한 척의 배에 탔다⁶¹⁸. 토사련팔수(土師連八手; 하지노무라지야츠테)⁶¹⁹를 송사로 삼았다.

이 달에 천황이 승려 민법사⁶²⁰의 승방에 행차하여 문병하였다. 그리고 천황이 직접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어떤 책(或本)에는 5년 7월에 승려 민법사가 아담사(阿曇寺)⁶²¹에서 병이 들었다. 그러자 천황이 행차하여 병문안을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만일 법사가 오늘 죽으면 짐은 따라서 내일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6월에 백제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물건을 바쳤다. 각처의 큰 길을 수리하였다. 천황은 민법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아울러 많은 물건을 보냈다. 황조모존⁶²²과 황태자⁶²³ 등이 모두 사신

612 여기에만 보인다. 高田首는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高田首條에서는 「出自高麗國人多高子使主也。」라고 적고 있다.

613 『日本書紀』 景行天皇 40년 7월조에서는 「天皇則命吉備武彥與大伴武日連, 令從日本武尊, 亦以七掬經爲膳夫」라고 적고 있다.

614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7위에 해당된다.

615 여기에만 보인다. 掃守連은 掃部連이라고도 한다. 대화 원년 5월조 掃部連角麻呂 참조.

616 여기에만 보인다.

617 여기에만 보인다.

618 견당사 제2조의 대사를 가리킨다. 대사 吉士長丹, 부사 吉士駒 및 학문승과 학생 등으로 이루어진 121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소위 ‘북도(신라도)’라 칭하는 향로를 택하였다. 또 대사 高田首根麻呂와 부사 掃守連小麻呂 및 학문승 등 120명이 다른 한 조로 조직되었다. 두 개조에 각기 대사와 부사가 임명되었다.

619 여기에만 보인다.

620 『日本書紀』 서명천황 4년 8월조 이후는 僧旻이라 적혀 있다.

621 아담사의 소재지는 음상사를 통해 『攝津志』에 나오는 安堂寺町(현재 大阪市 中央區)으로 비정하거나, 東横堀川の 舊名이 阿曇江이라는 점과 天平勝寶 2년 民部省符에 新羅江庄의 동쪽에 安曇江이 있었다는 기사에 기초하여 天滿江의 북변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을 보내어 민법사의 상을 조문하였다. 나아가 천황은 법사를 위하여 화공⁶²⁴ 박수부자마려(狛堅部子麻呂; 코마노타테베노코마로), 즉어호직(鯽魚戶直; 후나토노아타히)⁶²⁵ 등에게 명하여 많은 불보살상을 만들어 천원사(川原寺)⁶²⁶에 안치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산전사(山田寺)에 있다고 한다.].

가을 7월에 당에 파견된 사신 고전근마려 등이 살마곡(薩麻曲; 사츠마노쿠마)⁶²⁷과 죽도(竹島; 타카시마)⁶²⁸의 사이에서 배가 침몰하여 모두 죽었다. 단지 5명만이 살아남아 판자 하나에 의지하여 죽도로 떠내려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5명 가운데 문부금(門部金; 카도베노카네)⁶²⁹이 대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이것을 타고 신도(神嶋; 시토케시마)⁶³⁰에 도착하였다. 이 5명은 6일 밤낮을 아무 것도 먹지 못하였다. 금(金)을 칭찬하여 관위를 올려주고 녹을 내렸다⁶³¹.

이 해에 태자가 “왜경으로 천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였다. 천황이 허

622 皇極上皇을 가리킨다.

623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624 『書紀集解』에서는 ‘제명천황 5년 시세조의 高麗畫師子麻呂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625 여기에만 보인다.

626 현재 飛鳥川 서안 橘寺의 북쪽의 明日香村 大字川原에 있는 寺院跡을 천원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627 薩摩를 가리킨다. 天平 8년 正稅帳에도 薩麻라고 적혀 있다.

628 薩摩半島의 남쪽, 硫黃島의 서쪽에 있는 섬을 가리킨다. 견당선이 살마반도와 죽도 사이에서 난파했을 가능성이 있다.

629 여기에만 보인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大和國 神別 門部 連條에서는 「牟須比命兒安牟須比命之後也。」라 적고 있다.

630 肥前國 西南海의 神島라는 설과, 甌島列島(현재 薩摩半島의 남쪽 屋久島의 서쪽)의 上甌島라는 설이 있다.

631 백지 4년 5월에 파견된 2차 견당사로 파견된 高田根麻呂가 ‘薩麻之曲 竹島之間’에서 침몰했다는 점으로 보아 기존의 도당로인 北道(新羅道)가 아닌 ‘南道路’의 개발을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락하지 않았다. 황태자는 황조모존과 간인황후(間人皇后; 하시히토노키사키)⁶³²를 모시고 황제(皇帝)⁶³³들을 거느리고, 왜의 비조하변행궁⁶³⁴으로 가서 머물렀다. 이때 공경대부와 백관들도 모두 따라 갔다⁶³⁵. 이 때문에 천황은 원망하며 황위를 버리려 생각하고 궁전을 산기(山碕; 야마사키)⁶³⁶에 만들게 하고, 간인황후에게 노래를 보내었다.

도망 못 가게 머리에 나무를 붙인 내가 기르던 말은 어찌 되었다. 마구간에서 꺼내지도 않고 소중히 기르던 말을 어찌하여 타인이 보았을까.

5년 봄 정월 무신삭(1일) 밤에 쥐가 왜의 도읍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임자(5일)에 자관(紫冠)⁶³⁷을 중신겸족련(中臣鎌足連; 나카토미노카마타리노무라지)에게 주었다. 식봉 약간 호를 더하였다⁶³⁸.

632 효덕천황의 황후를 가리킨다.

633 大海人皇子 등을 가리킨다.

634 飛鳥河邊行宮의 지명은 『大和志』에는 「古蹟在飛鳥村南，即此傍有井，名行宮井。」이라 적혀 있다. 1976년 奈良縣 明日香村에서 ‘コ字形 屈筥柱遺構’와 ‘石敷廣場’이 발견되고, 7세기 후반의 토기와 벼루 등이 출토되면서 고고학적인 유물에 근거한 비정이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635 권력 집단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들 정치 세력을 ‘飛鳥朝’와 ‘難波朝’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636 『和名類聚抄』에는 「山城國乙訓郡埼郷(야마사키)」이라 적고 있다. 현재 京都府 乙訓郡 大山崎村 大山崎町에 해당된다.

637 大臣의 지위를 의미하는 紫冠이라 이해하거나, 대화 3년의 관위 13계제나 5년의 19계제에 보이는 ‘大紫，小紫’ 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하기도 한다.

638 中臣鎌子が 中臣鎌足으로 나오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藤氏家傳』 대직관전에는 「白鳳五年…超排紫冠，増封八千戸…故遷大紫冠，進爵爲公，増封五千戸，前後并凡一萬五千戸。」라 적혀 있다.

2월에 당에 파견할 압사(押使)⁶³⁹ 대금상(大錦上)⁶⁴⁰ 고향사현리⁶⁴¹[어떤 책에는 여름 5월 당에 파견할 압사 대화하(大花下)⁶⁴² 고향현리라고 한다.], 대사(大使) 소금하(小錦下)⁶⁴³ 하변신마려(河邊臣麻呂; 카하헤노오미마로)⁶⁴⁴, 부사(副使) 대산하(大山下)⁶⁴⁵ 약사혜일(藥師惠日; 구스시에니치)⁶⁴⁶, 판관(判官)⁶⁴⁷ 대을상(大乙上)⁶⁴⁸ 서직마려(書直麻呂; 후미노아타히마로)⁶⁴⁹, 궁수아미타(宮首阿彌陀; 미야노오비토아미다)⁶⁵⁰[어떤 책(或本)에는 판관 소산하⁶⁵¹ 서직마려(書直麻呂)라고 한다.], 소을상⁶⁵² 강

639 押使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대사 위에 설치되어 전체를 총괄한다. 『日本書紀』에서는 여기에만 보이지만, 『속일본기』靈龜 2년 8월 계해조에는 ‘多治比真人縣守를 遣唐押使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40 대화 3년의 관위 13계제나 5년의 19계제에도 보이지 않는다. 天智天皇 3년에 제정한 16계제 중 제7위에 해당되므로, 追記일 가능성이 있다. 또 현리가 그 이전에 사망하므로 추증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641 河内國 錦部郡 古向村(현재 大阪府 河内長野市 高向)의 漢人姓이다. 玄理는 音으로 읽은 것으로 일명 黑麻呂라 칭하기도 한다. 白雉 5년 2월에 건당압사로 渡唐한 뒤 당에서 객사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 9월조 참조.

642 大化 5년의 19계제 가운데 제8위에 해당된다.

643 『日本書紀』天智天皇 3년의 26계 관위 가운데 12위에 해당되므로, 追記일 가능성도 있다.

644 『日本書紀』齊明天皇 원년 8월에 귀국하였다.

645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1위에 해당된다.

646 『속일본기』天平寶字 2년 4월조에는 ‘백제를 통해 渡倭한 고구려인 德來의 자손이 중국에서 의학을 배워 難波藥使를 姓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31년 7월조 惠日 참조.

647 『養老令』職員令 神祇官條에서는 三等官을 判官이라 적고 있다.

648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5위에 해당된다.

649 대화 원년 9월조 倭漢文直麻呂와 동일인이다.

650 여기에만 보인다. 불보살의 이름인 아미타를 이름으로 삼은 예는 『속일본기』養老 7년 정월 갑술조에 ‘志我閉連阿彌陀’가 보인다. 宮은 씨이고 首는 姓이다.

651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4위에 해당된다.

군의(岡君宜; 오카노키미요로시)⁶⁵³, 치시런대백(置始連大伯; 오키소메노무라지오 호쿠)⁶⁵⁴, 소을하⁶⁵⁵ 중신간인련로(中臣間人連老; 나카토미노하시히토노무라지오 유)⁶⁵⁶[老는 오유(於喻)라고 읽는다.], 전변사조(田邊史鳥; 다나헤노후비토토리)⁶⁵⁷ 등은 배 두 척에 나누어 타고 수개월 간 머물다가⁶⁵⁸ 신라도(新羅道)⁶⁵⁹를 향해하여 내주(萊州)⁶⁶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왕경⁶⁶¹에 이르러 천자를 뵈었다⁶⁶².

652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7위에 해당된다.

653 여기에만 보인다.

654 『日本書紀』 지통천황 7년 4월 신사조에서 장물죄로 강등된 置始多久와 동일 인물이다. 『新撰姓氏錄』 右京 神別에 長谷置始連條에는 「同神七世孫大新河命之後也.」로, 左京神別 大椋置始連條에는 「縣犬甘同祖.」라고 적고 있다.

655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8위에 해당된다.

656 間人連老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間人宿禰條에서는 ‘神魂命五世孫 玉櫛比古命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657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658 사절단이 신라를 경유한 것만이 아니라 수개월 간 체류했다가 당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신라와 왜 간의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나타낸다. 백지 4년과 5년에 이어진 왜국의 당으로의 사절단 파견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당과 신라가 동맹하여 고구려와 백제에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일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당의 대외정책을 변경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의 원정 등 정치적·군사적 동정을 살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659 遣唐使船은 大阪住吉의 住吉大社에서 海上安全을 기원하고, 住吉津(현재 大阪市 住吉區)에서 출발하여 住吉의 細江(현재 細江川, 通称 細井川)에서 대관만으로 나와 難波津(현재 大阪市 中央區)에 들러 瀬戸内海를 경유하여 那津(현재 福岡縣 福岡市)에 도착했다. 그 뒤는 대개 北路, 南島路, 南路를 취하여 渡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기사에 등장하는 ‘신라도’는 북구주에서 한반도 서해안 연안을 거쳐 遼東半島 南海岸에서 山東半島의 登州에 이르는 길인데, 한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노선이다.

660 河南道 萊州 東萊郡은 현재 山東省 萊州府로 산둥반도 북안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661 당의 수도 長安을 가리킨다.

662 『구당서』 高宗本紀 永徽 5년 12월조에는 「倭國使獻虎珀, 馬腦.」라고 하였고, 同書 일본전에는 「永徽初, 其王孝德即位, 改元曰白雉, 獻琥珀大如斗, 碼碯若五升器.」라고 적혀 있다.

이에 동궁감문(東宮監門)⁶⁶³ 광장거(郭丈舉)⁶⁶⁴가 일본국의 지리와 국초의 신의 이름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모두 물음에 따라 답하였다. 압사 고향현리는 당에서 죽었다[이길박덕(伊吉博得; 이키노하카토코)⁶⁶⁵이 “학문승 혜묘(惠妙; 에메우)⁶⁶⁶는 당에서 죽었다. 지충(知聰; 치소우)은 바다에서 죽었다. 지국(智國; 치코쿠)⁶⁶⁷도 바다에서 죽었다. 지종(智宗; 치소우)⁶⁶⁸은 경인년⁶⁶⁹에 신라의 배편으로 돌아왔다. 각승(覺僧; 카쿠쇼우)은 당에서 죽었다. 의통(義通; 기츠우)⁶⁷⁰은 바다에서 죽었다. 정혜(定惠; 자우에)는 을축년⁶⁷¹에 유덕고(劉德高)⁶⁷²의 배편으로 돌아왔다. 묘위(妙位; 메우웨이)⁶⁷³, 법승(法勝; 호후쇼우)⁶⁷⁴, 학생 빙련노인(氷連老人; 히노무라지오키나), 고향금(高黃金; 카와와우코무)⁶⁷⁵ 등 모두 12명과 따로 왜종한지흥(倭種韓智興; 야마토노우지칸치코)⁶⁷⁶, 조원보(趙元寶; 데우구완호)⁶⁷⁷는 금년⁶⁷⁸에 사신과 함께 돌아왔다.”고 하였다.]⁶⁷⁹.

663 『大唐六典』에는 「左右監門, 率府率, 掌東宮諸門禁衛之法, 副率爲弼之,」라고 적혀 있다.

664 여기에만 보인다.

665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伊吉連條에는 ‘劉家楊雍의 후에’라고 적혀 있다.

666 당시 유학승들이 10대 정도였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대화 원년 8월조에 보이는 百濟寺의 사주인 惠妙와는 다른 사람으로 이해된다.

667 여기에만 보인다.

668 『日本書紀』 지통천황 4년 9월 정유조에는 지종을 비롯한 학문승들이 新羅送使를 따라 귀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69 庚寅年은 지통천황 4년(690)에 해당된다.

670 여기에만 보인다.

671 乙丑年은 천지천황 4년(665)에 해당된다.

672 『日本書紀』 천지천황 4년 9월 임진조에는 「朝散大夫沂州司馬馬上柱國劉德高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73 여기에만 보인다.

674 여기에만 보인다.

675 여기에만 보인다.

676 『日本書紀』 제명천황 5년 7월조의 『伊吉連博德書』에서는 韓智興의 시종이 사절단 일행을 참소한 내용이 주로 인용되어 있다.

여름 4월에 토화라국(吐火羅國)⁶⁸⁰의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과 사위(舍衛)⁶⁸¹의 여자 한 명이 폭풍을 만나 일향(日向; 히무카)으로 표류해 왔다.

가을 7월 갑신삭 정유(24일)에 서해사(西海使) 길사장단(吉士長丹; 키시노나카니) 등이 백제, 신라의 송사와 함께 축자에 이르렀다.

이 달에 서해사들이 당나라의 천자를 만나 많은 문서와 보물을 받아온 것을 칭찬하여 소산상⁶⁸² 대사 길사장단에게 소화하⁶⁸³를 내렸다. 봉호⁶⁸⁴ 2백 호를 내리고, 오(吳; 구례)⁶⁸⁵라는 씨(氏; 우지)를 주었다. 소을상⁶⁸⁶ 부사 길사구(吉士駒; 키시노코마)에게 소산상을 주었다.

겨울 10월 계묘삭(1일)에 황태자⁶⁸⁷는 천황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황조

677 『日本書紀』 지통천황 4년 10월조에서는 弓削連元寶의 兒 등이 천지천황 3년에 당인이 계획한 바를 알리기 위해 급히 귀국하였다고 적고 있다.

678 『伊吉博得書』에 따르면 금년은 천지 3년 이후부터 同 7년 사이의 어느 해에 해당된다.

679 3차 견당사는 대사와 부사 등이 모두 당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구성되었고, 2차 견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출발하여 신라를 구원하라는 璽書를 받아왔다. 이에 출발 시점과 당의 친신라 정책 권유 사실 등에 기초하여 3차 견당사 파견 자체가 2차와는 다른 정치세력이 행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백지 4년 시세조 중대형의 비조 환궁 참조.

680 ‘吐火羅, 覩貨邏’라고도 쓴다. 이 기사 외에도 제명천황 3년 7월조, 동 5년 3월조, 동 6년 7월조, 천무천황 4년 정월조에 보인다. 토화라는 서역의 吐火羅, 즉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보하라(Bokhara, Bukhara) 주변이라고 보는 설, 구주의 남쪽 土噶喇諸島라는 설, 미얀마 중부의 프롬(Prome)을 중심으로 변영한 驃國이라는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681 古代 인도의 祇園精舍로 유명한 舍衛城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설과, 필리핀제도 중부에 있는 비사야제도(Visayan Islands)라고 보는 설 등이 있다.

682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3위에 해당된다.

683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0위에 해당된다.

684 일본의 올령제에서 位階, 官職, 勲功에 따라 조정에서 받는 과호(課戸)이다.

685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右京 吳氏條에서는 ‘吳氏が 百濟國 德率 吳伎側의 후예이다.’라고 적고 있다.

686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7위에 해당된다.

모존⁶⁸⁸과 간인황후⁶⁸⁹를 모시고 황제⁶⁹⁰, 공경들을 데리고 난파궁⁶⁹¹으로 갔다. 임자(10일)에 천황이 정전에서 죽었다(崩). 빈소를 남정(南庭)에 세웠다. 소산상 백설조토사련토덕(百舌鳥土師連土德; 모즈노하지노무라지츠치토코)⁶⁹²이 빈궁(殯宮)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12월 임인삭 기유(8일)에 대판기장릉(大坂磯長陵; 오호사카노시나가노미사자키)⁶⁹³에 장사지냈다. 이 날에 황태자는 황조모존을 모시고 왜의 하변행궁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노인이 “취가 왜의 도움으로 향한 것은 도움을 옮기는 전조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해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울러 사신⁶⁹⁴을 보내 조문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25

687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688 皇極上皇을 가리킨다.

689 효덕천황의 황후이다.

690 大海人皇子 등을 말한다.

691 難波長柄豐碯宮을 가리킨다.

692 여기에만 보인다. 百舌鳥土師는 和泉國 大鳥郡 百舌(현재 堺市 百舌) 지역의 土師氏를 가리킨다.

693 『延喜式』 諸陵式에서는 「在河內國石川郡, 兆域東西五町, 南北五町, 守戸三烟」이라고 적고 있다. 『陵墓要覽』에서는 소재지를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 大字山田으로 비정하였다.

694 『日本書紀』 持統天皇 3년 5월조에는 巨勢稻持를 신라에 파견하여 孝德天皇의 죽음을 알렸다고 기재하고 있다.

天萬豐日天皇 孝德天皇

天萬豐日天皇，天豐財重日足姬天皇同母弟也。尊佛法，輕神道[斷生國魂社樹之類，是也]。爲人柔仁好儒，不擇貴賤，頻降恩勅。天豐財重日足姬天皇四年六月庚戌，天豐財重日足姬天皇，思欲傳位於中大兄，而詔曰，云云。中大兄，退語於中臣鎌子連。中臣鎌子連議曰，古人大兄，殿下之兄也。輕皇子，殿下之舅也。方今，古人大兄在，而殿下陟天皇位，便違人弟恭遜之心。且立舅以答民望，不亦可乎。於是，中大兄深嘉厥議，密以奏聞。天豐財重日足姬天皇，授璽綬禪位。策曰，咨，爾輕皇子，云云。輕皇子，再三固辭，轉讓於古人大兄[更名，古人大市皇子。]曰，大兄命，是昔天皇所生，而又年長，以斯二理，可居天位。於是，古人大兄，避座逡巡，拱手辭曰，奉順天皇聖旨，何勞推讓於臣。臣願出家，入于吉野，勤修佛道，奉祐天皇。辭訖，解所佩刀，投擲於地。亦命帳內，皆令解刀。卽自詣於法興寺佛殿與塔間，剔除髻髮，披着袈裟。由是，輕皇子，不得固辭，升壇卽祚。于時，大伴長德[字馬飼。]連，帶金靱，立於壇右。犬上健部君，帶金靱，立於壇左。百官臣連國造伴造百八十部，羅列匝拜。是日，奉號於豐財天皇，曰皇祖母尊。以中大兄，爲皇太子。以阿倍內摩呂臣，爲左大臣。蘇我倉山田石川麻呂臣，爲右大臣。以大錦冠，授中臣鎌子連，爲內臣。增封若干戶，云云。中臣鎌子連，懷至忠之誠，據宰臣之勢，處官司之上。故進退廢置，計從事立，云云。以沙

門旻法師·高向史玄理，爲國博士。辛亥，以金策，賜阿倍倉梯麻呂大臣與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或本云，賜練金.]。乙卯，天皇·皇祖母尊·皇太子，於大槻樹之下，召集群臣，盟曰[告天神地祇曰，天覆地載，帝道唯一，而末代淺薄，君臣失序，皇天假手於我，誅殄暴逆，今共瀝心血，而自今以後，君無二政，臣無貳朝，若貳此盟，天災地妖，鬼誅人伐，皎如日月也.]。改天豐財重日足姬天皇四年，爲大化元年。

大化元年 秋七月丁卯朔戊辰，立息長足日廣額天皇女間人皇女，爲皇后，立二妃。元妃，阿倍倉梯麻呂大臣女曰小足媛，生有間皇子。次妃，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女曰乳娘。丙子，高麗·百濟·新羅，并遣使進調。百濟調使，兼領任那使，進任那調。唯百濟大使佐平緣福，遇病留津館，而不入於京。巨勢德太臣，詔於高麗使曰，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天皇所遣之使，與高麗神子奉遣之使，既往短而將來長，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又詔於百濟使曰，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始我遠皇祖之世，以百濟國，爲內官家，譬如三絞之綱。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界。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界。而調有關。由是，却還其調。任那所出物者，天皇之所明覽。夫自今以後，可具題國與所出調。汝佐平等，不易面來，早須明報。今重遣三輪君東人·馬飼造[闕名.]。又勅，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戊寅，天皇詔阿倍倉梯萬侶大臣·蘇我石川萬侶大臣曰，當遵上古聖王之蹟，而治天下。復當有信，可治天下。己卯，天皇詔阿倍倉梯麻呂大臣·蘇我石川萬侶大臣曰，可歷問大夫與百伴造等，以悅使民之路。庚辰，蘇我石川麻呂大臣奏曰，先以祭鎮神祇，然後應議政事。是日，遣倭漢直比羅夫於尾張國，忌部首子麻呂於美濃國，課供神之幣。

八月丙申朔庚子，拜東國等國司。仍詔國司等曰，隨天神之所奉寄，方今始將修萬國。凡國家所有公民，大小所領人衆，汝等之任，皆作戶籍，及校田畝。其園池水陸之利，與百姓俱。又國司等，在國不得判罪。不得取他貨賂，令致民於貧苦。上京之時，不得多從百姓於己。唯得使從國造·郡領。但以公事往來之時，得

騎部內之馬，得漁部內之飯，介以上，奉法必須褒賞，違法當降爵位，判官以下，取他貨賂，二倍徵之，遂以輕重科罪，其長官從者九人，次官從者七人，主典從者五人，若違限外將者，主與所從之人，并當科罪，若有求名之人，元非國造·伴造·縣稻置，而輒詐訴言，自我祖時，領此官家，治是郡縣，汝等國司，不得隨詐使牒於朝，審得實狀而後可申，又於閑曠之所，起造兵庫，收聚國郡刀甲弓矢，邊國近與蝦夷接境處者，可盡數集其兵，而猶假授本主，其於倭國六縣被遣使者，宜造戶籍，并校田畝[謂檢覈墾田頃畝及民戶口年紀]，汝等國司，可明聽退，即賜帛布，各有差，是日，設鍾匱於朝，而詔曰，若憂訴之人，有伴造者，其伴造，先勘當而奏，有尊長者，其尊長先勘當而奏，若其伴造尊長，不審所訴，收牒納匱，以其罪罪之，其收牒者，昧旦執牒，奏於內裏，朕題年月，便示群卿，或懈怠不理，或阿黨有曲訴者，可以撞鍾，由是，懸鍾置匱於朝，天下之民，咸知朕意，又男女之法者，良男良女共所生子，配其父，若良男，娶婢所生子，配其母，若良女，嫁奴所生子，配其父，若兩家奴婢所生子，配其母，若寺家仕丁之子者，如良人法，若別入奴婢者，如奴婢法，今剋見人爲制之始，癸卯，遣使於大寺，喚聚僧尼，而詔曰，於磯城嶋宮御宇天皇十三年中，百濟明王，奉傳佛法於我大倭，是時，群臣俱不欲傳，而蘇我稻目宿禰，獨信其法，天皇乃詔稻目宿禰，使奉其法，於譯語田宮御宇天皇之世，蘇我馬子宿禰，追遵考父之風，猶重能仁之教，而餘臣不信，此典幾亡，天皇，詔馬子宿禰，而使奉其法，於小墾田宮御宇天皇之世，馬子宿禰，奉爲天皇，造丈六繡像·丈六銅像，顯揚佛教，恭敬僧尼，朕更復思崇正教，光啓大猷，故以沙門狛大法師·福亮·惠雲·常安·靈雲·惠至[寺主]·僧旻·道登·惠隣·惠妙，而爲十師，別以惠妙法師，爲百濟寺寺主，此十師等，宜能教導衆僧，修行釋教，要使如法，凡自天皇至于伴造，所造之寺，不能營者，朕皆助作，今拜寺司等與寺主，巡行諸寺，驗僧尼·奴婢·田畝之實，而盡顯奏，即以來目臣[闕名]三輪色夫君·額田部連甥，爲法頭，

九月丙寅朔，遣使者於諸國，治兵[或本云，從六月至于九月，遣使者於四方國，集種

種兵器。], 戊辰, 古人皇子, 與蘇我田口臣川堀·物部朴井連稚子·吉備笠臣垂·倭漢文直麻呂·朴市秦造田來津, 謀反[或本云, 古人太子。或本云, 古人大兄。此皇子, 入吉野山。故或云吉野太子。垂, 此云之娜屢。], 丁丑, 吉備笠臣垂, 自首於中大兄曰, 吉野古人皇子, 與蘇我田口臣川堀等謀反。臣預其徒[或本云, 吉備笠臣垂, 言於阿倍大臣與蘇我大臣曰, 臣預於吉野皇子謀反之徒。故今自首也。], 中大兄, 即使菟田朴室古·高麗宮知, 將兵若干, 討古人大市皇子等[或本云, 十一月甲午卅日, 中大兄使阿倍渠曾倍臣·佐伯部子麻呂, 二人, 將兵卅人, 攻古人大兄, 斬古人大兄與子。其妃妾自經死。或本云, 十一月, 吉野大兄王謀反。事覺伏誅也。], 甲申, 遣使者於諸國, 錄民元數, 仍詔曰, 自古以降, 每天皇時, 置標代民, 垂名於後。其臣連等·伴造國造, 各置己民, 恣情驅使。又割國縣山海·林野·池田, 以爲己財, 爭戰不已。或者兼并數萬頃田, 或者全無容針少地。進調賦時, 其臣連伴造等, 先自收斂, 然後分進。修治宮殿, 築造園陵, 各率己民, 隨事而作。易曰, 損上益下,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方今, 百姓猶乏。而有勢者, 分割水陸, 以爲私地, 賣與百姓, 年索其價。從今以後, 不得賣地。勿妄作主, 兼并劣弱。百姓大悅。

冬十二月乙未朔癸卯, 天皇遷都難波長柄豐碕。老人等相謂之曰, 自春至夏, 鼠向難波, 遷都之兆也。戊午, 越國言, 海畔枯查, 向東移去。沙上有蹟, 如耕田狀。是年也, 太歲乙巳。

二年 春正月甲子朔, 賀正禮畢, 卽宣改新之詔曰, 其一曰, 罷昔在天皇等所立子代之民·處處屯倉, 及別臣連伴造國造村首所有部曲之民, 處處田莊, 仍賜食封大夫以上, 各有差, 降以布帛, 賜官人百姓, 有差。又曰, 大夫所使治民也, 能盡其治, 則民賴之。故, 重其祿, 所以爲民也。其二曰, 初修京師, 置畿內國司·郡司·關塞·斥候·防人·驛馬·傳馬, 及造鈴契, 定山河。凡京每坊置長一人, 四坊置令一人, 掌按檢戶口, 督察奸非。其坊令, 取坊內明廉強直, 堪時務者充¹。里坊長, 并取里坊百姓清正強幹者充。若當里坊無人, 聽於比里坊簡用。凡畿內, 東

自名壑橫河以來，南自紀伊兄山以來[兄，此云制.]，西自赤石櫛淵以來，北自近江狹狹波合坂山以來，爲畿內國，凡郡以四十里爲大郡，三十里以下四里以上爲中郡，三里爲小郡。其郡司，并取國造性識清廉，堪時務者，爲大領·少領，強幹聰敏，工書算者，爲主政·主帳。凡給驛馬·傳馬，皆依鈴傳符刻數。凡諸國及關，給鈴契，并長官執，無次官執。其三曰，初造戶籍·計帳·班田收授之法，凡五十戶爲里，每里置長一人，掌按檢戶口，課殖農桑，禁察非違，催駟賦役。若山谷阻險，地遠人稀之處，隨便量置。凡田長卅步，廣十二步爲段，十段爲町，段租稻二束二把，町租稻廿二束。其四曰，罷舊賦役，而行田之調。凡絹絁絲²綿，并隨鄉土所出。田一町絹一丈，四町成匹，長四丈，廣二尺半，絁二丈，二町成匹，長廣同絹。布四丈，長廣同絹絁，一町成端[絲綿絁屯，諸處不見.]，別收戶別之調。一戶貲布一丈二尺。凡調副物鹽贄，亦隨鄉土所出。凡官馬者，中馬每一百戶輸一匹，若細馬每二百戶輸一匹。其買馬直者，一戶布一丈二尺。凡兵者，人身輸刀甲弓矢幡鼓。凡仕丁者，改舊每卅戶一人[以一人充廝也.]，而每五十戶一人[以一人充廝.]，以充諸司。以五十戶，充仕丁一人之糧，一戶庸布一丈二尺，庸米五斗。凡采女者，貢郡少領以上姉妹及子女形容端正者[從丁一人，從女二人.]，以一百戶，充采女一人糧，庸布·庸米，皆准仕丁。

是月，天皇御子代離宮，遣使者，詔郡國修營兵庫，蝦夷親附[或本云，壞難波狹屋部邑子代屯倉，而起行宮.]。

二月甲午朔戊申，天皇幸宮東門，使蘇我右大臣詔曰，明神御宇日本倭根子天皇，詔於集侍卿等臣連國造伴造及諸百姓，朕聞，明哲之御民者，懸鍾於闕³，而觀百姓之憂，作屋於衢，而聽路行之謗。雖薊薨之說，親問爲師。由是，朕前下詔

1 소학관본에서는 ‘宛’이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糸’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3 소학관본에서는 ‘門’이라고 적고 있다.

曰，古之治天下，朝有進善之旌，誹謗之木，所以通治道，而來諫者也。皆所以廣詢于下也。管子曰，黃帝立明堂之議者，上觀於賢也。堯有衢室之問者，下聽於民也。舜有告善之旌，而主不蔽也。禹立建鼓於朝，而備訊望也。湯有總術⁴之庭，以觀民非也。武王有靈臺之囿，而賢者進也。此故，聖帝明王，所以有而勿失，得而勿亡也。所以，懸鍾設置，拜收表人，使憂諫人，納表于匱，詔收表人，每旦奏請，朕得奏請，仍示群卿，使使勘當，庶無留滯。如群卿等，或懈怠不勸，或阿黨比周，朕復不肯聽諫，憂訴之人，當可撞鍾，詔已如此。既有民明直心，懷國土之風，切諫陳疏，納於設置，故今顯示集在黎民。其表稱，緣奉國政到於京民，官⁵留使於雜役，云云。朕猶以之傷惻。民豈復思至此，然遷都未久，還似于賓。由是，不得不使，而強役之。每念於斯，未嘗安寢。朕觀此表，嘉歎難休。故隨所諫之言，罷處處之雜役。昔詔曰，諫者題名，而不隨詔。今⁶者，自非求利，而將助國，不言題不，諫朕廢忘。又詔，集在國民，所訴多在。今將解理，諦聽所宣。其欲決疑，入京朝集者，且莫退散，聚侍於朝。高麗·百濟·任那·新羅，并遣使，貢獻調賦。乙卯，天皇還自子代離宮。

三月癸亥朔甲子，詔東國國司等曰，集侍群卿大夫及臣連國造伴造，并諸百姓等，咸可聽之。夫君於天地之間，而宰萬民者，不可獨制，要須臣翼。由是，代代之我皇祖等，共卿祖考俱治。朕復思欲蒙神護力，共卿等治。故，前以良家大夫，使治東方八道。既而國司之任，六人奉法，二人違令，毀譽各聞。朕便美厥奉法，疾斯違令。凡將治者，若君如臣，先當正己，而後正他。如不自正，何能正人。是以，不自正者，不擇君臣，乃可受殃。豈不慎矣。汝率而正，孰敢不正。今隨前勅而處斷之。辛巳，詔東國朝集使等曰，集侍群卿大夫及國造伴造，并諸百

4 소학관본에서는 ‘街’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官’이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슈’이라고 적고 있다.

姓等，咸可聽之。以去年八月，朕親誨曰，莫因官勢，取公私物。可喫部內之食，可騎部內之馬。若違所誨，次官以上，降其爵位，主典以下，決其笞杖。入己物者，倍而徵之。詔既若斯。今問朝集使及諸國造等，國司至任，奉所誨不。於是，朝集使等，具陳其狀。穗積臣咋所犯者，於百姓中，每戶求索，仍悔還物，而不盡與。其介富制臣[闕名]巨勢臣紫檀，二人之過者，不正其上，云云。凡以下官人，咸有過也。其巨勢德禰臣所犯者，於百姓中，每戶求索，仍悔還物，而不盡與。復取田部之馬。其介朴井連·押坂連[并闕名]，二人者，不正其上所失，而翻共求己利。復取國造之馬。臺直須彌，初雖諫上，而遂俱濁。凡以下官人，咸有過也。其紀麻利耆陀臣所犯者，使人於朝倉君·井上君，二人之所，而爲牽來其馬視之。復使朝倉君作刀，復得朝倉君之弓布。復以國造所送兵代之物，不明還主，妄傳國造。復於所任之國，被他偷刀。復於倭國，被他偷刀。是其紀臣·其介三輪君大口·河邊臣百依等過也。其以下官人河邊臣磯泊·丹比深目·百舌鳥長兄·葛城福草·難波癩龜[俱毗柯梅]犬養五十君·伊岐史麻呂·丹比大眼，凡，是八人等，咸有過也。其阿曇連[闕名]所犯者，和德史有所患時，言於國造，使送官物。復取湯部之馬。其介膳部臣百依所犯者，草代之物，收置於家。復取國造之馬，而換他馬來。河邊臣磐管·湯麻呂，兄弟二人，亦有過也。大市連[闕名]所犯者，違於前詔。前詔曰，國司等，莫於任所，自斷民之所訴。輒違斯詔，自判冤礪人之所訴，及中臣德之奴事。中臣德亦是同罪也。涯田臣[闕名]之過者，在於倭國，被偷官刀。是不謹也。小綠臣·丹波臣，是拙而無犯[并闕名]。忌部木葉·中臣連正月，二人亦有過也。羽田臣·田口臣，二人并無過也[闕名]。平群臣[闕名]所犯者，三國人所訴，有而未問。以此觀之，紀麻利耆陀臣·巨勢德禰臣·穗積咋臣，汝等三人之所怠拙也。念斯違詔，豈不勞情。夫爲君臣，以牧民者，自率而正，孰敢不直。若君或臣，不正心者，當受其罪。追悔何及。是以，凡諸國司，隨過輕重，考而罰之。又諸國造違詔，送財於己國司。遂俱求利，恆懷穢惡。不可不治。念雖若是，始處新宮，將幣諸神，屬乎今歲。又於農月，不合使民，緣造新宮，固不

獲已，深感二途，大赦天下。自今以後，國司郡司，勉之勗之，勿爲放逸。宜遣使者，諸國流人，及獄中囚，一皆放捨。別鹽屋鰯魚〔鰯魚，此云舉能之慮。〕神社福草・朝倉君・梶子連・三河大伴直・蘆尾直〔四人，并闕名。〕，此六人，奉順天皇。朕深讚美厥心，宜罷官司處處屯田，及吉備嶋皇祖母處處貸稻，以其屯田，班賜群臣及伴造等。又於脫籍寺，入田與山。壬午，皇太子使使奏請曰，昔在天皇等世，混齊天下而治。及逮于今，分離失業〔謂國業也。〕，屬天皇我皇，可牧萬民之運，天人合應，厥政惟新。是故，慶之尊之，頂戴伏奏。現爲明神御八嶋國天皇，問於臣曰，其群臣連及伴造國造所有，昔在天皇日所置子代入部，皇子等私有御名入部，皇祖大兄御名入部〔謂彥人大兄也。〕，及其屯倉，猶如古代，而置以不。臣卽恭承所詔，奉答而曰，天無雙日，國無二王。是故，兼并天下，可使萬民，唯天皇耳。別以入部及所封民，簡充仕丁，從前處分。自餘以外，恐私駭役。故獻入部五百廿四口・屯倉一百八十一所。甲申，詔曰，朕聞，西土之君，戒其民曰，古之葬者，因高爲墓，不封不樹。棺槨足以朽骨，衣衾足以朽穴而已。故吾營此丘墟，不食之地，欲使易代之後，不知其所。無藏金銀銅鐵。一以瓦器，合古塗車・蓊靈之義。棺漆際會三過，飯含無以珠玉。無施珠襦玉柙。諸愚俗所爲也。又曰，夫葬者藏也。欲人之不得見也。酒者，我民貧絕，專由營墓。爰陳其制，尊卑使別。夫王以上之墓者，其內長九尺，闊五尺。其外域，方九尋，高五尋。役一千人，七日使訖。其葬時帷帳等，用白布。有輜車。上臣之墓者，其內長闊及高，皆准於上。其外域，方七尋，高三尋。役五百人，五日使訖。其葬時帷帳等，用白布。擔而行之〔蓋此以肩擔輿而送之乎。〕。下臣之墓者，其內長闊及高，皆准於上。其外域，方五尋，高二尋半。役二百五十人，三日使訖。其葬時帷帳等，用白布，亦准於上。大仁・小仁之墓者，其內長九尺，高闊各四尺。不封使平。役一百人，一日使訖。大禮以下，小智以上之墓者，皆准大仁。役五十人，一日使訖。凡王以下，小智以上之墓者，宜用小石。其帷帳等，宜用白布。庶民亡時，收埋於地。其帷帳等，可用麤布。一日莫停。凡王以下，及至庶民，不得營殯。凡自畿內，及諸國等，宜定一所，而使收

埋，不得污穢散埋處處。凡人死亡之時，若經自殉，或絞人殉，及強殉亡人之馬，或爲亡人，藏寶於墓，或爲亡人，斷髮刺股而誅。如此舊俗，一皆悉斷〔或本云，無藏金銀錦綾五綵。又曰，凡自諸臣及至于民，不得用金銀。〕。縱有違詔，犯所禁者，必罪其族。復有見言不見，不見言見，聞言不聞，不聞言聞。都無正語正見，巧詐者多。復有奴婢，欺主貧困，自託勢家，求活。勢家仍強留買，不送本主者多。復有妻妾，爲夫被放之日，經年之後，適他恆理。而此前夫，三四年後，貪求後夫財物，爲己利者甚衆。復有恃勢之男，浪要他女，而未納際，女自適人，其浪要者，嗔求兩家財物，爲己利者甚衆。復有亡夫之婦，若經十年及二十年，適人爲婦，并未嫁之女，始適人時，於是，妬斯夫婦，使祓除多。復有爲妻，被嫌離者，特由慙愧所惱，強爲事娶之婢〔事娶，此云居騰作柯。〕。復有屢嫌已婦奸他，好向官司請決。假使，得明三證，而俱顯陳，然後可諮。詎生浪訴。復有被役邊畔之民，事了還鄉之日，忽然得疾，臥死路頭。於是，路頭之家，乃謂之曰，何故使人死於餘路，因留死者友伴，強使祓除。由是，兄雖臥死於路，其弟不收者多。復有百姓，溺死於河，逢者乃謂之曰，何故於我使遇溺人，因留溺者友伴，強使祓除。由是，兄雖溺死於河，其弟不救者衆。復有被役之民，路頭炊飯。於是，路頭之家，乃謂之曰，何故任情炊飯餘路，強使祓除。復有百姓，就他借甌炊飯，其甌觸物而覆。於是，甌主乃使祓除。如此等類，愚俗所染。今悉除斷，勿使復爲。復有百姓，臨向京日，恐所乘馬，疲瘦不行，以布二尋·麻二束，送參河·尾張，兩國之人，雇令養飼。乃入于京。於還鄉日，送鋤一口。而參河人等，不能養飼，翻令瘦死。若是細馬，卽生貪愛，工作謾語，言被偷失。若是牝馬，孕於己家，便使祓除，遂奪其馬。飛聞若是，故今立制。凡養馬於路傍國者，將被雇人，審告村首〔首長也。〕，方授酬物。其還鄉日，不須更報。如致疲損，不合得物。縱違斯詔，將科重罪。罷市司要路津濟渡子之調賦，給與田地。凡始畿內，及四方國，當農作月，早務營田。不合使喫美物與酒。宜差清廉使者，告於畿內。其四方諸國國造等，宜擇善使，依詔催勤。秋八月庚申朔癸酉，詔曰，原夫天地陰陽，不使四時相亂。惟此天

地，生乎萬物。萬物之內，人是最靈。最靈之間，聖爲人主。是以，聖主天皇，則天御寓，思人獲所，暫不廢胸。而始王之名名，臣連伴造國造，分其品部，別彼名名。復，以其民品部，交雜使居國縣。遂使父子易姓，兄弟異宗，夫婦更互殊名。一家五分六割。由是，爭競之訟，盈國充朝。終不見治，相亂彌盛。粵以，始於今之御寓天皇，及臣連等，所有品部，宜悉皆罷，爲國家民。其假借王名爲伴造，其襲據祖名爲臣連。斯等，深不悟情，忽聞若是所宣，當思，祖名所借名滅。由是，預宣，使聽知朕所懷。王者之兒，相續御寓，信知時帝與祖皇名，不可見忘於世。而以王名，輕掛川野，呼名百姓，誠可畏焉。凡王者之號，將隨日月遠流，祖子之名，可共天地長往。如是思故宣之。始於祖子，奉仕卿大夫臣連伴造氏人等[或本云，名名王民.]，咸可聽聞。今以汝等，使仕狀者，改去舊職，新設百官，及著位階，以官位敍。今發遣國司，并彼國造，可以奉聞。去年付於朝集之政者，隨前處分。以收數田，均給於民。勿生彼我。凡給田者，其百姓家，近接於田，必先於近。如此奉宣。凡調賦者，可收男身之調。凡仕丁者，每五十戶一人。宜觀國國壇界，或書或圖，持來奉示。國縣之名，來時將定。國國可築堤地，可穿溝所，可墾田間，均給使造。當聞解此所宣。

九月，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

是月，天皇御蝦蟆行宮[或本云，離宮.]。

是歲，越國之鼠，晝夜相連，向東移去。

三年 春正月戊子朔壬寅，射於朝庭。是日，高麗新羅，并遣使，貢獻調賦。

夏四月丁巳朔壬午，詔曰，惟神[惟神者，謂隨神道。亦謂自有神道也。]我子應治故寄。是以，與天地之初，君臨之國也。自始治國皇祖之時，天下大同，都無彼此者也。既而頃者，始於神名·天皇名名，或別爲臣連之氏。或別爲造等之色。由是，率土民心，固執彼此，深生我汝，各守名名。又拙弱臣連伴造國造，以彼爲姓神

名王名，遂自心之所歸，妄付前前處處[前前，猶謂人人也.]，爰以神名王名，爲人賂物之故，入他奴婢，穢污清名，遂即民心不整，國政難治，是故，今者，隨在天神，屬可治平之運，使悟斯等，而將⁷治國治民，是先是後，今日明日，次而續詔，然素賴天皇聖化而習舊俗之民，未詔之間，必當難待，故始於皇子群臣，及諸百姓，將賜庸調。

是歲，壞小郡而營宮，天皇處小郡宮，而定禮法，其制曰，凡有位者，要於寅時，南門之外，左右羅列，候日初出，就庭再拜，乃侍于廳，若晚參者，不得入侍，臨到午時，聽鍾而罷，其擊鍾吏者，垂赤巾於前，其鍾臺者，起於中庭，工人大山位倭漢直荒田井比羅夫，誤穿溝瀆，控引難波，而改穿疲勞百姓，爰有上疏⁸切⁹諫者，天皇詔曰，妄聽比羅夫所詐，而空穿瀆，朕之過也，即日罷役。

冬十月甲寅朔甲子，天皇幸有間溫湯，左右大臣群卿大夫從焉。

十二月晦，天皇還自溫湯，而停武庫行宮[武庫，地名也.]，是日，災皇太子宮，時人，大驚怪。

是歲，制七色一十三階之冠，一曰，織冠，有大小二階，以織爲之，以繡裁冠之緣，服色并用深紫，二曰，繡冠，有大小二階，以繡爲之，其冠之緣·服色，并同織冠，三曰，紫冠，有大小二階，以紫爲之，以織裁冠之緣，服色用淺紫，四曰，錦冠，有大小二階，其大錦冠，以大伯仙錦爲之，以織裁冠之緣，其小錦冠，以小伯仙錦爲之，以大伯仙錦，裁冠之緣，服色并用眞緋，五曰，青冠，以青絹爲之，有大小二階，其大青冠，以大伯仙錦，裁冠之緣，其小青冠，以小伯仙錦，裁冠之緣，服色并用紺，六曰，黑冠，有大小二階，其大黑冠，以車形錦，裁冠之緣，其小黑冠，以陵形錦，裁冠之緣，服色并用綠，七曰，建武[初位，又名立身.]，

7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8 소학관본에서는 ‘疏’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以黑絹爲之，以紺裁冠之緣，別有鐙冠，以黑絹爲之，其冠之背，張漆羅，以緣與鈿，異其高下，形似於蟬。小錦冠以上之鈿，雜金銀爲之，大小青冠之鈿，以銀爲之，大小黑冠之鈿，以銅爲之。建武之冠，無鈿也。此冠者，大會，饗客，四月七日齋時，所着焉。新羅遣上臣大阿浪金春秋等，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仍以春秋爲質，春秋美姿顏善談笑¹⁰，造淳足柵，置柵戶，老人等相謂之曰，數年鼠向東行，此造柵之兆乎。

四年 春正月壬午朔，賀正焉。是夕，天皇，幸于難波碕宮。

二月壬子朔，遣¹¹於三韓[三韓，謂高麗·百濟·新羅。]¹²學問僧。己未，阿倍大臣，請四衆於四天王寺，迎佛像四軀，使坐于塔內，造靈鷲山像，累積數爲之。

夏四月辛亥朔，罷古冠，左右大臣，猶着¹³古冠。

是歲，新羅遣使貢調，治磐舟柵，以備蝦夷，遂選越與信濃之民，始置柵戶。

五年 春正月丙午朔，賀正焉。

二月，制冠十九階。一曰，大織。二曰，小織。三曰，大繡。四曰，小繡。五曰，大紫。六曰，小紫。七曰，大花上。八曰，大花下。九曰，小花上。十曰，小花下。十一曰，大山上。十二曰，大山下。十三曰，小山上。十四曰，小山下。十五曰，大乙上。十六曰，大乙下。十七曰，小乙上。十八曰，小乙下。十九曰，立身。

是月，詔博士高向玄理與釋僧旻，置八省百官。

三月乙巳朔辛酉，阿倍大臣薨。天皇幸朱雀門，舉哀而慟。皇祖母尊·皇太子等及諸公卿，悉隨哀哭。戊辰，蘇我臣日向[日向，字身刺]，讒倉山田大臣於皇太

10 소학관본에서는 '候'라고 적고 있다.

11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12 소학관본에는 없는 주이다.

13 소학관본에서는 '著'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子曰，僕之異母兄麻呂，伺皇太子遊於海浜，而將害之。將反其不久。皇太子信之。天皇使大伴狛連·三國麻呂公·穗積麁臣於蘇我倉山田石川麻呂大臣所，而問反之虛實。大臣答曰，被問之報，僕面當陳天皇之所。天皇更遣三國麻呂公·穗積麁臣，審其反狀。麻呂大臣，亦如前答。天皇乃將興軍，圍大臣宅。大臣乃將二子法師與赤猪[更名秦.]，自茅渟道，逃向於倭國境。大臣長子興志，先是在倭[謂在山田之家.]，營造其寺。今忽聞父逃來之事，迎於今來大槻，近就前行入寺。顧謂大臣曰，興志請，自直進，逆拒來軍。大臣不許焉。是夜，興志意欲燒宮。猶聚士卒[宮謂小墾田宮.]。己巳，大臣謂長子興志曰，汝愛身乎。興志對曰，不愛也。大臣，仍陳說於山田寺衆僧及長子興志，與數十人曰，夫爲人臣者，安構逆於君。何失孝於父。凡此伽藍者，元非自身故造。奉爲天皇誓作。今我見讒身刺，而恐橫誅。聊望，黃泉尙懷忠退。所以來寺，使易終時。言畢，開佛殿之戶，仰¹⁴而¹⁵發誓曰，願我，生生世世，不怨君主。誓訖自經而死。妻子殉死者八。是日，以大伴狛連與蘇我日向臣，爲將領衆，使追大臣。將軍大伴連等，及到黑山，土師連身·采女臣使主麻呂，從山田寺，馳來告曰，蘇我大臣，既與三男一女，俱自經死。由是，將軍等從丹比坂歸。庚午，山田大臣之妻子及隨身者，自經死者衆。穗積臣麁，捉聚大臣伴黨田口臣筑紫等，着枷反縛。是夕，木臣麻呂·蘇我日向·穗積臣麁，以軍圍寺。喚物部二田造鹽使斬大臣之頭。於是，二田鹽，仍拔大刀，刺舉其穴，叱咤啼叫，而始斬之。甲戌，坐蘇我山田大臣，而被戮者，田口臣筑紫·耳梨道德·高田醜[醜此云之渠.]雄·額田部湯坐連[闕名.]秦吾寺等，凡十四人。被絞者九人。被流者十五人。

是月，遣使者，收山田大臣資財。資財之中，於好書上，題皇太子書。於重寶上，題皇太子物。使者還申所收之狀。皇太子始知大臣心猶貞淨，追生悔恥，哀

14 소학관본에서는 ‘作’이라고 적고 있다.

15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歎難休。卽拜日向臣於筑紫大宰帥。世人相謂之曰。是隱流乎。皇太子妃蘇我造媛。聞父大臣。爲鹽所斬。傷心痛惋。惡聞鹽名。所以。近侍於造媛者。諱稱鹽名。改曰堅鹽。造媛遂因傷心。而致死焉。皇太子聞造媛徂逝。愴然傷怛¹⁶。哀泣極甚。於是。野中川原史滿。進而奉歌。歌曰。耶麻鵝播爾。烏志賦拖都威底。陀虞毗¹⁷預俱。陀虞陸屢伊慕乎。多例柯威爾鷄武[其一.]。模騰渠等爾。婆那播左該騰摸。那爾騰柯母。于都俱之伊母我。磨陀左枳涅渠農[其二.]。皇太子慨然頽歎褒美曰。善矣。悲矣。乃授御琴而使唱。賜絹四匹·布廿端·綿二裘。

夏四月乙卯朔甲午。於小紫巨勢德陀古臣。授大紫。爲左大臣。於小紫大伴長德連[字馬飼.]。授大紫。爲右大臣。

五月癸卯朔。遣小花下三輪君色夫·大山上掃部連角麻呂等於新羅。

是歲。新羅王遣沙喙部沙浪金多遂爲質。從者卅七人[僧一人。侍郎二人。丞一人。達官郎一人。中客五人。才伎十人。譯語一人。雜僮人十六人。并卅七人也.]。

白雉元年 春正月辛丑朔。車駕幸味經宮。觀賀正禮[味經。此云阿膩賦.]。是日。車駕還宮。

二月庚午朔戊寅。穴戶國司草壁連醜經。獻白雉曰。國造首之同族贊。正月九日。於麻山獲焉。於是。問諸百濟君。百濟君曰。後漢明帝永平十一年。白雉在所見焉。云云。又問沙門等。沙門等對曰。耳所未聞。目所未覩。宜赦天下。使悅民心。道登法師曰。昔高麗欲營伽藍。無地不覽。便於一所。白鹿徐行。遂於此地。營造伽藍。名白鹿園寺。住持佛法。又白雀見于一寺田莊。國人僉曰。休祥。又遣大唐使者。持死三足烏來。國人亦曰。休祥。斯等雖微。尚謂祥物。況復白雉。僧旻法師曰。此謂休祥。足爲希物。伏聞。王者旁流四表。則白雉見。又王者祭祀。

16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不相踰，宴食衣服，有節則至。又王者清素，則山出白雉。又王者仁聖則見。又周成王時，越裳氏，來獻白雉曰，吾聞，國之黃耆曰，久矣無別風淫雨，江海不波溢，三年於茲矣。意中國有聖人乎。盍往朝之。故重三譯而至。又晉武帝咸寧元年，見松滋。是卽休祥。可赦天下。是以白雉，使放于園。甲申，朝廷隊仗，如元會儀。左右大臣百官人等，爲四列於紫門外。以粟田臣飯蟲等四人，使執雉輿，而在前去。左右大臣，乃率百官及百濟君豐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至¹⁸中庭。使三國公麻呂·猪名公高見·三輪君龜穗·紀臣乎麻呂岐太，四人，代執雉輿，而進殿前。時左右大臣，就執輿前頭，伊勢王·三國公麻呂·倉臣小屎，執輿後頭，置於御座之前。天皇卽召皇太子，共執而觀。皇太子退而再拜。使巨勢大臣奉賀曰，公卿百官人等奉賀，陛下以清平之德，治天下之故，爰有白雉，自西方出。乃是，陛下，及至千秋萬歲，淨治四方大八島，公卿百官及諸百姓等，冀罄忠誠勤將事。奉賀訖再拜。詔曰，聖王出世，治天下時，天則應之，示其祥瑞。曩者，西土之君，周成王世，與漢明帝時，白雉爰見。我日本國譽田天皇之世，白鳥櫟宮。大鷦鷯帝之時，龍馬西見。是以，自古迄今，祥瑞時見，以應有德，其類多矣。所謂，鳳凰·騏驎·白雉·白鳥，若斯鳥獸，及于草木，有符應者，皆是，天地所生，休祥嘉瑞也。夫明聖之君，獲斯祥瑞，適其宜也。朕惟虛薄，何以享斯。蓋此專由扶翼公卿臣連伴造國造等，各盡丹誠，奉遵制度之所致也。是故，始於公卿，及百官等，以清白意，敬奉神祇，并受休祥，令榮天下。又詔曰，四方諸國郡等，由天委付之故，朕總臨而御寓。今我親神祖之所知，穴戶國中，有此嘉瑞。所以，大赦天下。改元白雉。仍禁放鷹於穴戶界，賜公卿大夫以下，至于令史，各有差。於是，褒美國司草壁連醜經，授大山。并大給祿。復穴戶三年調役。

夏四月，新羅遣使貢調[或本云，是天皇世，高麗·百濟·新羅，三國，每年遣使貢獻也.]

18 소학관본에서는 ‘而至’라고 적고 있다.

冬十月，爲入宮地，所壞丘墓，及被遷人者，賜物各有差。卽遣將作大匠荒田井直比羅夫，立宮界標。

是月，始造丈六繡像·俠侍·八部等卅六像。

是歲，漢山口直大口，奉詔刻千佛像。遣倭漢直縣·白髮部連鐙·難波吉士胡床，於安藝國，使造百濟舶二隻。

二年 春三月甲午朔丁未，丈六繡像等成。戊申，皇祖母尊，請十師等設齋。

夏六月，百濟·新羅，遣使貢調獻物。

冬十二月晦，於味經宮，請二千一百餘僧尼，使讀一切經。是夕，燃二千七百餘燈於朝廷內，使讀安宅·土側等經。於是，天皇從於大郡，遷居新宮。號曰難波長柄豐碕宮。

是歲，新羅貢調使知萬沙浪等，着唐國服，泊于筑紫。朝廷惡恣移俗，訶嘖追還。于時，巨勢大臣，奏請之曰，方今不伐新羅，於後必當有悔。其伐之狀，不須舉力。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相接浮盈艫舳，徵¹⁹召新羅，問其罪者，可易得焉。

三年 春正月己未朔，元日禮訖，車駕幸大郡宮。自正月至是月，班田既訖。凡田，長卅步爲段，十段爲町[段租稻一束半，町租稻十五束.]。

三月戊午朔丙寅，車駕還宮。

夏四月戊子朔壬寅，請沙門惠隱於內裏，使講無量壽經。以沙門惠資，爲論議者。以沙門一千，爲作聽衆。丁未，罷講。自於此日，初連雨水。至于九日，損壞宅屋，傷害田苗。人及牛馬，溺死者衆。

是月，造戶籍。凡五十戶爲里。每里長一人。凡戶主皆以家長爲之。凡戶皆五

¹⁹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家相保，一人爲長，以相檢察。新羅·百濟，遣使貢調獻物。

秋九月，造宮已訖，其宮殿之狀，不可殫論。

冬十二月晦，請天下僧尼於內裏，設齋大捨燃燈。

四年 夏五月辛亥朔壬戌，發遣大唐大使小山上吉士長丹，副使小乙上吉士駒[駒，更名絲.]，學問僧道嚴·道通·道光·惠施·覺勝·辯正·惠照·僧忍·知聰·道昭·定惠[定惠內大臣之長子也.] 安達[安達中臣渠每連之子.] 道觀[道觀春日粟田臣百濟之子.]，學生巨勢臣藥[藥豐足臣之子.] 氷連老人[老人眞玉之子，或本，以學問僧知辯·義德，學生坂合部連磐積而增焉.]，并一百廿一人，俱乘一船，以室原首御田，爲送使。又大使大山下高田首根麻呂[更名八掬脛.]，副使小乙上掃守連小麻呂，學問僧道福·義向，并一百廿人，俱乘一船，以土師連八手，爲送使。

是月，天皇幸旻法師房，而問其疾，遂口勅恩命[或本，於五年七月云，僧旻法師，臥病於阿曇寺，於是，天皇，幸而問之，仍執其手曰，若法師今日亡者，朕從明日亡.]。

六月，百濟·新羅，遣使貢調獻物，修治處處大道。天皇聞旻法師命終，而遣使弔，并多送贈。皇祖母尊及皇太子等，皆遣使，弔旻法師喪，遂爲法師，命畫工狛堅部子麻呂·鯽魚戶直等，多造佛菩薩像，安置於川原寺[或本云，在山田寺.]。

秋七月，被遣大唐使人高田根麻呂等，於薩麻之曲·竹嶋之間，合船沒死，唯有五人，繫胸一板，流遇竹嶋，不知所計。五人之中，門部金，採竹爲筏，泊于神嶋。凡此五人，經六日六夜，而全不食飯。於是，褒美金，進位給祿。

是歲，太子奏請曰，欲冀遷于倭京。天皇不許焉。皇太子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并率皇弟等，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于時，公卿大夫百官人等，皆隨而遷。由是，天皇恨欲捨於國位，令造宮於山碕。乃送歌於間人皇后曰，舸娜紀都該，阿我柯賦古磨²⁰播，比枳涅世儒，阿我柯賦古磨乎，比騰瀾都羅武箇。

20 소학관본에서는 ‘麻’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五年 春正月戊申朔夜，鼠向倭都而遷。壬子，以紫冠，授中臣鎌足連。增封若干戶。

二月，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或本云，夏五月，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玄理]，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副使大山下藥師惠日，判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或本云，判官小山下書直麻呂] 小乙上岡君宜·置始連大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老，此云於喻] 田邊史鳥等，分乘二船，留連數月。取新羅道，泊于萊州。遂到于京，奉觀天子。於是，東宮監門郭丈舉，悉問日本國之地里及國初之神名，皆隨問而答。押使高向玄理，卒於大唐[伊吉博得言，學問僧惠妙，於唐死。知聰，於海死。智國，於海死。智宗，以庚寅年，付新羅船歸。覺勝，於唐死。義通，於海死。定惠，以乙丑年，付劉德高等船歸。妙位·法勝，學生氷連老人·高黃金，并十二人，別倭種韓智興·趙元寶，今年共使人歸。]。

夏四月，吐火羅國男二人·女二人，舍衛女一人，被風流來于日向。

秋七月甲戌朔丁酉，西海使吉士長丹等，共百濟·新羅送使，泊于筑紫。

是月，褒美西海使等，奉對唐國天子，多得文書寶物，授小山上大使吉士長丹，以少花下。賜封二百戶。賜姓爲吳氏。授小乙上副使吉士駒，以小山上。

冬十月癸卯朔，皇太子聞天皇病疾，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并率皇弟公卿等，赴難波宮。壬子，天皇崩于正寢。仍起殯於南庭。以小山上百舌鳥土師連土德，主殯宮之事。

十二月壬寅朔己酉，葬于大坂磯長陵。是日，皇太子，奉皇祖母尊，遷居倭河邊行宮。老者語之曰，鼠向倭都，遷都之兆也。

是歲，高麗·百濟·新羅，并遣使奉弔。

일본서기 권 제26

日本書紀 卷第廿六

제37대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姬天皇) 제명천황(齊明天皇)



일본서기 권 제26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姫天皇; 아메토요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노스메라미코토) **제명천황**(齊明天皇; 사이메이텐노)

천풍재중일족희천황¹은 처음에 고평일천황(橘豐日天皇; 타치바나노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²의 손자 고향왕(高向王; 타카무쿠노오호키미)³에게 출가하여 한황자(漢皇子; 아야노미코)⁴를 낳았다. 뒤에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⁵에게 출가하여 2남 1녀를 낳았다⁶. 2년⁷에 황후가 되었다. 식장족일광액천황의 기(紀)에 보인다.

1 皇極天皇으로 재위했다가(642~645) 효덕천황에게 양위하였고, 효덕천황이 사망한 후에 重祚하여 제37대 齊明天皇으로 655년에서 661년까지 재위하였다. 重祚 후에는 舒明天皇의 飛鳥岡本宮을 皇居로 삼았기 때문에 後岡本宮天皇이라고도 한다. 재위하는 동안 동북 지방을 개척하였고,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부흥 운동에 원군을 파견하기 위해 북구주의 축자로 가서 체류하다 죽었다.

2 用明天皇을 가리킨다.

3 『河内志』에서는 '高向王의 墓가 錦部郡 上原村에 있는 大墓'라고 적고 있다.

4 高向王에게 출가하여 낳은 아들이므로 王子이다. 어머니가 천황이 되었기 때문에 皇子로 기록한 것이다.

5 舒明天皇을 가리킨다.

6 葛城皇子(天智天皇), 大海人皇子(天武天皇), 間人皇女(孝德天皇의 황후)를 가리킨다.

7 서명천황 2년(630)이다.

13년⁸ 겨울 10월에 식장족일광액천황이 죽었다(崩). 다음해 정월에 황후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⁹. 연호를 고쳐¹⁰ 4년 6월에 황위를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아메요로즈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¹¹에게 양위하였다. 천풍재중일족희천황을 황조모존(皇祖母尊; 스메미오야노미코토)¹²이라 칭하였다. 천만풍일천황은 그 뒤¹³ 10월에 죽었다(崩).

원년 봄 정월 임신삭 갑술(3일)에 황조모존이 비조판개궁(飛鳥板蓋宮; 아스카노이타후키노미야)¹⁴에서 황위에 올랐다¹⁵.

여름 5월 경오삭(1일)에 용을 타고 공중을 나는 사람이 있었다¹⁶. 용모가 당인(唐人)과 흡사하였다. 기름을 바른 파란 비옷을 입고¹⁷ 갈성령(葛城嶺; 카즈라키노타케)¹⁸에서부터 달려가서 담구산(膽駒山; 이코마노야마)¹⁹에 숨었다. 오시(午時)²⁰에 이르러 주길(住吉; 스미노에)의 송령(松嶺; 마츠노미네)²¹ 위에서 서쪽을

8 서명천황 13년(641)이다.

9 皇極天皇으로 즉위했다는 의미이다.

10 원문은 改元이지만 연호를 어떤 것으로 고쳤는지는 알 수 없다.

11 孝德天皇을 가리킨다.

12 皇祖母尊은 조모나 천황가의 女性 조상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이다.

13 『日本書紀』 효덕천황 白雉 5년 10월을 가리킨다.

14 『日本書紀』 皇極天皇 2년 4월조 飛鳥板蓋新宮 참조.

15 齊明天皇으로 즉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住吉大社神代記』와 거의 전승 내용이 동일하다. 『扶桑略記』에서는 『日本書紀』의 위의 내용을 인용한 뒤에 「時人曰, 蘇我豐浦大臣之靈也,」라고 적고 있고, 『帝王編年記』에서는 「人多死亡, 此靈所爲,」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적고 있다.

17 기름을 바른 푸른 비단으로 만든 雨具이다.

18 현재 奈良縣 御所市와 大阪府 南河内郡 千早赤阪村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19 현재 奈良縣 生駒市와 大阪府 東大阪市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20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향해 날아가 버렸다.

가을 7월 기사삭 기묘(11일)에 난파 조정에서 북(北)[北은 월(越; 코시)이다²².] 하이(蝦夷)²³ 99명, 동(東)[東은 육오(陸奥; 미치노쿠)이다²⁴.]하이 95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아울러 백제의 조사(調使) 150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²⁵. 또 책양(柵養; 키카후)²⁶하이 9명, 진예(津刈; 츠가루)²⁷하이 6명에게 관위 각각 2계를 주었다²⁸.

21 『日本書紀通證』에서는 住吉岡이라 보았다.

22 '越'은 北陸 방면을 가리킨다. 天武朝 이후에는 越前, 越中, 越後로 나뉜다. 養老 2년(718)에 越前國에서 能登國이 분리되었고, 弘仁 4년(813)에는 越前國에서 江沼郡과 加賀郡이 분리되어 加賀國이 되었다.

23 원래 東國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日本書紀』景行天皇 27년 2월조 蝦夷 참조.

24 울령제의 陸奥國이다. 『古事記』에서는 道奥라고 적고 있다.

25 뒤의 제명천황 원년 시세조의 분주에서는 '백제에서 대사 등 1백여 명이 도착하였다.'고 적고 있다.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백제가 대규모 사절단을 연달아 파견한 것은 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데 그 원인이 있다.

26 책양하이는 柵造의 지휘를 받는 하이를 의미한다. 柵은 '키'로 훈독되는데, 키는 城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키는 일반적으로 시설의 바깥을 둘러싼 방어시설을 가리키므로 防壘, 木柵, 濠 등 방어적인 기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주위에 목책을 두른 시설인 정족책과 반주책에는 책을 지키는 병사인 柵戶와 재지의 주민인 柵養의 하이 그리고 그들을 통할하는 柵造가 있었다. 근래 발굴을 통해 책의 구조가 밝혀졌다. 1980년대부터 계속 발굴된 仙臺 郡山유적은 仙臺평야 중앙의 宮城縣 仙臺市에 있는데, 7세기 중엽에서 8세기 초까지 사용된 지방관아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1기와 2기로 구분되는데, 7세기 중엽의 1기 관아유적은 동서 약 300m이고 남북 600m 정도이다. 면적은 0.18km²에 달한다. 1기 관아유적에는 掘立柱 건물지, 목재로 두른 작은 담인 材木列塀과 목판을 두른 담인 板塀으로 구획되어 있어 책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이 사용된 시기가 월 지역의 정족책, 반주책 설치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유적은 정족책, 반주책에 대응하여 陸奥 지역에 설치되었던 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27 津刈는 奥羽의 동해쪽 지역을 가리킨다.

28 齊明紀에는 하이 관계 기사가 많이 보인다. 특히 제명천황 4년(658) 4월부터 제명천황 6년(660) 3월까지 阿倍臣이 하이와 숙신을 공격한 기사가 보인다.

8월 무술삭(1일)에 하변신마려(河邊臣麻呂; 카하헤노오미마로)²⁹ 등이 당³⁰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정유삭 기유(13일)에 소간전(小墾田; 오히리다)에 궁전을 짓고 지붕을 기와로 덮으려고 하였다. 또 궁전 조영에 사용할 목재의 상당수가 심산유곡에서 썩어 문드러졌다³¹. 이에 결국 중지하고 만들지 않았다.

이 겨울에 비조판개궁에 화재가 있었다. 그로 인해 비조천원궁(飛鳥川原宮; 아스카노카하라노미야)³²으로 옮겨 살았다.

이 해에 고구려³³, 백제,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파견하여 조(調)를 바쳤다³⁴ [백제의 대사(大使) 서부(西部)³⁵ 달솔(達率)³⁶ 여의수(余宜受)³⁷, 부사(副使) 동부(東部) 은솔(恩率)³⁸ 조신인(調信仁)³⁹ 모두 합하여 1백여 명이다⁴⁰]. 하이와 준인(隼人; 하야히

29 효덕천황 백치 5년(654) 2월에 당으로 출발한 사신이다.

30 원문은 大唐이다.

31 推古天皇의 ‘小墾田宮’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 奈良縣 古市郡에 비정하고 있다.

32 川原宮이라고도 한다. 奈良縣 明日香村 川原에 현존하는 弘福寺 땅에 있었던 궁이다.

33 원문은 高麗이다. 『日本書紀』에 나오는 ‘高麗’는 모두 『三國史記』의 ‘高句麗’이다. 이하 ‘高麗’라 표기된 국명은 모두 ‘고구려’로 번역하였다.

34 고구려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고 있다.

35 백제의 五部 가운데 하나이다. 『周書』 百濟傳에서는 ‘백제의 王都가 上, 前, 中, 下, 後部の 5부로 구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상부와 하부는 동부와 서부로, 전부와 후부는 남부와 북부로도 표기된다.

36 백제의 16계 관등 가운데 제2위에 해당한다.

37 여기에만 보인다.

38 백제의 16계 관등 가운데 제3위에 해당한다.

39 여기에만 보인다.

40 백제는 제명천황의 즉위를 축하하는 한편 백제가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펼친 성과를 왜국에 알리고 왜국과의 군사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왜국에 장기 체재하고 있던 豐璋을 비롯한 백제 외교단과 상의하면서 백제가 멸망한 후에 왜국이 백제에 구원군을 파병할 때에 함께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신라왕 金春秋는 唐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토⁴¹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복속하였다. 조정에 와서 물건을 바쳤다. 신라는 특별히 급찬⁴² 미무(彌武)⁴³를 질(質)⁴⁴로 하여 재기자(才伎者)⁴⁵ 12명과 함께 파견하였다. 미무는 병에 걸려 죽었다. 이 해의 간지는 을묘⁴⁶이다.

2년 가을 8월 계사삭 경자(8일)에 고구려가 달사(達沙) 등을 파견하여 조를 바쳤다⁴⁷[대사 달사, 부사 이리지(伊利之)⁴⁸ 등 모두 81명이다.]⁴⁹.

9월에 고구려에 대사(大使) 선신엽적(膳臣葉積; 카시하데노오미하츠미)⁵⁰, 부사(副使) 관합부련반초(坂合部連磐鋏; 사카히베노무라지이하스키)⁵¹, 대판관(大判官)⁵²

41 고대 일본의 薩摩, 大隅(현재 鹿兒島縣)에 거주하던 사람을 칭한다.

42 신라의 17계 관등 가운데 하나로 제9위에 해당된다.

43 여기에만 보인다.

44 『日本書紀』 효덕천황 대화 3년 시세조의 金春秋, 동 5년 시세조의 金多遂, 그리고 여기의 彌武는 모두 신라의 ‘質’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들은 신라의 군사외교 임무를 띤 외교 특사였다.

45 技藝에 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46 을묘년은 655년이다.

47 고구려는 거의 매년 唐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신라는 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신라의 배후에 위치한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왜국과 관계를 강화하여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48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 2월조에서는 연개소문을 伊梨柯須彌라고 적고 있다. 伊梨는 淵, 泉의 훈을 표기한 것이며, 柯須彌는 개소문의 음을 표기한 것이다. 이리지는 연개소문의 동족이었다. 『新撰姓氏錄』에는 伊利之의 후손이라고 하는 日置造, 鳥井宿禰, 榮井宿禰, 吉井宿禰, 和造, 日置倉人 등이 보인다.

49 『日本書紀』의 고구려의 사절단 파견 기사 가운데 인명과 일행의 인원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다. 645년 이후 당이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자 연개소문은 왜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81명의 대규모 사신단을 왜국에 파견하였을 것이다.

50 여기에만 보인다.

51 제명천황 5년(659) 7월 3일에 견당사로 왜국을 출발하여 同 9월에 남해에서 조난당해 죽었다. 『續日本紀』 天平寶字 원년(757) 12월 임자조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功田 6町을 자손에게 사여하였다.’고 적혀 있다.

견상군백마려(犬上君白麻呂; 이누카미노키미시로마로)⁵³, 중판관(中判官) 하내서수(河內書首; 카후치노후미노오비토)⁵⁴[이름이 빠졌다.], 소판관(小判官) 대장의봉조마려(大藏衣縫造麻呂; 오호쿠라노키누누히노미야즈코마로)⁵⁵를 파견하였다⁵⁶.

이 해에 비조의 강본(岡本; 오카모토)에 새로 궁전 지을 터⁵⁷를 정하였다. 이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쳤다. 그래서 감색 장막⁵⁸을 궁전 터에 치고 향응을 베풀었다. 마침내 궁전을 세우고 천황이 옮겨갔다⁵⁹. 이를 후비조강본궁(後飛鳥岡本宮; 노치노아스카노오카모토노미야)이라 불렀다⁶⁰. 전신령(田身嶺; 타무노미네)⁶¹의 정상에 담⁶²을 둘러쳤다[田身은 산 이름이다. 타무(大務)라고 읽는다.]. 또 산의 정상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槻樹] 근처에 높은 망루⁶³를 세우고, 양규궁(兩槻宮; 후타츠키노미야)⁶⁴이라 불렀다. 또한 천궁

52 율령제의 4등관(長官, 次官, 判官, 主典) 가운데 3등관에 해당한다.

53 여기에만 보인다.

54 西首는 ‘文首’라고도 표기한다. 河內國 古市郡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문필을 전문으로 한 도래씨족이다.

55 여기에만 보인다. 大藏衣縫造는 천무천황 14년 정월에 連姓을 받은 內藏衣縫造와 같이 도래계일 가능성이 크다.

56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자 왜국은 즉시 사절단을 파견하여 고구려와 손잡고 당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57 서명천황의 岡本宮이 있었던 곳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58 『養老令』軍防令 備戎具條에서 「凡兵士, 每火, 紺布幕一口。」라고 적고 있다.

59 제명천황 4년 11월조에서는 ‘궁전을 조영하는 장정’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이후 여러 해 동안 궁전 조영이 계속된 것이다.

60 『日本書紀』에서는 서명천황을 飛鳥岡本宮天皇, 제명천황을 後飛鳥岡本宮天皇이라고 불렀다.

61 多武峰은 현재 奈良縣 櫻井市 남쪽에 있는 산이다. 『日本書紀』지통천황 7년 9월조에서는 ‘多武嶺’이라고 적고 있다. 제명천황대의 토목 공사 기사는 왜국이 당의 침공에 대비해 아스카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한다.

62 『日本書紀』에서 산에 둘로 담을 쌓은 사례로는 天智天皇 6년 11월 是月條의 ‘倭國高安城’, 동 천황 4년 8월조의 長門國의 성, 筑紫國의 大野城과 椽城을 들 수 있다.

(天宮; 아마츠미야)⁶⁵이라고도 불렀다. 당시 (천황은) 토목 공사를 좋아하여 수공(水工)에게 수로를 파게 하였다. 수로는 향산(香山; 카구야마)의 서쪽에서 석상산(石上山; 이소노카미노야마)⁶⁶에 이르렀다. 석상산의 돌을 2백 척의 배에 싣고 강을 따라 내려가 궁전의 동쪽 산으로 운반하여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다⁶⁷. 그 때 사람들이 “미친 수로다. 이것을 만드는 데 인부⁶⁸ 3만여 명이 고생하였으며, 담장을 쌓느라고 인부 7만여 명이 고생하였다. 궁전 짓는 데 쓸 목재가 썩고 산의 정상이 훼손되었다.”라고 비난하였다. 또 “돌로 담을 쌓더라도 쌓자마자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저주하였다[계획한대로 완성하기 전에 이러한 비방을 한 것이 아닐까.]. 또 길야궁(吉野宮; 요시노노미야)⁶⁹을 만들었다. 서해사(西海使)⁷⁰ 좌백련고승(佐伯連耨羅; 사해키노무라지타쿠나와)⁷¹[위계가 빠졌다.], 소산하(小山下)⁷² 난과

63 원문은 觀이다. 외부나 먼 곳을 보기 위해 宮門의 좌우에 설치한 높은 대이다. 觀을 道觀, 즉 도교의 사원으로 보기도 한다.

64 『大和志』에서는 ‘多武峰의 서북쪽에 根槻(네츠키)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고 적고 있다.

65 도교사상에 의거한 命名일 가능성이 있다.

66 山邊郡 石上郷(현재 奈良縣 天理市 石上町) 부근의 산이라는 설과 飛鳥 주변의 산이라는 설이 있다. 『日本書紀』履中天皇 4년 10월조에 보이는 「堀石上溝」라는 기사는 제명천 황대의 사실을 소급하여 기록한 것이다.

67 平成 4년(1992)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岡의 酒船石遺蹟이 있는 구릉 중턱에서 砂巖을 잘라 4단으로 쌓아 올린 돌담이 발굴되었다.

68 공사에 동원된 인부가 3만 혹은 7만이라는 말은 延人員을 가리킨다.

69 『日本書紀』應神天皇 19년 10월조, 雄略天皇 2년 10월조와 同 4년 8월조 등에 ‘吉野宮行幸’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奈良縣 吉野郡 吉野町 宮瀧의 吉野川 우측 대지 위에서 7세기 후반의 건물과 정원 유적이 출토되어 길야궁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70 이 기사와 제명천황 3년 시세조에서는 백제에 파견된 사신을 ‘서해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효덕천황 백치 원년 7월조에서는 당에 파견한 사신 중에서 북로, 즉 한반도를 경유한 사신을 ‘西海使’라 부른다.

71 여기에만 보인다.

72 大化 5년(649)에 제정한 관위 19계 가운데 제14위에 해당된다.

길사국승(難波吉士國勝; 나니하노키시쿠니카츠)⁷³ 등이 백제⁷⁴에서 돌아와 앵무새 한 쌍을 바쳤다⁷⁵. 강본궁(岡本宮; 오키모토노미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3년 가을 7월 정해삭 기축(3일)에 도화라국(覲貨邏國)⁷⁶의 남자 2명, 여자 4명이 축자(筑紫; 츠크시)에 표류해 와서 “저희들은 처음에 해견도(海見嶋; 아마미노시마)⁷⁷에 표착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역마를 이용해 불러들였다. 신축(15일)에 수미산⁷⁸의 형상을 비조사(飛鳥寺)⁷⁹의 서쪽에 만들었다. 또 우란분회⁸⁰를 열었다. 저녁에 도화라인에게 향응을 베풀었다[어떤 책(或本)에서는 타라인(墮羅人; 타치노히토)이라 한다.].

9월에 유간황자(有間皇子; 아리마노미코)⁸¹는 성품이 교활하여 미친 채하였다.

73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642) 2월조에 백제에 파견된 國曆吉士水鷄와 관련이 있다는 설과 무관하다는 설이 있다.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 2월조 國曆吉士水鷄 참조.

74 백제는 제명천황이 등극하자마자인 665년 7월에 왜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답사가 파견된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佐伯連柁繩 등이 백제에서 귀국하는 기사가 보이므로 이들은 적어도 655년 7월 이후부터 제명천황 2년(656) 사이에 파견된 것이다.

75 『日本書紀』 효덕천황 大化 3년 시세조에는 신라가 공작새와 앵무새 각기 한 쌍을 보낸 기사가 보인다.

76 吐火羅라고도 한다. 吐火羅人은 『日本書紀』 효덕천황 백지 5년 4월조 참조.

77 지금의 鹿兒島縣 奄美(아마미)大島를 가리킨다. 이 섬사람이 도래한 기사는 『日本書紀』 天武天皇 11년 7월 25일조에서는 「多禰人, 掖玖人, 阿麻彌人, 賜祿各有差。」라고 적고 있다.

78 불교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산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推古天皇 20년 是歲條 須彌山 참조.

79 飛鳥寺는 『日本書紀』 崇峻即位前紀와 皇極天皇 3년 정월조 法興寺 참조.

80 盂蘭盆會는 원래 승려들이安居를 마치는 날에 供養하는 의식을 말한다. 『日本書紀』 推古天皇 14년 4월조 七月十五日設齋 참조.

81 孝德天皇의 황자이다.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원년 9월조에는 「息長足日廣額天皇女間人皇女爲皇后, 立二妃, 元妃阿倍倉梯麻呂大臣女曰小足媛, 生有間皇子。」라고 기재되어 있다.

운운. 모루온천(牟婁溫湯)⁸²에 가서 병을 치료하는 흉내를 내고 돌아와, 그 지역의 형상을 칭송하며 “그저 그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저절로 나왔다.”고 하였다. 운운. 천황이 듣고 기뻐하며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 해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승려 지달(智達; 치다치즈)⁸³, 간인련어구(間人連御廐; 하시히토노무라지미우마야)⁸⁴, 의망련치자(依綱連稚子; 요사미노무라지와쿠고)⁸⁵ 등을 너희 나라에서 파견되는 사신에 팔려서 당에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거절하였다⁸⁶. 이 때문에 승려 지달 등은 돌아왔다. 서해사 소화하(小花下)⁸⁷ 아담련협수(阿曇連頗垂; 아즈미노무라지크라타리)⁸⁸, 소산하(小山下)⁸⁹ 진신구루(津臣倭儒; 츠노오미쿠즈마)⁹⁰ [倭儒는 쿠즈마(俱豆磨)라고 읽는다.]가 백제에서 돌아와 낙타⁹¹ 한 마리, 노새 두 마리를 바쳤다⁹². 석견국

82 현재 和歌山縣 西牟婁郡 白濱町 湯崎溫泉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10월조와 持統天皇 4년 9월조, 『속일본기』 大寶 원년 10월조 등에 齊明天皇과 持統天皇이 행차한 기사가 보인다.

83 齊明天皇 4년 7월 시월조에 당으로 건너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4 여기에만 보인다. 間人連은 天武天皇 13년(685) 12월에 宿禰姓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間人宿禰條에서는 神魂命의 5세손 玉櫛比古命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85 여기에만 보인다. 『日本書紀』 推古天皇 16년 8월조에 보이는 物部依綱連은 『新撰姓氏錄』 河內國 神別 物部依綱連條에서는 神饒速日命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86 이 기사에서 ‘신라가 沙門 智達의 신라 경유를 거절한 것’과, 제명천황 5년 7월조에서 ‘당 이 왜국의 견당사 小錦下 坂合部連石布, 大仙下 津守連吉祥 등을 감금한 것’은 왜국이 백제, 고구려와의 관계를 강화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87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0위에 해당된다.

88 阿曇連頗垂 등의 출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의 보고가 4년 시세조에 인용되어 있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9년 9월조에는 신라에 파견된 것으로 적혀 있다.

89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4위에 해당된다.

90 여기에만 보인다.

91 『和名類聚抄』에는 「駱駝[洛地二音, 良久太乃字萬,.]」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7년 9월조에는 백제에서, 동 26년 8월조에는 고구려에서, 천무천황 8년 10월조에는 신라에서 왜에 낙타를 보낸 기사가 나온다.

(石見國; 이하미노쿠니)⁹³에서 “흰 여우⁹⁴가 보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4년 봄 정월 갑신삭 병신(13일)에 좌대신 거세덕태신(巨勢德太臣; 코세노토코 다노오미)⁹⁵이 죽었다(薨).

여름 4월에 아배신(阿陪臣; 아헤노오미)⁹⁶[이름이 빠졌다.]이 병선 180⁹⁷척을 이끌고 하이를 쳤다⁹⁸. 악전(鵜田; 아기타)⁹⁹, 정대(淳代; 누시로)¹⁰⁰ 2군의 하이가 병선을 멀리서 보고 두려워서 항복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정돈하

92 언제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명천황 2년 시세조의 西海使 佐伯連繩 등이 귀국한 이후인 것으로 보아, 이들의 파견은 西海使 佐伯連高繩의 귀국 이후부터 제명천황 3년(657) 이전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93 처음 보이는 국명인데 島根縣 西部에 해당된다.

94 『延喜式』 治部省式 祥瑞에서는 「白狐[岱宗之精也.]」라고 적고 있다.

95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원년 7월조에서는 고구려 사신에게 詔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효덕천황 5년 4월조에서는 左大臣에 임명되었다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皇極天皇 2년 11월조 巨勢臣德太 참조.

96 阿部引田臣比羅夫를 가리킨다. 阿倍氏は 越과 北陸道 방면에서 활약한 씨족이다. 引田臣은 中央豪族인 阿倍氏の 支族이라는 설과 越國의 지방호족이라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97 고대 일본에서는 ‘八’이라는 숫자가 ‘많다, 넓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日本書紀』 仁德天皇 7년 9월조의 八十艘 참조.

98 『日本書紀』에는 越國守 阿倍比羅夫가 658, 659, 660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하이와 숙신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阿部씨의 家記와 왜왕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齊明條의 北征 목적은 하이집단을 복속시켜 고구려로 직접 통하는 북방항로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였다. 즉 고구려로 통하는 북방항로를 개척하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99 현재 秋田縣 秋田市 부근이라 추정된다. 『和名類聚抄』에는 「出羽國秋田郡」이라 적고 있다. 出羽는 和銅 원년(708) 9월 28일에 越後國에 설치된 出羽郡이다. 화동 5년(712) 9월 23일에 出羽國으로 승격, 다음해 10월 1일 陸奥國으로부터 置賜郡과 最上郡을 넘겨받아 國이 정비되었다.

100 현재 秋田縣 能代市 일대라 추정하고 있다.

고 배를 악전포(鰐田浦; 아기타노우라)¹⁰¹에 포진시켰다. 악전의 하이 은하(恩荷; 오가)¹⁰²가 나와서 “관군 때문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본래 육식을 하는 까닭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관군 때문에 활과 화살을 쌓아둔 것이라면 악전포의 신이 아실 것입니다¹⁰³. 맑고 밝은 마음으로 조정을 섬기겠습니다¹⁰⁴.”라고 서약하였다. 그래서 은하에게 소을상(小乙上)¹⁰⁵을 내리고, 정대, 진경(津輕; 츠카루)¹⁰⁶ 2군의 군령¹⁰⁷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유간빈(有間濱; 아리마노하마)¹⁰⁸에서 도도(渡嶋; 와타리노시마)¹⁰⁹의 하이 등을 불러 모아 크게 향응을 베풀고 돌아왔다.¹¹⁰

5월에 황손(皇孫) 건왕(建王; 타케루노미코)¹¹¹이 여덟 살¹¹²의 나이로 죽었다

-
- 101 秋田市를 관통하는 舊 雄物川 하구 근처라 추정하고 있다.
- 102 男鹿(오가)이라는 지명에 의거한 인명이라는 설이 있다.
- 103 寒風山 本山の 신 혹은 인근의 地方神과 결부시키는 설 등이 있지만, 악전의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라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 104 『日本書紀』 敏達天皇 10년 윤2월조에 기재된 「臣等蝦夷, 自今以後子子孫孫[古語云, 生兒八十綿連連.]. 用清明心事奉天闕.」이라는 내용 참조.
- 105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5위이다.
- 106 渡島를 북해도 남부라고 비정하고, 津輕를 秋田縣의 서북지역부터 青森縣의 서남과 津輕半島를 포함한 지역이라 비정하는 설과 渡島를 津輕半島라고 비정하고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 그리고 일본해 연안 일대라는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 107 『日本書紀』는 당시 評(고호리)을 郡(고호리)자로 일괄하여 개서하고 있으므로, 郡領은 ‘評造’ 혹은 ‘評督’일 것이다.
- 108 鰐田浦의 일부라고 이해하는 설과 青森縣의 沈浦, 鰐箇沢, 十三 등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
- 109 북해도 남부라는 설과 진경반도라는 설이 있다. 『日本書紀』 지통천황 10년 3월 갑인조에는 ‘越의 度島’라고 적혀 있다.
- 110 제명천황 4년 7월에 왕도에 온 하이인 淳代郡大領 沙尼具那에게 小乙下, 津輕郡大領 馬武에게 大乙上을 주었다는 서위 기사와 중출이라 간주되고 있다.
- 111 『日本書紀』 天智天皇 7년 2월조에서는 建皇子(建王)는 中大兄皇子와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딸 遠智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병어리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薨). 금성곡(金城谷; 이마키노타니)¹¹³ 위에 빈궁¹¹⁴을 세워 안치하였다. 천황은 본래 황손의 온순한 성품을 중히 여겼다. 이로 인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함이 극에 달하였다. 군신에게 “내가 죽은 뒤¹¹⁵에 반드시 짐의 능¹¹⁶에 합장하라.”고 명하였다¹¹⁷. 그리고 노래[歌]를 읊었다.

금성(金城)의 작은 언덕 위에 구름만이라도 뚜렷이 끼었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한탄하겠는가[첫째 노래].

화살 맞은 사슴과 멧돼지를 쫓아가다 맞닥뜨린 냇가의 어린 풀처럼 가냘프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둘째 노래].

비조천(飛鳥川)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흘러가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생각나는구나[셋째 노래].

천황이 때때로 노래를 읊으며 슬피 울었다.

가을 7월 신사삭 갑신(4일)에 하이 2백여 명이 입조하여 물건을 바쳤다. 그리하여 향연을 베풀고 물건을 주었다¹¹⁸. 보통 때보다 더 후하게 향응하였으

112 8세라면 白雉 2년에 태어난 셈이 된다.

113 현재 奈良縣 吉野郡 大淳町 今木이라는 설과 御所市 高瀬에 비정하는 설 그리고 曾我川 상류의 땅이라는 설도 있다. 『大和志』에서는 今木村의 法具良塚을 建王의 묘라고 적고 있다.

114 원문은 殯이다. 殯은 고대 일본에서 행해진 葬禮儀禮이다. 『日本書紀』 윤공천황 5년 7월조 殯 참조.

115 천황의 死後를 의미한다.

116 합장 사례는 『日本書紀』 安閑天皇 2년 12월조, 宣化天皇 4년 11월조, 崇峻天皇 4년 4월조, 推古天皇 36년 9월조 등에 보인다.

117 『日本書紀』 천지천황 6년 2월 27일조에는 ‘齊明天皇과 間人皇女를 합장할 때, 건왕의 누이인 太田皇女를 능 앞의 묘에 장사지냈다.’고 적고 있다.

118 『後漢書』 安帝紀에는 「調揚州五郡租米贍給。」이라고 적혀 있다.

며, 책양하이 2명에게는 관위 1등급을 올려주었다¹¹⁹. 정대군의 대령¹²⁰ 사니구나(沙尼具那; 사니구나)¹²¹에게는 소을하(小乙下)¹²²[어떤 책(或所)¹²³에는 관위 2등급을 올리고 호구를 조사시켰다¹²⁴고 한다.], 소령¹²⁵ 우파좌(宇婆左; 우바사)¹²⁶에게는 건무(建武)¹²⁷를, 용건자(勇健者)¹²⁸ 2명에게는 관위 1등급을 올려주었다. 따로 사니구나 등에게는 소기(鮪旗)¹²⁹ 20개, 북 2개, 활과 화살 2구, 갑옷¹³⁰ 2벌을 내렸다. 또한 진경군(津輕郡; 츠카루노코호리)의 대령 마무(馬武; 메무)¹³¹에게 대을상(大乙上)¹³², 소령 청산(靑蒜; 아오히루)¹³³에게 소을하, 용건자 2명에게는 관위 1등급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따로 마무 등에게 소기 20개, 북 2개, 활과

119 授位一階란 建武의 관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20 ‘郡의 長官을 大領, 次官을 少領이라 칭한다. 小郡의 경우는 대, 소의 구별 없이 군령이라 한다. 금석문이나 고기록에 의거할 때 大寶令 제정 이전까지는 大, 少領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후의 수식일 가능성이 있다.

121 여기에만 보인다.

122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8위에 해당된다.

123 或本の 誤寫일 가능성이 있다.

124 『日本書紀』 대화 2년 정월조에는 「凡京每坊置長一人, 四坊置令一人, 掌按檢戸口督察奸非,」라고 적고 있다.

125 少領은 郡司의 차관인데 대보령 이전에는 大少領이 보이지 않기에, 소령 역시 수식일 가능성이 있다. 5년 3월 시월조에는 大領, 少領 대신에 郡令, 主政이라 기재되어 있다.

126 여기에만 보인다.

127 大化 3년의 13계 관위 가운데 제13위에 해당된다. 단 대화 5년 19계 관위 가운데 19위는 立身이라 한다.

128 시종이거나 沙尼具那 다음가는 유력자일 것이다.

129 『釋日本紀』에서는 「私記曰, 師後說曰, 今現在, 此旗之頭如鮪, 故名,」이라 적고 있다. 깃발이 鮪(鮪; 타코), 즉 문어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유래한 이름일 듯하다.

130 본래 금속으로 만든 것을 ‘鎧’, 피혁으로 만든 것을 ‘甲’이라 칭한다.

131 여기에만 보인다.

132 大化 5년의 19계 관위 가운데 제15위에 해당된다.

133 여기에만 보인다.

화살 2구, 갑옷 2벌을 내렸다. 또한 도기사라(都岐沙羅; 츠키사라)¹³⁴의 책조(柵造)¹³⁵[이름이 빠졌다.]에게 관위 2등급을 올려주었다. 판관에게는 관위 1등급, 정족(淳足; 누타리)¹³⁶ 책조 대반군도적(大伴君稻積; 오호토모노키미이나즈미)¹³⁷에게 는 소을하를 내렸다. 또 정대군의 대령 사니구나에게 '하이의 호구와 포로¹³⁸의 호구를 조사하라¹³⁹.'고 명하였다.

이 달에 승려 지통(智通; 치츠)¹⁴⁰과 지달이 명을 받들어 신라의 배를 타고¹⁴¹ 당에 가서 무성중생의(無性衆生義)¹⁴²를 현장법사(玄奘法師)¹⁴³에게 배웠다.

겨울 10월 경술삭 갑자(15일)에 기온탕(紀溫湯)¹⁴⁴에 행차하였다. 천황이 황

134 현재 山形縣 西田川郡 溫海町の 鼠笥關에 비정하거나, 秋田縣 由利郡 象潟町에 비정하고 있다.

135 하이를 공격하는 시설인 柵을 관리하는 장관을 가리킨다.

136 越北國 북부의 淳垂郡이다. 현재 北蒲原郡, 新發田市, 豐榮市와 新潟市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추정된다.

137 여기에만 보인다.

138 하이 상호 간의 전투에서 발생한 포로인지, 하이와 왜인 간의 전투에서 포로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139 원문은 檢覆이다. 『爾雅』釋詁에서는 '覆, 察은 審'이라고 적고 있다.

140 『三國佛法傳通緣起』에서 「智通, 智達兩般法師乘新羅船, 往大唐國, 遇玄奘三藏學法相宗,」이라고 적고 있듯이 당에서 돌아온 뒤 法相宗을 전파하였고, 平城京에 觀音寺를 건립하였다. 천무천황 2년(674)에 僧正에 임명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141 제명천황 3년 시세조에는 왜국이 沙門 智達 등을 신라 사신에게 팔려 당에 보내기를 청하자 신라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조에는 이들이 新羅船을 타고 渡唐했다 한다. 전자가 신라사에 팔려 입당시키려 한 것이라면, 후자는 단순히 '新羅船'을 이용해 입당한 것이라 이해하면 양 기사는 큰 모순 없이 설명된다.

142 法相宗이다. 法相宗에서는 영구히 成佛할 수 없는 佛性이 없는 無性五性에게도 각기 법문을 설하므로, 법상종을 배운 것을 이렇게 기술한 것이다.

143 현장(600~664)은 17년간의 인도 유학을 마치고 645년 長安에 돌아와 당 태종의 지원을 받으며 불경 75部 1335권을 번역하였다. 그는 인도에서 唯識敎學을 들여와 법상종의 開祖가 되었다.

144 제명천황 3년 9월조의 牟婁溫湯과 같다.

손 건왕을 생각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였다. 곧 노래를 지어 불렀다.

산 넘고 바다 건너며 즐거운 여행을 하건만, 금성¹⁴⁵에서의 일은 잊을 수 없구나
[첫째 노래].

항구의 거센 파도 헤치며 바다를 건너가건만, 우울한 마음으로 (건왕을) 남기고
가네[둘째 노래].

사랑스러운 내 어린 아이를 뒤에 남기고 가네[셋째 노래].

진대장조만리(秦大藏造萬里; 하다노오호쿠라노미야츠코마로)¹⁴⁶에게 “이 노래를
전하여 후세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11월 경진삭 임오(3일)에 유수관¹⁴⁷ 소아적형신(蘇我赤兄臣; 소가노아카에노오
미)¹⁴⁸이 유간황자에게 “천황이 행하는 정사에는 세 가지 잘못¹⁴⁹이 있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 백성의 재물을 모아 쌓아둔 것이 첫째이고, 길게 수로를 만들
어¹⁵⁰ 나라의 양식을 낭비한 것이 둘째이며, 배에 돌을 싣고 날라다가 담을 쌓

145 건왕의 묘소가 있는 땅으로 건왕과 연고가 있는 곳이다.

146 만리는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가던 중에 古歌를 읊은
본인이거나 같은 家系에 속한 奈良시대의 관인이라 추측하고 있다. 秦氏와 大藏에 관한
내용은 『日本書紀』 欽明即位前紀 秦大津父 참조.

147 留守官은 천황이 행차할 때 皇居나 皇都를 지키는 官이다.

148 天智朝의 중신이며 『公卿補任』에서는 馬子の孫, 雄當(雄正子)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딸을 中大兄과 大海人皇子에게 시집보냈으며, 筑紫率을 거쳐 좌대신에 이르렀지만 壬申
의 난 이후 유배되었다.

149 소아적형의 ‘三失’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배
후에 있던 중대형의 지시에 의해 유간황자를 제거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라는 설과 적형
이 중대형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도발했다는 설, 그리고 적형이 도중에 배반했다는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150 제명천황 2년 시세조의 ‘狂心渠’를 가리킨다.

은 것¹⁵¹이 셋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간황자는 적형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나도 이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갑신(5일)에 유간황자가 적형의 집으로 가 누각에 올라 모의하였다. 그때 책상이 저절로 부러졌다. 이에 징조가 상서롭지 못함을 알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그 모의를 중지하였다. 황자는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그날 밤에 적형이 물부박정련유(物部朴井連鮪; 모노노베노에노웨노무라지시비)¹⁵²를 보내 궁전을 조영하는 장정을 이끌고 시경(市經; 이치부)¹⁵³에 있는 유간황자의 저택을 둘러쌌다. 그리고 역사(驛使)를 보내 천황에게 보고하였다.

무자(9일)에 유간황자와 수군대석(守君大石; 모리노키미오호이하)¹⁵⁴, 관합부련약(坂部連藥; 사카히베노무라지쿠스리)¹⁵⁵, 염옥련제어(鹽屋連鮒魚; 시호야노무라지코노시로)¹⁵⁶를 잡아 기온탕으로 호송하였다. 사인(舍人)¹⁵⁷ 신전부미마려(新田部米麻呂; 니이타베노코메마로)¹⁵⁸가 따라갔다. 황태자가 친히 유간황자에게 “어찌하여 모반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유간황자는 “하늘과 적형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51 제명천황 2년 시세조의 ‘石山丘’를 가리킨다.

152 『日本書紀』 대화 원년 9월 3일조의 物部朴井連稚子和 동일 인물이다.

153 현재 奈良縣 生駒郡 生駒町 壹分(이치부)町으로 지정되고 있다.

154 『日本書紀』 천지즉위전기 8월조에는 遣唐大使로 활동한 기록이 보인다. 『日本書紀』 경행천황 40년 7월조에는 大碓皇子의 후예라고 적혀 있다.

155 임신의 난 때 近江 측의 장군으로 활동하다 천무천황 원년 7월 7일에 전사했다.

156 『日本書紀』 효덕천황 대화 2년 3월조 鹽屋鮒魚 참조.

157 천황이나 황족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16년 7월조 舍人 참조.

158 아래에는 新田部連米麻呂라고 적혀 있다. 新田部連은 天武天皇 13년 12월에 宿禰姓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 新田部宿禰條에서는 「安寧天皇皇子磯城津彦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경인(11일)에 단비소택련국습(丹比小澤連國襲; 타지히노오자하노무라지쿠니소)¹⁵⁹을 보내 유간황자를 등백판(藤白坂; 후지시로노사카)¹⁶⁰에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이 날에 염옥련제어, 사인 신전부런미마려를 등백판에서 참수하였다¹⁶¹. 염옥련제어는 죽임을 당할 때 “원컨대 오른손으로 나라의 보배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¹⁶².”라고 말하였다. 수군대석을 상모야국(上毛野國; 카미즈케노쿠니)에, 판합부약은 미장국(尾張國; 오히리노쿠니)에 유배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유간황자가 소아적형, 염옥련소과(鹽屋連小戈; 시호야노무라지오호코)¹⁶³, 수군대석, 판합부련약과 단적(短籍)¹⁶⁴을 쥐고 모반하는 일에 대해 점을 쳤다고 한다. 어떤 책(或本)에는 유간황자가 “우선 궁전을 불태우고, 5백 명으로 하루 이틀 밤 동안 모루진(牟婁津; 무로노즈)¹⁶⁵을 막고, 재빨리 수군으로 담로국(淡路國; 아하지노쿠니)을 차단하여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하면 이 일은 쉽게 성사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불가하다. 계획은 그러하나 덕이 없다. 바야흐로 황자는 나이 이제 열아홉 살이다. 아직 성인¹⁶⁶이 되지 못하였다. 성인이 되면 덕을 얻을 것이다.”라고 간언하였다. 다른 날 유간황자가 한 사람의 판사(判事)¹⁶⁷와 모반하려 할 때, 황자의 책상 다리가 까닭 없이 부러졌다. 그래도 모반할 것을 그만두지 않아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159 여기에만 보인다. 丹比連은 『日本書紀』 宣化天皇 원년 3월조 丹比公 참조.

160 현재 和歌山縣 海南市 内海町 藤白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61 율령제에서 斬은 絞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162 『日本書紀通證』에서는 「蓋善機巧者也,」라고 적고 있다.

163 鰯魚(고노시로)와 동일 인물이기에 木代(고노시로)의 誤寫라는 설이 있다.

164 짧은 紙片으로 만든 점치는 도구로, 短尺이라고도 한다. 『속일본기』 天平 2년 정월 16 일조에는 목간의 한 면에 ‘인, 의, 예, 지, 신’을 한 자씩 써놓은 단적을 뒤집어 두고 잡게 해 잡은 글자에 따라 물건을 내려준 사례가 보인다.

165 현재 和歌山縣 田邊市에 있는 항구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66 20세 이상의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67 『양노령』 職員令 刑部省條에는 「大判事二人[掌. 案覆鞫狀斷, 定刑名判, 諸爭訟.], 中判事四人[掌. 同大判事.], 少判事四人[掌. 同中判事.],」이라고 적혀 있다.

이 해¹⁶⁸에 월국수(越國守) 아부인전신비라부(阿部引田臣比羅夫; 아헤노히케타노 오미히라부)¹⁶⁹가 숙신(肅愼)¹⁷⁰을 쳐 살아 있는 곰¹⁷¹ 두 마리와 곰 가죽 70매를 바쳤다. 승려 지유(智諭; 지유)¹⁷²가 지남차(指南車)¹⁷³를 만들었다. 출운국(出雲國; 이즈모노쿠니)에서 “북해(北海) 해안에 죽은 물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높이가 3척 정도 됩니다. 그 크기는 북어¹⁷⁴와 비슷하고 입은 참새부리와 같고, 바늘과 같은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의 길이는 수촌(數寸)¹⁷⁵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참새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되었다. 작어(雀魚)¹⁷⁶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경신년¹⁷⁷ 7월에 이르러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당¹⁷⁸과 신라

168 제명천황 4년 시세조와 동 천황 6년 7월조부터 백제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어서 제명천황 6년 10월조의 백제부흥군 측에서 풍장의 귀국을 요청한 것과 동 천황 7년 8, 9월조의 백제부흥군을 원조하기 위한 물자와 원병파견 기사가 이어진다.

169 『日本書紀』天智即位前紀 8월조에서는 백제 구원을 위한 장수로 파견된 것으로, 『속일본기』養老 4년 정월 27일조 阿倍朝臣宿奈麻呂의 薨傳에서는 後岡本朝(제명조)에 筑紫大宰帥로 활동한 것으로 적혀 있다.

170 숙신이 하이와 같다고 보는 설, 중국 문헌에 나오는 숙신과 같은 민족인 퉁구스계 민족이라는 설, 하이나 중국 문헌에 나오는 민족과는 다르다고 보는 설, 그리고 북해도 오토츠크 해 연안 등에 유적이 보이는 오토츠크 문화와 관련된다는 설도 있다. 『日本書紀』흠명천황 5년 12월조의 肅愼人 참조.

171 『新撰字鏡』에서는 「熊, 畜也, 志久萬(시쿠마).」으로, 『和名類聚抄』에서는 「之久萬(시쿠마)」이라 적고 있다.

172 『日本書紀』천지천황 5년 是冬條에는 倭漢氏 출신의 승려 知由라 기재되어 있다.

173 중국 周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방향을 가리키는 수레이다.

174 鮐皮는 山陰郡 諸國에서 中男作物로 수납되었다. 『延喜式』主計式 山陰道 但馬國條에는 「中男作物, 黃蘗…雜腊, 鮐皮, 海藻」, 因幡國條에는 「…中男作物, 紙, 席, 紅花, 胡麻油, 黑葛, 漆, 海石榴油, 平栗子, 火乾年魚, 鮐皮, 雜腊, 海藻」라 적혀 있고, 同 伯耆國條에는 「中男作物, 紙, 紅花, 席, 椎子, 鮐皮, 煮乾年魚, 雜腊」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75 寸은 尺의 십분의 일이며, 寸의 십분의 일은 分에 해당된다.

176 雀河豚(스즈메후구)류의 북어를 가리킨다.

177 백제의 사신 파견 기사는 7월이 아니라, 9월조에 보인다.

178 제명천황 6년 7월조에는 도현의 『일본세기』를 인용하여 7월에 신라가 당의 힘을 빌려

가 힘을 합해 우리를 쳤습니다. 이미 의자왕¹⁷⁹, 왕후¹⁸⁰, 태자¹⁸¹를 포로로 잡아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병졸을 서북 해안에 배치하고 성책을 수리하였다¹⁸². 이와 같이 산천을 방어하는 일의 전조라고 한다.]. 또 서해사 소화하(小花下) 아담련협수¹⁸³가 백제에서 돌아와¹⁸⁴ “백제가 신라를 치고¹⁸⁵ 돌아왔습니다. 그때 말이 스스로 절의 금당 주위를 걸었습니다¹⁸⁶. 주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을 먹을 때만 멈추었습니다.”라고 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경신년에 적에게 멸망하는 일의 징조라고 한다.]¹⁸⁷.

백제를 멸망시켰다 한다. 10월조에서는 或本을 인용하여 7월 23일에 백제 의자왕 등이 당으로 호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9 의자왕은 백제 제31대 왕으로 무왕의 아들이다. 641~660년까지 재위하였다. 660년에 신라와 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된 뒤 당에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日本書紀』 서명천황 3년 3월조 百濟王 義慈 참조.

180 제명천황 6년 10월조 분주에는 恩古라고 적고 있다.

181 이름은 隆이다. 제명천황 6년 7월조에는 太子隆이라 적고 있다.

182 西日本에는 神籠石系山城과 백제 멸망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축성된 朝鮮式山城이라 불리는 고대산성이 존재한다.

183 제명천황 3년에 귀국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백제 멸망의 전조로 기술된 雀魚 사건에 연이어 기재된 듯하다.

184 제명천황 2년과 3년 시세조와 이 기사의 西海使 小花下 阿曇連賴垂의 귀국 기사에 이르기까지 백제에 연달아 사신이 파견된 기사가 나온다. 이것은 백제의 왜국에 대한 접근에 대해 왜국도 적극적으로 백제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185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5년(655) 8월조에서는 「新羅王金春秋遣使入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侵我北界, 沒三十餘城,」이라고 적고 있고,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년(655) 정월조에서는 「王遣使入唐求援高句麗與百濟靺鞨連兵 侵軼我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이라고 적고 있다.

186 원문은 行道이다. 본래 승려들이 內陣이나 本堂 주위를 돌면서 경을 읽는 의식을 말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5년 5월조에는 ‘驛馬가 오함사로 들어가 절에서 올라가 며칠 만에 죽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187 백제 사신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義慈王과 王后, 太子 등이 포로가 된 사실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명천황 6년 9월조에는 ‘9월에 백제의 멸망을 알게 된 것’으로 되어

5년 봄 정월 기묘삭 신사(3일)에 천황이 기온천에서 돌아왔다.

3월 무인삭(1일)에 천황은 길야(吉野; 요시노)에 행차하여 향연을 베풀었다¹⁸⁸. 경진(3일)에 천황은 근강의 평포(平浦; 히라노우라)¹⁸⁹에 행차하였다[平은 히라(毗羅)라고 읽는다.]. 정해(10일)에 토화라인이 아내인 사위(舍衛; 샤웨) 부인과 함께 왔다. 갑오(17일)에 감도구(甘藹丘; 우마카시노오카)¹⁹⁰의 동쪽¹⁹¹ 강 위(川上)에 수미산¹⁹²을 만들고, 육오(陸奥)와 월(越)의 하이에게 향응을 베풀었다[甌는 카시(柯之)라고 읽는다. 川上은 카하라(簡播羅)라고 읽는다.].

이 달¹⁹³에 아베신[이름이 빠졌다.]을 파견하여 수군 180척을 이끌고 하이국을 쳤다. 아베신이 포전과 정대 두 군의 하이 241명과 포로 31명, 진경군의 하이 112명과 포로 4명, 담진서(膽振鉦; 이후리사헤)¹⁹⁴의 하이 20명을 뽑아 한 곳에 모아놓고 크게 향응을 베풀고 녹을 주었다[膽振鉦은 이후리사헤(伊浮梨娑陸)라고 읽는다.]. 배 한 척과 오색 비단(彩帛)¹⁹⁵으로 그 땅의 신¹⁹⁶에게 제사지냈다.

있다. 이것은 ‘庚申(660)’이라는 간지에서 알 수 있듯이 660년의 백제 멸망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착오로 4년(658) 시세조에 들어간 것이다.

188 원문은 肆宴이다. 궁중에서 행한 성대한 연회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경행천황 51년 정월조 宴 참조.

189 현재 滋賀縣 滋賀郡 志賀町 주변의 호숫가이다. 『藤氏家傳』 大織冠傳에는 「遊覽淡海及平浦宮處, 猶如昔日焉. 朕每見此物, 未嘗不極目傷心也.」라고 적혀 있다.

190 현재 奈良縣 古市郡 明日香村에 있는 언덕을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11월조 甘藹岡 참조.

191 제명천황 3년 7월 15일조에 ‘飛鳥寺西’라는 것과 동일한 장소인지 그 건너편인지 확실하지 않다.

192 불국 정토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20년 시세조 須彌山 참조.

193 아래는 阿部씨의 家記에 의거한 기사로 간주되며, 제명천황 4년 4월조의 異傳이라는 설이 있다.

194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지명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津輕보다는 북쪽의 지명일 것으로 이해된다. ‘胆振’은 하이 지역에 대한 개척이 과제가 된 江戸時代 학자의 설에 따라 明治초년에 명명되었다.

육입룡(肉入籠 ; 시시리코)¹⁹⁷에 이르자 문토(問菟 ; 토히우)의 하이 담록도(膽鹿嶋 ; 이카시마), 토수명(菟穗名 ; 우호나)¹⁹⁸ 두 사람이 나와서 “후방양제(後方羊蹄 ; 시리헤시)¹⁹⁹에 정소(政所)²⁰⁰를 두십시오.”라고 말하였다[肉入籠은 시시리코(之之梨姑)라고 읽는다. 問菟는 토히우(塗毗宇)라고 읽는다. 菟穗名은 우호나(宇保那)라고 읽는다. 後方羊蹄는 시리헤시(斯梨蔽之)라고 읽는다. 정소는 하이의 관아²⁰¹일 것이다.]. 그래서 담록도 등의 말을 듣고 군령을 두고 돌아왔다. 도오(道奧 ; 미치노쿠)²⁰²와 월의 국사에게 관위 각 2등급, 군령과 주정(主政)²⁰³에게 각 1등급을 올려주었다[어떤 책(或本)에는 아배인전신비라부²⁰⁴가 숙신과 싸우고 돌아와서, 포로 49명을 바쳤다고 한다.].

가을 7월 병자삭 무인(3일)에 소금하(小錦下)²⁰⁵ 관합부련석포(坂合部連石布 ;

195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비단을 의미한다. 『日本書紀』神功皇后攝政 46년 3월조에는 「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疋, 及角弓箭, 并鐵鋌四十枚,」라고 적고 있다.

196 鰐田浦의 神을 의미하는 것인 듯하다. 海神인 까닭에 제사지낼 때 배를 바친 것으로 이해된다.

197 肉入籠, 問菟는 여기에만 보인다.

198 膽鹿嶋, 菟穗名은 여기에만 보인다.

199 시리헤시는 아이누어 shiri-pet으로 ‘大河’를 의미하며, 巖木川 부근이라는 설도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북해도의 後志(시리베시)는 明治 초년에 명명된 것이다.

200 政廳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201 원문은 郡이다. 『日本書紀』흥명천황 22년 시세조 難波大郡 참조.

202 陸奥國守某도 越國守阿倍比羅夫에 뒤지지 않는 공적을 쌓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여기에만 보인다.

203 군사의 제3, 4등관에 해당된다. 『日本書紀』효덕천황 2년 정월조 主政 참조.

204 아배비라부는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구원군의 후장군으로도 활약했다. 동국의 유력 호족과 백성들이 백제구원군으로 참가한 점으로 보아 하이와 숙신에 대한 아배비라부의 군사 활동은 왜국군과 함께한 군사 훈련이었을 수도 있다.

205 『日本書紀』대화 5년의 관위 19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천지천황 3년에 제정된 관위 26계 가운데 제12위에 해당된다. 『伊吉連博德書』는 천지천황 3년 이후에 기록된 것

사카히베노무라지이하시키²⁰⁶, 대선하(大仙下)²⁰⁷ 진수련길상(津守連吉祥; 츠모리노 무라지키사)²⁰⁸을 사신으로 당에 파견하였다. 도오(道奥)²⁰⁹의 하이 남녀 두 명을 당의 천자에게 보였다²¹⁰[이길련박덕서(伊吉連博德書)²¹¹에는 이 천황시대에 소금하(小錦下) 판합부석포련(坂合部石布連; 사카히베이하시키노무라지)과 대선하 진수길상련 등이

이므로 천지천황 3년 이후의 관위가 기재된 것이다.

206 2년 9월조에서는 坂合部連磐楸(사카이베노무라지이와스키)라 한다. ‘磐楸(이와스키)’와 石布(이와스키)의 차이는 『日本書紀』 원사료의 필자가 달라서 생긴 문제인 듯하다.

207 ‘大山下’를 의미하며 대화 5년의 관위 19계와 천지천황 3년의 관위 26계에도 보인다.

208 副使로 도망한 뒤 당의 백제 침입을 맞이해 억류되었다가 다음해 5월에 귀국하였다. 『善隣國寶記』에 인용된 『海外國記』에서는 천지천황 3년 9월에 大山中(천지천황 3년의 관위로 제14위에 해당)의 관위를 띠고 있다. 또한 『住吉神代記』에는 右大弁 吉祥이 견당사로 출발하기 직전에 신대기의 원자료를 기록해 두었다는 내용이 跋文에 보인다.

209 아래에 나오는 『伊吉連博德書』에 당 황제의 질문에 대한 일본 사신의 답변 가운데 ‘熟蝦夷는 매년 조정에 입공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 하이를 가리킨다. 제명천황이 道奧하이를 대동한 사신단을 당에 파견한 것은 하이를 대동하여 당과의 교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왜 사신은 道奧하이가 매년 왜에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점을 당에게 강조한 데 비해 『通典』과 『唐會要』의 蝦夷國條에서는 ‘海島 가운데 있는 조그만 국가인 하이국에서 온 사신은 수염이 4척이나 되었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며, 大唐 顯慶 4년(659) 10월에 입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왜 사신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대동한 하이국에 관한 사실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 당 입장에서 친백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제명천황의 외교노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그리고 하이의 입조는 당 입장에서 새로운 조공국 하나가 더 생겨 당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었기에 당 조정에서는 하이로 데려온 왜의 사신을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갈등구조 속에서 왜의 사신이 바란 왜와 당의 긴장관계 완화는 성공하지 못했고, 당 고종을 알현한 후 왜 사신은 곧바로 귀국할 수 없었다.

210 656년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坂合部連石布가 견당대사였던 점에 주목하면, 왜국은 당의 백제, 고구려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견당사를 파견했을 것이다. 또한 道奧蝦夷 남녀 2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들이 왜국에 매년 조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견당사는 고구려-백제-왜국-하이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음을 당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211 『日本書紀』 효덕천황 백지 5년 2월 伊吉博得 참조.

탄 두 척의 배가 오당로(吳唐路)²¹²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기미년²¹³ 7월 3일에 난파의 삼진포(三津浦; 미츠노우라)²¹⁴를 출발하였다. 8월 11일에 축자의 대진포(大津浦; 오호츠노우라)²¹⁵를 출발하였다. 9월 13일에 백제의 남쪽 해안에 있는 섬에 닿았다. 섬의 이름은 분명하지 않다. 14일 인시(寅時)²¹⁶에 두 척의 배가 나란히 대해로 나아갔다. 15일 해가 질 무렵에 석포련의 배가 갑작스럽게 역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 표착하였다. 섬의 이름은 이가위(爾加委; 니카웨)²¹⁷라 한다. 그곳에서 섬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 동한장 직아리마(東漢長直阿利麻; 야마토노아야노나가노아타히아리마)²¹⁸, 판합부련도적(坂合部連稻積; 사카히베노무라지이나츠미)²¹⁹ 등 5명은 섬사람의 배를 훔쳐 타고 도망쳐 괄주(括州)²²⁰에 도착하였다. 주현의 관인이 낙양의 도읍²²¹으로 보내주었다. 16일 한밤중에 길상련의 배가 월주(越州)²²² 회계현(會稽縣)²²³ 수안산(須岸山)²²⁴에 도착하였다. 동북풍이 매

212 견당사의 渡唐 항로를 시사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吳는 중국 三國時代의 일국으로 강남 일대를 판도로 하였다. 吳와 唐이 병기된 것은 이때 파견된 견당사가 강남으로 직행하는 남로를 취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日本書紀』 웅신천황 37년 2월 조 吳國 참조.

213 齊明天皇 5년(559)을 가리킨다.

214 大和川과 淳川이 합류하여 대판만으로 들어가는 곳에 난파가 있다. 현재 大阪市 住吉區 주변을 ‘難破御(三津, 難波大津)’ 등으로 비정하거나 東區 高麗橋 부근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215 大津은 那津이라고도 칭한다. 현재 福岡市 博多港의 옛 이름이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선화천황 원년 5월조 那津 참조.

216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를 의미한다.

217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218 제명천황 6년 7월조 분주의 『伊吉連博德書』에도 보인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11월조 長直 참조.

219 여기에만 보인다.

220 江南道에 속하며 大曆 14년(779)에 處州로 改名하였다. 현재 浙江省 麗水이다.

221 당의 수도는 長安이다. 舊都인 洛陽을 東都, 太原을 北都라 불렀다.

222 강남도에 속하고 括州보다 북쪽에 위치한 杭州灣 남안 일대를 가리킨다. 이 기록에 따르면 강한 동남풍을 타고 해상 60여km를 삼일 낮 이틀 밤 동안에 횡단한 셈이다.

223 현재 浙江省 興紹이다.

우 강하게 불었다. 23일 여도현(餘姚縣)²²⁵에 도착하였다. 타고 온 배와 여러 가지 비품을 그곳에 남겨 두었다. 윤10월 1일 월주의 관청²²⁶에 도착하였다. 15일에 역마를 타고 왕경에²²⁷ 들어갔다. 29일에 말을 달려 동경(東京)²²⁸에 도착하였다. 천자²²⁹는 동경에 있었다. 30일²³⁰에 천자가 이들을 대면하여 “일본국²³¹ 천황은 평안한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천지의 덕이 합쳐져 저절로 평안을 얻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정무를 담당하는 경들은 잘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천황의 깊은 은혜를 입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국내는 평화로운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다스림이 천지에 상응하여 만민이 무사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이들 하이의 나라는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이들의 나라는 동북쪽에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하이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것은 도가류(都加留; 츠가루)²³², 다음은 추하이(麤蝦夷; 아라에미시),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숙하이(熟蝦夷; 니키에미시)라 칭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남녀는 숙하이입니다²³³. 해마다 본국²³⁴

224 현재 舟山列島의 須岸島라고 추정하고 있다.

225 越州 餘姚縣으로 현재 浙江省 餘姚이다.

226 원문은 州底이다. 底는 州衙를 의미하고 당시에 越州의 관아가 있던 곳은 會稽縣이다.

227 長安을 가리킨다.

228 洛陽을 가리킨다.

229 당시의 당 황제는 高宗이다. 『資治通鑑』 唐紀에는 ‘고종이 顯慶 4년(659) 윤10월 5일에 장안을 출발하여 동 25일에 東都인 낙양에 도착하였다.’고 적혀 있다.

230 당대의 戊寅曆에 따르면 이 해의 윤10월은 30일이 없는 달이다. 따라서 이 ‘三十日’은 博德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231 ‘일본’이라는 국호가 확실히 사용된 용례로 가장 오래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書紀集解』에서는 「問訊之曰, 本國天皇」을 『日本書紀』 편자가 「問訊之, 曰本國天皇」으로 고쳐서 쓴 것이라 보고, 이후에 행해진 수사라고 적고 있다.

232 현재 津輕 지역의 하이를 가리킨다.

233 당 고종에게 데려와 보이고 있는 道奧蝦夷 남녀 두 사람을 가리킨다.

234 본국은 자국인 왜국을 가리킨다.

조정에 입공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그 나라에 오곡²³⁵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없습니다²³⁶.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나라에 가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신이 “없습니다²³⁷. 깊은 산 중 나무 아래에서 기거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천자가 “짐은 하이의 몸과 얼굴의 기이함을 보니, 기쁘고 신기하구나. 사신이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물러가 관청²³⁸에서 머물도록 하라. 나중에 다시 볼 것이다.”라고 거듭하여 말하였다. 11월 1일에 조정에서 동지²³⁹의식이 있었다. 의식이 있는 날에 천자를 또 알현하였다. 입조한 제번(諸蕃) 가운데 우리 사신²⁴⁰이 가장 훌륭하였다. 그러나 뒤에 화재 때문에 더 이상의 알현은 없었다. 12월 3일에 한지흥(韓智興; 간치코우)²⁴¹의 시종²⁴² 서한대마려(西漢大麻呂; 가후치노아야노오호마로)²⁴³가 우리 사신을 참언하였다.

235 우리나라에서는 벼, 보리, 콩, 조, 기장을, 중국에서는 ‘수수(黍), 기장(稷), 보리(麥), 콩(豆), 벼(稻)’ 등의 주요 농작물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수수 대신에 피(稗)를 넣어 ‘오곡’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6 하이국에는 오곡이 없다고 답하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彌生文化의 유적은 동북 각지에 분포한다. 靑森縣 田舎館 유적에서는 탄화된 稻粃이나 稻粃에 눌린 흔적이 있는 彌生式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근래에는 同縣 砂澤유적 등에서 야요이시대 전기의 도자 유구가 출토되고 있어 농경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37 蝦夷가 농경민족과 같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하이 관계 기사는 『日本書紀』 景行天皇 40년 7월조에 「其東夷之中, 蝦夷是尤強焉, 男女交居, 父子無別, 冬則宿穴, 夏則住櫟, 衣毛飲血…而犯邊界, 或伺農桑, 以略人民, 擊則隱草, 追則入山, 故往古以來, 未染王化,」라고 적고 있다.

238 중국에서 蠻夷의 사신들을 머물게 한 鴻臚館을 가리킨다.

239 중국에서는 예부터 11월 1일이 마침 동지가 되면, 朔旦冬至라 칭하며 祥瑞로운 일이라 여기고 축하 의식을 행하였다.

240 원문은 倭客이다.

241 『日本書紀』 효덕천황 5년 2월조 倭種韓智興 참조.

242 『集韻』에는 「儼, 侍從也,」라고 적고 있다. 『延喜式』 大藏式에서는 유학생이나 학문승에게 몇 명씩 시종을 드는 사람, 儼人(儼從)을 따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西漢大麻呂와 제명천황 7년 5월조에 보이는 東漢草直足嶋 등이 한지흥의 시종으로 따라간 것이다.

243 여기에만 보인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7년 9월조 西漢直 참조.

사신들이 당조에서 죄²⁴⁴를 얻어 유배형이 결정되었다. 그 후 지흥을 삼천 리 밖으로 유배 하였다²⁴⁵. 사신 가운데 있던 이길련박덕이 아뢰었다. 이로 인해 곧 죄를 면하였다²⁴⁶. 일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는 내년에 반드시 해동을 정토하려²⁴⁷ 한다. 너희들 왜객도 동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경에 묶어두고 별도의 장소에 가두어 두었다. 문을 닫고 막아 여기저기²⁴⁸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²⁴⁹.

난파길사남인서(難波吉士男人書)²⁵⁰에는 당으로 향한 대사²⁵¹의 배가 섬에 부딪혀 전복되었다. 부사²⁵²가 친히 천자를 뵈고 하이를 보여주었다. 이에 하이는 흰 사슴 가죽 1장, 활 3개, 화살 80개를 천자에게 바쳤다고 한다.]. 경인(15일)에 군신에게 왕경 내의 여러 절²⁵³에 우란분경²⁵⁴을 강의하여, 칠세(七世)²⁵⁵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라

244 ‘倭에서 온 사신이 당의 출병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 참언 내용이라면, 『唐律』擅興律 密有征討條에서 「若化外人，來爲間諜，或傳書信與化內人，并受及知情容止者，絞絞。」라고 적고 있듯이 絞(首)刑에 해당된다.

245 당률에는 死刑(絞, 斬)에 이어 流刑(2천, 2천5백, 3천 리)이 존재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3천 리에 처해졌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46 智興까지 허락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247 원문은 海東之政이다. ‘海東’은 한반도, ‘政’은 정토를 의미한다. 당은 이 해(559) 봄에 신라에서 구원을 청하자 다음해(660년) 3월 대군을 파견하여 7월에 백제를 침략하였다.

248 원문은 東西이다.

249 『伊吉連博德書』에는 당이 백제 정토를 앞두고 왜국의 견당사들을 감금한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이 조치는 당의 백제 정벌 계획이 사전에 누설될 것을 우려하였기에 취한 조치이다. 왜국이 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이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250 여기에만 보인다. 難波吉士는 『日本書紀』 安閑天皇 원년 2월 시월조 難波吉士日香蚊 참조.

251 坂合部連石布를 가리킨다.

252 津守連吉祥을 가리킨다.

253 당시 황궁이 飛鳥 지역에 있었기에 飛鳥의 諸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254 孟蘭盆會를 의미한다. 孟蘭盆會는 원래 安居를 마치는 날에 여러 승려들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효덕천황 3년 9월 신축조 孟蘭盆會 참조.

255 불교 의례에 광범히 쓰이는 관용어구이다. 「法興師戊子年釋迦像銘」에는 「以此願力，七

고 명하였다.

이 해에 출운국조(出雲國造)²⁵⁶[이름이 빠졌다.]에게 신궁²⁵⁷을 수리하라고 명하자, 여우가 어우군(於友郡; 오우노코호리)²⁵⁸의 역정(役丁)²⁵⁹이 채취한 칩²⁶⁰의 끝을 물어 끊어 놓고 달아났다. 또 개가 죽은 사람의 팔을 언옥사(言屋社; 이후야노야시로)²⁶¹에 물어다 놓았다[言屋은 이후야(伊浮耶)라고 읽는다. 천자가 죽을(崩) 징조이다.]. 또 고구려의 사신이 곰 가죽 1장을 가지고 그 값을 매겨 “명주솜 60근이다.”²⁶²라고 말하였다. 시사(市司)가 비웃으며 가버렸다. 고려화사(高麗畫師)자마려(子麻呂)²⁶³는 고구려²⁶⁴의 사신을 자신의 집에서 접대하는 날에 관물인 곰 가죽²⁶⁵ 70장을 빌려와 손님 자리에 깔았다. 손님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

世四恩六道四生, 俱成正覺, 「丙戌年金剛場阿羅尼經奧書」에서는 「爲七世父母及一切衆生, 敬造金剛場阿羅尼經, 籍此善因, 往生淨土, 終成正覺,」이라고 적고 있다.

256 出雲國 意宇郡을 본居로 하는 出雲臣이다.

257 出雲郡의 杵築大社(出雲大社)라는 설과 이어서 於友郡(意宇郡)이 나오기에 意宇郡의 熊野大社(현재 島根縣 八束郡 八雲村 熊野의 熊野坐神社)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다.

258 意宇郡과 현재 松江市, 安來市, 能義郡, 八束郡 등에 걸친 지역이다. 意宇郡은 『속일본기』 문무천황 2년 3월 계묘조에 처음 나온다. 뒤에 國府와 國分寺가 설치되었다.

259 役丁은 歲役(庸), 雜徭 등의 역역에 징발되는 남자를 의미한다.

260 재목을 묶는 망으로 칩이 이용된 듯하다.

261 『延喜式』 神名帳에 기재되어 있는 식내사이다. 현재 島根縣 八束郡 東出雲町 掛屋의 掛屋神社를 가리킨다.

262 이 고구려 사신은 渡倭와 歸國에 관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구려 사신과 관련된 熊皮 사건은 후대에 이루어진 사절단 일행의 사무역 행위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

263 『日本書紀』 白雉 4년 6월조에는 「狛堅部子麻呂,」라고 적혀 있다. 「天壽國繡帳」에는 「高麗加西湓」이라는 畫師가 보인다.

264 원문은 同姓이다.

265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는 ‘阿倍比羅夫가 숙신을 쳐서 살아 있는 곰 두 마리와 곰가죽 70장을 바쳤다.’고 적혀 있다.

6년 봄 정월 임인삭(1일)에 고구려의 사신 을상(乙相)²⁶⁶ 하취문(賀取文)²⁶⁷ 등 1백여 명이 축자에 정박하였다²⁶⁸.

3월에 아배신(阿倍臣)²⁶⁹[이름이 빠졌다.]을 보내 수군 2백 척을 이끌고 숙신국²⁷⁰을 치게 하였다. 아배신이 육오의 하이를 자기 배에 태우고 큰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때 도도(渡島; 와타리노시마)²⁷¹의 하이 1천여 명이 해안에 모여 강을 향해 진을 치고 있었다. 진영 가운데에서 갑자기 두 명이 나와 “숙신²⁷²의 수군이 많이 와서 우리들을 죽이려 합니다. 부디 강을 건너가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리쳤다. 아배신이 배를 보내 하이 두 명을 불러와 적이 숨은 장소와 배의 숫자를 물었다. 두 명의 하이가 숨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배는 20여 척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파견하여 불렀지만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아배신²⁷³이 비단(綵帛)²⁷⁴, 무기, 철 등을 해안에 쌓아 두고

266 乙相은 고구려와 중국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日本書紀』 천지천황 5년 동10월 갑오사 기미조에 고구려 大使로 乙相奄鄒가 보인다. 고구려의 主簿 다음 관위인 ‘大相’으로 보는 견해와 乙은 제2위(甲으로 시작되는 순위)를 의미하므로 ‘小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67 賀取文은 고구려 외교 사절단의 대사로 渡倭하여 7월에 귀국했다.

268 乙相 賀取文 이하 1백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다. 제명천황 2년에도 81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渡倭한 기록이 보인다.

269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서는 阿陪臣, 5년 3월 시월조와 6년 3월조에는 阿倍引田比羅臣 倍臣, 6년 5월 시월조에는 阿倍引田臣이라 표기되어 있다.

270 숙신에 대한 정보 기사들은 대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유사하다.

271 제명천황 4년 4월조 渡島 참조.

272 이 기사에서는 숙신이 하이와 다른 개체로 기술되고 있다.

273 양자 사이에 물건을 두고 교환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성립되는 일종의 고대 물물교환의 한 형태를 시사하는 장면이다. 숙신의 배에서 온 노인들이 일차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둔 것으로 보아 거래가 성립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74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비단을 일컫는다. 『속일본기』 神龜 원년 4월 계묘조에 「運綵帛二百疋」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과시하였다. 숙신은 수군을 이끌고 깃털을 나무에 걸어 깃발로 삼고, 일제히 노를 저어 와 해안가 얕은 곳에 배를 정박시켰다. 배 한 척에서 두 명의 노인이 내려 주변을 돌며 쌓아놓은 비단 등의 물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단삼으로 갈아 입고 각기 배 한 단(端)씩을 들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²⁷⁵.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돌아와 갈아입었던 옷을 벗어 놓았다. 아울러 가져간 베도 놓아두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²⁷⁶. 아베신이 여러 척의 배를 보내서 불렀지만, 오지 않고 폐뢰변도(弊路辨嶋; 헤로베노시마)²⁷⁷로 돌아갔다. 조금 지나 화해하자고 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弊路辨은 도도(渡嶋)의 다른 이름이다.]. 자신들의 목책²⁷⁸을 거점으로 하여 싸웠다. 그때 능등신마신룡(能登臣馬身龍; 노토노오미마무타츠)²⁷⁹이 적에게 살해되었다. 계속 싸웠으나 곧 적이 패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죽였다.

여름 5월 신축삭 무신(8일)에 고구려의 사신 을상 하취문 등이 난파관²⁸⁰에 도착했다²⁸¹.

이 달에 관리(有司)가 칙을 받들어 1백 개의 고좌²⁸², 1백 개의 납가사²⁸³를

275 單衫은 홑겹의 소매 없는 옷을 말한다. 숙신의 노인들이 아베신이 가져온 단삼을 입고 베를 가지고 간 것은 화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276 숙신의 노인들이 옷과 베를 돌려놓은 것은 그들이 돌아가 숙신의 무리들과 의논한 결과 화해하지 말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을 말해 준다.

277 제명천황 5년 3월조 後方羊蹄 참조.

278 숙신이 弊路辨嶋에 쌓은 책을 말한다.

279 현재 石川縣 能登 지방의 국조계 호족이다. 『古事記』 崇神天皇段에는 「大入杵命者[能登臣之祖也.]」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阿倍臣이 이끈 수군에 北陸 지방의 국조가 이끈 병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280 難波津에 설치된 영빈관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繼體天皇 6년 12월조 難波館 참조.

281 고구려는 제명천황 2년 8월조와 同 5년에도 왜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당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며 접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2 『和名類聚抄』 調度部 伽藍具에는 「高座, 仁王經云, 建百高座。」라고 적혀 있다.

283 納袈裟의 納은 衲과 같다. 法衣의 일종으로 衲衣라고도 한다.

만들어 인왕반야회²⁸⁴를 열었다²⁸⁵. 또한 황태자²⁸⁶가 처음으로 물시계²⁸⁷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또 아배인전신(阿倍引田臣; 아베노히케타노오미)²⁸⁸[이름이 빠졌다.]이 하이 50여 명을 바쳤다. 또 석상지(石上池; 이소노카미노이케)²⁸⁹ 주변에 수미산²⁹⁰을 만들었다. 그 높이가 묘탐만 하였다. 숙신인 47명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무기를 들고 도로를 왔다 갔다 하였다²⁹¹[나라의 노인이 “백제국이 나라를 잃을 징조인가.”라고 말하였다.]²⁹².

가을 7월 경자삭 을묘(16일)에 고구려의 사신 을상 하취문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또한 도화라인²⁹³ 건두파사달아(乾豆波斯達阿; 겐즈하시다치아)²⁹⁴가 본

284 인왕경을 강독하는 법회를 가리킨다. 『延喜式』圖書寮, 玄蕃寮에는 ‘天皇 一代마다 一講’이라 적혀 있다.

285 鳩摩羅什이 401년에 한역한 『仁王護國般若密經』護國品에서는 난리나 외적 침입 등으로 국가가 망할 위기에 즈음하여 1백 개의 불상과 1백 개의 보살상 등을 안치하고 1백 명의 승려를 청하여 이 경전을 읽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나라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1백部の鬼神들이 국토를 수호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때의 법회는 당의 백제 공격 계획을 알게 된 왜국이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는 불교행사를 거행한 것이다.

286 중대형황자를 가리킨다.

287 『日本書紀』天智天皇 10년 4월조에서는 ‘제명천황 6년 5월에 만든 漏刻을 중대형황자가 천지천황으로 즉위한 뒤에 臺를 설치하여 이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올령에서는 陰陽寮 내에 漏刻博士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음양사상의 도입과도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288 제명천황 6년 3월조 阿倍臣 참조.

289 『日本書紀』齊明天皇 5년 3월 17일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石上池는 『大和志』에는 「在山邊郡磯上村, 今呼大將軍池,」라고 적고 있다. 현재 天理市 石上町 지역이다.

290 불교 세계에 솟아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 한다. 『日本書紀』추고천황 2년 시세조 須彌山 참조.

291 백성은 무장할 수 있는 재지수장층을 가리킨다.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賀取文이 왜국에 당의 백제 공격 계획을 전했다기 때문일 것이다.

292 제명천황 4년 시세조의 분주에서는 ‘경신년에 적에게 멸망당한다는 징조이다.’라고 적혀 있다.

토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송사를 청하며 “원컨대 이후에 다시 대국(大國)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처를 머무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십 명과 서해로(西海路)²⁹⁵로 출항하였다[고구려 승려 도현(道顯; 다우켄)²⁹⁶의 일본세기(日本世紀)²⁹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7월에 운운. 춘추지(春秋智)²⁹⁸가 대장군 소정방(蘇定方)²⁹⁹의 도움을 얻어 백제를 협공하여 멸망시켰다. 혹은 백제는 자멸하였다. 왕의 대부인³⁰⁰이 요사스럽고 무도하여 국정³⁰¹을 좌우하고 현명하고 어진 신하를 주살³⁰²하

293 제명천황 3년 7월조 觀貨邏國 참조.

294 乾豆波斯達阿는 乾豆는 인도, 波斯는 페르시아, 達阿는 인명에 붙는 어미로 ‘인도, 페르시아의 남자’라는 의미이다.

295 중국으로 가는 항로이다.

296 도현을 고구려의 승려라고 적고 있는 것은 이 기록뿐이다. 제명천황 7년 4월조, 천지즉위전기 12월조 분주, 천지천황 원년 4월조에는 ‘釋道顯’ 즉, 승려 도현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의 도해나 사망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中臣鎌足の 죽음을 애통해하는 천지천황 8년 10월조 분주에 인용된 『일본세기』에는 「日本世紀曰, 內大臣, 春秋五十, 薨于私第, 遷殯於山南, 天何不淑, 不憫遺耆, 嗚呼哀哉, 碑曰, 春秋五十有六而薨,」이라고 적혀 있어 藤原家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7 도현에 의해 기술된 편년체 역사서로 『日本書紀』 편찬 자료의 하나가 되었다. 사서의 전체 내용이나 권수, 성립 연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98 春秋는 신라 태종무열왕(재위: 654~661)의諱이다. 智는 경칭어미이다.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3년 시세조의 金春秋 참조.

299 당 太宗 때 李靖을 따라 東突厥을 정벌하였고, 657년에는 서돌궐을 쳐 항복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모두 安西都護府에 예속시켰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太宗 武烈王 6년(659)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청하자 唐 高宗이 다음해 3월 소정방을 神丘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김인문을 副大總管으로 하여 左衛將軍 劉伯英 등 수륙 13만 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60년 나당연합군의 대총관으로서 당군을 거느리고 산둥반도에서 황해를 건넜다. 이어 신라군과 함께 백제를 협공하여 泗沘城을 함락시키고 의자왕과 태자 隆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보냈다. 그 다음 해인 661년에는 나당 연합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平壤城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철군하였다.

300 『삼국사기』에는 왕비, 왕족 등의 호칭으로 널리 ‘夫人’이 사용되었다. 특히 신라본기에는王妃들이 대부분 夫人을 칭하고 있다. 백제본기에는 왕비 관련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지

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초래하였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⁰³. 그 주³⁰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라의 춘추지가 내신³⁰⁵ 개금(蓋金)³⁰⁶에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³⁰⁷, 다시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³⁰⁸ 자국에서 사용하던 의관을 버리고 천자에게 아첨하여 이웃 나라에 화를 미치게 함으로써 그 뜻³⁰⁹을 이루었다. 이길련박덕서³¹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

만, 침류왕의 어머니 阿彌夫人, 전지왕의 부인 八須夫人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본조의 ‘大夫人’은 의자왕의 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301 원문은 國柄이다. 국가의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후한서』 陳元傳에서는 「專操國柄以偷天下」라고 적고 있다.

302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6년(656) 3월조에는 「王與宮人淫荒耽樂, 飲酒不止, 佐平成忠[或云淨忠]極諫, 王怒, 囚之獄中, 由是, 無敢言者, 成忠瘞死, 臨終」이라고 적고 있다.

303 백제 멸망의 주된 요인은 외적인 요인으로는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당이라는 외부 세력의 개입 및 이를 적절히 활용한 신라의 백제에 대한 공격, 내적인 요인으로는 의자왕의 전제적인 정치와 일반 귀족층의 결속에 문제가 발생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04 道顯이 단 註를 의미한다.

305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을 ‘내신’이라 칭한 예가 있고, 중국에서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를 ‘내신’이라 칭한 사례가 있다. 백제에서는 육좌평 가운데 하나를 ‘內臣佐平’이라 한다. 『日本書紀』에는 효덕즉위전기에 中臣鎌子連이 내신에 취임한 사례가 있다. 『日本書紀』 孝德天皇 14년 8월조 內臣 참조.

306 연개소문의 다른 이름이다. 『삼국사기』나 중국 사서에는 泉蓋蘇文이지만, 그의 아우 淨土를 『삼국사기』에는 淵淨土라 기재하고 있다. 원래 淵氏였는데, 당 고조 李淵과 이름이 같아서 避諱하여 泉씨로 고친 것이다. 『日本書紀』 廣武天皇 원년 2월조 伊梨柯須彌 참조.

30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원년조(642)에는 「新羅謀伐百濟, 遣金春秋乞師, 不從」이라 적혀 있다.

308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덕왕 2년조(648)와 동왕 3년(649) 정월조에는 김춘추가 당에 파견되어 태종을 만나 백제 토벌의 원군을 구한 내용과 신라의 관복제 변화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09 원문은 義行이다. ‘意行’은 ‘心行’과 통한다. 『문선』 王簡棲 「頭陀寺碑文」에서는 「心行之表, 不生不滅者哉」라고 적고 있고, 李善注에서는 「竺道生曰, 心行, 心所行之行也」라고 적고 있다.

310 아래 내용은 제명천황 5년 7월조 博德書와 연결된 내용이다.

다. 경신년³¹¹ 8월에 백제가 평정되고 난 뒤인 9월 12일에 객인³¹²의 귀국을 허가하였다. 19일에 서경³¹³을 출발하였다. 10월 16일에 동경³¹⁴에 도착하여 비로소 아리마(阿利麻; 아리마)³¹⁵ 등 다섯 사람과 만날 수 있었다. 11월 1일에 장군 소정방 등에게 잡힌 백제의 왕³¹⁶ 이하 태자 융(隆)³¹⁷ 등 여러 왕자 13명, 대좌평³¹⁸ 사택천복(沙宅千福), 국변성(國辨成)³¹⁹ 이하 37명, 모두 50여 명³²⁰을 조정에게 바쳤다. 곧 천자 앞에 끌려갔다. 천자는 은칙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다. 19일에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였다. 24일에 동경을 출발하였다.].

9월 기해삭 계묘(5일)에 백제가 달솔³²¹[이름이 빠졌다.] 사미(沙彌)³²²각종(覺從)

311 경신년 8월은 제명천황 6년(660) 8월에 해당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정월조에서는 백제 의자왕의 항복이 7월 18일이라 적고 있다. 따라서 당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적어도 8월 이후이다.

312 일본인 사신을 가리킨다.

313 중국의 長安을 가리킨다.

314 중국의 洛陽을 가리킨다.

315 『日本書紀』 齊明天皇 5년 7월조 분주의 伊吉連博德書에는 東漢直阿利麻라 되어 있다.

316 의자왕을 가리킨다.

317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4년(644) 정월에 태자가 되었다. 백제가 멸망된 이후 당의 점령 정책에 동조하여 663년에는 백촌강 싸움에 당의 수군과 동행하였다. 665년에는 웅진도독으로 신라의 문무왕과 화의를 맹약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당으로 돌아간 인물이다. 그의 묘비명이 낙양에서 출토되었다.

318 대좌평은 백제의 6좌평 가운데 하나이다.

319 沙宅氏, 國氏는 모두 백제 귀족의 성이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4년 12월조 沙宅己婁, 國難多 참조. 「唐平百濟碑」에는 沙宅千福과 국변성은 모두 당에 연행된 인물이라 적혀 있다.

320 아래의 10월조 분주에도 50여 명이라 적혀 있다. 『舊唐書』 백제전에는 「五十八人等送京師」라고 적혀 있다.

321 백제의 16등 관등 가운데 제2위에 해당된다.

322 沙彌는 具足戒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기 이전 단계의 수행승을 가리킨다. 각종은 여기에만 보인다.

등을 파견하여[어떤 책(或本)에는 도망쳐 와 난을 고하였다고 한다.]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7월에 신라가 힘을 믿고 세력을 만들어, 이웃 나라와 화친하지 않고, 당나라 사람을 끌어들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군신이 모두 포로가 되어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어떤 책(或本)에는 금년 7월 10일에 당의 소정방이 수군을 거느리고 미자진(尾資津)³²³에 진을 쳤다. 신라의 춘추지가 병마를 거느리고 노수리산(怒受利山)³²⁴에서 주둔하였다. 백제를 협공하여 싸운 지 3일 만에 우리 사비성³²⁵을 함락하였다. 같은 달 13일에 결국 궁궐을 함락하였다³²⁶. 노수리산은 백제의 동쪽 경계라고 한다.]. 이때 서부(西部)³²⁷ 은술(恩率)³²⁸ 귀실복신(鬼室福信)³²⁹은 격

323 錦江 하구 彌造浦(현재 충청남도 감포현 미조포)라는 설과 인천의 옛 이름인 彌鄒浦라는 설이 있다.

324 黃山으로 현재 충청남도 論山市 連山面이다. ‘연산’의 옛 이름이 黃山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장군 계백이 이끈 군대와 신라의 대군이 ‘黃山原’에서 전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백제의 奴斯只縣(현재 충청남도 대천시 유성구)과의 음운상의 유사점을 들어 ‘유성’에 비정하는 설도 있다.

325 원문은 王城이다.

326 원문은 王城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정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7월 9일에 소정방의 기벌포 도착과 황산원에서의 전투가 진행되었고, 12일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의자왕의 성이 포위되고, 13일에 왕성이 함락되었다. 왕성은 백제의 도읍인 泗泌城(현재 충청남도 부여)을 가리킨다. 사비성이 7월 13일에 함락되자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의자왕은 웅진성에 웅거했지만 18일에는 이곳도 함락되었다고 한다.

327 서부는 백제의 왕도 5부 가운데 하나이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 10월조 西部 참조.

328 백제의 관위 16계 관등 가운데 제3위에 해당되는데, 부여에 남아 있는 「劉仁願紀功碑」에는 복신이 ‘杆率’이라 되어 있다. 杆率은 제5위에 해당되므로 차이가 있다.

329 『삼국사기』, 『舊唐書』 등에는 福信이라 적혀 있다. 백제 무왕의 조카인 동시에 의자왕의 사촌이다. 사비성이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함락된 후, 승려 도침과 함께 周留城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에 있던 왕자 豐璋을 맞아 왕으로 추대하고 일본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劉仁願이 지키던 사비성을 포위하기도 했다. 唐이 劉仁軌를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자, 任存성으로 물러나 복신은 霜岑將軍, 도침은 領車將軍을 칭하고 유민

분하여 임사기산(任射岐山)³³⁰에 웅거하였습니다³³¹[어떤 책(或本)에는 북임서리산(北任叙利山)이라 한다.], 달솔 여자진(餘自進)³³²은 중부(中部)³³³ 구마노리성(久麻怒利城)³³⁴에 웅거하였습니다[어떤 책(或本)에서는 도도기류산(都都岐留山)³³⁵이라 한다.], 각기 군영을 만들어 흠어진 병졸을 불러 모았습니다³³⁶. 무기³³⁷는 이전의 싸움에서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대기³³⁸를 손에 쥐고 싸웠습니다. 신

을 모아 부흥운동에 힘썼다. 그러나 도침과의 불화로 그를 죽이고, 풍장까지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풍장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 330 흑본의 任叙利山과 任存山은 모두 任存城을 가리킨다. 충청남도 대흥 부근에 있는 봉수 산성을 가리키는다는 설과 충남 홍성 학성산성이라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 331 「唐劉仁願紀功碑」에는 福信과 道琛이 함께 任存城에서 군대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기사에서는 福信이 任存城에서 군대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 332 余自信이라고도 한다. 『日本書紀』 天智天皇 2년 9월조에는 渡倭한 기록이 보이고, 동 8년 시세조에는 여자신과 남녀 7백여 명이 近江國으로 이주한 기록이 보인다. 또한 동 10년 정월 시월조에는 大錦下를 제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高野造條에는 「百濟人佐平余自信之後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 333 웅진성을 의미한다. 熊津城은 『周書』 백제전에 의하면 ‘중부는 古沙城’에 해당된다. 웅진성은 그 북쪽에 위치하며 당나라 군사가 점거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잘못 전해진 내용이다.
- 334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 해당된다. 久麻那利는 『日本書紀』 雄略天皇 21년조의 분주에는 「汶洲王蓋鹵王母弟也, 日本舊記云, 以久麻那利賜末多王, 盖是誤也, 久麻那利者任那國下哆呼喇縣之別邑也,」라고 적혀 있다.
- 335 『삼국사기』의 豆率, 豆陵伊, 『日本書紀』의 疏留, 州柔 그리고 『新舊唐書』, 『資治通鑑』의 周留는 모두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 임존성과 함께 백제부흥군의 근거지였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는 부안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 3월 疏留城 참조.
- 336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8월 2일조에는 ‘百濟의 잔여 무리가 南岑城 등에 거하고, 佐平 正武가 豆尸原嶽에 주둔하여 신라와 당나라 사람들을 약탈하였다.’고 적혀 있다. 26일조에는 ‘신라군이 任存(大興)의 大柵을 공격하였으나 적이 많고 지리가 험하여 이기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8월부터 이미 백제 부흥군의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337 백제 멸망 시의 전투에서 이미 무기가 소진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라의 군사가 쓰러지면 그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제의 무력이 늘어나서 당도 감히 공격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신 등은 백제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³³⁹. 국인이 존경하여 ‘좌평³⁴⁰ 복신, 좌평 자진’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신만이 영명하고 용맹한 위세를 발휘하여 이미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³⁴¹.”

겨울 10월에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이 좌평 귀지(貴智)³⁴² 등을 보내어 당의 포로 1백여 명을 바쳤다³⁴³. 지금의 미농국(美濃國; 미노노쿠니) 불파(不破; 후하)³⁴⁴, 편현(片縣; 가타이가타)³⁴⁵ 2군의 당인들이다. 또 구원군 파견을 요청하였다³⁴⁶.

-
- 338 원문은 梶이다. 『萬象名義』에는 「梶, 蒲講反. 大杖也, 梶也, 破也, 棒字.」라고 적혀 있다.
- 339 『舊唐書』百濟傳 顯慶 5년(660)조 및 『三國史記』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9월조에 의하면, ‘蘇定方이 仁願에게 泗沘를 지키게 하고 王文度를 熊津都督으로 삼아 지키게 한 다음 9월 3일에 귀국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복신 등의 백제부흥군이 백제의 왕성인 사비성을 탈환했다는 내용은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 340 660년에 은술과 달솔로 각기 기재된 귀실복신과 여자진이 좌평이라 기재되어 있다. 좌평은 백제 관등 16계 가운데 최고위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보이는 좌평은 존칭의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 341 백제의 멸망과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660년 3월 당 고종이 소정방을 대총관으로 하여 수륙 13만의 군으로 백제 정벌을 명함 → 5월 16일 신라 무열왕이 김유신 등과 함께 경주에서 출발 → 6월 18일 무열왕 등이 南川停에 도착 → 6월 21일 무열왕이 태자 法敏을 보내어 德物島에서 소정방을 맞이함 → 7월 9일 신라의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과 싸움. 소정방이 기벌포에 도착 → 7월 12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의 사비성을 포위 → 7월 13일 사비성에 있던 왕자 隆, 대좌평 天福 등이 항복 → 7월 18일 의자왕이 태자와 함께 웅진성에서 항복.
- 342 여기에만 보인다.
- 343 『日本書紀』天智即位前紀 11월조에 인용된 或本에서는 「辛酉年(661), 百濟佐平福信所獻唐俘一百六口, 居于近江國壘田. 庚申年(660) 既云福信 獻唐俘, 故 今存注, 其決焉」이라 적고 있다. 혹본에 따르면 복신이 660년에 당인 포로들을 보냈고, 661년에 이들을 近江으로 옮긴 것이 되므로 이 기사와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 344 현재 岐阜縣 不破郡에 해당된다. 不破郡은 임신의 난 때에 大海人皇子가 高市皇子와 회견한 곳으로 유명하다. 『日本書紀』천무천황 원년 6월조 不破道 참조.

아울리 왕자³⁴⁷ 여풍장(余豐璋)³⁴⁸[어떤 책(或本)에는 좌평 귀지(貴智), 달솔 정진(正珍)³⁴⁹이라 한다.]을 보내주길 청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인이 우리나라에 적들³⁵⁰을 이끌고 와서 우리의 국경을 어지럽히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임금과 신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백제왕 의자, 그의 처 은고(恩古)와³⁵¹ 아들 융(隆)³⁵² 등과 신하 좌평 천복(千福), 국변성(國辨成), 손등(孫登)³⁵³ 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³⁵⁴에 소장군³⁵⁵에게 사로잡혀 당나라로 끌려갔다³⁵⁶. 아마도 이유 없이 무기를 들고 다닌 것³⁵⁷이 그 징조였던가.], 그래서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

-
- 345 현재 岐阜縣의 서남쪽 濃尾平野 주변에 해당된다. 明治시대에 稻葉郡, 本巢郡으로 분할되었다. 『和名類聚抄』에는 ‘方縣郡 내에 大唐郷이 있다.’고 적혀 있다.
- 346 복신은 제명천황 7년 4월에도 王子의 送還을 요청한 바 있다. 『備中國風土記』 일문에 「百濟遣使乞救,」라고 적혀 있다. 『구당서』 백제전에도 「遣使往倭國 迎故王子夫余豐立爲王,」이라는 기사가 보이지만, 사신을 파견한 시점은 알 수 없다.
- 347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에는 ‘太子’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 太子余豐 참조.
- 348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新唐書』 백제전에 기재된 의자왕의 아들 夫余 豐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孝德, 齊明天皇朝에는 ‘豐璋’이라 표기되어 있다. 『日本書紀』 舒明天皇 3년 3월조 豐章 참조.
- 349 여기에만 보인다.
- 350 ‘螫賊’은 곡물에 생기는 해충을 의미한다.
- 351 의자왕의 비이다.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는 ‘王后’로, 6년 7월조 분주에는 ‘君의 大夫人’으로도 나온다.
- 352 제명천황 6년 7월조 隆 참조.
- 353 沙宅孫登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11월 10일조에 의하면 당의 사신 曷勿忠의 송사 임무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 354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정월조에서는 隆과 千福 등의 항복은 13일이고, 왕이 항복한 것은 18일이라고 적고 있다.
- 355 蘇定方을 가리킨다. 제명천황 6년 7월조 蘇定方 참조.
- 356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천황 7년조에서는 9월 3일에 사비에서 출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57 제명천황 6년 5월 是月條에 나오는 「無故持兵,」이라는 내용과 호응된다.

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바라옵건대, 백제국에서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 등을 맞아 국주³⁵⁸로 삼고자 하니 이를 허가해 주십시오, 운운.” 천황은 다음과 같이 조를 내렸다. “구원군을 청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³⁵⁹ 것은 고전에도 적혀있다. 백제국이 곤궁하여 우리나라에 의지해 와서 ‘본국은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부탁할 곳도 없이 창을 베고 자며 쓴맛을 보는 괴로움³⁶⁰을 겪고 있으니,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멀리서 와서 표를 올렸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 장군들에게 각각 명령하여 여러 길로 함께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신속하게 움직여 일제히 사탁(沙喙)³⁶¹에 집결한다면 우두머리 악인을 베어 백제의 어려움³⁶²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유시들은 모두 잘 준비하여 예를 다하여 왕자를 출발시키도록 하라, 운운”[왕자 풍장 및 처자³⁶³와 그 숙부 충승(忠勝)³⁶⁴ 등을 보냈다. 실제로 출발한 것은 7년조에 나온다. 어떤 책(或本)에는 천황이 풍장을 왕으로 세우고 새상(塞上)³⁶⁵을 보좌로 삼아 예를 갖추어 떠나보

358 일본학계는 왜왕의 백제왕 책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豐璋의 즉위는 천황에게 먼저 책봉을 받아 비로소 백제왕이 된 것이 아니다. 백제가 멸망한 직후 풍장을 옹립해 백제왕으로 삼겠다는 백제 부흥운동 세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황에 의해 책립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359 『한서』 高帝紀에 기재된 「定危救敗繼絕」이라는 문구가 참고가 된다.

360 패전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쓴 쓸개를 맞본다는 이 내용은 越王勾踐의 고사로 유명하다.

361 沙喙은 신라의 6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보이는 沙喙은 신라를 의미한다.

362 원문은 倒懸이다. 뒤여서 거꾸로 매달린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곤란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孟子』 公孫丑篇에 보이는 「解倒懸」이라는 문구가 참고가 된다.

363 妻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단 『日本書紀』 天智即位前紀 9월조에서는 풍장이 출발할 무렵에 多臣蔣敷의 妹를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적고 있다.

364 忠勝은 『日本書紀』 孝德천황 白雉 원년(650) 2월 15일조에서는 풍장의 弟라고 적고 있다.

365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642) 2월조에는 ‘백제왕이 塞上이 항상 나쁜 짓을 하니 백제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청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白雉 원년 2월 갑신조에는 豐璋

냈다고 한다.].

12월 정묘삭 경인(24일)에 천황이 난파궁³⁶⁶으로 행차하였다. 천황은 복신이 요청한대로 축자에 행차하여 원군을 파견할 것을 생각하여 우선 이곳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였다³⁶⁷.

이 해에 천황은 백제를 위해 신라를 정벌하고자³⁶⁸ 하여 준하국(駿河國; 스루가노쿠니)에 명하여 배를 만들게 하였다³⁶⁹. 다 완성하여 속마교(續麻郊; 오미노)³⁷⁰로 끌고 왔을 때, 그 배가 밤중에 까닭 없이 배의 머리와 고물이 서로 반대가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싸움이 결국은 패할 것임을 알았다. 과야국(科野國; 시나노노쿠니)³⁷¹에서 “파리 떼³⁷²가 서쪽을 향해 날아 거판(巨坂; 오토사카)³⁷³을 지나갔는데, 그 크기가 열 아름쯤이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다.”고 보

의 아우로 塞城과 忠勝이 나온다.

366 『日本書紀』 효덕천황 대화 원년 12월조 難波宮 참조.

367 제명천황 7년(661) 1월조에 齊明天皇이 海路西征의 길을 떠난다고 적혀 있다. 출병에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달 전인 660년 12월에 출병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다.

368 「欲爲百濟，將伐新羅」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백제를 위한 출병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日本書紀』 天智即位前紀 8월조의 출병 계획 발표에서도 그 목적이 백제를 구원하려는 데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369 12월에 難波宮으로 행차하여 무기를 준비하라는 명령과 궤를 같이 한다.

370 『和名類聚抄』에는 「伊勢國多氣郡麻績鄉」이라 적혀 있다. 현재 伊勢市の 서북, 多氣郡 明和町の 菰川 河口 부근이라 추측된다.

371 信濃(시나노)國과 같다. 東山道에 위치하며, 영역은 현재의 長野(시나노)縣과 비슷하다. 『古事記』에서는 모두 ‘科野’라고 적고 있다. 信濃은 和銅 6년(713)의 好字制 시행에 기초하여 그 이전은 科野, 이후는 ‘信野’를 거쳐 ‘信濃’으로 변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372 『漢書』와 『後漢書』의 五行志에서는 ‘蝗災’와 ‘敗戰’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373 信濃과 美濃의 國界인 神坂峠이라 비정하고 있다. 현재 長野縣 下伊那郡 阿智村과 西筑摩郡 神坂村의 경계를 이루는 富士見臺이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35년 5월조 信濃坂 참조.

고하였다. 또 구원군이 크게 패할 전조임을 알았다. 동요(童謠)가 있었다.

摩比邏矩都能俱例豆例於能幣陀乎邏賦俱能理歌理鵝美和陀騰能理歌美烏能陸
陀烏邏賦俱能理歌理鵝甲子騰和與騰美烏能陸陀烏邏賦俱能理歌理鵝³⁷⁴

7년 봄 정월 정유삭 임인(6일)에 천황이 탄 배가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 비로소 바닷길로 나섰다. 갑진(8일)에 어선이 대박해(大伯海; 오후쿠노우미)³⁷⁵에 도착했다. 이때에 대전희황녀(大田姬皇女; 오후타노히메미코)³⁷⁶가 딸을 낳았다. 그래서 황녀의 이름을 대박황녀(大伯皇女; 오후쿠노히메미코)³⁷⁷라고 지었다. 경술(14일)에 천황이 탄 배가 이에(伊豫; 이요)의 숙전진(熟田津; 니키타츠)³⁷⁸ 석탕행궁(石湯行宮; 이하유노카리미야)³⁷⁹에 정박하였다[熟田津은 니키타츠(爾枳柁豆)라고 읽는다³⁸⁰].

374 ‘甲子’를 빼고는 모두 ‘音假名表記’로 적혀 있어 이것만으로는 노래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375 『和名類聚抄』에서는 「備前國呂久(오후쿠노)郡」이라 적고 있다. 藤原宮에서 출토된 목간에 「大伯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현재 岡山縣 呂久郡 呂久, 牛窓, 長船町과 岡山市 동남부, 備前市 남부에 연한 바다를 大伯海라 한다. 『備中國風土記』 일문에는 중대형황자가 備中國 下道郡 邇磨郷(현재 岡山縣 吉備郡 眞備町 上二方, 下二方) 부근에서 병사를 모았다는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376 大海人皇子(天武天皇)의 妃이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7년 정월에 大伯海에서 大伯皇女, 지통천황 2년에는 娜大津에서 大津皇子를 낳았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6년 2월조에는 皇孫 大田皇女를 장사지낸 기사가 보이므로 천지천황 6년 2월 이전에 죽었을 것이다.

377 大來라고도 한다. 천무천황 2년(674) 4월에 재궁이 되었고, 지통천황 朱鳥 원년(686) 11월에 귀경하였다. 大實 원년(701) 12월에 4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378 현재 愛媛縣 松山市 古三津町이나 松山市 和氣町, 堀江町에 비정되고 있다.

379 현재 松山市 道後溫泉이다. 『釋日本紀』에 인용된 『伊豫國風土記』 逸文에서는 제명천황이 남핀인 서명천황과 만나 놀던 지역이라고 적고 있다.

380 『備中國風土記』 逸文에는 제명천황과 동행한 중대형황자가 大伯海와 熟田津 사이의 備中國 下道郡 邇磨郷 부근에서 군사를 모았다고 적혀 있다. 難波에서 출항하여 瀬戶內海

3월 병신삭 경신(25일)에 천황이 탄 배가 돌아와 나대진(娜大津 ; 나노오호츠)³⁸¹에 도착하였다. 반뢰행궁(磐瀨行宮 ; 이하세노카리미야)³⁸²에 머물렀다. 천황이 이곳의 이름을 장진(長津 ; 나가츠)³⁸³으로 고쳤다.

여름 4월에 백제의 복신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³⁸⁴ 왕자 규해(紵解)³⁸⁵를 맞이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승려 도현의 일본세기에서는 백제의 복신이 글을 올려 그 왕 규해를 일본에 청하였다고 적고 있다. 어떤 책(或本)에는 4월에 천황이 조창궁(朝倉宮 ; 아사쿠라노미야³⁸⁶)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5월 을미삭 계묘(9일)에 천황이 조창굴광정궁(朝倉橘廣庭宮 ; 아사쿠라노타치바나노히로니하노미야)³⁸⁷으로 옮겨가 살았다. 이때 조창사(朝倉社 ; 아사쿠라노야시로)³⁸⁸의 나무를 모두 베어 이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신³⁸⁹이 노하여 궁전을 무너뜨렸다. 또 궁중에 도깨비불이 보였다. 그래서 대사인³⁹⁰과 근시 가운데 병

를 향해하면서 四國의 伊豫 熟田津에 들린 것은 모병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381 那津과 같다. 『日本書紀』 宣化天皇 원년 5월조 那津 참조.

382 『延喜式』 兵部式 筑前國의 驛名에 石瀨가 적혀 있다.

383 那珂, 娜大津, 那津이라고도 부른다. 那珂津(나가츠)에 好字를 대응시켜 長津이라 한 것이다.

384 복신이 풍장의 귀국을 요청한 것은 제명천황 6년 10월조에 보인다.

385 『日本書紀』 齊明天皇 7년 8월에 귀국하여 백제 왕위에 오른 豐璋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紵解는 『日本書紀』 천지천황 2년 5월조에도 보인다.

386 齊明天皇이 2개월 남짓 기거한 행궁이다. 궁의 소재지는 현재 福岡縣 朝倉市の 朝倉郡 朝倉町 山田, 宮野村 須川, 杷木町 志波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근래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 志波가 유력시되고 있다.

387 朝倉宮의 정식 명칭이다.

388 福岡縣 朝倉郡 朝倉町 山田에 위치한다. 朝倉宮 배후의 麻氏良山을 神體로 삼았다.

389 雷神을 가리킨다. 음력 5월은 장마가 끝나고 천둥과 번개가 많은 시기이다.

390 율령제에서는 천황이나 황족, 귀족에게 봉사하는 여러 종류의 속인(도네리)이 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아직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호족의 자제로서 수습관인으로 宿直, 供奉하는 하급관인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웅략즉위전기 大舍人 참조.

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사(23일)에 탐라³⁹¹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阿波伎)³⁹²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³⁹³[『이길련박덕서』에서는 신유년³⁹⁴ 정월 25일에 돌아와 월주(越州)³⁹⁵에 도착하였다. 4월 1일에 월주에서 출발하여 동을 향해서 갔다. 7일에 정안산(浬岸山)³⁹⁶ 남쪽에 도착하였다. 8일 동틀 무렵에 서남풍을 타고 대해로 배를 띄웠다. 해상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여 매우 고생하였다. 8박 9일 만에 겨우 탐라도에 도착하였다. 섬사람인 왕자 아파기 등 9명을 불러 위로하고 함께 객선(客船)³⁹⁷에 태워 천황의 조정에 바치려 생각하였다. 5월 23일에 조창(朝倉; 아사쿠라)의 조정에 이 사람들을 바쳤다. 탐라의 입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지흥(智興; 치코우)³⁹⁸의 시종 동한초직족도(東漢草直足嶋; 아마토노아야노카야노아타히타리시마)³⁹⁹의 참소로 당 조정으로부터 은혜로운 칙을 받지 못하였다. 사신들의 원망이 상천(上天)의 신에게 통하여 족도는 버림⁴⁰⁰을 맞아 죽었다. 당시 사람들은 ‘대왜(大倭) 하늘의 양값은 빠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391 제주도를 가리킨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0년조에는 ‘耽牟羅’로,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는 ‘州湖’로, 『삼국유사』 기이편 마한조에 인용된 『海東安弘記』에는 ‘毛羅’로 적혀 있다. 『日本書紀』神功皇后攝政 49년조에 보이는 ‘枕彌多禮’를 탐라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日本書紀』繼體天皇 2년 12월조 耽羅 참조.

392 탐라의 왕자라 되어 있지만, 여기에만 보인다.

393 탐라는 백제 세력하에 있었지만, 백제가 멸망할 시기부터 왜국과도 교섭을 갖기 시작하여 天智朝에 2회, 天武朝에 3회, 持統朝에 2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사례가 『日本書紀』에 보인다.

394 신유년(661)은 제명천황 7년에 해당된다.

395 제명천황 5년 7월조 越州 참조.

396 『唐大和上東征傳』의 頂岸山을 가리킨다.

397 遣唐副使 吉祥連 등이 당에 유배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귀국할 때 탄 배를 의미한다.

398 『日本書紀』효덕천황 白雉 5년 2월조 倭種韓智興 참조.

399 여기에만 보인다. 草(蚊屋)直은 東漢氏의 일족이다. 뒤에 直姓에서 忸寸姓이 된다.

400 『和名類聚抄』에는 「霹靂, 加美渡計(가미도케), 霹析也, 所歷皆破析也,」라고 적고 있다.

6월에 이세왕(伊勢王 ; 이세노호키미)⁴⁰¹이 죽었다(薨).

가을 7월 갑오삭 정사(24일)에 천황⁴⁰²이 조창궁에서 죽었다(崩).

8월 갑자삭(1일)에 황태자⁴⁰³는 천황의 유해를 옮겨 반뢰궁에 도착했다. 이날 저녁 조창산 위에서 귀신이 나타났다. 큰 갓을 쓰고 장례 의식을 지켜보았다⁴⁰⁴.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겨울 10월 계해삭 기사(7일)에 천황의 관을 배에 싣고 출항했다. 이때에 황태자가 어딘가⁴⁰⁵에 배를 정박하고 천황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당신의 눈을 사모하는 까닭에 여기에서 배를 머무네. 이토록 사모하여, 당신의 눈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을유(23일)에 천황의 관이 돌아와 난파에 도착하였다.

11월 임진삭 무술(7일)에 천황의 관⁴⁰⁶을 비조천원(飛鳥川原 ; 아스카노가하라)⁴⁰⁷에 안치하였다⁴⁰⁸. 이 날부터 9일까지 애도의식을 거행하였다[일본세기에

401 『日本書紀』 효덕천황 白雉 원년 2월 15일조에는 「時左右大臣執輿前頭, 伊勢王, 三國公麻呂, 倉臣小屎, 執輿後頭置於御座之前.」이라 적혀 있고, 천지천황 7년 6월조에는 「伊勢王與其弟王接日而薨.」이라 적혀 있다.

402 천황의 향년은 『紹運錄』, 『水鏡』에서는 「六十八」, 『帝王編年記』에서는 「六十一」이라고 적고 있다.

403 황태자는 中大兄皇子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天智即位前紀 7월 시월조에는 皇太子中大兄의 磐瀬宮(長津宮) 천거를 七月中의 일로, 8~9월에는 백제구원군 및 왕자 풍장의 파견에 관한 일을 기재하고 있다.

404 『爾雅』 釋詁篇에는 「臨, 視也.」라고 적혀 있다.

405 머문 장소는 알 수 없다.

406 원문은 輿이다.

407 효덕천황의 殯이 거처였던 難波宮의 南庭에서 행해진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제명천황의 거처였던 飛鳥川原宮일 것이다.

는 11월에 복신⁴⁰⁹이 포로로 잡은 당인 속수언(續守言)⁴¹⁰ 등이 측자에 도착했다고 한다. 어떤 책에는 신유년⁴¹¹에 백제 좌평 복신이 바친 당의 포로 106명⁴¹²을 근강국 간전(鰌田; 하리타)⁴¹³에 살게 하였다고 한다⁴¹⁴. 또한 경신년⁴¹⁵에 이미 복신이 당인 포로를 바쳤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注)를 기록하니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라.].

일본서기 권 제26

408 원문은 殯이다.

409 제명천황 6년 9월조의 鬼室福信 참조.

410 『日本書紀』 천지천황 2년 2월 시월조에도 복신이 당의 포로 續守言 등을 일본으로 보낸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중출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續守言은 이후 『日本書紀』 지통천황 5년 9월조에는 「音博士大唐續守言」, 6년 12월조에도 「音博士續守言」이라 적혀 있으므로 音博士로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1 辛酉年은 661년에 해당되며, 제명천황 7년을 가리킨다.

412 제명천황 6년 10월조에서는 복신이 당의 포로 1백여 명을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13 『和名類聚抄』에는 「近江國 栗太郡 治田郷」이라 적혀 있다. 治田郷은 현재 慈賀縣 栗太郡 栗東町の 川邊 지역이라는 설과 上鉤 지역이라는 설 그리고 草津市는 南笠, 野路, 矢橋 지역이라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414 분주에서는 「日本世記云」과 「或本云」을 연달아 기재하고 있다. 혹본에서는 ‘복신이 포로를 보낸 것을 前年(제명천황 6년)이라 적고 있고, 이 해(제명천황 7년)는 이들을 近江 지역으로 이주시킨 해라고 적고 있으므로 『일본세기』와는 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415 庚申年은 제명천황 6년(660)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卷第廿六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

天豐財重日足姬天皇，初適於橘豐日天皇之孫高向王，而生漢皇子，後適於息長足日廣額天皇，而生二男一女，二年，立爲皇后，見息長足日廣額天皇紀，十三年冬十月，息長足日廣額天皇，崩，明年正月，皇后，卽天皇位，改元四年六月，讓位於天萬豐日天皇，稱天豐財重日足姬天皇，曰皇祖母尊，天萬豐日天皇，後五年十月崩。

元年 春正月壬申朔甲戌，皇祖母尊，卽天皇位，於飛鳥板蓋宮。

夏五月庚午朔，空中有乘龍者，貌似唐人，着¹青油笠，而自葛城嶺，馳隱膽駒山，及至午時，從於住吉松嶺之上，西向馳去。

秋七月己巳朔己卯，於難波朝，饗北[北越.]蝦夷九十九人，東[東陸奧.]蝦夷九十五人，并設百濟調使一百五十人，仍授柵養蝦夷九人·津刈蝦夷六人，冠各二階。

八月戊戌朔，河邊臣麻呂等，自大唐還。

冬十月丁酉朔己酉，於小墾田，造起宮闕，擬將瓦覆，又於深山廣谷，擬造宮

1 소학관본에서는 ‘著’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殿之材，朽爛者多，遂止弗作。是冬，災飛鳥板蓋宮，故遷居飛鳥川原宮。

是歲，高麗·百濟·新羅，並遣使進調[百濟大使西部達率余宜受，副使東部恩率調信仁，凡一百餘人.]，蝦夷·隼人，率衆內屬，詣闕朝獻。新羅，別以及浪彌武爲質，以十二人，爲才伎者，彌武，遇疾而死。是年也，太歲乙卯。

二年 秋八月癸巳朔庚子，高麗，遣達沙等進調[大使達沙，副使伊利之，總八十一人.]。

九月，遣高麗大使膳臣葉積，副使坂合部連磐楸，大判官犬上君白麻呂，中判官河內書首[闕名.]，小判官大藏衣縫造麻呂。

是歲，於飛鳥岡本，更定宮地。時，高麗·百濟·新羅，並遣使進調，爲張紺幕於此宮地，而饗焉。遂起宮室。天皇乃遷，號曰後飛鳥岡本宮。於田身嶺，冠以周垣[田身山名，此云太務.]，復於嶺上兩槻樹邊起觀，號爲兩槻宮，亦曰天宮。時好興事，酒使水工穿渠，自香山西，至石上山，以舟二百隻，載石上山石，順流控引，於宮東山，累石爲垣。時人謗曰，狂心渠，損費功夫，三萬餘矣。費損造垣功夫，七萬餘矣。宮材爛矣，山椒埋矣。又，謗曰，作石山丘，隨作自破[若據未成之時，作此謗乎.]，又作吉野宮。西海使佐伯連²繩[闕位階級.]，小山下難波吉士國勝等，自百濟還，獻鸚鵡一隻，災岡本宮。

三年 秋七月丁亥朔己丑，觀貨邏國男二人女四人，漂泊于筑紫。言，臣等初漂泊于海見嶋，乃以驛召。辛丑，作須彌山像於飛鳥寺西。且設盂蘭盆會。暮饗觀貨邏人[或本云，墮羅人.]。

九月，有間皇子，性黠陽狂，云云。往牟婁溫湯，僞療病來，讚國體勢曰，纔觀彼地，病自蠲消，云云。天皇聞悅，思欲往觀。

² 소학관본에서는 ‘栲’라고 적고 있다.

是歲，使使於新羅曰，欲將沙門智達·間人連御廐·依網連稚子等，付汝國使，令送大唐。新羅不肯聽送。由是，沙門智達等還歸。西海使小花下阿曇連頗垂·小山下津臣偃倭[偃倭，此云俱豆磨.]，自百濟還，獻駱駝一箇·驢二箇。石見國言，白狐見。

四年 春正月甲申朔丙申，左大臣巨勢德太臣薨。

夏四月，阿陪臣[闕名.]，率船師一百八十艘，伐蝦夷。齶田·淳代二郡蝦夷，望怖乞降。於是，勒軍，陳船於齶田浦。齶田蝦夷恩荷，進而誓曰，不爲官軍故持弓矢。但奴等，性食肉故持。若爲官軍，以儲弓矢。齶田浦神知矣。將清白心，仕官朝矣。仍授恩荷，以小乙上，定淳代·津輕，二郡郡領。遂於有間濱，召聚渡嶋蝦夷等，大饗而歸。

五月，皇孫建王，年八歲薨。今城谷上，起殯而收。天皇，本以皇孫有順，而器重之。故不忍哀，傷慟極甚。詔群臣曰，萬歲千秋之後，要合葬於朕陵。迺作歌曰，伊磨紀那屢，乎武例我禹杯爾，俱謨娜尼母，旨屢俱之多多婆，那爾柯那噠柯武[其一.]，伊喻之之乎，都那遇舸播杯能，倭柯矩娑能，倭柯俱阿利岐騰，阿我謨婆離俱爾[其二.]，阿須箇我播，彌離蟻羅毗³都都，喻矩彌都能，阿比娜謨離俱母，於母保喻屢柯母[其三.]，天皇時時唱而悲哭。

秋七月辛巳朔甲申，蝦夷二百餘，詣闕朝獻。饗賜贈給，有加於常。仍授柵養蝦夷二人位一階。淳代郡大領沙尼具那小乙下[或所，云授位二階，使檢戶口.]，少領宇婆佐建武，勇健者二人位一階。別賜沙尼具那等，鮪旗廿頭·鼓二面·弓矢二具·鎧二領。授津輕郡大領馬武大乙上，少領青蒜小乙下，勇健者二人位一階。別賜馬武等，鮪旗廿頭·鼓二面·弓矢二具·鎧二領。授都岐沙羅柵造[闕名.]位二階。判官位一階。授淳足柵造大伴君稻積小乙下。又詔淳代郡大領沙尼具那，檢

3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覈⁴蝦夷戶口，與虜戶口。

是月，沙門智通·智達，奉勅，乘新羅船，往大唐國，受無性衆生義，於玄奘法師所。

冬十月庚戌朔甲子，幸紀溫湯。天皇憶皇孫建王，愴爾悲泣。乃口號曰，耶麻古曳底，于瀾倭柁留騰母，於母之樓枳，伊麻紀能禹知播，倭須羅庾麻旨珥[其一.]。瀾離度能，于之哀能矩娜利，于那俱娜梨，于之廬母俱例尼，飡岐底舸庾舸武[其二.]。于都俱之枳，阿餓倭柯枳古弘，飡岐底舸庾舸武[其三.]。詔秦大藏造萬里曰，傳斯歌，勿令忘於世。

十一月庚辰朔壬午，留守官蘇我赤兄臣，語有間皇子曰，天皇所治政事，有三失矣。大起倉庫，積聚民財，一也。長穿渠水，損費公糧，二也。於舟載石，運積爲丘，三也。有間皇子，乃知赤兄之善己，而欣然報答之曰，吾年始可用兵時矣。甲申，有間皇子，向赤兄家，登樓而謀。夾膝自斷。於是，知相之不祥，俱盟而止。皇子歸而宿之。是夜半，赤兄遣物部朴井連鮪，率造宮丁，圍有間皇子於市經家。便遣驛使，奏天皇所。戊子，捉有間皇子，與守君大石·坂部連藥·鹽屋連鯛魚，送紀溫湯。舍人新田部米麻呂從焉。於是，皇太子，親問有間皇子曰，何故謀反，答曰，天與赤兄知。吾全不解。庚寅，遣丹比小澤連國襲，絞有間皇子於藤白坂。是日，斬鹽屋連鯛魚·舍人新田部連米麻呂於藤白坂。鹽屋連鯛魚，臨誅言。願令右手作國寶器。流守君大石於上毛野國，坂合部藥於尾張國[或本云，有間皇子，與蘇我臣赤兄·鹽屋連小戈·守君大石·坂合部連藥，取短籍，卜謀反之事。或本云，有間皇子曰，先燔宮室，以五百人，一日兩夜，邀牟婁津，疾以船師，斷淡路國，使如牢固，其事易成。或人諫曰，不可也。所計既然，而無德矣。方今皇子，年始十九，未及成人，可至成人，而得其德。他日，有間皇子，與一判事，謀反之時，皇子案机之脚，無故自斷。其謨不止，遂被誅戮也。]

4 소학관본에서는 ‘覆’이라고 적고 있다.

是歲，越國守阿部引田臣比羅夫，討肅慎，獻生羆二·羆皮七十枚。沙門智諭，造指南車。出雲國言，於北海濱，魚死而積，厚三尺許，其大如鮐，雀啄針鱗，鱗長數寸。俗曰，雀入於海，化而爲魚，名曰雀魚[或本云，至庚申年七月，百濟遣使奏言，大唐·新羅，并力伐我，既以義慈王·王后·太子，爲虜而去，由是，國家，以兵士甲卒，陣西北畔，繕修城柵，斷塞山川之兆也。]，又，西海使小花下阿曇連賴垂，自百濟還言，百濟伐新羅還，時馬自行道於寺金堂，晝夜勿息，唯食草時止[或本云，至庚申年，爲敵所滅之應也。]，

五年 春正月己卯朔辛巳，天皇至自紀溫湯。

三月戊寅朔，天皇幸吉野，而肆宴焉。庚辰，天皇幸近江之平浦[平，此云毗羅。]。丁亥，吐火羅人，共妻舍衛婦人來。甲午，甘檮丘東之川上，造須彌山，而饗陸奧與越蝦夷[檮，此云柯之。川上，此云箇播羅。]。

是月，遣阿倍臣[闕名。]，率船師一百八十艘，討蝦夷國。阿倍臣，簡集飽田·淳代，二郡蝦夷二百卅十一人，其虜卅一人，津輕郡蝦夷一百十二人，其虜四人，膽振鉏蝦夷廿人於一所，而大饗賜祿[膽振鉏，此云伊浮梨娑陸。]。卽以船一隻，與五色綵帛，祭彼地神，至肉入籠。時，問菟蝦夷膽鹿嶋·菟穗名，二人進曰，可以後方羊蹄，爲政所焉[肉入籠，此云之之梨姑。問菟，此云塗毗宇。菟穗名，此云宇保那。後方羊蹄，此云斯梨蔽之。政所，蓋蝦夷郡乎。]。隨膽鹿嶋等語，遂置郡領而歸。授道奧與越國司位各二階，郡領與主政各一階[或本云，阿倍引田臣比羅夫，與肅慎戰而歸，獻虜卅九人。]。

秋七月朔丙子朔戊寅，遣小錦下坂合部連石布·大仙下津守連吉祥，使於唐國。仍以道奧蝦夷男女二人，示唐天子[伊吉連博德書曰，同天皇之世，小錦下坂合部石布連·大山下津守吉祥連等二船，奉使吳唐之路，以己未年七月三日，發自難波三津之浦。八月十一日，發自筑紫六津之浦。九月十三日，行到百濟南畔之嶋，嶋名毋分明，以十四日寅時，二船相從，放出大海，十五日日入之時，石布連船，橫遭逆風，漂到南海之嶋，嶋名爾加委，仍爲嶋人所滅，便東漢長直阿利麻·坂合部連稻積等五人，盜乘嶋人之船，逃到括州。州縣官人，

送到洛陽之京，十六日夜半之時，吉祥連船，行到越州會稽縣須岸山，東北風，風太急，廿二日，行到餘姚縣，所乘大船及諸調度之物，留着彼處，潤十月一日，行到越州之底，十五日，乘驛入京，廿九日，馳到東京，天子在東京，卅日，天子相見問訊之，日本國天皇，平安以不，使人謹答，天地合德，自得平安，天子問曰，執事卿等，好在以不，使人謹答，天皇憐重，亦得好在，天子問曰，國內平不，使人謹答，治稱天地，萬民無事，天子問曰，此等蝦夷國有何方，使人謹答，國有東北，天子問曰，蝦夷幾種，使人謹答，類有三種，遠者名都加留，次者名⁵麤蝦夷，近者名熟蝦夷，今此熟蝦夷，每歲，入貢本國之朝，天子問曰，其國有五穀，使人謹答，無之，食肉存活，天子問曰，國有屋舍，使人謹答，無之，深山之中，止住樹木，天子重曰，朕見蝦夷身面之異，極理奇怪，使人遠來辛苦，退在館裏，後更相見，十一月一日，朝有冬至之會，會日亦觀，所朝諸蕃之中，倭客最勝，後由出火之亂，棄而不復檢，十二月三日，韓智興僊人西漢大麻呂，枉讒我客，客等獲罪唐朝，已決流罪，前流智興於三千里之外，客中有伊吉連博德奏，因即免罪，事了之後，勅旨，國家，來年，必有海東之政，汝等倭客，不得東歸，遂匿⁶西京，幽置別處，閉戶防禁，不許東西，困苦經年，難波吉士男人書曰，向大唐大使，觸鳴而覆，副使親觀天子，奉示蝦夷，於是，蝦夷，以白鹿皮一·弓三·箭八十，獻于天子，庚寅，詔群臣，於京內諸寺，勸講盆經，使報七世父母，

是歲，命出雲國造[闕名]修嚴神之宮，狐嚙斷於友郡役丁所執葛末而去，又狗嚙置死人手臂於言屋社[言屋，此云伊浮耶，天子崩兆]，又高麗使人，持黑皮一枚，稱其價曰，綿六十斤，市司咲而避去，高麗畫師子麻呂，設同姓賓於私家日，借官黑皮七十枚，而爲賓席，客等羞怪而退，

六年 春正月壬寅朔，高麗使人乙相賀取文等一百餘，泊于筑紫，

三月，遣阿倍臣[闕名]，率船師二百艘，伐肅慎國，阿倍臣，以陸奧蝦夷，令乘

5 소학관본에는 ‘名’자가 없다.

6 소학관본에서는 ‘逗’라고 적고 있다.

已船，到大河側，於是，渡嶋蝦夷一千餘，屯聚海畔，向河而營。營中二人，進而急叫曰，肅慎船師多來，將殺我等之故，願欲濟河而仕官矣。阿倍臣遣船，喚至兩箇蝦夷，問賊隱所與其船數。兩箇蝦夷，便指隱所曰，船廿餘艘。即遣使喚。而不肯來。阿倍臣，乃積綵帛·兵·鐵等於海畔，而令貪嗜。肅慎，乃陳船師，繫羽於木，舉而爲旗。齊棹近來，停於淺處。從一船裏，出二老翁，廻行，熟視所積綵帛等物。便換着單衫，各提布一端，乘船還去。俄而老翁更來，脫置換衫，并置提布，乘船而退。阿倍臣遣數船使喚。不肯來，復於弊路辨⁷嶋。食頃乞和。遂不肯聽[弊路辨，渡嶋之別也。]。據己柵戰。于時，能登臣馬身龍，爲敵被殺。猶戰未倦之間，賊破殺己妻子。

夏五月辛丑朔戊申，高麗使人乙相賀取文等，到難波館。

是月，有司奉勅，造一百高座·一百衲袈裟，設仁王般若之會。又皇太子，初造漏剋。使民知時。又阿倍引田臣[闕名。]，獻夷五十餘。又於石上池邊，作須彌山。高如廟塔。以饗肅慎冊七人。又舉國百姓，無故持兵，往還於道[國老言，百濟國失所之相乎。]。

秋七月庚子朔乙卯，高麗使人乙相賀取文等罷歸。又都毗羅人乾豆波斯達阿，欲歸本土，求請送使曰，願後朝於大國。所以，留妻爲表。乃與數十人，入于西海之路[高麗沙門道顯日本世記曰，七月云云，春秋智，借大將軍蘇定方之手，挾⁸擊百濟亡之。或曰，百濟自亡。由君大夫人妖女之無道，擅奪國柄，誅殺賢良故，召斯禍矣。可不慎歟。可不慎歟。其注云，新羅春秋智，不得願於內臣蓋金。故亦使於唐，捨俗衣冠，請媚於天子，投禍於隣國，而構斯意行者也。伊吉連博德書云，庚申年八月，百濟已平之後，九月十二日，放客本國。十九日，發自西京。十月十六日，還到東京。始得相見阿利麻等五人。十一月一日，爲將軍蘇定方等所提百濟王以下，太子隆等，諸王子十三人，大佐平沙宅千福·國辨成以下冊七人。

7 소학관본에서는 ‘弁’이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8 소학관본에서는 ‘使挾’이라고 적고 있다.

并五十許人，奉進朝堂。急，引趨向天子。天子恩勅，見前放着。十九日，賜勞。廿四日，發自東京。]

九月己亥朔癸卯，百濟遣達率[闕名]沙彌覺從等，來奏曰[或本云，逃來告難]，今年七月，新羅恃力作勢，不親於隣，引構唐人，傾覆百濟。君臣總俘，略無噍類[或本云，今年七月十日，大唐蘇定方，率船師，軍于尾資之津。新羅王春秋智率兵馬，軍于怒受利之山。夾擊百濟，相戰三日。陷我王城。同月十三日，始破王城。怒受利山，百濟之東界也。]。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發憤，據任射岐山[或本云，北任鉸利山也。]。達率餘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或本云，都都岐留山。]。各營一所，誘聚散卒。兵盡前役，故，以枯戰。新羅軍破。百濟奪其兵。既而百濟兵翻銳，唐不敢入。福信等遂鳩集同國，共保王城。國人尊曰，佐平福信，佐平自進。唯福信起神武之權，興既亡之國。

冬十月，百濟佐平鬼室福信，遣佐平貴智等，來獻唐俘一百餘人。今美濃國不破·片縣，二郡唐人等也。又乞師請救。并乞王子餘豐璋曰[或本云，佐平貴智·達率正珍也。]，唐人率我蝥賊，來蕩搖我疆場，覆我社稷，俘我君臣[百濟王義慈，其妻恩古，其子隆等，其臣佐平千福·國辨成·孫登等，凡五十餘，秋七月十三日，爲蘇將軍所捉，而送去於唐國。蓋是，無故持兵之徵乎。]。而百濟國，遙賴天皇護念，更鳩集以成邦。方今謹願，迎百濟國遣侍天朝王子豐璋，將爲國主，云云。詔曰，乞師請救，聞之古昔。扶危繼絕，著自恆⁹典。百濟國，窮來歸我，以本邦喪亂，靡依靡告。枕戈嘗膽，必存拯救。遠來表啓，志有難奪。可分命將軍，百道俱前。雲會雷動，俱集沙喙，翦其鯨鯢，紓彼倒懸。宜有司，具爲與之，以禮發遣，云云[送王子豐璋及妻子，與其叔父忠勝等。其正發遣之時，見于七年。或本云，天皇，立豐璋爲王，立塞上爲輔，而以禮發遣焉。]

十二月丁卯朔庚寅，天皇幸于難波宮。天皇力隨福信所乞之意，思幸筑紫，將

9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遣救軍，而初幸斯，備諸軍器。

是歲，欲爲百濟，將伐新羅，乃勅駿河國造船。已訖，挽至績麻郊之時，其船，夜中無故，艫舳相反。衆知終敗。科野國言，蠅群向西，飛踰巨坂，大十圍許，高至蒼天。或知救軍敗績之怪。有童謠曰。摩比邏矩都能俱例豆例於能幣陀乎邏賦俱能理歌理鵝美和陀騰能理歌美烏能陞陀烏邏賦俱能理歌理鵝甲子騰和與騰美烏能陞陀烏邏賦俱能理歌理鵝。

七年 春正月丁酉朔丙寅，御船西征，始就于海路。甲辰，御船到于大伯海。時大田姬皇女，產女焉。仍名是女，曰大伯皇女。庚戌御船，泊于伊豫熟田津石湯行宮[熟田津，此云備枳陀豆.]。

三月丙申朔庚申，御船還至于娜大津。居于磐瀨行宮。天皇改此，名曰長津。

夏四月，百濟福信，遣使上表，乞迎其王子紆解[釋道顯日本世記曰，百濟福信獻書，祈其君紆解於東朝。或本云，四月，天皇遷居于朝倉宮.]。

五月乙未朔癸卯，天皇遷居于朝倉橋廣庭宮。是時，斲除朝倉社木，而作此宮之故。神忿壞殿。亦見宮中鬼火。由是，大舍人及諸近侍，病死者衆。丁巳，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伊吉連博德書云，辛酉年正月廿五日，還到越州。四月一日，從越州上路，東歸。七日，行到檉岸山明。以八日鷄鳴之時，順西南風，放船大海。海中迷途，漂蕩辛苦。九日八夜，僅到耽羅之嶋。便即招慰嶋人王子阿伎等九人，同載客船，擬獻帝朝。五月廿三日，奉進朝倉之朝。耽羅入朝，始於此時。又，爲智與倭人東漢草直足嶋，所讒，使人等不蒙寵命，使人等怨，徹于上天之神，震死足嶋。時人稱曰，大倭天報之近.]。

六月，伊勢王薨。

秋七月甲午朔丁巳，天皇崩于朝倉宮。

八月甲子朔，皇太子奉徙天皇喪，還至磐瀨宮。是夕於朝倉山上，有鬼，着大笠，臨視喪儀。衆皆嗟怪。

冬十月癸亥朔己巳，天皇之喪，歸就于海。於是，皇太子泊於一所，哀慕天皇。

乃口號曰，枳瀾我梅能，姑哀之枳舸羅爾，婆底底威底，舸矩野姑悲武謀，枳瀾我梅弘報梨，乙酉，天皇之喪，還泊難波。

十一月壬辰朔戊戌，以天皇喪，殯于飛鳥川原，自此發哀，至于九日[日本世記云，十一月，福信所獲唐人續守言等，至于筑紫，或本云，辛酉年，百濟佐平福信所獻唐俘一百六口，居于近江國墾田，庚申年，既云福信，獻唐俘，故，今存注，其決焉。]

日本書紀卷第廿六

일본서기 권 제27

日本書紀 卷第廿七

제38대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천지천황(天智天皇)



일본서기 권 제27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아메미코토히라카스와케노스메라미코토) **천지천황**(天智天皇; 텐치텐노)

천명개별천황¹은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²의 황태자³다. 어머니는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姬天皇; 아메토요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노스메라미코토)⁴이다. 천풍재중일족희천황이 재위 4년에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아메요르즈토요히노스메라미코토)⁵에게 양위하였다. 그리고 (이때 천지) 천황을 황태자로 하였다. 천만풍일천황이 뒤의

1 천지천황(626~671)은 서명천황과 보황녀(황극천황, 제명천황) 사이에서 태어났다. 즉위 전에는 葛城皇子 또는 中大兄皇子로 불렸다. 異母兄으로 古人大兄皇子, 同母弟로 大海人皇子(천무천황)가 있다. 645년에 中臣鎌足과 함께 蘇我氏를 멸망시키고 孝德천황과 齊明天황대에 황태자로서 정치를 담당하였다. 661년 제명천황이 사망한 후에 稱制하였다가 668년에 정식으로 천황이 되었다. 백제부흥운동에 지원군을 파견하였으나 패배한 후에는 백제유민을 받아들여 내정을 개혁하고 국방에 힘쓰는 한편, 신라와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다.

2 舒明天皇이다.

3 『日本書紀』 서명천황 13년 10월조에 東宮으로 나오고 있다.

4 皇極천황이다.

5 孝德천황이다.

5년⁶ 10월에 죽었다(崩). 다음해에 황조모존(皇祖母尊; 스메미오야노미코토)⁷이 천황으로 다시 즉위하였다.

7년 7월 정사(24일)에 (제명천황이) 죽었다(崩). 황태자⁸가 소복(素服)⁹을 입고 칭제(稱制)¹⁰하였다.

이 달에 소장군(蘇將軍)¹¹과 돌궐(突厥)¹²의 왕자(王子) 계필가력(契苾加力)¹³들이 수륙양로로 (가서) 고구려¹⁴의 성 밑에 이르렀다. 황태자는 장진궁(長津宮; 나카츠노미야)¹⁵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점차 해외¹⁶의 군정(軍政)¹⁷을 지휘하였다.

8월에 전장군(前將軍)¹⁸ 대화하(大花下)¹⁹ 아담비라부련(阿曇比羅夫連; 아즈미

6 白雉 5년(654) 효덕천황대의 연호는 大化와 白雉가 있는데, 여기서 뒤는 뒤의 연호인 白雉를 가리킨다. 『漢書』文帝紀와 景帝紀의 서술방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

7 齊明天皇이다.

8 中大兄皇子이다.

9 麻衣를 가리킨다.

10 즉위하지 않고 정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

11 蘇定方を 가리킨다.

12 투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 중앙유라시아에서 제국을 이루었다.

13 『新唐書』契苾何力傳에 의하면 鐵勒의 哥論易勿施莫賀可汗의 손자다. 9살 때 고아가 되었고, 당에 귀순하여 태종대와 고종대에 무장으로 활약하였다. 『삼국사기』에서도 契苾何力으로 나온다.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에도 참전하였다. 한편 철륵은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중앙유라시아에 있었던 돌궐 이외의 투르크계 부족을 부르는 말이며, 계필은 철륵의 한 부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日本書紀』 편찬자는 돌궐과 철륵을 구별하지 못하고 契苾加力을 돌궐의 왕자라고 적고 있다.

14 원문은 高麗(코마)이다.

15 『日本書紀』齊明天皇 7년 3월조에 의하면 齊明天皇이 배를 타고 가서 娜大津(현재 博多灣 부근)에 도착하여 그곳의 행궁에 거주하면서 娜大津을 長津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16 원문은 水表이다.

17 백제 부흥운동을 위한 파병을 의미한다.

18 이때 파견군은 전장군과 후장군이 이끄는 二軍편성이었다.

19 大化 5년(649)에 제정된 19階 冠位 중에 제8위이다.

노히라부노무라지)²⁰, 소화하(小花下)²¹하변백지신(河邊百枝臣; 가하헤노모모에노오미)²² 등과 후장군(後將軍) 대화하(大花下) 아배인전비라부신(阿倍引田比羅夫臣; 아헤노히케타노히라부노오미)²³, 대산상(大山上)²⁴ 물부련웅(物部連熊; 모노노메노무라지쿠마)²⁵, 대산상(大山上) 수군대석(守君大石; 모리노키미오호이하)²⁶ 등을 보내 백제를 구하게 하였다. 무기와 식량도 보냈다[어떤 책(或本)에서는 이 뒤에 계속하여 따로 대산하(大山下)²⁷ 협정련빈랑(狹井連檳榔; 사위노무라지아지마사)²⁸, 소산하(小山下)²⁹ 진조전래진(秦造田來津; 하다노미야츠코카쿠츠)³⁰을 보내 백제를 수호하게 하였다고

20 阿曇連은 海部를 관장하는 씨족으로, 천무 13년에 宿禰를 사성받는다. 641년 10월 皇極이 즉위한 후 당시 실권자 蘇我蝦夷에 의해 백제에 특사로 파견되어 백제에서 풍장이 특사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풍장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등 풍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와 왜국의 군사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前將軍으로 임명되어 풍장을 도와 백제부흥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21 大化 5년(649)에 제정된 19계 관위 중에 제10위이다.

22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무천황 6년 10월에 民部卿이 된다.

23 阿倍比羅夫는 齊明紀에도 보인다. 그는 658년 4월부터 660년 3월까지 蝦夷와 肅慎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위의 663년 3월 기사 이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백제부흥전쟁 때 전사한 듯하다.

24 大化 5년(649)에 제정된 19계 관위 중에 제11위이다.

25 이곳에만 보인다.

26 『日本書紀』 齊明천황 4년 11월 무자조에서는 有間皇子의 반란 사건에 연좌되어 체포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백제 구원을 위한 장군으로 임명되고 있다 천지 4년에는 건당대사로 임명된다.

27 대화 5년에 제정된 19계 관위 중에 제12위이다.

28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 동12월 병술삭조에 狹井連이 보인다. 狹井連은 物部連의 동족으로 천무 13년 12월에 宿禰를 사성받는다.

29 大化 5년(649)에 제정된 19계 관위 중에 제14위이다.

30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 12월 병술삭조에서는 朴市田來津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日本書紀』 大化 원년 9월 무진조에서는 古人皇子의 모반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朴市秦造田來津을 표기하고 있는데, 동일인이다. 朴市는 近江 朴市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이 지방에 살던 秦造씨 출신의 사람이다.

하였다.].

9월에 황태자가 장진궁에서 백제 왕자 풍장(豐璋)³¹에게 직관(織冠)³²을 주었다. 또 다신장부(多臣蔣敷; 오호노오미코모시키)³³의 누이를 처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대산하 협정련빈랑, 소산하 진조전래진을 보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풍장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호위하게 했다. 풍장이 나라에 돌아가자 복신(福信)³⁴이 마중 나와 절하고, 국정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12월에 고구려가 “이번 12월에 고구려국[高麗國]은 몹시 추워 패강(溟江)³⁵이 얼었습니다. 당군(唐軍)은 운차(雲車)³⁶, 충봉(衝輦)³⁷을 끌고 북과 징을 울리며 진격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는 용감하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당(唐)의 두 보루를 빼앗았습니다. 다만 두 진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밤에 빼앗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의 군사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날카로움이 둔하여지고 힘이 빠져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³⁸ 후회막급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31 의자왕의 아들로 641년에 왜국에 군사동맹을 위한 특사로 파견되었다. 『日本書紀』 서명 천황 2년 3월조 참조.

32 당시에는 大化 5년(649)에 제정된 冠位制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織冠으로 大織(令制의 정1위), 小織(令制의 중1위)이 있었다. 풍장이 이 중에서 어느 冠位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3 『和州五郡神社神名帳大略注解』에 인용된 「久安 五年 多神社注進帳」에서 太安麻呂의 조부로 나오고 있다. 태안마라는 舍人 稗田阿禮가 송습한 舊辭를 필록하여 『古事記』를 편찬한 사람이다.

34 무왕의 조카인 귀실복신이다.

35 원문은 溟이다. 大同江을 가리킨다.

36 구름처럼 높은 수레라는 의미이다.

37 성문을 부딪쳐 깨는 수레를 말한다.

38 소정방과 계필하력이 35만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이야기이다.

라[석도현(釋道顯)³⁹이 말하였다. 김춘추(金春秋)의 뜻은 본래 고구려를 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먼저 백제를 쳤다. 근자에 백제가 침공당해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해에 파마국사(播磨國司) 안전신마려(岸田臣麻呂; 키시타노오미마로)⁴⁰ 등이 보검을 바치면서, “액야군(狹夜郡; 사요노코호리)⁴¹ 사람의 조발 구덩이 속에서 얻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고구려 군대를 돕는 일본(日本) 장군들이 백제의 가파리빈(加巴利濱; 카하리노하마)⁴²에 묶어 불을 피웠다. 그러자 재가 변하여 구멍이 되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살촉이 우는 것 같았다. 이에 어떤 사람이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는 징조인가.”라고 말하였다.

원년 봄 정월 신묘삭 정사(27일)에 백제의 좌평(佐平) 귀실복신(鬼室福信)에게 화살 십만 척, 실 5백 근, 솜 1천 근, 피륙 1천 단(端), 무두질한 가죽 1천 장, 종자용 벼 3천 석을 주었다.⁴³

3월 경인삭 계사(4일)에 백제왕(百濟王)⁴⁴에게 포 3백 단을 주었다. 이 달 당인(唐人)과 신라인이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는 조정에 구원을 청하였다⁴⁵. 그래

39 道顯은 고구려에서 왜국으로 간 승려이다. 언제 왜국으로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日本書紀』 이외에 도현 관련 기록이 보이는 자료로는 『藤氏家傳』, 『元亨釋書』, 『本朝高僧傳』이 있다. 도현이 고구려에서 도래하였고 ‘日本世記’를 썼다는 것은 『日本書紀』 齊明天皇 6년 추7월 경자삭 을묘조의 ‘高麗沙門道顯日本世記曰’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江戸시대에 편찬된 『本朝高僧傳』의 和州大安寺沙門道顯傳에서는 그가 일본의 君臣이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듣고, ‘朝貢船’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적고 있다.

40 이곳에만 보인다.

41 『和名類聚抄』의 播磨國 佐用郡이다. 藤原宮跡에서 출토한 木簡에 ‘佐用郡’이 보인다.

42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皆火’로 나오며, 현재 전라북도 扶安을 가리킨다.

43 무기와 그 재료, 식량을 보낸 것이다.

44 豐璋을 가리킨다.

45 고구려가 도움을 청한 것은 백제 부흥군이며, 왜국에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서 장군을 보내 소류성(疏留城)⁴⁶에 웅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당인이 그 남쪽 경계⁴⁷를 침략할 수가 없었고, 신라는 그 서쪽의 보루를 함락할 수 없었다.

여름 4월에 쥐가 말의 꼬리에 새끼를 낳았다⁴⁸. 석도현이 “북국의 사람이 남쪽에 붙으려고 한다. 아마 고구려가 패하여 일본에 복속하려는 것일까?”라고 점쳤다⁴⁹.

5월에 대장군 대금중(大錦中)⁵⁰ 아담련비라부련(阿曇比羅夫連)들이 수군 170척을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내주고, 풍장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칙을 선포하였다⁵¹. 또 복신에게 금책(金策)⁵²을 주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칭찬하고

아니라 『日本書紀』 편자가 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한 기사라는 견해도 있다.

46 백제유민의 부흥운동 근거지이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6년 9월 기해삭 계묘조에서는 都都岐留山(つつきるのむれ)으로 표기하였다. 동 천지천황 2년 秋 8월 임오삭 갑오조와 9월 신해삭 정사조에서는 州柔로 표기하였다. 『資治通鑑』에서는 周留, 『삼국사기』에서는 豆率, 豆陵伊로 표기하였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충남 서천군 한산 건지산성, 전남 부안 위금암산성 등 여러 설이 있다. 白江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나당군의 공격로와 백강구 전투가 일어난 곳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周留城의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진다. 백강과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는 周留城 부안설과 白江 금강(하류)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47 소류성을 중계기지로 하여 일본과 고구려가 연락하고 있었으므로 당은 그 국경 남쪽의 고구려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그 국경 서쪽의 고구려의 보루를 함락할 수 없었다.

48 쥐는 子로서 북쪽 방향, 말은 午로서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道顯의 『日本世紀』에 근거한 기사이다.

49 『元亨釋書』의 편찬자는 도현이 方術에 뛰어났다고 하면서 그의 박학함을 감탄하고 있다(『元亨釋書』釋道顯). 『本朝高僧傳』의 편찬자는 쥐는 삭방, 말은 건괘이며 고구려는 서북으로 子(쥐)에 해당하고, 일본은 동남으로 午(말)에 해당하는데, 도현이 박학하여 방술에 뛰어나 예언이 맞게 되었다고 하였다.

50 이는 天智천황 3년 2월에 시행된 26계 冠位 중의 제8위다. 따라서 이는 뒤에 추가하여 기록한 것이다.

51 『日本書紀』에서 왜왕이 백제왕을 책립한 기사는 백제멸망 이후 의자왕의 후손인 선광 등 백제왕족에게 ‘百濟王’이라는 씨성을 내린 것을 가지고 윤색한 것이다.

52 金泥로 쓴 冊書を 의미한다.

작록(爵祿)을 주었다. 그때 풍장과 복신이 절하며 칙을 받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6월 기미삭 병술(28일)에 백제는 달솔(達率) 만지(萬智)⁵³들을 보내 조(調)를 올리고 물건을 바쳤다.

겨울 12월 병술삭(1일)에 백제왕 풍장과 그의 신하 좌평(佐平) 복신(福信)들이 협정련(狹井連; 사위노무라지)[이름이 빠졌다.], 박시전래진(朴市田來津; 치노타쿠즈)⁵⁴과 의논하여 “이 주유(州柔)⁵⁵는 논밭과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다. 농사짓고 누에칠 땅이 아니라 방어하고 싸울 장소다. 여기에 오래있으면 백성이 굶게 될 것이다. 이제 피성(避城)⁵⁶으로 옮기자. 피성은 북서쪽에는 고련단경(古連旦溍)의 물이 흐르고⁵⁷, 남동쪽에는 심니거언(深泥巨堰)이 막고 있어⁵⁸ 방어하기에 좋다. 또한 사방에 논이 있어 도량이 파여 있고, 비가 잘 내린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삼한(三韓) 중에 기름진 곳이다. 의식(衣食)의 근원이 천지에 감춰져 있는 땅이다. 비록 땅이 낮은 곳에 있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때 박시전래진이 혼자 나아가 간하여, “피성은 적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뉘우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은 후의 일이지만, 망하는 것은 먼저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오지 않는 까닭은 주유가 험준한 곳에 있어서 방어에 아주 적합하고,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기 때문임

53 이곳에만 보인다.

54 앞의 齊明天皇 7년 9월조에서는 각각 협정련빈랑, 진조전래진으로 표기하고 있다.

55 周留를 가리킨다.

56 주류성 남쪽 전라북도 金堤에 있던 성이다.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 49년 3월조의 辟中, 辟支山과 같은 곳으로 여겨진다.

57 古連旦溍之水는 深泥巨堰之防의 對句로 쓰인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성 근방의 河水를 가리키는 말로, 김제 주변의 新坪川이나 萬頃江이 이에 해당한다.

58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大堰으로, 김제 벽골제를 가리킨다.

니다. 만일 낮은 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굳게 지키며 동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결국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에 도읍하였다⁵⁹.

이 해에 백제를 구하기 위하여 무기를 수선하고 선박을 구비하고 군사의 식량을 비축하였다⁶⁰. 이 해의 간지(태세)⁶¹는 임술(662)이다.

2년 봄 2월 을유삭 병술(2일)에 백제가 달솔 김수(金受)⁶²들을 보내 조(調)를 올렸다. 신라인이 백제 남부의 사주(四州)를 불태우고⁶³, 아울러 안덕(安德)⁶⁴ 등의 요지를 빼앗았다. 피성(避城)은 적에게 너무 가까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

59 천지천황 원년 12월조부터 천지천황 2년 9월조까지 豐璋이 백제에서 한 활동과 백강구 전투에 관한 기사는 박시전래진의 무용담을 기록한 박시씨의 『가기』를 참고로 하였을 것이다.

60 왜국이 백제부흥운동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왜국이 조공국인 백제를 구원하여 제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병했다는 고대 제국주의 설과 일본열도에 대한 당의 위협을 사전에 저지하고자 파병하였다는 설이 일본학계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백제로부터 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파병했다는 설, 왜 왕권의 내부모순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설, 신라를 정복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설, 백제왕족 외교의 성과라고 보는 설 등이 있다.

61 太歲는 木星을 가리킨다. 太陰, 天一이라고도 한다. 『日本書紀』에서는 새로 천황이 즉위 할 때마다 즉위 원년의 태세 간지를 적고 있다.

62 이곳에만 보인다. 金受의 金은 신라 진골의 성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金이 성인지 이름인지 알 수 없다.

6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3년(663) 2월조에서 欽純과 天存이 병사를 이끌고 백제의 居列城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7백여 명을 참수하였으며, 거물성, 사평성, 덕안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했는데, 백제 남부의 4주는 바로 이 네 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설이 있다. 거열성은 경상남도 거창, 거물성은 전남 남원 부근이다. 안덕은 德安의 誤記로 보고, 덕안은 백제의 5방 중의 하나인 東方의 치소가 있었던 忠南 恩津으로 추정한다. 한편 ‘百濟南畔四州’를 ‘百濟南 四伴州’의 誤記로 보고, 이를 웅진도독부 관할하의 7주 중의 하나로 보아 영광과 함평, 고창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4 안덕은 덕안의 誤記이다.

으므로, 도로 주유로 돌아갔다. 전래진(田來津)이 생각한 바와 같다.

이 달에 좌평 복신이 당의 포로 속수언(續守言)⁶⁵ 등을 바쳤다.

3월에 전장군 상모야군치자(上毛野君稚子; 카미즈케노노키미와카코)⁶⁶와 간인련 대개(間人連大蓋; 하시히토노무라지오호후타)⁶⁷, 중장군(中將軍) 거세신전신역어(巨勢神前臣譯語; 코세노카무사키노오미오사)⁶⁸와 삼륜군근마려(三輪君根麻呂; 미와노키미네마로)⁶⁹, 후군 장군 아배인전신비라부(阿倍引田臣比羅夫)와 대택신점병(大宅臣鎌柄; 오호야케노오미카마츠키)⁷⁰을 보내 2만 7천 인을 거느리고 신라를 치게 하였다⁷¹.

여름 5월 계축삭(1일)에 견상군(犬上君; 이누카미노키미)[이름이 빠졌다.]⁷²이 달려가, 출병한 사실을 고구려에 고하고 돌아왔다⁷³. 그리고 규해(亂解)⁷⁴를 석성

65 『日本書紀』 齊明天皇 7년 11월 임진삭 무술조에도 보인다. 『日本書紀』 持統天皇 4년 11월 갑신조에서는 續守彦과 薩弘格 등에게 稻를 주었다고 한다. 森博達은 이를 淨御原令 편찬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상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지통조의 『日本書紀』 편찬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66 이곳과 다음 6월조에만 보인다.

67 『日本書紀』 천무천황 4년 夏4월 계미조에서는 관위 小錦中으로 大和國 廣瀨의 천변에서 大忌神을 제사지내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68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巨勢神前臣은 近江國 神前郡을 본거로 하는 巨勢氏의 支族이다.

69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0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1 백제부흥운동을 도운 왜국군은 지방 호족들이 동원한 國造軍의 집합체였다. 국조군은 국조의 일족과 그 지배하의 민중과 노비로 구성되었다.

72 犬上君은 近江國 犬上郡의 호족이다. 천무 13년 11월에 朝臣으로 개성하였다. 7세기전반에 견수사와 견당사로 활약한 犬上君御田鍛가 보인다. 그는 推古天皇 22년 6월에 견수사로 파견되었다가 다음해 9월에 귀국하였고, 서명천황 2년 8월에 제1회 견당사로 파견되었다가 4년 8월에 귀국하였다.

73 백제 부흥군은 석 달 뒤 백촌강 전투로 이어지는 왜군의 참전과 관련된 군사적 협의를 고구려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4 豐璋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天智紀에 豐璋과 亂解가 보이고 있는데, 亂解로 표기하고

(石城)⁷⁵에서 만났다. 규해는 복신(福信)의 죄를 말하였다⁷⁶.

6월에 전군(前軍) 장군 상모야군치자(上毛野君稚子) 등이 신라의 사비(沙鼻), 기노강(岐奴江)⁷⁷ 두 성을 빼앗았다. 백제왕(百濟王; 쿠다라노코키시) 풍장은 복신이 모반할 생각이 있다고 의심하고, 손바닥을 뚫어 가죽으로 묶었다. 그러나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복신의 죄는 이와 같은데, 참수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때 달솔 덕집득(德執得)⁷⁸이 “이 극악한 사람을 방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복신은 집득에게 침을 뱉고, “썩은 개, 미친 놈”이라고 말하였다. 왕은 힘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참수하여 그 머리로 짓을 담갔다⁷⁹.

가을 8월 임오삭 갑오(13일)에 백제왕이 자기의 훌륭한 장수를 죽였으므로, 신라는 곧바로 백제로 쳐들어가 먼저 주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백제

있는 것은 『日本世記』를 참고하여 작성한 기사다. 도현은 복신이 왜국에 보낸 상표문에 서 紕解라고 쓰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日本書紀』 황국기에 보이는 翹岐(けうき)도 紕解(きうけ)와 같은 음을 표현한 것으로,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75 현재 충남 扶餘 東南쪽 石城面の 石城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석성산성 맞은편 금강 건너편에는 가림성(부여군 임천면)으로 지정되는 성흥산성이 있다. 그러나 석성산성을 흥성군 장곡면 대현리의 鶴城山城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6 『구당서』 劉仁軌傳에서는 복신이 매우 흉폭하고 잔학하였으므로, 餘豐이 시기하고 의심하였다고 적고 있다. 『구당서』 백제전에서도 복신이 兵權을 독점하여 扶餘豐과 점차 시기하고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77 沙鼻는 경남 양산, 岐奴江은 경남 의령으로 추정된다.

78 이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천지천황 10년 정월조에 망명백제인 德頂上이 보이고, 持統천황 5년 12월조에는 醫博士 德自珍이 보인다.

79 『구당서』 백제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즉 복신이 兵權을 독점하여 扶餘豐과 점차 시기하고 갈라지게 되었다. 복신은 병을 칭하고 동굴의 방에 누워서 장차 부여풍이 병문안을 오면 공격하여 죽이려고 꾸뻐했는데, 부여풍이 이를 알고 심복들을 거느리고 가서 복신을 공격하여 죽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의 이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아마 현지인의 견문에 기초한 기사일 것이다.

왕⁸⁰이 적의 계략을 알고 장군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들으니 대일본국(大日本國; 아마토노쿠니)의 구원군 장수 노원군신(盧原君臣; 이호하라노기미오미)⁸¹이 건아(健兒; 치카라히토)⁸²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장군들은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나는 백촌(白村; 하쿠스키)⁸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대하리라.”라고 말하였다.

무술(17일)에 적장(賊將)이 주유에 이르러 그 왕성을 에워쌌다. 대당(大唐)의 장군⁸⁴이 전선(戰船)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白村江; 하쿠스키노에)에 진을 쳤다.

무신(27일)에 일본의 수군 중 처음에 온 사람들이 대당(大唐)의 수군과 싸웠다⁸⁵. 그러나 일본이 저서 물러났다. 대당은 진열을 굳게하여 지켰다.

80 원문은 ‘百濟’이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즉위전기 8월조에 인용된 「或本」에서도 왕을 생략하고 표기하였다.

81 盧原君은 駿河(현재 靜岡縣 중부) 國造系 호족이다. 駿河國은 『日本書紀』 齊明天皇 6년 시세조에서 신라를 치기 위한 배를 만든 곳이다.

82 용감한 군사를 의미한다.

83 錦江의 河口부근이다. 『日本書紀』에서는 백촌, 백촌강으로 나오고 있으나, 『구당서』·『신당서』 등 중국 사료에는 白江으로 나오고 있고, 『三國史記』 백제본기에는 白江, 白沙, 伎伐浦라고 표기되어 있다.

84 웅진성에서 수군을 거느리고 금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온 당의 장군 劉仁軌, 杜爽, 扶餘隆을 가리킨다.

85 이 날(8월 27일)과 다음날의 전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에 문무왕의 회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 회상에서는 “이때 왜국의 배와 병사가 와서 백제를 도왔다. 왜선 1천 척이 白沙에 정박하였고, 백제의 정예 기병이 강가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다. 신라의 용감한 정예 기병이 漢(중국)의 선봉이 되어 먼저 강변에 진치고 있던 군대를 격파하자 周留城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여 결국 곧 항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舊唐書』 劉仁軌傳에서는 “인궤가 왜병을 백강 하구에서 만나 네 번 싸워 이기고 그 배 4천 척을 불태웠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 적의 무리는 크게 무너졌다. 餘豐은 겨우 탈출하여 도망갔다. 그 寶劍을 빼앗았다. 僞王子扶餘忠勝과 忠志 등이 남녀와 倭人, 탐라국사신을 거느리고 함께 항복하였다. 백제의 모든 성들이 모두 귀순하였다.”고 적고 있다.

기유(28일)에 일본의 장군들과 백제왕이 기상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선수를 친다면 저쪽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대오가 흔들린 일본 중군(中軍)의 병졸을 이끌고 다시 나아가 진열을 굳건히 하고 있는 대당의 군사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대당이 곧 좌우에서 배를 둘러싸고 싸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관군(官軍)이 패배하였다⁸⁶. 이때 물속으로 떨어져 익사한 자가 많았다. 또한 뱃머리와 고물을 돌릴 수가 없었다. 박시전래진은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 이를 갈며 분노하면서 수십 인을 죽이고 마침내 전사하였다. 이때 백제왕 풍장은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망갔다⁸⁷.

9월 신해사 정사(7일)에 백제의 주유성(州柔城)이 마침내 당에 항복하였다⁸⁸. 이때 국인(國人)들이 “주유가 항복하였다. 사태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이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테례성(豆禮城; 테례사시)⁸⁹에 가서 일본 장군들과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해

86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왜군은 지방호족이 동원한 국조군으로 구성되어 정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설, 나당연합군의 월등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과 백제부흥군과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 풍장과 복신의 불화 등 부흥군 내부갈등에 의해 왜군이 제때에 주류성에 들어가지 못하여 나당군과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패배했다는 설 등이 있다.

87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왕 부여풍이 탈주하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혹은 고구려로 도망갔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舊唐書』 유인궤전에서는 “餘豐은 북에 있고 餘勇은 남에 있다.”고 적고 있다. 여용은 禪廣을 가리키며, 남에 있다는 것은 왜국에 있다는 뜻이다. 『資治通鑑』 高宗 總章元年 12月 丁巳條에 의하면 扶餘豐은 668년 10월 李勣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에 포로로 잡혀 당으로 끌려가서 12월 嶺南에 유배되었다.

88 『資治通鑑』 唐紀에서는 周留城이 항복한 날을 9월 무오(8일)라고 하였다. 『日本書紀』에서 백제부흥운동 기사는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신당서』, 『자치통감』에 의하면 이후 신라군과 당군은 지수신이 지휘하고 있던 임존성의 백제부흥운동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당에 투항한 사택상여와 흑치상지를 이용하여 이 해 11월경 임존성을 함락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64년 3월에 사비산성의 백제부흥운동군이 당군과 신라군에 의해 진압되었다고 하는데, 이로써 백제부흥운동은 끝나게 되었다.

89 이를 冬老縣(全南 보성군 鳥城)이라는 설과 경남 南海島로 보는 설이 있다.

야 할지 의논하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먼저 침복기성(枕服岐城; 시무부쿠기사시)⁹⁰에가 있던 처와 아이들에게 나라를 떠나가려 한다는 마음을 알렸다. 신유(11일)에 모테(牟耜; 무테)⁹¹를 출발하였다. 계해(13일)에 테례(弋禮; 테레)에 이르렀다. 갑술(24일)에 일본의 수군 및 좌평 여자신(余自信)⁹², 달솔 목소귀자(木素貴子)⁹³, 곡나진수(谷那晉首)⁹⁴, 억례복류(億禮福留)⁹⁵와 국민(國民)들이 테례성(弋禮城)에 이르렀다. 이튿날에 비로소 배가 출항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

3년 봄 2월 기묘삭 정해(9일)에 천황이 대황제(大皇弟; 히즈키노미코)⁹⁶에게

90 현재 전남 강진지역으로 추정된다.

91 『日本書紀』欽明天皇 17년 춘정월조에서 보이는 彌豆(みて)와 같은 곳일 것이다. 즉 백제왕자 혜가 왜국에서 귀국할 때 筑紫火君의 호위를 받아 돌아왔는데, 이때 이들이 상륙한 항구가 彌豆다. 彌豆는 현재 경남 南海島의 彌助里일 것으로 추정된다.

92 『日本書紀』齊明天皇 6년 9월조에서 복신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한 달솔 餘自進과 동일인물이다. 천지천황 8년에는 좌평 鬼室集斯 등 남해 7백여 명과 함께 거주지를 近江國 浦生郡으로 옮겼으며, 천지천황 10년 정월에는 大錦下 관위를 받았다. 『新撰姓氏錄』우경 제번 高野造조에서는 餘自進의 후손을 칭하고 있다.

93 『日本書紀』천지천황 10년(671) 정월조에서 병법 전문가로 천지로부터 대산하의 관위를 받는다. 『懷風藻』에 의하면 學士로 大友皇子의 賓客이 되었다고 한다. 대우황자는 천지의 아들로 천지조 말기에 태정대신의 지위에 있었고, 천지의 사망 후 즉위하였다. 천지는 대산하의 관위를 주면서 대우황자의 자문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임신의 난이 일어나 大友皇子는 삼촌 大海人皇子(천무천황)에게 패배하고 자살하게 된다.

94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지천황 10년(671) 정월에 병법전문가로 大山下の 관위를 받는다. 谷那氏를 『新撰姓氏錄』좌경제번에 보이는 高難氏로 보는 견해도 있다. 『新撰姓氏錄』에서는 近肖古王의 후예인 高難延子가 大丘造씨의 조상으로 나온다.

95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지천황 4년(664) 8월에 사비북부와 함께 筑紫國에 가서 대야성과 연성을 쌓았다. 천지천황 10년(671) 정월에는 병법 전문가로 대산하의 관위를 받는다. 『新撰姓氏錄』左京諸蕃 石野連條에서는 近肖古王의 후예로서 石野連씨의 조상으로 나온다. 『續日本紀』에 의하면 그 후손들 가운데 億賴子老 등 41인이 石野連을 사성받을 정도로 유력씨족으로 성장하였다.

96 大海人皇子를 가리키며, 후에 天武天皇으로 즉위한다.

명하여 관위(冠位)의 계명(階名)을 늘리고 바꾸는 것과 씨상(氏上; 코노카미)⁹⁷, 민부(民部; 카키베)⁹⁸, 가부(家部; 야카베)⁹⁹들의 일을 공포하게 하였다. 그 관(冠)은 26계가 있다¹⁰⁰. 대직(大織), 소직(小織), 대봉(大縫), 소봉(小縫), 대자(大紫), 소자(小紫), 대금상(大錦上), 대금중(大錦中), 대금하(大錦下), 소금상(小錦上), 소금중(小錦中), 소금하(小錦下), 대산상(大山上), 대산중(大山中), 대산하(大山下), 소산상(小山上), 소산중(小山中), 소산하(小山下), 대을상(大乙上), 대을중(大乙中), 대을하(大乙下), 소을상(小乙上), 소을중(小乙中), 소을하(小乙下), 대건(大建), 소건(小建)의 26계이다. 이전의 화(花)를 고쳐 금(錦)이라 하였다. 금(錦)에서부터 을(乙)에 이르기까지 10계를 늘렸다. 또 이전의 초위(初位) 1계를 대건(大建)과 소건(小建)의 2계로 늘렸다. 이것이 변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전대로다¹⁰¹.

대씨(大氏)의 씨상(氏上)에게는 대도(大刀)를 주었다. 소씨(小氏)의 씨상(氏上)에게는 소도(小刀)를 주었다. 반조(伴造)들의 씨상(氏上)에게는 방패, 궁시를 주었다. 또 민부(民部)와 가부(家部)를 정하였다¹⁰².

97 氏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古訓은 코노카미로 읽고 있는데, 이는 氏宗, 氏長과 같은 뜻이다. 『속일본기』 대보 2년 9월 25일조에 “갑자년에 氏上을 정하였을 때 실리지 못하였다가 지금 賜姓받아 忌寸 이상인 씨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라.”는 기사가 있는 점에서 이때 氏上들을 기재한 서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씨는 주로 기내와 그 주변에 본거를 두고 大和정권을 구성한 유력한 동족집단을 가리킨다.

98 『日本書紀』 雄略천황 17년 3월조에 私民部, 동 웅락천황 23년 8월조에 民部가 보인다. 민부에 대해서는 호족 사유의 部民이라는 설과 공민이라는 설로 나뉘어져 있다.

99 가부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즉 민부가 씨에 예속된 부민인 것에 비해 가부는 氏가 아니라 家에 소속된 부민이라는 설, 민부는 부민이지만 가부는 그보다 지위가 낮은 천민으로 뒤의 家人의 원류라는 설, 민부는 공민이지만 가부는 호족 사유의 부민이라는 설이 있다. 이들 설에 의한다면 天武紀 4년 2월조의 “갑자년에 제씨에게 지급한 부곡은 지금부터 폐지한다.”는 기사 속에 보이는 부곡은 각각 민부와 가부, 민부, 가부에 상당한다.

100 이 시기 大化 5년(649) 2월에 제정한 冠位 19계제를 26계체로 확대 개편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101 중하급관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혁이었다.

3월에 백제왕(百濟王 ; 쿠다라노코키시) 선광왕(善光王 ; 겐쿠와우와우)¹⁰³ 등을 난파(難波 ; 나니하)¹⁰⁴에 살게 하였다¹⁰⁵. 별이 경(京 ; 미야코)의 북쪽에 떨어졌다. 이 해 봄에 지진이 있었다.

여름 5월 무신삭 갑자(17일)에 백제진장(百濟鎭將)¹⁰⁶ 유인원(劉仁願)¹⁰⁷이 조산

102 ‘민부와 가부를 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즉 大化改新 때 폐지된 호족의 部民을 부활시킨 것, 大化改新 때에 폐지되지 않은 部民을 조사하여 이를 인정한 것, 뒤의 令制의 帳內, 資人의 원류가 되는 민중을 특정한 호족에게 복종시킨 것, 국가 소유의 公民을 인정한 것 등이다.

103 禪廣으로도 표기된다. 『舊唐書』에서는 扶餘勇으로 나온다. 631년 풍장과 함께 왜국에 파견되어 백강구 전투 때에도 일본에 남아 있었다. 백강구 전투 이후에 일본에 남아 있던 의자왕의 유일한 아들이다. 持統紀에서는 지통천황이 선광에게 백제왕을 賜姓하였다고 적고 있으므로, 여기에 보이는 ‘백제왕’은 『日本書紀』 편찬자의 追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지조정이 선광을 ‘백제왕’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를 ‘백제왕’으로 부른 것은 그를 백제계 도래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왜국은 당이 백제 땅에 보낸 웅진도독 부여용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선광에게 ‘백제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백제왕’은 씨성이 아니라, 과거의 ‘백제왕’을 부활시킨 칭호다.

104 難波에는 推古朝 이후 외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관사가 있었고, 孝德朝에서 조영한 난파 궁이 있었다. 율령제가 실시되면서 이곳에 百濟郡이 설치되었다.

105 『삼국사기』 문무왕 4년(664) 3월조에 의하면 웅진도독 부여용이 백제운동군의 잔존세력을 진압하였다고 하는데, 이후 백제유민들의 반당운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여용은 고구려에서, 부여용 즉 선광은 왜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상표문을 664년 10월 유인궤가 고종에게 바치고 있다.

106 鎭將은 수당대 지방군의 장을 말한다.

107 『資治通鑑』에 의하면 유인원이 유인궤와 교체되어 백제진장이 된 것은 664년 10월 이후이므로 이때 백제진장은 아직 유인궤다. 그러므로 『日本書紀』에서 백제진장을 유인원으로 쓴 것은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당 고종의 칙사 유인원이 664년 2월 웅령의 서맹과 665년 8월 취리산의 서맹을 주선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광무종의 파견에 유인원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시 백제진장 유인궤와 협의한 것일 것이다. 광무종은 당 고종의 칙사인 유인원이 파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천지조정에서는 백제진장 유인원이 파견하였다는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현재 부여박물관에 유인원기공비가 남아 있다.

대부(朝散大夫)¹⁰⁸ 곽무중(郭務棕)¹⁰⁹들을 보내 표함(表函)¹¹⁰과 헌물을 바쳤다¹¹¹.

이 달에 대자(大紫) 소아련대신(蘇我連大臣; 소가노무라지노오호마헤츠키미)¹¹²이 죽었다(薨)[어떤 책(或本)에서는 대신이 죽은 것이 5월이라고 주(注)를 달았다.].

6월에 도황조모명(島皇祖母命; 시마노수메미오야노미코토)¹¹³이 죽었다(薨).

겨울 10월 을해삭(1일)에 곽무중(郭務棕) 등을 돌려보내도록 하라는 칙을 내렸다¹¹⁴. 이 날에 중신내신(中臣內臣; 나카토미노우치마헤츠키미)¹¹⁵은 사문(沙門) 지

108 종5품하로 『唐六典』에 「從五品下曰朝散大夫」라고 있다.

109 당에서 백제에 파견하였던 당의 관인이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4년 9월조와 8년 시세조, 10년 11월조에 당의 使人으로 나온다. 백제부흥전쟁이 끝난 후 당이 처음 외국에 파견한 사신이다.

110 상표문을 넣은 함이다.

111 곽무중의 파견에 관해서는 室町幕府가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대외관계와 외교문서를 모아 1470년에 편찬한 『善隣國寶記』 천지천황 3년조에 인용된 「海外國記」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천지 3년(664) 4월에 곽무중 등 30인과 백제 佐平 禰軍 등 1백여 인이 파견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日本書紀』보다 자세히 적혀 있으며, 『日本書紀』의 기록과 다른 점도 있다. 「해외국기」는 고대 외교 관계 기록을 집대성한 것으로 전 40권이며, 天平 5년(733) 春文이 편찬하였다고 하지만 춘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가 없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신라국보기』에 逸文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모두 齊明朝에서 파견한 견당사의 일기나 천지조에 파견된 당의 사신과의 교섭기록이다. 『日本書紀』의 기록과 다른 점이 있는 점에서 『日本書紀』 편찬 시에 채택되지 못한 기록을 모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책이 편찬된 733년은 신라와 긴장관계에 있었던 시기였다. 곽무중과 禰君 등의 목적은 왜국이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깨고 당에 복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9개월이나 對馬에 머무르면서 왜국조정의 답변을 기다렸다.

112 『公卿補任』에서 石川麻呂의 동생으로 나온다. 『續日本紀』에서는 天平 원년 8월조에 近江朝大臣이라고 나오고, 동 天平寶字 6년 9월조에 後岡本朝大臣으로 나온다. 齊明天皇 4년 정월에 좌대신 巨勢德太가 사망한 후 大臣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13 천지천황의 조모이자 舒明天황의 어머니이다. 민달천황의 황녀로, 민달천황의 손자 彦人大兄皇子와 결혼하였다.

114 『善隣國寶記』에 인용된 「海外國記」에서는 곽무중 등이 天子가 보낸 사신이 아니라 백제 진장이 사사roi 보낸 사신이므로 입국시켜 사신으로 대접할 수 없다고 하는 筑紫大宰의 말을 津守連吉祥 등이 전했다고 적고, 註에서 (이 말이) 사실은 勅旨였을 것이라고 적

상(智祥; 치자우)¹¹⁶을 보내 곽무종 등에게 물건을 주었다¹¹⁷. 그리고 무인(4일)에 곽무종 등을 향응하였다. 이 달에 고구려 대신(大臣) 개금(蓋金)¹¹⁸이 그 나라에서 죽었다¹¹⁹. 여러 자식들에게 “너희들 형제는 고기와 물과 같이 화합하여 작

고 있다. 곽무종의 파견에 대해 천지조정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였을 것이다. 백제는 멸망하였지만 또 하나의 동맹국인 고구려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지조정은 복속을 요구하는 당과 수호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듯하다. 왜국조정은 곽무종이 百濟鎭將의 牒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곽무종을 당의 사신으로 접대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는 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지는 않으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후 천지천황은 내정을 개혁하고 국토방위를 강화하여 신라와 당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115 中臣鎌足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皇極天皇 4년 6월 무신조에서 中大兄皇子와 함께 蘇我入鹿을 암살하여 蘇我氏 정권을 무너뜨린 인물로 나오고 있다. 천지천황 8년에 大織官 大內臣이라는 직위와 ‘蘇我’라는 씨명을 수여받았다.

116 智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善隣國寶記』에 실린 「海外國記」에서는 곽무종과 직접 교섭을 담당한 것은 승려 智辨과 采女通信, 津守連吉祥, 伊岐史博德이라고 적고 있다. 즉 천지 3년 4월에 곽무종 등 30인과 백제좌평 禰軍 등 1백여 인이 對馬島에 도착하였을 때 采女通信과 智辨이 가서 이들을 大宰府의 사신 숙소로 데려왔으며, 천지 3년 9월에 大宰府에 머물고 있던 당의 사신 곽무종에게 津守連吉祥, 伊岐史博德, 智辨이 축하대재의 말을 전하고 있다. 采女通信은 『日本書紀』에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세 명은 『日本書紀』에 보인다. 즉 智辨은 白雉 4년(653) 夏5월 신해삭 임술조에 인용된 「或本」에서 학문승으로 견당사 길사장단과 함께 당에 파견된 知辨과 동일인이다. 그가 언제 왜국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곽무종의 접대에 활약하고 있다. 津守連吉祥과 伊岐史博德은 왜국의 제4차 견당사로 齊明天皇 5년(659) 7월 당으로 출발하였다가 齊明 7년(661) 5월에 왜국으로 돌아왔다. 伊岐史博德은 이때 당을 오가면서 겪은 일과 여정을 「伊吉連博德書」로 남겼는데, 이 기록은 『日本書紀』 편찬에 이용되었다.

117 천지천황의 측근 中臣連鎌足이 곽무종 등에게 따로 선물을 보낸 것은 653년 견당사로 중국에 간 婁婁 貞惠(定惠)의 귀국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18 淵蓋蘇文을 가리킨다.

119 여기에서는 664년 10월 연개소문이 자식들에게 작위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울 것을 유언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 아들들의 불화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기사와 복선이 되고 있다. 연개소문의 사망 시기에 대해 중국 사서와 우리나라 사서에서는 666

위를 다투는 일은 하지 말라.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웃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유언하였다.

12월 갑술삭 을유(12일)에 광무종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 달에 담해국(淡海國; 아후미노쿠니)¹²⁰에서 보고하였다. “판전군(坂田郡; 사카타노코호리)¹²¹ 사

년설을 취하고 있다. 666년설을 취한 가장 오래된 사서는 『舊唐書』로, 本紀 高宗 乾封 원년(666) 6월 임인조에 처음 보인다. “(가)高麗莫離支蓋蘇文死, (나)其子男生繼其父位, (다)爲其弟男建所逐, (라)使其子獻誠詣闕請降, (마)詔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率兵以應接之.”라고 나와 있다. 이 기사 중에서 666년 6월 임인에 있었던 일은 (마)의 契苾何力으로 하여금 고구려로 가서 남생을 맞아들이도록 고종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 뿐이다. (가)-(라)의 기사는 계필하력을 고구려에 파견하게 된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新唐書』 건봉 원년 6월 임인조에서는 위의 내용 중에서 (가)는 보이지 않고, (나)-(라)는 “高麗泉男生請內附”라는 서술로 간단히 요약해 적고 있다. (마)는 “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遼東安撫大使, 率兵援之. 左金吾衛將軍龐同善, 營州都督高侃爲遼東道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 左監門衛將軍李謹行爲後援”이라고 자세히 적고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치통감』에서는 위의 기사를 둘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즉 건봉 원년 5월조에서 (가)-(라)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같은 해 6월조에서 (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적고 있다. 『자치통감』의 편찬자는 6월 임인에 계필하력을 고구려에 파견하게 된 사건의 원인을 따로 적기 위하여 그 전달에 (가)-(라)의 기사를 적어 넣었던 것이다. 설인귀가 빠진 대신 “以獻誠爲右武衛將軍, 使爲鄉導”라고 하여 현성을 길 안내역으로 삼았음을 적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5년조(666)의 내용도 거의 『자치통감』의 내용과 같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자치통감』을 참고로 하여 위의 기사를 만들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은 (가)-(라)가 어느 달에 있었던 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마)만을 같은 해 6월조에서 넣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가)-(라)의 사건이 당 고종이 계필하력을 파견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이상 연개소문 666년 사망설은 『구당서』의 기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66년 사망설은 어디까지나 666년 6월 당이 계필하력 등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도록 명령하게 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연개소문의 사망 시기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664년 10월에 연개소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그의 장자 남생이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막리지가 되었다.

120 近江國이다. 淡海國이라고 표기한 것은 『日本書紀』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121 琵琶湖 東岸지역이다.

람 소죽전사신(小竹田史身; 시노다노후비토무)¹²²이 산돼지를 기르는 물통 속에서 갑자기 벼가 났습니다. 사신은 그것을 수확하여 날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울태군(栗太郡; 쿠루모토노코호리)¹²³ 사람 반성촌주은(磐城村主殷; 이하키노스구리오호)의 신부의 방 한구석에서 하룻밤에 벼가 생겨나 이삭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삭이 늘어지면서 익었고, 다음날 밤에 다시 이삭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뜰에 나오자 두 개의 열쇠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를 신부가 집어 은(殷)에게 주었습니다. 은(殷)은 비로소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에 대마도(對馬島), 일기도(壹岐島), 축자국(筑紫國) 등에 방(防; 사키모리)¹²⁴과 봉화를 두었다. 또 축자(筑紫; 츠쿠시)에 큰 제방을 만들고 물을 담게 하였다. 이것을 수성(水城; 미즈키)이라 한다¹²⁵.

4년 봄 2월 계유삭 정유(25일)에 간인대후(間人大后; 하시히토노오호키사기)¹²⁶가 죽었다(薨). 이 달에 백제국 관위(官位)의 계급을 검토하였다¹²⁷. 좌평 복신(福信)의 공적에 의하여, 귀실집사(鬼室集斯)¹²⁸에게 소금하(小錦下)를 주었다[그

122 이곳에만 보인다.

123 琵琶湖南岸의 東部지역이다.

124 防人을 의미하며, 방인은 변경방비를 위해 징발된 병사다. 『日本書紀』에서는 大化 원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125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한 일련의 방어대책이다.

126 천지천황의 여동생이자 효덕천황의 황후이다.

127 百濟 부흥운동이 실패한 후 왜국에 망명한 百濟人에게 왜국의 관위를 주기 위해서였다.

128 天智 4년조(665)에 “佐平福信의 공 때문에 鬼室集斯에게 小錦下를 제수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佐平福信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660년 백제 멸망시 왜국에 사신을 보낸 佐平 鬼室福信이다. 그는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풍왕자와 갈등을 빚어 살해당한 비운의 인물이지만, 백제부흥운동기에 실질적으로 백제를 대표하여 왜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공에 의해 동족이 우대를 받았다면 귀실집사는 복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천지천황 2년(663) 9월에 백제에서 왜국으로 건너갔

전의 관위는 달솔이었다.], 또 백제 남녀 4백여 인을 근강국(近江國)의 신전군(神前郡; 카무사키노코호리)¹²⁹에 살게 하였다¹³⁰.

3월 계묘삭(1일)에 간인대후를 위하여 330인을 출가시켰다. 이 달에 신전군의 백제인에게 전(田)을 지급하였다.

가을 8월에 달솔 답발춘초(答林春初)¹³¹를 보내 장문국(長門國)¹³²에 성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달솔 억례복류(億禮福留)¹³³, 달솔 사비복부(四比福夫)¹³⁴를 축

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후손들이 平安시대 후기부터 鎌倉시대 후기에 걸쳐 세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묘비가 현재 滋賀縣 蒲生郡 日野町市 小野의 鬼室神社(西宮神社)에 남아 있다. 묘비는 윗부분이 삼각형 모양이고, 몸통은 팔각형이다. 윗부분과 몸통과의 사이에 2cm 가량의 홈이 파여 있다. 전체 높이 48cm, 한 면의 폭이 10cm 정도 된다. 비문의 내용은 “〈우〉朱鳥三年戊子十一月八日○. 〈정면〉鬼室集斯墓. 〈좌〉庶孫美成造.”라고 새겨져 있다. 해석하면 “〈우〉朱鳥 3년(688) 무자 11월 8일 ○. 〈정면〉귀실집사묘. 〈좌〉庶孫 美成이 만든다.”이다. 『日本書紀』와 『정창원문서』에 鬼室集信·虫麻呂·石次·乎人·小東人 등 후손들의 이름이 보인다.

129 현재 滋賀縣 동남부지역이다.

130 망명한 백제인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읍지 근강국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천지는 천지 천황 6년(667) 3월에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강국 대진경으로 천도하였다. 천지 천황 8년에는 좌평 여자신과 귀실집사 등 남녀 7백여 인을 근강국 포생군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포생군에는 백제인들이 세운 석탑사와 백제사가 남아 있다.

131 천지천황 2년(663) 9월에 백제에서 왜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지 10년 정월조에서는 병법 전문가로 대산하의 관위를 받는다.

132 현재 山口縣이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22년(561) 시세조에 의하면 이곳에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穴門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 조선식 산성을 쌓았다고 전하지만(長門城) 현재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식 산성이란 일본에서 한반도 산성의 축성형식에 따라 축성된 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 중에서 신라와 당의 공격에 대비해 망명백제인의 지휘하에 축성된 성을 백제식 산성이라고도 한다(부록 참조). 이러한 조선식 산성은 이후 일본의 축성기술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33 앞의 천지천황 2년(663) 9월 갑술조에서 의하면 백제부흥운동이 실패한 후 일본의 수군과 함께 백제에서 왜국으로 건너갔다. 천지천황 10년 정월조에서는 병법 전문가로서 대산하의 관위를 받고 있다.

134 천지천황 2년(663) 9월에 백제에서 왜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국에 보내 대야(大野; 오오노)¹³⁵ 및 연(椽; 키)¹³⁶의 두 성을 쌓게 하였다. 탐라(耽羅)가 사신을 보내 내조하였다¹³⁷.

9월 경오삭 임진(23일)에 당국(唐國)이 조산대부(朝散大夫) 혼주사마(沂州司馬) 상주국(上柱國) 유덕고(劉德高) 등을 보냈다¹³⁸[등이라 함은 우옹위랑장(右戎衛郎將)

135 현재 福岡縣 大宰府市 북쪽에 있는 四王寺山(해발 410m)에 축조된 조선식 산성이다. 대재부의 배후에서 그곳을 직접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치와 구조가 부여 왕궁 및 부소산성과 비슷하다. 전체 길이 8km이며 토담과 석벽으로 산의 정상부를 두르고 있다. 내부에는 식량, 무기 등을 보관하던 50여 군데의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한편 성벽둘레에 5.2km에 이르는 토루를 만들고 남고북저로 된 포곡식 축성형식은 전남 부안의 주류산성과 유사하다.

136 현재 佐賀縣 三養基郡 基山町에서 福岡縣 筑紫野市에 걸쳐 있는 基山과 坊中山에 축조된 조선식 산성이다. 『續日本紀』 문무천황 2년(698) 5월조에서는 「基肆城」으로 표기하였다. 자연석을 다듬어 수직으로 쌓아올린 성벽과 산의 능선을 따라 흙은 다져놓은 판축방식의 토루로 산을 에워싼 전형적인 백제식 산성이다. 현재 30여 군데의 건물 터가 남아 있다.

137 탐라는 제주도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멸망 이후 탐라는 661년부터 688년까지 왜국에 9번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를 탐라의 독자적인 외교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日本書紀』에서 항로를 짐작할 수 있는 661년과 673년, 675년의 탐라사신은 한반도 남부 연안을 거쳐 축자로 가는 항로를 취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그 항로에 면해있는 구백제령이나 신라의 지배세력이 탐라의 독자적인 사신 파견을 묵인하였을 리가 없다. 그런데 665년은 신라와 왜국의 교섭이 단절되었던 시기이므로, 이 탐라사신은 당의 백제진장이 파견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38 광무종이 황제가 보낸 사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왜국과 화의 교섭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돌아오자 665년 7월 당 고종은 朝散大夫 沂州司馬 上柱國 劉德高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藤氏家傳』 上卷, 貞慧傳에 의하면 이때 中臣連鎌足の 아들로 당에 유학하고 있었던 貞慧도 당의 사신 유덕고와 함께 백제로 건너가서 거기서 웅진도독부 광무종 등의 사신들과 함께 왜국으로 돌아갔다. 貞慧는 귀국한 후 병을 앓다가 그해 12월 23일 2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藤氏家傳』에서는 정혜가 백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지은 詩가 출중한 것을 질투한 百濟 土人이 그에게 毒을 먹였다고 한다. 정혜가 귀국 후 몇 달 되지 않아 병에 걸려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이는 665년 당시 웅진도독부의 백제인에 대해 왜국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상주국(上柱國) 백제네군(百濟禰軍)과 조산대부(朝散大夫) 주국(柱國) 곽무중(郭務崇)을 말한다. 모두 254인이었다. 7월 28일에 대마(對馬)에 왔고, 9월 20일에 축자(筑紫)에 왔다. 22일에 표함(表函)¹³⁹을 올렸다.].

겨울 10월 기해삭 기유(11일)에 성대하게 토도(菟道; 우지)¹⁴⁰에서 열병하였다.

11월 기사삭 신사(13일)에 유덕고 등에게 향응하였다¹⁴¹.

12월 무술삭 신해(14일)에 유덕고에게 물건을 주었다.

이 달에 유덕고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¹⁴².

이 해에 소금(小錦) 수군대석(守君大石; 모리노키미오호이하)¹⁴³ 등을 대당(大唐)에 보냈다. 운운(云云)[등이라 함은 소산(小山) 판합부련석적(板合部連石積; 사카히베노 무라지이하츠미)¹⁴⁴, 대을(大乙) 길사기미(吉士岐彌; 키시노키미)¹⁴⁵, 길사침간(吉士針間; 키시노하리마)¹⁴⁶을 말한다. 생각컨대 당(唐)의 사신을 배웅한 것인가¹⁴⁷.].

139 당 고종의 국서가 들어있는 함을 『일본서기』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음 해 태산에서 이루어지는 고종의 봉선의식에 왜국이 참가하기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왜국은 견당유학생이었던 경부련석적 등을 참가시키겠다고 하였을 것이다. 왜국이 고종의 봉선의식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왜국이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140 현재 京都府 宇治市 부근이다.

141 이때 향응하는 자리에 대우황자도 참가하였음은 『懷風藻』 大友皇子傳에서 唐使 유덕고가 대우황자를 보고 풍골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고 적고 있는 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142 유덕고의 파견으로 당과 왜국 사이에 국교가 성립하였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

143 앞의 천지천황 3년 2월조에 보인다.

144 앞의 일본서기 효덕천황 白雉 4년 5월에 견당 학생으로 당에 유학 갔다. 이후 천무천황 11년 3월에는 新字 44권을 만들었다.

145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146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147 『日本書紀』 편찬자는 이들이 당의 사신을 배웅하는 送使로 파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봄 정월 무진삭 무인(11일)에 고구려가 전부능루(前部能婁)들을 보내 조를 올렸다¹⁴⁸. 이 날 탐라가 왕자 고여(姑如)¹⁴⁹ 등을 보내 공헌하였다.

3월에 황태자가 친히 좌백자마려련(佐伯子麻呂連; 사해키노코마로노무라지)¹⁵⁰의 집에 가서 병문안을 하였다. 전부터 섬겨온 공을 칭찬하고 개탄하였다.

여름 6월 을미삭 무술(4일)에 고구려의 전부능루(前部能婁)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¹⁵¹.

가을 7월에 홍수가 있었다. 이 가을에 조세를 면제하였다.

겨울 10월 갑오삭 기미(26일)에 고구려가 신하 을상(乙相) 엄추(奄耆)¹⁵²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¹⁵³[대사신(大使臣) 을상 엄추, 부사(副使) 달상돈(達相通)¹⁵⁴, 2위(二

148 이 사신은 연개소문의 사후 권력을 장악한 맏아들 남생이 파견한 사신으로, 앞의 천지 3년 동10월조에 기술된 연개소문의 사망도 이때에 왜국에 알려졌다. 남생은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자신이 그의 뒤를 이었음을 왜국에 알리고, 연개소문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前部能婁 등을 왜국에 파견하였을 것이다. 또 당시 고구려에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인 扶餘豐이 있었으므로 부여풍의 소식도 왜국 조정에 전하였을 것이다.

149 『日本書紀』 천무천황 4년 9월조에서는 탐라왕으로 나오고 있다.

150 『日本書紀』 황국천황 4년 6월 을사의 쿠데타 때에 稚犬養連網田과 함께 蘇我入鹿을 베는 공을 세웠다.

151 그런데 前部能婁의 후예임을 칭하는 福當連씨가 9세기 초의 『新撰姓氏錄』 左京 諸蕃 高麗條에 보인다. 『續日本紀』 天平寶字 5年 3月 庚子條에 의하면 福當連씨는 761년에 前部高文信이 새로 사성받은 氏姓이다. 前部能婁가 고구려 멸망 후에 다시 왜국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고구려로 돌아가지 않고 왜국에 잔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왜국에 체재하던 시기인 666년 초 남생과 동생 남건, 남산 사이에 불화가 생겨 남생이 국내성으로 피신하였고, 666년 5월에는 남생의 아들 獻誠이 당에 가서 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다. 그가 666년 6월에 귀국하던 중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왜국에 체재하였을 것이다. 『續日本紀』에 前部를 칭하는 씨족들이 보이는데 前部能婁의 후손들은 8세기 중엽에 福當連씨를 사성받기 전에는 前部를 姓氏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2 여기에서만 보이는 인물이다.

153 666년 초 男建이 남생을 축출한 후에 왜국에 보낸 사신이다. 이들 사신은 남생의 축출 사실을 왜국에 알리지 않았던 듯하다. 전부능루 등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남건은 다시

位)¹⁵⁵ 현무약광(玄武若光)¹⁵⁶ 등.].

이 해 겨울에 경도(京都; 미야코)¹⁵⁷의 쥐들이 근강(近江)으로 옮겨갔다¹⁵⁸. 백제 남녀 2천여 인을 동국(東國)에 살게 하였다¹⁵⁹. 승속을 불문하고 계해(癸亥)의 해¹⁶⁰부터 3세에 이르기까지 관에서 식품을 주었다. 왜한사문지유(倭漢沙門智由; 아마토노아야노호후시치유)¹⁶¹가 지남차(指南車)를 바쳤다¹⁶².

엄추 등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위급함을 고하고 왜국 측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압추 등은 680년에 고구려로 돌아갈 때까지 왜국에 체재하면서 교섭을 벌였지만, 왜국은 고구려를 지원할 생각도 여력도 없었다.

154 여기에만 보인다.

155 원래 2품이었던 것을 『日本書紀』 편찬자가 2위로 고친 것이다.

156 玄武는 北, 黑을 가리키므로 고구려의 5부 중에서 북부(절노부, 후부, 흑부)라는 뜻이다. 약광은 일본에 남아 685년 천무천황에게 작위를 받고 703년에는 문무천황으로부터 ‘高麗王’이라는 씨성을 받게 되었다. 절노부는 왕비를 배출하는 부였으므로 약광은 고구려의 왕족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을 전후하여 일본열도에 이주한 고구려 유민 중에 가장 고위 출신이었으므로 고구려계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사람으로 선택되어 ‘고려왕’이라는 씨성을 주었고, 약광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716년 武藏國에 高麗郡을 세웠다.

157 飛鳥를 가리킨다.

158 이와 같은 표현은 『日本書紀』 白雉 5년 정월조와 12월조에도 보인다. 그때는 難波長柄 豐崎宮의 효덕천황에게 중대형황자가 飛鳥로 천도할 것을 강요하다가 효덕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관료들을 이끌고 비조로 천도하였다. 홀로 남은 효덕은 그 다음해 쓸쓸히 사망하였다. 지배층의 함의를 인지 못한 천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59 고대 東國의 지리적 경계는 일정하지 않다. 伊勢國의 鈴鹿關, 美濃國의 不破關, 近江國의 逢坂關 以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東海道(駿河와 相摸 경계의 동쪽)와 東山道(신농과 상야 경계의 동쪽)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665년에 近江에는 백제남녀 4백 명이 이주해 살고 있었는데, 천지조정은 다음해 近江으로 천도하기 전에 그 준비를 위해 백제 망명인들을 東國으로 보낸 것이므로, 近江에 가까운 곳일 것이다. 즉 백제 망명인들을 중심으로 국내체제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160 州柔城이 함락된 663년이다.

161 왜한씨 출신의 사문이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서는 沙門 智躰라고 표기하

6년 봄 2월 임진삭 무오(27일)에 천풍재중일족희천황¹⁶³과 간인황녀를 소시강상릉(小市岡上陵; 오치노오카노우헤노미사자키)¹⁶⁴에 합장하였다. 이 날 황손(皇孫) 대전황녀(大田皇女; 오호타노히메미코)¹⁶⁵를 능 앞의 묘에 장사지냈다.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¹⁶⁶인이 다 대로에서 곡을 하였다. 황태자가 군신에게 “나는 황태후천황(皇太后天皇)¹⁶⁷이 칙하신 바를 받든 후부터 만민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겨 석곽(石槨)의 역(役)¹⁶⁸을 일으키지 않았다. 원컨대 영원히 귀감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3월 신유삭 기묘(19일)에 도읍을 근강(近江; 아후미)¹⁶⁹으로 옮겼다. 이때 천하의 백성이 천도를 원하지 않아 풍자하며 간하는 자가 많았다¹⁷⁰. 동요(童謠; 와자우타)¹⁷¹ 또한 많았다. 밤낮으로 많은 불이 났다¹⁷².

였다.

162 齊明天皇 4년 시세조에서 沙門 智鑑가 지남차를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지남차는 자석을 붙여 항상 남북을 가리키도록 만든 수레이다.

163 齊明天皇을 가리킨다.

164 제명천황릉을 가리킨다. 『능묘요람』에서는 奈良縣 高市郡 高取町 大字 車木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지정된 이 능의 분형은 알 수 없다.

165 천지황녀로 대해인황자의 妃이다.

166 당시 대화지방에 있던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을 가리킨다.

167 齊明天皇을 가리킨다.

168 황혈식석실 분묘의 조영을 말한다.

169 近江 大津宮을 가리킨다. 천황이 새로 즉위하면 궁을 옮기는 것이 왜국의 관행이었다. 천지천황은 칭제한 후 7년 동안이나 즉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새로 궁을 옮기지도 않았으나, 비로소 다음해 즉위하기로 결정하고 이때 새로 궁을 옮긴 것이다. 근강궁 대전궁은 신라나 당의 수군의 공격을 받기 쉬운 難波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東國, 北陸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근강 천도는 긴장하는 국제정세에 방어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越前, 若狹에 가까운 곳이므로 고구려와 외교 루트를 확보하기에도 좋았다. 근강으로 도읍을 옮긴 667년부터 672년 임신의 난으로 대우황자가 멸망할 때까지의 왜국조정을 近江朝라고 부른다.

170 대화의 귀족 세력은 천도에 반대하였을 것이다.

6월에 갈야군(葛野郡; 카도노노코호리)¹⁷³에서 흰 제비¹⁷⁴를 바쳤다.

가을 7월 기미삭 기사(11일)에 탐라가 좌평 연마(椽磨)들을 보내 공헌하였다¹⁷⁵.

8월에 황태자가 왜(倭)의 경(京)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의 대형(大兄) 남생(男生)¹⁷⁶이 성 밖으로 나가 나라 안을 돌아보았다. 이때 성 안의 두 아우¹⁷⁷가 측근의 사대부들의 꾀를 듣고서, 남생을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 때문에 남생은 대당(大唐)에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모의하였다¹⁷⁸.

11월 정사삭 을축(9일)에 백제진장(百濟鎭將) 유인원(劉仁願)이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웅산현령(熊山縣令) 상주국(上柱國) 사마(司馬)¹⁷⁹ 법총(法聰)¹⁸⁰들을 보

171 사람들의 일을 풍자하고 異變의 前兆 등을 몰래 읊은 노래이다.

172 이와 비슷한 예가 『속임본기』 天平 14년(745) 4월조에도 보인다. 紫香樂宮 주변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는 성무천황이 紫香樂宮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시위였다고 한다. 당시 정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궁전에 방화하는 풍습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3 지금의 京都 분지 일대이다.

174 흰 제비는 상서로운 동물로, 천지조정의 천도를 지지하는 상징물로 바쳐진 것이다.

175 연마가 좌평의 관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웅진도독부에 복속한 탐라는 백제의 관위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6 淵蓋蘇文의 장자이다.

177 男建과 男産을 가리킨다.

178 남생이 축출된 후 당에 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내용은 665년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667년 11월 筑紫都督府에 도착한 境部連 石積이 왜국에 전하였을 것이다. 백제진장 유인원은 웅진도독부 웅산현령 상주국 사마 법총을 파견하여 境部連石積을 왜국으로 돌려보내 주면서 남생에 관한 소식을 왜국에 전한 것이다. 백제진장 유인원이 이러한 소식을 왜국에 전한 이유는 왜국이 고구려에 원병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지배층이 분열하여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남생조차 고구려의 멸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왜국에서 알게 된다면 고구려에 원병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다.

179 司馬는 州의 刺史 밑의 무관의 우두머리로, 上州의 경우에는 종5품하의 관이었다.

내, 대산하(大山下) 경부련석적(境部連石積)들을 축자도독부(筑紫都督府; 츠크시노 오호미토코모치노츠크사)¹⁸¹로 돌려보냈다.

기사(13일)에 사마(司馬) 법총(法聰)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소산하(小山下) 이길련박덕(伊吉連博德; 이키노무라지하카토코)¹⁸², 대을하(大乙下) 입신제석(笠臣諸石; 카사노오미모로이하)¹⁸³을 송사로 삼았다.

이 달에 왜국(倭國; 야마토노쿠니)의 고안성(高安城; 타카야스노키)¹⁸⁴, 찬길국(讚吉國; 사누키노쿠니)¹⁸⁵ 산전군(山田郡; 야마다노코호리)¹⁸⁶의 옥도성(屋島城; 야시마노키)¹⁸⁷, 대마국(對馬國; 츠시마노쿠니)의 금전성(金田城; 카나타노키)¹⁸⁸을 쌓

180 과거 백제관인으로 웅진도독부의 司馬가 되었다. 뒤에 신라에 억류되었다가 672년 문무왕이 당에 석명을 위한 사신을 파견할 때에 석방되었다.

181 筑紫都督府라는 용어는 筑紫大宰의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64년(天智 3)에 해당하는 『善隣國寶記』에 인용된 「海外國記」에는 ‘日本鎮西築紫大將軍’으로 나온다.

182 이길련박덕은 제명천황 5년(659)에 건당사 판합부석포를 따라 당에 갔다가 제명 7년 귀국하였다. 천지천황 3년(664) 9월에 당의 사신을 접대하였고, 백제진장이 보낸 사마 법총의 送使로 구 백제령으로 갔다가 다음해 1월 돌아왔다. 지통천황 9년(695)에는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 천지대의 근강령 편찬과 그 후의 대보율령 편찬에도 간여하였다.

183 여기에만 보인다.

184 대화국과 하내국의 국경에 있는 표고 488m의 高安山 정상 부근에 쌓은 성이다. 1978년에 발굴 조사하였지만, 奈良시대 전기의 유적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천지, 천무조의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672년 임신의 난 때에는 大海人皇子(천무천황) 측이 이 성을 점령하였다.

185 울령제의 讚岐國을 가리킨다.

186 현재 香川縣 高松市の 동부이다.

187 옥도는 현재 香川縣 高松市 동북부의 바다로 반도처럼 튀어나온 대지다. 그 중앙부 서쪽 표고 100m 지점에 길이 45m의 석루와 水門 유적이 있다.

188 현재 長崎縣 對馬이다. 下縣郡 美津島町の 표고 275m의 城山에 쌓은 산성이다. 구주의 대야성, 연성과 마찬가지로 백제식 산성이다. 왜국에 망명한 백제인의 기술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았다¹⁸⁹.

윤11월 정해삭 정유(11일)에 금(錦) 14필, 힐(纈)¹⁹⁰ 19필, 비(緋)¹⁹¹ 24필, 감포(紺布)¹⁹² 24단(端), 도염포(桃染布)¹⁹³ 58단(端), 부(斧) 26매, 자귀(鈐) 64매, 도자(刀子) 62매를 연마(緣磨)¹⁹⁴들에게 주었다.

7년 봄 정월 병술삭 무자(3일)에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어떤 책(或本)에는 6년 세차(歲次) 정묘 3월에 즉위하였다고 적고 있다.]. 임진(7일)에 군신과 내전에 게 연회하였다. 무신(23일)에 송사 박덕(博德) 등이 복명하였다¹⁹⁵.

2월 병진삭 무인(23일)에 고인대형황자(古人大兄皇子; 후루히토노노오호에노미코)¹⁹⁶의 딸 왜희왕(倭姬王; 야마토노히메오호키미)을 황후로 삼았다. 그리고 4인의 빈(嬪)을 두었다. 소아산전석천마려대신(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 소가노야마다 노이시카하노마로노오호마헤츠키미)¹⁹⁷의 딸은 원지낭(遠智娘; 오치노이라츠메)¹⁹⁸이라고 하는데[어떤 책(或本)에는 미농진자랑(美濃津子娘; 미노츠코노이라츠메)이라 하였

189 667년 11월에 境部連石纈 등의 정보로 고구려의 내분 상황과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여파가 고구려의 동맹국인 왜국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여 방어시설을 강화한 것이다.

190 흘치기 염색한 비단을 말한다.

191 붉은 비단이다.

192 감물색으로 염색한 포이다.

193 紅花로 염색한 연분홍색 포이다. 令制에서는 衛士, 兵士들의 복색이었다.

194 천지천황 6년 7월에 탐라에서 파견되었다.

195 이때 고구려의 멸망이 가깝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196 서명천황이 大臣 蘇我馬子の 딸 法提郎媛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천지천황의 이복형제이다.

197 大臣 蘇我馬子の 손자이고 蘇我入鹿의 종형제이다.

198 『日本書紀』 大化 5년 3월 是月조에서는 황태자비 蘇我造媛(소가노미야츠코히메)으로 표기되었다.

다.] 1남 2녀를 낳았다. 첫째는 대전황녀(大田皇女; 오호타노히메미코)이다. 둘째는 노야황녀(鷗野皇女; 우노노히메미코)¹⁹⁹인데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²⁰⁰에서 천하를 다스리다가 뒤에 궁을 등원(藤原; 후지하라)으로 옮겼다²⁰¹. 셋째는 건황자(建皇子; 타케루노미코)²⁰²인데 병어리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어떤 책(或本)에서는 원지낭이 1남 2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건황자(建皇子)이며 둘째는 대전황녀(大田皇女), 셋째는 노야황녀(鷗野皇女)라고 말하였다. 어떤 책(或本)에서는 소야산전마려대신(蘇我山田麻呂大臣)의 딸은 모정랑(茅渟娘; 치누노이라츠메)²⁰³인데 대전황녀(大田皇女)와 사라라황녀(娑羅羅皇女)²⁰⁴를 낳았다고 말하였다.]. 다음에 원지낭(遠智娘)의 누이동생 질낭(姪娘; 메이노이라츠메)이 있는데, 어명부황녀(御名部皇女; 미나베노히메미코)²⁰⁵와 아배황녀(阿陪皇女; 아헤노히메미코)²⁰⁶를 낳았다. 아배황녀(阿陪皇女)는 등원궁(藤原宮)에서 천하를 다스리다가 뒤에 도음을 내락(乃樂; 나라)²⁰⁷으로 옮겼다[어떤 책(或本)에서는 姪娘을 앵정랑(櫻井娘; 사쿠라위노이라츠메)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아배창제마려대신(阿倍倉梯麻呂大臣; 아헤노쿠라하시마

199 天武天皇의 皇后, 持統天皇이다. 鷗野는 『日本書紀』 23년 추7월 기사삭조에 보이는 河內國 更荒郡의 鷗鷺野邑(우노노사토)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200 천무천황 원년에 새로 옮긴 궁으로 천무천황과 지통천황이 등원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 궁에서 거주하였다. 비조정어원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주조 원년 7월이다.

201 지통천황 4년부터 이 궁을 만들기 시작하여 지통천황 8년 12월에 완성하였다. 710년 平城京으로 천도할 때까지 이 궁에서 지통, 문무, 원명천황이 거주하였다.

202 백치 2년에 태어나 제명천황 4년에 8살로 죽었다.

203 원지낭의 별명인지 확실하지 않다.

204 지통즉위전기에 鷗野讚良皇女(우노노사라라노히메미코)라고 적고 있다. 讚良(사라라)은 娑羅羅(사라라)와 같은 음을 표기한 것으로 河內國 更荒郡(사라라노코호리)을 가리키는 말이다.

205 高市皇子妃였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慶雲 원년(704)에 봉호 1백 호를 추가해서 받았고, 『萬葉集』 77번가의 작자다.

206 草壁皇子妃로 뒤에 元明天皇이 되었다.

207 平城京을 가리킨다.

로노오호마헤츠키미)²⁰⁸의 딸 굴낭(橘娘; 타치바나노이라츠메)²⁰⁹이 있는데 비조황녀(飛鳥皇女; 아스카노히메미코)²¹⁰와 신전부황녀(新田部皇女; 니히타베노히메미코)²¹¹를 낳았다. 다음은 소아적형대신(蘇我赤兄大臣; 소가노아카에노오호마헤츠키미)²¹²의 딸 상륙낭(常陸娘; 히타치노이라츠메)²¹³이 있는데, 산변황녀(山邊皇女; 야마노헤노히메미코)²¹⁴를 낳았다. 또 궁인(宮人; 메시오미나)²¹⁵ 중 아들 딸을 낳은 자가 4인이 있다. 인해조소룡(忍海造小龍; 오시누미노미야츠코오타츠)²¹⁶의 딸 색부고낭(色夫古娘; 시코부코노이라츠메)²¹⁷이 있는데, 1남 2녀를 낳았다. 첫째는 대강황녀(大江皇女; 오오에노히메미코)²¹⁸, 둘째는 천도황자(川嶋皇子; 카하시마노미코)²¹⁹, 셋째는 천황녀(泉皇女; 이즈미노히메미코)²²⁰이다. 또 울의수덕만(粟隈首德萬; 쿠루

208 『公卿補任』에는 좌대신 阿倍倉橋로 표기되었다. 大化 5년(649) 3월에 사망하였다.

209 천무천황 10년 2월에 죽는다.

210 문무천황 4년 4월에 죽는다. 『萬葉集』 196번가는 柿本人麻呂가 그녀의 殯宮 때에 지은挽歌다.

211 천무천황비이다. 문무천황 3년에 죽는다.

212 천지조의 重臣이다. 蘇我馬子の 아들 雄當의 아들로 추측되고 있다. 딸을 중대형황자(천지천황)와 대해인황자(천무천황)에게 시집보내고 筑紫率을 거쳐 천지 10년 정월에 좌대신이 된다. 대우황자 즉의 고관으로 672년 임신의 난 후 유배되었다.

213 생물년 미상이다.

214 천무천황의 아들 大津皇子의 妃로 천무천황 사후 대진황자가 모반의 혐의를 입고 자살하였을 때 殉死하였다.

215 養老令 後宮職員令에서는 後宮 12司의 女官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천황을 모시는 후궁의 여성 직원 중 지방호족 출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16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忍海造는 雜工의 品部인 忍海部를 관할하는 반조다.

217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218 천무천황비로서 문무 3년 사망하였다.

219 제명 3년에 태어나 지통 5년 9월에 사망하였다. 천무 10년 3월에 忍壁皇子 등과 함께 帝紀와 上古諸事を 記定하였다. 『萬葉集』에 그 이름이 보인다.

220 대보 원년부터 4년간 伊勢齋宮으로 있었다. 천평 6년에 사망하였다.

쿠마노오비토토크마로)²²¹의 딸 흑원낭(黑媛娘; 쿠로히메노이라츠메)²²²이 있는데 수주황녀(水主皇女; 모히토리노히메미코)²²³를 낳았다. 또 월도군이라도매(越道君伊羅都賣; 코시노미치노키미이라츠메)²²⁴가 있는데 시기황자(施基皇子; 시키노미코)²²⁵를 낳았다. 또 이하채녀택자낭(伊賀采女宅子娘; 이가노우네메야카코노이라츠메)²²⁶이 있어 이하황자(伊賀皇子; 이가노미코)를 낳았는데, 뒤에 이름을 대우황자(大友皇子; 오호토모노미코)²²⁷라고 하였다.

여름 4월 을묘삭 경신(6일)에 백제²²⁸가 말도사부(末都師父)²²⁹들을 보내 조(調)를 바쳤다. 경오(16일)에 말도사부(末都師父)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²³⁰.

5월 5일에 천황이 포생야(蒲生野; 카마후노)²³¹에서 유렵하였다. 그때에 대황제(大皇弟)²³² 제왕(諸王; 오호키미타치)²³³ 내신(內臣; 우치즈마헤츠키미)²³⁴ 및 군신

221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올외수는 산성국 久世郡 栗隈를 본거지로 하는 씨족이다.

222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采女일 것이다.

223 천평 9년 8월에 사망한다.

224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采女일 것이다.

225 광인천황의 아버지로 春日天皇으로 추존되었다. 靈龜 2년 8월에 사망하였다. 『만엽집』에 시가 보이는 저명한 歌人이다.

226 伊賀國 출신의 采女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伊賀의 國造는 伊賀臣이었는데,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을 사성받았다.

227 弘文天皇이다.

228 백제고지에 설치한 熊津都督府이다.

229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230 웅진도독부에서 파견한 말도사부가 10일 만에 돌아가는 점으로 볼 때 筑紫에서 대응하였을 것이다. 매우 긴급한 일 때문에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으니 왜국은 고구려를 원조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기 위한 사신이었을 것이다.

231 근강국 蒲生郡의 原野로, 천황 소유지이다.

232 大海人皇子이다.

233 王은 천황부터 계산하여 2세 이하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234 中臣鎌足を 가리킨다.

이 모두 따라갔다.

6월에 이세왕(伊勢王; 이세노오호키미)²³⁵과 그 제왕(弟王)이 연이어 죽었다(薨)[관위는 잘 알 수 없다.].

가을 7월에 고구려(高麗)는 월로(越路; 코시로미치)²³⁶로 사신을 보내 조(調)를 바쳤다²³⁷. 풍량이 높았기 때문에 (사신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 울전왕(栗前王; 쿠루쿠마노오호키미)²³⁸을 축자술(筑紫率; 츠쿠시노카미)에 임명하였다²³⁹. 이때 근강국(近江國)에서 전술을 배우고, 또 많은 목장을 두어 말을 방목하였다. 또 월국(越國; 코시노쿠니)에서 불타는 흙과 불타는 물을 바쳤다²⁴⁰. 또 빈대(濱臺; 하마노우테나)²⁴¹의 아래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수면 가득히 떴다. 또 하이(蝦夷; 에미시)에게 향응하였다. 또 사인(舍人; 토네리)들에 명하여 연회를 곳곳에서 열었다. 사람들이 “천황, ‘천명장급(天命將及)’인가²⁴².”라고 말하였다.

가을 9월 임오삭 계사(12일)에 신라가 사탁(沙喙) 급찬(級飡) 김동엄(金東嚴)들을 보내 조(調)를 올렸다²⁴³. 정미(26일)에 중신내신(中臣內臣; 나카토미노우치즈

235 『日本書紀』 제명기 7년 6월조에도 같은 薨去기사가 보인다. 중복되어 실린 것이다.

236 北陸연안이다.

237 이 해 9월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은 함락당하여 멸망한다.

238 『新撰姓氏錄』 좌경 황벌 橘朝臣조에서 敏達天皇의 아들 難波황자의 아들로 「贈從二位 栗隈王」이 보인다. 橘諸兄의 조부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672년 임신의 난 때 筑紫大宰로 近江 측의 군사동원명령을 거부하였다. 천무천황 5년 6월에 사망하였다.

239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6월조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인다. 중복되게 실린 것이다. 축자술은 뒤의 律令制의 大宰府 장관 大宰帥에 해당한다. 추고천황 17년 4월조에 筑紫大宰가 보인다.

240 울령제의 越後國은 석탄과 석유의 산지였다.

241 琵琶湖에 면하여 지은 전각이다.

242 ‘천명장급’은 중국에서 王朝交替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천지조가 끝나는가?’라는 뜻이다.

243 656년에 사신을 파견한지 12년 만에 신라가 전쟁 상대국이었던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김동엄은 양국 간의 국교를 제의하는 한편 왜국이 고구려를 원조하지 못하도록 견제

마해노키미)²⁴⁴이 사문(沙門) 법번(法辨; 호후벤)²⁴⁵과 진필(秦筆; 진히치)²⁴⁶을 보내 신라의 상신(上臣) 대각간(大角干) 유신(庾信)에게 배 한 척을 사여하고, 동엄(東嚴) 등에게 딸려 보냈다²⁴⁷. 경술(29일)에 포세신이마려(布勢臣耳麻呂; 후세노오미 미미마로)²⁴⁸를 사신으로 하여 신라왕에게 공물을 보내는 배 한 척을 선사하여, 동엄(東嚴) 등에게 딸려 보냈다.

겨울 10월에 대당(大唐)의 대장군(大將軍) 영공(英公)²⁴⁹이 고구려를 쳐 멸망시켰다. 고구려의 중모왕(仲牟王)²⁵⁰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에 천세(千歲) 동안 다스리려고 하였다. 모부인(母夫人)²⁵¹은 “나라를 잘 다스리더라도 불가능하다. 7백 년이 적당하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나라를 잃은 것은 그로부터 7백 년 후의 일이었다²⁵².

11월 신사삭(1일)에 신라왕에게 비단 50필, 솜 5백 근, 무두질한 가죽²⁵³

하였을 것이다. 이 사신은 11월 초까지 왜국에 체재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신라가 일본과 손을 잡고 당과 대항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244 中臣鎌足이다.

245 이곳에만 보인다.

246 이곳에만 보인다.

247 왜국의 이 사신 파견은 신라의 수교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248 『속일본기』 대보 2년 정월조에 정5위상 섭진대부로 나오고 있다. 포세신은 아베씨의 주류였다.

249 英國公 李勣이다.

250 鄒牟王을 가리킨다.

251 柳花夫人을 가리킨다.

252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는 글에서 고구려의 역사가 8백 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였고,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2월조에서는 시어사가 언충이 고종에게 高句麗秘記에 고구려가 “9백 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고씨가 한대부터 나라를 세워 지금 9백 년이 되었고 이 적의 나이가 80이라고 하였다.

253 무두질한 가죽은 갑옷, 투구, 마구, 북 등 군수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

1백 매를 주어 김동엄(金東嚴)에게 팔려 보냈다. 그리고 동엄들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가 있었다. 을유(5일)에 소산하(小山下) 도수신마려(道守臣麻呂; 치모리노오미마료)²⁵⁴와 길사소유(吉士小鮪)를 신라에 보냈다. 이 날에 김동엄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 해에 사문(沙門) 도행(道行; 다우가우)²⁵⁵이 초난검(草薙劍; 쿠사나기노츠루기)²⁵⁶을 훔쳐 신라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중도에서 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돌아왔다.

8년 봄 정월 경진삭 무자(9일)에 소아적형신(蘇我赤兄臣)을 축자술(筑紫率)에 임명하였다.

3월 기묘삭 기축(11일)에 탐라가 세자 구마기(久麻伎)²⁵⁷들을 보내 조를 바쳤다. 병신(18일)에 탐라왕에게 오품의 종자를 주었다. 이 날 왕자 구마기들이 귀국하였다²⁵⁸.

여름 5월 무인삭 임오(5일)에 천황이 산과야(山科野; 야마시나노노)²⁵⁹에서 사냥하였다. 대황제(大皇弟)²⁶⁰,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²⁶¹ 및 군신이 모두 다 따라

254 『播磨國風土記』에 近江天皇(天智)대의 國宰 道守臣이 보인다. 『新撰姓氏錄』에서는 波多矢代宿禰의 후손으로 나온다. 『古事記』開化記에서는 建豐波豆羅和氣王을 조상으로 놓고 있다.

255 『古語拾遺』와 『熱田神宮緣起』에서는 ‘新羅沙門道行’으로 나오고 있다.

256 八咫鏡, 八坂瓊曲玉과 함께 삼종의神器로 알려져 있다. 7세기 이후 이들을 보유해야만 천황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57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무 2년 윤6월, 천무 4년 8월에도 왜국으로 파견되고 있다.

258 탐라의 사신이 7일 만에 돌아가는 점에서 筑紫에서 대응하였을 것이다.

259 山城國 宇治郡 山科郷(현재 京都市 山科區 山科)의 原野이다.

260 大海人皇子이다.

261 藤原鎌足이다.

갔다.

가을 8월 정미삭 기유(3일)에 천황이 고안령(高安嶺; 타카야스노미네)²⁶²에 올라 성을 쌓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피곤하리라고 생각하여 중지하였다. 사람들이 감탄하여 “정말 인애(仁愛)의 덕이 풍부하시구나.”라고 말하였다. 운운(云云).

이 가을에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의 집에 벼락이 떨어졌다.

9월 정축삭 정해(11일)에 신라가 사찬(沙漉) 독유(督儒)들을 보내 조(調)를 올렸다²⁶³.

겨울 10월 병오삭 을묘(10일)에 천황이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의 집에 가서 친히 문병하였다. 등원내대신은 매우 쇠약하였다. 이에 천황이 “천도(川嶋)는 인(仁)을 돕는다는 말이 어찌 허설(虛說)이겠소.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 하였으니 어찌 그 징조가 없겠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라고 말하였다. 등원내대신이 “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더 아뢴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장사는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군국(軍國)²⁶⁴에 도움이 안 되었는데, 죽어서 어찌 감히 거듭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운운(云云).”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현인(賢人)이 들고는 “이 한 마디는 옛날 현철의 명언에 비길 만하다. 어찌 대수장군(大樹將軍)²⁶⁵이 상을 사양하였다는 것에 비견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감탄하였다. 경신(15일)에 천황이

262 高安山을 가리킨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지천황 6년 12월에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263 독유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라가 김동엄을 파견한지 1년도 안 되어 다시 사신을 파견한 것은 김동엄 귀국 편에 보낸 배와 선물에 대해 신라 측이 호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64 軍事を 가리킨다.

265 後漢의 馮異이다.

동궁대황제(東宮大皇帝)²⁶⁶를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의 집에 보내, 대직관(大織冠)²⁶⁷과 대신(大臣)의 직위를 주었다. 또 성(姓)을 주어 등원씨(藤原氏; 후지하라노우지)라 하였다. 이후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이라고 불렸다.

신유(16일)에 등원내대신(藤原内大臣)이 죽었다(薨)[일본세기(日本世紀)²⁶⁸에 말하였다. “내대신은 춘추 50에 사제에서 죽었다(薨). 산남으로 옮겨 빈소를 만들었다. 하늘은 어찌하여 억지로라도 이 노인을 남겨 놓지 않았는가? 아아, 슬프다. 비(碑)에 「춘추오십유육이홍(春秋五十有六而薨).」이라고 적고 있다.].

갑자(19일)에 천황이 등원내대신의 집에 행차하였다. 대금상(大錦上) 소아적형(蘇我赤兄)에게 명하여 은혜로운 조서를 내리고 금 향로를 하사하였다.

12월에 대장(大藏; 오후쿠라)²⁶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겨울에 고안성(高安城)을 쌓아, 기내(畿内)의 전세(田稅; 타치카라)²⁷⁰를 거두어 들였다. 반구사(班鳩寺; 이카루가데라)²⁷¹에 화재가 있었다.

이 해에 소금중(小錦中) 하내직경(河内直鯨; 카후치노아타히쿠지라)²⁷²들을 보내 대당(大唐)에 사하였다²⁷³. 또 좌평(佐平) 여자신(餘自信)²⁷⁴, 좌평(佐平) 귀실집사

266 大海人皇子이다.

267 26階 冠位 중에 제1위이다.

268 고구려 승려 道顯이 쓴 편년체 역사서로, 제명, 천지조의 격동기의 한반도 삼국과 일본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日本書紀』 편찬에 사용된 기본적 사료다.

269 近江宮의 大藏官이 관리하는 大藏이다. 뒤에 천지 10년 11월에도 화재가 발생한다.

270 水田에서 수확한 稻에 대해 공납을 부과한 것은 田租라고 하고, 이를 축적한 것을 稅라고 한다.

271 法隆寺이다. 범륜사 화재 사건은 『日本書紀』 천지천황 9년 5월조에도 보인다.

272 이곳에만 보인다. 河内直씨는 『新撰姓氏錄』에서는 백제 都慕王의 후손을 칭하고 있다. 都慕王은 고구려의 주몽왕이므로 그는 고구려왕의 후손이기도 하다.

273 河内直鯨 등이 당에 파견된 것은 단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백제부흥운동을 돕기 위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였을 때에 당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당으로 끌려간 왜국 병사들을 송환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鬼室集斯)²⁷⁵ 등 남녀 7백여 인을 근강국(近江國) 포생군(蒲生郡)²⁷⁶에 옮겨 살게 하였다. 또 대당(大唐)이 곽무중(郭務棕) 등 2천여 인을 보냈다²⁷⁷.

9년 봄 정월 을해삭 신사(7일)에 사대부들에게 조서를 내려 궁문 안에서 대사회(大射會)²⁷⁸를 열었다. 무자(14일)에 조정에서 예의와 행로에서 서로 피하는 예(禮)²⁷⁹를 선포하였다. 또 무고와 유언비어를 엄금하였다.

2월에 호적을 만들었다²⁸⁰. 그리고 도적과 부랑을 단속하였다. 그때에 천황이 포생군(蒲生郡)의 궤책야(厓漕野; 히사노노)²⁸¹에 가서 궁지(宮地)를 살펴보았다. 또 고안성(高安城)을 수리하여 나락과 소금을 쌓아 두었다. 그리고 장문(長門)에 성 하나, 축자(築紫)에 성 둘을 쌓았다.

3월 갑술삭 임오(9일)에 산어정(山御井; 야마노미위)²⁸²의 곁에 제신(諸神)의 좌를 설치하고 폐백을 바쳤다. 중신금련(中臣金連; 나카토미노카네노무라지)²⁸³이 축

크다. 河內直鯨은 당에 남아서 포로송환을 성사시켰다. 그 결과 671년 11월 초 당의 사신 곽무중 등 6백 인과 送使 沙宅孫登 등 1천4백 인, 모두 2천여 명이 47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일본으로 향하였다.

274 『日本書紀』 천지천황 2년 9월조 참조.

275 『日本書紀』 천지천황 4년 2월조 참조.

276 현재 滋賀縣 동남부이다. 앞의 天智 4년 2월조에 보이는 近江國 神前郡의 서남쪽이다.

277 뒤의 天智천황 10년 11월조에도 같은 기사가 보인다.

278 정월에 大射會를 연 것은 『日本書紀』에서 효덕천황대인 大化 3년 정월에 처음 보인다. 양로령에서도 정월 중순에 친왕 이하 초위 이상의 관인들이 모여 거행한 大射 행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대사회가 조정의 연중행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279 천인이 귀인을 피하고, 젊은이가 노인을 피하는 것이다.

280 일본 최초의 전국적인 호적인 庚午年籍을 가리킨다. 이후의 淨御原令, 大寶令, 養老令에서는 호적은 6년마다 작성되어 30년 후에 폐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오년적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호적이었으므로, 영구히 보존하도록 대보령에서 규정하였다.

281 현재 滋賀縣 蒲生郡 蒲生町, 日野町 일대이다.

282 현재 滋賀縣 大津市 園城寺町の 三井寺金堂 옆이다.

사(祝詞; 노리토)를 읊었다²⁸⁴.

여름 4월 계묘삭 임신(30일)에 한밤중에 법룡사(法隆寺; 호후리우지)에서 화재가 있었다²⁸⁵. 한 집도 남김없이 다 탔다. 큰 비가 오고 번개가 쳤다.

5월에 동요가 있었다.

타교(打橋; 우치하시)²⁸⁶의 집락(集樂; 츠메)²⁸⁷의 놀이²⁸⁸에 나오세요. 아가씨, 옥수(玉手; 타마테) 가(家; 이에)의 팔중자(八重子; 야헤코) 도자(刀自; 토지)²⁸⁹여, 나오셔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오세요. 아가씨. 옥수 가의 팔중자 도자여.

6월에 음중(邑中)에서 거북을 잡았다. 등에 신(申)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위는 노랑고 아래는 검었다²⁹⁰. 길이는 6치쯤이었다.

가을 9월 신미삭(1일)에 아담련협수(阿曇連懸垂; 아즈미노무라지츠라타리)²⁹¹를

283 藤原鎌足の 종형제로,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정월조에 우대신이 된다. 『日本書紀』 천무원년조에서 임신의 난 후 근강조정 측의 요인으로 사형당하였다.

284 조정의 제사에서 중신씨는 祝詞, 즉 축문을 읽었다.

285 1887년부터 법룡사 재건, 비재건 논쟁이 일어났으나, 1939년 若草가람 발굴 결과 사천왕사식 가람 배치의 탑과 금당이 소실된 후, 寺址를 복서로 옮겨 금당과 탑을 동서로 배치하는 법룡사식 가람 배치의 西院을 재건한 것이 입증되었다. 재건의 상한은 천무, 지통조설, 하한은 화동 4년설(711)이 있다.

286 임시로 가설한 다리이다.

287 가장자리를 말한다.

288 歌垣 놀이를 말한다.

289 刀自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말로, 경애하는 의미로 여성을 부르는 말이다.

290 申자는 日을 관통한 모습이다. 위는 노랑고 아래는 검다(上黃下玄)는 것은 天玄地黃의 반대로 하늘과 땅이 뒤집혀졌다. 다음해 발발하는 壬申의 난의 복선으로 서술되고 있다.

291 외교관료로 『日本書紀』 齊明天皇 3년(657) 시세조에서 백제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낙타 1필, 노새 2필을 바쳤고, 齊明天皇 4년 시세조에서는 백제에서 돌아온 후 백제가

신라에 보냈다.

이 해에 물레방아를 만들어 야금을 하였다²⁹².

10년 봄 정월 을해삭 경자(2일)에 대금상(大錦上) 소아적형신(蘇我赤兄臣)과 대금하(大錦下) 거세인신(巨勢人臣; 코세노히토노오미)²⁹³이 뜰 앞에 나아가 신년 축사를 하였다. 계묘(5일)에 대금상(大錦上) 중신금련(中臣金連)이 명에 따라 축사를 읽었다. 이 날에 대우황자(大友皇子)를 태정대신(太政大臣)²⁹⁴으로 임명하고 소아적형신을 좌대신으로, 중신금련을 우대신(右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소아과안신(蘇我果安臣; 소가노하타야스노오미)²⁹⁵, 거세인신, 기대인신(紀大人臣; 키노우시노오미)²⁹⁶을 어사대부(御史大夫)²⁹⁷로 삼았다[어사(御史)는 아마 지금

망할 전조에 대해 제명조정에 보고하고 있다. 阿曇連씨는 『日本書紀』의 편찬에 깊이 관여한 씨족으로, 『日本書紀』에 의하면 阿曇連稻敷가 천무천황 10년(681)의 ‘記定’사업에 참가하였고, 지통천황 5년(691)에는 阿曇連씨의 ‘墓記’가 조정에 제출되었다. 아담련협수의 이야기도 이 과정에서 『日本書紀』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292 물레방아로 풀무를 움직여 용광로의 온도를 높여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었을 것이다.

293 『日本書紀』의 推古紀에 보이는 小德大海의 아들이다. 임신의 난 때에는 近江 측의 장군이 되어 싸우다가 패해 자손과 함께 配流刑에 처해졌다.

294 일본 율령제 관료기구의 최고의 관직이다. 『日本書紀』에서는 여기에서 ‘태정대신’이 최초로 보이고 있다. 『懷風藻』에서 대우황자가 「惣百揆」, 「親萬機」했다고 적고 있듯이, 태정대신은 황태자가 천황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황태자 섭정의 전통을 계승한 관직이다. 당명을 모방하여 일본령을 만들면서 당의 三師와 三公과 같은 존재로 태정대신을 설정하였다.

295 임신의 난 때 近江정권 측의 장군으로 내홍을 일으키고 자살하였다. 임신의 난 후 그의 아들은 配流刑에 처해졌다.

296 「紀氏系圖」에서 大口의 아들로 나온다. 『藤氏家傳』에 의하면 천지천황 9년 윤9월 鎌足の 장례 때에 관위가 大錦下였다. 임신의 난 때에 어느 편에 섰는지 알 수 없으나, 임신의 난 후에 처벌받지는 않았다. 『續日本紀』 慶雲 2년 7월조에 보이는 그의 아들 대납언 麻呂의 墓傳에서 「近江朝御史大夫贈正三位大人」이라고 적고 있다.

297 漢, 魏에서는 대신을 보좌하는 직책이었으나 隋, 唐에서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업무

의 대납언(大納言)인가?²⁹⁸]. 갑진(6일)에 동궁대황제(東宮太皇弟)가 명을 받들어[어떤 책(或本)에는 대우황자가 명을 받들었다고 한다.] 관위(冠位), 법도(法度)의 일을 시행하였다²⁹⁹.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법도와 관위 명칭은 자세하게 새로운 율령(律令)³⁰⁰에 실려 있다.]. 정미(9일)에 고려³⁰¹가 상부(上部) 대상(大相)³⁰² 가루(可婁)를 보내 조(調)를 올렸다³⁰³. 신해(13일)에 백제진장(百濟鎭將) 유인원(劉仁願)³⁰⁴이

를 하는 御史臺의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일본에서는 대납언과 비교되는 점에서 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98 『日本書紀』가 편찬되던 시기에 시행되었던 大寶令의 官制에 의하면 大納言은 4명으로 좌우대신을 보좌하였다.

299 『日本書紀』 천지천황 3년 2월조에 새로운 관위제를 실시한 기사가 보여, 중복되어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00 近江令이다. 근강령에는 律이 없었지만, 『日本書紀』 편찬자는 ‘令’이 ‘律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301 安勝이 관할하던 이른바 보덕국을 가리킨다. 『日本書紀』에서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고려」가 모두 9회에 걸쳐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669년 2월경에 안승은 고구려 유민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 측에 투항할 의사를 전하였다. 그해 4월 당은 고구려 유민들을 당에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하였으나, 고구려 유민들은 반발하여 검모잠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궁모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는 이러한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을 돕기 위해 670년 3월 신라의 사찬 설조유에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 태대형 고연무가 이끄는 1만 명의 군사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가 당과 싸우도록 하였다. 670년 4월에는 당이 고간과 이근행을 행군총관으로 파견하여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운동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검모잠은 패강 남쪽으로 내려와 한성에서 안승을 맞이들인 후 670년 6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라조정에서는 안승 등을 금마저에 살도록 결정하고 670년 7월 金須彌山을 파견하여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당시 백제 지역에서 당군과 대결하면서 당군의 남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신라는 백제 故地로 전략적 요지였던 금마저에 안승의 고구려국을 세웠다. 아직 백제유민이 충분히 복속하지 않고 당의 웅진도독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유민을 흡수하여 속국을 만들어 자국의 藩屏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302 고구려의 제2위 관위이다.

303 可婁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이 왜국에 처음 파견한 사신이었다. 신라의 속국

이수진(李守眞)을 보내 표를 올렸다³⁰⁵.

이 달에 좌평(佐平) 여자신(余自信), 사택소명(沙宅紹明)³⁰⁶[법관대보(法官大輔)³⁰⁷이다.]에게 대금하(大鎭下)를 주었다. 그리고 귀실집사(鬼室集斯)³⁰⁸[학직두(學職頭)이다³⁰⁹.]에게 소금하(小鎭下)를 주었다. 달솔(達率) 곡나진수(谷那晋首)³¹⁰[병법을 잘 알았다.], 목소귀자(木素貴子)³¹¹[병법을 익혔다.], 억례복류(億禮福留)³¹²[병법을 익

이었던 소고구려국이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당연히 신라의 대외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신라는 신라의 영향력하에 고구려국이 다시 서게 된 것을 왜국에 알림으로써 신라가 帝國이 되었음을 과시하는 한편, 신라가 구백제령을 병합하는 데 장애가 될 지도 모를 왜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소고구려국의 사신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었다.

304 유인원은 668년 고구려의 멸망 이전에 이미 姚州에 유배되었으므로 이때 백제진장이었을 리가 없다. 웅진도독부가 왜국과 교섭할 때에 왜국조정에 잘 알려진 유인원의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305 李守眞은 안동도호부 관할하에 웅진도독부에서 파견한 唐人이었다. 671년 정월부터 신라는 구백제령을 침범하여 웅진남쪽에서 싸웠고, 쳐들어온 말갈병을 몰아냈으며 당의 수군을 옹포에서 막아내었다. 웅진도독부는 671년 2월에는 대구용선, 6월에는 예진자를 왜국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왜국과 교섭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그 교섭내용은 왜국인 포로를 송환하는 대신 군수 물자를 제공할 것을 왜국 측에 요구한 것이었다.

306 『懷風藻』大友皇子傳에 의하면 學士이며 대우황자의 빈객이었다. 『藤氏家傳』大織冠傳(鎌足傳)에서도 「才思顯拔, 文章冠世」라고 하여 재사가 발굴이고 문장이 세상에 으뜸이라고 평할 정도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같다. 그는 大化改新의 주역이며 天智와 天武의 신임을 독차지 했던 당시의 최고 유력자 藤原鎌足の 사후 그의 비문을 작성하였다. 671년 近江令을 제정할 때에 백제계 도래인 許率母와 함께 참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日本書紀』天武天皇 2年(673) 閏6月條에 의하면 沙宅昭明이 사망하자 그의 학식을 높이 평가하여 外小紫位를 추증하였다고 한다.

307 법관은 중국에서는 사법관이다. 그러나 일본의 法官은 율령제의 式部에 해당하는 관청으로, 문관의 인사를 관장하였다. 대보는 차관이다.

308 앞의 천지천황 4년 2월조 참조.

309 율령제의 大學寮의 장관에 해당하고, 현재의 국립대학 총장격이다. 율령제에서는 종5위 상 혹은 종5위하의 사람이 임명되었다. 『회풍조』 서문에서는 천지천황 때에 학교(庠序)를 세워 수재를 모으고 오래와 여러 가지 법도를 정하였다고 적고 있다.

310 앞의 천지천황 2년 9월조 참조.

했다.], 답발춘초(答鉢春初)³¹³[병법을 잘 알았다.], 발일비자(鉢日比子), 찬파라(贊波羅), 금라금수(金羅金須)³¹⁴[의약에 통달하였다], 귀실집신(鬼室集信)[의약에 통달하였다.]에게는 대신하(大山下)를 주었다. 또한 달솔(達率) 덕정상(德頂上)³¹⁵[의약에 통달하였다.], 길대상(吉大尙)³¹⁶[의약에 통달하였다.], 허솔모(許率母)³¹⁷[오경(五經)에 밝았다.], 각복모(角福牟)³¹⁸[음양(陰陽)을 잘 알았다.]에게 소산상(小山上)을 주었다. 나머지 달솔(達率) 등 50여 인에게는 소산하(小山下)를 주었다. 동요(童謠; 와자우타)³¹⁹에서 노래하였다.

311 앞의 천지천황 2년 9월조 참조. 『懷風藻』 대우황자전에 의하면 대우황자의 빈객이었다. 『藤氏家傳』에 의하면 뛰어난 문장가로서 藤原鎌足の 비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許率母와 함께 근강령의 제정에도 참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천무 2년 그가 사망하자 그의 학식을 기려 천무조정은 外小紫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312 앞의 천지천황 2년 9월조 참조.

313 앞의 천지천황 4년 8월조 참조. 『懷風藻』 대우황자전에 의하면 대우황자의 빈객이었다.

314 이들을 3명으로 보는 견해와 김라와 김수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아 모두 4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315 이곳에만 보인다.

316 『懷風藻』 대우황자전에 의하면 대우황자의 빈객이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그의 아들 宜와 智水가 神龜 원년(724)에 吉田連이라는 씨성을 사여받는다. 『續日本紀』文武天皇 4년조(700)에 의하면 惠俊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에게 환속하도록 명하고 吉宜라는 이름과 務廣肆(율령제의 종7위하 상당)의 관위를 주었다고 한다. 그는 뒤에 圖書頭, 典藥頭로서 활약하는 등 학문과 의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였다. 아버지 길대사의 뒤를 이어 의술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吉宜를 조정에서 민간인으로 환속시켰던 것이다. 吉智首에 대해서는 『懷風藻』에 「從五位下出雲介吉智首, 一首[年六十八]」라고 적혀 있어 出雲介라는 관직을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7 『懷風藻』 대우황자전에 의하면 대우황자의 빈객이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무천황 6년(677)에 大博士로 임명되고 大山下の 관위와 30호의 봉호를 받는다.

318 자손 중에 음양박사 角兄麻呂가 神龜 원년(724)에 羽林連이라는 씨성을 사여받는다.

319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시사를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노래하도록 하여 널리 퍼뜨렸으므로 ‘童謠’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漢書』와 『後漢書』의 五行志에서는 시사를 풍자한 노래와 天變地異 기사를 실어 그 노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日本書紀』

굴나무 열매는 각각 다른 가지에 열려 있지만, 이를 실에 꿰 때는 다 하나가 되
지요³²⁰.

2월 무진삭 경인(23일)에 백제가 대구용선(臺久用善)³²¹을 보내 조(調)를 올
렸다.

3월 무술삭 경자(3일)에 황서조본실(黃書造本實; 키후미노미야츠코혼지치)³²²이
수열(水臬)³²³을 바쳤다. 갑인(17일)에 상륙국(常陸國; 히타지노쿠니)³²⁴에서 중신
부약자(中臣部若子; 나카토미베노와쿠고)³²⁵를 바쳤다. (그는) 키가 1자 6치이며 태
어난 해는 병진년으로 이 해에 16세였다.

여름 4월 정묘삭 신묘(25일)에 새로운 대 위에 물시계를 놓았다. 처음으로
종고(鐘鼓)를 쳐서 시각을 알렸다. 이 물시계는 천황이 황태자로 있을 때 친히

에서는 황극, 제명, 천지기의 권말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320 일본문화대계본 『日本書紀』 하에서는 “굴나무 열매는 각각 다른 가지에 열려 있지만, 그
것을 가지고 꿰 때에는 같은 끈에 꿰다.”고 읽고, 태어난 신분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관위를 주어 신하로 삼는 것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난을 풍자한 동요라고 하였다.
천지는 자신이 후계자로 정한 대우항자를 도울 사람들로 새로 백제에서 망명한 사람들
에게 관위를 준 것이었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지나치게 우대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왜국 지배층 내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1 이곳에만 보인다.

322 黃書連은 그림을 업으로 하는 씨족으로, 604년 여러 사원들의 불상을 그리기 위해 둔
黃書畫師를 통솔하던 씨족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黃書連本實은 천지천황 8년(669)
에 河内直鯨이 견당사로 파견되었을 때에 함께 파견되어 당에서 최신 과학 기술이나 의
식과 제도를 배워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藥師寺에는 그가 당의 普光寺에서 가져온
粉本을 참고하여 만든 佛足石이 있다. 그는 持統천황 8년(694) 3월에 大宅朝臣麻呂, 壹
忌寸八島와 함께 鑄錢司로 임명되었으며, 持統천황이 사망한 후에는 殯宮일을 담당하였
다. 高松塚古墳壁畫의 제작자 중 한 사람으로 추측되고 있다.

323 水臬은 토목과 건축에 사용되는 水準器를 가리킨다.

324 현재의 茨城縣 대부분이다.

325 이곳에만 보인다. 中臣部는 中臣氏 휘하의 部民이다.

만들었다. 운운(云云). 이 달 축자(筑紫)³²⁶에서 “여덟 개의 발이 달린 사슴이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습니다³²⁷.”라고 보고하였다.

5월 정유삭 신축(5일)에 천황이 서쪽의 소전(小殿)에 나갔다. 황태자와 군신이 연회에 배석하였다. 여기에서 전무(田舞)³²⁸를 두 번 연주하였다.

6월 병인삭 기사(4일)에 백제³²⁹ 삼부(三部)³³⁰의 사신이 요청한 군사에 관해 선언이 있었다³³¹. 경진(15일)에 백제³³²가 예진자(狎眞子)³³³들을 보내 조(調)를 올렸다. 이 달에 울외왕(粟隈王)을 축자솔(筑紫率)로 임명하였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올렸다³³⁴. 따로 물소(水牛) 한 두, 산닭[山鷄] 한 마리를 바쳤다.

가을 7월 병신삭 병오(11일)에 당인(唐人) 이수진들과 백제의 사신들이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326 筑紫大宰府이다.

327 『宋書』 오행지에 의하면晉武帝 때 다리 8개 달린 소가 나타난 것이 그 후 劉隗의 변란의 전조였다고 적고 있다. 즉 오행사상에 의하면 다리가 많은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간신이 나타나거나 난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뒤의 임신의 난에 대한 복선으로 배치되었다.

328 원래는 발에서 경작하면서 추는 가무를 말한다. 『續日本紀』天平 15년 5월조의詔에서聖武천황은 5월 5일의節會에서 천무천황이 처음으로 전무를 공연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에서는 이곳 천지조에서 보이고 있다.

329 웅진도독부를 가리킨다.

330 백제 5部 중의 3部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인지는 알 수 없다.

331 웅진도독부는 신라와 싸우기 위해 왜국에 군사를 요청하였던 듯하지만, 왜국 측에서는 신라와의 관계도 있어서 이를 거절하였던 듯하다.

332 웅진도독부를 가리킨다.

333 웅진도독부의 관인으로 왜국에 군사요청을 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334 671년 6월에 신라는 장군 죽지를 보내 구백제령 가림성의 농작물을 없애고, 석성에서 당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신라는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백제령에서 당의 군대를 몰아낸 것을 왜국에 알렸을 것이다.

8월 을축삭 정묘(3일)에 고려의 상부 대상가루(大相可婁)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임오(18일)에 하이(蝦夷)에게 향응하였다.

9월에 천황의 병이 위중하였다[어떤 책(或本)에서는 8월에 천황이 병에 걸렸다고 하였다.].

겨울 10월 갑자삭 경오(7일)에 신라가 사찬 김만물(金萬物)을 보내 조를 바쳤다³³⁵.

신미(8일)에 내전에서 백불(百佛)의 개안공양(開眼供養)³³⁶이 있었다.

이 달에 천황은 사자를 보내 가사(袈裟), 금발(金鉢)³³⁷, 상아(象牙), 침수향(沈水香)³³⁸, 전단향(旃檀香)³³⁹ 및 여러 보물을 법흥사(法興寺; 호후코우지)³⁴⁰의 불전에 올렸다. 경진(17일)에 천황의 병이 점점 중하여졌다. 그리하여 동궁³⁴¹을 불러들여 침소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짐은 병이 심하다. 후사를 그대에게 맡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동궁은 재배하고 병을 핑계대면서 “대후(太后)³⁴²에게 대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우왕(大友王)에게 모든 정치를

335 이 사신은 이 해 12월 9일에 귀국한다. 아마도 천지의 와병으로 축자에서 돌아갔을 것이다.

336 開眼은 새로 만든 부처의 조각상이나 화상에 제사를 올리고 눈을 넣어 靈을 맞아들이는 의식이다. 아마 이때 개안한 것은 다음 11월 병진에 대우황자가 내전의 서전에서 예배한 織佛像일 가능성이 크다.

337 금사발이다.

338 天竺, 單于, 交趾 등에서 생산되는 香木이다. 『日本書紀』推古紀 3년 4월조에 沈水가 淡路嶋에 흘러왔다는 기사가 보인다.

339 白檀科의 常綠喬木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다.

340 崇峻천황 원년부터 推古천황 원년에 걸쳐 조영한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이다. 飛鳥寺, 元興寺라고도 한다.

341 大海人皇子를 가리킨다.

342 천지천황의 황후 倭姫王을 가리킨다.

하도록 하십시오³⁴³. 신은 천황을 위하여 출가하여 수도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사하였다. 천황이 이를 허락하였다. 동궁은 일어나서 재배하였다. 그리고 내전의 불전에서 남면하고 곁상에 걸터앉아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사문(沙門)이 되었다. 천황은 차전생반(次田生磐; 스키타오오히하)³⁴⁴을 보내 가사를 주었다. 임오(19일)에 동궁이 천황을 뵈고 길야(吉野; 요시노)로 가서 불도를 수행하겠다고 말하자, 천황이 허락하였다. 동궁은 곧 길야로 갔다. 대신들이 모시고 토도(菟道; 우지)까지 갔다가 돌아왔다³⁴⁵.

11월 갑오삭 계묘(10일)에 대마국사(對馬國司)³⁴⁶가 사자를 축자대재부(筑紫大宰府)³⁴⁷에 보내 보고하였다.

“이 달 2일에 사문(沙門) 도구(道久)³⁴⁸, 축자군살야마(筑紫君薩野馬)³⁴⁹, 한도승가사(韓島勝婆娑)³⁵⁰, 포사수반(布師首磐)³⁵¹ 4인이 당(唐)에서 돌아와서 ‘당의

343 여기서 대해인황자는 천지천황의 사후에 천지천황의 황후 왜희대후의 즉위와 대우황자의 섭정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왜희대후가 즉위한다면 추고, 황극과 마찬가지로 천황의 대후였다는 자격으로 즉위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차기 천황의 결정은 유보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천지천황 10년 11월 병진조에서는 대우황자와 중신들이 맹서하고 있는데, 이는 대우황자의 즉위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지는 대우황자의 즉위를 바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44 이곳에만 보인다.

345 近江大津宮에서 逢坂을 넘어 宇治까지 가는 길은 10여km로 왕복 하루 걸리는 길이였다.

346 대마국사는 올령제하의 용어이므로, 이때는 對馬宰 또는 對馬國宰였을 것이다.

347 大宰府란 용어의 최초기사이다. 백제 멸망 후 웅진도독부의 鎭將 郭務棕 일행의 내항에 대해 대마국사로부터 筑紫大宰府에의 보고였다.

348 이곳에만 보인다. 여기서 韓嶋은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豐前國 宇佐郡 辛嶋郷(현재 大分縣 宇佐市 辛嶋)이다. 勝은 도래계 씨족의 姓이므로, 한도승사파는 도래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49 『日本書紀』 지통천황 4년(690) 10월조에 의하면 齊明天皇 7년에 백제에 파견되었다가 당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다.

350 이곳에만 보인다.

사신 곽무중(郭務棕) 등 6백여 인과 송사 사택손등(沙宅孫登)³⁵² 등 1천4백 인, 합해 2천 인이 배 47척에 타고³⁵³ 비지도(比知島)³⁵⁴에 정박하고는 ‘지금 우리는 사람과 배가 많다. 갑자기 가면 저쪽의 방인(防人; 사키모리)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활을 쏘고 싸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의논하여 미리 내조의 뜻을 알리도록 먼저 저희 도구(道久)들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³⁵⁵”

병진(23일)에 대우황자는 내전 서전(西殿)의 직불상(織佛像)³⁵⁶ 앞에 있었다. 옆에는 좌대신 소아적형신, 우대신 중신금련, 소아과안신(蘇我果安臣), 거세인신(巨勢人臣), 기대인신(紀大人臣)이 있었다. 대우황자는 향로를 손에 들고 먼저 일어나 “6인이 한 마음으로 천황의 조(詔)를 받들겠습니다. 만일 위배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운운, 그리고 좌대신 소아적형신들이 향로를 손에 들고 차례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울면서 “신 등 5인은 전하를 따라 천황의 조(詔)를 받들겠습니다. 만일 위배하는 일이 있으면 사천왕(四天王)³⁵⁷이 칠 것입니다. 천신지기가 또 벌을 줄 것입니다. 삼십삼천(三十三天)³⁵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가문도 반

351 이곳에만 보인다.

352 660년에 백제 사비성이 함락할 때 의자왕과 함께 당으로 연행된 좌평 손등과 동일인이다. 그 후 백제로 돌아가 웅진도독부 관인으로 활동하였다.

353 2천 인 속에는 백강 전투 때 포로로 잡혔다가 송환되는 왜국 포로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672) 夏5월 신묘삭 임인조에 의하면 포로송환에 대한 대가로 近江조정은 굶은 비단, 포, 풀솜 등의 물자를 곽무중들에게 지불하였다.

354 현재 거제도 서쪽의 경남 통영 한산면 比珍島이다.

355 당에서 보낸 사신단 중에서 선발단이 먼저 파견되어 일본조정에 포로 송환선이 올 것임을 알렸다.

356 직물에 수를 놓은 불상이다.

357 불법의 수호신이다. 『金光明經』 四天王品, 『金光明最勝王經』 四天王護國品에 의하면 각각 방위에 따라 네 천왕이 있는데, 동방은 持國天王, 북방은 多聞天王, 서방은 廣目天王, 남방은 增長天王이다.

드시 망할 것입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운운.

정사(24일)에 근강궁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대장성(大藏省)³⁵⁹의 제 삼창(第三倉)에서 처음 불이 났다. 임술(29일)에 다섯 신하가 대우황자를 받들어 천황 앞에서 맹세하였다. 이 날 신라왕에게 비단 50필, 굵은 비단 50필, 명주솜 1천 근, 무두질한 가죽 1백 매를 주었다.

12월 계해삭 을축(3일)에 천황이 근강궁에서 죽었다(崩)³⁶⁰. 계유(11일)에 신궁(新宮; 니히미야)³⁶¹을 빈궁(殯宮)으로 하였다. 그때 동요가 있었다.

길야(吉野)의, 길야의 은어, 은어는 섬의 가장자리가 좋을텐데. 아! 괴롭다 물욕 잠 밧, 미나리 밧, 나는 괴롭다[첫째 노래]³⁶².

신하인 내가 여러 겹의 끈을 아직 한 겹도 못 풀었는데, 황자는 끈을 모두 푸셨구나[둘째 노래]³⁶³.

붉은 말이 가기 싫어하는 칙 별판, 무슨 전할 말이 있습니까? 직접 말하면 될 것을[셋째 노래]³⁶⁴.

기묘(17일)에 신라의 조(調)를 올리는 사신 사찬 김만물(金萬物)들이 일을 마

358 불교경전에서는 須彌山 정상에 네 봉우리에 8천이 있고, 그 중앙의 喜見城에 帝釋天이 있으며, 합계 33천이 있다고 한다.

359 이때는 아직 省이 없었다.

360 『日本書紀』 서명천황 13년 10월조에서 중대형황자의 나이를 16세라고 적고 있으므로, 천지천황의 사망시 나이는 46세다. 한편 『성덕법왕제설』에 의하면 47세였다.

361 새로 궁을 지어 빈궁으로 사용하였던 듯하다.

362 吉野로 간 大海人皇子의 괴로움을 풍자한 노래이다.

363 近江조정에서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吉野로 간 大海人皇子 측에서는 전쟁준비가 끝났음을 풍자한 노래이다.

364 吉野 쪽과 近江조정 쪽이 직접 교섭하도록 권하는 노래이다.

치고 돌아갔다.

이 해에 찬기국(讚岐國) 산전군(山田郡; 아마다노코호리)³⁶⁵ 사람의 집에 네 개의 다리가 달린 병아리가 있었다. 또 대취(大炊)³⁶⁶에 여덟 개의 술이 있었는데, 저절로 소리를 냈다. 어떤 때는 한 술이 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둘 혹은 셋이 같이 소리를 냈다. 혹은 여덟 개가 함께 소리를 냈다³⁶⁷.

일본서기 권 제27

365 지금의 德島縣 木田郡이다.

366 율령제의 宮內省 大炊寮이다. 전국에서 바치는 쌀과 잡곡을 보관하고 관청에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한 관사이다.

367 『漢書』五行志에 따르면 중국에서 鼎은 宗廟의 보배로운 그릇이므로 이 鼎에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왕가가 끊어질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음해 임신의 난이 일어나 천지천황의 아들 대우황자가 천지천황의 동생 천무천황에게 패배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日本書紀 卷第廿七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天命開別天皇，息長足日廣額天皇太子也。母曰天豐財重日足姬天皇。天豐財重日足姬天皇四年，讓位於天萬豐日天皇。立天皇，爲皇太子。天萬豐日天皇，後五年十月崩。明年，皇祖母尊卽天皇位。

七年 七月丁巳崩。皇太子素服稱制。是月，蘇將軍與突厥王子契苾加力等，水陸二路，至于高麗城下。皇太子遷居于長津宮。稍聽水表之軍政。

八月，遣前將軍大花下阿曇比羅夫連·小花下河邊百枝臣等，後將軍大華下阿倍引田比羅夫臣·大山上物部連熊·大山上守君大石等，救於百濟。仍送兵杖·五穀[或本，續此末云，別使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守護百濟。]

九月，皇太子御長津宮。以織冠，授於百濟王子豐璋。復以多臣蔣敷之妹妻之焉。乃遣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率軍五千餘，衛送於本鄉。於是，豐璋入國之時，福信迎來，稽首奉國朝政，皆悉委焉。

十二月，高麗言，惟十二月，於高麗國，寒極汨凍。故唐軍，雲車衝棚，鼓鉦吼然。高麗士卒，膽勇雄壯。故更取唐二壘。唯有二塞。亦備夜取之計。唐兵抱膝而哭。銳鈍力竭，而不能拔。噬臍之恥，非此而何[釋道顯云，言春秋之志，正起于高麗。而先聲百濟。百濟近侵甚苦急。故爾也。]。是歲，播磨國司岸田臣麻呂等，獻寶劍言，於狹夜郡人禾田穴內獲焉。又日本救高麗軍將等，泊于百濟加巴利濱，而燃火

焉。灰變爲孔，有細響，如鳴鏑。或曰，高麗·百濟終亡之徵乎。

元年 春正月辛卯朔丁巳，賜百濟佐平鬼室福信矢十萬隻·絲五百斤·綿一千斤·布一千端·韋一千張·稻種三千斛。

三月庚寅朔癸巳，賜百濟王布三百端。是月，唐人·新羅人，伐高麗。高麗乞救國家，仍遣軍將，據䟽¹留城。由是，唐人不得略其南界，新羅不獲輸其西壘。

夏四月，鼠產於馬尾。釋道顯占曰，北國之人，將附南國。蓋高麗破，而屬日本乎。

五月，大將軍大錦中阿曇比羅夫連等，率船師一百七十艘，送豐璋等於百濟國。宣勅，以豐璋等使繼其位。又予金策於福信，而撫其背，褒賜爵祿。于時，豐璋等與福信，稽首受勅，衆爲流涕。

六月己未朔丙戌，百濟遣達率萬智等，進調獻物。

冬十二月丙戌朔，百濟王豐璋，其臣佐平福信等，與狹井連〈闕名〉朴市田來津議曰，此州柔者，遠隔田畝，土地磽确，非農桑之地。是拒戰之場。此焉久處，民可飢饉。今可遷於避城。避城者西北帶以古連旦涇之水，東南據深泥巨堰之防。繚以周田，決渠降雨。華實之毛，則三韓之上腴焉。衣食之源，則二儀之隩區矣。雖曰地卑，豈不遷歟。於是，朴市田來津獨進而諫曰，避城與敵所在之間，一夜可行。相近茲甚。若有不虞，其悔難及者矣。夫飢者後也，亡者先也。今敵所以不妄來者，州柔設置山險，盡爲防禦，山峻高而谿隘，守而攻難之故也。若處卑地，何以因居，而不搖動。及今日乎。遂不聽諫，而都避城。是歲，爲救百濟，修繕兵甲，備具船舶，儲設軍糧²。是年也，太歲壬戌。

1 소학관본에서는 ‘疏’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二年 春二月乙酉朔丙戌，百濟遣達率金受等進調，新羅人燒燔百濟南畔四州，并取安德等要地，於是，避城去賊近，故勢不能居，乃還居於州柔，如田來津之所計。

是月，佐平福信，上送唐俘續守言等。

三月，遣前將軍上毛野君稚子·間人連大蓋，中將軍巨勢神前臣譯語·三輪君根麻呂，後將軍阿倍引田臣比羅夫·大宅臣鎌柄，率二萬七千人，打新羅。

夏五月癸丑朔，犬上君[闕名]馳，告兵事於高麗而還，見紕解於石城，紕解仍語福信之罪。

六月，前將軍上毛野君稚子等，取新羅沙鼻岐奴江二城，百濟王豐璋，嫌福信有謀反心，以革穿掌而縛，時難自決，不知所爲，乃問諸臣曰，福信之罪，既如此焉，可斬以不，於是，達率德執得曰，此惡逆人，不合放捨，福信卽唾於執得曰，腐狗癡奴，王勒健兒，斬而醢首。

秋八月壬午朔甲午，新羅，以百濟王斬己良將，謀直入國先取州柔，於是，百濟知賊所計，謂諸將曰，今聞，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正當越海而至，願諸將軍等，應預圖之，我欲自往待饗白村，戊戌，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陣烈於白村江，戊申，日本船師初至者，與大唐船師合戰，日本不利而退，大唐堅陣而守，己酉，日本諸將，與百濟王，不觀氣象，而相謂之曰，我等爭先，彼應自退，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進打大唐堅陣之軍，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須臾之際，官軍敗績，赴水溺死者衆，艫舳不得迴旋，朴市田來津，仰天而誓，切齒而嘖，殺數十人，於焉戰死，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

九月辛亥朔丁巳，百濟州柔城，始降於唐，是時，國人相謂之曰，州柔降矣，事無奈何，百濟之名，絕于今日，丘墓之所，豈能復往，但可往於弓禮城，會日本軍將等，相謀事機所要，遂教本在枕服岐城之妻子等，令知去國之心，辛酉，發途於牟弓，癸亥，至弓禮，甲戌，日本船師，及佐平余自信·達率木素貴子·谷那

晉首·憶禮福留，并國民等，至於弓禮城。明日，發船始向日本。

三年 春二月己卯朔丁亥，天皇命大皇弟，宣增換冠倍位階名，及氏上·民部·家部等事。其冠有廿六階，大織·小織·大縫·小縫·大紫·小紫·大錦上·大錦中·大錦下·小錦上·小錦中·小錦下·大山上·大山中·大山下·小山上·小山中·小山下·大乙上·大乙中·大乙下·小乙上·小乙中·小乙下·大建·小建，是爲廿六階焉。改前花曰錦，從錦至乙加十階，又加換前初位一階，爲大建·小建，二階，以此爲異。餘並依前，其大氏之氏上賜大刀，小氏之氏上賜小刀，其伴造等之氏上賜干楯·弓矢，亦定其民部·家部。

三月，以百濟王善光王等，居于難波，有星殞於京北。

是春，地震。

夏五月戊申朔甲子，百濟鎮將劉仁願，遣朝散大夫郭務棕等，進表函與獻物。是月，大紫蘇我連大臣薨[或本，大臣薨注五月.]。

六月，嶋皇祖母命薨。

冬十月乙亥朔，宣發遣郭務棕等勅。是日，中臣內臣，遣沙門智祥，賜物於郭務棕，戊寅，饗賜郭務棕等。是月，高麗大臣蓋金終於其國，遣言於兒等曰，汝等兄弟，和如魚水，勿爭爵位，若不如是，必爲隣咎。

十二月甲戌朔乙酉，郭務棕等罷歸。是月，淡海國言，坂田郡人小竹田史身之猪槽水中，忽然稻生，身取而收，日日到富，栗太郡人磐城村主殷之新婦床席頭端，一宿之間，稻生而穗，其旦垂穎而熟，明日之夜，更生一穗，新婦出庭，兩箇鑰匙，自天落前，婦取而與殷，殷得始富。是歲，於對馬嶋·壹岐嶋·筑紫國等，置防與烽，又於筑紫，築大堤貯水，名曰水城。

四年 春二月癸酉朔丁酉，間人大后薨。是月，勘校百濟國官位階級，仍以佐平福信之功，授鬼室集斯小錦下[其本位達率.]，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居于

近江國神前郡.

三月癸卯朔, 爲間人大后, 度三百卅人. 是月, 給神前郡百濟人田.

秋八月, 遣達率答怵春初, 築城於長門國. 遣達率憶禮福留·達率四比福夫於筑紫國, 築大野及椽二城. 耽羅遣使來朝.

九月庚午朔壬辰, 唐國遣朝散大夫沂州司馬上柱國劉德高等[等謂右戎衛郎將上柱國百濟禰軍·朝散大夫柱國郭務棕, 凡二百五十四人, 七月廿八日, 至于對馬. 九月廿日, 至于筑紫. 廿二日, 進表函焉.].

冬十月己亥朔己酉, 大闕于菟道.

十一月己巳朔辛巳, 饗賜劉德高等.

十二月戊戌朔辛亥, 賜物於劉德高等. 是月, 劉德高等罷歸. 是歲, 遣小錦守君大石等於大唐, 云云[等謂小山坂合部連石積·大小乙吉士岐彌·吉士針間, 蓋送唐使人乎.].

五年 春正月戊辰朔戊寅, 高麗遣前部能婁等進調. 是日, 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三月, 皇太子親往於佐伯子麻呂連家, 問其所患, 慨歎元從之功.

夏六月乙未朔戊戌, 高麗前部能婁等罷歸.

秋七月, 大水.

是秋, 復租調.

冬十月甲午朔己未, 高麗遣臣乙相奄郢等進調[大使臣乙相奄郢·副使達相通·二位玄武若光等.].

是冬, 京都之鼠, 向近江移. 以百濟男女二千餘人, 居于東國. 凡不擇縑素, 起癸亥年, 至于三歲, 並賜官食. 倭漢沙門知由, 獻指南車.

六年 春二月壬辰朔戊午, 合葬天豐財重日足姬天皇與間人皇女於小市岡上

陵。是日，以皇孫大田皇女，葬於陵前之墓。高麗·百濟·新羅，皆奉哀於御路。皇太子謂群臣曰，我奉皇太后天皇之所勅，憂恤萬民之故，不起石槨之役。所冀，永代以爲鏡誠焉。

三月辛酉朔己卯，遷都于近江。是時，天下百姓，不願遷都，諷諫者多。童謠亦衆。日日夜夜，失火處多。

六月，葛野郡獻白鸕。

秋七月己未朔己巳，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八月，皇太子幸倭京。

冬十月，高麗大兄男生，出城巡國。於是，城內二弟，聞側助士大夫之惡言，拒而勿入。由是，男生奔入大唐，謀滅其國。

十一月丁巳朔乙丑，百濟鎮將劉仁願，遣熊津都督府熊山縣令上柱國司馬法聰等，送大山下境部連石積等於筑紫都督府。己巳，司馬法聰等罷歸。以小山下伊吉連博德·大乙下笠臣諸石，爲送使。是月，築倭國高安城·讚吉國山田郡屋嶋城·對馬國金田城。

閏十一月丁亥朔丁酉，以錦十四匹，纈十九匹，緋廿四匹，紺布廿四端，桃染布五十八端·斧廿六·釵六十四·刀子六十二枚，賜椽磨等。

七年 春正月丙戌朔戊子，皇太子卽天皇位〔或本云，六年歲次丁卯三月，卽位。〕。壬辰，宴群臣於內裏。戊申，送使博德等服命。

二月丙辰朔戊寅，立古人大兄皇子女倭姬王，爲皇后，遂納四嬪。有蘇我山田石川麻呂大臣女，曰遠智娘〔或本云，美濃津子娘。〕，生一男二女。其一曰大田皇女。其二曰鸕野皇女。及有天下，居于飛鳥淨御原宮。後移宮于藤原。其三曰建皇子。啞不能語〔或本云，遠智娘生一男二女。其一曰建皇子。其二曰大田皇女。其三曰鸕野皇女。或本云，蘇我山田麻呂大臣女曰茅渟娘，生大田皇女與娑羅羅皇女。〕。次有遠智娘弟，曰姪娘。生御名部皇女與阿陪皇女。阿陪皇女，及有天下，居于藤原宮。後移都于乃

樂[或本云, 名姪娘曰櫻井娘.]. 次有阿倍倉梯麻呂大臣女, 曰橘娘, 生飛鳥皇女與新田部皇女. 次有蘇我赤兄大臣女, 曰常陸娘, 生山邊皇女. 又有宮人生男女者四人, 有忍海造小龍女, 曰色夫古娘, 生一男二女, 其一曰大江皇女, 其二曰川嶋皇子, 其三曰泉皇女. 又有栗隈首德萬女, 曰黑媛娘, 生水主皇女. 又有越道君伊羅都賣, 生施基皇子. 又有伊賀采女宅子娘, 生伊賀皇子, 復字曰大友皇子.

夏四月乙卯朔庚申, 百濟遣末都師父等進調. 庚午, 末都師父等罷歸.

五月五日, 天皇縱獵³於蒲生野. 于時, 大皇弟·諸王·內臣及群臣, 皆悉從焉.

六月, 伊勢王與其弟王, 接日而薨[未詳官位].

秋七月, 高麗從越之路, 遣使進調. 風浪高, 故不得歸. 以栗前王, 拜筑紫率. 于時, 近江國講武. 又多置牧而放馬. 又越國獻燃土與燃水. 又於濱臺之下, 諸魚覆水而至. 又饗蝦夷. 又命舍人等, 爲宴於所. 時人曰, 天皇, 天命將及乎.

秋九月壬午朔癸巳, 新羅遣沙喙級浪金東嚴等進調. 丁未, 中臣內臣, 使沙門法辨·秦筆, 賜新羅上臣大角干庾信船一隻, 付東嚴等. 庚戌, 使布勢臣耳麻呂, 賜新羅王輪御調船一隻, 付東嚴等.

冬十月, 大唐大將軍英公, 打滅高麗. 高麗仲牟王, 初建國時, 欲治千歲也. 母夫人云, 若善治國可得也⁴. 但當有七百年之治也. 今此國亡者, 當在七百年之末也.

十一月辛巳朔, 賜新羅王, 絹五十四·綿五百斤·韋一百枚. 付金東嚴等. 賜東嚴等物, 各有差. 乙酉, 遣小山下道守臣麻呂·吉士小鮪於新羅. 是日, 金東嚴等罷歸. 是歲, 沙門道行, 盜草薙劍, 逃向新羅. 而中路風雨, 荒迷而歸.

八年 春正月庚辰朔戊子, 以蘇我赤兄臣, 拜筑紫率.

3 소학관본에서는 ‘獵’이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는 분주로 [若或本有不可得也.]가 적혀 있다.

三月己卯朔己丑，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丙申，賜耽羅王五穀種。是日，王子久麻伎等罷歸。

夏五月戊寅朔壬午，天皇縱獵⁵於山科野，大皇弟·藤原內大臣及群臣，皆悉從焉。

秋八月丁未朔己酉，天皇登高安嶺，議欲修城。仍恤民疲，止而不作。時人感而歎曰，寔乃仁愛之德，不亦寬乎，云云。

是秋，霹靂於藤原內大臣家。

九月丁丑朔丁亥，新羅遣沙浪督儒等進調。

冬十月丙午朔乙卯，天皇幸藤原內大臣家，親問所患。而憂悴極甚。乃詔曰，天道輔仁，何乃虛說。積善餘慶，猶是无⁶徵。若有所須，便可以聞。對曰，臣既不敏，當復何言。但其葬事，宜用輕易。生則無務於軍國，死則何敢重難，云云。時賢聞而歎曰，此之一言，竊比於往哲之善言矣。大樹將軍之辭賞，詎可同年而語哉。庚申，天皇遣東宮大皇弟於藤原內大臣家，授大織冠與大臣位。仍賜姓，爲藤原氏。自此以後，通曰藤原內大臣。辛酉，藤原內大臣薨[日本世記曰，內大臣，春秋五十，薨于私第。遷殯於山南。天何不淑，不憊遺者。嗚呼哀哉。碑曰，春秋五十有六而薨。]。甲子，天皇幸藤原內大臣家，命大錦上蘇我赤兄臣，奉宣恩詔。仍賜金香鑪。

十二月，災大藏。

是冬，修高安城，收畿內之田稅。于時，災斑鳩寺。是歲，遣小錦中河內直鯨等，使於大唐。又以佐平餘自信·佐平鬼室集斯等，男女七百餘人，遷居近江國蒲生郡。又大唐遣郭務悰等二千餘人。

5 소학관본에서는 ‘獵’이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無’라고 적고 있다.

九年 春正月乙亥朔辛巳, 詔士大夫等, 大射宮門內. 戊子, 宣朝廷之禮儀, 與行路之相避. 復禁斷誣妄·妖僞.

二月, 造戶籍. 斷盜賊與浮浪. 于時, 天皇幸蒲生郡置迺野, 而觀宮地. 又修高安城, 積穀與鹽. 又築長門城一·筑紫城二.

三月甲戌朔壬午, 於山御井傍, 敷諸神座, 而班幣帛. 中臣金連宣祝詞.

夏四月癸卯朔壬申, 夜半之後, 災法隆寺. 一屋無餘. 大雨雷震.

五月, 童謠曰, 于知波志能, 都梅能阿素弭爾, 伊提麻栖古, 多麻提能伊鞞能, 野鞞古能度珥, 伊提麻志能, 俱伊播阿羅珥茹, 伊提麻西古, 多麻提能鞞能, 野鞞古能度珥.

六月, 邑中獲龜. 背書申字. 上黃下玄. 長六寸許.

秋九月辛未朔, 遣阿曇連賴垂於新羅. 是歲, 造水碓而冶鐵.

十年 春正月己亥朔庚子, 大錦上蘇我赤兄臣與大錦下巨勢人臣, 進於殿前, 奏賀正事. 癸卯, 大錦上中臣金連, 命宣神事. 是日, 以大友皇子, 拜太政大臣. 以蘇我赤兄臣, 爲左大臣. 以中臣金連, 爲右大臣. 以蘇我果安臣·巨勢人臣·紀大人臣, 爲御史大夫[御史蓋今之大納言乎.]. 甲辰, 東宮太皇弟奉宣[或本云, 大友皇子宣命.], 施行冠位法度之事. 大赦天下[法度冠位之名. 具載於新律令也⁷.]. 丁未, 高麗遣上部大相可婁等進調. 辛亥, 百濟鎮將劉仁願, 遣李守眞等上表.

是月, 以大錦下授佐平余自信·沙宅紹明[法官大輔.], 以小錦下, 授鬼室集斯[學職頭.], 以大山下, 授達率谷那智首[閑兵法.], 木素貴子[閑兵法.], 憶禮福留[閑兵法.], 答怛春初[閑兵法.], 怛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解藥.], 鬼室集信[解藥.], 以上小山下, 授達率德頂上[解藥.], 吉大尙[解藥.], 許率母[明五經.], 角福牟[閑於陰陽.], 以小山下, 授餘達率等, 五十餘人. 童謠云, 多致播那播, 於能我曳多曳多. 那例例騰母, 陀

7 소학관본에는 ‘也’가 없다.

麻爾農矩騰岐，於野兒弘爾農俱。

二月戊辰朔庚寅，百濟遣臺久用善等進調。

三月戊戌朔庚子，黃書造本實獻水臬。甲寅，常陸國貢中臣部若子，長尺六寸。其生年丙辰，至於此歲，十六年也。

夏四月丁卯朔辛卯，置漏剋於新臺。始打候時，動鍾鼓，始用漏剋。此漏剋者，天皇爲皇太子時，始親所製造也，云云。

是月，筑紫言，八足之鹿，生而卽死。

五月丁酉朔辛丑，天皇御西小殿，皇太子·群臣侍宴。於是，再奏田舞。

六月丙寅朔己巳，宣百濟三部使人所請軍事。庚辰，百濟遣羿眞子等進調。

是月，以栗隈王，爲筑紫率⁸。新羅遣使進調，別獻水牛一頭·山鷄一隻。

秋七月丙申朔丙午，唐人李守眞等，百濟使人等，並罷歸。

八月乙丑朔丁卯，高麗上部大相可婁等罷歸。壬午，饗賜蝦夷。

九月，天皇寢疾不豫[或本云，八月，天皇疾病.]。

冬十月甲子朔庚午，新羅遣沙浪金萬物等進調。辛未，於內裏，開百佛眼。是月，天皇遣使奉袈裟·金鉢·象牙·沈水香·旃檀香，及諸珍財於法興寺佛。庚辰，天皇疾病彌留，勅喚東宮，引入臥內，詔曰，朕疾甚，以後事屬汝，云云。於是，再拜稱疾固辭，不受曰，請奉洪業，付屬太后。令大友王，奉宣諸政。臣請願，奉爲天皇，出家脩道。天皇許焉。東宮起而再拜，便向於內裏佛殿之南，踞坐胡床，剃除鬢髮，爲沙門。於是，天皇遣次田生磐送袈裟。壬午，東宮見天皇，請之吉野，脩行佛道。天皇許焉。東宮卽入於吉野。大臣等侍送，至菟道而還。

十一月甲午朔癸卯，對馬國司，遣使於筑紫大宰府言，月生二日，沙門道久·筑紫君薩野馬·韓鳴勝娑婆·布師首磐，四人，從唐來曰，唐國使人郭務棕等六百人，送使沙宅孫登等一千四百人，總合二千人，乘船卅七隻，俱泊於比知嶋，

8 소학관본에서는 '帥'라고 적고 있다.

相謂之曰，今吾輩人船數衆，忽然到彼，恐彼防人，驚駭射戰，乃遣道久等，豫稍披陳來朝之意。丙辰，大友皇子，在於⁹內裏西殿織佛像前，左大臣蘇我赤兄臣・右大臣中臣金連・蘇我果安臣・巨勢人臣・紀大人臣侍焉。大友皇子，手執香鑪，先起誓盟曰，六人同心，奉天皇詔，若有違者，必被天罰，云云。於是，左大臣蘇我赤兄臣等，手執香鑪，隨次而起，泣血誓盟曰，臣等五人，隨於殿下，奉天皇詔，若有違者，四天王打，天神地祇，亦復誅罰。卅三天，證知此事，子孫當絕，家門必亡，云云。丁巳，災近江宮，從大藏省第三倉出，壬戌，五臣奉大友皇子，盟天皇前。是日，賜新羅王，絹五十四・絁五十四・綿一千斤・韋一百枚。

十二月癸亥朔乙丑，天皇崩于近江宮。癸酉，殯于新宮。于時，童謠曰，美曳之弩能，曳之弩能阿喻，阿喻舉曾播，施麻倍母曳岐，愛俱流之衛，奈疑能母騰，制利能母騰，阿例播俱流之衛[其一.]，於彌能古能，野陞能比母騰俱，比騰陞多爾，伊麻柁¹⁰藤柯禰波，美古能比母騰矩[其二.]，阿箇悟馬能，以喻企波波箇屢，麻矩儒播羅，奈爾能都底舉騰，多柁¹¹尼之曳鷄武[其三.]。己卯，新羅進調使沙浪金萬物等罷歸。是歲，讚岐國山田郡人家，有鷄子四足者。又大炊省有八鼎鳴，或一鼎鳴，或二或三俱鳴，或八俱鳴。

日本書紀卷第廿七

9 소학관본에는 ‘於’가 없다.

10 소학관본에서는 ‘施’라고 적고 있다.

11 소학관본에서는 ‘施’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28

日本書紀 卷第廿八

제39대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상 천무천황(天武天皇)



일본서기 권 제28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아마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스메라미코토) 상
천무천황(天武天皇; 텐무텐노)

천정중원영진인천황¹[淳中은 누나(農難)라고 읽는다.]은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

1 천무천황(?~686)의 휘는 대해인(大海人; 오토시야마)이며, 시호는 천중원정진인천황이다. 아버지는 舒明天皇, 어머니는 皇極(齊明)天皇이다. 天智天皇·間人皇女の 동모제이며 高市·草壁·大津皇子 등의 아버지이다. 고대 일본에서 大化改新 이전은 형제에 의한 황위 계승이 원칙으로 天智朝 당시의 대해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황위계승 예정자였다. 그러나 부자계승을 지향한 천지천황은 천지 10년(671) 정월, 長子이긴 하나 卑母 소생의 大友皇子를 太政大臣에 임명함으로써 사실상의 皇嗣로 삼았다. 머지않아 병석에 누운 천지천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해인은 천황에게 출가를 간청해 허락받자 妃인 鸕野皇녀와 아들 草壁皇子, 몇 안 되는 舍人들을 거느리고 吉野로 도망하였다. 다음해(672) 6월, 近江조정의 움직임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대해인은 마침내 거병(임신의 난), 동국의 병사를 모아 군사적 요충인 不破道を 일찍이 확보하고 근강조정의 군대를 격파하여 결국 대우황자를 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무천황 2년(673) 2월, 飛鳥淨御原宮(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서 즉위하여 “대왕은 신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전제적인 천황대권을 확립한다. 황후 鸕野皇녀 및 高市, 草壁, 大津皇子 등을 정권 중추에 포진시킨 정치체제(소위 皇親정치)하에서 出身法, 考課제도를 통해 畿内 호족층의 관료화를 추진했다. 동 4년(675) 2월, ‘甲子の宣’에서 인정한 部曲을 폐지하고 동 5년(676) 4월에 식봉의 봉지 교체를 시행했는데, 이는 씨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왕권에 대한 구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동 13년(684) 10월의 8色の姓, 동 14년(685) 정월의 관위48계의 시행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또한 동 12

皇 : 아메미코토히라카스와케노스메라미코토)²의 친동생[同母弟]³이다. 어린 시절에는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 ; 오호시아마노미코)라 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용모가 훌륭하였으며, 장년에 이르러서는 용감하고 무예가 뛰어났다⁴. 또한 천문, 둔갑술⁵에 능하였다. 천명개별천황의 딸 토야황녀(菟野皇女 ; 우노노히메미코)⁶를 맞이하여 정비로 삼았다. 천명개별천황 원년⁷에 동궁(東宮)이 되었다⁸.

년(683) 10월부터 동 14년(685) 10월에 걸친 쿠니(國)의 영역확정(令制國의 성립)을 시행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종교정책에서는 伊勢신궁을 중심으로 하는 神祇제사의 정비, 官大寺를 진화국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불교통제의 강화도 꾀하였다. 생전에는 아직 미완이었으나 율령편찬(681년 2월), 修史(동년 3월)사업에 착수해 마침내 「飛鳥淨御原令」과 『日本書紀』로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을 모방한 都城의 건설을 계획해 마침내 持統代에 藤原京에 천도하였다. 686년에 봉어진 후, 大内陵에 묻혔다.

天武紀 상권의 소개 및 구성을 보면, 권28은 제40대 천무천황 즉위전기와 원년기(壬申의 亂)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임신의 난의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난에 관한 기사의 소개가 된 것은 『釋日本紀』 所引 私記에 인용된 和邇部臣君 手記, 調連淡海 일기, 安斗宿禰智德 일기 등 임신의 난 때에 종군한 舍人の 手記나 大伴氏の 家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천황의 동정, 近江·伊賀 방면의 전투에 관한 기사는 전자, 大和에서의 전투에 관한 것은 후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소재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 권의 기사는 동일한 사건의 중복도 있고 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 2 天智天皇을 말한다.
- 3 아버지는 舒明 천황이고 어머니는 寶皇女, 즉 皇極=齊明天황이다.
- 4 원문은 神武라 되어 있다.
- 5 점성술의 일종이다.
- 6 훗날의 지통천황이다.
- 7 천지천황 稱制 7년, 즉 668년이다.
- 8 동궁은 황태자를 말한다. 대해인황자의 입태자에 대해 『日本書紀』의 천무즉위전기에서 천지칭제 7년에 입태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천지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해인황자를 東宮大皇弟(8년 10월조), 東宮太皇弟(10년 정월조), 東宮(10년 10월조), 太子(10년 5월조)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천지 즉위와 함께 입태자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대해인황자 立太子 기사는 천무천황의 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日本書

4년⁹ 겨울 10월 경진(17일)에 천황이 와병으로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소하 신안마려(蘇賀臣安麻侶; 소가노오미야스마로)를 보내 동궁을 불러 대전에 들게 하였다. 안마려(安摩侶; 야스마로)¹⁰는 평소 동궁과 사이가 좋았다. 그리하여 몰래 동궁을 염려하여 “조심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동궁은 이로써 무언가 숨겨진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처신하였다. 천황은 동궁에게 대업¹¹을 맡도록 칙(勅)을 내렸다. 그러자 동궁이 사양하며 “저는 불행히도 원래 병이 많습니다. 어찌 능히 사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천하를 황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대우황자(大友皇子; 오토모노미코)¹²를 세워 황태자¹³로 삼으십시오¹⁴. 저는 오늘 출가하여 폐하를 위하여 공

紀』 편자에 의한 추기이며 실제로는 정식으로 황태자가 된 적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9 천지천황 10년인 671년이다.

10 인명의 한자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앞에서는 麻자를 쓰고 있으나 여기서는 摩로 되어 있다.

11 원문은 鴻業이다.

12 대우황자에 대해서는 천지천황 7년 2월조 참조.

13 원문은 儲君이다.

14 대우황자의 입태자나 즉위에 대해 『日本書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懷風藻』에는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前田家本 『西宮記』 裏書を 비롯해 平安 시대 이후의 몇 가지 사료는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 우선 대우황자는 천지천황의 사후에 즉위하였고 『日本書紀』도 원래는 임신의 난을 대우천황기 속에 편성하고 있었으나, 『日本書紀』 편자인 舍人親王이 아버지 천무천황에게 황위 찬탈자로서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대우황자의 즉위 사실을 삭제하고 천무천황기에 편입했다고 하는 주장이 일찍이 江戸시대 『大日本史』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明治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황자에게 弘文천황이라 追諡하여 역대 천황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사인친왕의 곡필이라 할 만한 근거는 박약하고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두 平安 중기 이후의 후대의 사료라는 점이 이 설의 약점이다. 이에 대해 明治 이후는 천지천황의 황후 倭姫가 즉위했다고 하는 설, 혹은 倭姫가 칭제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설들은 본문 및 천지천황 10년 10월조에 대해인황자가 스스로 황위를 사양하여 천지의 황후인 倭姫에게 尊업을 내려주고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할 것을 주상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대해인황자가 吉野에 들어간 후 그것이 실현되

덕을 쌓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날로 동궁은 출가하여 법복을 입었다. 그리고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병기(兵器)를 모아서 모두 관사에 반납하였다. 임오(19일)에 길야궁(吉野宮; 요시노노미야)¹⁵으로 들어갔다. 이때 좌대신(左大臣) 소하적형신(蘇賀赤兄臣; 소가노아카에노오미), 우대신(右大臣) 중신금련(中臣金連; 나카토미노카네노무라지) 및 대납언(大納言)¹⁶ 소하과안신(蘇賀果安臣; 소가노하타야스노오미) 등이 배웅하여, 토도(菟道; 우지)¹⁷에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범에게 날개를 달아 놓아주었다.”고 말하였다¹⁸. 이 날 저녁 동궁은 도궁(嶋宮; 시마노미야)¹⁹으로 들어갔다. 계미(20일)에 길야(吉野; 요시노)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때 사인(舍人)들을 불러 모아 “나는 지금부터 임도 수행하려 한다. 나를 따라 수도하려는 자는 남아라. 만일 조정을 섬겨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돌아가서 벼슬을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물러가는 자가 없었다. 다시 사인들을 모아 이전과 같이 조(詔)²⁰를 내렸다. 이로써 사인들이

있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설들도 전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는 대우황자가 정식으로 즉위한 적은 없으나 사실상 근강조정의 주인이며 천황으로서의 대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해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 15 吉野宮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년의 발굴조사에 의해 吉野郡 吉野町 宮瀧의 吉野川 우안 대지상에 7세기 후반의 건물, 정원 유적이 출토되어 유력한 후보지가 되고 있다. 길야궁에 대해서는 齊明天皇 2년 시세조 참조.
- 16 어사대부에 해당된다. 천지천황 10년 정월 계묘조 참조.
- 17 京都府 宇治市이다.
- 18 강한 자에게 더한 힘을 주어 결국 더욱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 19 현재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島藏에 있던 離宮이다. 蘇我馬子の 저택(추고천황 34년 5월조) 자리에 만들어져 천무조에는 草壁황자의 궁전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황극천황의 모 吉備姫王이 吉備島皇祖母命, 서명천황의 모 糠手姫황녀가 島皇祖母命으로 불린 것은 모두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아울러 持統天皇 4년 3월조에 도궁의 稻를 경기 내의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사했다고 보이며, 大化 2년 3월 19일에 “官司處處屯田及吉備島皇祖母處貸稻”를 그만둘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궁의 장원적 경영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은 남았고 반은 물러갔다.

12월에 천명개별천황이 죽었다(崩).

원년 봄 3월 임진삭(壬辰朔) 기유(18일)에 조정은 내소칠위(內小七位)²¹ 아담련도부(阿曇連稻敷; 아즈미노무라지이나시키)를 축자(筑紫; 츠쿠시)에 보내어 천황의 상을 곽무중(郭務棕) 등에게 고하게 하였다. 그러자 곽무중 등이 모두 상복을 입고 세 번 애도의 예²²를 행하였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머리를 깊이 숙이고 절을 하였다. 임자(21일)에 곽무중 일행은 두 번 절하고 황제의 국서를 담은 서함(書函)과 신물(信物)을 올렸다.

여름 5월 신묘삭(辛卯朔) 임인(12일)에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곽무중 등에게 내려주었다. 이 날 곽무중 등에게 내려준 물건은 모두 거친 비단²³ 1,673필, 삼베²⁴ 2,852단, 명주솜²⁵ 666근이다. 무오(28일)에 고구려²⁶가 전부(前部) 부가변(富加抃)²⁷ 등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경신(30일)에 곽무중 일행이

20 詔란 천황의 명령을 말한다. 후문의 천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대해인이 아직 천황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나 천황 취급을 하고 있다.

21 천무 원년에는 천지 3년제의 위계(천지천황 3년 2월조)가 행해지고 있어서 七位라는 위계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천지 3년제의 위계를 후의 大寶令制의 위계에 맞추어 소산위를 小七位로 바꾸어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소산위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內란 內位에 관한 것을 말하며, 천지 3년제에 최초부터 내위, 외위의 구별이 있었는지 혹은 천무조의 수정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내위, 외위의 구별은 아마도 씨성의 준비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22 사람이 죽었을 때 소리를 내어 슬픔을 표하는 예의 일종이다.

23 원문은 絁인데, 후토키누 또는 아시기누라고 읽는다. 즉 굵고 거칠게 짠 비단을 의미한다.

24 원문은 布이다.

25 원문은 綿이다.

26 원문은 高麗이다.

27 귀국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 달에 박정련웅군(朴井連雄君; 에노위노무라지위키미)이 천황²⁸에게 “신이 사스러운 일이 있어 혼자서 미농(美濃; 미노)에 갔습니다. 그때에 조정²⁹이 미농(美濃), 미장(尾張; 위하리) 양 국사(國司)에게 명령하여 ‘산릉(山陵)³⁰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인부를 징발해 지정하여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에게 각각 무기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이는 산릉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큰일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서둘러 피하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위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어떤 사람이 “근강경(近江京; 아후미노미야코)³¹에서 왜경(倭京; 아마토노미야코)³²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척후를 두었습니다. 또한 토도교(菟道橋; 우지바시)³³를 지키는 경비병[守橋]에게 명하여 황대제(皇大弟)³⁴궁의 사인(舍人)³⁵이 사사로이 식

28 여기서는 천무천황을 말한다. 천무천황의 실제 즉위는 672년이나 『日本書紀』는 즉위한 대해인황자에 대해 모두 천황으로 표기하고 있다.

29 大友皇子를 옹립한 近江조정을 말한다.

30 천지천황의 산릉이다.

31 近江 大津宮을 중심으로 京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나 서쪽에는 산, 동쪽에는 거대한 비파호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평지는 좁고 긴 지형이었기 때문에 條坊을 갖춘 경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32 倭都라고도 하는데, 倭京이라는 명칭은 『日本書紀』 효덕천황 백치 4년 시세조, 천지천황 6년 8월조에 보이며, 倭都라는 용어는 백치 5년 정월조 등에 보이고 있다. 대체로 6세기 말 이후의 주로 아스카 지방에 있던 궁도를 의미한다.

33 宇治川에 걸쳐있는 다리로 현존하는 宇治橋斷碑에 의하면 효덕천황 大化 2년(646)에 道登이 건립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속일본기』 문무천황 4년 3월조의 道照의 沒傳에는 도조가 백치 4년(653)에 입당해 귀국 후에 건설했다고 나온다.

34 대해인황자이다.

35 율령제에서는 舍人이 관인조직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 무렵에는 아직 천황, 황족의 사적인 근시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대해인황자의 사인은 임신의 난에서는 황자의 명에 따라 커다란 활약을 했다.

량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시키라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꺼림칙하여 은밀히 조사해보니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짐이 황위를 양보하고 은둔한 것은 오로지 병을 다스리고 몸을 온전히 하여 길이 수명을 다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 화를 입게 되었다. 어찌 가만히 앉아 몸을 망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6월 신유삭 임오(22일)에 촌국련남의(村國連男依; 무라쿠니노무라지위요리)³⁶ · 화이부신군수(和珥部臣君手; 와니베노오미키미테)³⁷ · 신모군광(身毛君廣; 무게츠키미히로)³⁸에게 “지금 근강조정(近江朝廷; 아후미노미카도)의 신하들이 짐을 해하려 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그대들 세 사람은 급히 미농국(美濃國; 미노노쿠니)³⁹으

36 村國連은 美濃國 各務郡(지금의 岐阜縣 各務原市)의 호족이다. 男依는 雄依 혹은 小依라고도 칭하는데, 후에 근강 방면의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천무천황 5년 7월에 몰하여 外小紫位를 추증받았다. 大寶 원년 7월, 功封 120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傳封하도록 정해졌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志我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 원년 12월에는 임신년의 공전 10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中功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延喜式』 神名式 미농국 각무군에 村國神社 2좌, 村國眞墨田神社가 있으며, 『和名類聚抄』 동군에 村國郷이 있다.

37 和珥部는 丸部臣 혹은 和爾部臣이라고도 하며, 和珥部臣은 和珥씨의 부민인 和珥部の 造씨족이다. 후에 근강방면의 전투에서 활약하였는데, 『속일본기』 소인 私記가 인용한 ‘和爾部臣君手記’는 이 임신의 난의 수기이다. 和珥部臣君手는 文武天皇 원년 9월 勤大壹로 죽었으며 直廣壹位가 추증되었다. 大寶 원년 7월, 功封 80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靈龜 원년 4월에는 그 자식 大石에게 賜田, 天平寶字 원년 12월, 임신년의 공전 8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中功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고 있다(『續日本紀』).

38 身毛君은 身毛津, 牟義, 牟宜都 등으로 표기되며 大碓命이 시조라 전하는 美濃國 武義郡(지금의 岐阜縣 武義郡·美濃市)의 호족이다. 『釋日本紀』 소인 『上宮記』에는 武義郡國造라 보이며, 大寶 2년 御野國 加毛郡 半布里 호적에는 牟義君族弓爾志賣가 보인다. 身毛君廣은 大寶 원년 7월, 功封 80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하도록 하였다(『續日本紀』).

39 현재 岐阜縣 남부 지역이다.

로 가서 안팔마군(安八磨郡; 아하치마노코호리)⁴⁰의 탕목령(湯沐令)⁴¹인 다신품치(多臣品治; 오호노오미호무치)⁴²에게 그곳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그 군의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라. 그리고 국사(國司; 쿠니노미코토모치)들을 만나 군사를 일으켜 속히 불파도(不破道; 후하노미치)⁴³를 막도록 하라. 짐은 지금 길을 나설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갑신(24일)에 동쪽⁴⁴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근강의 군신(群臣; 마에즈키미타치)은 평소부터 모해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천하를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통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군사도 없이 맨손으로 동쪽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신은 일이 그르칠까 걱정됩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그 말에 따라 남의(男依; 위요리) 등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분군혜척(大分君惠尺; 오호키다노키미웨사카)⁴⁵, 황서조대반(黃書造大伴; 키후미노미야

40 美濃國의 군명으로 대보 2년의 호적에는 味蜂間郡,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는 安八郡이라 보인다. 濃尾평야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大垣市, 安八郡 墨俣町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41 탕목은 中宮, 東宮에 지급하는 식봉의 일종이다. 令은 이를 관장하는 관인이다.

42 多臣氏は 천무천황 13년에 朝臣姓이 되었고, 品治는 지통천황 10년 8월, 처음부터 종군한 공로와 관문을 잘 지킨 점이 칭송되어 直廣壹位를 수여받고 물건을 하사 받았다. 아울러 그에 관해서는 蔣敷의 아들로 『古事記』를 편찬한 安麻呂의 아버지라고 하는 전승도 있다.

43 현재 岐阜縣 不破郡을 통과하는 도로로 近江·美濃 양국의 국경에 해당하며 畿内에서 東國으로 향하는 要路의 하나이다. 임신의 난 당시에 이 지역에 실제로 關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44 여기서의 동해도는 伊賀 이동, 동산도는 美濃 이동을 가리킨다. 대화 원년 8월에 국사가 파견된 東國보다는 넓은 지역을 말한다.

45 大分君은 豐後國 大分郡(지금의 大分縣 大分郡·大分市)에 기반을 둔 호족으로 『日本書紀』 神武紀에 神八井耳命을 그 조상으로 한다고 전하고 있다. 大分君惠尺은 大和에서 近江으로 향하여 大津皇子를 따라 鈴鹿關에서 大海人皇子 일행과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4년 6월에 죽었으며, 임신의 난 때 활약한 동족으로는 稚臣이 있다.

츠코오호토모)⁴⁶, 봉신지마(逢臣志摩; 아후노오미시마)⁴⁷를 유수사(留守司)⁴⁸ 고판왕(高坂王; 타카사카노오호키미)에게 보내어 역령(驛鈴)⁴⁹을 내놓게 하였다⁵⁰. 이에 혜척(惠尺) 등에게 “만일 역령(驛鈴)을 얻지 못하면 지마(志摩)를 돌려보내 복명하게 하라. 혜척은 말을 달려 근강으로 가 고시황자(高市皇子; 타케치노미코)⁵¹와 대진황자(大津皇子; 오호츠노미코)⁵²를 불러 이세(伊勢; 이세)에서 나와 만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혜척 등이 유수사에 가서 동궁의 명을 말하며 고판

46 黃書造씨는 山城國 久世郡(지금의 京都府 久世郡·宇治市)을 본거로 한 도래계 씨족으로 천무천황 12년 9월에連성이 되었다. 大伴은 和銅 3년 10월 정5위상으로 죽었으며, 임신의 난의 공에 의해 정4위하를 추증받았다. 대보 원년 7월, 功封 1백 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봉하도록 정해졌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梗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원년 12월, 임신년의 공전 8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중공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新撰姓氏錄』 山城國 諸蕃에 黃文連이 실려 있는데, 「出自高麗國人久斯祁王也.」라 보인다.

47 逢臣志摩는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逢臣讚岐라는 인물도 보이고 있으나 양자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48 飛鳥의 古京을 수비하는 官司를 말한다.

49 개신지조 및 율령제의 규정에 의하면 驛馬, 傳馬 등을 두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령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율령제에서는 『養老令』 公式令 給驛傳馬條 및 諸國給鈴條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50 역령은 역마를 이용할 때 휴대할 필요가 있는 징표인데, 여기서는 村國男依 등을 급히 美濃國에서 불러들이기 위해 역마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대해인황자의 행동은 최초부터 면밀히 계획된 것으로 역령을 요청했던 것도 황자 자신이 미농으로 급행하기 위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51 천무천황의 황자이다. 高市황자는 續殖의 山口에서 일행과 합류하였고, 후에 전군의 통수를 위임받아 활약하였다. 持統천황 10년 7월에 죽었으며, 『만엽집』에 노래(156-158번)가 있다.

52 『회풍조』에는 천무천황의 장자라고 적고 있다. 대해인 황자의 거병 소식을 듣고 近江을 탈출, 鈴鹿에서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12년 2월에 朝政을 관람하고 동 14년 정월에 淨大貳의 관위를 받고, 朱鳥 원년 9월 천무천황이 죽을 무렵 황태자의 모반으로 10월에 체포되어 賜死하였다. 『만엽집』에 노래(107, 109, 416, 1512번)가 있다. 부인은 천지천황의 황녀인 山邊황녀이다.

왕에게 역령을 내줄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척은 근강으로 갔다. 지마는 돌아와 “역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날에 길을 떠나 동국(東國; 아즈마노쿠니)으로 들어갔다. 일이 급하여 말[駕]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현견양련대반(縣犬養連大伴; 아가타이누카히노무라지오호토모)⁵³의 안장을 갖춘 말⁵⁴을 만나 그것을 탔다. 그리고 황후⁵⁵는 가마를 타고 따라갔다. 진진천(津振川; 츠후리카와)⁵⁶에 이르러 비로소 말[車駕]⁵⁷이 도착하자 탔다. 이때에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은 초벽황자(草壁皇子; 쿠사카베노미코)⁵⁸, 인벽황자(忍壁皇子; 오사카베노미코)⁵⁹ 및 사인(舍人) 박정련우군, 현견양련대반, 좌백련대목(佐伯連大目; 사헤키노무라지오호메)⁶⁰, 대반련우국(大伴連友國; 오호토모노무라지토모쿠니)⁶¹, 치앵부신오백뢰(稚櫻

53 縣犬養連大伴은 천무천황 13년(684) 12월에 宿禰성을 받았다. 大寶 원년(701) 정월 直廣壹로 죽어 正廣參位를 추증받았다. 동년 7월에는 天武朝 때 받은 功封 1백 호가 中功으로 인정되어 4분의 1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54 鞍馬이다.

55 대해인황자의 비인 菟野皇녀로 훗날 천무천황의 황후가 되었고, 천무천황의 사후 즉위하여 지통천황이 되었다. 천무를 천황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황후라 하고 있다.

56 吉野郡과 宇陀郡의 경계인 關戸 고개 부근을 기점으로 宮瀧에서 약 3.5km 하류에서 吉野川에 합류하는 津風呂川으로 추측된다.

57 車駕는 황제가 타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대해인황자가 타는 말을 의미한다.

58 천무천황과 지통천황 사이에 태어난 황자이다. 천지천황 원년(지통칭제전기)에 출생하였고, 천무천황 10년 2월에 황태자가 되었으나 지통천황 3년 4월에 몰하였다. 『만엽집』에 노래(110)가 있다.

59 忍坂部, 刑部라고도 한다. 慶雲 2년 5월에 죽었다(『속일본기』). 『日本書紀』 천무천황 10년 3월조에 帝紀 및 上古諸事の記定에 참여하고 있으며, 후에 大寶律令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60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성을 사성받았고 지통천황 5년 9월에 죽어 直大貳位를 추증받았다. 이후 大寶 원년 7월에 중공으로 인정되어 功封 80호의 4분의 1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部臣五百瀬；와카사쿠라베노오미이호세)⁶², 서수근마려(書首根摩呂；후미노오비토네마로)⁶³, 서직지덕(書直智德；후미노아타히치토코)⁶⁴, 산배직소림(山背直小林；야마시로노아타히위야야시)⁶⁵, 산배부소전(山背部小田；야마시로베노위다)⁶⁶, 안두련지덕(安斗連智德；아토노무라지치토코)⁶⁷, 조수담해(調首淡海；츠키노오비토아후미)⁶⁸ 등 20

- 61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성을 받았고 지통천황 6년 4월에 죽어 直大貳位를 추증 받았다.
- 62 稚櫻部臣에 대해서는 『日本書紀』履中천황 3년 11월조에 그 유래에 대한 說話가 있다. 『新撰姓氏錄』右京 皇別에서 若櫻部朝臣이 阿倍朝臣과 동족이며 大彥命의 孫 伊波我牟都加利命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성을 사성받았다. 五百瀬는 후에(6월 26일) 土師馬手와 함께 東山の 군사를 일으키는 사자가 되었고, 지통천황 10년 9월에 죽었다. 처음부터 중군한 공으로 直大壹位가 추증되었고, 大寶 원년 7월, 中功으로 인정되어 功封 80호의 4분의 1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속일본기』).
- 63 書首씨는 왕인의 후예라 전해지며 河內國 古市郡을 본거로 한 도래계 씨족이다. 옛날에는 문서·기록의 일에 종사했으며 倭漢書直과 함께 東西史部로 並稱되었다. 根摩呂는 根麻呂·尼麻呂·禰麻呂라고도 쓴다. 후에 村國男依와 함께 근강방면의 전투에 활약하였고, 천무천황 12년에 連, 14년에 忌寸성을 받았으며 慶雲 4년 10월에 종4위하로 죽었다. 임신년의 공에 의해 정4위상을 추증(『속일본기』)받았다. 奈良縣 宇陀郡 榛原町 출토의 묘지에는 「壬申年將軍左衛土府督正四位上文禰麻呂忌寸. 慶雲四年歲次丁未九月廿一日 卒」이라 보인다. 大寶 원년 7월, 功封 1백 호를 중공으로 인정받아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馬養에게 賜田, 天平寶字 원년 12월에는 임신년의 공전 8町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중공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 64 천무천황 10년 12월에 小錦下の 위를 수여받고 連성을 사성받았다. 물년은 미상이나 『속일본기』에 贈直大壹이라 보이고 있어서 천무천황 14년 이후일 것이다. 大寶 원년 7월, 功封 1백 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봉하도록 정해졌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塩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 원년 12월, 임신년의 공전 8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중공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 65 山背直小林에 대해서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山背直은 山背國造로 선조는 天津日子根命이다. 천무천황 12년에 連성, 동 14년 忌寸성이 되었다. 『新撰姓氏錄』山城國 神別에서 山背忌寸이 天都比古禰命의 아들 天麻比止都禰命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
- 66 『속일본기』에는 山代小田이라 보인다. 후에(6월 병술조) 安斗阿加布와 함께 東海의 군사를 일으키는 사자가 되었고, 文武천황 2년 12월에 直廣肆의 위를 추증받았다.

여 명, 여유(女孺; 메노와라하)⁶⁹ 10여 명이었다. 그날로 토전(菟田; 우다)의 오성(吾城; 아키)⁷⁰에 도착하였다. 이후 대반련마래전(大伴連馬來田; 오호토모노무라지마쿠타)⁷¹과 황서조대반(黃書造大伴; 키후미노미야츠코오호토모)이 길야궁에서 쫓아와 합류하였다. 이때 둔전사(屯田司)⁷²의 사인인 토사련마수(土師連馬手; 하지노무라지우마테)⁷³는 천황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감라촌(甘羅村; 카무라노무라)⁷⁴을 지나는데 사냥꾼 20여 명이 있었다. 대반박본련대국(大

67 安斗連은 物部씨 계통의 씨족으로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성이 되었다. 智德은 和銅 원년 정월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昇叙되고 있다. 『釋日本紀』 所引 私記가 인용한 ‘安斗宿禰智德日記’는 임신의 난의 手記이다. 『新撰姓氏錄』 左京·山城國의 신벌에서 阿刀宿禰가 石上朝臣과 同祖라고 적고 있다.

68 백제계의 도래씨족으로 후에 連을 사성받았다. 『新撰姓氏錄』 左京 諸蕃에서 調連이 「水海連同祖, 百濟國努理使主之後也. 譽田天皇御世, 歸化, (중략) 弘計天皇御世, 蛭織獻絶絹之樣, 仍賜調首姓」이라고 적고 있다. 調首淡海는 이후 정5위상으로 승진, 神龜 4년 11월에는 고령으로 祿을 받았다(『속일본기』). 『만엽집』에 그가 지은 노래(55번)가 실려 있으며, 『釋日本紀』 所引 私記에는 임신의 난에 참여한 그의 일기인 ‘調連淡海日記’가 인용되어 있다.

69 후궁에서 근무하는 하급 女官이다.

70 현재 奈良縣 宇陀郡 大宇陀町 阿紀神社 부근이다. 『만엽집』의 柿本人麻呂의 노래(45, 46번)에 ‘安騎’, ‘阿騎’로 표기되고 있다.

71 6월 병술조(26일)에 의하면 馬來田과 吹負 형제는 시세를 잘 파악하여 대해인 황자가 거병하자 쫓아와 합류하고 있다. 천무천황 12년 6월에 죽었고, 임신년의 공적과 선조 등의 공으로 인해 大紫位를 추증받았다. 후에 공봉 1백 호를 中功으로 인정받아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봉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72 屯田은 대화전대의 屯倉의 계보를 따는 야마토 왕권의 직할령이다. 宇陀郡에 둔창이 있었다는 사료는 없으나 大宇陀町의 동쪽 菟田野町에 大宇見田이 있다. 사인인 土師馬手는 대해인의 사인이라는 설과 야마토 조정에서 파견되어 屯田司의 잡무를 담당하던 하급관인으로 보는 설이 있다.

73 후에(26일) 稚櫻部臣五百瀬와 함께 東山の 군사를 일으키는 사자가 되었고,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성을 하사 받았으며, 和銅 4년 2월에 종4위하로 죽었다.

74 그 위치에 대해서는 大宇陀町의 神樂岡설과 그보다 더 북쪽에 해당하는 大宇陀町 口今井字설이 있다.

伴朴本連大國；오호토모노에노모토노무라지오호쿠니)이 엽사의 수령이었다. 곧 모두 불러 따르게 하였다. 또 미농왕(美濃王；미노노오호키미)⁷⁵을 불렀더니 곧 와서 따랐다. 또한 탕목(湯沐)⁷⁶의 쌀을 운반하는 이세국(伊勢國；이세노쿠니)⁷⁷의 짐을 실는 말(駄) 50필을 토전군(菟田郡；우다노코호리)의 군가(郡家)⁷⁸ 근처에서 만났다. 그래서 쌀을 모두 버리고 걷는 사람을 타도록 하였다. 대야(大野；오호노)⁷⁹에 도착하자 해가 저물어 산이 어두워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집의 울타리를 부수어서 불을 밝혔다. 한밤중이 되어 은군(隱郡；나바리노코호리)⁸⁰에 도착하여, 은(隱；나바리)의 역가(驛家)⁸¹를 불살랐다. 그리고 마을에서 큰 소리로 “천황이 동국으로 가신다. 그러니 인부들은 모두 모여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횡하(橫河；요코카하)⁸²에 도착하자 검은 구름이 끼었다. 넓이는 10여 장(丈)으로 하늘을 뒤덮었다. 이때 천황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촛불을 밝히고 친히 식(式)⁸³을 잡고서 점을 치고 “천하가 양분될 징조다. 그러나 짐이 결국 천하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
- 75 미농왕에 대해서는 천무천황 2년 12월 무술조에 小紫美濃王이라 보이고 있다. 제왕 가운데 소자위는 상당히 고위이며, 이는 임신의 난의 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76 탕목은 중국이나 동궁에게 지급되는 식봉의 일종이며, 탕목령은 탕목의 땅을 지배하고 과세의 수납을 행하는 관리자이다. 여기서는 대해인에 속하는 탕목을 말하고 있다.
- 77 여기서의 탕목을 이세국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나 安八磨의 탕목에서 나온 쌀을 이세에 이르러 이세국의 駝로 옮겨 실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78 郡家は 군의 관청으로 지금의 奈良縣 宇陀郡 榛原町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79 宇陀郡 室生村 大野 지역으로 宇陀川과 室生川이 합류하는 곳이다.
- 80 名張郡과 같다. 伊賀國의 서남부에 해당하며 나바리군은 현재의 三重縣 名張市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81 驛家は 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令制에서는 30리(약 16km)마다 설치되어 大路 20필, 中路 10필, 小路 5필의 말을 두었다(厩牧令).
- 82 横川은 현재의 미에현 나바리시에 위치한 것으로 名張川과 宇陀川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여겨지는데, 대화개신 당시 기내의 동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 83 式이라고도 하며 길흉을 점치는 음양도의 도구이다.

래서 급히 행진하여 이하군(伊賀郡; 이가노코호리)⁸⁴에 이르러 이하(伊賀; 이가) 역가를 불태웠다. 이하군의 중산(中山; 나카야마)⁸⁵에 이르니 그 지역의 군사(郡司)들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따랐다. 동틀 무렵에 자츄야(荻萩野; 타라노)⁸⁶에 도착해 잠시 내려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적식(積殖; 츠무웨)⁸⁷의 산 입구에 도착해 녹심(鹿深; 카후카)⁸⁸에서 넘어온 고시항자와 만났다. 또한 민직대화(民直大火; 타미노아타히오호히)⁸⁹, 적염조덕족(赤染造德足; 아카소메노미야츠코토코타리)⁹⁰, 대장직광우(大藏直廣隅; 오호쿠라노아타히히로스미)⁹¹, 판상직국마려(坂上直國麻呂; 사카노우에노아타히쿠니마로)⁹², 고시흑마려(古市黒麻呂; 후루이치노쿠로마로)⁹³, 죽전대덕(竹田大德; 타케다노다이토쿠)⁹⁴, 담향와신안배(膽香瓦臣安倍; 이

84 伊賀國의 군명으로 지금의 미에현 나가군의 동반부에 위치한다.

85 구체적인 소재지는 불명이다.

86 구체적인 소재지는 불명이다.

87 阿山郡 伊賀町 지역으로 『和名類聚抄』 伊賀國 阿拜(아헤)군에 拓殖郷이 있다.

88 近江國 甲賀郡 지역이다. 『日本書紀』 敏達天皇 13년 2월조에 鹿深臣이 보이는데 이 지역과 관련된 씨족일 것이다.

89 民直씨는 大和國 高市郡에 거주하는 倭漢氏 계통의 도래계 씨족으로 후에 忌寸姓이 되었다. 大火는 대보 3년 7월에 죽었는데, 임신년의 공으로 정5위하를 추증받았다(『속일본기』).

90 德足은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赤染造씨는 염색을 행한 赤染部の 伴造 씨족으로 후에 常世連의 姓을 수여받았다(『속일본기』). 『新撰姓氏錄』 좌경·우경·河內國 諸蕃에 常世連이 실려 있는데 그 출자를 燕國王 公孫淵이라 하고 있다.

91 廣隅는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大藏直은 倭漢氏가 수많은 씨족으로 나뉘진 것 가운데 하나로 大化개신 이전에 야마토 왕권의 大藏을 관장한 씨족이다. 후에 忌寸姓이 되었고, 延暦 4년 坂上·內藏 등 倭漢씨의 동족과 함께 宿禰성을 받고 있다.

92 坂上直國麻呂는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坂上直씨는 大和에 거주하는 도래계 씨족이다.

93 古市黒麻呂는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古市씨는 河內國 古市郡에 본거를 가진 씨족으로 생각되며 『新撰姓氏錄』 河內國 諸蕃에 古市村主가 실려 있는데 그 출자를 「百濟國 虎王也..」라 하고 있다.

94 竹田大德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新撰姓氏錄』 左京 皇別에 竹田臣이 실려 있는데 阿倍朝臣과 동조, 大彥命의 아들 武渟川別命의 후손이라 한다. 또 左京 神別

카고노오미야헤)⁹⁵가 따라왔다. 대산(大山; 오호야마)⁹⁶을 넘어서 이세(伊勢)의 영록(鈴鹿; 스즈카)⁹⁷에 이르렀다. 이에 국사(國司)의 장관[守]⁹⁸인 삼택련석상(三宅連石床; 미야케노무라지이하토코)⁹⁹, 차관 삼륜군자수(三輪君子首; 미와노키미코비토) 및 탕목령 전중신족마려(田中臣足麻呂; 타나카노오미타리마로)¹⁰⁰, 고전수신가(高田首新家; 타카타노오비토니히노미)¹⁰¹ 등이 영록군(鈴鹿郡)¹⁰²에 와서 만났다. 또 군사 5백 명을 동원하여 영록산도(鈴鹿山道; 스즈카노야마미치)¹⁰³를 막았다. 천

에 竹田連이 실려 있는데 神魂命의 13세손인 八束脛命의 후손이라 한다.

- 95 近江國 伊香郡과 관계가 있는 씨족으로 보이며, 膳香瓦臣安倍는 후에(6월 24일) 村國男依 등과 함께 不破에서 近江으로 진공하고 있다.
- 96 伊賀와 伊勢의 국경을 이루는 산으로 스즈카(鈴鹿) 산맥과 布引 산지의 鞍部를 넘는 고갯길이 있는데 이를 소위 가태월(加太越)이라 한다.
- 97 伊勢國의 鈴鹿郡이다.
- 98 令制의 國司의 관직은 4등관으로 가미(守), 스케(介), 조, 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관을 가미라 한다. 다만, 여기에 守, 介라 되어 있는 것은 영제에 입각한 수식이며 원래는 頭, 助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하에 보이는 가미, 스케 그리고 탕목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세국의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세국에 대해인의 탕목이 있었다는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 99 천무천황 9년 7월에 사망한다. 三宅連씨는 『新撰姓氏錄』 右京 제번, 攝津國 제번에 新羅國王子 天日杵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 100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성을 하사 받았고, 直廣壹位에 추증되었다.
- 101 高田首는 『新撰姓氏錄』 右京 제번에 高麗國人多高子使主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高田首新家は 美濃國에 있는 대해인의 탕목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데(『속일본기』 天平寶字 7년 11월 정유조), 그는 천무천황 14년 10월에 信濃에 사신으로 파견되고 있으며, 大寶 원년 7월에 죽어 종5위상을 추증받았다. 慶雲 원년 7월 功封 40호의 4분의 1을 자식인 首名에게 전봉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 102 군가의 소재지는 三重縣 鈴鹿郡 關町 加太 지역이다.
- 103 平安시대 이후의 鈴鹿越은 滋賀縣 甲賀郡 土山町에서 三重縣 鈴鹿郡 關町에 이르는 것인데 大和, 難波에 수도가 있었던 무렵은 三重縣 阿山郡 伊賀町 拓植에서 關町에 이르는 加太越이 관도였다. 鈴鹿은 不破와 함께 기내에서 동국에 이르는 要路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해인왕자는 이 양도를 재빨리 장악함으로써 이후의 군사행동을 유리하게 진행하였다.

곡(川曲; 카하와)¹⁰⁴의 언덕 아래에 이르자 해가 저물었다. 황후가 피곤해하므로 잠시 가마를 멈추고 쉬었다. 그런데 밤하늘이 흐려져 비가 오려고 하였다. 오래 설 수가 없어서 출발하였다. 그러자 추워지고 번개가 내리치며 비가 몹시 왔다. 천황을 따르는 종자¹⁰⁵들의 의복이 젖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삼중군(三重郡; 미헤노코호리)의 군가(郡家)¹⁰⁶에 이르러 가옥 한 채를 불태워 차가운 몸을 녹였다. 이 날 밤중에 영록관사(鈴鹿關司; 스즈카노세키노즈카사)¹⁰⁷가 사자를 보내어 “산부왕(山部王; 야마베노오호키미), 석천왕(石川王; 이시카와노오호키미)이 같이 와서 귀순하려 합니다. 그래서 관(關)에 머물도록 해 두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곧 노직익인(路直益人; 미치노아타히마스히토)¹⁰⁸을 보내 그들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병술(26일) 아침에 조명군(朝明郡; 아사케노코호리)¹⁰⁹의 적태천(迹太川; 토호카하)¹¹⁰ 천변에서 천조태신(天照太神;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¹¹¹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하였다. 이때에 (노직)익인(益人; 마스히토)이

104 이세국 하곡군(河曲郡)으로 鈴鹿시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05 원문은 從駕者이다.

106 三重郡은 四日市市の 대부분과 三重郡 남부지역으로 군가의 소재지는 鈴鹿市 采女라는 설이 있으나 川曲의 언덕 아래와는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107 軍防令 置關조에는 3관(이세의 鈴鹿, 미노의 不破, 에치젠의 愛發)은 국사가 분담하여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鈴鹿關의 소재지는 鈴鹿郡 關町の 古廐이다. 다만 임신의 난 당시의 鈴鹿에 關이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설이 있다.

108 路直씨는 倭漢直씨의 분파로 山木直을 그 조상으로 하는데, 후에 忌寸, 이어 宿禰성을 하사 받았다.

109 四日市市 북부와 三重郡 菰野町 북쪽 및 朝日町, 川越町으로 구성되어 있다.

110 현재 朝明川이다.

111 임신의 난과 이세신궁의 관련성에 대해 『만엽집』 199번 노래에 보이는 高市황자의 殯宮 시에 柿本人麻呂가 지은 만가에 임신의 난 때에 이세신궁의 神風이 대해인황자를 가 호했다고 전하고 있다. 神宮의 협력은 천무천황 2년 4월 大來황녀를 齋宮으로 삼는 등 난후의 天武조정과 신궁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고, 皇祖神으로서의 이세신궁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와서 “관에 머물도록 해둔 사람은 산부왕과 석천왕이 아니라 대진황자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익인을 따라와서 뵈었다. 대분군혜척(大分君惠尺), 난파길사삼강(難波吉士三綱; 나니하노키시미즈나), 구전승인인(駒田勝忍人; 코마다 노스구리오시히토), 산변군안마려(山邊君安摩呂; 야마노헤노키미야스마로), 소간전저수(小壘田猪手; 워하리타노위테), 니부저지(泥部砥枳; 하츠카시베노시키)¹¹², 대분군치신(大分君稚臣; 오호키다노키미와카미), 근련금신(根連金身; 네노무라지카네미), 칠부우배(漆部友背; 누리베노토모세) 등이 따랐다. 천황이 크게 기뻐하였다. 군가(郡家)에 도착하기 직전에 남의(男依; 워요리)가 역마를 타고 와서 “미농(美濃)의 군사 3천 명을 일으켜 불파도(不破道)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천황이 웅의(雄依; 워요리)¹¹³가 임무를 다한 것을 칭찬하고 군가(郡家)에 도착하자 우선 고시황자를 불파(不破; 후하)로 보내어 군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배부소전, 안두련아가포(安斗連阿加布; 아토노무라지아카후)를 보내 동해(東海)¹¹⁴의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다¹¹⁵. 또 치앵부신오백뢰, 토사련마수를 보내 동산(東山)¹¹⁶의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 날 천황은 상명군(桑名郡; 쿠하 나노코호리)의 군가(郡家)¹¹⁷에서 머물면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근강조정(近江朝廷)¹¹⁸에서는 대황제(大皇弟)¹¹⁹가 동국으로 들어갔다는

112 泥部는 진흙으로 기와 등을 제작하는 部를 말한다.

113 앞에서 나오는 男依(오요리)와 동일인물이나 인명표기가 다르다.

114 동해도에 속한 여러 지역을 말한다.

115 동해도의 병사 징발과 관련해서는 『安斗智德日記』(『釋日本紀』 소인 私記)에는 「信濃(동산도)의 병을 징발한다.」고 보이고, 이어서 甲斐(동해도)의 勇者에 관한 내용도 보이고 있다.

116 동산도에 속한 여러 지역을 말한다.

117 桑名郡은 이세국 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현재의 桑名市 대부분과 桑名郡 多度町, 長島町, 木曾岬町에 상당한다. 군가의 소재지는 미상이다.

118 近江조정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調連淡海, 安斗宿禰智德 등의 일기(『釋日本紀』 소인 私

말을 듣고 군신이 모두 두려워하여 경내(京內)가 소란하였다. 혹은 도망쳐 동국으로 들어가려 하고, 혹은 물리나서 산택(山澤)에 숨으려 하였다. 이에 대우황자(大友皇子)는 군신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하 한 사람이 나아가 “서둘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급히 용맹하고 날쌔 기병[驍騎]¹²⁰을 모아 뒤를 쫓아 추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황자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나공반초(韋那公磐楯; 위나노키미이하스키), 서직약(書直藥; 후미노아타히쿠스리), 인판직대마려(忍坂直大摩侶; 오시사카노아타히오호마로)를 동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수적신백족(穗積臣百足; 호즈미노오미모모타리), 그 아우 오백지(五百枝; 이호에), 물부수일향(物部首日向; 모노노베노오비토히무카)¹²¹을 왜경(倭京; 야마토노미야코)¹²²으로, 좌백련남(佐伯連男; 사헤키노무라지유토코)을 축자에 보내고 장사주반수(杼使主杼手; 쿠스노오미이하테)를 길비국(吉備國; 키비노쿠니)¹²³에 보내 모두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다¹²⁴. 그리하여 (좌백련)남(男)과 (장사주)반수에게 “축자대재(筑紫大宰; 츠크시노오호미코

記)에는 천황이 황자의 보고를 받은 뒤 唐人(당시 美濃國에 있던 당군의 포로로 보인다)에게 이러한 경우의 전술에 대해 의견을 들었는데, 그 결과 개탄했다고 보이고 있다.

119 대해인황자를 말한다. 앞에서는 대해인황자를 ‘天皇’이라 기술했으나 여기서는 大皇弟라 하고 있다.

120 『후한서』 권53 寶憲傳에 “驍騎三萬, 元戎輕武”라고 보인다.

121 物部首씨는 物部連과는 별개의 씨족이다. 『日本書紀』 垂仁천황 39년조 一云에 春日臣族名市河가 物部首의 시조라 전한다. 천무천황 12년에 連성이 되었고, 동 13년 布留宿禰가 된 것으로 보인다. 『新撰姓氏錄』 攝津國 皇別에 物部首가 보이는데 大春日朝臣과 동조이며, 또 大和國 皇別 布留宿禰조에도 柿本朝臣과 동조로 天足彥國押人命의 7세손인 米餅搗大使主命의 후손이라는 소전이 보이고 있다.

122 飛鳥京을 말한다.

123 훗날의 美作, 備前, 備中, 備後의 4국에 해당된다.

124 이하의 내용은 반드시 이 날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에 걸친 사항을 여기에 일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토모치)¹²⁵ 율외왕(栗隈王 ; 쿠루쿠마노오호키미)¹²⁶과 길비국수(吉備國守 ; 키비노쿠니노카미)¹²⁷ 당마공광도(當摩公廣嶋 ; 타기마노키미히로시마) 두 사람은 원래 대황제(大皇弟) 편에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배반하는 일이 있을까 의심이 든다. 만일 복종하지 않을 것 같은 기색을 보이면 즉시 죽여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반수는 길비국에 가서 명령서¹²⁸를 건네는 날 광도(廣嶋)를 속여서 칼을 벗어놓게 하고 곧 칼을 뽑아서 그를 죽였다. 남(男)은 축자에 갔다. 이때 율외왕은 명령서를 받고서 “축자국은 원래 외적의 침입을 막는 곳이다. 무릇 성을 높이 하고 도랑을 깊게 하여 바다를 향해 수비하는 것이 어찌 나라 안의 역적 때문이겠는가. 지금 명에 따라 군사를 일으키면 나라가 비게 될 것이다. 만일 뜻밖에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일거에 나라가 기운다. 그런 후에 신을 백 번 죽인다 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찌 감히 (천황의) 덕을 배반하겠는가¹²⁹.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에 율외왕의 두 아들 삼야왕(三野王 ; 미노노오호키미)¹³⁰과 무가왕(武家王 ; 타케이에노오호키미)¹³¹이 칼을 차고 옆에 서서 물러가지 않았다. 이에 (좌백련)남(男)은 칼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졌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동쪽으로 파견된 역사(驛使) (위나공)반초(磐鉞 ; 이하스키) 등이 불파(不破)에 들어가려 할 때, 반초는 산속에 군

125 서해도(구주지역)를 총괄하는 大宰府의 장관이다. 推古紀 17년 4월조 참조.

126 敏達천황의 子 難波황자의 아들이자 橘諸兄의 조부에 해당한다. 천지기 7년 7월조 참조.

127 뒤에서는 吉備大宰라고 보이고, 『속일본기』 문무천황 4년 10월조에는 吉備摠領이라 보이고 있다.

128 원문은 官符이다. 符는 상급관사에서 하급관사로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公式令』 符式조).

129 천황의 명령을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130 彌努王, 美努王, 美努王 등으로도 표기하며 葛城王(橘諸兄) 등의 아버지이다. 和銅 원년 5월에 죽었다.

131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뒤에서 천천히 갔다. 그때에 복병이 산에서 나와 (서적)약 등의 뒤를 끊었다. 반초가 이를 보고 약 등이 잡힌 것을 알고 몸을 돌이켜 도망쳐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대반련마래전과 아우 취부(吹負; 후케히)는 사정이 불리한 것을 알고 병을 핑계 삼아 왜(倭)에 있는 집으로 물러갔다. 그리고 황위를 잇는 것은 반드시 길야(吉野)에 있는 대황제(大皇帝) 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래전이 먼저 천황에게 귀순하였다. 다만 취부만이 남아 일시에 이름을 날리고 곤란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동족 및 무용이 뛰어난 사람¹³²들을 불러 모았지만 겨우 수십 인을 얻었다. 정해(27일)에 고시황자는 상명군의 군가(郡家)에 사자를 보내어 “계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무를 보는 데 불편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아뢰었다. 그날로 천황이 황후를 두고 불파로 들어갔다. 군가(郡家)에 이를 즈음 미장국사(尾張國司; 워하리노쿠니노미코토모치)의 장관 소자부련서구(小子部連鋤鉤; 치히사코베노무라지사히치)¹³³가 2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귀순하였다. 천황이 이를 칭찬하고 그 군사를 나누어 군데군데의 길을 막았다. 야상(野上; 노가미)¹³⁴에 이르렀을 때 고시황자가 화잠(和蹇; 와자미)¹³⁵에서 마중나와서 “어젯밤에 근강조정¹³⁶에서 파견한 역마가 달려왔습니다. 그

132 원문은 豪傑이다.

133 『新撰姓氏錄』左京 皇別에 小子部宿禰, 和泉國 皇別에서 小子部連이 多朝臣과 동조이며 神八井耳命의 후손이라고 한다. 『日本書紀』 웅락천황 6년 3월에 천황이 후비의 양잠을 위해 누에를 모으도록 했는데, 실수로 어린아이를 모아 왔기 때문에 小子部連의 성을 하사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新撰姓氏錄』 좌경 皇別에도 같은 전승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은 부화된 것이고 실제로는 侏儒를 이끄는 伴造로 생각된다. 천무천황 13년에 宿禰를 사성받았다.

134 岐阜縣 不破郡 關原町の 동부로 『和名類聚抄』에 美濃國 不破郡 野上郷이 보인다.

135 현재 세키가하라 일대의 지역으로 不破關은 그 서단, 野上은 그 동단에 위치하고 있다.

136 원문은 近江朝이다.

래서 복병을 시켜 잡아보니 서직약과 인판직대마려였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길야에 계시는 대황제를 추격하기 위해 동국의 군사를 일으키려고 보낸 위나공반초 휘하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반초는 복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곧 도망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천황이 고시황자에게 “근강조정에는 좌우대신 및 지모(智謀) 있는 여러 신들이 같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지금 짐에게는 더불어 계획할 사람이 없다. 다만 어린아이가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황자는 팔뚝을 걷어 올리고 칼을 꽂 쥐고서 “근강조정¹³⁷의 군신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천황의 영위(靈威)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천황이 혼자 계신다고 하지만 신(臣) 고시가 천신지기¹³⁸의 영위에 의지하여 천황의 명을 받들어 장수들을 이끌고 정벌하려 합니다. 어찌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천황이 칭찬하고 그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조심하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안장을 놓은 말을 하사하고 군사를 모두 맡겼다. 황자는 화잠으로 돌아갔다. 천황은 여기서 야상(野上; 노가미)으로 행궁¹³⁹을 옮겼다. 이 날 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가 몹시 내렸다. 천황이 빌며 “천신지기(天神地祇)시여, 짐을 도우시려거든 번개치고 비 내리는 것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곧 번개와 비가 멎었다. 무자(28일)에 천황이 화잠으로 가서 군사를 검열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기축(29일)에 천황이 화잠으로 가서 고시황자에게 명하여 군사를 호령하게 하였다. 천황이 다시 야상으로 돌아왔다. 이 날에 대반련취부(大伴連吹負)가 유수사 판상직웅모(坂上直熊毛; 사카노우헤노아타히쿠마케)와 몰래 의논하여 한두 사람의 한직(漢直; 아야노아타히)

137 원문은 近江이다.

138 원문은 神祇이다.

139 이곳이 野上行宮이다. 장소는 關ヶ原가 내려다보이는 桃配山の 위라는 설과 거주지로서 적합한 野上の 집락지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들에게 “내가 거짓으로 고시황자라고 칭하여 수십 기를 거느리고 비조사(飛鳥寺 ; 아스카데라)¹⁴⁰의 북로¹⁴¹로 나가 적의 진영과 대치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에 대응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미 군사를 백제(百濟 ; 쿠다라)¹⁴²에 있는 집에 준비해두고 남문에서 나왔다. 먼저 진조웅(秦造熊 ; 하타노미야츠코쿠마)¹⁴³에게 들보(犢鼻)만 착용한 상태로 말을 타고 달려가 절 서쪽의 진영¹⁴⁴을 향해 “고시황자가 불파에서 오신다. 군사가 많이 따라온다.”고 소리쳐 외치게 하였다. 이때 유수사 고평왕과 징병을 맡은 사자 수적신백족 등이 비조사의 서쪽 느티나무[槻] 밑¹⁴⁵에 진영을 치고 있었다. 다만 백족만은 소간전(小墾田 ; 워하리다)¹⁴⁶의 무기고에 남아서 무기를 근강으로 운반하였다. 이때 영내의 군사들이 웅(熊)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도망쳤다. 거기에 대반련취부가 수십 기를 거느리고 갑자기 습격해 오자 웅모 및 여러 직(直)들¹⁴⁷이 그와 연합하였고¹⁴⁸ 군사들도 이를 따랐다. 그리고 고시황자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수적신

140 法興寺=元興寺를 말한다. 『日本書紀』 崇峻천황 즉위전기조 참조.

141 飛鳥寺 북쪽에서 서쪽 방면으로 통하는 中道, 혹은 飛鳥寺 북쪽 백 수십 미터 지점에서 동서로 통하는 山田道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42 현재의 奈良縣 내의 飛鳥寺와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북 내지 동북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는 (1)奈良縣 北葛城郡 廣陵町 百濟설, (2)天香具山(橿原市) 西麓의 百濟설, (3)櫻井市 吉備의 百濟大寺跡 주변설 등이 있다. 모두 飛鳥古京을 공격하는 거점으로서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1)의 경우는 飛鳥寺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거리상으로 좀 멀다는 생각이 든다.

143 秦造씨에 대해서는 應神천황 14년 시세조 참조.

144 飛鳥寺 서쪽에 飛鳥川을 사이에 두고 약간의 평지가 있는데, 이곳에 임시 병영을 마련하고 징집한 병사들의 숙소로 삼았던 것이다.

145 『日本書紀』 皇極천황 3년 정월조에 「法興寺의 槻樹」라 보인다.

146 후보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飛鳥川の 左岸에 위치하는 明日香村 大字豐浦의 북방인 小字古宮 주변설, (2)飛鳥寺의 우안으로 古宮 동쪽의 雷丘 동쪽에 위치한 大字雷설이다. 아울러 양자 모두를 포함해 小墾田이라 칭했을 것이라는 이해도 있다.

147 東漢氏의 제족을 말하고 있다.

백족을 소간전의 무기고에서 불러냈다. 그러자 백족은 말을 타고 천천히 와서 비조사의 서쪽 느티나무 밑에 다다랐다. 어떤 사람이 “말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나 백족은 지체하며 말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 하나가 맞았다. 그래서 칼을 뽑아 베어 죽였다. 또한 수적신오백지(穗積臣五百枝)와 물부수일향을 붙잡았지만 잠시 후 이들을 용서하여 군중에 두었다. 또 고판왕과 치협왕(稚狹王; 와카사노오호키미)을 불러 종군시켰다. 잠시 후 대반련안마려(大伴連安麻呂; 오호토모노무라지야스마로)¹⁴⁹, 판상직로(坂上直老; 사카노우에노아타히오키나), 좌미군숙나마려(佐味君宿那麻呂; 사미노키미스쿠나마로) 등을 불파궁(不破宮)¹⁵⁰에 보내 일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천황이 크게 기뻐하여 취부를 장군¹⁵¹에 임명하였다. 이때 삼륜군고시마려(三輪君高市麻呂; 미와노키미타케치마로)¹⁵², 압무군하이(鴨茂君蝦夷; 카모노키미에미시)¹⁵³ 등과 무력이 뛰어난 많은 사람¹⁵⁴들이 노도처럼 모두 장군의 휘하에 모여 근강을 공격할 것을 논의하였다. 군사 가운데 특히 용맹하고 뛰어난

148 원문은 「連和」이다. 이는 『漢書』 高后紀 등에 보이는 말로 連和和睦의 뜻이다.

149 大伴連安麻呂는 천무천황 13년(684)에 宿禰성이 되었고 式部卿 參議 兵部卿 大宰府의 帥 등을 역임하였으며, 和銅 7년 5월 大納言 겸 大將軍 정3위로 죽었는데 후에 종2위를 追贈받았다. 長德의 여섯째 아들로 旅人, 田主, 坂上郎女の 아버지이다.

150 野上の 행궁을 말한다.

151 동년 7월 9일조에 倭京將軍이라 보인다. 令制에서는 군단의 병사수가 3천 명 이상일 경우 將軍을 두고 있다(『軍防令』).

152 利金の 아들이다. 이후 大和의 箸陵에서 近江軍을 무찌르고 있다. 천무천황 13년 朝臣 성이 되었고 朱鳥 원년 9월에는 천무천황의 빈궁에서 理官의 일을 弔詞하였다. 持統천황 6년 中納言이었을 때는 천황의 이세행궁을 농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간언하였다. 그 후 長門國의 장관(守)이 되었으며 慶雲 3년 2월 左京大夫 종4위상으로 죽었다. 임신년의 공으로 종3위에 추증되었다.

153 大和國 葛城지방의 호족으로 천무천황 13년에 朝臣성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大和國 神別에 賀茂朝臣이 보이는데 大神朝臣과 동조로 大國主神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154 원문은 豪傑이라 되어 있다.

자¹⁵⁵를 뽑아 별장(別將)¹⁵⁶ 및 군감(軍監)¹⁵⁷으로 삼았다. 경인(1일)¹⁵⁸에 먼저 내락(乃樂; 나라)¹⁵⁹으로 향하였다.

가을 7월 경인삭 신묘(2일)에 천황이 기신아폐마려(紀臣阿閉麻呂; 키노오미아헤마로), 다신평치, 삼륜군자수, 치시련토(置始連菟; 오키소메노무라지우사기)¹⁶⁰를 보내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세(伊勢)의 대산(大山; 오호야마)¹⁶¹을 거쳐 왜(倭; 야마토)로 향하게 하였다. 또 촌국련남의, 서수근마려(書首根麻呂; 후미노오비토네마로), 화이부신군수, 담향와신안배를 보내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불파를 출발해 곧바로 근강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군사가 근강의 군사와 분별하기 어려울까봐 붉은 형겔을 옷 위에 달게 하였다¹⁶². 그런 다음에 따로 다

155 원문은 英俊으로 되어 있다. 『회남자』 泰族訓에 英俊豪傑이라 보인다.

156 부장, 별동대의 장을 말한다.

157 『養老令』 軍防令에는 장군 아래에 부장군, 軍監, 軍曹, 錄事가 있으며, 『令義解』의 注에는 軍曹와 錄事를 大主典, 小主典이라 하고 있다. 군조는 판관, 즉 군대조직의 佐官에 해당한다.

158 7월 1일이다.

159 현재의 나라시이며, 大和와 山背의 국경에 해당하는 乃樂(那羅)山을 점거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160 宇佐伎라고도 하며 大伴吹負를 구원하기 위해 야마토로 급행, 후에 箸陵 부근에서 근강군을 격퇴하고 있다. 그의 구체적인 물년은 알 수 없으나, 『속일본기』에 贈小錦上이라 보이기 때문에 천무천황 14년 이전으로 보인다. 靈龜 2년 4월 그 아들인 虫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 원년 12월에는 임신년의 功田 5町을 선조가 정한 대로 中功으로 하고 2세에게 전하게 하였다.

161 천무천황 원년 6월조의 주 참조.

162 大海人皇子가 적색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만엽집』 199 柿本人麻呂의 노래 중 임신의 난에 관한 노래에 보이고 있으며, 『古事記』 서문에 천무천황의 功業을 기록하여 「絳旗耀兵, 凶徒瓦解」라 한 것처럼 大海人황자 편의 군은 깃발에도 적색을 사용한 듯하다. 한나라 高祖는 赤帝의 자손이라 자부하여 기치에 모두 적색을 사용했다고 『한서』 高帝紀에 보이는데, 이를 통해 천무천황이 스스로를 한의 고조에 비유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신평치에게 명하여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추야(荻萩野; 타라노)¹⁶³에 주둔하게 하였으며, 전중신족마려를 보내 창력도(倉歷道; 쿠라후노미치)¹⁶⁴를 지키게 하였다. 그때 근강(조정)에서는 산부왕(山部王; 야마베노오호키미), 소하신과안(蘇賀臣果安; 소가노오미하타야스), 거세신비등(巨勢臣比等; 코세노오미히토)에게 명하여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불파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사가 견상천(犬上川; 이누카미노카와)¹⁶⁵의 냇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산부왕이 소하신과안, 거세신비등에게 피살되었다. 이 반란 때문에 진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소하신과안은 견상(犬上; 이누카미)에서 돌아와 스스로 목을 찢어 자살하였다. 이때에 근강의 장군 우전공시국(羽田公矢國; 하타노키미야쿠니)과 그 아들 대인(大人; 우시) 등이 그 일족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래서 부월(斧鉞)¹⁶⁶을 주어서 장군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북월(北越; 키타노카타코시)¹⁶⁷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앞서 근강조정에서 정병(精兵)을 내보내 갑자기 옥창부읍(玉倉部邑; 타마쿠라베노무라)¹⁶⁸을 쳤으므로 출운신박(出雲臣狛; 이즈모노오미코마)을 보내어 격퇴하였다. 임진(3일)에 장군 취부가 내락산(乃樂山; 나라야마)¹⁶⁹ 위에 주둔하

163 近江國 甲賀郡의 多羅尾로 보는 설과 阿山郡 佐那具(三重縣 上野市 동북부) 부근설이 있다.

164 『和名類聚抄』에 近江國 甲賀郡 藏部가 보이며, 三重縣 阿山郡 伊賀町 북부 上拓植의 甲賀郡과 가까운 곳에 倉部라는 집락이 있다. 이곳에서 甲賀郡을 거쳐 비파호 동쪽의 평야에 이르는 길이 倉歷道였을 것이다.

165 鈴鹿山脈에서 발원하여 滋賀縣 犬上郡 多賀町, 甲良町의 경계를 지나 彦根시의 시가지를 남서로 흘러 琵琶湖로 들어가는 강이다.

166 정벌군의 대장에게 내린 주살권을 인정한다는 표시이다. 여기서는 단지 장군으로 삼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67 近江 북쪽의 越 지방을 말하며, 北陸道에서 若狹를 제외한 지역을 총칭해서 越이라 한다. 越 지방이 前, 中, 後의 3越로 나뉘는 것은 천무조 혹은 지통조 이후의 일이다.

168 滋賀縣 坂田郡 米原町 醒井으로 보는 설과 岐阜縣 不破郡 關原町 玉으로 보는 설이 있다.

169 주 159 참조.

였다. 그때 황전미직적마려(荒田尾直赤麻呂 ; 아라타워노아타히아카마로)가 장군에게 “고경(古京 ; 후루키미야코)¹⁷⁰은 원래 우리의 본거지입니다.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장군이 이에 따라 적마려, 기부수자인(忌部首子人 ; 이미베노오비토코비토)을 보내 고경을 지키게 하였다. 적마려 등은 고경으로 가서 도로의 다리 판자를 뜯어서 방패를 만들어 왕경 주변의 거리에 세우고 지켰다. 계사(4일)에 장군 취부는 근강의 장군 대야군과안(大野君果安 ; 오호노노키미하타야스)과 내락산에서 싸웠는데, 과안에게 패하여 군졸이 모두 다 도망쳤다. 장군 취부는 겨우 몸만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에 과안이 추격하여 팔구(八口 ; 야쿠치)¹⁷¹에 이르러 높은 곳에서 왕경을 보니 거리마다 방패가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복병이 있지 않나 의심하여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갑오(5일)에 근강의 별장(別將) 전변소우(田邊小隅 ; 타나헤노워스미)가 녹심산(鹿深山 ; 카후카노야마)을 넘어 깃발을 감고 북을 안고서 창력(倉歷 ; 쿠라후)¹⁷²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밤중에 입에 매(梅)를 물고 성을 열고 갑자기 영내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자신의 병졸과 족마려(足摩侶 ; 타리마로)의 군사를 구별하기 어려움을 우려하여 병사들끼리는 서로 “금(金)”이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칼을 빼고 칠 때에 “금”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를 베었다. 그러자 족마려의 군사가 모두 전열이 흩어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만 족마려만이 이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혼자 “금”이라고 말하여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을미(6일)에 소우(小隅 ; 워스미)가 나아가 자추야의 진영을 습격하려고 신속하게 왔다. 그러자 장군 다신포치가 이를 가로막고 정병을 보내 추격하였다. 소우는 혼자 화를 면하여 도망쳤다. 이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병신(7일)

170 아스카경을 말한다.

171 구체적으로 미상이나, 櫻井市 山田 부근으로 추측된다.

172 주 164 참조.

에 남의(男依) 등이 근강군과 식장(息長; 오키나가)¹⁷³의 횡하(橫河; 요코가하)¹⁷⁴에서 싸워서 이를 물리치고, 그쪽 장군 경부련약(境部連藥; 사카히베노무라지쿠스리)을 베었다. 무술(9일)에 남의 등이 근강의 장군 진우족(秦友足; 하다노토모타리)과 조롱산(鳥籠山; 토코노야마)¹⁷⁵에서 싸워 그를 베었다. 이 날에 동도장군(東道將軍)¹⁷⁶ 기신아페마려 등은 왜경(倭京)의 장군 대반련취부가 근강군에게 패한 것을 듣고 군사를 나누어 치시련토(置始連菟; 오키소메노무라지우스기)를 보내어 천여 기를 이끌고 신속하게 왜경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임인(13일)에 남의 등이 안하(安河; 야스노카하)¹⁷⁷의 강변에서 싸워 근강군을 대파하였다. 이때 사호신대구(社戸臣大口; 코소헤노오미오호쿠치)¹⁷⁸, 토사련천도(土師連千嶋; 하지노무라지치시마)를 생포하였다. 병오(17일)에 울태(栗太; 쿠루모토)¹⁷⁹의 군사를 추격하였다. 신해(22일)에 남의 등이 뇌전(瀬田; 세타)¹⁸⁰에 이르렀다. 그때 대우황자 및 군신들이 같이 다리 서쪽에 주둔하여 크게 진영을 이루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군대의 기치가 들을 덮었고 먼지가 하늘

173 坂田郡 남부로 현재의 彦根시 북동부와 米原町, 山東町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174 『延喜式』 兵部省에 보이는 横川驛에 해당하며 현재의 山東町 梓河内 또는 米原町 醒井 부근이다.

175 坂田郡과 犬上郡의 경계를 이루는 구릉으로 『延喜式』 兵部省에 보이는 鳥籠驛에 해당된다.

176 伊勢에서 鈴鹿를 넘어 大和로 향하는 당시의 東海道を 진군하는 장군이다.

177 野洲川으로, 甲賀郡과 野洲郡을 관통해 현재의 守山市에서 琵琶湖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178 阿倍씨와 동족이며, 『日本書紀』 효덕천황 大化 원년 9월조에 阿倍渠曾倍臣이 보인다. 『新撰姓氏錄』 좌경 황벌에는 許曾倍朝臣이 보이며, 阿倍朝臣과 동조로 大彥命의 후손이라 한다.

179 栗本이라고도 하며, 瀬田川 동쪽에서 琵琶湖 남부 東岸에 걸친 군으로 현재의 大津市 일부와 草津市 및 栗太郡으로 구성되어 있다.

180 大津市 瀬田町 지역이다.

에 다다랐다. 북과 징소리가 수십 리에 이르기까지 들렸다. 줄을 세워 활을 마구 쏘니 마치 화살이 비 오듯 내렸다¹⁸¹. 근강 쪽의 장군 지존(智尊; 치손)¹⁸²은 정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막았다. 다리 가운데를 세 장(丈)쯤 절단하고 긴 널 판자를 하나 놓았다. 만일 판자를 밟고 건너려는 자가 있으면 판자를 끌어당겨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더 진격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용감한 전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대분군치신(大分君稚臣; 오호키다노키미와카미)¹⁸³이라고 하였다. 그는 장창을 버리고 갑옷을 겹쳐 입고 칼을 뽑고 재빨리 판자를 밟고 건너갔다. 그리고는 판자를 묶었던 줄을 끊고 화살을 맞아가면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군사들이 혼란되어 모두 도망가고 누구도 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다. 이때 장군 지존이 칼을 뽑아 퇴각하는 자를 베었다. 그래도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지존은 다리 근처에서 참살당하였다. 대우황자와 좌우대신¹⁸⁴들은 겨우 몸을 피해서 도망쳤다. 남의 등은 곧바로 속진강(粟津岡; 아하즈노워카)¹⁸⁵ 기슭에 군사를 집결시켰다. 이 날 우전공시국과 출운신박이 합세하여 같이 삼미성(三尾城; 미워노키)¹⁸⁶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임자(23일)에 남의 등이 근강의 장군 전양련오십군(犬養連五十君; 이누카히노무라지이키미)과 곡직염수(谷直塩手; 타니노아타히시호테)를 속진시(粟津市; 아하즈노이치)¹⁸⁷에서 베었다. 이로써 대우황

181 여기서 묘사된 전투에 대한 표현은 『後漢書』光武帝紀의 문장에 의한 작문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万葉集』 권2, 高市황자의 빈궁에서 柿本人麻呂가 지은 長歌 참조.

182 근강 진영의 장군이다.

183 천무천황 8년 3월조에 임신년의 공으로 小錦上의 관위를 추증받고 있다.

184 당시의 좌대신은 蘇我赤兄, 우대신은 中臣金이다. 천지천황 10년 정월조 참조.

185 粟津은 琵琶湖 최남단에 있는 瀬田川 하구의 西岸 지역으로 현재의 大津市 膳所町の 일부에 해당된다.

186 琵琶湖의 서안으로 高島郡 安曇川町 三尾里 지역이다.

187 고대의 市(시장)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고 있었다. 『日本書紀』 민달천황 14년 3월조에 그 유례가 보인다.

자는 도망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돌아가 산전(山前; 야마사키)¹⁸⁸에 숨어 스스로 목을 매었다. 그때 좌우의 대신 및 군신은 모두 흩어져 도망쳤다. 다만 물부련마려(物部連麻呂; 모노노베노무라지마로)¹⁸⁹와 한두 명의 사인만이 따랐다.

처음에 장군 취부가 내락(乃樂)으로 가기 위해 패전(稗田; 히에다)¹⁹⁰에 이른 날 어떤 사람이 “하내(河内; 카와치)에서 군사들이 많이 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판본신재(坂本臣財; 사카모토노오미타카라), 장미직진묵(長尾直眞墨; 나가위노아타히마스미), 창장직마려(倉場直麻呂; 쿠라카키노아타히마로), 민직소유(民直小鮪; 타미노아타히위시비), 곡직근마려(谷直根麻呂; 타니노아타히네마로)를 보내어 3백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전(龍田; 타츠타)¹⁹¹에서 막게 하였다. 또 좌미군소마려(佐味君少麻呂; 사미노키미스쿠나마로)를 보내 수백 인을 거느리고 대판(大坂; 오호사카)¹⁹²에 주둔하게 하였다. 그리고 압군하이(鴨君蝦夷; 카모노키미에미시)¹⁹³를 보내 수백 인을 거느리고 석수도(石手道; 이하테노미치)¹⁹⁴를 지키게 하였다.

이 날에 판본신재 등이 평석야(平石野; 히라시노노)¹⁹⁵에서 야영하였다. 그때

188 山前の 비정에 대해서는 (1)近江國 滋賀郡의 長等山(滋賀縣 大津市 三井寺)이라는 설, (2)河内國 茨田郡 三矢村 山崎(大阪府 枚方市 三矢)라는 설, (3)河内國 交野郡 郡門(大阪府 北河内郡 交野町 郡津)이라는 설, (4)山城國 山崎(京都府 乙訓郡 大山崎村)라는 설 등이 병립하고 있다. 뒤의 7월 22일조에 보이는 내용과 관련해 생각하면 지리적으로는 (4)설이 가장 개연성이 있다.

189 物部氏の 일족으로 처음에 連姓,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을 사성받았다. 후에 石上朝臣이 되었으며 筑紫總領, 中納言, 大宰帥, 右大臣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養老 元年 3월에 죽어 從1位를 추증 받았다.

190 현재의 奈良縣 大和郡 山市 稗田町이다.

191 현재의 奈良縣 生駒郡 斑鳩町이다.

192 二上山 북측의 고개를 넘어 大和와 河内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193 鴨君(甘茂君)은 大和國 葛城 지방의 호족이다. 천무천황 원년 6월조 참조.

194 二上山 남측의 고개를 넘는 竹内街道를 말한다.

195 龍田 부근의 들판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지역은 미상이다.

근강군이 고안성(高安城; 타카야스노키)¹⁹⁶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하였다. 근강군은 재(財) 등이 온 것을 알고 세창(稅倉)¹⁹⁷을 모두 불태우고 다 흩어져 도망쳤다. 그래서 성안에서 묵었다. 새벽에 서쪽을 바라보니 대진(大津; 오호츠), 단비(丹比; 타지히)의 두 길¹⁹⁸에서 군사가 많이 왔다. 깃발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떤 사람이 “근강군의 장군 일기사한국(壹伎史韓國; 이키노후비토카라쿠니)의 군사다.”라고 말하였다. 재(財) 등이 고안성(高安城)에서 내려와 위아하(衛我河; 에가노카하)¹⁹⁹를 건너 (일기사)한국(韓國)과 강의 서쪽에서 싸웠다. 재 등은 군사 수가 적어 방어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기신대음(紀臣大音; 키노오미오호토)을 보내어 구판도(懼坂道; 카시코노사카노미치)²⁰⁰를 지키게 하였다. 이에 재 등이 구판(懼坂)으로 물러가서 대음(大音)의 군영에 들어갔다. 이때 하내국사(河內國司; 카후치노쿠니노미코토모치) 장관 내목신염룡(來目臣塩籠; 쿠메노오미시호코)은 불파궁(不破宮)에 귀순하려는 마음이 있어 군병을 모았다. 여기에 한국이 와서 몰래 그 계획을 듣고 장차 염룡을 죽이려 하였다. 염룡은 일이 새어나간 것을 알고 곧 자살하였다. 하루가 지나자 근강군은 여러 길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취부의 군사는 이에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퇴각하였다.

이 날에²⁰¹ 장군 취부는 근강군에게 패하여 단지 한둘의 기마병을 이끌고 도망쳤다. 묵판(墨坂; 스미사카)²⁰²에 이르러 우연히 토(菟)의 군사가 와서 그들과

196 大和와 河内の 국경을 이루는 표고 488m의 高安山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이다.

197 원문은 稅倉이라 되어 있다.

198 河内평야의 남부를 약 1.9km 간격으로 長尾가도와 竹内가도가 나란히 평행하여 동서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전자를 大津道, 후자를 丹比道로 비정하고 있다.

199 餌香川이라고도 한다.

200 柏原市 田邊에서 奈良縣 香芝시로 넘어오는 도로의 하나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지역은 미상이다.

201 7월 4일의 일이다.

202 현재의 奈良縣 宇陀郡 榛原町이다.

만나자, 다시 돌아와 금강정(金綱井 ; 카나즈나노위)²⁰³에 주둔하여 흠어진 병졸을 불러 모았다. 그때 근강군이 대판도로 온다는 말을 듣고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갔다. 당마(當麻 ; 타기마)²⁰⁴의 거리에 이르러 일기사한국의 군사와 위지(葦池 ; 아시이케)²⁰⁵ 주위에서 싸웠다. 이때 내목(來目 ; 쿠메)이라는 용사가 있어 칼을 뽑아 급히 달려가서 바로 군중으로 돌입하였다. 기마병이 그 뒤를 따라 나아가자, 근강군이 모두 도망하였다. 이를 쫓아가 베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다. 그러자 장군이 군중에게 “무릇 병사를 일으키는 본의는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원흉 때문이다. 그러므로 헛되이 죽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한국은 군사들과 헤어져 혼자 도주하였다. 장군이 멀리서 보고 내목에게 활을 쏘게 하였다. 그러나 맞지 않아 결국 달아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장군이 다시 본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동국의 군사가 계속하여 많이 도착하였다. 그래서 군사를 나누어 각각 상도(上道), 중도(中道), 하도(下道)²⁰⁶에 각각 주둔시켰다. 다만 장군 취부는 친히 중도를 맡아 그곳에 있었다. 그때 근강의 장군 전양련오십군이 중도(中道)에서 나와서 촌옥(村屋 ; 무라야)에 주둔하여 별장 여정조경(廬井造鯨 ; 이호이노미야츠코쿠지라)을 보내 2백 명의 정병을 거느리고 장군의 진영을 치게 하였다. 그때 휘하의 군사가 적어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정사(大井寺 ; 오호위데라)²⁰⁷의 노(奴) 덕마려(德麻呂 ;

203 榎原市 小綱町으로 추정되나 불명이다.

204 현재의 北葛城郡 當麻町이며, 『和名類聚抄』에 葛下郡 當麻郷이 보인다.

205 구체적인 장소는 미상이나, 葛下郡 王寺村의 葦田池로 보는 설이 있다.

206 나라 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세 개의 도로를 말한다. 上道는 櫻井市 阿部에서 분지 東縁을 북상하여 天理市 柳本을 거쳐 別所 부근에 이른다. 中道는 高市郡 明日香村 飛鳥에서 天香具山을 넘어 田原本町 守屋, 奈良市 大安寺를 통과한다. 下道는 橿原市 大輕町 부근에서 북상, 동시 八木, 磯城郡 田原本町, 大和郡 山市 稗田을 거쳐 平城京 朱雀大路와 이어진다. 도로의 간격은 2.1km로 唐大尺 5척을 1보로 한 1천2백 보, 3백 보 1리의 4리에 상당한다.

토코마로) 등 5명이 종군하고 있었다. 덕마려 등은 선봉에 서서 앞으로 나가며 활을 쏘았으므로 경(鯨)의 군사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 날에²⁰⁸ 삼륜군고시마려와 치시런토는 상도(上道)를 맡아서 저릉(箸陵; 하 시노하카)에서 싸웠다. 크게 근강군을 쳐부수고 그 승리를 틈타서 경(鯨)의 군사 의 배후를 끊었다. 경의 군사는 모두 흩어져 도망쳤고 많은 사졸이 죽었다. 경 은 백마를 타고 도망하였다. 그런데 말이 진흙 논에 빠져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를 본 장군 취부는 갑비(甲斐; 카히)의 용사²⁰⁹에게 “저 백마를 타고 있는 자는 여정경이다. 빨리 쫓아가 쏘라.”고 말하였다. 이에 갑비의 용사가 말을 달려 쫓아가 경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경이 급히 말에게 채찍질을 하여 말 이 진흙에서 벗어나 달려 나가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 장군이 다시 본지로 돌아가 군을 정비하였다. 이후 다시는 근강군이 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²¹⁰ 금강정(金綱井)에 군사를 집결시켰을 때, 고시군(高市郡; 타케치 노코호리)²¹¹의 대령(大領)²¹² 고시현주허매(高市縣主許梅; 타케치노아가타누시코메)²¹³

207 天平 18년(746) 무렵의 「送書并請經勘檢繼文」에 「大井寺一切經目錄一卷」(正倉院文書)이라 보이며, 延久 2년(1070)의 興福寺 大和國 雜役免坪付帳(興福寺文書, 天理圖書館文書)에 大佛供莊 20町 가운데 大井寺의 田 2반(反)이 있으며, 그 소재는 城上郡 上 22條 5里 18坪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奈良縣 櫻井市 大福 부근에 해당한다. 아마도 절도 그 부근에 위치했을 것이다. 『磯城郡志』는 磯城郡 田原本町 藏戶, 守屋신사의 남쪽에 비정하고 있으며, 橿原市 十市町 字大井·北大井으로 보는 설도 있다.

208 7월 4일 이후의 어느 날의 일이다.

209 대해인 황자의 모병에 호응해 甲斐國(山梨縣)에서 온 勇者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나, 임신의 난 이전에 吹負의 지배하에 있던 甲斐 출신의 從者로 보는 견해도 있다.

210 7월 4일 또는 그 이후의 어느 날의 일이다.

211 奈良분지 남부에 소재하는 지역으로 그 郡域은 현재의 橿原市の 대부분, 大和 高田市の 동남부, 高市郡 明日香村·高町에 이른다.

212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군사(郡司)의 장관을 말한다.

213 허매에 대해서는 달리 기록이 없으나, 高市縣主는 『新撰姓氏錄』 우경 신별에 보이며, 천무천황 12년 10월에 連성을 하사받고 있다.

가 갑자기 입이 닫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3일 후에야 마침내 신이 내려 “나는 고시사(高市社; 타케치노야시로)²¹⁴에 머물고 있는 사대주신(事代主神; 코토시로누시노카미)이다. 또 신협사(身狹社; 무사노야시로)²¹⁵에 머물고 있는 생령신(生靈神; 이쿠미타마노카미)이라는 이름의 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신일본반여언천황(神日本磐餘彥天皇; 카무야마토이하레비코노스메라미코토)²¹⁶ 능(陵)²¹⁷에 말 및 여러 가지 무기를 바쳐라.”라고 신의(神意)를 나타내었다. 또 “나는 황어손명(皇御孫命; 스메미마노미코토)²¹⁸의 전후에 서서 불과로 모시고 돌아왔다. 지금도 역시 관군(官軍) 가운데 서서 수호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 “서쪽 길로 군사가 많이 오고 있다.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깨어났다. 이로 인해 곧 허매(許梅; 코메)를 보내어 어릉(御陵)²¹⁹에 제사지내고 말 및 무기를 바치게 하였다. 또 폐백을 바치고 고시와 신협 두 신사의 신을 제사지냈다. 그 후에 일기사한국이 대판에서 (쳐들어) 왔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두 신사의 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촌옥신(村屋神; 무라야노카미)이 축(祝; 하후리)²²⁰에게 내려앉아 “지금 우리 신사[社]의 중도(中道)²²¹로 많은 군사가 올 것이다. 그러니 신사의 중도를 막아라.”라고 말하

214 橿原市 高殿町에 위치한 신사로 『延喜式』 神名式の 大和國 高市郡에 高市御縣坐鴨事代主神社가 보인다.

215 橿原市 見瀬町에 위치한 신사로 『延喜式』 神名式の 大和國 高市郡에 牟佐坐神社가 보인다.

216 神武천황이다.

217 『日本書紀』 신무천황 76년 明年 9월조 참조.

218 제사시 천황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된다. 『儀制令』 天子條 참조.

219 神武天皇릉이다.

220 제사에 봉사하는 신관을 말한다.

221 高市郡 明日香村에서 奈良市 大安寺에 이르는 도로인데, 村屋神社를 통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였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정조경의 군사가 중도에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바로 신이 가르쳐준 말이 이것이구나.”라고 말하였다. 군정(軍政)이 다 끝나자 장군들이 이 세 신[三神]이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주청하였다. 그리하여 칙을 내려 세 신의 위계²²²를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신해(22일)에 장군 취부는 왜(야마토) 지역을 평정하고 대판(大坂; 오호사카)²²³을 넘어서 난파(難波; 나니하)로 갔다. 그 밖의 별장들은 각각 삼도로 나뉘어 진군하여 산전에 이르러 강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그때 장군 취부는 난파의 소군(小郡; 위코호리)²²⁴에 머물면서 서쪽 제국의 국사(國司)들에게 명하여 관약(官鑰)²²⁵과 역령(驛鈴)²²⁶, 전인(傳印)²²⁷을 바치게 하였다. 계축(24일)에 여러 장군들이 모두 소랑(篠浪; 사사나미)²²⁸[筱는 사사(佐佐)라고 읽는다.]에 모여 좌우대신 및 여러 죄인들을 수색하여 체포하였다. 을묘(26일)에 장군들이 불파궁²²⁹으로 가서 대우황자의 머리를 군영에 바쳤다.

8월 경신삭 갑신(25일)에 고시황자에게 명하여 근강의 군신들의 죄상을 아뢰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죄 8인을 극형에 처하였다. 또한 우대신 중신련금(中臣連金; 나카토미노무라지카네)을 천정(淺井; 아사이)의 전근(田根; 타네)에서 베었

222 원문은 품이다.

223 二上山 북측의 고개를 넘어 大和와 河内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224 소군은 효덕천황 대화 3년 시세조에 「壞小郡而營宮. 天皇處小郡宮而定禮法」이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조정의 迎賓 등 시설의 명칭으로 이해된다.

225 제국의 조세를 모아두는 창고인 正倉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병고의 열쇠를 말한다.

226 대화개신의 詔에 驛馬, 傳馬 등을 두고 鈴契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驛鈴이 필요하였다. 令制에서는 公式令 給驛傳馬조, 諸國給鈴조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227 傳馬를 징발할 때 필요한 印이다.

228 현재의 滋賀縣 大津市 서북 일대 지역이다.

229 野上行宮이다.

다. 이 날에 좌대신 소아신적형(蘇我臣赤兄; 소가노오미아카네), 대납언 거세신비등(巨勢臣比等; 코세노오미히토) 및 자손과 아울러 중신련금의 아들, 소아신과안(蘇我臣果安)의 아들을 모두 유형에 처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죄를 용서하였다. 이에 앞서 미장국사의 장관 소자부련서구(少子部連鋤鉤)는 산에 숨어 자살하였다. 천황이 “서구(鋤鉤)는 유공자다. 죄가 없는데 어찌 자살하겠는가. 여기에는 무언가 감추어진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병술(27일)에 여러 유공자들에게 은칙을 내리고 널리 그 공을 현창하고 은상을 주었다.

9월 기축삭 병신(8일)에 천황이 귀로에 올라 이세의 상명(桑名; 쿠하나)에서 묵었다. 정유(9일)에 영록(鈴鹿; 스즈카)에서 묵었다. 무술(10일)에 아폐(阿閉; 아헤)에서 묵었다. 기해(11일)에 명장(名張; 나바리)에서 묵었다. 경자(12일)에 왜경에 이르러 도궁(嶋宮; 시마노미야)²³⁰으로 들어갔다. 계묘(15일)에 도궁에서 강본궁(岡本宮; 워카모토노미야)²³¹으로 옮겼다.

이 해에 궁실을 강본궁 남쪽에 지었다. 그해 겨울에 그곳으로 옮겼다. 이를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²³²이라 한다.

겨울 11월 무자삭 신해(24일)에 신라의 사신²³³ 김압실(金押實) 등을 축자에

230 소재지는 현재의 明日香村 島藏 지역이다. ‘島’의 지명 유래는 蘇我馬子が 飛鳥川 근방에 있는 저택의 정원에 연못을 파고 섬을 만들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645년의 소아씨 본종가가 멸망한 후 천황가가 소유하여 離宮으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만엽집』에 ‘橘의 島宮’이라 보이고 있어서 飛鳥川の 좌안 지역도 포함하여 ‘島’라 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231 舒明天황과 齊明天황의 궁이다.

232 지통천황 8년(694)에 藤原宮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궁궐이며 공식적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은 朱鳥 원년(686) 7월이다. 淨御原宮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飛鳥의 구 飛鳥小學校 부근이 유력하였으나, 발굴조사에 의해 明日香村 大字岡의 전(傳) 板蓋宮跡地에서 각종 건물군, 유구 등이 출토되었고 또한 동남구획에서도 대형건물이 발견되어 이곳을 飛鳥原宮跡으로 이해하는 설이 유력하다.

233 원문은 客이다.

서 향응하였다. 그날에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12월 무오삭 신유(4일)에 여러 공훈이 있는 자를 뽑아 관위를 올려주었다. 아울러 소산위(小山位)²³⁴ 이상의 위를 내려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임신(15일)에 배 한 척을 신라 사신에게 주었다. 계미(26일)에 김압실 등²³⁵이 용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 달에 대자(大紫) 위나공고견(韋那公高見; 위나노키미타카미)²³⁶이 죽었다(薨).

일본서기 권 제28

234 천지천황 3년(664)에 제정된 26계 관위의 제16~18위의 관위에 해당된다.

235 11월에 일본에 온 신라사 일행이다.

236 韋那公씨에 대해서는 猪名公씨를 참조. 高見에 대해서는 이를 ‘카가미’라고 읽어 威奈大村墓地の 威奈鏡公과 동일인물로 보는 이해도 있으나, 이 인물은 ‘타카미’로 읽어야 하며 따라서 鏡公과는 다른 인물로 보는 이해(『日本書紀』 하, 암파서점, 408쪽의 頭註)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日本書紀 卷第廿八

天淳中原瀛真人天皇 上 天武天皇

天淳中[淳中 此云農難]原瀛真人天皇。天命開別天皇同母弟也。幼曰大海人皇子。生而有岐嶷之姿。及壯雄拔神武。能天文遁甲。納天命開別天皇女菟野皇女爲正妃。天命開別天皇元年立爲東宮。

四年 冬十月庚辰。天皇臥病以痛之甚矣。於是。遣蘇賀臣安麻侶。召東宮引入大殿。時安麻侶素東宮所好。密顧東宮曰。有意而言矣。東宮於茲疑有隱謀而慎之。天皇勅東宮授鴻業。乃辭讓之曰。臣之不幸。元有多病。何能保社稷。願陛下舉天下附皇后。仍立大友皇子。宜爲儲君。臣今日出家。爲陛下欲修功德。天皇聽之。卽日出家法服。因以收私兵器。悉納於司。壬午。入吉野宮。時左大臣蘇賀赤兄臣。右大臣中臣金連。及大納言蘇賀果安臣等送之。自菟道返焉。或曰。虎着翼放之。是夕。御嶋宮。癸未。至吉野而居之。是時聚諸舍人謂之曰。我今入道修行。故隨欲修道者留之。若仕欲成名者還仕於司。然无退者。更聚舍人而詔如前。是以。舍人等半留。半退。

十二月。天命開別天皇崩。

元年 春三月壬辰朔己酉。遣內小七位阿曇連稻敷於筑紫。告天皇喪於郭務棕等。於是。郭務棕等咸着喪服三遍舉哀。向東稽首。壬子。郭務棕等再拜進書函

與信物。

夏五月辛卯朔壬寅，以甲冑，弓矢賜郭務棕等。是日，賜郭務棕等物，總合純一千六百七十三匹，布二千八百五十二端，綿六百六十六斤，戊午，高麗遣前部富加抃等進調，庚申，郭務棕等罷歸。

是月，朴井連雄君奏天皇曰，臣以有私事獨至美濃，時朝庭宣美濃，尾張兩國司曰，爲造山陵，豫差定人夫，則人別令執兵，臣以爲，非爲山陵，必有事矣，若不早避，當有危歟，或有人奏曰，自近江京至于倭京，處處置候，亦命菟道守橋者，遮皇大弟宮舍人運私糧事，天皇惡之，因令問察，以知事已實，於是詔曰，朕所以讓位遁世者，獨治病全身，永終百年，然今不獲已應承禍，何默亡身耶。

六月辛酉朔壬午，詔村國連男依，和珥部臣君手，身毛君廣曰，今聞，近江朝庭之臣等，爲朕謀害，是以汝等三人急往美濃國，告安八磨郡湯沐令多臣品治，宣示機要，而先發當郡兵，仍經國司等差發諸軍，急塞不破道，朕今發路，甲申，將入東，時有一臣奏曰，近江群臣元有謀心，必造天下，則道路難通，何無一人兵，徒手入東，臣恐事不就矣，天皇從之，思欲返召男依等，卽遣大分君惠尺，黃書造大伴，逢臣志摩于留守司高坂王，而令乞驛鈴，因以謂惠尺等曰，若不得鈴，迺志摩還而復奏，惠尺馳之往於近江，喚高市皇子，大津皇子逢於伊勢，既而惠尺等至留守司，舉東宮之命乞驛鈴於高坂王，然不聽矣，時惠尺往近江，志摩乃還之復奏曰，不得鈴也，是日，發途入東國，事急不待駕而行之，徼遇縣犬養連大伴鞍馬，因以御駕，乃皇后載輿從之，逮于津振川，車駕始至，便乘焉，是時，元從者草壁皇子，忍壁皇子，及舍人朴井連雄君，縣犬養連大伴，佐伯連大目，大伴連友國，稚櫻部臣五百瀨，書首根摩呂，書直智德，山背直小林，山背部小田，安斗連智德，調首淡海之類廿有餘人，女孺十有餘人也，卽日，到菟田吾城，大伴連馬來田，黃書造大伴，從吉野宮追至，於此時，屯田司舍人土師連馬手供從駕者食，過甘羅村，有獵者廿餘人，大伴朴本連大國爲獵者之首，則悉喚令從駕，亦徵美濃王，乃參赴而從矣，運湯沐之米伊勢國駄五十匹遇於菟田郡家頭，

仍皆棄米而令乘步者，到大野以日落也，山暗不能進行，則攘取當邑家籬爲燭，及夜半，到隱郡焚隱驛家，因唱邑中曰，天皇入東國，故人夫諸參赴，然一人不肯來矣，將及橫河，有黑雲廣十餘丈經天，時天皇異之，則舉燭親乘式占曰，天下兩分之祥也，然朕遂得天下歟，卽急行到伊賀郡，焚伊賀驛家，逮于伊賀中山，而當國郡司等率數百衆歸焉，會明至荊萩野，暫停駕而進食，到積殖山口，高市皇子自鹿深越以遇之，民直大火，赤染造德足，大藏直廣隅，坂上直國麻呂，古市黑麻呂，竹田大德膽香瓦臣安倍從焉，越大山至伊勢鈴鹿，爰國司守三宅連石床，介三輪君子首，及湯沐令田中臣足麻呂，高田首新家等參遇于鈴鹿郡，則且發五百軍塞鈴鹿山道，到川曲坂下而日暮也，以皇后疲之暫留輿而息，然夜噏欲雨，不得淹息而進行，於是，寒之雷雨已甚，從駕者衣裳濕以不堪寒，乃到三重郡家，焚屋一間而令溫寒者，是夜半，鈴鹿關司遣使奏言，山部王，石川王並來歸之，故置關焉，天皇便使路直益人徵，丙戌，旦於朝明郡迹太川邊拜天照太神，是時，益人到之奏曰，所置關者非山部王，石川王，是大津皇子也，便隨益人參來矣，大分君惠尺，難波吉士三綱，駒田勝忍人，山邊君安摩呂，小墾田猪手，泥部祇柁，大分君稚臣，根連金身，漆部友背之輩從之，天皇大喜，將及郡家，男依乘驛來奏曰，發美濃師三千人得塞不破道，於是天皇美雄依之務，既到郡家，先遣高市皇子於不破，令監軍事，遣山背部小田，安斗連阿加布，發東海軍，又遣稚櫻部臣五百瀨，土師連馬手，發東山軍，是日，天皇宿于桑名郡家，卽停以不進。

是時，近江朝聞大皇弟入東國，其群臣悉愕，京內震動，或遁欲入東國，或退將匿山澤，爰大友皇子謂群臣曰，將何計，一臣進曰，遲謀將後，不如，急聚驍騎乘跡而逐之，皇子不從，則以韋那公磐楯，書直藥，忍坂直大摩侶遣于東國，以穗積臣百足，第五百枝，物部首日向遣于倭京，且遣佐伯連男於筑紫，遣樟使主磐手於吉備國，並悉令興兵，仍謂男與磐手曰，其筑紫大宰栗隅王與吉備國守當摩公廣嶋二人，元有隸大皇弟，疑有反歟，若有不服色卽殺之，於是，磐手到

吉備國授符之日，紿廣嶋令解刀，磐手乃拔刀以殺也。男至筑紫，時栗隈王承符對曰，筑紫國者元戎邊賊之難也，其峻城，深隍臨海守者，豈爲內賊耶。今畏命而發軍，則國空矣，若不意之外有倉卒之事，頓社稷傾之，然後雖百殺臣，何益焉。豈敢背德耶。輒不動兵者，其是緣也。時栗隈王之二子三野王，武家王，佩劍立于側而無退，於是男按劍欲進，還恐見亡，故不能成事而空還之。東方驛使磐鍬等將及不破，磐鍬獨疑山中有兵，以後之緩之行，時伏兵自山出，遮藥等之後，磐鍬見之知藥等見捕，則返逃走僅得脫。當是時，大伴連馬來田，弟吹負並見時否，以稱病退於倭家，然知其登嗣位者必所居吉野大皇弟矣，是以馬來田先從天皇，唯吹負留謂，立名于一時欲寧艱難，卽招一二族及諸豪傑，僅得數十人。丁亥，高市皇子遣使於桑名郡家以奏言，遠居御所，行政不便，宜御近處，卽日天皇留皇后而入不破，比及郡家，尾張國司守小子部連鉤率二萬衆歸之，天皇卽美之，分其軍塞處處道也。到于野上，高市皇子自和豐參迎，以便奏言，昨夜，自近江朝驛使馳至，因以伏兵而捕者，則書直藥，忍坂直大麻呂也。問，何所往，答曰，爲所居吉野大皇弟而遣發東國軍，韋那公磐鍬之徒也，然磐鍬見兵起，乃逃還之。既而天皇謂高市皇子曰，其近江朝，左右大臣及智謀群臣共定議，今朕無與計事者，唯有幼少孺子耳，奈之何。皇子攘臂按劍奏言，近江群臣雖多，何敢逆天皇之靈哉。天皇雖獨，則臣高市賴神祇之靈，請天皇之命，引率諸將而征討，豈有距乎。爰天皇譽之，携手撫背曰，愼不可怠，因賜鞍馬，悉授軍事，皇子則還和豐，天皇於茲行宮興野上而居焉。此夜，雷電雨甚，則天皇祈之曰，天神地祇扶朕者，雷雨息矣，言訖卽雷雨止之。戊子，天皇往於和豐檢校軍事而還。己丑，天皇往和豐，命高市皇子號令軍衆，天皇亦還于野上而居之。是日，大伴連吹負密與留守司坂上直熊毛議之，謂一二漢直等曰，我詐稱高市皇子，率數十騎自飛鳥寺北路出之臨營，乃汝內應之。既而繕兵於百濟家，自南門出之，先秦造熊令犢鼻，而乘馬馳之，俾唱¹於寺西營中曰，高市皇子自不破至，軍衆多從，爰留守司高坂王，及興兵使者穗積臣百足等，據飛鳥寺西槻下爲營，唯百足居小墾田兵

庫運兵於近江，時營中軍衆聞熊叫聲悉散走，仍大伴連吹負率數十騎劇來，則熊毛及諸直等共與連和，軍士亦從乃舉高市皇子之命喚穗積臣百足於小墾田兵庫，爰百足乘馬緩來，逮于飛鳥寺西槻下，有人曰，下馬也，時百足下馬遲之，便取其襟以引墮²，射中一箭，因拔刀斬而殺之，乃禁穗積臣五百枝，物部首日向，俄而赦之置軍中，且喚高坂王，稚狹王而令從軍焉，既而遣大伴連安麻呂，坂上直老，佐味君宿那麻呂等於不破宮，令奏事狀，天皇大喜之，因乃令吹負拜將軍，是時，三輪君高市麻呂，鴨君蝦夷等，及群豪傑者，如響悉會將軍麾下，乃規襲近江，因以撰衆中之英俊爲別將及軍監，庚寅，初向乃樂，

秋七月庚寅朔辛卯，天皇遣紀臣阿閉麻呂，多臣品治，三輪君子首，置始連菟，率數萬衆，自伊勢大山越之向倭，且遣村國連男依，書首根麻呂，和珥部臣君手，膽香瓦臣安倍，率數萬衆，自不破出，直入近江，恐其衆與近江師難別，以赤色着衣上，然後別命多臣品治，率三千衆屯于荊萩野，遣田中臣足麻呂令守倉歷道，時近江命山部王，蘇賀臣果安，巨勢臣比等，率數萬衆將襲不破，而軍于犬上川濱，山部王爲蘇賀臣果安，巨勢臣比等見殺，由是亂以軍不進，乃蘇賀臣果安自犬上返刺頸而死，是時，近江將軍羽田公矢國，其子大人等率已族來降，因授斧鉞拜將軍，卽北入越，先是，近江放精兵忽衝玉倉部邑，則遣出雲臣狛擊追之，壬辰，將軍吹負屯于乃樂山上，時荒田尾直赤麻呂啓將軍曰，古京是本營處也，宜固守，將軍從之，則遣赤麻呂，忌部首子人，令戍古京，於是，赤麻呂等詣古京而解取道路橋板，作楯堅於京邊衢以守之，癸巳，將軍吹負與近江將大野君果安戰于乃樂山，爲果安所敗，軍卒悉走，將軍吹負僅得脫身，於是，果安追至八口合而視京，每街堅楯，疑有伏兵，乃稍引還之，甲午，近江別將田邊小隅越鹿深山，而卷幟抱鼓詣于倉歷，以夜半之，衛梅穿城劇入營中，則畏已卒與足

1 소학관본에서는 ‘謂’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墮’와는 약간 다른 자이다.

摩侶衆難別，以每人令言金，仍拔刀而毆之，非言金乃斬耳，於是，足摩侶衆悉亂之，事忽起不知所爲，唯足摩侶聰知之獨言金以僅得免，乙未，小隅亦進欲襲蒺藜野營而急到，爰將軍多臣品治遮之，以精兵追擊之，小隅獨免走焉，以後遂復不來也，丙申，男依等與近江軍戰息長橫河破之，斬其將境部連樂，戊戌，男依等討近江將秦友足於鳥籠山斬之，是日，東道將軍紀臣阿閉麻呂等，聞倭京將軍大伴連吹負爲近江所敗，則分軍以遣置始連菟，率千餘騎而急馳倭京，壬寅，男依等戰于安河濱大破，則獲社戶臣大口，土師連千嶋，丙午，討粟太軍追之，辛亥，男依等到瀬田，時大友皇子及群臣等共營於橋西而大成陣，不見其後，旗幟蔽野埃塵連天，鉦鼓之聲聞數十里，列弩亂發，矢下如雨，其將智尊率精兵以先鋒距之，仍切斷橋中須容三丈，置一長板，設有蹋板度者，乃引板將墮，是以不得進襲，於是，有勇敢士，曰大分君稚臣，則棄長矛以重擐甲拔刀急蹈板度之，便斷着板綱以被矢入陣，衆悉亂而散走之，不可禁，時將軍智尊拔刀斬退者，而不能止，因以斬智尊於橋邊，則大友皇子，左右大臣等，僅身免以逃之，男依等卽軍于粟津岡下，是日，羽田公矢國，出雲臣狛，合共攻三尾城降之，壬子，男依等斬近江將犬養連五十君及谷直塩手於粟津市，於是，大友皇子走無所入，乃還隱山前，以自縊焉，時左右大臣及群臣皆散亡，唯物部連麻呂，且一二舍人從之，初將軍吹負向乃樂至稗田之日，有人曰，自河內軍多至，則遣坂本臣財，長尾直眞墨，倉嶋直麻呂，民直小鮪，谷直根麻呂，率三百軍士距於龍田，復遣佐味君少麻呂，率數百人屯大坂遣鴨君蝦夷率數百人守石手道，是日，坂本臣財等次于平石野，時聞近江軍在高安城而登之，乃近江軍知財等來，以悉焚稅倉皆散亡，仍宿城中，會明臨見西方，自大津丹比兩道軍衆多至，顯見旗幟，有人曰，近江將壹伎史韓國之師也，財等自高安城降，以渡衛我河與韓國戰于河西，財等衆少不能距，先是，遣紀臣大音令守懼坂道，於是，財等退懼坂而居大音之營，是時，河內國司守來目臣塩籠有歸於不破宮之情，以集軍衆，爰韓國到之，密聞其謀而將殺塩籠，塩籠知事漏，乃自死焉，經一日近江軍當諸道而多至，卽並不能相戰，

以解退。是日，將軍吹負爲近江所敗，以特率一二騎走之，逮于墨坂遇逢菟軍至，更還屯金綱井，而招聚散卒，於是，聞近江軍至自大坂道而將軍引軍如西，到當麻衢與壹伎史韓國軍戰葦池側，時有勇士來目者，拔刀急馳直入軍中，騎士繼踵而進之，則近江軍悉走之，追斬甚多，爰將軍令軍中曰，其發兵之元意非殺百姓，是爲元凶，故莫妄殺，於是，韓國離軍獨逃也，將軍遙見之，令來目以俾射，然不中而遂走得免焉，將軍更還本營，時東師頻多臻，則分軍各當上中下道而屯之，唯將軍吹負親當中道，於是，近江將犬養連五十君自中道至之留村屋，而遣別將廬井造鯨，率二百精兵衝將軍營，當時麾下軍少以不能距，爰有大井寺奴名德麻呂等五人，從軍，卽德麻呂等爲先鋒以進射之，鯨軍不能進，是日，三輪君高市麻呂，置始連菟，當上道戰于箸陵，大破，近江軍而乘勝，兼斷鯨軍之後，鯨軍悉解走，多殺士卒，鯨乘白馬以逃之，馬墮泥田不能進行，則將軍吹負謂甲斐勇者曰，其乘白馬者廬井鯨也，急追以射，於是甲斐勇者馳追之，比及鯨，鯨急鞭馬，馬能拔以出泥，卽馳之得脫，將軍亦更還本處而軍之，自此以後，近江軍遂不至，先是，軍金綱井之時，高市郡大領高市縣主許梅，微忽口閉而不能言也，三日之後，方着神以言，吾者高市社所居，名事代主神，又身狹社所居，名生靈神者也，乃顯之曰，於神日本磐余彥天皇之陵奉馬及種種兵器，便亦言，吾者立皇御孫命之前後以送奉于不破而還焉，今且立官軍中而守護之，且言，自西道軍衆將至之，宜慎也，言訖則醒矣，故是以便遣梅而祭拜御陵，因以奉馬及兵器，又捧幣而禮祭高市，身狹二社之神，然後，壹伎史韓國自大坂來，故時人曰，二社神所教之辭適是也，又村屋神着祝曰，今自吾社中道軍衆將至，故宜塞社中道，故未經幾日，廬井造鯨軍自中道至，時人曰，卽神所教之辭是也，軍政既訖，將軍等舉是三神教言而奏之，卽勅登進三神之品以祠焉，辛亥，將軍吹負既定倭地，便越大坂往難波，以餘別將軍等各自三道，進至于山前屯河南，卽將軍吹負留難波小郡，而仰以西諸國司等，令進官鑰驛鈴傳印，癸丑，諸將軍等悉會於筱[筱，此云佐佐]浪，而探捕左右大臣及諸罪人等，乙卯，將軍等向於不破宮，因以捧大友皇

子頭而獻于營前.

八月庚申朔甲申, 命高市皇子宣近江群臣犯狀, 則重罪八人坐極刑, 仍斬右大臣中臣連金於淺井田根. 是日, 左大臣蘇我臣赤兄, 大納言巨勢臣比等及子孫并中臣連金之子, 蘇我臣果安之子悉配流, 以餘悉赦之. 先是, 尾張國司守少子部連鉏鉤匿山自死之. 天皇曰, 鉏鉤有功者也, 無罪何自死. 其有隱謀歟. 丙戌, 恩勅諸有功勳者而顯寵賞.

九月己丑朔丙申, 車駕還宿伊勢桑名. 丁酉, 宿鈴鹿. 戊戌, 宿阿閉. 己亥, 宿名張. 庚子, 詣于倭京而御嶋宮. 癸卯, 自嶋宮移岡本宮.

是歲, 營宮室於岡本宮南. 卽冬遷以居焉. 是謂飛鳥淨御原宮.

冬十一月戊子朔辛亥, 饗新羅客金押實等於筑紫. 卽日, 賜祿各有差.

十二月戊午朔辛酉, 選諸有功勳者增加冠位, 仍賜小山位以上各有差.

壬申, 船一隻賜新羅客. 癸未, 金押實等罷歸.

是月, 大紫韋那公高見薨.

日本書紀卷第廿八³

3 소학관본에서는 ‘二十八終’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29

日本書紀 卷第廿九

제39대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하 천무천황(天武天皇)



일본서기 권 제29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하 천무천황(天武天皇)

2년 봄 정월 정해삭 계사(7일)에 술상을 마련하여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2월 정사삭 계미(27일)에 천황은 관려부서에 명하여 단¹을 설치하여 비조정 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에서 제위(帝位)에 올랐다. 그리고 정비(正妃)²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초벽황자존(草壁皇子尊; 쿠사카베노 미코노미코토)³을 낳았다⁴. 또한 황후의 언니 대전황녀(大田皇女; 오토타노히메미

1 원문은 壇場이다.

2 菟野황녀, 즉 훗날의 持統천황이다.

3 尊은 황태자 혹은 그에 준하는 황자에 대한 존칭이다. 다만 여러 황자에 관한 『日本書紀』의 표기는 편찬 당시에 통일된 것으로 반드시 당초부터 황위계승자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벽황자존은 천지천황 원년(662)에 탄생하였다. 부인(室)은 천지천황의 황녀인 阿陪황녀(후의 元明天皇)이며, 文武천황, 元正천황, 吉備내친왕의 아버지이다. 임신의 난 때에는 처음부터 천황을 따랐으며, 천무천황 10년(681) 2월에 황태자가 되었고, 지통천황 3년(689) 4월에 죽었다.

4 천무천황의 황자 및 황녀들에 관한 기록이다. 천무천황의 황자·황녀로서 알려진 것은 여기에 든 10황자 7황녀이다. 이들 황자·황녀는 천무·지통조부터 나라시대 전반에 걸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萬葉集』, 『懷風藻』의 작가로 문학사적으로도 커다란 지위를 점하는 사람이 많다. 『日本書紀』의 황자·황녀의 기재순서는 각각의 어머니인 후비별로 일괄해서 동북의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장유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으며, 후비의 순서는 황후, 비, 부인, 궁인과 같은 격에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속일본

코)를 맞이하여 비(妃)로 삼았다. 대래황녀(大來皇女; 오호쿠노히메미코)⁵와 대진황자(大津皇子; 오호츠노미코)⁶를 낳았다. 차비(次妃) 대강황녀(大江皇女; 오호에노히메미코)⁷는 장황자(長皇子; 나가노미코)⁸와 궁삭황자(弓削皇子; 유게노미코)⁹를 낳았다. 차비 신전부황녀(新田部皇女; 니히타베노히메미코)¹⁰는 사인황자(舍人皇子; 토네리노미코)¹¹를 낳았다. 또 부인(夫人) 등원대신(藤原大臣; 후지하라노오호마에즈키미)의 딸 빙상낭(氷上娘; 히카미노이라즈메)은 단마황녀(但馬皇女; 타지마노히메미

기』에서 천무천황의 제○대 황자라 칭하는 경우는 생모인 후비 가운데 천황의 처로서의 자격을 가진 내명부 이상의 사람과 그 이외 사람의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장유의 순서를 따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아오키 카즈오(青木和夫)의 연구에 따라 천황의 황자에 대해 이를 실제로 태어난 장유 순서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실제 탄생한 순서[()안은 『속일본기』에 의한 순서]는 高市(8)－草壁(1)－大津(2)－忍壁(9)－磯城(10)－舍人(3)－長(4)－穗積(5)－弓削(6)－新田部(7)이다.

- 5 대래황녀는 大伯皇녀라고도 하는데, 제명천황 7년(661) 정월에 천황의 배가 大伯의 바다에 이르렀을 때 태어나 붙여진 이름이다. 천무천황 2년(673) 4월 齋王이 되었고, 동 3년 10월에 이세로 출발했다. 朱鳥 원년(686) 11월, 大津황자의 사건 후에 귀경하여 대보 원년(701) 12월에 죽었다.
- 6 대진황자는 『懷風藻』에서는 천무천황의 장자라 하고 있다. 부인(室)은 천지천황의 황녀인 山邊황녀이다. 朱鳥 원년(686) 9월, 천무천황의 죽음에 즈음하여 황태자에게 모반했다는 보고가 있어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 持統紀 칭제전기조 및 『懷風藻』에 傳이 보인다.
- 7 천지천황의 황녀이다.
- 8 장황자는 長親王, 那我親王이라고도 하며, 栗栖王, 長田王 등의 아버지이다. 靈龜 원년(715) 6월 1품으로 죽었다.
- 9 궁삭황자는 문무천황 3년(699) 7월에 죽었는데, 『萬葉集』에 그가 지은 노래(111, 119~122, 142, 1467, 1608번)가 실려 있다.
- 10 신전부황녀는 천지천황의 황녀이다.
- 11 후에 친왕이 된다. 淳仁천황(大炊王, 어머니는 當麻山背), 三原王, 三島王 등의 아버지이다. 持統 9년(695) 정월 정광이의 관위에, 養老 2년(718) 정월 2품에서 1품을 사여 받았다. 同 4년(720) 8월에 知太政官사가 되었고 天平 7년(735) 11월에 죽었는데, 太政大臣에 추증되었다. 天平寶字 3년(759) 6월에는 추존하여 崇道盡敬皇帝라 칭해졌다. 『日本書紀』 편찬사업을 총괄하였는데 養老 4년(720) 5월에 완성하여 주상했다.

코¹²를 낳았다. 차부인(次夫人) 빙상낭의 동생 오백중낭(五百重娘; 이호헤노이라츠메)은 신전부황자(新田部皇子; 니히타베노미코)를 낳았다. 차부인 소아적형대신(蘇我赤兄大臣; 소가노아카에노오호마에즈키미)의 딸 태유낭(太養娘; 오호누노이라츠메)은 1남 2녀를 낳았다. 그 첫째를 수적황자(穗積皇子; 호즈미노미코)¹³라 한다. 둘째는 기황녀(紀皇女; 키노히메미코)¹⁴라 한다. 셋째는 전형황녀(田形皇女; 타카타노히메미코)¹⁵라 한다. 천황은 처음에 경왕(鏡王; 카가미노오호키미)의 딸 액전희왕(額田姬王; 누카타노오호키미)¹⁶을 맞아 십시황녀(十市皇女; 토위치노히메미코)¹⁷를 낳았다. 다음으로 흉형군덕선(胸形君德善; 무나카타노키미토쿠젠)¹⁸의 딸 니자낭(尼子娘; 아마코노이라츠메)을 맞이하여 고시황자명(高市皇子命; 타케치노미코노미코토)¹⁹을 낳았다. 다음으로 육인신대마려(穴人臣大麻呂; 시시히토노오미오호마로)의

-
- 12 후에 內親王이 된다. 和銅 원년(708) 6월 3품으로 죽었다. 『만엽집』에 노래가 보인다 (114, 115, 116, 1515번).
 - 13 후에 친왕이 된다. 지통천황 5년(691) 정월에 정광이, 慶雲 2년(705) 9월에 지태정관사, 靈龜 원년(715) 정월 1품이 되었고, 동년 7월에 죽었다.
 - 14 기황녀는 『萬葉集』에 지은 노래(390)가 실려 있다. 또 119~122번에 「궁삭황자 기황녀를 생각하는 어가 4수」가 있으며, 424~425번의 좌주에는 「右 2수는 혹은 이르길, 기황녀가 죽은 후에 山前王이 石田王을 대신해서 지은 것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15 후에 내친왕이 된다. 慶雲 3년(706) 8월 2품으로 伊勢齋王이 되었고, 神龜 원년(724) 2월 2품, 동 5년(728) 3월에 죽었다.
 - 16 『만엽집』에는 額田王이라 보이며, 『萬葉集』의 대표적인 여성 가인 중 한 사람이다. 처음 대해인황자의 처로 십시황녀를 낳은 뒤에 천지천황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년은 미상이나 그가 지은 노래(『만엽집』 7, 8, 9, 16, 17, 18번 등 13수가 전함)는 지통천황대에도 보인다.
 - 17 대우황자의 측실로 葛野王의 어머니이다. 『扶桑略記』 등에는 황녀가 임신의 난이 발생하기 전에 近江朝의 동정을 몰래 요시노(吉野)에 있는 대해인황자(천무천황)에게 통보했다고 전하고 있다.
 - 18 여기에서만 보인다. 胸形君은 천무천황 13년(684) 11월 朝臣姓을 하사 받았다. 『新撰姓氏錄』 우경 신별에 宗形朝臣, 하네 신별에 宗形君을 싣고 있는데, 吾田片隅命의 후예라 한다.

딸 곡원낭(楸²⁰媛娘; 카지히메노이라츠메)을 맞이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그 첫째를 인벽황자(忍壁皇子; 오사카베노미코)²¹라 한다. 둘째는 기성황자(磯城皇子; 시키노미코)²²라 한다. 셋째는 박뢰부황녀(泊瀨部皇女; 하츠세베노히메미코)²³라 한다. 넷째는 탁기황녀(託基皇女; 타키노히메미코)²⁴라 한다. 을유(29일)에 훈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위를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3월 병술삭 임인(17일)에 비후국사(備後國司)²⁵가 구석군(龜石郡; 카메시노코호리)²⁶에서 잡은 백치(白雉)를 바쳤다. 그리하여 그 군의 과역²⁷을 모두 면제하였

19 長屋王을 가리키며, 鈴鹿王의 아버지이다. 임신의 난에서는 대해인(천무천황)의 거병 소식을 듣고 근강을 탈출하여 적식의 산 입구에서 천무천황의 군과 합류하였다. 후에 천황으로부터 전군의 통솔을 위임받아 활약했다. 천무천황 14년(685) 정월 정광이의 관위, 지통천황 4년(690) 7월 태정대신에 임명, 동 7년 정월 정광일의 관위에 올랐으며, 동 10년(696) 7월에 죽었다.

20 우리 한자에는 없는 음인데, 임시로 ‘곡’으로 읽어둔다.

21 후에 친왕이 된다. 忍坂部, 刑部라고도 한다. 山前王과 小長谷女王의 아버지이다. 임신의 난에서는 吉野에서부터 천황과 행동을 같이 했다. 천무천황 14년(685) 정월 정대삼의 관위, 大寶 3년(703) 정월 지태정관사가 되었고, 慶雲 2년 5월에 죽었다. 천무천황 10년(681) 3월에는 帝紀 및 上古諸事の 記定사업에 참가하였고, 후에 대보율령의 撰定을 주재했다.

22 朱鳥 원년(686) 8월 봉 2백 호를 증호 받았다. 천지천황의 황자인 施基황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23 長谷部 내친왕이라고도 한다. 天平 13년(741) 3월 3품으로 죽었다.

24 후에 내친왕이 된다. 多紀, 當耆라고도 한다. 朱鳥 원년(686) 4월 이세신궁에 파견, 문무천황 2년(698) 9월에 齋王이 되었고, 天平勝寶 3년(751) 정월 1품으로 죽었다.

25 天武紀 11년(682) 7월조에 ‘吉備國’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비후국사’는 추기된 것으로 吉備大宰(천무기 8년 3월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26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서는 神石郡으로 나온다. 현재의 廣島縣 神石郡에 해당된다.

27 大寶와 養老의 令制에서 일반 공민이 부담하는 세목으로는 租, 庸, 調, 잡요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租는 단별로 2속 2파(후에 1속 5파)의 비율로 납입하는 田租이며, 庸은 일년에 10일의 세역으로 포 등을 납입한다. 調는 견, 시, 포 혹은 식료품 등의 지방 특산물을 인별로 납입하는 것이다. 또한 잡요는 연간 60일씩 국사를 통해 부과되는 요역노동을

다. 또한 천하에 대사면을 시행하였다. 이 달에 서생(書生)을 모아 처음으로 일체경(一切經)²⁸을 천원사(川原寺; 카하라테라)²⁹에서 필사하게 하였다.

여름 4월 병진삭 기사(14일)에 대래황녀를 천조태신궁(天照太神宮;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노미야)³⁰에 보내고자 박뢰재궁(泊瀨齋宮; 하츠세노이즈키노미야)³¹에서 살게 하였다. 이곳은 먼저 몸을 깨끗이 하고 점차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곳이다³².

5월 을유삭(1일)에 공경대부 및 여러 신(臣; 오미), 연(連; 무라지)과 반조(伴造; 토모노미야츠코) 등에게 조를 내려 “무릇 처음으로 관인이 된 자는 먼저 대사인(大舍人; 오호토네리)³³으로 봉사하게 하라. 그런 연후에 그 재능을 선별하여 알맞은 직책을 맡도록 하라. 또 부녀(婦女)는 남편이 있고 없음과 늙고 젊음을 가리지 말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는 받아들여라. 고선(考選)³⁴은 관인의 예에

말한다.

28 일체경은 經, 律, 論의 三藏 및 그 章疏, 注釋을 모은 불교경전의 총칭이다.

29 법호는 弘福寺이다. 천무조정에서 특히 숭배한 절이다.

30 이세의 齋王이다. 천황의 즉위 초에 미혼의 황녀나 여왕 가운데에서 뽑아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 시대 이후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 泊瀨奈良縣 櫻井市 初瀨지역이다. 다만 재궁의 구체적인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大和志』에는 「在初瀨氣波比坂下」라 하고 있다.

32 대래황녀는 齋王으로서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되는데, 齋王의 파견은 이 시대 이후 항례화 되었다. 『延喜式』 齋宮式の 규정에 의하면 齋王은 복정 후 우선 초재원에서 익년 7월 까지 潔齋하고, 다시 성 밖의 정야에 만들어진 野宮에서 그 다음해의 8월까지 결재하며, 동 9월 상순 이세에 참입한다는 규정이었다. 대래황녀는 3년 10월에 泊瀨에서 伊勢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通釋』은 이 泊瀨齋宮을 후세의 野宮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33 대사인은 養老令制에서는 中務省의 피관인 左右大舍人寮에 각 8백 인이 소속되어 5위 이상인 자의 자손, 내6위 이하 8위 이상인 자의 적자 가운데에서 선발되었다. 令制의 사인은 관인조직 속에 위치해 있으며 관인의 공급원, 승진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34 考課選敍를 말한다. 즉 재임 중의 성적을 심사하고 그에 따라 관위를 부여하는 것 또는 그 규정을 말한다.

따르라.”고 명하였다. 계축(29일)에 대금상(大錦上) 판본재신(坂本財臣; 사카모토노 타카라노오미)이 죽었다. 임신년의 공로에 따라 소자(小紫)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윤6월 을유삭 경인(6일)에 대금하(大錦下) 백제의 사택소명(沙宅昭明)³⁵이 죽었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당시 수재로 불렸다. 천황이 놀라서 은혜를 내려 외소자(外小紫)³⁶의 관위³⁷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본국의 대좌평(大佐平) 관위를 내렸다. 임진(8일)에 탐라(耽羅)³⁸가 왕자 구마예(久麻藝)³⁹, 도라(都羅)⁴⁰, 우마(宇麻)⁴¹ 등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기해(15일)에 신라가 한아찬(韓阿湊)⁴² 김승원(金承元)⁴³, 아찬 김지산(金祗山)⁴⁴, 대사(大舍) 상설(霜雪)⁴⁵ 등을 보내 등극을 축하하였다⁴⁶. 아울러 일길찬(一吉瀆) 김살유(金薩儒)⁴⁷, 한나말(韓奈

35 天智紀 10년(671) 정월 是月條에 보인다. 사택씨는 백제의 귀족이다. 『藤氏家傳』에서는 그를 「才思穎拔, 文章冠世」라 평가하고 있다.

36 外位の 조건 사료이다. 외위는 大寶·養老의 令制에서는 군사 등의 外考官에게 부여된 것이다.

37 천무조의 외위는 모두 사망시의 추증이며, 卑姓 출신자에 대한 논공행상의 의미가 강하다.

38 제주도이다. 齊明紀 7년(661) 5월조에 탐라의 견사조공 기사가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데, 天智紀 5년(666) 정월조(탐라왕자 姑女 등), 동 8년 3월조, 天武紀 4년(675) 8월조(왕자 久麻伎), 동 4년 9월조(탐라왕 姑女), 동 6년(677) 8월조에도 견사 기사가 보이고 있다.

39 8월에 귀국하고 있는데, 『日本書紀』 天智천황 8년(669) 3월조의 탐라 왕자 久麻伎와 동일인물로 간주된다. 뒤의 천무천황 4년 8월조에도 파견기사가 보이고 있다.

40 탐라의 왕자로 천무천황 6년(677) 8월에도 파견하고 있다.

41 여기에서만 보인다.

42 신라의 관위 17계 중 제5위이다.

43 후에 입경하여 難波에서 향응을 받고 11월에 귀국하고 있다.

44 여기에서만 보이는데 김승원, 상설 일행과 함께 행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45 여기에서만 보인다.

46 아찬(제6위), 대사(제11위)는 모두 신라의 관위이다.

47 일길찬은 신라 제7위의 관위이다. 김살유 일행은 입경이 허락되지 않았고 11월 축사에서

末)⁴⁸ 김지산(金池山)⁴⁹ 등을 보내어 선황(先皇)⁵⁰의 상을 조문하였다[일설에는 조사(調使)라고 한다.], 그 송사(送使)인 귀간(貴干)⁵¹ 보(寶)⁵², 진모(眞毛)⁵³가 승원, 살유를 축자(筑紫)까지 보내왔다. 무신(24일)에 축자에서 귀간 보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각각 차등 있게 녹을 주었다. 그리고 축자에서 돌아갔다.

가을 8월 갑신삭 임진(9일)에 이하국(伊賀國; 이가노쿠니)에 있는 기신아페마려 등의 임신년의 무훈과 공로에 대해 언급하고 그 공을 표창하여 은상을 내렸다. 계묘(20일)에 고구려⁵⁴가 상부(上部) 위두대형(位頭大兄)⁵⁵ 감자(邯子)⁵⁶와 전부(前部) 대형(大兄) 석간(碩干)⁵⁷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신라는 한나말(韓奈末) 김이익(金利益)⁵⁸을 보내어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까지 보냈다. 무신(25일)에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賀騰極使)⁵⁹ 김승원 등 중객(中客)⁶⁰ 이상 27인을 왕경⁶¹으로

향록을 받고 귀국하고 있다.

48 한나마는 신라 제10위의 관위이다.

49 여기에만 보인다.

50 천지천황을 말한다. 지통기 3년(689) 5월조에 관련기사가 보인다.

51 귀간은 신라 외위의 제4위이다.

52 여기에만 보인다.

53 여기에만 보인다.

54 원문은 高麗이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봄 정월 정미조 참조.

55 위두대형은 고구려의 관위로서 10급 관위 중의 제3등에 해당한다.

56 여기에만 보인다.

57 여기에만 보인다.

58 고구려 사신을 보내준 송사인데 여기에만 보인다.

59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왕의 상을 알리는 告喪使와 즉위를 축하하는 賀騰極使이다. 고상사는 동시에 하등극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양자는 표리관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고상사에 관한 기록은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642) 정월조에 백제가 전왕인 舒明的의 조문사를 보낸 일이 있고, 동년 신라에서는 조문사와 함께 皇極의 賀騰極使를 동시에 보낸 일이 있다. 이후 신라는 672년 天武의 즉위시 하등극사와 天智의 조문사를 보냈으며, 703년에 효소왕의 상을 알리는 고상사를 일본에 보낸 일이 있는

불렀다. 그리고 대재(大宰)⁶²에게 명하여 탐라의 사신에게 조(詔)를 내려 “천황이 새로이 천하를 평정하여 비로소 즉위하였다. 이로 인해 단지 축하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이는 그대들이 직접 본 바와 같다. 또 요즈음 겨울철이 되어 파도가 높다. 오래 머무르게 하면 도리어 그대들의 근심이 될 것이다. 그러하니 빨리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왕 및 사자 구마에 등에게 처음으로 작위를 주었다. 작위(爵)는 대을상(大乙上)이다. 아울러 (관은) 금수(錦繡)로 장식하였다⁶³. 그 나라의 좌평의 관위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축사에서 귀국시켰다.

9월 계축삭 경진(28일)에 난파(難波; 나니하)에서 김승원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이때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였다. 또한 물건을 내려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겨울 11월 임자삭(1일)에 김승원 일행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임신(21일)에 고구려⁶⁴의 감자와 신라의 살유 등에게 축자의 대군(大郡; 오호고호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12월 임오삭 병술(5일)에 대상(大嘗)⁶⁵에 봉사했던 중신(中臣)과 기부(忌部) 및

데, 그 이후로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皇極朝에 파견된 신라사절은 백제와의 군사적 대립이 극심했을 때로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된다. 이를 제외하면 양국의 弔問, 告喪, 慶祝사절은 680년대 이후 20여 년간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정세의 안정기에 이러한 성격의 사절 왕래는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표시이다.

60 신라사절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직장 혹은 지위를 나타내는데, 孝德紀 大化 5년(649) 시세조에 「중객 5인」이 보인다. 또한 推古紀 16년(608) 4월조에는 대당사인 배세청과 함께 「하객 12인」도 보인다.

61 원문은 京이다.

62 筑紫大宰를 말한다. 『日本書紀』 효덕천황 大化 3년 3월조 참조.

63 관위를 내리는 동시에 冠은 비단수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4 원문은 高麗이다.

65 대상은 천황이 즉위 후에 처음으로 新穀을 가지고 神祇를 제사지내는 의식이다.

신관(神官)들, 아울러 파마(播磨; 하리마)와 단파(丹波; 타니하) 2국의 군사(郡司), 또 그 이하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녹을 주었다. 군사들에게는 작위 일급(一級)을 내려주었다⁶⁶. 무술(17일)에 소자(小紫) 미농왕(美濃王; 미노노오호키미)과 소금하(小錦下) 기신가다마려(紀臣訶多麻呂; 키노오미카타마로)를 고시대사(高市大寺; 타케치노오호데라)⁶⁷를 짓는 사(司)⁶⁸에 임명하였다[지금의 대관대사(大官大寺; 다이관다이시)⁶⁹가 바로 이것이다.]. 그때에 지사(知事)⁷⁰ 복림승(福林僧)⁷¹이 늙어서 지사를 그만두려 하였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다. 무신(27일)에 의성승(義成僧)⁷²을 소승도(小僧都)⁷³로 삼았다. 이 날 다시 두 명의 승려를 좌관(佐官)⁷⁴으로 삼았다. 네 명의 좌관을 두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이 해의 간지는 계유⁷⁵이다.

66 여기에서 祿爵을 하사받은 播磨國·丹波國의 郡司란 大嘗會(大嘗祭)에 사용되는 稻를 제공하는 소위 悠紀, 主基의 國으로 지정된 군의 군사일 것이다.

67 『大安寺緣起資財帳』에 「飛鳥淨御原宮御宇天皇二年歲次癸酉十二月壬午朔戊戌 造寺司小紫冠御野王 小錦下紀臣訶多麻呂二人任賜 自百濟地移高市地,」라 보이며, 『三代實錄』元慶 4년(880) 10월조에 인용된 大安寺 삼강의 牒은 百濟大寺 근처의 子部大神이 원한을 품고 당탑을 불태웠기 때문에 천무천황이 이를 高市郡 夜部村으로 다시 옮겨 세워 高市大官寺라 불렀다고 전한다.

68 造寺의 책임자로서 흔히 ‘造高市大寺司’라 한다.

69 원래의 百濟大寺를 옮긴 것이다. 후에 平城京 천도에 따라 신경으로 옮겨 大安寺가 되었다. 明日香村 小山에 그 유적이 있다. 1974년부터 강당, 중문, 남문, 탑적 등의 발굴조사가 행해져 이 절이 飛鳥지방 최대 규모의 사원인 점, 본격적인 조영은 7세기 말로 전체의 조영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8세기 초두에는 소실되었다는 점 등이 판명되었다.

70 사원의 관리를 맡은 승직의 하나이다.

71 여기에서만 보인다.

72 여기에서만 보인다.

73 승도는 전국의 승니를 통괄하는 기구인 승강 내에서 僧正에 이은 제2등급의 직책이다. 승도에는 대소의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74 僧綱을 보좌하는 僧官을 말한다.

75 673년이다.

3년 봄 정월 신해삭 경신(10일)에 백제왕 창성(昌成)이 죽었다(薨)⁷⁶. 소자위(小紫位)⁷⁷를 추증하였다.

2월 신사삭 무신(28일)에 기신아궤마려가 죽었다(卒). 천황이 크게 슬퍼하였다. 임신년의 공로로 대자위(大紫位)⁷⁸를 추증하였다.

3월 경술삭 병진(7일)에 대마국수(對馬國守)⁷⁹ 인해조대국(忍海造大國; 오시누 미노미야즈코오호쿠니)이 “은이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바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대국(大國)에게 소금하(小錦下)⁸⁰의 관위를 주었다. 무릇 은이 왜국에서 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모두 여러 신기(神祇)에게 바쳤다. 또 널리 소금(小錦) 이상의 대부⁸¹들에게 주었다.

가을 8월 무인삭 경진(3일)에 인벽황자(忍壁皇子)를 석상신궁(石上神宮; 이소노 카미노카미노미야)⁸²에 보내어 기름⁸³으로 신보(神寶)⁸⁴를 닦게 하였다. 그리고 이날 칙(勅)을 내려 “원래 제가(諸家)가 신사의 보고(寶庫)⁸⁵에 보관해 둔 보물, 즉

76 『續日本紀』天平神護 2년(766) 6월조의 백제왕 敬福傳에 의하면 의자왕의 손자, 善光의 아들, 良處의 형으로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왜국(일본)으로 왔으며 아버지에 앞서 죽었다고 한다.

77 『日本書紀』天智天皇 3년(664) 2월에 제정된 관위 26계 가운데 제6위의 관위이다.

78 『日本書紀』천지천황 3년 2월에 제정된 관위 26계 가운데 제5위의 관위이다.

79 원문은 對馬國司守(쓰시마노쿠니노미코토모치노카미)이며, 대마국의 국사 가운데 장관을 말한다.

80 『日本書紀』천지천황 3년 2월에 제정된 관위 26계 가운데 제13위에 해당하는 관위이다.

81 천무·지통조에서는 小錦位 이상의 관인을 大夫라 칭하여 大山位 이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2 석상신궁은 奈良縣 天理市에 위치하고 있다. 物部氏가 제사지내는 武神으로, 황실로부터 대대로 도검이 신보로 봉납되어 조정의 무기고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83 원문은 膏油이다.

84 무기고에 수장된 무기를 말한다.

85 원문은 神府이다.

무기는 모두 지금 즉시 그 자손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⁸⁶.

겨울 10월 정축삭 을유(9일)에 대래황녀(大來皇女)가 박외재궁에서 이세신궁(伊勢神宮; 이세노카미노미야)으로 옮겼다.

4년 봄 정월 병오삭(1일)에 대학료(大學寮)⁸⁷의 여러 학생, 음양료(陰陽寮)⁸⁸, 외약료(外藥寮)⁸⁹ 및 사위(舍衛; 사에)⁹⁰의 여성[女], 타라(墮羅; 타라)⁹¹의 여성, 백제 왕 선광(善光)⁹², 신라의 사정(仕丁) 등이 약물 및 진기한 물건을 바쳤다⁹³. 정미(2일)에 황자 이하 모든 백관들이⁹⁴ 배례하였다. 무신(3일)에 백료의 제신⁹⁵ 중 초

86 이 날의 칙은 여러 씨족의 무기를 석상신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황실의 무기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87 大寶·養老 令制에서 式部省 소속으로 장관 이하의 4등관 이외에 박사, 조교, 음박사, 書박사, 算박사 등이 있었으며 學生 4백 인, 算生 30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88 천문, 역, 기상관측 등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大寶·養老 令制에서 中務省 소속으로 장관 이하의 4등관 이외에 음양사, 음양박사, 曆박사, 천문박사, 漏刻박사 등이 있으며 음양생, 역생, 천문생, 守辰丁이 소속되어 있었다.

89 대보·양로령제의 典藥寮에 해당하는 관사이다. 전약료는 宮內省 소속으로 장관 이하의 4등관 외에 의, 침, 안마, 呪禁, 藥園 등의 제 방면에 걸쳐 師, 박사, 학생이 있으며, 藥戶, 乳戶를 관할하고 약물, 치료, 약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외약료라는 명칭은 중무성 소속의 侍醫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천황의 진료, 복약을 담당하는 內藥司와 구별되는 것일 것이다.

90 『日本書紀』 孝德天皇 백치 5년(654) 4월조, 齊明天皇 5년(659) 3월조에 관련 기사가 보인다.

91 吐火羅, 覩貨羅라고도 표기하며 孝德紀 백치 5년(654) 4월조, 齊明紀 3년(657) 7월조, 동 5년 3월조, 동 6년 7월조에도 관련 기사가 보인다.

92 『日本書紀』 천지천황 3년 3월조 참조.

93 소위 御藥의 선례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행사로서 元日に 천황이 屠蘇, 白散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백관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94 원문은 百寮諸人이다.

95 원문은 諸人이다.

위(初位) 이상이 장작을 바쳤다⁹⁶. 경술(5일)에 처음으로 점성대(占星臺)⁹⁷를 세웠다. 임자(7일)에 군신과 조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⁹⁸. 임술(17일)에 공경대부 및 모든 백관들⁹⁹ 중 초위(初位) 이상이 서문(西門) 마당에서 대사(大射) 행사¹⁰⁰를 가졌다. 또 이 날 대왜국(大倭國; 야마토노쿠니)이 상서로운 닭을 바쳤으며 동국(東國)¹⁰¹에서 흰 매를 바쳤다. 그리고 근강국(近江國)에서 흰 꿩을 바쳤다. 무진(23일)에 여러 신사에 폐백을 바쳤다.

2월 을해삭 계미(9일)에 대왜, 하내(河內; 카후치), 섭진(攝津; 셋츠), 산배(山背; 야마시로), 파마(播磨), 담로(淡路; 아하지), 단파(丹波), 단마(但馬; 타지마), 근강(近江), 약협(若狹; 와카사), 이세(伊勢), 미농(美濃), 미장(尾張; 워하리) 등의 국(國; 쿠니)에 칙을 내려 “각 관할하의 백성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는 남녀 및 주유(侏儒)¹⁰², 기인(伎人)¹⁰³을 뽑아서 바쳐라.”라고 명하였다. 정해(13일)에 십시황녀와 아폐황녀(阿閉皇女; 아헤노히메미코)가 이세신궁에 참배하였다. 기축(15일)에 조를 내려 “갑자년에 제씨(諸氏)에게 준 부곡(部曲)¹⁰⁴은 지금 이후로 모두 그만 둔다.

96 소위 御薪이라 한다. 궁정에서 필요한 땔감을 백관이 바치는 행사이며, 養老영제에서는 정월 15일에 행해졌다.

97 천문을 관찰하고 길흉을 점치기 위한 시설로서 唐의 사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에서는 선덕왕 시대에 점성대가 축조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고도 경주지방에 높이 약 9미터의 석조 유구를 남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달리 보이지 않으며, 후에는 음양료의 천문박사의 임무가 되었다. 천무천황이 천문 기술에 뛰어나 있던 점은 즉위전기 및 원년(672) 6월 24일조를 통해 알 수 있다.

98 정월 7일에 행하는 節會이다.

99 원문은 百寮諸人이다.

100 즉 射禮를 말한다.

101 관동지방의 총칭이다.

102 골계한 재주를 업으로 삼는 키 작은 난쟁이를 말한다.

103 배우나 창우(倡優), 즉 광대를 의미한다.

104 천지천황 3년(664) 2월에 제씨에게 民部, 家部를 설정한 일을 말하고 있다.

또 친왕(親王), 제왕(諸王) 및 제신(諸臣)과 아울러 여러 절 등에게 내려준 산택(山澤), 도포(嶋浦), 임야, 피지(陂池)¹⁰⁵는 그 이전 것도 그 이후 것도¹⁰⁶ 모두 그만 두라.”고 명하였다¹⁰⁷. 계사(19일)에 조를 내려 “군신, 백료 및 천하의 인민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만일 이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사항에 따라 벌을 줄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정유(23일)에 천황이 고안성(高安城)¹⁰⁸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신라가 왕자 충원(忠元)¹⁰⁹, 대감급찬(大監級찬) 김비소(金比蘇)¹¹⁰, 대감나말(大監奈末) 김천충(金天冲)¹¹¹, 제감대마(第監大麻)¹¹² 박무마(朴武麻)¹¹³, 제감대사(第監大舍) 김락수(金洛水)¹¹⁴ 등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송사 나말 김풍나(金風那)¹¹⁵, 나말 김효복(金孝福)¹¹⁶이 왕자 충원을 축하까지 보냈다.

3월 을사삭 병오(2일)에 토좌대신(土左大神; 토사노오호카미)¹¹⁷이 신도(神刀) 한 자루를 천황에게 바쳤다. 무오(14일)에 김풍나(金風那) 등에게 축하에서 향응을

105 연못, 즉 용수지이다.

106 이전은 大化改新 이전, 이후는 天智朝의 賜地를 의미하고 있다.

107 채초, 수렵, 어로, 관개 등을 위해 점유를 금지한 것이다.

108 『日本書紀』 천지천황 6년 11월 是月조 참조.

109 신라의 왕자가 직접 사절로 파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당시 신라는 당과 대치하고 있어서 이번 사절 파견 목적이 중대했음을 말해 준다. 충원은 8월에 임무를 마치고 難波에서 귀국하고 있다.

110 여기에만 보인다.

111 여기에만 보인다.

112 대마(大麻)는 신라 17계 관위 중 제12위인 大舍의 잘못으로 보인다.

113 여기에만 보인다.

114 여기에만 보인다.

115 여기에만 보인다.

116 여기에만 보인다.

117 『延喜式』 神名式에 土左國 土左郡에 都佐坐神社라고 보이는 신사이며, 『日本書紀』 천무천황 朱鳥 원년(686) 8월조에도 보이고 있다.

배풀었다. 그리고 축사에서 돌아갔다. 경신(16일)에 제왕 사위(諸王四位)¹¹⁸ 을 외왕(栗隈王)을 병정관(兵政官)¹¹⁹의 장관으로 삼았다. 소금상(小錦上) 대반련어행(大伴連御行; 오토모모노무라지미유키)¹²⁰을 차관으로 삼았다. 이 달 고구려¹²¹가 대형(大兄) 부간(富干)과 대형 다무(多武)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가 급찬 박근수(朴勤修)와 대나말 김미하(金美賀)를 보내어 조(調)를 올렸다.

여름 4월 갑술삭 무인(5일)에 승니(僧尼) 2천4백여 명을 청하여 성대하게 재회(齋會)¹²²를 개최하였다. 신사(8일)에 칙을 내려 “소금상(小錦上) 당마공광마려(當摩公廣麻呂; 타기마노키미히로마로)와 소금하(小錦下) 구노신마려(久努臣麻呂; 쿠노노오미마로) 2인을 조정에 출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오(9일)에 조를 내려 “제국의 곡물대여¹²³는 금후부터는 백성을 잘 살피서 먼저 그 빈부를 파악하여 3등으로 나누어 정하라. 그리고 중호(中戶) 이하에게만 대여하라.”고 하였다. 계미(10일)에 소자(小紫) 미농왕(美濃王)과 소금하 좌백련광족(佐伯連廣足; 사헤키노무라지히로타리)을 보내 용전(龍田; 타츠타)의 입야(立野; 타츠

118 諸臣을 대상으로 하는 26계제 관위와는 달리 諸王을 대상으로 하는 관위는 천무천황 4년(675) 2월부터 동 12년 12월까지 모두 11례가 확인된다. 제왕의 관위는 2~5위까지이며, 제신과는 구별되면서도 位階制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방침은 천무천황 14년(685) 정월에 제정된 위계제(제왕 이상 3계, 제신 48계)에 계승된다.

119 대보, 양로 令制의 兵部省에 해당하는 관사이다.

120 大伴連長德의 자식이다. 天武천황 13년(684)에 宿禰姓이 되었고 持統천황 2년(688) 11월에 천무천황의 葬送의례에서는 布勢御主人과 함께 조사(誄)를 바치고 있다. 지통천황 8년(694) 정월에 氏上이 되었고, 동 10년(696) 10월에는 正廣肆 大納言으로 資人 80인을 사여 받았으며, 大寶 원년(701) 정월에 대납언 正廣參으로 죽어 正廣貳 右大臣에 추증되었다.

121 원문은 高麗이다.

122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 시세조 참조.

123 원문은 貸稅이다. 대세는 봄에 농민에게 관도를 대여한 후 수확기에 이자를 더해 반납시키는 公出舉, 즉 스이코의 제도로 여겨진다.

노)에서 풍신(風神)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소금중(小錦中) 간인련대개(間人連大蓋; 하시히토노무라지오호후타)와 대산중(大山中) 증네련한견(曾禰連韓犬; 소네노 무라지카라이누)을 보내 광뢰(廣瀨; 히로세)의 하곡(河曲; 카하와)에서 대기신(大忌神; 오호이미노카미)을 제사지내게 하였다¹²⁴. 정해(14일)에 소금하(小錦下) 구노 신마려는 조명(詔命)을 전하는 사자에게 반항한 일로 인해 관위를 모두 삭탈당 하였다. 경인(17일)에 제국(諸國)에 조를 내려 “금후 각종 어업, 수렵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하노니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는 일, 기계를 이용한 창 놓기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또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전까지 어린 고기를 잡는 것을 하지 마라. 또 소, 말, 개, 원숭이, 닭의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라. 이 이외에는 금례에 들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였다. 신묘(18일)에 삼위(三位) 마속왕(麻績王; 워미노오호키미)이 죄가 있어 인파(因播; 이나바)에 유배하였다. 한 아들은 이두도(伊豆嶋; 이즈노시마)에 유배하고 한 아들은 혈록도(血鹿嶋; 치카노시마)에 유배하였다. 병신(23일)에 여러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뽑아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 달에 신라의 왕자 충원(忠元)이 난파(難波)에 도착하였다.

6월 계유삭 을미(23일)에 대분군혜척(大分君惠尺; 오호키다노키미워사카)¹²⁵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천황이 크게 놀라서 조를 내려 “그대 혜척이여, 사를 버리고 공을 향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 씩씩한 마음으로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언제나 그대의 노력에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가

124 소위 廣瀨・龍田祭로 여기에서 처음 보인다. 大忌祭는 산과 계곡의 물이 甘水가 되어 수전을 윤택하게 하여 오곡을 여물게 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며, 風神祭는 풍수의 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제사로 4월과 7월에 행해진다. 본래 大和평야의 농업신인데, 그 제사가 국가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5 豊後國 大分郡의 호족으로 大津皇子를 따라 鈴鹿關에서 大海人皇子 일행과 합류하고 있다.

이미 죽었다고 해도 자손에게 후하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외소자의 위에 승진시켰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택에서 죽었다(薨).

가을 7월 계묘삭 기유(7일)에 소금상 대반련국마려(大伴連國麻呂; 오호토모노 무라지쿠니마로)¹²⁶를 대사로 하고 소금하 삼택길사입석(三宅吉士入石; 미야케노키 시이리시)¹²⁷을 부사로 하여 신라에 파견하였다.

8월 임신삭(1일)에 탐라의 조사(調使)인 왕자 구마기(久麻伎)¹²⁸가 축자에 도착하였다. 계사(22일)에 바람이 몹시 불어 모래를 날려 집을 무너뜨렸다. 병신(25일)에 충원이 배례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난파에서 배가 출발하였다. 기해(28일)에 신라와 고구려¹²⁹ 두 나라의 조사(調使)에게 축자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9월 임신삭 무진(27일)에 탐라왕 고여(姑女)¹³⁰가 난파에 이르렀다.

겨울 10월 신미삭 계유(3일)에 사신을 사방으로 보내 일체경(一切經)¹³¹을 구하게 하였다. 경진(10일)에 술을 마련해 놓고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병술(16일)에 축자에서 당인(唐人) 30인을 바쳤다. 그리하여 원강국(遠江國; 토오츠 오우미노쿠니)에 보내 살게 하였다. 경인(20일)에 조를 내려 “제왕 이하 초위(初位) 이상은 각각 무기를 비치하라.”고 하였다. 이 날 상모국(相摸國; 사가미노쿠니)에서 “고창군(高倉郡; 타카쿠라노코호리)¹³²의 여인이 한 번에 세 명의 남자와

126 5년 2월에 귀국하고 있다.

127 여기에만 보인다. 三宅吉士의 경우는 천무천황 12년 10월에 連을 사성받았다.

128 천지천황 8년 3월, 천무천황 2년 6월에 이은 세 번째 來日기사이다.

129 원문은 高麗이다.

130 천지기 5년(666) 정월초에는 ‘왕자 姑女’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때는 왕이 된 후 왕자 久麻伎와 함께 8월에 來倭해 入京을 위해 9월에 難破에 이르렀고, 다음해(5년) 7월에 귀국한 것으로 생각된다.

131 『日本書紀』 효덕천황 백지 2년 12월조 참조.

132 현재의 神奈川縣 高座郡, 藤澤市, 茅崎市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를 낳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1월 신축삭 계묘(3일)에 어떤 사람이 궁의 동쪽 언덕에 올라 요상한 말(妖言)을 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 날 밤에 당직한 자에게 모두 작 일급을 내려주었다. 이 달에 큰 지진이 있었다.

5년 봄 정월 경자삭(1일)에 군신 백료가 배례¹³³하였다.¹³⁴ 계묘(4일)에 고시 황자 이하 소금(小錦) 이상의 대부들에게 의(衣), 고(袴), 습(褶), 요대(腰帶)¹³⁵, 각대(脚帶) 및 궤(机)¹³⁶, 장(杖)을 내려주었다. 다만 소금의 3계¹³⁷에게는 궤를 주지 않았다. 병오(7일)에 소금 이상의 대부들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갑인(15일)에 백료 중 초위 이상이 장작(薪)을 바쳤다. 이 날에 조정에 전원을 집합시켜 연회를 베풀었다. 을묘(16일)에 녹물을 마련해 놓고 서문의 뜰에서 활쏘기¹³⁸를 행했다. 표적에 적중시킨 자에게는 녹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이 날 천황이 도궁(嶋宮)으로 나가서 연회를 베풀었다. 갑자(25일)에 “무릇 국사(國司)에 임명할 때에는 기내(畿内; 우치즈쿠니) 및 육오(陸奥; 미치노쿠), 장문국(長門國; 나가토노쿠니)을 제외하고 그 이외는 모두 대산위(大山位)¹³⁹ 이하의 사람을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133 원문은 拜朝이다.

134 이 의례는 다름 아닌 賀正의 예를 말한다.

135 親王 이하의 朝服·制服, 武官의 예복에 착용하는 것으로 金銀裝과 烏油의 두 종류가 있었다.

136 팔꿈치를 기대는 脇息이다.

137 小錦上, 小錦中, 小錦下의 3계를 말하는데, 小錦의 관위는 이후의 5위에 상당하는 관위이다. 大寶·養老令制 아래에서도 4위와 5위 사이에는 대우상에 일정한 차별이 있었다.

138 원문은 大射이다.

139 大山位는 훗날의 6위에 상당하는 관위인데, 『養老令』官位令의 규정에서는 대국, 상국의 장관(守)이 5위, 중국, 하국의 장관이 6위 상당이었다. 이를 통해 관위상당제가 이 시기에 들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월 경오삭 계사(24일)에 탐라의 사신에게 배 한 척을 주었다. 이 달에 대반
런국마려 등이 신라에서 돌아왔다¹⁴⁰.

여름 4월 무술삭 신축(4일)에 용전의 풍신(風神)과 광뢰의 대기신(大忌神)에게
제사지냈다. 왜국(倭國) 첨하군(添下郡; 소후노시모노코호리)¹⁴¹의 악적길사(鰐積吉
事; 와니즈미노요고토)¹⁴²가 서계(瑞鷄)를 바쳤다. 그 벗이 동백꽃과 같았다. 이 날
왜국의 포파군(飽波郡; 아쿠나미노코호리)¹⁴³에서 아뢰길 “암탉이 수탉이 되었습니
다.”라고 보고하였다. 신해(14일)에 칙을 내려 “제왕과 제신에게 내려준 봉호(封
戶)¹⁴⁴의 세금은 서쪽 지역[西國]은 정지하고 대신 동쪽 지역[東國]에 주어라¹⁴⁵.
또한 외국(外國; 토즈쿠니)¹⁴⁶ 출신자로 벼슬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臣), 연(連),
반조(伴造)의 자식[子] 및 국조(國造)¹⁴⁷의 자식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이하의 서민

140 4년 7월에 출발한 견신라사의 귀국 기사이다.

141 현재의 나라시의 서부, 大和郡 山市의 대부분, 生駒市の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藤
原宮跡 출토 목간에 「倭國所布評」이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상하 2군으로 나뉘어
添上, 添下郡이 된 것은 대보령 성립 이후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기에 첨하군이라 보이
는 것은 후대의 文飾이다.

142 여기에서만 보인다. 鰐積씨의 경우도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143 飽波郡은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和名類聚抄』에서는 大和國 平群郡에 飽波郷이
있으며, 『속일본기』 神護慶雲 원년(767) 4월조, 동 3년 是月條에 飽波宮, 天平勝寶 2
년(750) 2월 24일의 「官奴司解」에 飽波村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현재의 奈良縣 生駒郡
安堵村 지방으로 추정된다.

144 食封으로 내려준 戶로부터의 수익을 말하는데, 대보·양로영제에서는 調庸의 전액과 田
租의 2분의 1이 봉주의 수익이 된다.

145 대화개신에 즈음하여 지급된 食封은 구래의 部曲을 그대로 식봉으로 지급했던 것이 많
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토지를 바꿈으로써 봉주와 봉민 간의 부곡제적인 관
계를 불식시키려 했다. 이후 이러한 식봉제와 관련한 시책은 8년 4월, 9년 4월, 11년 3
월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46畿内지역 밖의 제 지역을 말한다. 중앙호족의 出身法은 2년 5월에 정해졌다.

147 이 國造는 소위 대화개신 이후의 1國 1員의 국조가 아니라 家格을 나타내기 위해 이전
의 칭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라 하더라도 재능이 특별한 자의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기미(22일)에 미농국의 국사에게 조(詔)를 내려 “여저군(礪杵郡; 토키노코호리)¹⁴⁸에 있는 기신가좌마려(紀臣訶佐麻呂; 키노오미카사마로)¹⁴⁹의 아들들 동국으로 옮겨서 그 국의 백성으로 하라¹⁵⁰.”고 하였다.

5월 무진삭 경오(3일)에 조(調)를 바치는 기한¹⁵¹을 어긴 국사(國司)들이 범한 상황을 말하였다. 운운. 갑술(7일)에 하야국사(下野國司; 시모츠케노노쿠니노미코토 모치)가 “국내의 백성이 흉년으로 인해 굶주려 아이를 팔고자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조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¹⁵². 이 달 칙을 내려 “남연산(南淵山; 미나부치야마)¹⁵³, 세천산(細川山; 호소카하야마)¹⁵⁴에서 벌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기내(畿内)의 산야 가운데 원래 금하고 있는 장소¹⁵⁵에서는 함부로 태우거나 벌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6월에 4위¹⁵⁶ 율외왕이 병을 얻어 죽었다(薨). 물부웅군련(物部雄君連; 모노노

148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는 土岐郡이 보이는데, 현재의 岐阜縣 土岐郡 및 土岐市이다.

149 국사대계본 『日本書紀』는 기신아좌마려(紀臣阿佐麻呂; 키노오미아사마로)로 되어 있다.

150 백성으로 한다는 말은 일반 공민이 되어 과역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즉 과역을 징수하라는 말이다.

151 『養老令』 賦役令의 규정에 따르면, 조용의 경우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近國은 10월, 中國은 11월, 遠國은 12월 30일까지 중앙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2 『日本書紀』 持統천황 5년(691) 3월조 및 『弘仁式』 刑部式の 규정에 의하면 당시는 立券, 즉 문서를 작성하지만 하면 부모가 자식을 파는 것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점차 매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3 南淵은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稻淵이다. 『속일본기』 延喜 2년(902) 3월조의 藤原田麻呂의 傳에 ‘蜷淵山에 은거했다’고 보이고 있다.

154 세천은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細川이다. 『만엽집』 1330번 노래에 ‘南淵의 細川山에 서 있는 檀’이라 보인다.

155 소위 禁野를 말하는 것으로 천황의 遊獵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原野이다.

156 4위는 제왕의 위계이다.

베노유키미노무라지)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卒). 천황이 이를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임신년에 천황의 거가를 따라 동국(東國)으로 들어가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은공을 내려 내대자위(內大紫位)를 추증하였다. 그리고 씨족의 우두머리, 즉 씨상(氏上; 우지노코노카미)¹⁵⁷의 지위를 하사하였다. 이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그리하여 사신을 사방으로 보내어 폐백을 바치고 신기(神祇)들에 기도하게 하였다. 또 여러 승니를 청하여 삼보(三寶), 즉 부처님께 기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오곡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굶주렸다.

가을 7월 정묘삭 무진(2일)에 경대부 및 모든 백관들에게 작위를 올려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갑술(8일)에 탐라의 사신¹⁵⁸이 귀국길에 올랐다. 임오(16일)에 용전(龍田)의 풍신(風神)과 광뢰(廣瀨)의 대기신(大忌神)에게 제사지냈다. 이 달 촌국련웅의(村國連雄依; 무라쿠니노무라지위요리)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외소자위(外小紫位)를 추증하였다. 동쪽에 별¹⁵⁹이 나타났다. 그 길이가 칠팔 척으로 9월이 되자 하늘 반대쪽에 도달하였다.

8월 병신삭 정유(2일)에 친왕 이하 소금(小錦) 이상의 대부 및 황녀(皇女)¹⁶⁰, 희왕(姬王)¹⁶¹, 내명부(內命婦)¹⁶²들에게 식봉¹⁶³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신해(16일)에 조(詔)를 내려 “사방에 대해제(大解除)¹⁶⁴를 행하라. 그에 필요한

157 物部氏の 氏上이다. 사망시의 추증으로 명예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로써 榎井氏は 모노노베씨 일족을 대표하는 지위를 천황으로부터 보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58 4년 8월에 來倭한 耽羅王 姑如 일행을 말한다.

159 혜성을 말한다.

160 천황의 딸, 즉 內親王이다.

161 내친왕의 2~5세의 왕, 즉 女王을 말한다.

162 5위(=소금위) 이상의 관위를 지닌 부인이다.

163 대보·양로령의 규정에서 位封의 지급대상은 3위 이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지급대상의 범위가 5위의 규정보다 훨씬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물건¹⁶⁵은 국별로 국조(國造)¹⁶⁶가 마련하라. 바치는 공물¹⁶⁷은 말 1필, 피륙 1상(常)¹⁶⁸으로 한다. 그 밖의 물건은 군사(郡司)가 담당하며 각각 도(刀) 1구, 녹피(鹿皮) 1장, 광(纓) 1구, 도자(刀子) 1구, 겹(鎌) 1구, 시(矢) 1구(具), 도(稻) 1속을 마련하고, 또한 집집마다 마(麻) 1조(條)를 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임자(17일)에 조를 내려 “사형, 물관¹⁶⁹, 삼류(三流)¹⁷⁰는 모두 한 등급을 내려라. 도죄(徒罪)이하¹⁷¹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모두 사면하라¹⁷². 다만 이미 유배된 자의 경우는 사면의 예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날 제국에 조를 내려 방생¹⁷³하게 하였다. 이 달에 대삼륜진상전자인군(大三輪眞

164 大祓(오오하라에)을 말한다. 大祓은 보통의 경우 6월과 12월의 그믐날에 행해지는데, 질병, 재해시에 임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의 오오하라에는 임시의 경우에 해당한다.

165 이詔와 관련해서는 『養老令』神祇令에 「凡諸國須大祓者，每郡出刀一口，皮一張，鉏一口，及雜物等，戶別麻一條，其國造出馬一匹」이라는 규정이 있다. 아마도 이詔의 규정이 이후에 令文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166 이 국조는 대화개신 후의 일국일원의 국조를 가리키며, 이전의 국조 가운데에서 선발해 일국 내의 祭祀, 神事に 관한 일을 담당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제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167 원문은 祓柱이다. 불주는 계가레(穢), 즉 부정이나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물건이다. 柱는 그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다.

168 『양로령』賦役令의 『令義解』, 동 『令集解』穴說에 의하면 庸布 一丈三尺을 一常이라 하고 있으며, 『大寶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169 큰 죄를 지은 경우에 대죄인의 부자, 家人을 몰수하여 관호, 관노비로 삼고 資財를 모두 관물로 삼는 것을 말한다. 『養老律』의 규정에서는 모반, 대역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진 경우, 그 부자와 가인을 몰수하여 관호 또는 관노비로 삼고 자재를 관물로 하는 것을 물관이라 한다. 『속일본기』天平 13년 정월조에는 藤原廣嗣의 난과 관련해 「與黨死罪二十六人，沒官五人，流罪四十七人」이라 보인다.

170 3류는 遠流, 中流, 近流를 말한다.

171 徒, 杖, 笞刑에 해당하는 죄이다.

172 詔 발표 당일(17일)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발각된 경우도 앞으로 발각될 경우도 모두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73 방생에 관한 초견 기사이다. 잡힌 동물을 놓아주고 공덕을 쌓는 불교의 행사이다.

上田子人君；오호미와노마카무다노코비토노키미)¹⁷⁴이 죽었다(卒). 천황이 이를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임신년의 공에 따라 내소자위(內小紫位)를 추증하였다. 그리고 대삼륜진상전영군(大三輪眞上田迎君；오호미와노마카무다노무카헤노키미)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9월 병인삭(1일)에 비가 와서 고삭(告朔)¹⁷⁵을 행하지 않았다. 을해(10일)에 왕경(王卿)을 왕경 및 기내(畿內)에 보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기[兵]를 조사하게 하였다. 정축(12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츠쿠시노오호미코토모치) 삼위 옥원왕(屋垣王；야카키노오호키미)¹⁷⁶이 죄가 있어 토좌(土左；토사노쿠니)에 유배하였다. 무인(13일)에 모든 백관들 및 제번(諸蕃)의 사람¹⁷⁷들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병술(21일)에 신관(神官)이 “신상(新嘗；니히나에)을 위해 봉사할 국군(國郡)을 점치게 하였습니다. 재기(齋忌)¹⁷⁸[齋忌는 유키(諭既)라 읽는다.]¹⁷⁹는 미장국(尾張國；워하리노쿠니) 산전군(山田郡；야마다노코호리)¹⁸⁰, 차(次[次는 스키(須岐)라 읽는다.]¹⁸¹는 단파국(丹波國；타니하노쿠니) 가사군(訶沙郡；카사노코호리)¹⁸²이

174 伊勢國의 차관[介]으로 大海人皇子를 鈴鹿郡에서 맞이하여 후에 伊勢에서 大和로 공격해 들어갔다.

175 고삭(告朔)의 초견 기사이다. 일본에서의 고삭의식은 중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매월 삭일에 천황이 朝堂에서 諸司가 진주한 전월의 공문서를 보는 의식이다.

176 여기에만 보인다.

177 외국에서 온 도래자를 말한다.

178 『延喜式』 踐祚大嘗祭式과 동 宮內式에는 즉위 후 처음으로 행하는 대상제에는 제국 가운데 유키와 스키 양 國郡을 卜定하고, 매년 행하는 신상제에는 기내의 官田을 복정하여 그 稻, 粟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천무천황 즉위 후의 대상제는 2년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년의 新嘗祭의 경우에 해당한다.

179 유키의 유는 금기시 하는 것,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 신성한 것의 의미이며, 키는 술(酒)의 고어이다. 따라서 유키는 신상제에 바치는 신성한 술을 제조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180 愛知縣 名古屋市の 북부, 春日井市, 瀬戸市에 이르는 지역이다.

181 여기서는 매년의 新嘗祭를 위한 유키, 스키의 복정이며, 스키는 다음(次), 즉 두 번째의 의미로 첫 번째의 유키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키를 바치는 국군이라는 의미이다.

라는 점이 나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달에 판전공뢰(坂田公雷; 사카타노키 미이카즈치)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자위(大紫位)를 추증하였다.

겨울 10월 을미삭(1일)에 술을 마련하여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다¹⁸³. 정유(3일)에 상신상(相新嘗)¹⁸⁴ 의식과 관련된 신기에 폐백을 바쳤다¹⁸⁵. 갑진(10일)에 대을상(大乙上) 물부련마려(物部連麻呂)¹⁸⁶를 대사로 삼고 대을중(大乙中) 산배직백족(山背直百足; 아마시로노아타히모모타리)¹⁸⁷을 소사로 삼아 신라에 파견하였다.

11월 을축삭(1일)에 신상제와 관련한 일로 인해 고삭을 행하지 않았다. 정묘(3일)에 신라가 사찬¹⁸⁸ 김청평(金淸平)¹⁸⁹을 보내어 국정을 알렸다¹⁹⁰. 아울러 급찬¹⁹¹ 김호유(金好儒)¹⁹²와 제감대사(弟監大舍)¹⁹³ 김흠길(金欽吉)¹⁹⁴ 등을 보내

182 현재의 京都府 加佐郡, 舞鶴市에 해당된다.

183 소위 孟冬旬을 말하는데, 孟夏旬과 함께 여름, 겨울의 계절이 바뀌는 처음 시기에 천황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고 정무를 듣는 의식이다.

184 相嘗祭의 최초 기사이다. 新嘗祭에 앞서 新穀을 천신지기에게 바치는 제사이다.

185 『養老令』 神祇令의 규정에서는 11월의 上卯日에 행해진다.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신들에게 폐백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186 6년 2월에 신라에서 귀국하고 있다. 宇麻呂의 아들, 乙麻呂의 아버지이며 후에 物部朝臣, 다시 石上朝臣이 되는 인물로 養老 원년 3월 左大臣 정2위로 죽어, 종1위를 追贈받았다.

187 여기에만 보인다.

188 신라의 관위 17계 중 제8위에 해당한다.

189 6년 3월에 왕경에 초청되어 8월에 귀국하고 있다.

190 원문은 請政이다. 이 해(676년) 2월, 신라의 저항에 직면한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김으로써 마침내 신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번 신라 사절은 전 달(10월)의 왜국 측의 견신라사 파견에 대한 답례의 의미도 있으나 신라가 당을 축출하고 한반도를 통일한 사정을 왜국에 전할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日本書紀』 원문은 이 신라사의 파견 목적을 「請政」이라 표현하고 있다. 請政은 「奏請國政」의 의미로 자국의 國政을 上奏하여 허가를 얻는다는 말이다. 당시의 신라가 왜국에 국정을 보고할 의무도 없었고, 양자가 정치적으로 그러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請政이라는 文言은 『日本書紀』 편자가 신라=蕃國觀에 기초해 文飾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 조를 바쳤다. 그 송사인 나밀¹⁹⁵ 피진나(被珍那)¹⁹⁶와 부사 나말 호복(好福)¹⁹⁷이 청평 등을 축자까지 보내왔다¹⁹⁸. 이 달에 숙신(肅愼) 사람 7인이 청평 등을 따라왔다. 계미(19일)에 왕경에 가까운 제국에 조(詔)를 내려 방생하게 하였다. 갑신(20일)에 사자를 사망의 제국에 보내어 금광명경과 인왕경을 강설¹⁹⁹하게 하였다. 정해(23일)에 고구려가 대사 후부(後部)²⁰⁰ 주부(主簿) 아우(阿于)²⁰¹와 부사 전부(前部) 대형(大兄) 덕부(德富)²⁰²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와 관련해 신라는 대나밀²⁰³ 김양원(金楊原)²⁰⁴을 파견해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까지 보내왔다.

이 해에 신성(新城; 니히키)²⁰⁵에 도읍을 만들려고 하였다. 해당 구역 안의 논밭은 공사를 불문하고 모두 경작하지 않아 황폐해졌다. 그러나 결국 도읍을 건설하지 않았다.

191 신라의 관위 17계 중 제9위이다.

192 신라 조사 일행의 大使에 상당한 인물로 여기에만 보인다.

193 제감은 신라 무관직의 하나이며, 대사는 신라 관위 17계 중 제12위이다.

194 여기에만 보인다.

195 신라의 관위 17계 중 제11위이다.

196 6년 4월에 筑紫에서 귀국하고 있다.

197 김청평 일행의 송사로 여기에만 보인다.

198 이들 신라사의 송사 일행은 6년 4월 筑紫에서 항응을 제공받고 귀국하고 있다.

199 금광명경과 인왕경은 호국경전으로 존송되고 있는데, 齊明 6년(660) 5월에도 인왕반야회를 개최하고 있고 天武, 持統朝에서 나라시대에 걸쳐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다.

200 고구려의 귀족조직인 5부의 하나이다.

201 여기에만 보인다.

202 여기에만 보인다.

203 신라의 관위 17계 가운데 제10위이며, 11년 6월조의 大那末과 동일하다.

204 지통천황 7년 2월에도 사자로 파견되고 있다.

205 新城에 관해서는 奈良縣 大和郡 山市 新木에 비정하는 설과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기 위한 땅의 의미로 후의 藤原京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

6년 봄 정월 갑자삭 경진(17일)에 남문에서 대사(大射)가 있었다.

2월 계사삭(1일)에 물부련마려가 신라에서 돌아왔다. 이 달에 다네도(多福嶋; 타네노시마)²⁰⁶ 사람들에게 비조사(飛鳥寺)의 서쪽 느티나무[槻] 아래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3월 계해삭 신사(19일)에 신라의 사신 청평 및 그 이하의 객 13인을 왕경으로 불렀다.

여름 4월 임진삭 임인(11일)에 익전사명창(杵田史名倉; 쿠히타노후비토나쿠라)이 천황²⁰⁷을 비방하였다는 죄²⁰⁸로 인해 이두도(伊豆嶋)에 유배하였다. 을사(14일)에 송사 진나(珍那) 등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바로 축사에서 돌아갔다.

5월 임술삭(1일)에 고삭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갑자(3일)에 대박사(大博士)²⁰⁹ 백제인 솔모(率母)²¹⁰에게 칙을 내려 대산하(大山下)의 관위를 주었다²¹¹. 이에 30호를 봉하였다. 이 날, 왜화사음도(倭畫師音禰; 아마토노에시오토키시)²¹²에게 소산하(小山下)의 관위를 주었다. 곧 20호를 봉하였다. 무진(7일)에 신라인 아찬 박자파(朴刺破), 종자 3인, 승려 3인이 혈록도(血鹿嶋; 치카노시마)²¹³에 표착

206 현재의 鹿兒島縣 種子島이다.

207 원문은 乘輿이다.

208 『養老律』職制律에 「凡指斥乘輿, 情理切害者斬, 非切害者徒二年。」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8학 가운데 여섯 번째인 大不敬에 상당하는 죄이다.

209 율령제하의 대학박사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보인다.

210 天智紀 10년(671) 정월 시월조에 보이는 許率母와 동일인물이다.

211 허솔모는 천지천황 10년 정월에 小山上의 관위를 수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위가 승진한 것이다.

212 여기에만 보인다. 倭畫師씨는 大和國 添上郡 大岡郷(현 天理市 부근)을 본거지로 하는 도래계 씨족이다.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大岡忌寸조 참조.

213 長崎縣 五島列島에 위치하고 있다.

하였다²¹⁴. 기축(26일)에 칙을 내려 “천사지사(天社地社)의 신세(神稅)²¹⁵는 삼분 하여 한 몫²¹⁶은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 하고 두 몫은 신주(神主)에게 주어라.” 라고 명하였다. 이 달에 가뭄이 들었다. 왕경 및 기내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6월 임진삭 을사(14일)에 큰 지진이 있었다. 이 달, 동한직(東漢直; 야마토노 아야노아타히)²¹⁷ 등에게 조를 내려 “그대들의 일족은 지금까지 일곱 가지 악역(惡逆)을 범하였다. 그 때문에 소간전(小墾田; 위하리다)²¹⁸ 시대부터 근강조(近江朝)²¹⁹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대들을 조정해 음모가 행해져왔다. 지금 짐의 시대에 와서 그대들이 행한 악역을 책하여 법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한직 씨족의 대를 끊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로써 용서한다. 금후에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가을 7월 신유삭 계해(3일)에 용전(龍田)의 풍신(風神)과 광뢰(廣瀨)의 대기신(大忌神)에게 제사지냈다.

8월 신묘삭 을사(15일)에 비조사에서 크게 설재(設齋)하고 일체경을 읽게 하였다. 그리고 천황이 절의 남문에 나가서 삼보를 배례하였다. 이때 친왕, 제왕 및 군경에게 조를 내려 사람마다 1인씩을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하였다. 출가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원하는 대로 출가시켰다. 이로써 크게 재회(齋

214 표착한 박자와 일행은 동년 8월에 신라사 김청평 일행의 귀국시에 함께 돌아갔다.

215 신사에 속하는 神戶가 내는 田租이다.

216 3분의 1을 말한다.

217 東漢氏(야마토노아야우지)는 阿知使主의 자손이라 칭하는 도래계 씨족인데, 많은 支氏로 나뉘어 있고 모두 直姓을 갖고 있다. 大和國 高市郡의 檜前(히노쿠마, 明日香村)을 본거지로 하여 奈良분지 남부에 걸쳐 널리 발전했다. 군사력으로 검비하여 과거엔 소가씨(蘇我氏)의 무력이 되었는데[崇峻紀 5년 11월조, 皇極紀 3년(644) 11월조, 동 4년 6월조], 임신의 난 때에는 坂上直, 長尾直, 倉壻直, 民直, 谷直 등 많은 일족들이 大海人 황자 편에 가담해 전공을 세웠다.

218 推古천황의 시대를 말한다.

219 天智천황의 시대를 말한다.

會)를 열어 참가하게 하였다. 정사(27일)에 김청평이 귀국하였다. 표착한 박자파 등을 청평 등에게 팔려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무오(28일)에 탐라가 왕자 도라(都羅)를 보내 조공하였다.

9월 경신삭 기축(30일)에 조(詔)를 내려 “무릇 부랑인²²⁰으로 본국으로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온 자에게는 본적지와 부랑지에서 모두 과역²²¹을 징발하라.”고 하였다.

겨울 10월 경인삭 계묘(14일)에 내소금상(內小錦上) 하변신백지(河邊臣百枝; 카하헤노오미모모에)²²²를 민부경(民部卿)²²³으로 삼고, 내대금하(內大錦下) 단비공마려(丹比公麻呂; 타지히노키미마로)를 섭진직대부(攝津職大夫)²²⁴로 삼았다.

11월 기미삭(1일)에 비가 와서 고삭을 행하지 않았다. 축자대재가 붉은 까마귀(赤烏)²²⁵를 바쳤다. 이에 대재부의 여러 관인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또 붉은 까마귀를 잡은 자에게 작(爵) 5급을 주었다. 아울러 해당군의 군사(郡司)들에게 작위를 올려주었다. 또한 군내의 백성에게 일 년분의 과역을 면제하였다. 이 날 천하에 대사면을 내렸다. 기묘(21일)에 신상을 행하였다. 신사(23일)에 모든 관사(百寮)의 유위자들에게 곡식을 내려주었다. 을유(27일)에 신상에 봉사한 신관 및 국사(國司)들에게 녹을 주었다.

12월 기축삭(1일)에 눈이 내려서 고삭을 행하지 않았다.

220 본적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한다.

221 調와 勞役이다.

222 天智紀 즉위전기조에 관련기사가 보이는데, 제명천황 7년(661) 8월에 백제구원을 위해 파견된 백제구원군의 前將軍으로 임명되고 있다.

223 民部省의 장관이다.

224 攝津職의 장관으로 攝津國의 일반정무 외에 難波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225 『延喜式』 治部式에 上瑞라 되어 있다.

7년 봄 정월 무오삭 갑술(17일)에 남문에서 활을 쏘았다. 기묘(22일)에 탐라인²²⁶이 왕경으로 왔다. 이 해 봄에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제사지내려고 천하에 모두 불계(祓禊)²²⁷하도록 하였다. 재궁(齋宮; 이즈코노미야)²²⁸을 창제(倉梯; 쿠라하시)강²²⁹의 상류에 세웠다.

여름 4월 정해삭(1일)에 재궁에 가려고 점을 쳤다. 계사(7일)가 길하다고 점에 나왔다. 이에 새벽 4시경의 시간을 택해 선발대가 떠났다. 백료가 열을 이루고 천황이 탄 수레가 막 문을 닫고 행차하려고 할 때 십시황녀(十市皇女)가 갑자기 발병하여 궁중에서 죽었다(薨). 이 때문에 천황의 행렬은 정지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신기(神祇)에 제사지내지 못하였다. 기해(13일)에 신궁 서청(西廳)의 기둥에 낙뢰가 있었다. 경자(14일)에 십시황녀를 적수(赤穗; 아카호)에 묻었다. 천황이 장례에 참석하여 은정(恩情)을 베풀고 곡을 하였다.

가을 9월 인해조능마려(忍海造能麻呂; 오시누미노미야츠코요시마로)가 서도(瑞稻) 다섯 줄기를 바쳤다. 줄기마다 가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도죄(徒罪) 이하의 범인을 모두 사면하였다. 삼위 치협왕(稚狹王; 와카사노오호키미)이 죽었다(薨).

겨울 10월 갑신삭(1일)에 솜과 같은 물건이 난파에 내렸다. 길이는 대여섯 치[尺] 정도, 넓이는 일고여덟 치[寸] 정도로 바람을 따라 솔밭과 갈대밭에 퍼져갔다. 당시 사람이 “감로²³⁰다.”라고 말하였다. 기유(26일)에 조서를 내려 “무릇 내외의 문무관²³¹은 매년 사(史) 이상, 그 소속 관인 가운데 공평하고 직무에

226 6년 8월에 도착한 탐라국 왕자 都羅 일행이다.

227 오오하라에(大祓)를 말한다.

228 천황 자신이 神事を 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를 말한다.

229 大和川 支流의 하나이다.

230 甘露는 중국에서는 神靈의 정기로 여겨져 왕자의 덕이 크고 和氣가 변성할 때에 출현하는 상서로 받아들여졌다.

231 재경 제 관사의 관인이 내관, 그 외에는 외관이다. 또한 衛府, 軍團 등 무기를 몸에 지닌 자가 무관, 그 외에는 문관이라 한다.

충실한 자들을 그 우열을 논의하여 진급시킬 위계를 정하라. 정월 10일(상순) 이전에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法官)²³²에게 보내라. 법관은 잘 조사하고 판정하여 대변관(大辨官)²³³에게 상신하여라.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출장을 가야할 날에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부모의 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경솔하게 사사로운 일로 출사하지 않는 자는 진급의 예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²³⁴.

12월 계축삭 기묘(27일)에 되새²³⁵가 하늘을 덮고 서남에서 동북으로 날아갔다. 이 달에 축자국에 큰 지진이 있었다. 지면 넓이가 2장(丈), 길이 3천여 장이 갈라졌다. 백성들의 집이 마을마다 크게 넘어지고 파괴되었다. 이때 어떤 백성의 집이 언덕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진이 있던 밤에 언덕이 무너져 이동하였다. 그러나 가옥은 온전하여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 집 주인은 언덕이 무너지고 집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새벽이 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이 해에 신라의 송사 나말(奈末) 가량정산(加良井山)²³⁶과 나말 김홍세(金紅世)²³⁷가 축자에 이르러 “신라왕이 급찬 김소물(金洸勿)²³⁸과 대나말 김세세(金世

232 文官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사를 말한다. 『大寶令』 이후에는 式部省이라고 하였다.

233 『大寶令』 이후에는 大納言 아래 左右辨官이 있어서 각 省이 보고하는 문서를 접수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단계의 대변관 등의 조직이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234 이 詔는 관인의 考課·選敍(재임 중의 성적을 심사하여 그에 따라 관위를 내리는 일)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養老令』 考課令의 内外官條·選條, 동 選敍令의 應敍條 등의 규정과 관계가 있다. 율령제의 관인기구 창출과 관련된 조치로 주목된다.

235 원문은 臘子鳥이다. 일본에서는 ‘아토리’라고 하며 날개깃이 9개인 참새목의 새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학명은 Fringillidae이다. 부리는 황백색, 허리는 백색, 목과 가슴은 갈색이며 참새보다 크고 가을에 북쪽에서 오는 철새이다.

236 가량은 성, 정산은 이름으로 보인다. 다음해 정월에 상경하고 있다.

237 여기에만 보이는데, 정산과 함께 다음해 정월에 상경하고 있다.

238 조난당한 신라사 일행의 대사에 해당하나, 여기에만 보인다.

世)²³⁹ 등을 보내 금년의 조를 올립니다. 따라서 신 정산을 파견하여 소물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상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소물들과 모두 헤어져 간 곳을 모릅니다. 다만 정산만이 겨우 해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물 등은 결국 오지 않았다.

8년 봄 정월 임오삭 병술(5일)에 신라의 송사 가랑정산과 김홍세 등이 왕경에 왔다. 무자(7일)에 조를 내려 “정월의 의식 때에는 제왕 제신 및 백료는 형제 이상의 웃어른 및 자기 성씨의 장(長)을 제외하고는 절을 하지 말라. 제왕은 어미라도 왕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하지 말라. 제신은 출자가 낮은 어미에게 절하지 말라. 정월의 의식 때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라.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사건에 따라 벌을 주겠다.”라고 명하였다. 기해(18일)에 서문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었다.

2월 임자삭(1일)에 고구려는 상부대상(上部大相) 환보(桓父)²⁴⁰와 하부대상(下部大相) 사수루(師需婁)²⁴¹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가 나말 감물나(甘勿那)²⁴²를 보내 환보 등을 축자까지 보내왔다. 갑인(3일)에 기신견마려(紀臣堅麻呂; 키노오미카타마로)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상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을묘(4일)에 조를 내려 “신사년에는 친왕, 제신 및 백료 사람들의 무기 및 말을 검사하겠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여 두라.”고 하였다. 이 달 큰 은혜를 내려 빈자를 구휼하였다. 춥고 배고픈 자에게 물품을 주었다.

3월 신사삭 병술(6일)에 병위(兵衛; 토네리)²⁴³ 대분군치견(大分君稚見; 오호키

239 조난당한 신라사 일행의 부사로 보이나, 여기에만 보인다.

240 여기에만 보인다.

241 여기에만 보인다.

242 감은 성, 물나는 이름으로 보인다. 신라의 견당사 가운데 邯軼許가 보이고 있다(『삼국사기』 진덕왕 2년 겨울조).

다노키미와카미)이 죽었다. 임신년의 대역을 치르면서 선봉으로 뇌전(瀨田)의 진영을 깨뜨렸다. 이 공으로 외소금상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정해(7일)에 천황이 월지(越智; 오치)에 가서 후강본천황릉(後岡本天皇陵; 노치노위카모토노스메라미코 토노미사사기)²⁴⁴에 참배하였다. 기축(9일)에 길비대재(吉備大宰)²⁴⁵ 석천왕²⁴⁶이 병으로 길비에서 죽었다(薨). 천황이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 대은을 내렸다, 운운. 제왕이위(諸王二位)를 추증하였다. 임인(22일)에 가난한 승니에게 거친 비단, 솜, 피륙을 주었다.

여름 4월 신해삭 을묘(5일)에 조(詔)를 내려 “모든 식봉이 있는 절의 유래를 고려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덜어야 할 것은 덜라.”고 하였다. 이 날 여러 절의 이름을 정하였다²⁴⁷. 기미(9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5월 경진삭 갑신(5일)에 길야궁(吉野宮)에 행차하였다. 을유(6일)에 천황이 황후 및 초벽황자존, 대진황자, 고시황자, 하도황자, 인벽황자, 지기황자에게 조(詔)를 내려 “짐은 오늘 너희들과 같이 뜰에서 맹세하여 천세 후에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떠한가²⁴⁸.”라고 물었다. 황자들이 같이 대답하여 “이치가 아주 명

243 「츠와모노노토네리」라 말하는 것처럼 본래 대화전대의 솜人(토네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令制에서는 조정 수비군인 5衛府의 중핵적인 존재였다. 대보·양로 令制에서는 內 6위 이하 8위 이상의 嫡子 및 郡司의 자제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그 제도가 정비된 것은 천무조인 것으로 보인다.

244 제명천황의 능을 말한다.

245 大宰는 總領이라고도 하며, 지방지배상 중요한 國에 설치되어 근린 수개국의 행정을 관할하는 직이다. 大寶令의 시행과 함께 大宰府(筑紫大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吉備, 周防, 伊豫 등의 예가 있다.

246 『播磨國風土記』에 「石川王爲總領之時」라 보이고 있다.

247 지금까지 飛鳥寺, 斑鳩寺 등 지명을 칭하고 있던 것을 대관대사의 예를 따라 元興寺, 法隆寺 등의 중국풍의 칭호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48 천무천황은 여러 황자가 성인이 됨에 따라 두 번 다시 임신의 난과 같은 황위계승 쟁탈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난과 관련이 깊은 吉野(요시노) 지역에서 서약을 하

확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초벽황자존이 먼저 나아가 맹세하여 “천신지기 및 천황이 증명하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은 우리 형제 10여 왕은 모두 다 각각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나 동복과 이복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천황의 칙에 따라 서로 도와 거역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맹세한 바와 같이 따르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이 끊어지고 자손도 끊어질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섯 명의 황자가 뒤를 이어 맹세하기를 앞서와 같이 하였다. 연후에 천황이 조(詔)를 내려 “짐의 아들들이여, 서로 이복으로 태어났으나 지금은 같은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귀여워 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여섯 황자를 안았다. 또한 맹세하여 “만일 이 맹세에 어긋나면 곧 짐의 몸을 망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후가 맹세한 것도 천황과 같았다. 병술(7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기축(10일)에 여섯 황자가 같이 천황을 대전 앞에서 배례하였다.

6월 경술삭(1일)에 우박이 내렸다. 크기가 복숭아만 하였다. 임신(23일)에 기우를 하였다. 을해(26일)에 대금상 대반두옥련(大伴杜屋連; 오후토모노모리야노 무라지)이 죽었다(卒).

가을 7월 기묘삭 갑신(6일)에 기우를 하였다. 임진(14일)에 광뢰, 용전의 신을 제사하였다. 을미(17일)에 사위(四位) 갈성왕(葛城王)이 죽었다(卒).

8월 기유삭(1일)에 조(詔)를 내려 “제씨(諸氏)는 여인을 바치라.”고 말하였다. 기미(11일)에 박뢰(泊瀨; 하츠세)²⁴⁹에 가서 적경연(迹驚淵; 토도로키노후치)²⁵⁰ 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에 앞서 왕경에 조서를 내려 “타는 말 이외

게 한 것일 것이다. 천무천황의 황자는 총 10명인데, 여기에는 천지천황의 황자인 河嶋 황자·芝基황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천무의 황자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께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49 현재 奈良縣 櫻井市の 初瀨이다.

250 현재 櫻井市 大字白河의 乘田신사 앞에 있는 하천에 轟橋가 있어 그 부근으로 보는 설이

에 다시 좋은 말²⁵¹을 준비하여 부르는 일이 있으면 곧 치출할 수 있게 하라.”
고 말하였다. 박뢰에서 궁으로 돌아오는 날 여러 경들이 준비한 좋은 말을 적
견역가(迹見驛家; 토미노우마야)²⁵²의 길가에서 보고 모두 달리게 하였다. 경오
(22일)에 만조인승(縵造忍勝; 카즈라노미야츠코오시카츠)이 좋은 벼를 바쳤다. 이
량은 다른데 이삭은 같았다. 계유(25일)에 대택왕(大宅王; 오호야케노오호키미)
이 죽었다(卒).

9월 무인삭 계사(16일)에 신라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와 배례하였다. 경자
(23일)에 고구려에 보낸 사신, 탐라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와 같이 조정에 배례
하였다²⁵³.

겨울 10월 무신삭 기유(2일)에 조(詔)를 내려 “짐은 근일 포악한 자가 거리
에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곧 왕경(王卿)들의 잘못이다. 혹은 포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도 귀찮다고 여겨서 숨기고 다스리지 않는다. 또한 나
쁜 사람을 보고도 게을러서 숨기고 바로잡지 않는다. 그 보고 듣는 대로 바로
잡으면 어찌 포악함이 있을 것인가. 때문에 이후로 귀찮다고 여기거나 게을
리 하지 말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책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난폭
을 간하면 국가는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오(11일)에 지진이 있었
다. 경신(13일)에 칙을 내려 승니들의 의장²⁵⁴ 및 법복의 색, 아울러 말과 종자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251 원문은 細馬이다.

252 나라분지의 남부를 동서로 통하는 소위 橫大路에 연해 있는데, 더 동쪽으로 진행하면 初
瀨의 계곡을 경유해 墨坂 고개에서 동국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된다.

253 고구려(고려), 탐라에 대한 견사의 경우는 어디에도 發遣기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착
오로 인한 혼입으로 여겨지지만, 혹은 탐라국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
왕 19년조에 이 해(679년) 2월 신라가 탐라국을 경락했다고 보이고 있어서 이와 관련
된 견사인지도 모른다.

254 원문은 威儀이다.

들이 항간을 왕래할 때의 규정을 정하였다. 갑자(17일)에 신라가 아찬 김항나(金項那)²⁵⁵와 사찬 살류생(薩藥生)²⁵⁶을 보내 조공하였다. 조공물은 금, 은, 철, 정(鼎), 금(鎗), 견(絹), 포(布), 피(皮), 말, 개, 노새, 낙타 따위의 10여 종이였다. 또 따로 물건을 바쳤다. 천황, 황후, 태자에게 금, 은, 도(刀), 기(旗) 따위를 바쳤는데 각각 다수였다. 이 달 칙을 내려 “모든 승니는 언제나 절 안에 거주하고 삼보를 수호하라. 그런데 혹은 늙거나 혹은 병으로 오랫동안 좁은 방에 누워 있어서 노환에 고생하는 자는 행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정해야 할 곳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금후 각 친족 및 독신자에게 부탁하여 한두 채의 사옥(舍屋)을 빈 땅에 세워서 노인을 돌보고 병자에게 약을 주라.”고 하였다.

11월 정축삭 경인(14일)에 지진이 있었다. 기해(23일)에 대을하(大乙下) 왜마사부조련(倭馬飼部造連; 야마토노우마카히베노미야츠코무라지)을 대사로 삼고 소을하(小乙下) 상촌주광부(上村主光父; 우헤노스구리코우부)를 소사로 삼아 다네도(多禰嶋; 타네노시마)에 보냈다. 그리고 작 1급을 주었다. 이 달 처음으로 관(關)을 용전산(龍田山; 타츠타노야마)과 대판산(大坂山; 오호사카노야마)에 두었다. 난파(難波)에 나성(羅城)을 쌓았다.

12월 정미삭 무신(2일)에 좋은 벼²⁵⁷가 생긴 일로 친왕, 제왕, 제신 및 백관 사람들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사형 이외는 모두 사면하였다.

이 해에 기이국 이도군(伊刀郡; 이토노코호리)에서 지초(芝草)²⁵⁸를 바쳤다. 그 모양이 버섯을 닮았다. 줄기의 길이가 한 자, 뒷개는 두 아름이었다. 또 인파국(因播國; 이나바노쿠니)이 서도(瑞稻)를 바쳤다. 포기마다 가지가 있었다.

255 다음해 4월 筑紫에서 향응을 받고 6월에 귀국하고 있다.

256 여기에만 보인다. 살이 성이며, 동쪽 가운데 薩仲業이 寶龜 10년에 신라사의 대판관으로 파견되고 있다.

257 원문은 嘉禾이다.

258 영지버섯이다.

9년 봄 정월 정축삭 갑신(8일)에 천황이 향소전(向小殿; 무카이노코안도노)에 나아가 왕경과 대전의 뜰에서 연회를 하였다. 이 날 기부수수(忌部首首; 이미베노오비토코비토)에게 성을 주어 연(連; 무라지)이라 하였다²⁵⁹. 아우 색불(色弗; 시코부치)과 같이 기뻐하며 절을 하였다. 계사(17일)에 친왕 이하 소건(小建)²⁶⁰에 이르기까지 남문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병신(20일)에 섭진국(攝津國; 츠노쿠니)이 “활전촌(活田村; 이쿠타노무라)에 복숭아가 열렸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2월 병오삭 계해(18일)에 북소리 같은 것이 동방에서 들려왔다. 신미(26일)에 어떤 사람이 “사슴뿔을 갈성산(葛城山; 카즈라키노야마)에서 얻었습니다. 그 뿔은 줄기가 두 가지인데 끝이 합쳐져 살이 붙어 있습니다. 살 위에 털이 있습니다. 털의 길이는 한 치입니다. 이상히 여겨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아마 인각(麟角)²⁶¹인가. 임신(27일)에 신라의 사정(仕丁) 8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은혜를 내리고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3월 병자삭 을유(10일)에 섭진국(攝津國)이 하얀 무조(巫鳥)[巫鳥는 시토토(芝苔苔)라 읽는다.]를 바쳤다. 무술(23일)에 토전(菟田)의 오성(吾城; 아키)에 행차하였다.

여름 4월 을사삭 갑인(10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을묘(11일)에 굴사(橋寺; 타치바나데라)²⁶²의 여승방에서 불이 나서 방 열 개를 태웠다. 기

259 天武朝의 連姓 賜姓의 최초가 바로 9년 정월의 기부수수에 대한 사성이다. 최초에는 개인에 대한 사성이었으나, 11년(682) 5월의 倭漢直에 대한 사성 이후 씨족 전원에 대한 사성이 시작되어 이후 13년(684) 6월의 8색성 사성의 시기까지 종종 행해졌다. 그 대상은 주로 구 伴造씨이다. 天武朝에서는 위계와 족성의 준비 관련이 매우 밀접했기 때문에 이들 씨족에 대한 사성을 통해 고급관료로서의 家格 상승을 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0 天智朝에 제정된 관위 26계 가운데 최하위이다.

261 기린의 뿔이다. 기린(麟·麟)은 중국의 공상 속의 靈獸이며, 뿔의 끝에 육질이 있는 것은 무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262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橋에 있다. 飛鳥시대에 창건된 사원으로 四天王寺식의 가람배치를 지닌다. 『法王帝說』에서는 聖德太子가 건립한 7寺 가운데 하나라 하고 있다.

사(25일)에 신라의 사신 항나(項那)들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이 달 칙을 내려 “모든 절은 지금부터 나라의 큰 절 두세 곳을 제외하고, 그 이외는 관사가 다스리는 것을 금한다. 다만 식봉이 있는 절은 30년을 한도로 한다. 연수를 헤아려 30년이 차면 그만두어라. 또 생각하니 비조사는 관사가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래는 큰 절로 언제나 관사가 다스려 왔다. 또 그 전에 공이 있었다. 이것으로 관이 다스리는 예에 넣어라.”라고 하였다.

5월 을해삭(1일)에 칙을 내려 붉은 비단, 솜, 실, 피륙을 경내의 24절에 보시하였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 날 처음으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궁중 및 여러 절에서 강설시켰다. 정해(13일)에 고구려가 남부대사(南部²⁶³大使²⁶⁴) 묘문(卯問), 서부대형(西部²⁶⁵大兄) 준덕(俊德)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대나말 고나(考那)를 보내 고구려의 사신 묘문들을 축자에 보내왔다. 을미(21일)에 소금하 진조강수(秦造綱手; 하다노미야츠코즈나테)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상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신축(27일)에 소금중 성천신마려(星川臣麻呂; 호시카하노오미마로)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자위를 추증하였다.

6월 갑진삭 무신(5일)에 신라의 사신 항나 등이 귀국하였다. 신해(8일)에 재가 내려왔다. 정사(14일)에 번개가 심하였다.

가을 7월 갑술삭(1일)에 비조사 서쪽 느티나무 가지가 저절로 부러져 떨어졌다. 무인(5일)에 천황이 견양련대반(犬養連大伴; 이누카히노무라지오호토모)의 집에 가서 문병하였다. 대은을 내렸다, 운운. 이 날 기우를 하였다. 신사(8일)에 광궤, 용전의 신을 제사지냈다. 계미(10일)에 주작(朱雀)이 남문에 머물렀다²⁶⁶. 경인(17

263 고구려의 귀족조직인 5부의 하나로 前部와 동일하다.

264 고구려의 관위로 大使者라고도 칭한다.

265 고구려의 귀족조직인 5부의 하나이다.

266 주작은 四神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문에 주작이 나타난 것을 경축한 것이다.

일에 박정련자마려(朴井連子麻呂; 에노위노무라지코마로)에게 소금하위(小錦下位)를 주었다. 계사(20일)에 비조사의 승려 홍청(弘聽)이 죽었다. 대진황자와 고시황자를 보내 조문하였다. 병신(23일)에 소금하 삼택련석상(三宅連石床; 미야케노무라지 이하토코)이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하위(大錦下位)를 추증하였다. 무술(25일)에 납언(納言)²⁶⁷ 겸 궁내경(宮內卿; 미야노우치노즈카사) 오위(五位) 사인왕(舍人王; 토네리노오호키미)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 고시황자를 보내 문안하였다. 이튿날 죽었다(卒). 천황은 크게 놀라서 고시황자, 천도황자(川嶋皇子; 카하시마노미코)를 보냈다. 빈소에 나가 곡하였다. 백료의 사람들이 따라서 곡하였다.

8월 계묘삭 정미(5일)에 법관 한 사람이 좋은 상서로운 벼를 바쳤다. 이 날부터 사흘 동안 비가 왔다. 홍수가 났다. 병진(14일)에 큰 바람이 나무를 꺾고 집을 부설했다.

9월 계유삭 신사(9일)에 조유(朝儒; 아사츠마)에 행차하였다. 대산위 이하의 말을 장병두(長柄杜; 나가라노모리)에서 관람하였다. 이에 말을 달리며 활을 쏘도록 하였다. 을미(23일)에 지진이 있었다. 기해(27일)에 상내왕(桑內王; 쿠하우치노오호키미)이 자택에서 죽었다(卒).

겨울 10월 임신삭 을사(4일)에 경내 여러 절의 가난한 승니 및 백성을 구휼하고 물건을 내렸다. 승니 1인에게 각각 붉은 비단 4필, 솜 4돈, 피륙 6단이었다. 수행 중의 사미승²⁶⁸과 속인²⁶⁹에게는 각각 붉은 비단 2필, 솜 2돈, 피륙 4단이었다.

11월 임신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갑술(3일)에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동방이 밝았다. 을해(4일)에 고구려인 19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267 天智朝의 御史大夫에 상당하는데, 당시는 大臣이 없고 納言이 최고의 議政官이었다.

268 출가하여 十戒를 받았으나 아직 具足戒를 받지 않아 정식 승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69 원문은 白衣이다. 白衣는 승려의 黑衣에 대한 말로서 속세의 사람을 말한다.

후강본천황(後岡本天皇; 노치노위카모토노스메라미코토)의 상에 조사로 왔다가 머물러서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이다²⁷⁰. 무인(7일)에 백관에게 조(詔)를 내려 “만일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 길이 있으면 조정에 와서 몸소 말하라. 말이 이치에 맞으면 법률로 시행하리라.”고 하였다. 신사(10일)에 서쪽에서 번개가 쳤다. 계미(12일)에 황후가 병이 났다. 황후를 위하여 서원하여 약사사(藥師寺; 야쿠시지)²⁷¹를 세웠다²⁷². 그리고 1백 인의 승려를 출가시켰다. 이 때문에 병이 나았다. 이 날 죄인을 사면하였다. 정해(16일)에 월식이 있었다. 초벽황자를 보내 승려 혜묘(惠妙; 웨묘우)²⁷³의 병문안을 하였다. 이튿날 승려 혜묘가 죽었다. 세 황자를 보내 조상하였다. 을미(24일)에 신라가 사찬 김약필(金若弼)과 대나말 김원승(金原升)을 보내 조공을 올렸다. 언어를 배울 3인이 약필을 따라왔다. 정유(26일)에 천황이 병이 났다. 그리하여 1백 인의 승려를 출가시켰다. 조금 있다가 회복되었다. 신축(30일)에 납자조(臘子鳥)²⁷⁴가 하

270 弔喪使의 渡倭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천지천황 5년(666) 10월 來朝의 貢調使가 이에 해당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고구려는 천지천황 7년(668)에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귀국할 기회를 놓친 것일 것이다.

271 藥師寺는 천무천황이 황후(지통천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發願한 절인데, 천무조에 어느 정도 건립이 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持統紀 2년(688) 정월조에 藥師寺에서 無遮大會를 열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건축시설이 완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지통기 11년(697) 7월조에는 천황의 병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상을 공경들이 藥師寺에서 개안 공양했다고 전하고 있어 본존·금당 등은 지통천황 때에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나, 사원으로서의 정비는 다음의 文武朝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續日本紀』 문무천황 2년(698) 10월조에는 「藥師寺構作略了」라 전하고 있다.

272 寺蹟은 지금의 樞原市 城殿町이며, 平城京 천도(710년) 후 新京의 右京 6條 2坊의 현재 지역으로 옮겨졌고 구지의 사원은 本寺 또는 本藥師寺라 불렸다. 평성경의 약사사에 현존하는 동탑 및 금당의 藥師三尊像에 대해서는 天平期에 새로 조영된 것으로 보는 설과 본약사사에서 옮긴 것이라는 설이 있다.

273 孝德紀 대화 원년(645) 8월조 참조.

274 天武紀 7년(678) 12월조 참조.

늘을 덮고 동남쪽에서 날아와 서북쪽으로 날아갔다.

10년 봄 정월 신미삭 임신(2일)에 제신기에게 폐백을 나누어 바쳤다. 계유(3일)에 백료의 여러 사람이 조정에서 배례하였다. 정축(7일)에 천황이 향소전에 나가 연회를 베풀었다. 이 날 친왕, 여러 왕을 내안전(內安殿; 우치노안도노)에 불러들였다. 제신은 모두 외안전(外安殿; 토노안도노)에 있었다. 같이 술을 놓고 가무를 시켰다. 또한 대산상(大山上) 초향부길사대형(草香部吉士大形; 쿠사카베노 키시오호카타)에게 소금하위를 주었다. 그리고 성을 주어 난파련(難波連; 나니하노무라지)이라 하였다. 신사(11일)에 경부련석적(境部連石積; 사카히베노무라지)이 하츠미)에게 칙을 내려 60호를 주었다. 굵은 비단 30필, 솜 150돈, 피륙 150단, 괭(鑿) 1백 구를 주었다. 정해(17일)에 조정에서 친왕 이하 소건(小建) 이상의 활쏘기가 있었다. 기축(19일)에 기내 및 제국에 조(詔)를 내려 천사(天社), 지사(地社)의 신궁을 수리하게 하였다.

2월 경자삭 갑자(25일)에 천황과 황후가 같이 대극전(大極殿; 오호안도노)에 나가 여러 왕 및 제신을 불러 조(詔)를 내려 “짐은 이제부터 다시 율령을 정하여 법식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같이 이 일을 수행하라. 그러나 갑자기 이 일에만 전념하면 공사를 빼놓을 수가 있다. 사람을 나누어 행하라.”고 말하였다²⁷⁵. 이 날 초벽황자존을 황태자로 하고 정사를 전부 맡겼다. 무진(29일)에 아배부인(阿倍夫人; 아헤노오호토지)이 죽었다(薨). 기사(30일)에 소자위 당마공풍빈(當麻公豐濱; 타키마노키미토요하마)이 죽었다(薨).

3월 경오삭 계유(4일)에 아배부인을 장사지냈다. 병술(17일)에 천황이 대극

275 소위 「淨御原律令」의 편찬 개시이다. 令 22권은 지통 3년 6월에 班賜되었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律의 완성을 보여주는 기사는 없어서 그 완성을 부정하는 설도 있다. 「대보 율령」은 「淨御原律令」에 준거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일본의 율령정치의 대강은 「淨御原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전에 나가 천도황자, 인벽황자, 광뢰왕(廣瀨王; 히로세노오호키미), 죽전왕(竹田王; 타케다노오호키미), 상전왕(桑田王; 쿠와타노오호키미), 삼야왕, 대금하 상모야군 삼천(上毛野君三千; 카미츠케노노키미미치치), 소금중 기부련수(忌部連首; 이무베노무라지오비토), 소금하 아담련도부(阿曇連稻敷), 난파련대형(難波連大形; 나니하노무라지오호카타), 대산상 중신련대도(中臣連大嶋; 나카토미노무라지오호시마)²⁷⁶, 대산하 평군신자수(平群臣子首; 헤구리노오미코비토)에게 조(詔)를 내려 제기(帝紀) 및 상고(上古)의 여러 일을 기록하고 정하게²⁷⁷ 하였다²⁷⁸. 대도와 자수가 친히 집필하여 기록하였다. 경인(21일)에 지진이 있었다. 갑오(25일)에 천황이 신궁(新宮; 니히미야)의 우물가에 가서 시험 삼아 북과 피리의 소리를 내보며 연습하였다.

여름 4월 기해삭 경자(2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신축(3일)에 금식(禁式) 92조를 제정하였다.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복에 착용하는 금, 은, 주옥, 자, 금, 수, 룡 및 전욕(鉋襪), 관, 대 아울러 각양각색의 종류를 쓰는 데 각각 차등이 있게 하라.”고 말하였다. 자세한 것은 조서(詔書)²⁷⁹에 있다. 경술(12일)에 금직조소분(錦織造小分; 니시코리노미야

276 大島는 천무천황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이 되었고, 천무기 14년(685) 9월초 이후는 藤原朝臣으로 보인다. 朱鳥 원년(686) 9월 천무천황의 빈궁에 兵政官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持統천황 4년(690) 정월의 천황 즉위, 동 5년 11월의 大嘗祭에서는 神祇伯 中臣朝臣으로 天神奏詞를 읽는 역할을 맡고 있다. 『懷風藻』에 「大納言 直大二」라 하여 시 두 편을 실고 있다.

277 원문은 記定이다.

278 帝紀는 『古事記』 서문에서 말하는 帝皇日繼로 역대 천황의 계보이다. 上古諸事は 아마도 本辭, 舊辭, 先代舊辭로 칭해지는 것과 동일한 여러 종류의 설화를 말한다. 記定이란 여러 종류의 이설을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 작업을 『古事記』 서문에 의거해 고사기 纂修의 시초로 보는 설이 있으나 오히려 그때까지 천황 자신의 주관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소규모 궁정사업에 대신하는 대규모 국가적 수사사업의 시작으로서 『日本書紀』 성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다.

279 文書로 발표한 詔이다.

츠코워키다), 전정직길마려(田井直吉麻呂; 타위노아타히요시마로), 차전창인심족(次田倉人椹足; 스키타노쿠라히토무쿠타리)[椹은 무쿠(武矩)라 읽는다.], 석승(石勝; 이시카즈), 천내직현(川內直縣; 카후치노아타히아가타)²⁸⁰, 인해조경(忍海造鏡; 오시누미노미야츠코카가미), 황전(荒田; 아라타), 능마려(能麻呂; 요시마로), 대박조백지(大狛造百枝; 오후코마노미야츠코모에)²⁸¹, 족배(足坏; 아시츠키), 왜직룡마려(倭直龍麻呂; 야마토노아타히타츠마로), 문부직대도(門部直大嶋; 카도베노아타히오호시마), 육인조로(穴人造老; 시시히토노미야츠코오키나), 산배박오적마려(山背狛烏賊麻呂; 야마시로노코마노이카마로) 모두 14인에게 성을 주어 연(連; 무라지)이라 하였다. 을묘(17일)에 고구려의 객 묘문(卯門) 들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5월 기사삭 기묘(11일)에 황조(皇祖)의 혼에 제사지냈다. 이 날 조서를 내려 “무릇 백관들이 궁인(宮人)을 공경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혹은 그 문전에 와서 자기 소송의 주선을 부탁한다. 혹은 뇌물을 주어 그 집에 아침을 한다. 금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둘을 함께 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갑오(26일)에 고구려의 묘문이 돌아갔다.

6월 기해삭 계묘(5일)에 신라사(新羅客) 약필(若弼)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을묘(17일)에 기우를 하였다. 임술(24일)에 지진이 있었다.

280 여기에서만 보인다. 欽明紀 2년 7월조에 河內直, 天智紀 8년 시세조에 河內直鯨이 보인다. 『新撰姓氏錄』 河內諸蕃에 河內連을 신고 있는데 「出自百濟國都慕王男陰太貴首王也」라 되어 있다. 하내국의 유력호족이다.

281 지통천황 10년(696) 5월경에 사망하였고, 直廣肆를 추증 받았다. 임신의 난 때에 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狛造씨는 천무천황 12년(683) 9월 連姓을 하사받았다. 『新撰姓氏錄』 河內諸蕃에 대박련을 두 번 실어 「出自高麗國人伊利斯沙禮斯也」, 「出自高麗國溢士福貴王也」라 하고 있다. 『和名類聚抄』 河內國 大縣郡에 「巨麻郷」(현재의 오사가 후 柏原市 本堂 부근)이 보인다. 『延喜式』 神名式 同郡條에 大狛神社가 있다.

가을 7월 무진삭(1일)에 주작이 나타났다. 신미(4일)에 소금하 채녀신죽라(采女臣竹羅; 우네메노오미치쿠라)를 대사로 하고 당마공순(當麻公順; 타기마노키미타테)을 소사로 하여 신라국에 보냈다. 이 날 소금하 좌백련광족(佐伯連廣足)을 대사로 하고 소간전신마려(小鑿田臣麻呂; 워하리다노오미마로)를 소사로 하여 고구려국에 보냈다. 정축(10일)에 광되,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정유(30일)에 천하에 명하여 모두 대해제(大解除)를 하게 하였다. 이때 국조들은 각 제사의 공물로 노비 1인을 내어 해제하였다.

윤7월 무술삭 임자(15일)에 황후가 서원하여 크게 재회를 열고 불경을 왕경 내의 여러 절에서 강설시켰다.

8월 정묘삭 정축(11일)에 대금하 상모야군삼천(上毛野君三千)이 죽었다(卒). 병자(10일)에 삼한의 여러 사람에게 조(詔)를 내려 “앞서 10년간 조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귀화한 첫해에 같이 온 자손은 과역을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임오(16일)에 이세국이 흰 부엉이²⁸²를 바쳤다. 병술(20일)에 다네도(多爾嶋)에 보낸 사신들이 다네도의 도면을 바쳤다. 그 나라는 왕경에서 5천여 리, 축자의 남쪽 바다 속에 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풀치마를 입었으며, 벼는 언제나 풍성하였다. 한 번 심어서 두 번 수확한다²⁸³. 토산물은 지자(支子)²⁸⁴, 왕골 및 각종 해물 등이 많았다. 이 날 약필이 귀국하였다.

9월 정유삭 기해(3일)에 고구려와 신라에 보냈던 사신들이 같이 돌아와 배조하였다. 신축(5일)에 주방국(周芳國; 스하노쿠니)이 붉은 거북을 바쳤다. 곧 도궁(嶋宮)의 연못에 놓아주었다. 갑진(8일)에 조(詔)를 내려 “무릇 제씨의 씨상(氏上)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각각 씨상(氏上)을 정하여 이관(理官)²⁸⁵에 신고

282 원문은 茅鷄이다.

283 원문은 殖이다. 이 지방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심어 두 번 수확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84 염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이다.

하라.”고 하였다. 경술(14일)에 다네도 사람들에게 비조사의 서쪽 냇가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그리고 각종 가무를 연주하였다. 임자(16일)에 혜성이 보였다. 계축(17일)에 화성이 달 속에 들어갔다²⁸⁶.

겨울 10월 병인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계미(18일)에 지진이 있었다. 을유(20일)에 신라가 사탁(沙喲)²⁸⁷ 일길찬(一吉澹) 김충평(金忠平)과 대나말 김일세(金壹世)를 보내 조를 올렸다. 금, 은, 동, 철, 비단, 명주, 사슴가죽, 고운 베²⁸⁸의 종류가 각각 많이 있었다. 따로 천황, 황후, 태자에게 바치는 금, 은, 하금(霞錦)²⁸⁹, 깃발과 가죽의 종류가 각각 많이 있었다. 경인(25일)에 조(詔)를 내려 “대산위 이하 소견 이상의 사람들은 각각 의견을 말하라.”고 하였다. 이 달, 천황이 광뢰야(廣瀨野; 히로세노)에서 검열을 하려고 하여 행궁을 다 짓고 치장을 이미 갖추었다. 그러나 천황은 가지 않았다. 다만 친왕 이하 및 여러 경들이 모두 경시(輕市; 카루노이치)에 있으면서 치장한 장식 말을 검열하였다. 소금 이상의 대부는 모두 나무 아래에 열좌하였으며, 대산위 이하는 모두 말을 타고 큰 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 신라의 사자가 와서 국왕이 죽었다(薨)고 하였다.

11월 병신삭 정유(2일)에 지진이 있었다.

12월 을축삭 갑술(10일)에 소금하 하변신자수(河邊臣子首; 카하헤노오미코비토)를 축자에 보내 신라의 객 충평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계사(29일)에 전중신단사(田中臣鍛師; 타나카노오미카누치), 시본신원(柿本臣猿; 카키노모토노오미사루),

285 율령제하의 治部省에 해당한다.

286 熒惑이 출현하면 병란이 있다고 중국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287 음은 ‘록’이지만 일본어 훈이 ‘토쿠’로 되어 있으므로 啄의 오자 혹은 통용자로 생각된다. 喲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88 원문은 細布이다.

289 신라의 특산물인 비단을 의미한다.

전부련국인(田部連國忍; 타베노무라지쿠니오시), 고향신마려(高向臣麻呂; 타카무쿠노 오미마로), 속전신진인(粟田臣眞人; 아하타노오미마히토), 물부련마려(物部連麻呂; 모노노베노무라지마로), 중신련대도(中臣連大嶋; 나카토미노무라지오호시마), 증네련 한견(曾禰連韓犬; 소네노무라지카라이누), 서직지덕(書直智德; 후미노아타히치토코) 모두 10인에게 소금위하를 내렸다. 이 날 사인조강충(舍人造糠虫; 토네리노미야 츠코누카무시), 서직지덕에게 성을 주어 연(連)이라 하였다.

11년 봄 정월 을미삭 계묘(9일)에 대산상 사인련강충(舍人連糠虫; 토네리노무라지누카무시)에게 소금하위를 주었다. 을사(11일)에 김충평에게 축사에서 향을 베풀었다. 임자(18일)에 빙상부인(氷上夫人; 히카미노오호토지)이 궁중에서 죽었다(薨). 계축(19일)에 지진이 있었다. 신유(27일)에 빙상부인을 적수(赤穗; 아카호)에 장사지냈다.

2월 갑자삭 을해(12일)에 김충평이 귀국하였다. 이 달 소금하 사인련강충이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하위를 추증하였다.

3월 갑오삭(1일)에 소자 삼야왕 및 궁내관대부(宮内官大夫; 미야노우치노츠카사 노카미)²⁹⁰들에게 명하여 신성(新城; 니히키)에 보내 그 지형을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도읍을 만들려고 하였다. 을미(2일)에 육오국의 하이(蝦夷; 에미시) 22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경자(7일)에 지진이 있었다. 병오(13일)에 경부련석적 등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신자(新字) 1부 44권²⁹¹을 만들게 하였다. 기유(16일)

290 宮内官의 長官인 宮内卿이다.

291 『新字』 1부 44권은 당 태종대의 近字制定과 관련하여 한자의 자체에 대해 고자와 근자의 대조, 통용자 등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釋日本紀』에 인용된 私記에 「節說 此書今在圖書寮 但其字 體頗似梵字 未詳其字義所准據乎」라 되어 있는데 한자체의 소위 國字라고 하는 설, 한자의 훈석을 일정화한 것이라는 설, 천무조의 수사사업과 관련하여 고어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 제정했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에 신성에 행차하였다. 신유(28일)에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백료는 금후 위관(位冠) 및 필(褙)²⁹², 습(褶), 경상(脛裳)을 착용하지 말라. 또 선부(膳夫), 채녀(采女)의 멜빵, 견견(肩巾)²⁹³[肩巾은 히레(比例)라 읽는다.]을 모두 입지 말라²⁹⁴.”고 하였다. 이 날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제신에게 준 식봉을 폐지하고 관(公)에 반환하라²⁹⁵.”고 하였다. 이 달에 토사련진부(土師連眞敷; 하지노무라지마시키)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상위를 추증하였다.

여름 4월 계해삭 신미(9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계미(21일)에 축자대재 단비진인도(丹比真人嶋; 타지히노마히토시마)들이 커다란 종을 바쳤다. 갑신(22일)에 월(越)의 하이(蝦夷) 이고기나(伊高岐那; 이코키나) 등이 포로 70호를 일군(一郡)으로 만들겠다고 청하여 윤허하였다. 을유(23일)에 조(詔)를 내려 “지금부터 남녀 모두 결발(結髮)하라. 12월 30일까지는 다 묶어라. 다만 결발하는 날에 대해서는 다시 칙지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부녀가 남자처럼 말을 타는 것은 이 날부터였다.

5월 계사삭 갑진(12일)에 왜한직(倭漢直; 야마토노야아노야타히)들에게 연이라는 성을 주었다. 무신(16일)에 고구려에 보냈던 대사 좌백련광족과 소사 소간 전신마려들이 사신으로 간 요지를 보고하였다. 기미(27일)에 왜한직들의 남녀가 모두 와서 성을 내린 것을 기뻐하며 배하였다.

292 앞치마처럼 생긴 옷인데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다.

293 채녀가 어깨에 걸치는 얇고 긴 천을 말한다.

294 位冠의 정지는 천무천황 14년(685) 정월의 새로운 위계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일 것이다. 5월에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 漆紗冠을 관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착용시켰다. 복장에 관한 금령은 일본 고래의 服制를 중국식 복제로 바꾸려한 것으로 4월의 결발·승마의 제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13년 윤4월, 朱鳥 元年(686) 7월의 두 번에 걸친 조칙에 의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295 신 위계제와 관련한 食封制를 실시하기 위해 관인의 식봉을 우선 收公한 것으로 이해된다.

6월 임술삭(1일)에 고구려왕이 하부(下部) 조유괘루모절(助有卦婁毛切)과 대고(大古) 묘가(鼎加)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신라의 대나말 김석기(金釋起)를 보내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로 보냈다. 정묘(6일)에 남자가 처음으로 결발을 하였다. 그리고 칠사관(漆紗冠; 우루시노우스하타노코우부리)을 썼다. 계유(12일)에 오위 식율왕(殖栗王; 에쿠리노오호키미)이 죽었다(卒).

가을 7월 임진삭 갑오(3일)에 준인(隼人; 하야히토)이 많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이 날 대우(大隅; 오호스미)의 준인과 아다(阿多; 아타)의 준인이 조정에서 씨름을 하였는데 대우의 준인이 이겼다. 경자(9일)에 소금중 선신마루(膳臣摩漏; 카시하데노오미마루)가 병이 났다. 초벽황자존과 고시황자를 보내 병문안을 하였다. 임인(11일)에 광뢰, 용전의 신을 제사지냈다. 무신(17일)에 지진이 있었다. 기유(18일)에 선신마루가 죽었다(卒). 천황이 놀라고 크게 슬퍼하였다. 임자(21일)에 마루신(摩漏臣)에게 임신년의 공으로 대자위 및 녹을 추증하였다. 다시 황후가 물건을 주는 것이 관에서 준 것에 준하였다. 병진(25일)에 다네인(多禰人; 다네노히토), 액구인(掖玖人; 야쿠노히토), 아마미인(阿麻彌人; 아마미노히토)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무오(27일)에 준인들에게 명일향사(明日香寺; 아스카데라)의 서쪽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각종 가무를 시켰다. 그리고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도인, 속인 모두 구경하였다. 이 날에 신농국(信濃國; 시나노쿠니)과 길비국에서 같이 “서리가 오고 또 큰 바람이 불어 오곡이 익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8월 임술삭(1일)에 친왕 이하 및 제신에게 명하여 각 법식으로 쓸만한 것이 있으면 상신하라고 하였다. 갑자(3일)에 고구려의 객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이 날 저녁 해질 무렵 큰 별이 동에서 서로 건너갔다. 병인(5일)에 조법령전(造法令殿; 노리노후미즈쿠루미아라가) 안에 큰 무지개가 섰다. 임신(11일)에 형체가 관정번(灌頂幡; 간조노하타)과 같고 불빛과 같은 물건이 있었다. 하늘에 떠서 북쪽으로 흘러갔는데, 각 나라에서 모두 보았다. 어떤 사람이 “월해

(越海 ; 고시노우미)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이 날 백기(白氣)가 동쪽 산에서 일어났다. 그 크기는 네 아름[四圃]이었다. 계유(12일)에 큰 지진이 있었다. 무인(17일)에 또 지진이 있었다. 이 날 해뜰 무렵에 무지개가 하늘의 중앙에서 해를 향하였다. 갑술(13일)에 축자대재가 “세 발 달린 참새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기미(22일)에 예의와 말씨에 관하여 조를 내렸다. 또 조를 내려 “무릇 모든 고선(考選)은 그의 족성(族姓)과 행적을 잘 조사한 후에 고과(考課)해야 한다. 만일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모호하면 고선에 들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다. 기축(28일)에 칙을 내려 일고황녀(日高皇女 ; 히다카노히메미코)[다른 이름은 신가황녀(新家皇女 ; 니히노미노히메미코)이다.]의 병 때문에 사형수 이외의 남녀 모두 198인을 사면하였다. 경인(29일)에 140여 명을 대관대사(大官大寺)에 출가시켰다.

9월 신묘삭 임진(2일)에 칙을 내려 “지금부터 궤례(跪禮 ; 히자마즈쿠이야)와 포복례(匍匐禮 ; 하우이야)를 폐지한다. 다시 난파조정의 입례(立禮)를 쓰라.”고 말하였다. 경자(10일)에 수백 마리의 학이 대낮에 대전을 향하여 높이 하늘을 날았다. 사극(四劾)쯤 지나 모두 흩어졌다.

겨울 10월 신유삭 무진(8일)에 성대한 주연을 베풀었다.

11월 경인삭 을사(16일)에 조를 내려 “친왕, 제왕 및 제신,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으라. 무릇 내전에 있어서나 조정에 있어서나 법을 범한 자를 바로 잡으려면 그 과실이 일어난 바를 본대로 들은 대로 감추지 말고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중한 죄를 범한 자로서 칙재(勅裁)를 얻어야 할 자이면 상주하라. 체포할 자라면 체포하라. 만일 저항하여 붙들지 못하면 그 부서의 군사를 움직여서 체포하라. 장죄(杖罪)에 해당하면 장 1백 대 이하를 등급에 따라 때려라. 또 범행이 명백한데도 죄가 없다고 속여 자백하지 않고 소송할 때에는 그 본래의 죄에 가중 처분하라.”고 명하였다.

12월 경신삭 임술(3일)에 조(詔)를 내려 “제씨의 사람들은 각기 씨상(氏上)으

로 적당한 자를 정하여 신고하라. 또 그 일족이 많은 자는 나누어 각각의 씨상을 정하여 모두 관사에 신고하라. 그 후에 그 상황을 짐작하여 처분하라. 관사의 판결을 받아라. 다만 조그만 일로 자기의 씨족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였다.

12년 봄 정월 기축삭 경인(2일)에 백료가 조정에 배례하였다. 축자대재 단비진인도 등이 세 발 달린 참새를 올렸다. 을미(7일)에 친왕 이하 군경에 이르기까지 대극전(大極殿) 앞에 불러 연회를 하였다. 그리고 세 발 달린 참새를 군신에게 보였다. 병오(18일)에 조(詔)를 내려 “명신어대팔주일본근자천황(明神御大八洲日本根子天皇; 아키텔미카미토오호야시마시라스야마토네코노스메라미미코토)²⁹⁶의 칙명을 여러 국사, 국조, 군사와 백성들은 같이 들어라. 짐이 황위를 이은 이래로 천서(天瑞)가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 전하여진 바로는 천서는 정사가 천도(天道)에 맞을 때 보인다고 한다. 지금 짐의 세에 해마다 거듭하여 나타나니 두렵고 기쁘다. 그러므로 친왕과 여러 왕 및 여러 경들과 백료 아울러 천하의 백성도 같이 기뻐할 것이다. 따라서 소견 이하 이상에게 녹을 내리는데 각각 차등이 있을 것이다. 사형수 이외에 모두를 사면하고 백성의 과역을 모두 면제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에 소간전무(小鑿田舞) 및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음악을 궁전 뜰에서 연주하였다.

2월 기미삭(1일)에 대진황자가 처음으로 정사를 보았다.

3월 무자삭 기축(2일)에 승정(僧正), 승도(僧都), 율사(律師)를 임명하였다. 칙을 내려 “승니를 법대로 통솔하라.”고 명하였다²⁹⁷, 운운. 병오(19일)에 다네에

296 『養老令』公式令에서 「明神御大八洲天皇詔旨」라는 말은 立后·立太子·元日朝賀 등 조정의 大事를 행할 때의 詔에 사용되고 있다.

297 율령제의 僧正·僧都·律師로 구성된 僧綱制는 실질적으로는 이때에 시작된 것일 것이다. 令制에서는 僧尼令에 승려의 수행이나 금지해야 하는 행위, 승강이 행해야만 하는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

여름 4월 무오삭 임신(15일)에 조(詔)를 내려 “지금부터 반드시 동전을 쓰고 은전을 쓰지 말라²⁹⁸.”고 명하였다. 을해(18일)에 조(詔)를 내려 “은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도 좋다.”라고 명하였다. 무인(21일)에 광궤, 용전의 신에 제사지냈다.

6월 정사삭 기미(3일)에 대반련망다(大伴連望多; 오호토모노무라지마쿠타)가 죽었다(薨). 천황이 크게 놀라 박뢰왕(泊瀨王; 하츠세노오호키미)을 보내 조문하게 하였다. 임신년의 공적 및 선조들의 때마다의 공을 찬양하고 후하게 은상을 내렸다. 그리고 대자위를 추증하고 복을 치고 피리를 붙여 장사지냈다. 임술(6일)에 삼위 고판왕(高坂王)이 죽었다(薨).

가을 7월 병술삭 기축(4일)에 천황이 경희왕(鏡姬王; 카가미노오호키미)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 경인(5일)에 경희왕이 죽었다(薨). 이 여름에 처음으로 승니를 청하여 궁중에 안거²⁹⁹하게 하였다. 또한 품행이 단정한 자 30인을 뽑아 출가시켰다. 경자(15일)에 기우를 하였다. 계묘(18일)에 천황이 경사(京師; 미야코)를 순행하였다. 을사(20일)에 광궤, 용전의 신에 제사지냈다. 이 달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가물었다. 백제의 승 도장(道藏)³⁰⁰이 기우를 하여 비가 왔다.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98 당시에 사용된 은전의 경우 품위가 낮고 또한 균일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나, 은을 地金으로서 무게를 달아 유통하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조서가 나오기 이전 시기에 왜국에서 銅錢과 銀錢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滋賀縣 崇福寺蹟을 비롯한 7세기 후반의 다수의 유적에서 無文의 은전이 출토되었고, 1999년에 奈良縣 明日香村의 7세기 후반의 飛鳥池 유적에서 「富本」이라 새겨진 동전(소위 富本錢)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확인되었다.

299 인도에서 여름 우기 동안에는 유행을 피하고 籠居한 것에 유래한 불교의 행사로서 매년 4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강설이 행해졌다.

300 『日本書紀』 지통천황 2년 7월조에도 기우를 행하여 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있다.

8월 병진삭 경신(5일)에 천하에 대사하였다. 대반련남취부(大伴連男吹負; 오호토모노무라지워후케히)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대금중위를 추증하였다.

9월 을유삭 병술(2일)에 바람이 크게 불었다. 정미(23일)에 왜직(倭直; 야마토 노아타히), 울외수(栗隈首; 쿠루쿠마노오비토), 수취조(水取造; 모이토리노미야츠코), 시전부조(矢田部造; 야타베노미야츠코), 등원부조(藤原部造; 후지하라베노미야츠코), 형부조(刑部造; 워사카베노미야츠코), 복초부조(福草部造; 사키쿠사베노미야츠코), 범하내직(凡河內直; 오호시카후치노아타히), 천내한직(川內漢直; 카후치노아야노아타히), 물부수(物部首; 모노노베노오비토)³⁰¹, 산배직(山背直; 야마시로노아타히)³⁰², 갈성직(葛城直; 카즈라키노아타히)³⁰³, 전복부조(殿服部造; 도노하토리노미야츠코)³⁰⁴, 문부직(門部直; 카도베노아타히)³⁰⁵, 금직조(錦織造; 니시코리노미야츠코)³⁰⁶, 만조(緞造; 가즈라노미야츠코)³⁰⁷, 조취조(鳥取造; 토토리노미야츠코)³⁰⁸, 내목사인조(來目舍人造; 쿠메노토네리노미야츠코)³⁰⁹, 회외사인조(檜隈舍人造; 히노쿠마노토네리노미야츠코)³¹⁰, 대박조(大狛造; 오호코마노미야츠코)³¹¹, 진조(秦造; 하다노미야츠코)³¹²,

301 石上신궁에 봉사한 씨족이다. 『新撰姓氏錄』大和 皇別の 布留宿禰條에 物部首日向이 천무천황의 치세에 社地の 이름에 따라 布留宿禰 성으로 고쳤다고 한다. 天武紀 13년(684) 12월조의 布留連은 이 物部連이 改姓한 것으로 추측된다.

302 山背國造이다. 천무천황 14년(685) 6월에 忌寸성을 하사받고 있다.

303 劔根命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葛城國造로 천무천황 14년 6월 忌寸姓을 하사받는다. 葛城襲津彦의 후예인 葛城臣과는 별개의 씨족이다.

304 여기에서만 보인다.

305 천무천황 10년(681) 4월에 일족인 大島가 이미 連姓을 하사받고 있다.

306 錦部를 관장하고 錦의 제작을 담당하는 도래계 씨족이며 천무천황 10년 4월에 일족인 小分이 이미 連姓을 하사받았다.

307 緞部를 관장하고 두발의 장식물인 鬘의 제작을 맡은 伴造 씨족이다.

308 鳥取部の 伴造 씨족이며 天湯河板舉가 그 조상이라 전한다.

309 久米舍人を 관장하는 伴造일 것이다. 『속일본기』天平 19년(747) 5월조에 久米舍人 妹女가 보이며, 『類聚國史』延暦 14년 4월조에 信濃國 小縣郡의 인물로 久米舍人 望足이 보이고 있다.

천뢰사인조(川瀨舍人造; 카하세노토네리노미야츠코)³¹³, 왜마사조(倭馬飼造; 야마토 노우마카히노미야츠코)³¹⁴, 천내마사조(川内馬飼造; 카후치노우마카히노미야츠코)³¹⁵, 황문조(黃文造; 기후미노미야츠코)³¹⁶, 천집조(薦集造; 코모즈메노미야츠코)³¹⁷, 구거 작조(勾筍作造; 마가리노하코즈쿠리노미야츠코)³¹⁸, 석상부조(石上部造; 이소노카미 베노미야츠코)³¹⁹, 재일봉조(財日奉造; 타카라노히마즈리노미야츠코)³²⁰, 니부조(泥部造; 하츠카시베노미야츠코)³²¹, 혈수부조(穴穗部造; 아나호베노미야츠코)³²², 백발부

-
- 310 宣化천황 때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는 檜隈舍人을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新撰姓氏錄』 左京神別에는 檜隈舍人連을 실어 火明命 14세손 波利那乃連公의 후손이라 하였다. 『속 일본기』 寶龜 2년 3월조에 遠江國 城飼郡 主帳檜前舍人部諸國이 보인다.
- 311 천무천황 10년(681) 4월에 일족 百枝·足杯가 이미 連姓을 하사받았다.
- 312 山城을 본거로 하는 도래계 雄族이며, 천무천황 14년 6월에 寸寸姓을 하사받았다.
- 313 川瀨舍人을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雄略紀 11년 5월조에 近江國 栗太郡의 奏言에 따라 川瀨舍人을 설치했다고 한다. 正倉院文書에 近江國 犬上郡 河原郷 사람으로 山背舍人 高市·同 立人이 보인다.
- 314 천무기 8년 11월조에 倭馬飼部造連이 보인다. 馬飼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으로 대보·양로령제에서는 그 수장은 馬部로서 馬飼를 이끌고 左右馬寮에 봉사했다. 『延喜式』 左馬式에 大和國의 飼戶로 좌마료 40烟·우마료 49烟이라 되어 있다. 朱鳥 원년(686) 9월에는 河内馬飼部造와 함께 천무천황의 殯宮에 조사를 바치고 있다. 皇極紀 2년 11월조의 倭馬飼首는 이들과 같은 계통의 씨족일 것이다.
- 315 河内に 거주하는 馬飼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며, 『延喜式』 左馬式에 河内國의 飼戶로 좌마료 108烟·우마료 51烟이라 되어 있다. 繼體紀 원년 정월조의 河内馬飼首荒龍은 이들과 같은 계통의 씨족일 것이다.
- 316 천무기 원년 6월조 참조.
- 317 『新撰姓氏錄』 미정잡성에 薦集造를 실어 天津彦根命의 후손이라 하였다. 欽明紀 23년 7월조의 薦集部首登弢는 이와 같은 계통의 씨족으로 추정된다.
- 318 여기에서만 보인다.
- 319 仁賢천황의 名代라 생각되는 石上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正倉院文書에 經師石上部連足人이 보인다.
- 320 여기에서만 보인다. 財日奉造는 日奉部를 관장한 伴造 씨족의 하나일 것이다.
- 321 여기에서만 보인다. 泥部造는 土工을 직업으로 하는 泥部를 관장하는 伴造로 보인다.

조(白髮部造; 시라카베노미야츠코)³²³, 인쇄조(忍海造; 오시누미노미야츠코)³²⁴, 우속조(羽束造; 하츠카시노미야츠코)³²⁵, 문수(文首; 후미노오비토)³²⁶, 소박되조(小泊瀬造; 워하츠세노미야츠코)³²⁷, 백제조(百濟造; 쿠다라노미야츠코)³²⁸, 어조(語造; 가타리노미야츠코)³²⁹ 모두 38씨에게 성을 내려 연(連; 무라지)이라 하였다.

겨울 10월 을묘삭 기미(5일)에 삼택길사(三宅吉士; 미야케노키시)³³⁰, 초벽길사(草壁吉士; 쿠사카베노키시)³³¹, 백기조(伯耆造; 하하키노미야츠코)³³², 선사(船史; 후네노후비토)³³³, 일기사(壹伎史; 이키노후비토)³³⁴, 사라라마사조(娑羅羅馬飼造; 사라라

322 安康천황의 名代라 일컬어지는 穴穗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323 清寧천황의 名代라 일컬어지는 白髮部(繼體紀 원년 2월조)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白髮部는 후에 延暦 4년 5월 光人천황의 諱를 피해 眞髮部라 개칭하였다. 『新撰姓氏錄』山城 神別에 眞髮部造를 실어 神饒速日命의 7세손 大壹大布乃命의 후손이라 하였다. 또 한 孝德紀 白雉 원년 시세조에 白髮部連鑑이 보인다.

324 잡공의 품부인 忍海部の 伴造 씨족이다.

325 羽束部(泊樞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으로 추측된다.

326 河内に 거주하는 도래계 씨족이다.

327 小泊瀬는 小長谷과 같다. 武烈천황의 名代라 일컬어지는 小泊瀬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으로 『古事記』神武천황단에 神八井耳命이 그 조상이라 전하며, 『日本書紀』仁德천황 12년 8월조에는 그 조상인 宿禰臣에게 賢遺臣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되어 있다.

328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正倉院文書에 左京 사람으로 百濟連弟人·百濟連弟麻呂가 보인다.

329 語部를 관장하는 伴造 씨족이다. 『延喜式』大嘗祭式에 의하면 語部는 美濃, 丹波, 丹後, 但馬, 因幡, 出雲, 淡路 제국에서 소집되어 大嘗祭 의식에 古詞를 쫓하는 역할을 맡았다.

330 難波에 거주하며 해상교통에 종사한 씨족으로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姓을 하사받았다.

331 難波吉士의 일족으로 難波에 설치된 日下部를 관장하는 씨족이다. 천무천황 10년 정월 草香部 吉士大形이 難波連의 성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難波連으로 改姓한 것으로 보인다. 難波連씨는 천무 14년 6월에는 忌寸姓을 하사받았다.

332 여기에서만 보이는 씨족이다.

333 王辰爾가 조상이라 전해지는 河内 거주 의 도래계 씨족이다.

334 『新撰姓氏錄』좌경·우경 諸蕃에 伊吉連을 실어 「出自長安人劉家楊雍也。」라 하였다.

노우마카히노미야츠코)³³⁵, 토야마사조(菟野馬飼造; 우노노우마카히노미야츠코)³³⁶, 길야수(吉野首; 요시노노오비토)³³⁷, 기주인직(紀酒人直; 키노사카히토노아타히)³³⁸, 채녀조(采女造; 우네메노미야츠코)³³⁹, 아직사(阿直史; 아토키노후비토)³⁴⁰, 고시현주(高市縣主; 타케치노아가타누시)³⁴¹, 기성현주(磯城縣主; 시키노아가타누시)³⁴², 경작조(鏡作造; 카가미츠쿠리노미야츠코)³⁴³ 모두 14씨에 성을 주어 연이라 하였다. 정묘(13일)에 천황이 창제(倉梯; 쿠라하시)³⁴⁴에서 수렵을 하였다.

11월 갑신삭 정해(4일)에 제국에 조서를 내려 진법³⁴⁵을 배우게 하였다. 병

335 河内國 更荒郡 馬甘里에 거주한 씨족으로 『新撰姓氏錄』 하내제번에 佐良良連을 실어 「出自百濟國人久米都彦也。」라 적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菟野馬飼造씨와 함께 천무천황의 황후 鸕野讚良 황녀(지통천황)가 어린 시절에 거주하던 지역과 관계가 깊은 씨족일 것이다.

336 欽明紀 23년 7월조에 河内國 更荒郡 鸕鷁野邑의 신라인에 관한 일이 보이고 있다. 『新撰姓氏錄』 미정잡성(河内)에 宇努連을 실어 「新羅皇子金庭興之後也。」라 하고 있다.

337 奈良縣 吉野郡 지방의 토호이다. 『日本書紀』 神武천황 즉위전기 戊午年條에는 井光(『古事記』 神武천황단에는 井氷鹿이라 보임)을 吉野首部의 시조라 하고 있다. 『新撰姓氏錄』은 大和神別에 吉野連을 실어 加彌比加尼의 후손으로 水光神을 제사지낸다고 되어 있다.

338 천무천황 14년 6월에 鬯々姓을 하사 받고 있다.

339 여기에서만 보인다.

340 『日本書紀』 應神천황 15년 8월조에 阿直岐를 阿直岐史의 조상이라 하였다. 『新撰姓氏錄』 우경 제번에 安勒連을 실어 「出自百濟國魯王也。」라 하였다.

341 왜국 6현의 하나인 高市縣(현재의 나라현 高市郡, 橿原市 부근)을 관리한 씨족으로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7월 23일조에 高市縣主 許梅가 보인다. 『新撰姓氏錄』 우경 신별에 高市連, 和泉 신별에 高市縣主가 보인다.

342 왜국 6현의 하나인 磯城縣(지금의 나라현 櫻井市 북부)을 관리하는 씨족으로 『日本書紀』 神武천황 2년 2월조에 弟磯城, 名黑速을 磯城縣主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新撰姓氏錄』 大和 神別에 志貴連을 실어 神饒速日命의 孫 日子湯支命의 후손이라 하였다.

343 鏡作部를 관장하여 鏡의 제작, 신기의 제사를 담당하는 伴造 씨족이다.

344 奈良縣 櫻井市 倉橋로 지정된다.

345 중국식의 병법을 배우게 했다고 이해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천무기 8년 11월조의 龍田山, 大坂山에 關을 설치하고, 難波에 羅城을 쌓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생

신(13일)에 신라가 사찬³⁴⁶ 김주산(金主山)³⁴⁷과 대나말³⁴⁸ 김장지(金長志)³⁴⁹를 보내 조를 바쳤다.

12월 갑인삭 병인(13일)에 제왕오위(諸王五位)인 이세왕(伊勢王; 이세노오호키미)³⁵⁰, 대금하 우전공팔국(羽田公八國; 하타노키미야쿠니)³⁵¹, 소금하 다신품치(多臣品治; 오호오미호무치)³⁵², 소금하 중신련대도³⁵³와 판관³⁵⁴, 녹사(錄史)³⁵⁵, 공장자(工匠者)³⁵⁶를 보내 천하를 순행하여 제국의 경계를 구분³⁵⁷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경계구분이 완성되지 않았다. 경오(17일)에 조서를 내려 “여러 문무의 관인 및 기내³⁵⁸의 유위인(有位人)들은 사계절의 첫 달³⁵⁹에 반드시 조정에 참

각해보면 이번의 명령도 당시 국제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46 신라 17계 관위 중의 제8위이다.

347 다음해 2월 병자(24일)에 筑紫에서 향응을 받고 3월 을사(23일)에 귀국하고 있다. 그런데 天武紀 14년 4월 임진조(17일)에도 그의 귀국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착오로 인한 중출일 것이다.

348 신라 17계 관위 중의 제10위이다.

349 김주산을 대사로 하는 신라사 일행의 부사로 보이며 대사 일행과 행동을 함께했을 것이다.

350 구체적인 계보는 알 수 없으나 천무기 14년 10월조, 동 朱鳥 원년(686) 6월조, 持統紀 2년 8월조 등에 등장하고 있다.

351 矢國이라고도 한다. 천무기 원년 7월조 羽田公矢國 참조. 아울러 그의 大錦下라는 관위는 뒤의 주조 원년 3월 병오조에 보이는 直大參보다 상위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352 天武紀 원년 6월조 多臣品治 참조.

353 천무기 10년 3월조 中臣連大島 참조.

354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3위의 관직이다.

355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4위의 관직이다. 율령제 이전에는 史로 표기하였으며, 대보율령제하에서의 主典에 해당한다.

356 기술자를 말한다.

357 천무천황 14년경에 성립되는 기내·7도제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7도는 東海, 東山, 北陸, 山陰, 山陽, 南海, 西海의 제도를 말한다.

가하라. 만일 죽을 병이 있어서 조참에 참가할 수 없다면 해당 관사는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³⁶⁰에 신고하라.”고 명하였다. 또 “도성, 궁실은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곳에 만들고자 한다.³⁶¹ 먼저 난파³⁶²에 도움을 만들고자 한다. 백관들은 각각 가서 택지를 신청하라.”고 명하였다.

13년 봄 정월 갑신삭 경자(17일)에 삼야현주(三野縣主; 미노노아가타누시)³⁶³, 내장의봉조(內藏衣縫造; 쿠라노키누누히노미야츠코)³⁶⁴의 두 씨에게 성을 주어 연(連; 무라지)이라 하였다. 병오(23일)에 천황이 동쪽 뜰에 나갔다. 여러 경들이 모셨다.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사람, 난쟁이, 좌우의 사인을 불러 활을 쏘게 하였다.

2월 계축삭 병자(24일)에 김주신³⁶⁵을 축사에서 향응하였다. 경진(28일)에 정광사(淨廣肆)³⁶⁶ 광뢰왕³⁶⁷, 소금중 대반련안마려(大伴連安麻呂) 및 판관, 녹사(錄

358 당시의畿内는 646년 大化改新의詔가 정한 범위의 지역일 것이다.

359 춘하추동의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즉 1월, 4월, 7월, 10월을 말한다.

360 천지, 천무조 및 淨御原令 아래서 시행된 관제로 大寶令制에서는 式部省에 해당된다. 『日本書紀』천지천황 10년 정월조 참조.

361 이는 중국 당의 複都制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362 大阪市 東區 法院坂町에 위치한 難波宮跡의 유구는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뉘는데, 전기의 유구에는 화재의 흔적이 보이는 점에서 朱鳥 원년 정월에 소실한 천무조의 難波宮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飛鳥淨御原宮의 유구의 전모가 판명되지 않은 현재, 천무조의 궁성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구이다.

363 『延喜式』神名の 河内國 若江郡의 御野縣主神社 주변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新撰姓氏錄』河内 神別에 美努連이 보인다.

364 여기에서만 보이는 씨족이다. 齊明紀 원년 시세조에 보이는 大藏衣縫造와 마찬가지로 衣縫部를 관장하는 도래계의 伴造 씨족으로 보인다.

365 전년 11월에 왜국에 온 신라사 일행의 대사이다. 다음 달에 귀국하고 있다.

366 이는 다음해인 천무천황 14년 정월에 제정된 새로운 위계이기 때문에 후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367 지통천황 6년 3월의 伊勢行幸시에는 留守官을 담당하고 있고, 大藏卿을 거쳐 養老 6년

事)³⁶⁸, 음양사(陰陽師)³⁶⁹, 공장(工匠)들을 기내에 보내 도읍을 만들 땅을 보게 하였다. 이 날 삼야왕(三野王)³⁷⁰, 소금하 채녀신축라(采女臣筑羅; 우네메노오미츠쿠라) 등을 신농에 보내 지형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 땅에 도읍을 만들려고 한 것일까.

3월 계미삭 경인(8일)에 길야인(吉野人) 우폐직궁(宇閉直弓; 우헤노아타히유미)이 흰 동백을 바쳤다. 신묘(9일)에 천황이 경사(京師)를 순행하여 궁실의 땅을 정하였다³⁷¹. 을사(23일)에 김주산이 귀국하였다.

여름 4월 임자삭 병진(5일)에 도좌 이하를 모두 사면하였다. 갑자(13일)에 광뢰 대기신(大忌神; 오호이미노카미)과 용전 풍신(風神)을 제사지냈다. 신미(20일)에 소금하 고향신마려를 대사로 하고 소산하 도노신우감(都努臣牛甘; 츠노노 오미우시가히)을 소사로 하여 신라에 보냈다.

윤4월 임오삭 병술(5일)에 “내년 9월에 반드시 검열을 하겠다. 백료는 거동[進之]과 위의(威儀)를 배워 익혀 두라.”고 명하였다. 또한 “무릇 정치의 요체는 군사다. 따라서 문무관인들도 무기 쓰는 법과 말 타는 법을 익혀두라. 말과 무기 아울러 자신의 몸에 치장하는 물품을 잘 점검하여 준비하여 두도록 노력하라. 말이 있는 자는 기사로 삼고, 말이 없는 자는 보졸로 삼아라. 모두 잘 훈련하여 모였을 때 지장이 없게 하라. 만일 조(詔)의 뜻을 어겨 말과 무기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치장에 빠진 것이 있으면 천왕 이하 제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하겠다. 대산위 이하는 벌 줄 것은 벌을 주고 매질할 것은 매질을 하겠다.

정월에 散位 정4위하로 죽었다.

368 기록이나 문필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錄史와 같으며 율령 4등관제의 제4위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369 지세, 地相을 보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보이며, 養老令制에서는 中務省 陰陽寮에 음양사 6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370 美濃王, 彌努王이라고도 하는데, 栗隈王의 아들인 三野王과는 다른 인물이다.

371 이때 藤原宮의 조영계획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기술을 습득한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등을 감하겠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일부러 죄를 범한 자만은 사면의 예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또 조(詔)를 내려 “남녀 모두 의복은 단이 있거나 없거나 끈이 짧거나 길거나 마음대로 하라. 집회하는 날에는 단이 있는 옷을 입고 긴 끈을 쓰라. 다만 남자만은 규관(圭冠)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발목을 묶는 바지를 입으라. 나이 40 이상의 여자는 모발을 묶거나 묶지 않거나³⁷² 또 말을 세로로 타거나 가로로 타거나 마음대로 하라³⁷³. 무녀나 축관(祝官)들은 머리를 묶어 올리는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³⁷⁴.”라고 하였다. 임진(11월)에 삼야왕 등이 신농국의 지도를 바쳤다. 정유(16일)에 궁중에서 설재하고 죄가 있는 사인(舍人)들을 사면하였다. 을사(24일)에 비조사의 승 복양(福陽; 후쿠요우)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넣었다. 경술(29일)에 승려 복양이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5월 신해삭 갑자(14일)에 귀화해 온 백제의 승니 및 속인 남녀 아울러 23인을 모두 무장국(武藏國; 무사시노쿠니)에 안치하였다. 무인(28일)에 삼륜인전군 난파마려(三輪引田君難波麻呂; 미와노히케타노키미나니하마로)를 대사로 하고 상원련인족(桑原連人足; 쿠하하라노무라지히토타리)을 소사로 삼아 고구려에 보냈다.

6월 신사삭 갑신(4일)에 기우를 하였다.

가을 7월 경술삭 계축(4일)에 광궤에 행차하였다. 무오(9일)에 광궤와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임신(23일)에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길이가 한 발 썸이었다.

372 천무천황 11년 4월의 結髮 규정을 완화시킨 것으로 朱鳥 원년(686) 7월에는 여자의 垂髮이 완전히 허가되고 있다.

373 천무천황 11년 4월의 승마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킨 조치이다.

374 제사에 봉사하기 위해 재래의 풍습을 인정한 것으로 慶雲 2년 12월에 다시 부녀자의 髻髮을 명하였는데, 이때에도 神部, 齋宮宮人, 老軀는 제외되고 있다(『續日本紀』).

겨울 10월 기묘삭(1일)에 조(詔)를 내려 “제씨의 족성을 고쳐 8색 성³⁷⁵을 만들어 천하의 만성을 통일한다. 제1 진인(真人; 마히토), 제2 조신(朝臣; 아소미), 제3 숙네(宿禰; 스쿠네), 제4 기촌(忌寸; 이미키), 제5 도사(道師; 미치노시), 제6 신(臣; 오미), 제7 연(連; 무라지), 제8 도치(稻置; 이나키)”라고 하였다. 이 날 수산공(守山公; 모리야마노키미), 노공(路公; 미치노키미), 고교공(高橋公; 타카하시노키미), 삼국공(三國公; 미쿠니노키미), 당마공(當麻公; 타기마노키미), 자성공(茨城公; 우마라키노키미), 단비공(丹比公; 타지히노키미), 저명공(猪名公; 위나노키미), 판전공(坂田公; 사카타노키미), 우전공(羽田公; 하타노키미), 식장공(息長公; 오키나가노키미), 주인공(酒人公; 사카히토노키미), 산도공(山道公; 야마지노키미)의 13씨에 진인이라는 성을 주었다. 신사(3일)에 이세왕(伊勢王) 등을 보내 제국의 경계를 정하게 하였다. 이 날 현견양련수강(縣犬養連手繼; 아가타노이누카히노무라지타스키)을 대사로 하고 천원런가니(川原連加尼; 카하라노무라지카네)를 소사로 하여 탐라에 보냈다. 임진(14일) 인정(人定)³⁷⁶에 큰 지진이 있었다. 나라 안에서 남녀가 울부짖고 해매었으며, 산이 무너지고 냇물이 넘쳤다. 제국의 군(郡)의 관사 및 백성의 창고, 사탑(寺塔)과 신사가 파괴된 것이 무수히 많았다. 또한 인민 및 가족이 많이 죽고 다쳤다. 이에(伊豫; 이요)의 온천도 매몰되어 물이 나오지 않았

375 八色の姓 가운데 실제 내려진 것은 真人·朝臣·宿禰·忌寸의 상위 4성뿐이다. 真人은 繼體 이후 천황의 근친들의 후예로서 종래 公姓을 칭하고 있던 씨족이며, 朝臣은 주로 구 臣姓의 유력씨족이다. 宿禰는 구 連姓이었던 반조계의 유력씨족에 주어졌으며, 忌寸은 주로 구 直姓의 유력씨로 기내의 國造 외에 도래계 유력씨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 6위의 臣, 제 7위의 連은 구래의 것으로 臣姓을 하사받지 않은 씨의 처리를 위해 8성 중에 포함되어 남겨진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구래의 臣·連·伴造·國造라는 신분질서에 대하여 황친을 진인, 臣·連의 유력자를 朝臣·宿禰로서 상위에 두고, 기타 씨족을 하위에 두는 새로운 신분질서를 꾀한 것이다. 이로써 황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질서가 확립됨과 동시에 관료제 강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族姓과 위계가 결합됨으로써 상급·하급 관인층의 家格, 중앙호족과 지방호족의 차별이 분명하게 표시화 되었다.

376 사람이 잠자리에 들 시간으로, 亥時(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이다.

다. 토좌국(土左國; 토사노쿠니)의 전지 50여만 정도 묻혀서 바다가 되었다. 한 노인이 “이런 지진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날 저녁 동쪽에서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이두도(伊豆嶋; 이즈노시마)의 서북 두 면이 저절로 3백 여 발 높아져서 다시 하나의 섬이 되었다. 북처럼 소리가 난 것은 신이 이 섬을 만들 때 울린 소리였다.”라고 말하였다. 갑오(16일)에 여러 왕과 경들에게 녹을 주었다.

11월 무신삭(1일)에 대삼륜군(大三輪君; 오호미와노키미)³⁷⁷, 대춘일신(大春日臣; 오호카스가노오미)³⁷⁸, 아배신(阿倍臣; 아헤노오미)³⁷⁹, 거세신(巨勢臣; 코세노오미)³⁸⁰, 선신(膳臣; 카시하테노오미)³⁸¹, 기신(紀臣; 키노오미)³⁸², 파다신(波多臣; 하타노오미)³⁸³, 물부련(物部連; 모노노베노무라지)³⁸⁴, 평군신(平群臣; 헤구리노오미)³⁸⁵, 작부신(雀部臣; 사사키베노오미)³⁸⁶, 중신련(中臣連; 나카토미노무라지)³⁸⁷, 대택신

377 원래는 三輪君이며, 大神神社를 제사하는 大和 磯城 지방의 호족이다.

378 원래는 春日臣인데 『古事記』 孝昭천황단에 황자 天押帶日子命을 그 조상이라 하고 있다. 『新撰姓氏錄』 좌경 황별에는 大春日朝臣을 실어 그 출자를 孝昭천황의 황자 天帶彦國押人命이라 하였다.

379 孝元천황의 황자 大彦命을 그 조상으로 하고 있다.

380 武内宿禰의 아들 許勢小柄宿禰의 후손이라 전한다.

381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황자 大彦命의 후손이라 전한다.

382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内宿禰의 아들 木角宿禰라 한다. 『新撰姓氏錄』 左京·右京 황별에는 紀朝臣이 보인다.

383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内宿禰의 아들 波多八代宿禰의 후손이라 전한다. 『新撰姓氏錄』 右京 황별에는 八多朝臣이 보인다. 大和國의 波多(현재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畑, 동 高取町 부근)는 『和名類聚抄』에 高市郡 波多郷, 『延喜式』 神名式에 동 군 波多神社가 보인다.

384 饒速日命을 그 조상이라 전하는 전통적인 호족이다.

385 武内宿禰의 아들 平群都久宿禰의 후손이라 전하고 있다.

386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内宿禰의 아들 許勢小柄宿禰라 하며, 『속일본기』 천평승보 3년 2월조에는 巨勢男柄宿禰의 男 星川建日子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新撰

(大宅臣; 오호야케노오미)³⁸⁸, 속전신(粟田臣; 아하타노키미)³⁸⁹, 석천신(石川臣; 이시카하노오미)³⁹⁰, 앵정신(櫻井臣; 사쿠라위노오미)³⁹¹, 채녀신(采女臣; 우네메노오미)³⁹², 전중신(田中臣; 타나카노오미)³⁹³, 소간전신(小墾田臣; 워하리다노오미)³⁹⁴, 수적신(穗積臣; 호즈미노오미)³⁹⁵, 산배신(山背臣; 아마시로노오미)³⁹⁶, 압군(鴨君;

姓氏錄』左京 황별에 雀部朝臣이 보이는데 應神天皇의 치세에 星河建彦宿禰가 황태자(인덕천황)를 대신하여 御膳을 관장한 일로 황자의 이름에 기인한 大雀臣의 씨명을 하사 받았다고 하는 소전이 보인다.

- 387 야마토 조정의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씨족으로 天兒屋根命의 후손이라 칭한다.
- 388 『新撰姓氏錄』河内 皇別에 大宅臣이 보이는데 大春日씨와 동족이며 天足彦國押人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古事記』孝昭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天押帶日子命이라 하며, 그 본거는 大和國 添上郡 大宅郷(『和名類聚抄』, 현재 奈良市 남부)으로 추측된다.
- 389 『和名類聚抄』에 山城國 愛宕郡 上粟田·下粟田郷(京都市 左京區 岡崎 부근)이 보이는데, 粟田씨의 본거로 여겨진다. 『新撰姓氏錄』右京·山城의 황별에 粟田朝臣이 보이고 있으며, 『古事記』孝昭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天押帶日子命이라 한다.
- 390 蘇我씨의 동족으로 『新撰姓氏錄』左京 황별에 石川朝臣이 보이는데, 孝元천황의 황자 彦太忍信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石川씨의 씨명은 그 조상인 武内宿禰의 아들 蘇賀石河宿禰에서 유래된 것이다.
- 391 蘇我씨의 동족으로 『新撰姓氏錄』左京 황별에 櫻井朝臣이 보이고 있다.
- 392 物部씨 계통의 씨족으로 『新撰姓氏錄』右京 신별에 采女朝臣을 싣고 石上朝臣과 동족이며 神饒速日命 6세손인 大水口宿禰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또한 和泉 신별에 采女臣이 보이는데 神饒速日命 6세손인 伊香我色雄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아울러 『古事記』神武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邇藝速日命의 아들 宇摩志麻遲命이라 전하고 있다.
- 393 『新撰姓氏錄』右京 황별에 田中朝臣이 보이며, 蘇我씨의 동족이다.
- 394 蘇我씨의 동족이며, 大和國 高市郡의 小墾田(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豊浦 부근)을 기반으로 하는 씨족으로 『新撰姓氏錄』右京 황별에 小治田朝臣이 보이는데 武内宿禰의 5세손인 稻目宿禰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또한 『古事記』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蘇賀石河宿禰라 전하고 있다.
- 395 物部씨 계통의 씨족으로 『新撰姓氏錄』左京 신별에 穗積朝臣, 穗積臣이 보이며, 『古事記』神武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邇藝速日命의 아들 宇摩志麻遲命이라 전하고 있다.
- 396 山背씨의 유래나 본거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日本書紀』추고천황 10년 10월조에 山背臣日立이 보이고 있다.

카모노키미)³⁹⁷, 소야신(小野臣; 워노노오미)³⁹⁸, 천변신(川邊臣; 카하헤노오미)³⁹⁹, 역정신(櫟井臣; 이치워노오미)⁴⁰⁰, 시본신(柿本臣; 카키노모토노오미)⁴⁰¹, 경부신(輕部臣; 카루베노오미)⁴⁰², 약앵부신(若櫻部臣; 와카사쿠라베노오미)⁴⁰³, 안전신(岸田臣; 키시타노오미)⁴⁰⁴, 고향신(高向臣; 타카무쿠노오미)⁴⁰⁵, 육인신(穴人臣; 시시히토노오미)⁴⁰⁶, 내목신(來目臣; 쿠메노오미)⁴⁰⁷, 견상군(犬上君; 이누카미노키미)⁴⁰⁸, 상

397 大和國 葛上郡을 본거로 하는 씨족이며 賀茂神社를 제사하는 토착 호족으로 천무 13년에 朝臣성을 하사 받았다. 『新撰姓氏錄』 大和 신별에 賀茂朝臣이 보이며 大國主神의 후손으로 大神朝臣과는 동조라 하고 있다.

398 近江國 小野를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古事記』 孝昭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天押帶日子命이라 전하고 있다.

399 蘇我씨의 동족이다.

400 大和國 添上郡의 櫻井(奈良縣 天理市 櫟之本 부근)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古事記』 孝昭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天押帶日子命이라 전하고 있다.

401 大和國 添上郡(奈良縣 天理市)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古事記』 孝昭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天押帶日子命이라 전하고 있다.

402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內宿禰의 아들 許勢小柄宿禰라 전하고 있다. 『속일본기』에는 巨勢男柄宿禰의 아들 伊刀宿禰의 후예라 한다(天平勝寶 3년 2월조).

403 膳臣과 동족이다.

404 蘇我씨의 동족으로 씨족명은 근거지인 大和國 山邊郡 岸田村(奈良縣 天理市 岸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新撰姓氏錄』 右京 황별에 岸田朝臣이 보이는데 武內宿禰의 5세손인 稻目宿禰의 후예라 하고 있다. 또한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內宿禰의 아들 蘇賀石河宿禰라 전하고 있다.

405 『新撰姓氏錄』 右京 황별에 高向朝臣이 보이는데 石川씨와 동조이며 武內宿禰의 6세손인 猪子臣의 후예라 하고 있다. 또한 『古事記』 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內宿禰의 아들 蘇賀石河宿禰라 전하고 있다.

406 獸人を 조리하는 穴人部를 관장하는 伴造씨족이다. 『新撰姓氏錄』 左京 황별에 穴人朝臣이 보이는데 阿倍朝臣과 동조이며 大彥命의 아들 彥背立大稻腹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407 蘇我씨의 동족으로 『新撰姓氏錄』 左京 황별의 久米朝臣條에 武內宿禰의 손자 蘇我稻目宿禰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또한 동 大和 황별에 久米臣이 보인다.

408 近江國의 犬上(滋賀縣 犬上郡)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景行천황의 황자인 日本武尊의 아들 稻依別王의 후손이라 전한다.

모야군(上毛野君; 카미츠케노노키미)⁴⁰⁹, 각신(角臣; 츠노노오미)⁴¹⁰, 성천신(星川臣; 호시카하노오미)⁴¹¹, 다신(多臣; 오후노오미)⁴¹², 흉방군(胸方君; 무나카타노키미)⁴¹³, 차지군(車持君; 쿠루마모치노키미)⁴¹⁴, 능군(綾君; 아야노키미)⁴¹⁵, 하도신(下道臣; 시모츠미치노오미)⁴¹⁶, 이하신(伊賀臣; 이가노오미)⁴¹⁷, 아폐신(阿閉臣; 아헤노오미)⁴¹⁸, 임신(林臣; 하야시노오미)⁴¹⁹, 파미신(波彌臣; 하미노오미), 하모야군(下毛野君; 시모츠케노노키미), 좌미군(佐味君; 사미노키미), 도수신(道守臣; 치모리노오미), 대야군(大野君; 오후노노키미)⁴²⁰, 판본신(坂本臣; 사카모토노오미)⁴²¹, 지전군(池田君; 이케

409 下毛野君과 함께 群馬縣 지역을 본거로 하는 관동을 대표하는 호족으로 崇神天皇의 황자 豐城入日子命의 후손이라 전한다.

410 武内宿禰의 아들 紀角宿禰의 후손이다. 角은 都努라고도 표기한다.

411 武内宿禰의 아들 波多八代宿禰의 후손이다.

412 多臣은 神武天皇의 황자 神八井耳命의 후손이라 전한다.

413 筑前國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宗像神社를 제사지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414 『新撰姓氏錄』左京 皇別の 車持君條에 上毛野朝臣과 동조로 豐城入彦命 8세손인 射狹君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성씨의 유래는 雄略천황 때에 乘輿를 공진한 연유로 車持公의 성을 하사받았다고 전한다.

415 讃岐國 阿野郡(香川縣 綾歌郡 동부 및 坂出市)을 본거지로 하는 호족이며 景行天皇의 황자 日本武尊의 아들 武甕王의 후손이라 전하고 있다.

416 備中國 下道郡(岡山縣 吉備郡 및 川上郡)을 본거지로 하는 호족이며 『古事記』孝靈천황 단에는 그 조상을 皇子 若日子建吉備津日子命이라 전하고 있다.

417 伊賀國 伊賀郡(三重縣 名賀郡의 동부 일대)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그 조상은 孝元天皇의 황자인 大彦命이라 전한다.

418 阿閉씨는 伊賀國 阿拜郡(三重縣 阿山郡 서부 및 上野市)을 본거로 하는 씨족으로 그 조상은 孝元天皇의 황자인 大彦命이라 전한다.

419 『新撰姓氏錄』左京·河内の 皇別に 林朝臣이 보이며, 『古事記』孝元천황단에는 그 조상을 武内宿禰의 아들 波多八代宿禰라 전하고 있다.

420 大野씨는 毛野씨 계통의 씨족인데, 『新撰姓氏錄』右京 皇別の 大野朝臣條에 崇神天皇의 황자 豐城入彦命의 4세손인 大荒田別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421 坂本臣은 武内宿禰의 아들 紀角宿禰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씨족이다.

다노키미)⁴²², 옥수신(玉手臣; 타마테노오미)⁴²³, 입신(笠臣; 카사노오미)⁴²⁴ 모두 52
씨에게 성을 주어조신이라 하였다. 경술(3일)에 토좌국사가 “파도가 높이 일고
해수가 몹시 일렁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調)를 바치는 배가 많이 유실되었습
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무진(21일)에 혼시(昏時)⁴²⁵에 일곱 개의 별이 한꺼번
에 동북으로 흘러 떨어졌다. 경오(23일)에 해질 무렵에 별이 동쪽에 떨어졌다.
그 크기가 독(鵠)만 하였다. 술(戊)시⁴²⁶가 되어 천문(天文)이 모두 어지러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이 비 오듯 하였다.

이 달에 하늘 중앙에 빛을 내는 별이 있었다. 묘성(昴星)과 같이 움직였다.
월말에 이르러 사라졌다.

이 해에 “이하(伊賀), 이세(伊勢), 미농(美濃), 미장(尾張) 4국은 지금부터 조를
바치는 해에는 부역을 면하고 부역을 하는 해에는 조를 면하라.”고 명을 내렸
다. 왜(倭; 야마토)의 갈성하군(葛城下郡; 카즈라키노시모노코호리)이 “네 발이 달린
닭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 단파국(丹波國; 타니하노쿠니) 빙상군(氷上
郡; 히카미노코호리)이 “12개의 뿔이 있는 송아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2월 무인삭 기묘(2일)에 대판련(大判連; 오호토모노무라지)⁴²⁷, 좌백련(佐伯連;
사헤키노무라지)⁴²⁸, 아담련(阿曇連; 아즈미노무라지)⁴²⁹, 기부련(忌部連; 이무베노무라

422 池田君(朝臣)은 上毛野朝臣과 동족으로 『新撰姓氏錄』左京 皇別의 池田朝臣條에는 豐城入彦命의 10세손인 佐太公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423 『新撰姓氏錄』右京 皇別に 玉手朝臣이 보이는데, 武内宿禰의 아들 葛城曾都昆古(襲津彦)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424 笠臣은 현재 岡山縣 小田郡 및 笠岡市에 해당하는 備中國 小田郡을 본거지로 하는 씨족이며, 『古事記』孝靈天皇단에는 그 조상을 皇子 若日子建吉備津日子命이라 전하고 있다.

425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426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427 天忍日命을 그 선조로 한다고 전해지며, 예부터 군사에 봉사한 대족이다.

428 『新撰姓氏錄』左京 神別に 佐伯宿禰가 보이는데 大伴宿禰와 同祖로 道臣命의 7대손 室

지)⁴³⁰, 미장련(尾張連; 워하리노무라지)⁴³¹, 창련(倉連; 쿠라노무라지)⁴³², 중신주인련(中臣酒人連; 나카토미노사카히토노무라지)⁴³³, 토사련(土師連; 하지노무라지)⁴³⁴, 소부련(掃部連; 카니모리노무라지)⁴³⁵, 경부련(境部連; 사카히베노무라지)⁴³⁶, 앵정전부련(櫻井田部連; 사쿠라위노타베노무라지)⁴³⁷, 이복부련(伊福部連; 이호키헤노무라지)⁴³⁸, 무부련(巫部連; 카무나기베노무라지)⁴³⁹, 인벽련(忍壁連; 워사카베노무라지)⁴⁴⁰, 초벽련(草壁連; 쿠사카베노무라지)⁴⁴¹, 삼택련(三宅連; 미야케노무라지)⁴⁴², 아부련(兒部

屋大連公의 후손이라 한다. 모두 군사에 봉사한 씨족이다.

429 海部를 관장하고 해산물의 공상에 봉사하는 伴造씨족이다. 『新撰姓氏錄』 右京神別에 安曇宿禰, 河内神別에 安曇連이라 보인다.

430 원래는 首姓이다. 천무천황 9년 정월 忌部首首에게 連姓을 하사하였다. 조정의 神事に 봉사하는 伴造로 高皇產靈神의 자 天太玉命을 그 선조로 한다고 전해진다.

431 火明命을 그 선조로 한다고 전해진다.

432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新撰姓氏錄』 和泉神別에 椋連이 보이며 火明命의 南天香山命의 후손이라 한다.

433 『新撰姓氏錄』 左京神別에 中臣酒人宿禰가 보이며 大中臣朝臣과 동조로 天兒屋根命 10대손 孫臣狹山命의 후손이라 한다.

434 조정의 토기 제작, 喪葬의 일에 봉사한 씨족으로 天穗日命을 그 선조로 한다고 전해진다.

435 소부는 掃部라고도 쓴다. 조정의 청소·鋪設의 일에 봉사한 반조 씨족이다.

436 경부를 관장하고 諸領의 경계획정의 일에 종사하는 씨족이다. 神武記에 神八井耳命을 그 선조로 한다고 전해지며, 『新撰姓氏錄』 左京·右京神別에 坂合部宿禰라 보이며 火明命(또는 火闌降命)의 후손이라 한다.

437 櫻井屯倉의 田部를 관장하는 씨족이다.

438 미장련과 동조로 火明命의 후손이라 전해진다.

439 『新撰姓氏錄』 右京·攝津의 神別에 무부숙네가 보이며 神饒速日命 6대손 伊香我色雄命의 후손이라 한다. 그 외에 山城·和泉의 神別에 무부련이 보인다. 『續日本後紀』 承和 12년 7월조 및 『新撰姓氏錄』 和泉神別에 雄略천황 때 그 시조인 眞椋이 筑紫의 奇巫를 맞이하여 천황의 膏肓을 구한 일로 인해 巫部 姓을 하사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인다.

440 忍壁은 刑部和 같다. 원래는 造姓으로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받았다.

441 草壁은 日下部·草香部라고도 쓴다. 仁德천황의 황자 大日下王·若日下部王의 名代라

連; 코베노무라지)⁴⁴³, 수강련단비련(手纒連丹比連; 타스키노타지히노무라지)⁴⁴⁴, 인단비련(靛丹比連; 유키노타지히노무라지)⁴⁴⁵, 칠부련(漆部連; 누리베노무라지)⁴⁴⁶, 대탕인련(大湯人連; 오호유웨노무라지)⁴⁴⁷, 약탕인련(若湯人連; 와카유웨노무라지)⁴⁴⁸, 궁삭련(弓削連; 유게노무라지)⁴⁴⁹, 신복부련(神服部連; 칸하토리노무라지)⁴⁵⁰, 액전부련(額田部連; 누카타베노무라지)⁴⁵¹, 진수련(津守連; 츠모리노무라지)⁴⁵², 현견양련(縣犬養連; 아가타노이누카히노무라지)⁴⁵³, 치견양련(稚犬養連; 와카이누카히노무라지)⁴⁵⁴,

일컬어지는 日下部를 관장하는 伴造이다. 『古事記』 開化천황단에 日子坐王(彦坐命)의 자 沙本毘古王(狹穗彦命)이 그 선조라 전해진다. 『新撰姓氏錄』 山城·攝津의 皇別에 日下部宿禰, 河內 皇別에 日下部連이 보인다. 천무천황 12년 10월 連姓을 하사받은 초벽길사는 난파길사의 일족으로 이와는 별개의 인물이다.

- 442 원래 三宅吉士인데 천무천황 12년 10월에 連姓을 하사받았다.
- 443 천황의 측근에 사역된 아부를 관장하는 伴造일 것이다. 子部는 후에 主殿寮의 殿部가 되었다. 『三代實錄』, 貞觀 16년 12월조에 子部貞本 등에게 子部宿禰의 성을 하사한 기사에 「其先天御中主尊之後也。」라 되어 있다. 『新撰姓氏錄』은 右京神別에 子部가 보이는데 火明命의 5대손인 建刀米命의 후손이라 한다.
- 444 靛丹比連과 함께 反正천황의 名代라 일컬어지는 多治比部를 관장하고, 食膳의 일에 봉사한 씨족이다.
- 445 多治比部の 일종으로 측근의 경비를 담당하는 靛部를 이끌고 경위의 임무를 하는 伴造 씨족이다.
- 446 漆部를 관장하여 칠기의 제작을 담당하는 伴造 씨족이다.
- 447 귀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칭하는 湯人(湯坐)에는 大湯坐와 若湯坐가 있다.
- 448 湯人(湯坐)은 귀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칭하는데, 『新撰姓氏錄』 左京·攝津의 神別에 若湯坐宿禰가 보이며, 石上朝臣과 동조인 神饒速日命의 6대손인 伊香我色雄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또한 동 河內 神別에도 若湯坐連이 실려 있는데 膳杵磯丹杵穗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 449 弓削部를 관장하여 궁의 제작을 담당하는 伴造 씨족이다. 『新撰姓氏錄』 左京·河内の 神別에 弓削宿禰가 보이며 高魂命의 孫인 天日鷲翔矢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 450 神服部를 관장하여 神衣를 짜는 일을 담당하는 伴造 씨족이다.
- 451 天津彦根命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이다.
- 452 住吉神社를 제사하는 攝津의 호족이다.

옥조련(玉祖連; 타마노야노무라지)⁴⁵⁵, 신전부련(新田部連; 니히타베노무라지)⁴⁵⁶, 왜문련(倭文連; 시츠오리노무라지)⁴⁵⁷[倭文은 시츠오리(之頭於利)라 읽는다.], 빙련(氷連; 히노무라지)⁴⁵⁸, 범해련(凡海連; 오호시아마노무라지)⁴⁵⁹, 산부련(山部連; 아마베노무라지)⁴⁶⁰, 시집련(矢集連; 야즈메노무라지)⁴⁶¹, 협정련(狹井連; 사위노무라지)⁴⁶², 조공련(爪工連; 하타쿠미노무라지)⁴⁶³, 아도련(阿刀連; 아토노무라지)⁴⁶⁴, 자전련(茨田連; 만타노무라지)⁴⁶⁵, 전목련(田目連; 타메노무라지)⁴⁶⁶, 소자부련(小子部連; 워히사코베

453 稚(若)犬養連(宿禰)과 함께 犬養部를 관장하여 궁중 경위의 임무를 담당한 씨족이다. 『新撰姓氏錄』左京 신별에 縣犬養宿禰가 보이는데, 神魂命의 8세손인 阿居太都命의 후손이라 하고 있다.

454 犬養部를 관장하여 궁중 경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궁성 12문 가운데 보이는 若犬養門(훗날의 皇嘉門)은 이 씨족과 관련된 명칭이다. 『新撰姓氏錄』河內·和泉 신별에 若犬養宿禰가 보이는데, 火明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455 玉作部の 伴造의 하나로 神代記 下에 천손강림에 봉공한 五伴緒의 하나인 玉祖命을 그 조상으로 하고 있다.

456 田部를 관장, 屯倉의 경작을 담당하는 伴造이다.

457 倭文部를 관장하여 倭文(직물의 일종)의 제작을 담당하는 伴造이다.

458 빙실의 얼음을 관장하는 伴造이다.

459 凡海는 大海라고도 하며 安曇連씨와 마찬가지로 海部를 관장하여 해산물의 공상에 봉사하는 伴造이다.

460 山部를 관장하여 산림의 관리, 산물의 공상을 담당하는 씨족이다.

461 『新撰姓氏錄』우경신별에 箭集宿禰, 좌경신별에 矢集連이 보이고 있는데 모두 饒速日命의 六世孫인 伊香我色雄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462 狹井은 佐爲라고도 쓰며, 『新撰姓氏錄』山城神별에 佐爲宿禰, 左京神별에 佐爲連이 실려 있고 饒速日命 六世孫인 伊香我色雄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또 山城·大和神별에 佐爲連이 보인다.

463 爪는 翳, 즉 日傘을 의미하며, 천황의 위를 장식하는 용구이다. 爪工連은 爪工部를 관장하며 예의 제작을 담당하는 伴造 씨족이다.

464 物部氏 계통의 씨족이다.

465 『古事記』神武천황단에 日子八井耳命을 그 조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茨田은 河內國의 지명으로 현재 大阪府 門眞市 門眞 부근이다. 『和名類聚抄』에 河內國 茨田郡 茨

노무라지)⁴⁶⁷, 토도련(菟道連; 우지노무라지)⁴⁶⁸, 소치전련(小治田連; 워하리다노무라지)⁴⁶⁹, 저사련(猪使連; 위츠카히노무라지)⁴⁷⁰, 해견양련(海犬養連; 아마노이누카히노무라지)⁴⁷¹, 간인련(間人連; 하시히토노무라지)⁴⁷², 용미련(春米連; 츠키요네노무라지)⁴⁷³, 미농시집련(美濃矢集連; 미노노야츠메노무라지)⁴⁷⁴, 제회신(諸會臣; 모로아히노오미)⁴⁷⁵, 포류련(布留連; 후루노무라지)⁴⁷⁶의 50씨에 성을 주어 숙네라 하였다. 계미(6일)에 대당(大唐) 유학생 토사숙네생(土師宿禰生; 하지노스쿠네워히), 백저사보연(白猪史寶然; 시라위노후비토호네) 및 백제의 역(役)⁴⁷⁷ 때에 대당에 붙잡힌 저사련자수(猪使連子首; 위츠카히노무라지코비토), 축자삼택련득허(筑紫三宅連得許; 츠쿠시노미야케노무라지토쿠코)가 신라를 거쳐 귀국하였다. 신라는 대나말 김물유(金物儒)⁴⁷⁸를 파견하여 생(甥) 등을 축자까지 보냈다. 경인(13일)에 사형을 제의

田郷이 보인다.

466 田目은 多米와 같은 의미이며, 궁중의 취사에 관련된 씨족으로 여겨진다.

467 侏儒인 小子部를 관장하고, 궁중의 잡사에 관여, 봉사하는 伴造 씨족이다.

468 宇治部連과 같으며 應神天皇의 황자 宇治稚郎子의 名代라고 하는 宇治部를 관장하는 씨족이다.

469 『新撰姓氏錄』 좌경 신별에 小治田宿禰가 보이며 「石上同祖，欽明天皇御代，依繫開小治田鮎田，賜小治田大連」이라 하고 있으나 부회로 보인다. 또한 우경 신별에도 小治田連이 보인다.

470 安寧天皇의 황자 磯城津彥命의 후손이라 전해진다.

471 犬養部를 관장하는 伴造의 하나로 궁중을 경호하는 역할도 맡았다. 궁성 12문 가운데 海犬養門(후의 安嘉門)은 이 씨족에서 유래한 것이다.

472 『新撰姓氏錄』 좌경 황별에 間人宿禰가 보이며, 仲哀 천황의 황자 譽屋別命의 후손이라 되어 있다.

473 쌀을 정미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春米部의 伴造 씨족이다.

474 『和名類聚抄』에 美濃國 可兒郡에 矢集郷이 보이고 있다.

475 여기에서만 보인다.

476 원래는 物部首로 여겨진다.

477 663년 8월에 있었던 백제 구원전쟁, 즉 白村江 전투를 말한다.

하고 그 이하의 직인을 모두 사면하였다.

14년 봄 정월 정미삭 무신(2일)에 백료가 배례하였다. 정묘(21일)에 다시 작위의 이름을 고쳤다. 다시 계급을 증가시켰다⁴⁷⁹. 명위(明位) 2계, 정위(淨位) 4계이며, 계마다 대(大)와 광(廣)이 있다. 모두 12계이다. 여기까지는 제왕 이상의 위이다. 정위(正位) 4계, 직위(直位) 4계, 근위(勤位) 4계, 무위(務位) 4계, 추위(追位) 4계, 진위(進位) 4계로 계마다 대와 광이 있다. 모두 48계이다. 여기까지는 제신의 위이다. 이 날 초벽황자존(草壁皇子尊)에게 정광일위(淨廣壹位)를 주었다. 대진황자(大津皇子)에게 정대이위(淨大貳位)를 주었다. 고시황자(高市皇子)에게 정광이위(淨廣貳位)를 주었다. 천도황자(川嶋皇子), 인벽황자(忍壁皇子)에게 정대삼위(淨大參位)를 주었다. 그리고 이하의 제왕, 제신들에게 작위를 올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2월 정축삭 경진(4일)에 대당인, 백제인, 고구려인 모두 147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3월 병오삭 기미(14일)에 김물유를 축자에서 향응하였다. 그는 축자에서 귀국하였다. 표착한 신라인 7인은 물유에 딸려서 돌려보냈다. 신유(16일)에 경직대부(京職大夫) 직대삼(直大參) 허세조신신단노(許勢朝臣辛檀努; 코세노아소미시타노)가 죽었다(卒). 임신(27일)에 “제국에 집마다 불사를 만들어 불상 및 경전을 놓고 예배 공양하라⁴⁸⁰.”고 명하였다. 이 달에 신농국에 (화산)제가 내려다. 초

478 천무천황 14년 3월에 筑紫에서 향연을 받고 귀국하였다.

479 천지천황 3년에 제정된 冠位를 개정한 것으로 大寶 원년(701)의 大寶습에 기초한 신 위계제가 실시되기까지 계속되었다. 親王도 위계제 속에 포함시켜 왕과 신하의 위계를 분명하게 구분시킨 점, 계수를 증가시킨 점, 일본적인 덕목을 관명에 사용한 점 등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480 원문의 「每家」를 國衛의 의미로 보아 國分寺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설과 공경들의 私宅에 불전을 마련할 것을 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설이 있다.

목이 모두 말랐다.

여름 4월 병자삭 기묘(4일)에 기이국사(紀伊國司)가 “모루(牟婁)의 온천이 매물되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정해(12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임진(17일)에 신라인 김주산(金主山)이 귀국하였다⁴⁸¹. 경인(15일)에 이 날부터 승니를 청하여 궁중에 안거하게 하였다.

5월 병오삭 경술(5일)에 남문에서 활쏘기가 있었다. 천황이 비조사에 가서 값진 보물을 부처에게 바치고 예배하였다. 갑자(19일)에 직대사(直大肆) 속전 조신진인(粟田朝臣眞人; 아하타노아소미마히토)이 아버지의 위를 이으려 하였으나, 칙을 내려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날 직대사 당마진인광마려(當麻眞人廣麻呂; 타기마노마히토히로마로)가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직대일위(直大壹位)를 추증하였다. 신미(26일)에 고향조신마려(高向朝臣麻呂; 타카무쿠노아소미마로), 도노조신우사(都努朝臣牛飼; 츠노노아소미우시카히) 등이 신라에서 돌아왔다. 학문승 관상(觀常)⁴⁸², 영관(靈觀)⁴⁸³이 따라왔다. 신라왕의 헌물은 말 두 필, 개 세 마리, 앵무새 두 마리, 까치 두 마리 및 각종 물건이 있었다.

6월 을해삭 갑오(20일)에 대왜련(大倭連; 야마토노무라지)⁴⁸⁴, 갈성련(葛城連; 카즈라키노무라지)⁴⁸⁵, 범천내련(凡川內連; 오토시카후치노무라지)⁴⁸⁶, 산배련(山背連; 아마시로노무라지)⁴⁸⁷, 난파련(難波連; 나니하노무라지)⁴⁸⁸, 기주인련(紀酒人連;

481 천무천황 13년 3월조에 「金主山 歸國」이라 하여 중복되어 있다.

482 여기에만 보인다.

483 여기에만 보인다.

484 원래는 倭姓씨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85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86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87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88 원래는 草壁吉士로 보이는데, 천무천황 10년 정월에 草香部吉士大形에게 難波連의 성이 내려졌고, 동 12년 10월에는 草壁吉士이 連姓을 하사 받았다.

키노사카히토노무라지)⁴⁸⁹, 왜한련(倭漢連; 야마토노야야노무라지)⁴⁹⁰, 하내한련(河內漢連; 카후치노야야노무라지)⁴⁹¹, 진련(秦連; 하다노무라지)⁴⁹², 대우직(大隅直; 오호스미노야타히)⁴⁹³, 서련(書連; 후미노무라지)⁴⁹⁴의 모두 11씨에게 성을 내려 기촌(忌寸)이라 하였다.

가을 7월 을사삭 을축(21일)에 광뢰, 용전의 신에 제사지냈다. 경오(26일)에 칙을 내려 명위(明位) 이하 진위(進位) 이상의 조복의 색을 정하였다. 정위(淨位) 이상은 모두 주화(朱花)[朱花는 하네즈(波泥孺)라 읽는다.]를 입는다. 정위(正位)는 심자(深紫), 직위(直位)는 천자(淺紫), 근위(勤位)는 심록(深綠), 무위(務位)는 천록(淺綠), 추위(追位)는 심포도(深蒲萄), 진위(進位)는 천포도(淺蒲萄)로 하였다. 신미(27일)에 조(詔)를 내려 “동산도(東山道; 야마노미치)는 미논에서 동쪽, 동해도(東海道; 우미즈미치)는 이세에서 동쪽에 위치한 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과역을 면제한다.”고 명하였다.

8월 갑술삭 을유(12일)에 천황이 정토사(淨土寺)⁴⁹⁵에 행차하였다. 병술(13일)에 천원사(川原寺)⁴⁹⁶에 행차하였다. 모든 승에게 벼를 주었다. 계사(20일)에 탐라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

9월 갑진삭 임자(9일)에 천황이 옛 궁 안전(安殿)의 뜰에서 연회를 하였다. 이 날 황태자 이하 초벽황자에 이르기까지 피록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

489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2년 10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90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1년 5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91 원래는 直姓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92 원래는 造姓이나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93 大隅 隼人の 수장에게 부여된 칭호로 여겨진다.

494 원래는 首姓인데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姓을 하사 받았다.

495 山田寺의 별칭이다.

496 飛鳥川の 서쪽에 위치하고 法號를 弘福寺라고 한다.

었다. 갑인(11일)에 궁처왕(宮處王; 미야토코로노오호키미), 광파왕(廣瀨王; 히로세노오호키미), 난파왕(難波王; 나니하노오호키미), 죽전왕(竹田王; 타케다노오호키미), 미노왕(彌努王; 미노노오호키미)을 왕경(京) 및 기내에 보내 각 인민의 무기를 검열하였다. 무오(15일)에 직광사 도노조신우사(都努朝臣牛飼; 츠노노아소미우시카히)를 동해사자(東海使者)로, 직광사 석천조신충명(石川朝臣虫名; 이시카하노아소미무시나)을 동산사자(東山使者)로, 직광사 좌미조신소마려(佐味朝臣少麻呂; 사미노아소미스쿠나마로)를 산양사자(山陽使者)로, 직광사 거세조신속지(巨勢朝臣粟持; 코세노아소미아하모치)를 산음사자(山陰使者)로, 직광삼(直廣參) 노진인적견(路真人迹見; 미치노마히토토미)을 남해사자(南海使者)로, 직광사 좌백숙네광족(佐伯宿禰廣足; 사헤키노스쿠네히로타리)을 축자사자(筑紫使者)로 하였다. 각각 판관 1인, 사(史) 1인으로 국사, 군사 및 백성의 실정을 순찰하였다. 또한 이 날 조(詔)를 내려 “무릇 모든 노래 부르는 남자, 노래 부르는 여자, 피리를 부는 자는 자신의 기술을 자손에 전하여 노래와 피리를 배우고 익히게 하라.”고 명하였다. 신유(18일)에 천황이 대안전에 나가 왕경(王卿)들을 전(殿)으로 불러 박희(博戲)를 하게 하였다. 이 날 궁처왕, 난파왕, 죽전왕, 삼국진인우족(三國真人友足; 미쿠니노마히토토모타리), 현견양숙네대려(縣犬養宿禰大侶; 아가타노이누카히노스쿠네오호토모), 대반숙네어행(大伴宿禰御行; 오호토모노스쿠네미유키), 경부숙네석적(境部宿禰石積; 사카히베노스쿠네이하즈미), 다조신품치(多朝臣品治; 오호노아소미호무지), 채녀조신죽라(采女朝臣竹羅; 우네메노아소미츠쿠라), 등원조신대도(藤原朝臣大嶋; 후지하라노아소미오호시마) 모두 10인에게 옷과 바지를 내렸다. 임술(19일)에 황태자 이하 여러 왕경 모두인 48인에게 곰가죽[羆皮], 산양가죽[山羊皮]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계해(20일)에 고구려국⁴⁹⁷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 정묘(24일)에 천황이 병이 났기 때문에 3일간 대관대사, 천원사, 비조사에서

497 원문은 高麗國이다.

경전을 읽게 하였으며 벼를 세 절에 내려주었다. 각각 차이가 있었다. 경오(27일)에 귀화해 온 고구려인들⁴⁹⁸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겨울 10월 계유삭 병자(4일)에 백제 승려 상휘(常輝)⁴⁹⁹에게 30호를 주었다. 이 스님은 100세였다. 경진(8일)에 백제의 승려 법장(法藏), 우바색(優婆塞)⁵⁰⁰ 익전직금중(益田直金鍾; 마스타노아타히코무시요우)을 미농에 보내 백출(白朮)⁵⁰¹을 다리게 하고 굵은 비단, 솜, 피륙을 주었다. 임오(10일)에 경부조신족뢰(輕部朝臣足瀨; 카루베노아소미타루세), 고전수신가(高田首新家; 타카타노오비토니히노미), 황전미련마려(荒田尾連麻呂; 아라타위노무라지마로)를 신농에 보내 행궁을 짓도록 하였다. 아마 속간(束間; 츠카마)⁵⁰² 온천에 가려고 생각하였는가. 갑신(12일)에 정대사(淨大肆) 박뢰왕, 직광사 거세조신마사(巨勢朝臣馬飼; 코세노아소미우마카히), 판관 이하 모두 20인에게 기내(畿内)의 역(役)⁵⁰³을 맡겼다. 기축(17일)에 이세왕 등이 또 동국에 갔다. 그래서 옷과 바지를 주었다. 이 달에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을 궁중에서 강설하게 하였다.

11월 계묘삭 갑진(2일)에 관용⁵⁰⁴의 철 1만 근을 주방총령(周芳總令)의 처소에 보냈다. 이 날 축자대재가 관용의 물건으로 굵은 비단 1백 필, 실 1백 근, 피륙 3백 단, 용포(庸布) 4백 상, 철 1만 근, 화살대 2천 연(連)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축자에 내려 보냈다. 병오(4일)에 사망의 나라에 조(詔)를 내려 “대각(大角), 소각(小角), 고(鼓), 취(吹), 번기(幡旗) 및 노(弩), 포(抛)의 종류는 사가에

498 원문은 高麗人等이다.

499 여기에만 보인다.

500 處士, 居士라고도 하며 在家, 즉 속세에 있으면서 불문에 들어 수행하는 남자를 말한다.

501 약용식물의 일종이다.

502 信濃國 筑摩郡이며, 온천은 長野縣 松本市의 淺間온천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

503 도성의 입지를 정하는 사업으로 생각된다.

504 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한다.

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 군가(郡家)에 거두어라.”라고 명하였다. 무신(6일)에 백금후원(白錦後苑 ; 시라나시키노미소노)에 행차하였다. 병인(24일)에 법장법사(法藏法師)와 금종(金鍾)이 백출 달인 것을 바쳤다. 이 날 천황을 위하여 초혼⁵⁰⁵을 하였다. 기사(27일)에 신라가 파진찬⁵⁰⁶ 김지상(金智祥)⁵⁰⁷, 대아찬 김건훈(金健勳)⁵⁰⁸을 보내 정치를 보고하고[請政] 조(調)를 바쳤다.

12월 임신삭 을해(4일) 축자에 보낸 병사들이 해상에서 표류하여 의복을 모두 잃었다. 병사의 의복을 위하여 피륙 458단을 축자에 내려 보냈다. 신사(10일)에 서쪽에서부터 지진이 있었다. 정해(16일)에 굵은 비단, 솜, 피륙을 대관 대사의 승 등에게 주었다. 경인(19일)에 황후의 명으로 왕경(王卿) 등 55인에게 조복 한 벌씩을 주었다.

주조 원년⁵⁰⁹ 봄 정월 임인삭 계묘(2일)에 대극전에 나가 여러 왕경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 날 “짐이 왕경들에게 무단사(無端事)⁵¹⁰를 물어보겠다. 답하여 맞으면 반드시 상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시황자가 물음에 대해 맞는 답을 하였다. 진개(秦揩)⁵¹¹의 옷 세 벌, 비단 바지 두 벌과 아을

505 후의 진혼제인데, 혼이 유리되지 않도록 신체 속에 진정시켜 그 활동에 의해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養老令』神祇令에서는 중동(11월)의 寅日에 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 기사와 일치한다.

506 신라의 관위 17계 가운데 제4위이다.

507 朱鳥 원년 정월에 筑紫에서 향응을 받고 귀국하였다.

508 여기서만 보이는데, 김지상과 행동을 함께한 것으로 여겨진다.

509 686년이다.

510 無端은 端緒가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단사가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단서(힌트)를 주지 않고 내는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놀이, 혹은 신하들의 多聞博覽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511 『養老令』衣服令 服色條에 揩衣, 秦이 보인다. 천연재료로 염색한 옷이다.

러 거친 비단 20필, 실 50근, 솜 1백 근, 피륙 1백 단을 주었다. 이세왕도 또한 맞추었다. 그리하여 검은 옷 세 벌, 자색 바지 두 벌, 굵은 비단 일곱 필, 실 20근, 솜 40근, 피륙 40단을 주었다. 이 날 섭진국인(攝津國人; 츠노쿠니노히토) 백제신여(百濟新與; 쿠다라노니히키)가 백마노(白馬瑙)를 바쳤다. 경술(9일)에 삼강(三綱)의 율사, 대관대사의 지사(知事), 좌관(佐官) 등 모두 9인의 승을 초청하여 속인이 바친 음식을 주었다. 또 굵은 비단, 솜, 피륙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신해(10일)에 여러 왕경들에게 각각 포고(袍袴) 한 벌을 주었다. 갑인(13일)에 여러 재인, 박사, 음양사, 의사 모두 20여 인을 불러 식사와 녹을 주었다. 을묘(14일)에 오후 6시에 난파(難波)의 대장성(大藏省; 오후쿠라노츠키사)에 실화가 있어 궁실을 모두 태웠다. 어떤 사람이 “아두련약(阿斗連藥; 아토노무라지쿠스리) 집의 실화가 궁실까지 미쳤다.”고 말하였다. 다만 병고직(兵庫職; 츠와모노노츠키사)만은 불타지 않았다. 정사(16일)에 천황이 대안전에 나가 여러 왕경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으며 굵은 비단, 솜, 피륙을 주었다.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이 날 천황이 군신에게 무단사(無端事)를 물었다. 당장에 맞추면 거듭 굵은 비단과 솜을 주었다. 무오(17일)에 후궁에서 연회를 열었다. 기미(18일)에 조정에서 큰 주연을 베풀었다. 이 날 어굴전(御窟殿; 미무로노토노)에 앞에 나가 배우들에게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또한 가인(歌人)들에게 포고(袍袴)를 주었다. 경신(19일)에 지진이 있었다. 이 달 신라 김지상(金智祥)에게 향응을 베풀기 위해 정광사 천내왕(川內王), 직광삼 대반숙네안마려(大伴宿禰安麻呂; 오토모노스쿠네야스마로), 직대사(直大肆) 등원조신대도, 직광사 경부숙네제어(境部宿禰鰭魚; 사카히베노스쿠네코노시로), 직광사 수적조신충마려(穗積朝臣虫麻呂; 호즈미노아소미무시마로) 등을 축자에 보냈다.

2월 신미삭 갑술(4일)에 대안전에 나갔다. 시신(侍臣) 6인에게 근위(勤位)를 주었다. 을해(5일)에 칙을 내려 제국의 국사 가운데 유공자 9인을 뽑아 근위를 주었다.

3월 신축삭 병오(6일)에 대변관(大弁官) 직대삼 우전진인팔국(羽田真人八國 ; 하타노마히토야쿠니)이 병이 들었다. 이에 승 3인을 출가시켰다. 경술(10일)에 눈이 왔다. 을축(25일)에 우전진인팔국이 죽었다(卒). 임신년의 공으로 직대일위(直大壹位)를 추증하였다.

여름 4월 경오삭 정축(8일)에 시의(侍醫) 상원촌주가도(桑原村主訶都 ; 쿠하하라 노스구리카츠)에게 직광사를 주었으며 성을 내려 연(連)이라 하였다. 임오(13일)에 신라 사신⁵¹²들에게 향응을 베풀기 위하여 천원사의 기악(伎樂 ; 쿠레가쿠)⁵¹³을 축자로 운반하였다. 황후궁이 사유한 벼 5천 속을 천원사에 시주하였다. 무자(19일)에 신라가 바친 물건을 축사에서 보내왔다. 세마(細馬) 한 필, 노새 한 두, 개 두 마리, 누금기(鏤金器) 및 금, 은, 하금(霞錦), 능라(綾羅), 호표피(虎豹皮), 약물 등 모두 1백여 종이였다. 또 지상, 진혼 등이 따로 바친 물건은 금, 은, 하금, 능라, 금기(金器), 병풍, 안피(鞍皮)⁵¹⁴, 견(絹), 포(布), 약물 따위로 각각 60여 종이였다. 따로 황후, 황태자 및 여러 친왕 등에게 바치는 물건이 각각 다수였다. 병신(27일)에 다기황녀(多紀皇女), 산배희왕(山背姬王 ; 야마시로노오 호키미), 석천부인(石川夫人 ; 이시카하노오호토지)을 이세신궁(伊勢神宮)에 보냈다.

5월 경자삭 무신(9일)에 다기황녀 등이 이세에서 돌아왔다. 이 날 시의(侍醫) 백제인 억인(億仁)이 병들어 죽게 되어 근대일위(勤大壹位)를 주었으며, 1백 호를 주었다. 계축(14일)에 칙을 내려 대관대사에 7백 호를 주고 세 30만 속을 시주하였다. 병진(17일)에 궁인들에게 작위를 올려주었다. 계해(24일)에 천황의 병이 위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원사에서 약사경(藥師經)을 강설하게 하

512 원문은 新羅客이다.

513 백제에서 전해진 중국의 樂舞이다. 大寶, 養老令制 아래에서는 治部省의 피관인 雅樂寮에 伎樂師 1인을 두고 樂生을 교수하였다. 여기서는 천원사에 비치되어 있던 기악을 담당할 舞人, 樂人과 樂器, 衣裳 등을 신라사가 있는 筑紫로 보냈음을 말한다.

514 말안장용 가죽을 말한다.

였으며, 궁중에 안거시켰다. 무진(29일)에 김지상 등에게 축사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녹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축사에서 귀국하였다.

이 달에 칙을 내려 좌우의 대사인을 보내 제사(諸寺)의 당탑(堂塔)을 쓸고 깨끗이 하였다. 그리고 천하에 크게 사면을 하여 옥사가 이미 비어 있었다.

6월 기사삭(1일)에 규본촌주승마려(槻本村主勝麻呂; 츠키모토노스구리카치마로)에게 연성(連姓)을 내렸다. 그리고 근대일위(勤大壹位)를 더하고 20호를 주었다. 경오(2일)에 공장(工匠), 음양사, 시의(侍醫), 대당(大唐)의 학생, 한두 명의 궁인, 모두 34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을해(7일)에 관청의 사람들 중에서 유공자 28인을 뽑아 작위를 올렸다. 무인(10일)에 천황의 병을 점치니 초치검(草薙劍; 쿠사나기노츠루기) 탓이라 하였다. 그날로 미장국의 열전사(熱田社; 아츠타노야시로)로 보내 그곳에 두었다. 경진(12일)에 기우를 하였다. 갑신(16일)에 이세 왕 및 관인 등을 비조사에 보내 여러 승에게 칙을 내려 “근자에 짐의 몸이 불편하다. 삼보(三寶)의 위엄에 의지하여 몸이 편안히 되게 하라. 이를 위하여 승정(僧正), 승도(僧都) 및 여러 승들이여, 불사에 서원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보(珍寶)를 삼보(三寶)에 바쳤다. 이 날 삼강(三綱), 율사(律師) 및 네 절의 화상(和上), 지사(知事) 아울러 현재 사위(師位)에 있는 승들에게 옷 한 벌과 이불 한 채를 주었다. 정해(19일)에 칙을 내려 백관을 천원사에 보내 연등공양을 하였다. 또 대재회를 열어 잘못을 뉘우쳤다. 병신(28일)에 승려 법인(法忍)⁵¹⁵과 의조(義照)⁵¹⁶의 노후를 위해 각각 30호를 내렸다. 경인(22일)에 명장(名張; 나바리)의 주사(廚司)⁵¹⁷에 화재가 있었다.

가을 7월 기해삭 경자(2일)에 칙을 내려 “남자는 경상(脛裳)을 입고, 부녀는

515 여기에만 보인다.

516 여기에만 보인다.

517 천황의 밥상에 올리는 조류, 물고기, 조개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등에 수발(垂髮)하는 것을 예전처럼 하라⁵¹⁸.”고 하였다. 이 날에 승정, 승도 등이 궁중에 와서 잘못을 회개하였다. 신축(3일)에 제국에 조를 내려 대해제를 하였다. 임인(4일)에 천하의 조를 반감하고 요역을 모두 면제하였다. 계묘(5일)에 폐백을 기이국에 있는 국현신(國懸神; 구니카카스카미), 비조(飛鳥)의 사사(四社), 주길대신(住吉大神; 스미노에노오호카미)에게 바쳤다. 병오(8일)에 1백 인의 승을 청하여 궁중에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읽게 하였다. 무신(10일)에 번개가 남쪽에서 번쩍하고 한 번 크게 천둥이 쳤다. 이 때문에 민부성(民部省)의 장용사옥(藏庸舍屋)⁵¹⁹에 불이 났다. 어떤 사람이 “인백황자의 궁에서 실화한 것이 민부성을 불태웠다.”고 말하였다. 계축(15일)에 칙을 내려 “천하의 일은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황후 및 황태자에게 아뢰라.”고 하였다. 이 날 대사면이 있었다. 갑인(16일)에 광뢰(廣瀨), 용전(龍田)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정사(19일)에 조를 내려 “천하의 백성 가운데 가난으로 버나 재물을 빌려간 자는 을유년 12월 30일 이전의 것은 공사를 불문하고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무오(20일)에 개원하여 주조(朱鳥)[朱鳥는 아카미토리(阿訶美苔利)라 읽는다.] 원년이라 하였다. 궁의 이름을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이라 하였다. 병인(28일)에 행실이 좋은 자 70인을 가려 출가시켰다. 궁중의 어굴원(御窟院; 미무로노마치)에서 재를 올렸다. 이 달에 제왕과 신하들이 천황을 위하여 관세음상을 만들었다. 관세음경(觀世音經)⁵²⁰을 대관대사에서 강설하게 하였다.

8월 기사삭(1일)에 천황을 위하여 80인을 출가시켰다. 경오(2일)에 승니 모두 1백 인을 출가시켰다. 1백 인의 보살상을 궁중에 안치하고 관세음경 2백 권을 읽게 하였다. 정축(9일)에 천황의 몸의 병을 위하여 신기(神祇)에 빌었다. 신

518 11년 3월에 내린 금령을 해제한 조치이다.

519 侍丁과 采女の 庸布, 庸米를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520 『法華經』 권8, 觀世音菩薩 普門品을 말한다.

사(13일)에 진기촌석승(秦忌寸石勝; 하다노이미키이하카즈)을 보내 폐백을 토좌대신(土左大神; 토사노오호카미)에게 바쳤다. 이 날 황태자, 대진황자, 고시황자에게 각각 식봉 4백 호를 증가시켰으며, 천도황자, 인벽황자에게 각 1백 호를 증가시켰다. 계미(15일)에 지기황자(芝基皇子; 시키노미코), 기성황자(磯城皇子; 시키노미코)에게 각각 2백 호를 증가시켰다. 기축(21일)에 회외사(檜隈寺; 히노쿠마테라)⁵²¹, 경사(輕寺; 카루데라)⁵²², 대와사(大窪寺; 오호쿠보데라)⁵²³에 각각 봉호 1백 호를 주고 30년을 한도로 하였다. 신묘(23일)에 거세사(巨勢寺; 코세데라)에 봉호 2백 호를 수여하였다.

9월 무술삭 신축(4일)에 친왕 이하 제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원사에 모여 천황의 병을 위하여 서원하였다. 운운. 병오(9일)에 천황은 병이 쾌차하지 못하고 마침내 정궁⁵²⁴에서 죽었다(崩)⁵²⁵. 무신(11일)에 비로소 곡을 하였다. 빈

521 檜隈寺는 檜前(히노쿠마) 지역을 본거로 하는 倭漢씨가 창건한 사원으로 여겨진다. 절터는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檜前に 있는데 堂 일우, 塔 일기의 초석이 있으며 천무·지통조 무렵으로 여겨지는 기와가 출토되었다.

522 輕寺는 奈良縣 橿原市 大輕 지역에 있으며 후에 法輪寺라 칭했다. 高向玄理의 건립이라 전해지고 있다. 倭漢氏의 一支族으로 이 땅을 본거로 한 도래인계의 토호인 輕忌寸과 관련된 사원으로 여겨진다. 飛鳥 말 白鳳 초기 양식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523 大窪寺는 北野本은 毘叡菩提寺라 하고 있다. 절터는 奈良縣 橿原市 大久保에 있는데 塔心礎가 있으며 출토된 기와로 보아 白鳳시대 초기의 창건으로 생각된다. 이 절은 鎌倉시대 말까지는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524 황거를 말하는데, 「正宮」의 초출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日本書紀』에서는 보통 宮室, 宮闕, 宮殿, 王宮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525 천무천황의 묘에 관해서는 『日本書紀』에는 천무천황의 사후 687년(지통 원년) 10월 임자조에 「처음으로 大內陵을 축조하다.」라는 기사가 있으며, 688년(지통 2) 11월에는 조사(誅; 시노비고토)가 끝나고 천무천황이 매장되고 있다. 702년(대보 2)에는 봉어한 지통이 703년 12월 癸酉에 飛鳥岡에서 화장되어 同月 壬午에 「大內山陵에 合葬」되었다고 한다. 『延喜式』 諸陵寮에는 「檜隈大內陵, 在大和國高市郡. 兆域東西五町, 南北四町, 陵戸五廂.」이라 보이며, 『陵墓要覽』은 그 위치를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野口」라 하고 있다. 천무·지통천황 합장릉인 野口王墓에 관해서는 조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

궁(殯宮)은 남쪽 정원에 세웠다. 신유(24일)에 남쪽 정원(南庭)에 빈소를 차리고 곡을 하였다. 이때 대진황자가 황태자에 모반하러 하였다⁵²⁶. 갑자(27일) 오전 4시에 여러 승니가 빈정에서 곡을 하고 돌아갔다. 이 날 비로소 추존하고 조사⁵²⁷를 읽었다. 첫 번째로 대해숙네포(大海宿禰蒲; 오호시아마노스쿠네아라카마)는 양육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정대사 이세왕이 제왕의 일들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대삼 현견양숙네대반(縣犬養宿禰大伴; 아가타노이 누카히노스쿠네오호토모)이 모든 궁내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정광사 하내왕이 좌우대사인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대삼 당마 진인국견(當摩真人國見; 타기마노마히토쿠니미)이 병위(兵衛)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대사 채녀조신축라(采女朝臣筑羅; 우네메노아소미츠쿠라)가 내명부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그리고 직광사 기조신진인(紀朝臣眞人; 키노아소미마히토)이 선직(膳職)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을축(28일)에 여러 승니가 또 빈정에서 곡을 하였다. 이 날 직대삼 포세조신어주인(布勢朝臣御主人; 후세노아소미미누시)이 대정관(大政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

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그 분구는 동서 약 58m, 남북 직경 45m, 높이 9m의 원분 형태이다. 본래의 분형은 8각형, 5단 축성이며 주변에 돌계단을 둘러쳤다고 한다. 2실로 구성된 切石으로 쌓은 석실이 있고, 천무천황의 夾紵棺과 지통천황의 金銅製骨藏器가 매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고분은 천황이 매장된 고분으로 생각해도 좋으며, 피장자의 실제성도 문제가 없다. 治定을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대의 능묘이다. 그러나 1235년에 도굴되어 대부분의 부장품이 없어졌다. 그때 천무천황의 관도 손상되고 유체도 관 밖으로 꺼내져 석실 내에는 천황의 유골과 백발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지통천황의 유골은 화장했기 때문에 은제의 골호(骨壺)에 담겨져 있었으나 골호마저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은 근처에 유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526 『日本書紀』持統천황 稱帝前紀에 의하면 이후 10월 2일에 황자 및 공범자가 체포되고, 다음날 3일 황자를 賜死다. 9월 24일은 모반이 발각된 날일 것이다. 아울러 『万葉集』과 『懷風藻』에는 이 변란과 관련된 일련의 和歌 및 황자의 시가 실려 있다.

527 원문은 誄이다.

광삼 석상조신마려(石上朝臣麻呂 ; 이소노카미노아소미마로)가 법관(法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대사 대삼륜조신고시마려(大三輪朝臣高市麻呂 ; 오호미와노아소미타케치마로)가 이관(理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광삼 대반숙네안마려가 대장(大藏)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대사 등원조신대도가 병정관(兵政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병인(29일)에 승니가 또 곡을 하였다. 이 날 직광사 아배구노조신마려(阿倍久努朝臣麻呂 ; 아헤노쿠노노아소미마로)가 형관(刑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광사(直廣肆) 기조신궁장(紀朝臣弓張 ; 키노아소미유미하리)이 민관(民官)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직광사 수적조신충마려가 여러 국사의 일에 관해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대우(大隅), 아다(阿多)의 준인(隼人) 및 왜(倭 ; 야마토)와 하내(河内 ; 카후치)의 마사부조(馬飼部造 ; 우마카히베노미야츠코)가 각각 조사를 읽었다. 정묘(30일)에 승니가 곡을 하였다. 이 날 백제왕 양우(良虞)가 백제왕 선광(善光)을 대신하여 조사를 읽었다. 다음으로 각 국의 국조(國造 ; 쿠니노미야츠코)들이 오는 때에 따라 각각 조사를 읽었다. 각종 가무를 연주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29

日本書紀 卷第廿九

天淳中原瀛真人天皇下 天武天皇

二年 春正月丁亥朔癸巳，置酒宴群臣。

二月丁巳朔癸未，天皇命有司，設壇場卽帝位於飛鳥浮御原宮，立正妃爲皇后，后生草壁皇子尊，先納皇后姉大田皇女爲妃生大來皇女與大津皇子，次妃大江皇女，生長皇子與弓削皇子，次妃新田部皇女，生舍人皇子，又夫人藤原大臣女氷上娘，生但馬皇女，次夫人氷上娘弟五百重娘，生新田部皇子，次夫人蘇我赤兄大臣女大蕤娘，生一男，二女，其一曰穗積皇子，其二曰紀皇女，其三曰田形皇女，天皇初娶鏡王女額田姬王，生十市皇女，次納胸形君德善女尼子娘，生高市皇子命，次宋人臣大麻呂女櫛媛娘，生二男，二女，其一曰忍壁皇子，其二曰磯城皇子，其三曰泊瀨部皇女，其四曰託基皇女，乙酉，有勳功人等，賜爵有差。

三月丙戌朔壬寅，備後國司獲白雉於龜石郡而貢，乃當郡課役悉免，仍大赦天下。

是月，聚書生，始寫一切經於川原寺。

夏四月丙辰朔己巳，欲遣侍大來皇女于天照太¹神宮，而令居泊瀨齋宮，是先潔身，稍近神之所也。

1 소학관본에서는 ‘大’라고 적고 있다.

五月乙酉朔，詔公卿大夫及諸臣連并伴造等曰，夫初出身者，先令仕大舍人，然後選簡其才能，以死當職，又婦女者，無問有夫無夫及長幼，欲進仕者聽矣，其考選准官人之例，癸丑，大錦上坂本財臣卒，由壬申年之勞，贈小紫位，

閏六月乙酉朔庚寅，大錦下百濟沙宅昭明卒，爲人聰明睿智，時稱秀才於是，天皇驚之，降恩以贈外小紫位，重賜本國大佐平位，壬辰，耽羅遣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己亥，新羅遣韓阿浪金承元，阿浪金祇山，大舍霜雪等賀騰極，并遣一吉浪金薩儒，韓奈末金池山等弔先皇喪[一云 調使.]，其送使貴干寶眞毛送承元，薩儒於筑紫，戊申，饗貴干寶等於筑紫，賜祿各有差，卽從筑紫返于國，

秋八月甲申朔壬辰，詔，在伊賀國紀臣阿閑麻呂等，壬申年勞勳之狀而顯寵賞，癸卯高麗遣上部位頭大兄邯子，前部大兄碩千等朝貢，仍新羅遣韓奈末金利益送高麗使人于筑紫，戊申，喚賀騰極使金承元等中客以上廿七人於京，因命大宰，詔耽羅使人曰，天皇新平天下，初之卽位，由是唯除賀使，以外不召，則汝等親所見，亦時寒波嶮，久淹留之，還爲汝愁，故宜疾歸，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肇賜爵位，其爵者大乙上，更以錦繡潤飾之，當其國之佐平位，則自筑紫返之，

九月癸丑朔庚辰，饗金承元等於難波，奏種種樂，賜物各有差，

冬十一月壬子朔，金承元罷歸之，壬申，饗高麗邯子，新羅薩儒等於筑紫大郡，賜祿各有差，

十二月壬午朔丙戌，侍奉大嘗中臣，忌部，及神官人等，并播磨，丹波二國郡司，亦以下人夫等悉賜祿，因以郡司等各賜爵一級，戊戌，以小紫美濃王，小錦下紀臣訶多麻呂，拜造高市大寺司[今大官大寺是.]，時知事福林僧由老辭知事，然不聽焉，戊申，以義成僧爲小僧都，是日，更加佐官二僧，其有四佐官始起于此時也，是年也，太歲癸酉，

三年 春正月辛亥朔庚申，百濟王昌成薨，贈此小紫位，

二月辛巳朔戊申，紀臣阿閑麻呂卒，天皇大悲之，以勞壬申年之役贈大紫位，

三月庚戌朔丙辰，對馬國司守忍海造大國言，銀始出于當國，卽貢上，由是大國授小錦下位，凡銀有倭國，初出于此時，故悉奉諸神祇，亦周賜小錦以上大夫等，

秋八月戊寅朔庚辰，遣忍壁皇子於石上神宮，以膏油瑩神寶，卽日勅曰，元來諸家貯於神府寶物，今皆還其子孫，

冬十月丁丑朔乙酉，大來皇女自泊瀬齋宮向伊勢神宮，

四年 春正月丙午朔，大學寮諸學生，陰陽寮，外藥寮，及舍衛女，墮羅女，百濟王善光，新羅仕丁等，捧藥及珍異等物進，丁未，皇子以下百寮諸人拜朝，戊申，百寮諸人，初位以上進薪，庚戌，始興占星臺，

壬子，賜宴群臣於朝廷，壬戌，公卿大夫及百寮諸人，初位以上，射于西門庭，亦是日，大倭國貢瑞鷄，東國貢白鷹，近江國貢白鷄，戊辰，祭幣諸社，

二月乙亥朔癸未，勅大倭，河內，攝津，山背，播磨，淡路，丹波，但馬，近江，若狹，伊勢，美濃，尾張等國曰，選所部百姓之能歌男女，及侏儒伎人而貢上，丁亥，十市皇女，阿閉皇女，參赴於伊勢神宮，己丑，詔曰，甲子年諸氏被給部曲者，自今以後除之，又親王，諸王及諸臣并諸寺等所賜山澤嶋浦，林野陂池，前後並除焉，癸巳，詔曰，群臣百寮及天下人民莫作諸惡，若有犯者隨事罪之，

丁酉，天皇幸於高安城，

是月，新羅遣王子忠元，大監級浪金比蘇，大監奈末金天冲，第²監大麻朴武麻，第³監大舍金洛水等，進調，其送使奈末金風那，奈末金孝福，送王子忠元於筑紫，

三月乙巳朔丙午，土左大神以神刀一口進于天皇，戊午，饗金風那等於筑紫卽自筑紫歸之，庚申，諸王四位栗隈王爲兵政官長，小錦上大伴連御行爲大輔，

2 소학관본에서는 ‘弟’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弟’라고 적고 있다.

是月，高麗遣大兄富干于，大兄多武等朝貢，新羅遣級浪朴勤修，大奈末金美賀進調。

夏四月甲戌朔戊寅，請僧尼二千四百餘而大設齋焉。辛巳，勅，小錦上當摩公廣麻呂，小錦下久努臣麻呂二人，勿使朝參。壬午，詔曰，諸國貸稅，自今以後，明察百姓，先知富貧，簡定三等，仍中戶以下應與貸。

癸未，遣小紫美濃王，小錦下佐伯連廣足祠風神于龍田立野，遣小錦中間人連太蓋，大山中曾禰連韓犬祭大忌神於廣瀨河曲。丁亥，小錦下久努臣麻呂坐對捍詔使，官位盡追。庚寅，詔諸國曰，自今以後，制諸漁獵者，莫造檻穽及施機槍等之類，亦四月朔以後，九月卅日以前，莫置比滿沙伎理梁，且莫食牛馬犬猿鷄之完，以外不在禁例，若有犯者罪之。辛卯，三位麻績王有罪，流于因播，一子流伊豆嶋，一子流血鹿嶋。丙申，簡諸才藝者，給祿各有差。

是月，新羅王子忠元到難波。

六月癸酉朔乙未，大分君惠尺病將死，天皇大驚詔曰，汝惠尺也，背私向公，不惜身命，以遂雄之心勞于大役，恒欲慈愛，故爾雖既死子孫厚賞，仍騰外小紫位，未及數日，薨于私家。

秋七月癸卯朔己酉，小錦上大伴連國麻呂爲大使，小錦下三宅吉士入石爲副使，遣于新羅。

八月壬申朔，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癸巳，大風飛沙破屋。丙申，忠元禮畢以歸之，自難波發船。

己亥，新羅，高麗二國調使饗於筑紫，賜祿有差。

九月壬寅朔戊辰，耽羅王姑如到難波。

冬十月辛未朔癸酉，遣使於四方覓一切經。庚辰，置酒宴群臣。丙戌，自筑紫貢唐人卅口，則遣遠江國而安置。庚寅，詔曰，諸王以下，初位以上，每人備兵，是日，相摸國言，高倉郡女人生三男。

十一月辛丑朔癸卯，有人登宮東岳，妖言而自刎死之，當是夜直者，悉賜爵一級。

是月，大地動。

五年 春正月庚子朔，群臣百寮朔拜朝，癸卯，高市皇子以下，小錦以上大夫等，賜衣袴褶腰帶脚帶及机杖，唯小錦三階不賜机，丙午，小錦以上大夫等賜祿各有差，甲寅，百寮初位以上進薪，卽日悉集朝廷賜宴，乙卯，置祿射于西門庭，中的者則給祿有差，是日，天皇御嶋宮宴之，甲子，詔曰，凡任國司者，除畿內及陸奥，長門國，以外皆任大山位下人，

二月庚午朔癸巳，耽羅客賜船一艘，

是月，大伴連國麻呂等至自新羅，

夏四月戊戌朔辛丑，祭龍田風神，廣瀨大忌神，倭國添下郡鰐積吉事貢瑞鷄，其冠似海石榴華，是日，倭國飽波郡言，雌鷄化雄，辛亥，勅，諸王，諸臣被給封戶之稅者，除以西國，相易給以東國，又外國人欲進仕者，臣連，伴造之子，及國造子聽之，唯雖以下庶人，其才能長亦聽之，己未，詔美濃國司曰，在礪杵郡紀臣訶⁴佐麻呂之子遷東國卽爲其國之百姓，

五月戊辰朔庚午，宣，進調過期限國司等之犯狀云云，甲戌，下野國司奏，所部百姓遇凶年，飢之欲賣子，而朝不聽矣，

是月，勅，禁南淵山，細川山，並莫薊薪，又畿內山野元所禁之限，莫妄燒折，

六月，四位栗隈王得病薨，物部雄君連忽發病而卒，天皇聞之大驚，其壬申年從車駕，入東國以有大功，降恩贈內大紫位，因賜氏上，

是夏，大旱，遣使四方捧幣帛，祈諸神祇，亦請諸僧尼，祈于三寶，然不雨，由是五穀不登，百姓飢之，

秋七月丁卯朔戊辰，卿大夫及百姓寮諸人等進爵各有差，甲戌，耽羅客歸國，壬午，祭龍田風神，廣瀨大忌神，

4 소학관본에서는 '阿'라고 적고 있다.

是月，村國連雄依卒，以壬申年之功贈外小紫位，有星出于東，長七八尺，至九月竟天。

八月丙申朔丁酉，親王以下，小錦以上大夫，及皇女姬王，內命婦等，給食封各有差，辛亥，詔曰，四方爲大解除，用物則國別國造輸袂⁵柱，馬一匹，布一常，以外郡司各刀一口，鹿皮一張，釧一口，刀子一口，鎌一口，矢一具，稻一束，且每戶麻一條，壬子，詔曰，死刑，沒官，三流，並除一等，徒罪以下已發覺，未發覺，悉赦之，唯既配流不在赦例，是日，詔諸國以放生，是月，大三輪眞上田子人君卒，天皇聞之大哀，以壬申年之功贈內小紫位，仍諡曰大三輪眞上田迎君。

九月丙寅朔，雨不告朔，乙亥，王卿遣京及畿內，校人別兵，丁丑，筑紫大宰三位屋垣王有罪，流于土左，戊寅百寮人及諸蕃人等，賜祿各有差，丙戌，神官奏曰，爲新嘗卜國郡也，齋忌[齋忌，此云踰既。]則尾張國山田郡，次[次，此云須岐也。]丹波國訶沙郡，並食卜。

是月，坂田公雷卒，以壬申年功贈大紫位。

冬十月乙未朔，置酒宴群臣，丁酉，祭幣帛於相新嘗諸神祇，甲辰，以大乙上物部連麻呂爲大使，大乙中山背直百足爲小使，遣於新羅。

十一月乙丑朔，以新嘗事不告朔，丁卯，新羅遣沙湊金清平請政，并遣汲湊金好儒，弟監大舍金欽吉等進調，其送使奈末被珍那，副使奈末好福，送清平等於筑紫。

是月，肅愼七人從清平等至之，癸未，詔近京諸國而放生，甲申，遣使於四方國，說金光明經，仁王經，丁亥，高麗遣大使後部主簿⁶阿于，副使前部大兄德富朝貢，仍新羅遣大奈末金楊原送高麗使人於筑紫。

是年，將都新城，而限內田園者不問公私，皆不耕悉荒，然遂不都矣。

5 소학관본에서는 ‘祓’이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博’이라고 적고 있다.

六年 春正月甲子朔庚辰，射于南門。

二月癸巳朔，物部連麻呂至自新羅。

是月，饗多禰嶋人等於飛鳥寺西槻下。

三月癸亥朔辛巳，召新羅使人清平及以下客十三人於京。

夏四月壬辰朔壬寅，杖⁷田史名倉坐指斥乘輿，以流于伊豆嶋，乙巳，送使珍那等饗于筑紫，即從筑紫歸之。

五月壬戌朔，不告朔，甲子，勅，大博士百濟人率母授大山下位，因以封卅戶，是日，倭畫師音櫛授小山下位，乃封廿戶，戊辰，新羅人阿淪朴刺破從人三口，僧三人漂着於血鹿嶋，己丑，勅，天社，地社神稅者三分之一爲擬供神，二分給神主。

是月，旱之，於京及畿內雩之。

六月壬辰朔乙巳，大震動。

是月，詔東漢直等曰，汝等黨族之自本犯七不可也，是以從小墾田御世至于近江朝，常以謀汝等爲事，今當朕世，將責汝等不可之狀，以隨犯應罪，然頓不欲絕漢直之氏，故降大恩以原之，從今以後，若有犯者，必入不赦之例。

秋七月辛酉朔癸亥，祭龍田風神，廣瀨大忌神。

八月辛卯朔乙巳，大設齋於飛鳥寺，以讀一切經，使天皇御寺南門而禮三寶，是時，詔親王，諸王及群卿，每人賜出家一人，其出家者不問男女長幼，皆隨願度之，因以會于大齋，丁巳，金清平歸國，即漂着朴刺破等付清平等返于本土，戊午，耽羅遣王子都羅朝貢。

九月庚申朔己丑，詔曰，凡浮浪人，其送本土者，猶復還到，則彼此並科課役。

冬十月庚寅朔癸卯內小錦上河邊臣百枝爲民部卿，內大錦下丹比公麻呂爲攝津職大夫。

⁷ 소학관본에서는 ‘杖’이라고 적고 있다.

十一月己未朔，雨不告朔，筑紫大宰獻赤烏，則大宰府諸司人賜祿各有差，且專捕赤烏者，賜爵五級，乃當郡郡司等加增爵位，因給復郡內百姓以一年之，是日，大赦天下。

己卯，新嘗，辛巳，百寮諸有位人等賜食，乙酉，侍奉新嘗神官及國司等，賜祿，十二月己丑朔，雪不告朔。

七年 春正月戊午朔甲戌，射于南門，己卯，耽羅人向京。

是春，將祠天神地祇，而天下悉被禊之，豎齋宮於倉梯河上。

夏四月丁亥朔，欲幸齋宮卜之，癸巳食卜，仍取平旦時警蹕既動，百寮成列，乘輿命蓋以未及出行，十市皇女卒然病發薨於宮中，由此鹵簿既停不得幸行，遂不祭神祇矣，己亥，霹靂新宮西廳柱，庚子，葬十市皇女於赤穗，天皇臨之降恩以發哀。

秋九月，忍海造能麻呂獻瑞稻五莖，每莖有枝，由是徒罪以下悉赦之，三位稚狹王薨之。

冬十月甲申朔，有物如綿零於難波，長五六尺，廣七八寸，則隨風以飄于松林及葦原，時人曰，甘露也。

己酉，詔曰，凡內外文武官每年史以上屬官人等，公平而恪勤者，議其優劣，則定應進階，正月上旬以前，具記送法官，則法官校定，申送大辨官，然緣公事以出使之日，其非眞病及重服，輒緣小故而辭者，不在進階之例。

十二月癸丑朔己卯，臘子鳥蔽天，自西南飛東北。

是月，筑紫國大地動之，地裂廣二丈，長三千餘丈，百姓舍屋，每村多仆壤，是時百姓一家有岡上，當于地動夕，以岡崩處遷，然家既全而無破壞，家人不知岡崩家避，但會明後，知以大驚焉。

是年，新羅送使奈末加良井山，奈末金紅世到于筑紫曰，新羅王遣級浪金消勿，大奈末金世等貢上當年之調，仍遣臣井山送消勿等，俱逢暴風於海中，以

消勿等皆散之不知所如，唯井山僅得着岸，然消勿等遂不來矣。

八年 春正月壬午朔丙戌，新羅送使加良井山，金紅世等向京。

戊子，詔曰，凡當正月之節，諸王，諸臣及百寮者，除兄姊以上親及己氏長，以外莫拜焉，其諸王者，雖母非王姓者莫拜，凡諸臣亦莫拜卑母，雖非正月節復准此，若有犯者隨事罪之，己亥，射于西門。

二月壬子朔，高麗遣上部大相桓父，下部大相師需婁等朝貢，因以新羅遣奈末甘勿那，送桓父等於筑紫，甲寅，紀臣堅麻呂卒，以壬申年之功贈大錦上位，乙卯，詔曰，及于辛巳年，檢校親王，諸臣及百寮人之兵及馬，故豫貯焉。

是月，降大恩恤貧乏，以給其飢寒。

三月辛巳朔丙戌，兵衛大分君稚見死，當壬申年大役，爲先鋒之破瀨田營，由是功贈外小錦上位。

丁亥，天皇幸於越智，拜後岡本天皇陵，己丑，吉備大宰石川王病之，薨於吉備，天皇聞之大哀，則降大恩云云，贈諸王二位，壬寅，貧乏僧尼施綿布。

夏四月辛亥朔乙卯，詔曰，商量諸有食封寺所由，而可加加之，可除除之，是日，定諸寺名也，己未，祭廣瀨龍田神。

五月庚辰朔甲申，幸于吉野宮，乙酉，天皇詔皇后及草壁皇子尊，大津皇子，高市皇子，河嶋皇子，忍壁皇子，芝基皇子曰，朕今日與汝等俱盟于庭，而千歲之後欲無事，奈之何，皇子等共對曰，理實灼然，則草壁皇子尊先進盟曰，天神地祇及天皇證也，吾兄弟長幼并十餘王，各出于異腹，然不別同異，俱隨天皇勅，而相扶無忤，若自今以後，不如此盟者，身命亡之，子孫絕之，非忘非失矣，五皇子以次相盟如先，然後天皇曰，朕男等各異腹而生，然今如一母同產慈之，則披襟抱其六皇子，因以盟曰，若違盟，忽亡朕身，皇后之盟且如天皇，丙戌，車駕還宮，己丑，六皇子共拜天皇於大殿前。

六月庚戌朔，冰零，大如桃子，壬申，雩，乙亥，大錦上大伴杜屋連卒。

秋七月己卯朔甲申，雩，壬辰，祭廣瀨龍田神，乙未，四位葛城王卒。

八月己酉朔，詔曰，諸氏貢女人，己未，幸泊瀨以宴迹驚淵上，先是詔王卿曰，乘馬之外更設細馬隨召出之，即自泊瀨還宮之日，看群卿儲細馬於迹見驛家道頭皆令馳走，庚午，綬造忍勝獻嘉禾，異畝同穎，癸酉，大宅王薨。

九月戊寅朔癸巳，遣新羅使人等返之拜朝，庚子，遣高麗使人，遣耽羅使人等返之共拜朝廷。

冬十月戊申朔己酉，詔曰，朕聞之，近日暴惡者多在巷里，是則王卿等之過也，或聞暴惡者也，煩之忍而不治，或見惡人也，倦之匿以不正，其隨見聞以糾彈者，豈有暴惡乎，是以，自今以後，無煩倦，而上責下過，下諫上暴，乃國家治焉，戊午，地震，庚申，勅制僧尼等威儀，及法服之色，并馬從者往來巷閭之狀。

甲子，新羅遣阿湊金項那，沙湊薩曩生朝貢也，調物，金銀鐵鼎，錦絹布，皮，馬，狗，騾，駱駝之類十餘種，亦別獻物天皇，皇后，太子，貢金銀刀旗之類各有數。

是月，勅曰，凡諸僧尼者，常住寺內，以護三寶，然或及老或患病，其永臥陝房，久苦老病者，進止不便，淨地亦穢，是以自今以後，各就親族及篤信者，而立一二舍屋于間處，老者養身，病者服藥。

十一月丁丑朔庚寅，地震，己亥，大乙下倭馬飼部造連爲大使，小乙下上寸主光父爲小使，遣多禰嶋，仍賜爵一級。

是月，初置關於龍田山，大坂山，仍難波築羅城。

十二月丁未朔戊申，由嘉禾以親王，諸王，諸臣及百官人等，給祿各有差，大辟罪以下悉赦之。

是年，紀伊國伊刀郡貢芝草，其狀似菌，莖長一尺，其蓋二圍，亦因播國貢瑞稻，每莖有枝。

九年 春正月丁丑朔甲申，天皇御于向小殿而宴王卿於大殿之庭，是日，忌部首首賜姓曰連，則與弟色弗共悅拜，癸巳，親王以下至于小建，射南門，丙申，攝

津國言，活田村桃李實也。

二月丙午朔癸亥，如鼓音聞于東方，辛未，有人云，得鹿角於葛城山，其角本二枝而末合有穴，穴上有毛，毛長一寸，則異以獻之，蓋麟角歟，壬申，新羅仕丁八人返于本土，仍垂恩以賜祿，有差。

三月丙子朔乙酉，攝津國貢白巫鳥[巫鳥，此云芝苔苔]，戊戌，幸于菟田吾城。

夏四月乙巳朔甲寅，祭廣瀨龍田神，乙卯，橘寺尼房失火以焚十房，己巳，饗新羅使人項那等於筑紫，賜祿各有差。

是月，勅，凡諸寺者，自今以後，除爲國大寺二三以外，官司莫治，唯其有食封者，先後限卅年，若數年滿卅則除之，且以爲，飛鳥寺不可關于司治，然元爲大寺而官⁸恒治，復嘗有功，是以猶入官治之例。

五月乙亥朔，勅，繩縣糸布，以施于京內廿四寺各有差，是日，始說金光明經于宮中及諸寺，丁亥，高麗遣南部大使卯問，西部大兄俊德等朝貢，仍新羅遣大奈末考那送高麗使人卯問等於筑紫，乙未，小錦下秦造綱手卒，由壬申年之功贈大錦上位，辛丑，小錦中星川臣麻呂卒，以壬申年功贈大紫位。

六月甲辰朔戊申，新羅客項那等歸國，辛亥，灰零，丁巳，雷電之甚也。

秋七月甲戌朔，飛鳥寺西槻枝自折而落之，戊寅，天皇幸犬養連大伴家以臨病，卽降大恩云云，是日，雩之，辛巳，祭廣瀨龍田神，癸未，朱雀有南門，庚寅，朴井連子麻呂授小錦下位，癸巳，飛鳥寺弘聽僧終，遣大津皇子，高市皇子弔之，丙申，小錦下三宅連石床卒，由壬申年功贈大錦下位，戊戌，納言兼宮內卿五位舍人王病之臨死，則遣高市皇子而訊之，明日卒，天皇大驚，乃遣高市皇子，川嶋皇子，因以臨殯哭之，百寮者從而發哀。

八月發卯朔丁未，法官人貢嘉禾，是日，始之三日雨，大水，丙辰，大風折木破屋。

8 소학관본에서는 ‘官司’라고 적고 있다.

九月癸酉朔辛巳，幸于朝婦，因以看大山位以下之馬於長柄杜，乃俾馬的射之，乙未，地震，己亥，桑內王卒於私家，

冬十月壬寅朔乙巳，恤京內諸寺貧乏僧尼及百姓，而賑給之，一每僧尼各絁四匹，絁四屯，布六端，沙彌及白衣各絁二疋，綿二屯，布四端，

十一月壬申朔，日蝕之，甲戌，自戌至子，東方明焉，乙亥，高麗人十九人返于本土，是當後岡本天皇之喪而弔使，留之未還者也，戊寅，詔百官曰，若有利國家寬百姓之術者，詣闕親申，則詞合於理，立爲法則，辛巳，雷於西方，癸未，皇后體不豫，則爲皇后誓願之，初興藥師寺，仍度一百僧，由是得安平，是日，赦罪，丁亥，月蝕，遣草壁皇子訊惠妙僧之病，明日惠妙僧終，乃遣三皇子而弔之，乙未，新羅遣沙湊金若弼，大奈末金原升進調，則習言者三人從若弼至，丁酉，天皇病之，因以度一百僧，俄而愈之，辛丑，臘子鳥蔽天，自東南飛以度西北，

十年 春正月辛未朔壬申頒幣帛於諸神祇，癸酉，百寮諸人拜朝廷，丁丑，天皇御向小殿而宴之，是日，親王，諸王引入內安殿，諸臣皆侍于外安殿，共置酒以賜樂，則大山上草香部吉士大形授小錦下位，仍賜姓曰難波連，辛巳，勅境部連石積封六十戶，因以給絁卅疋，錦百五十屯，布百五十端，鏝一百口，丁亥，親王以下小建以上射于朝廷，己丑，詔畿內及諸國，修理天社，地社神宮，

二月庚子朔甲子天皇，皇后共居于大極殿，以喚親王，諸王及諸臣，詔之曰，朕今更欲定律令，改法式，故俱修是事，然頓就是務，公事有闕，分人應行，是日，立草壁皇子尊爲皇太子，因以令攝萬機，戊辰，阿倍夫人薨，己巳，小紫位當麻公豐濱薨，

三月庚午朔癸酉葬阿倍夫人，丙戌，天皇御于大極殿，以詔川嶋皇子，忍壁皇子，廣瀨王，竹田王，桑田王，三野王，大錦下上毛野君三千，小錦中忌部連首，小錦下阿曇連稻敷，難波連大形，大山上中臣連大嶋，大山下平群臣子首令記定帝紀及上古諸事，大嶋，子首親執筆以錄焉，庚寅，地震，甲午，天皇居新宮井

上，而試發鼓吹之聲，仍令調習。

夏四月己亥朔庚子祭廣瀨龍田神，辛丑，立禁式九十二條，因以詔之曰，親王以下至于庶民，諸所服用金銀，珠玉，紫錦，繡綾，及氎褥，冠帶，并種種雜色之類，服用各有差，辭具有詔書，庚戌，錦織造小分，田井直吉麻呂，次田倉人，棋足[棋，此云武矩。]石勝川內直縣，忍海造鏡荒田能麻呂，大狛造百枝，足坏，倭直龍麻呂，門部直大嶋，穴人造老，山背狛烏賊麻呂，并十四人賜姓曰連，乙卯，饗高麗客卯問等於筑紫，賜祿有差。

五月己巳朔己卯祭皇祖御魂，是日，詔曰，凡百寮諸人恭敬宮人，過之甚也，或詣其門謁己之訟，或捧幣以媚於其家，自今以後，若有如此者，隨事共罪之，甲午，高麗卯問歸之。

六月己亥朔癸卯饗新羅客若弼於氣紫，賜祿各有差，乙卯，雩之，壬戌，地震，秋七月戊辰朔，朱雀見之，辛未，小錦下采女臣竹羅爲大使，當麻公楯小使，遣新羅國，是日，小錦下佐伯連廣足爲大使，小墾田臣麻呂爲小使，遣高麗國，丁丑，祭廣瀨龍田神，丁酉，令天下悉大解除，當此時，國造等各出祓柱奴婢一口而解除焉。

閏七月戊戌朔壬子，皇后誓願之，大齋，以說經於京內諸寺。

八月丁卯朔丁丑，大錦下上毛野君三千卒，丙子，詔三韓諸人曰，先日復十年調稅既訖，且加以歸化初年俱來之子孫，並課役悉免焉，壬午，伊勢國貢白茅鴉，丙戌，遣多禰嶋使人等多禰國圖，其國去京五千餘里，居筑紫南海中切髮草裳，粳稻常豐，一殖兩收，土毛支子，莞子及種種海物等多，是日，若弼歸國。

九月丁酉朔己亥遣高麗，新羅使人等，共至之拜朝。

辛丑，周芳國貢赤龜，乃放嶋宮池，甲辰，詔曰，凡諸氏有氏上未定者，各定氏上而申送于理官。

庚戌，饗多禰嶋人等于飛鳥寺西河邊，奏種種樂，壬子，彗星見，癸丑熒惑入月，冬十月丙寅朔，日蝕之，癸未，地震，新羅遣沙喙一吉浪金忠平，大奈末金壹

世貢調，金銀銅鐵，錦絹，鹿皮細布之類各有數，別獻天皇，皇后太子，金銀錦霞，幡皮⁹之類，各有數，庚寅，詔曰，大山位以下，小建以上人等各述意見，

是月，天皇將薨於廣瀨野，而行宮構訖，裝束既備，然車駕送不幸矣，唯親王以下及郡卿，皆居于輕市，而檢校裝束鞍馬，小錦以上大夫皆列坐於樹下，大山位以下者皆親乘之，共隨大路自南行北，新羅使者至而告曰，國王薨，

十一月丙申朔丁酉地震，

十二月乙丑朔甲戌小錦下河邊臣子首遣筑紫饗新羅客忠平，

癸巳，田中臣鍛師，柿本臣猿，田部連國忍，高向臣麻呂，栗田臣真人，物部連麻呂，中臣連大嶋，曾禰連韓犬，書直智德并壹拾人授小錦下位，是日，舍人造糠虫，書直智德賜姓曰連，

十一年 春正月乙未朔癸卯，大山上舍人連糠虫授小錦下位，乙巳，饗金忠平於筑紫，

壬子，氷上夫人薨于宮中，癸丑，地動，辛酉，氷上夫人於赤穗，

二月甲子朔乙亥，金忠平歸國，

是月，小錦下舍人連糠虫卒，以壬申年之功贈大錦上位，

三月甲午朔，命小紫三野王，及宮內官大夫等，遣于新城令見其地形，仍將都矣，乙未，陸奧國蝦夷廿二人賜爵位，庚子，地震，丙午，命境部連石積等更肇倭造新字一部卅四卷，己酉，幸于新城，辛酉，詔曰，親王以下百寮諸人，自今已後，位冠及襪，褶，脛裳莫着，亦膳夫，采女等之等之手繼，肩巾[肩巾此云比例]並莫服，是日，詔曰，親王以下至于諸臣，被給食封皆止之更返於公，

是月，土師連眞敷卒，以壬申年功贈大錦上位，

夏四月癸亥朔辛未祭廣瀨龍田神，癸未，筑紫大宰丹比真人嶋等貢大鐘，甲

9 소학관본에서는 ‘幡·皮’라고 적고 있다.

申，越蝦夷伊高岐那等，請俘人七十戶爲一郡，乃聽之。乙酉，詔曰，自今以後，男女悉結髮，十二月卅日以前結訖之，唯結髮之日，亦待勅旨，婦女乘馬如男夫，其起于是日也。

五月癸巳朔甲辰倭漢直等賜姓曰連，戊申，遣高麗大使佐伯連廣足，小使小墾田臣麻呂等，奉使旨於御所，己未，倭漢直等男女悉參赴之，悅賜姓而拜朝。

六月壬戌朔，高麗王遣下部助有卦婁毛切，大古昂加，貢方物，則新羅遣大那末金釋起，送高麗使人於筑紫，丁卯，男夫始結髮，仍着漆紗冠，癸酉，五位殖栗王卒。

秋七月壬辰朔甲午，隼人多來貢方物，是日，大隅隼人與阿多隼人相撲於朝廷，大隅隼人勝之，庚子，小錦中膳臣摩漏病，遣草壁皇子尊，高市皇子而訊病，壬寅，祭廣瀨龍田神，戊申，地震。

己酉，膳臣摩漏卒，天皇驚之大哀，壬子，摩漏臣以壬申年之功贈大紫位及祿，更皇后賜物亦准官賜。

丙辰，多禰人，掖玖人，阿麻彌人，賜祿各有差，戊午，饗隼人等於明日香寺¹⁰西，發種種樂，仍賜祿各有差，道俗悉見之，是日，信濃國，吉備國並言，霜降，亦大風，五穀不登。

八月壬戌朔，令親王以下及諸臣，各俾申法式應用之事，甲子，饗高麗客於筑紫，是夕昏時，大星自東度西，丙寅，造法令殿內有大虹，壬申，有物形如灌頂幡而火色，浮空流北，每國皆見，或曰，入越海，是日，白氣起於東山，其大四圍，癸酉，大地動，戊寅，亦地震，是日平旦，有虹當于天中央以向日，甲戌，筑紫大宰言，有三足雀，己未，詔禮儀言語之狀，且詔曰，凡諸應考選者，能檢其族姓及景迹，方後考之，若雖景迹行能灼然，其族姓不定者，不在考選之色，己丑，勅爲日高皇女[更名，新家皇女。]之病，大辟罪以下男女并一百九十八人皆赦之，庚寅，

¹⁰ 소학관본에서는 '飛鳥寺'라고 적고 있다.

百卅餘人出家於大官大寺。

九月辛卯朔壬辰，勅，自今以後跪禮，匍匐禮並止之，更用難波朝廷之立禮，庚子，日中，數百鶴當大宮以高翔於空，四剋而皆散。

冬十月辛酉朔戊辰，大饗。

十一月庚寅朔乙巳，詔曰，親王，諸王及諸臣，至于庶民，悉可聽之，凡糾彈犯法者，或禁省之中，或朝廷之中，其於過失發處即隋見隨聞，無匿蔽而糾彈，其有犯重者，應請則請，當捕則捉，若對捍以不見捕者，起當處兵而捕之，當杖色，乃杖一百以下，節級決之，亦犯狀灼然，欺言無罪，則不伏辨，以爭訴者，累加其本罪。

十二月庚申朔壬戌，詔曰，諸氏人等，各定可氏上者而申送，亦其眷族多在者，則分各定氏上並申送於官司，然後斟酌其狀而處分之，因承官判，唯因少故而非己族者輒莫附。

十二年 春正月己丑朔庚寅，百寮拜朝廷，筑紫大宰丹比真人嶋等貢三足雀。

乙未，親王以下及群卿喚于大極殿前宴之，仍以三足雀示于群，丙午，詔曰，明神御大八洲日本根子天皇勅命者，諸國司，國造，郡司及百姓等，諸可聽矣，朕初登鴻祚以來，天瑞非一二多至之，傳聞，其天瑞者，行政之理，協于天道則應之，是今當于朕世，每年重至，一則以懼，一則以喜，是以親王，諸王及群卿百寮，并天下黎民，共相歡也，乃小建以上給祿各有差，因以大辟罪以下皆赦之，亦百姓課役並免焉，是日，奏小墾田儻，及高麗，百濟，新羅三國樂於庭中。

二月己未朔，大津皇子始聽朝政。

三月戊子朔己丑，任僧正，僧都，律師，因以勅曰，統領僧尼如法云云，丙午，遣多禰使人等返之。

夏四月戊午朔壬申，詔曰，自今以後，必用銅錢，莫用銀錢，乙亥，詔曰，用銀莫止，戊寅，祭廣瀨龍田神。

六月丁巳朔己未，大伴連望多薨，天皇大驚之，則遣泊瀨王而弔之，仍舉壬申年勲績及先祖等每時有功以顯寵賞，乃贈大紫位，發鼓吹薨之，壬戌，三位高坂王薨。

秋七月丙戌朔己丑，天皇幸鏡姬王之家訊病，庚寅，鏡姬王薨，是夏，始請僧尼安居于宮中，因簡淨行者卅人出家，庚子，雩之，癸卯，天皇巡行京師，乙巳，祭廣瀨龍田神。

是月，始至八月旱之，百濟僧道藏，雩之得雨。

八月丙辰朔庚申，大赦天下，大伴連男吹負卒，以壬申年之功贈大錦中位。

九月乙酉朔丙戌，大風。

丁未，倭直，栗隈首，水取造，矢田部造，藤原部造，刑部造，福草部造，凡河內直，川內漢直，物部首，山背直，葛城直，殿服部造，門部直，錦織造，縵造，鳥取造，來目舍人造，檜隈舍人造，大狛造，秦造，川瀨舍人造，倭馬飼造，川內馬飼造，黃文造，薦集造，勾宮作造，石上部造，財日奉造，泥部造，穴穗部造，白髮部造，忍海造，羽束造，文首，小泊瀨造，百濟造，語造，凡卅八氏，賜姓曰連。

冬十月乙卯朔己未，三宅吉士，草壁吉士，伯耆造，船史，壹伎史，娑羅羅馬飼造，菟野馬飼造，吉野首，紀酒人直，采女造，阿直史，高市縣主，磯城縣主，鏡作造，并十四氏，賜姓曰連，丁卯，天皇狩于倉梯。

十一月甲申朔丁亥，詔諸國習陣法，丙申，新羅遣沙湊金主山，大那末金長志進調。

十二月甲寅朔丙寅，遣諸王五位伊勢王，大錦下羽田公八國，小錦下多臣品治，小錦下中臣連大嶋并判官，錄史，工匠者等巡行天下而限分諸國之境界，然是年不堪限分，庚午，詔曰，諸文武官人，及畿內有位人等四孟月必朝參，若有死病不得集者，當司具記申送法官，又詔曰，凡都城宮室非一處，必造兩參，故先欲都難波，是以百寮者各往之請家地。

十三年 春正月甲申朔庚子，三野縣主，內藏衣縫造二氏賜姓曰連。

丙午，天皇御于東庭，群卿侍之，時召能射人，及侏儒，左右舍人等射之。

二月癸丑朔丙子，饗金主山於筑紫，庚辰，遣淨廣肆廣瀨王，小錦中大伴連安麻呂及判官，錄事，陰陽師，工匠等於畿內，令視占應都之地，是日，遣三野王，小錦下采女臣筑羅等於信濃令看地形，將都是地歟。

三月癸未朔庚寅，吉野人宇閉直弓，貢白海石榴，辛卯，天皇巡行於京師而定宮室之地，乙巳，金主山歸國。

夏四月壬子朔丙辰，徙罪以下皆免之，甲子，祭廣瀨大忌神，龍田風神，辛未，小錦下高向臣麻呂爲大使，小山下都努臣牛甘爲小使，遣新羅。

閏四月壬午朔丙戌，詔曰，來年九月必閱之，因以教百寮之進止威儀，又詔曰，凡政要者軍事也，是以文武官諸人務習用兵及乘馬，則馬兵并當身裝束之物，務具儲足，其有馬者爲騎士，無馬者步卒，並當試練，以勿障於聚會，若忤詔旨，有不便馬兵，亦裝束有闕者，親王以下建于諸臣，並罰之，大山位以下者可罰罰之，可杖杖之，其務習以能得業者，若雖死罪，則減二等，唯恃己才以故犯者不在赦例，又詔曰，男女並衣服者，有襪無襪，及結紐，長紐，任意服之，其會集之日，着襪衣而着長紐，唯男子者有圭冠，冠而着括緒襪，女年卅以上，髮之結不結，及乘馬縱橫，並任意也，別巫祝之類不在結髮之例，壬辰，三野王等進信濃國之圖，丁酉，設齋于宮中，因以赦有罪舍人等，乙巳，坐飛鳥寺僧福揚以下獄，庚戌，僧福揚自刺頸而死。

五月辛亥朔甲子，化來百濟僧尼及俗人，男女并廿三人，皆安置于武藏國，戊寅，三輪引田君難波麻呂爲大使，桑原連人足爲小使，遣高麗。

六月辛巳朔甲申，雩之。

秋七月庚戌朔癸丑，幸于廣瀨，戊午，祭廣瀨龍田神，壬申，彗星出于西北，長丈餘。

冬十月己卯朔，詔曰，更改諸氏之族姓，作八色之姓，以混天下萬姓，一曰眞

人，二曰朝臣，三曰宿禰，四曰忌寸，五曰道師，六曰臣，七曰連，八曰稻置，是日，守山公，路公，高橋公，三國公，當麻公，茨城公，丹比公，猪名公，坂田公，羽田公，息長公，酒人公，山道公十三氏賜姓曰真人，辛巳，遣伊勢王等定諸國界，是日，縣犬養連手織爲大使，川原連加尼爲小使，遣耽羅，壬辰，逮于人定大地震，舉國男女叫唱，不知東西，則山崩河涌，諸國郡官舍及百姓倉屋，寺塔，神社，破壞之類不可勝數，由是人民及六畜多死傷之，時伊豫湯泉沒而不出，土左國田苑五十餘萬頃，沒爲海，古老曰，若是地動未曾有也，是夕，有鳴聲，如鼓聞于東方，有人曰，伊豆嶋西北二面，自然增益三百餘丈，更爲一嶋，則如鼓音者，神造是嶋響也，甲午，諸王卿等賜祿。

十一月戊申朔，大三輪君，大春日臣，阿倍臣，巨勢臣，膳臣，紀臣，波多臣，物部連，平群臣，雀部臣，中臣連，大宅臣，栗田臣，石川臣，櫻井臣，采女臣，田中臣，小墾田臣，穗積臣，山背臣，鴨君，小野臣，川邊臣，櫛井臣，柿本臣，輕部臣，若櫻部臣，岸田臣，高向臣，穴人臣，來目臣，犬上君，上毛野君，角臣，星川臣，多臣，胸方君，車持君，綾君，下道臣，伊賀臣，阿閉臣，林臣，波彌臣，下毛野君，佐味君，道守臣，大野君，坂本臣，池田君，玉手臣，笠臣，凡五十二氏賜姓曰朝臣，庚戌，土左國司言，大潮高騰，海水飄蕩，由是運調船多放失焉，戊辰，昏時，七星俱流東北則隕之，庚午，日沒時，星隕東方，大如瓮，逮于戊，天文悉亂，以星隕如雨。

是月，有星孛于中央，與昴星雙而行之，及月盡失焉。

是年，詔伊賀，伊勢，美濃，尾張四國，自今以後，調年免役，役年免調，倭葛城下郡言，有四足鷄，亦丹波國氷上郡言，有十二角犢。

十二月戊寅朔己卯，大判連，佐伯連，阿曇連，忌部連，尾張連，倉連，中臣酒人連，土師連，掃部連，境部連，櫻井田部連，伊福部連，巫部連，忍壁連，草壁連，三宅連，兒部連，手織連丹比連，勒丹比連，漆部連，大湯人連，若湯人連，弓削連，神服部連，額田部連，津守連，縣犬養連，稚犬養連，玉祖連，新田

部連, 倭文連[倭文, 此云之頭於利.], 氷連, 凡海連, 山部連, 矢集連, 狹井連, 爪工連, 阿刀連, 茨田連, 田目連, 小子部連, 菟道連, 小治田連, 猪使連, 海犬養連, 間人連, 春米連, 美濃矢集連, 諸會臣, 布留連, 五十氏, 賜姓曰宿禰.

癸未, 大唐學生土師宿禰甥, 白猪史寶然, 及百濟役時沒大唐者猪使連子首, 筑紫三宅連得許, 傳新羅至, 則新羅遣大奈末金物儒, 送甥等於筑紫, 庚寅, 除死刑以下罪人皆咸赦焉.

十四年 春正月丁未朔戊申, 百寮拜朝廷.

丁卯, 更改爵位之號, 仍增加階級, 明位二階, 淨位四階, 每階有大廣, 并十二階, 以前諸王已上之位, 正位四階, 直位四階, 勤位四階, 務位四階, 追位四階, 進位四階, 每階有大廣, 并冊八階, 以前諸臣之位, 是日, 草壁皇子尊授淨廣壹位, 大津皇子授淨大貳位, 高市皇子授淨廣貳位, 川嶋皇子, 忍壁皇子, 授淨大參位, 自此以下諸王, 諸臣等, 增加爵位, 各有差.

二月丁丑朔庚辰, 大唐人, 百濟人, 高麗人, 并百四十七人賜爵位.

三月丙午朔己未, 饗金物儒於筑紫, 即從筑紫歸之, 仍流着新羅人七口, 附物儒還之.

辛酉, 京職大夫直大參許勢朝臣辛檀努卒, 壬申, 詔, 諸國每家作佛舍, 乃置佛像, 及經, 以禮拜供養.

是月, 灰零於信濃國, 草木皆枯焉.

夏四月丙子朔己卯, 紀伊國司言, 牟婁湯泉沒而不出也, 丁亥, 祭廣瀨龍田神, 壬辰, 新羅金主山歸之, 庚寅, 始請僧尼安居于宮中.

五月丙午朔庚戌, 射於南門, 天皇幸于飛鳥寺以珍寶奉於佛而禮敬, 甲子, 直大肆粟田朝臣真人讓位于父, 然勅不聽矣, 是日, 直大參當麻真人廣麻呂卒, 以壬申年之功贈直大壹位, 辛未, 高向朝臣麻呂, 都努朝臣牛飼等, 至自新羅, 乃學問僧觀常, 靈觀從至之, 新羅王獻物, 馬二疋, 犬三頭, 鸚鵡二隻, 鵲二隻, 及

種種寶物.

六月乙亥朔甲午, 大倭連, 葛城連, 凡川內連, 山背連, 難波連, 紀酒人連, 倭漢連, 河內漢連, 秦連, 大隅直, 書連并十一氏賜姓曰忌寸.

秋七月乙巳朔乙丑, 祭廣瀨龍田神. 庚午, 勅, 定明位已下進位已上之朝服色, 淨位已上並着朱花¹¹[朱花¹², 此云波泥孺.]正位深紫, 直位淺紫, 勤位深綠, 務位淺綠, 追位深蒲萄, 進位淺蒲萄. 辛未, 詔曰, 東山道美濃以東, 東海道伊勢以東諸國有位人等, 並免課役.

八月甲戌朔乙酉, 天皇幸于淨土寺. 丙戌, 幸于川原寺, 施稻於衆僧. 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九月甲辰朔壬子, 天皇宴于舊宮安殿之庭. 是日, 皇太子以下, 至于忍壁皇子賜布各有差. 甲寅, 遣宮處王, 廣瀨王, 難波王, 竹田王, 彌努王於京及畿內, 各令校人夫之兵. 戊午, 直廣肆都努朝臣牛飼爲東海使者, 直廣肆石川朝臣虫名爲東山使者, 直廣肆佐味朝臣少麻呂爲山陽使者, 直廣肆巨勢朝臣粟持爲山陰使者, 直廣參路真人迹見爲南海使者, 直廣肆佐伯宿禰廣足爲筑紫使者, 各判官一人, 史一人, 巡察國司, 郡司及百姓之消息是日, 詔曰, 凡諸歌男, 歌女, 笛吹者, 卽傳己子孫令習歌笛. 辛酉, 天皇御大安殿喚王卿等於殿前, 以令博戲. 是日, 宮處王, 難波王, 竹田王, 三國真人友足, 縣犬養宿禰大侶, 大伴宿禰御行, 境部宿禰石積, 多朝臣品治, 采女朝臣竹羅, 藤原朝臣大嶋, 凡十人賜御衣袴. 壬戌, 皇太子以下, 及諸王卿, 并四十八人, 賜羆皮, 山羊皮各有差. 癸亥, 遣高麗國使人等還之. 丁卯, 爲天皇體不豫之, 三日誦經於大官大寺, 川原寺, 飛鳥寺, 因以稻納三寺, 各有差. 庚午, 化來高麗人等賜祿, 各有差.

冬十月癸酉朔丙子, 百流僧常輝封卅戶, 是僧壽百歲. 庚辰, 遣百濟僧法藏.

11 소학관본에서는 ‘華’라고 적고 있다.

12 소학관본에서는 ‘華’라고 적고 있다.

優婆塞益田直金鍾於美濃，令煎白朮，因以賜絁綿布，壬午，遣輕部朝臣足瀨，高田首新家，荒田尾連麻呂於信濃令造行宮，蓋擬幸束間溫湯歟，甲申，以淨大肆泊瀨王，直廣肆巨勢朝臣馬飼，判官以下，并廿人任於畿內之役，己丑，伊勢王等亦向于東國，因以賜衣袴。

是月，說金剛般若經於宮中。

十一月癸卯朔甲辰，儲用鐵一萬斤送於周芳總令所，是日，筑紫大宰請儲用物，絁一百疋，絲一百斤，布三百端，庸布四百常，鐵一萬斤，箭竹二千連送下於筑紫，丙午，詔四方國曰，大角，小角，鼓吹，幡旗，及弩拋之類，不應存私家，咸收于郡家，戊申，幸白錦後苑，丙寅，法藏法師，金鍾獻白朮煎，是日，爲天皇招魂之，己巳，新羅遣波珍浪金智祥，大阿浪金健勳請政，仍進調。

十二月壬申朔乙亥，遣筑紫防人等飄蕩海中，皆失衣裳，則爲防人衣服，以布四百五十八端給下於筑紫。

辛巳，自西發之地震，丁亥，絁綿布以施大官大寺僧等，庚寅，皇后命以，王卿等五十五人賜朝服各一具。

朱鳥元年 春正月壬寅朔癸卯，御太極殿而賜宴於諸王卿，是日，詔曰，朕問王卿以無端事，仍對言得實必有賜，於是，高市皇子被問以實對，賜蓐搭御衣三具，錦袴二具，并絁廿匹，絲¹³五十斤，綿百斤，布一百端，伊勢王亦得實，卽賜皂御衣三具，紫袴二具，絁七匹，絲¹⁴廿斤，絁冊斤，布四十端，是日，攝津國人百濟新與獻白馬瑙，庚戌，請三綱，律師，及大官大寺知事，佐官，并九僧，以俗供養養之，仍施絁絁布，各有差，諸王卿各賜袍袴一具，甲寅，召諸才人博士，陰陽師，醫師者，并廿餘人，賜食及祿，乙卯，酉時，難波大藏省失火，宮室悉焚，或曰，

13 소학관본에서는 ‘糸’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서는 ‘糸’라고 적고 있다.

阿斗連藥家失火之，引及宮室，唯兵庫職不焚焉。丁巳，天皇御於大安殿，喚諸王卿賜宴，因以賜絁絺布，各有差。是日，問群臣以無端事，則當時得實重給綿。戊午，宴後宮。己未，宴朝廷大舖。是日，御御窟殿前，而倡優等賜祿有差，亦歌人等賜袍袴。庚申，地震。

是月，爲饗新羅金智祥遣淨廣肆川內王，直廣參大伴宿禰安麻呂，直大肆藤原朝臣大嶋，直廣肆境部宿禰鯛魚，直廣肆穗積朝臣虫麻呂等于筑紫。

二月辛未朔甲戌，御大安殿，侍臣六人授勤位。乙亥，勅選諸國司有功者九人授勤位。

三月辛丑朔丙午，大弁官直大參羽田真人八國病，爲之度僧三人。庚戌，雪之。乙丑，羽田真人八國卒，以壬申年之功贈直大壹位。

夏四月庚午朔丁丑，侍醫桑原村主訶都授直廣肆，因以賜姓曰連。壬午，爲饗新羅客等，運川原寺伎樂於筑紫，仍似皇后宮之私稻五千束納于川原寺。戊子，新羅進調從筑紫貢上，細馬一匹，騾一頭，犬二狗，鏤金器，及金銀，霞錦，綾羅，虎豹皮，及藥物之類，并百餘種，亦智祥，健勳等別獻物，金銀，霞錦，綾羅，金器，屏風，鞍皮，絹布，藥物之類，各六十餘種，別獻皇后，皇太子，及諸親王等，之物，各有數。丙申，遣多紀皇女，山背姬王，石川夫人於伊勢神宮。

五月庚子朔戊申，多紀皇女等至自伊勢。是日，侍醫百濟人億仁病之臨死，則授勤大壹位，仍封一百戶。

癸丑，勅之，大官大寺封七百戶，乃納稅卅萬束。丙辰，宮人等增加爵位。癸亥，天皇體不安，因以於川原寺說藥師經，安居于宮中。戊辰，饗金智祥等於筑紫，賜祿各有差，即從筑紫退之。

是月，勅遣左右大舍人等掃清諸寺堂塔，則大赦天下，囚獄已空。

六月己巳朔，槻本村主勝麻呂賜姓曰連，仍加勤大壹位，封廿戶。

庚午，工匠，陰陽師，侍醫，大唐學生，及一二官人，并卅四人授爵位。乙亥，選諸司人等有功廿八人增加爵位。戊寅，天皇病祟草薙劔，即日，送置于尾張國。

熱田社，庚辰，雩之，甲申，遣伊勢王，及官人等於飛鳥寺，勅衆僧曰，近者朕身不和，願賴三寶之威，以以身體欲得安和，是以僧正，僧都，及衆僧應誓願，則奉珍寶於三寶，是日，三綱，律師，及四寺和上，知事，并現有師位僧等，施御衣，御被各一具，丁亥，竊勅之，遣百官人等於川原寺，爲燃燈供養，仍大齊之悔過也，丙申，法忍僧，義照僧爲養老各封卅戶，庚寅，名張廚司災之，

秋七月己亥朔庚子，勅，更男夫着脛裳，婦女垂髮于背猶如故，是日，僧正，僧都等，參赴宮中而悔過矣，

辛丑，詔諸國大解除，壬寅，半減天下之調，仍悉免徭役，癸卯，奉幣於居紀伊國國懸神，飛鳥四社，住吉大神，丙午，請一百僧，讀金光明經於宮中，戊申，雷光南方而一大鳴，則天災於民部省藏庸舍屋，或曰，忍壁皇子宫失火延燒民部省，癸丑，勅曰，天下之事不問大小，悉啓于皇后及皇太子，是日，大赦之，甲寅，祭廣瀨龍田神，丁巳，詔曰，天下百姓由貧乏而貸稻及貨財者，乙酉年十二月卅日以前，不問公私皆免原，戊午，改元曰朱鳥元年[朱鳥，此云阿訶美苔利]，仍名宮曰飛鳥淨御原宮，丙寅，選淨行者七十人以出家，乃設齋於宮中御窟院，

是月，諸王臣等爲天皇造觀世音像，則說觀世音經於大官大寺，

八月己巳朔，爲天皇度八十僧，庚午，度僧尼并一百，因以坐百菩薩於宮中，讀觀世音經二百卷，丁丑，爲天皇體不豫祈于神祇，辛巳，遣秦忌寸石勝奉幣於土左大神，是日，天皇太子，大津皇子，高市皇子，各加封四百戶，川嶋皇子，忍壁皇子，各加百戶，癸未，芝基皇子，磯城皇子，各加二百戶，己丑，檜隈寺，輕寺，大窪寺，各封百戶，限卅年，辛卯，巨勢寺封二百戶，

九月戊戌朔辛丑，親王以下逮于諸臣，悉集川原寺，爲天皇病誓願云云，丙午，天皇病遂不差，崩于正宮，戊申，始發哭，則起殯宮於南庭，辛酉，殯于南庭，卽發哀，當是時，大津皇子謀反於皇太子，甲子，平旦，諸僧尼發哭於殯庭乃退之，是日，肇進奠，卽誄之，第一大海宿禰菟¹⁵蒲誄壬生事，次淨大肆伊勢王誄諸王事，次直大參縣犬養宿禰大伴總誄宮內事，次淨廣肆河內王誄左右大舍人事，

次直大參當摩眞人國見誅左右兵衛事。次直大肆采女朝臣筑羅誅內命婦事。次直廣肆紀朝臣眞人誅膳職事。乙丑。諸僧尼亦哭於殯庭。是日。直大參布勢朝臣御主人誅大政官事。次直廣參石上朝臣麻呂誅法官事。次直大肆大三輪朝臣高市麻呂誅理官事。次直廣參大伴宿禰安麻呂誅大藏事。次直大肆藤原朝臣大嶋誅兵政官事。丙寅。僧尼亦發哀。是日。直廣肆阿倍久努朝臣麻呂誅刑官事。次直廣肆紀朝臣弓張誅民官事。次直廣肆穗積朝臣虫麻呂誅諸國司事。次大隅。阿多隼人及倭。河內馬飼部造。各誅之。丁卯。僧尼發哀之。是日百濟王良虞代百濟王善光而誅之。次國國造等隨參赴各誅之。仍奏種種歌舞。

日本書紀卷第廿九¹⁶

15 소학관본에서는 ‘薊’라고 적고 있다.

16 소학관본에서는 ‘二十九 終’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30

日本書紀 卷第卅

제 40대 고천원광야히천황(高天原廣野天皇) 지통천황(持統天皇)



일본서기 권 제30

고천원광야희천황(高天原廣野姫天皇; 타카마노하라히로노히메노스메라미코토) **지통천황**(持統天皇; 지토텐노)

고천원광야희(高天原廣野姫; 타카마노하라히로노히메)¹ 천황의 어릴 때 이름은 노야 찬량황녀(鷺野讃良皇女; 우노노사라라노히메미코)라 한다.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아메미코토히라카스와케노스메라미코토)²의 둘째 딸이다. 어머니는 원지낭(遠智娘; 워치노이라츠메)³이라 한다[다른 이름은 미농진자랑(美濃津子娘; 미노츠코노이라츠메)이다.], 천황은 침착하고 도량이 넓었다.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姫天皇; 아메토요타카라이카시히타라시히메노스메라미코토)⁴ 3년에 천정중원영진인천

1 持統天皇(생몰기간: 645~703)은 남편인 天武가 죽은 뒤에 즉위하지 않은 채 정무를 수행한 稱制(朱鳥元年, 686)를 거쳐 지통천황 11년(697)까지 재위하였다. 아버지는 天智天皇(中大兄皇子)이고 어머니는 遠智娘이며 할아버지가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이다. 지통천황의 치세는 천무천황의 정책을 계승하여 호적을 작성하고, 飛鳥淨御原令의 제정과 藤原京의 조영이라는 2대 사업을 완성하였다. 지통은 황태자 草壁이 일찍 죽은 까닭에 황손인 輕皇子를 즉위시키기 위해 중계역할로 즉위한 천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능한 통치자였다. 『日本書紀』에는 천무천황을 보좌하여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치에 많은 조언을 했다고 한다. 지통천황 11년에 경황자인 문무천황에게 양위하였다.

2 天智天皇이다.

3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장녀이다.

4 齊明天皇이다.

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아마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스메라미코토)⁵과 결혼하여 비가 되었다. 비록 제왕(帝王)의 딸이었지만 예를 중시하고 검소하였으며, 어머니로서의 덕이 있었다. 천명개별천황 원년에 초벽황자손(草壁皇子尊; 쿠사카베노미코노미코토)을 대진궁(大津宮; 오토츠노미야)에서 낳았다. (천지천황) 10년 10월에 사문(沙門)이 된 천정중원영진인천황을 따라 길야(吉野; 요시노)에 들어가 조정의 시기를 피하였다. 이 이야기는 천명개별천황기⁶에 보인다.

천정중원영진인천황 원년 여름 6월에 천정중원영진인천황을 따라 동국(東國; 아즈마노쿠니)으로 피난하였다. 그리고 군에 명하여 무리를 결집시켜 함께 계책을 세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들 수만 명에게 명령하여 여러 요해 지역에 배치하였다.

가을 7월에 미농(美濃; 미노)의 장군⁷과 대왜(大倭; 아마토)의 호걸⁸들이 함께 대우황자(大友皇子; 오토모노미코)를 주살하여 그 머리를 들고 불파궁(不破宮; 후하노미야)⁹으로 찾아왔다.

2년에 황후가 되었다. 황후는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황을 보좌하여 천하를 안정케 하였다. 항상 천황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도 정사에 관해 언급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조(朱鳥) 원년 9월 무술삭 병오(9일)에 천정중원영진인천황이 죽었다(崩). 황후가 정무를 맡았다[臨朝稱制].

겨울 10월 무진삭 기사(2일)에 황자 대진(大津; 오토츠)¹⁰의 모반이 발각되었

5 天武天皇이다.

6 『日本書紀』의 天智紀를 말한다.

7 紀阿閉麻呂와 多品治, 三輪子首, 置始菟 등을 말한다.

8 大伴吹負와 三輪高市麻呂, 鴨蝦夷 등을 말한다.

9 壬申의 난 때 大海人皇子가 不破의 野上에 설치한 행궁을 가리킨다.

10 『日本書紀』天武천황 원년 6월조 참조.

다. 그리하여 황자 대진을 체포하고, 아울러 황자 대진에게 속은 직광사(直廣肆) 팔구조신음강(八口朝臣音綱; 야쿠치노아소미오토카시), 소산하(小山下) 일기련박덕(壹伎連博德; 유키노무라지하카토코)¹¹과 대사인(大舍人) 중신조신신마려(中臣朝臣臣麻呂; 나카토미노아소미오미마로)¹², 거세조신다익수(巨勢朝臣多益須; 코세노아소미 타야스)¹³, 신라 사문 행심(行心)¹⁴ 및 장내(帳內)¹⁵ 여저도작(礪杵道作; 토키노미치 츠쿠리)¹⁶ 등 30여 명을 체포하였다. 경오(3일)에 대진황자는 역어전(譯語田; 위사타)¹⁷의 집에서 죽었다. 당시 나이 24세였다. 비(妃)인 황녀 산변(山邊; 야마노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뛰어나가 같이 죽었다. 이를 본 사람은 모두 흐느껴 울었다. 황자 대진은 천정중원영진인천황의 셋째 아들이다. 용모가 품위 있고 언변이 뛰어났다. 그래서 천명개별천황이 귀여워하였다. 성장하여서는 이치에 밝고 재기와 학식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필을 사랑하여 시부(詩賦)의 번창은 대진에서 비롯되었다. 병신(29일)에 “황자 대진이 모반을 꾀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관리와 사인(舍人)은 어쩔 수 없이 관련되었다. 지금

-
- 11 『日本書紀』 孝德天皇 白雉 5년 2월조에서는 이길박득(伊吉博得; 이키노하카토코)이라고 하였다.
- 12 中臣씨는 천무천황 13년 11월에 連에서 朝臣으로 改姓되었다. 臣麻呂는 意美麻呂라고도 한다. 『中臣系譜』에서는 國足の 아들이라 하며, 不比等과 大島와는 6촌 관계라고 한다.
- 13 거세조신 천무천황 13년 11월에 臣에서 朝臣으로 개성되었다. 다익수는 太益須 혹은 多益首라고도 표기한다.
- 14 신라계 도래인으로 大津皇子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懷風藻』 大津皇子 傳에 의하면, 「당시 신라승 行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천문과 占卜에 밝았다. 행심은 황자에게 ‘황자의 골상은 보통 사람의 상이 아니다. 오랫동안 下位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몸을 보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대진황자를 모반으로 나아가게 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 15 율령제하에서 親王, 內親王에 봉사하는 舍人을 가리킨다.
- 16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美濃國 土岐郡의 호족으로 보는 설이 있다. 미농국은 현재의 岐阜縣 土岐郡이다.
- 17 현재 奈良縣 櫻井市 주변이다.

황자 대진은 이미 죽었다. 황자 대진과 연좌된 시종들은 모두 용서하라. 다만 여저도작(礪杵道作)은 이두(伊豆; 이즈)로 유배하라.”고 명하였다. 또 “신라 사문 행심은 황자 대진과 함께 모반하였지만 짐은 차마 죄를 물을 수 없다. 비탄국(飛驒國; 히다노쿠니)의 절¹⁸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11월 정유삭 임자(16일)에 이세신사(伊勢神祠)에 봉사하는 황녀 대래(大來; 오토쿠)가 돌아와서 왕경¹⁹에 이르렀다. 계축(17일)에 지진이 있었다.

12월 정유삭 을유(19일)에 천정중원영진인천황을 위하여 무차대회(無遮大會)²⁰를 대관(大官; 다이쿠완)²¹, 비조(飛鳥; 아스카), 천원(川原; 카하라), 소간전풍포(小壘田豐浦; 오히리다노토유라)²², 판전(坂田; 사카타) 등 다섯 절에서 열었다. 임진(26일)에 왕경의 고독고년(孤獨高年)²³에게 삼베와 비단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윤12월에 축자대재(筑紫大宰; 츠크시노오호미코토모치)²⁴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남녀 백성과 승니 62인을 바쳤다.

이 해에 뱀과 개가 서로 교미하였다. 조금 후에 모두 죽었다.

원년 봄 정월 병인삭(1일)에 황태자가 공경과 백관들을 이끌고 빈궁에 가서

18 현재 岐阜縣 吉城郡 國府町 上廣瀬에 있었던 白鳳期の 사원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9 본문에는 「京師」라 되어 있다.

20 국왕이 시주가 되어 승니, 귀천, 상하의 구별 없이 일체의 사람들을 공양하고 보시하는 대회로, 보통 5년에 1회 개최하였다.

21 大官大寺를 말한다.

22 소간전과 풍포는 나라현 高市郡 明日香村에 있는 지명이다.

23 고독자와 고령자를 말한다. 『양로령』 戶令 鰥寡조 「義解」에 ‘十六以下而無父爲孤也, 六十以上而無子爲獨也.’라고 보인다.

24 『日本書紀』 推古天皇 17년 4월조 참조.

통곡하였다. 납언(納言) 포세조신어주인(布勢朝臣御主人; 후세노아소미미누시)이 조사를 하였다. 예의에 합당하였다. 조사를 마치고 모두가 곡을 하였다. 다음에 승려들이 곡을 하였다. 이에 봉선(奉膳) 기조신진인(紀朝臣眞人; 키노아소미마히토)²⁵ 등이 공물을 올렸다. 공물 봉헌을 마치고 선부(膳部)와 채녀(采女) 등이 곡을 하였다. 악관이 음악을 연주하였다. 경오(5일)에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을 이끌고 빈궁에 가서 곡을 하였으며, 승려들이 따라 곡을 하였다. 경진(15일)에 경사의 80세 이상인 자, 병이 심한 자 및 가난하여 자활하지 못하는 자에게 솜과 비단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갑신(19일)에 직광사(直廣肆) 전중조신 법마려(田中朝臣法麻呂; 타나카노아소미노리마로)와 추대이(追大貳) 수군예전(守君蒞田; 모리노키미카리타) 등을 신라에 보내 천황의 상을 고하게 하였다.

3월 을축삭 기묘(15일)에 투화한 고구려인 56명을 상록국(常陸國; 히타치노쿠니)²⁶에 살게 하였다²⁷. 그리고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도모하였다. 갑신(20일)에 조화²⁸를 빈궁에 올렸다. 이를 어음(御蔭; 미카게)이라 한다. 이 날에 단비진인마려(丹比眞人麻呂; 타지히노마히토마로)가 조문을 읽었는데 예의에 합당하였다. 병술(22일)에 투화한 신라인 14인을 하모야국(下毛野國; 시모즈케노노쿠니)²⁹에 살게 하고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도모하였다.

여름 4월 갑오삭 계묘(10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가 투화한 신라의 승니 및 백성 남녀 22인을 바쳤다. 이들은 무장국(武藏國; 무자시노쿠니)³⁰에 살게 하고

25 『日本書紀』天武天皇 朱鳥 원년 9월조 참조.

26 현재 茨城縣의 서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福島縣 일부에 해당한다.

27 『續日本紀』靈龜 2년(716) 5월조에 「以駿河, 甲斐, 相模, 上總, 下總, 上陸, 下野七國高麗人千七百九十九遷于武藏國, 始治高麗郡焉.」이라 하여 고구려인에 대한 이주정책 기사가 나온다.

28 원문은 花縵이다. 얇은 금속에 비천상과 꽃, 새 등을 透彫한 것을 말한다.

29 현재의 栃木縣 대부분과 群馬縣 桐生川 동쪽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30 현재의 東京都를 비롯하여 埼玉縣, 神奈川縣의 동북부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도모하였다.

5월 갑자삭 을유(22일)에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을 이끌고 빈궁에 가서 통곡하였다. 이에 준인(隼人; 하야히토)인 대우(大隅; 오호스미), 아다(阿多; 아타)의 우두머리가 각각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교대로 나아가 조사를 바쳤다.

6월 계사삭 경신(28일)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가을 7월 계해삭 갑자(2일)에 “부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을유년³¹ 이전의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이를 이미 노역으로 갚았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사역시키지 말라.”고 명하였다. 신미(9일)에 준인(隼人)인 대우, 아다의 우두머리 등 337인에게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8월 임진삭 병신(5일)에 빈궁에 새로 수확한 곡식을 올렸다. 이를 어청반(御青飯)³²이라 한다. 정유(6일)에 왕경³³의 노인과 남녀가 모두 다리 서쪽에서 통곡하였다. 기미(28일)에 천황이 직대사(直大肆) 등원조신대도(藤原朝臣大嶋; 후지하라노아소미오호시마), 직대사 황서련대반(黃書連大伴; 키후미노무라지오호토모)에게 명하여 3백 명의 고승들을 비조사(飛鳥寺)에 초청하여 가사를 보시하였다. 사람마다 한 벌씩이었다. “이는 천정중원영진인천황³⁴의 의복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의 내용[詔詞]이 비통하여 자세히 말할 수 없다.

9월 임술삭 경오(9일)에 국기재(國忌齋)³⁵를 왕경의 여러 절에서 열었다. 신미(10일)에 빈궁에서 재를 올렸다. 갑신(23일)에 신라가 왕자 김상림(金霜林)³⁶,

31 天武 14년(685)이다.

32 다 여물지 않은 곡식으로 지으면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보인다. 『令集解』 喪葬令에 인용된 「古記」에는 比自岐和氣(히비키와케) 등을 천황이 죽으면 바친다고 하였다.

33 원문은 京城이다.

34 天武천황이다.

35 천황 사망일에 官에서 연 齋會이다.

36 김상림의 파견은 정월 갑신조의 천무천황의 죽음을 알리는 전신라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

금찬 김살거(金薩舉)³⁷ 및 금찬 김인술(金仁述)³⁸, 대사 소양신(蘇陽信)³⁹ 등을 보내 국정을 주청(奏請)하고, 또 조(調)를 바쳤다. 이때 학문승 지룡(智隆)⁴⁰이 따라왔다. 축자대재는 천황이 죽은 것을 상림 등에게 고하였다. 이 날 상림 등이 모두 상복을 입고 동쪽을 향하여 삼배하고 세 번 곡하였다.

겨울 10월 신묘삭 임자(22일)에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과 여러 국사(國司), 국조(國造) 및 백성 남녀를 이끌고 처음으로 대내릉(大內陵)⁴¹을 만들었다.

12월 신묘삭 경자(10일)에 직광삼(直廣參) 노진인적견(路眞人迹見; 미치노마히 토토미)을 신라사를 향응하는 칙사로 삼았다.

이 해의 간지는 정해(687)이다.

2년 봄 정월 경신삭(1일)에 황태자가 공경과 백관 등을 이끌고 빈궁에 가서 통곡하였다. 신유(2일)에 승려들이 빈궁에서 곡을 하였다. 정묘(8일)에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약사사(藥師寺)에서 열었다. 임오(23일)에 천황이 죽은(崩) 것을 신라의 김상림 등에게 알렸다. 김상림 등이 이에 세 번 곡을 하였다.

2월 경인삭 신묘(2일)에 (축자)대재가 신라의 조(調)인 금과 은, 비단, 삼베, 가죽, 동, 철 등 10여 종과 아울러 별도로 헌상한 불상, 각종 채견, 새, 말 등

는 설이 있다. 2월 무오에 귀국한 기사가 보인다. 한편 天武紀 4년 2월조의 '왕자 忠元', 持統紀 9년 3월조의 '왕자 金良琳'의 파견이 보인다.

37 여기에만 보인다.

38 여기에만 보인다.

39 여기에만 보인다.

40 왜국에서 신라에 파견한 학문승인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41 『延喜式』諸陵에「檜隈大內陵」이라 하였고, 현재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向村 大字野口에 위치하며 天武天皇과 그의 황후였던 持統天皇이 합장되어 있다. 중세 嘉禎 원년(1235)에 도굴되었는데, 이때 기록된 『阿不幾之山陵記』로부터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다. 분구는 8각, 직경 50m, 석실 전장 7.5m, 현실의 벽면은 적색으로 채색되었고, 天武의 유해가 안치되었다고 한다.

10여 종, 또 상림 등이 바친 금, 은, 안료 및 각종 진품 등 모두 80여 종을 바쳤다. 기해(10일)에 상림 등에게 축자관(筑紫館)에서 향응을 베풀고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을사(16일)에 “금후, 국가의 기일에는 반드시 재를 올리라.”고 명하였다. 무오(29일)에 상림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3월 기미삭 기묘(21일)에 조화를 빈궁에 올렸다. 등원조신대도가 조사를 바쳤다.

5월 무오삭 을축(8일)에 백제의 경수덕나리(敬須德那利)⁴²를 갑비국(甲斐國; 카히노쿠니)⁴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6월 무자삭 무술(11일)에 “나라 안에 명하여 죄수 가운데 사형은 본죄의 1등을 감하고, 가벼운 죄는 모두 사면하라. 전국의 금년 조부(調賦)를 모두 반감하라.”고 명하였다.

가을 7월 정사삭 정묘(11일)에 대규모의 기우제를 올렸다. 가뭄 때문이다. 병자(20일)에 백제의 사문 도장(道藏)⁴⁴에게 기우할 것을 명하였다. 오전 중에 나라 안에 고루 비가 내렸다.

8월 정해삭 병신(10일)에 빈궁에 새로 추수한 곡식을 올리고 통곡하였다. 이때 대반숙네안마려(大伴宿禰安麻呂; 오호토모노스쿠네야스마로)가 조사를 읽었다. 정유(11일)에 정대사(淨大肆) 이세왕(伊勢王)을 불러 장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신해(25일)에 탐라왕(耽羅王)이 좌평 가라(加羅)⁴⁵를 보내 방물(方物)을 바쳤다.

9월 병진삭 무인(23일)에 탐라의 좌평 가라 등에게 축자관에서 향응하였다.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42 백제 망명인이다.

43 현재의 山梨縣 지역에 해당한다.

44 『日本書紀』天武天皇 12년 7월조 참조.

45 여기에만 보인다.

겨울 11월 을묘삭 무오(4일)에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과 여러 나라[諸蕃]의 사신과 함께 빈궁에 가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순절무(楯節舞)⁴⁶를 연주하였다. 여러 신료들은 각각 자신의 선조들이 섬겼던 상황을 말하고 차례로 나가 조사를 바쳤다. 기미(5일)에 하이(蝦夷; 에미시) 190여 인이 조부를 메고 와서 조문을 읽었다. 을축(11일)에 포세조신어주인(布勢朝臣御主人; 후세노아소미미누시)과 대반숙네어행(大伴宿禰御行; 오호토모노스쿠네미유키)이 차례로 나아가 조문을 읽었다. 직광사 당마진인지덕(當麻眞人智德; 타키마노마히토치토코)이 역대 천황들의 즉위 순서에 대한 조사를 바쳤다. 예에 적합한 것이었다. 옛적에는 이를 일사(日嗣)⁴⁷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내릉(大內陵)에 장사지냈다.

12월 을유삭 병신(12일)에 하이(蝦夷)의 남녀 213인에게 비조사의 서쪽 느티나무⁴⁸ 아래에서 향응을 베풀고 관위를 내리고 각각 물건을 차등 있게 주었다.

3년 봄 정월 갑인삭(1일)에 천황이 전국의 국사들을 정전(正殿)에 불러놓고 신년하례를 거행하였다. 을묘(2일)에 대학료(大學寮)가 지팡이 80개를 바쳤다⁴⁹. 병진(3일)에 무대사(務大肆) 육오국(陸奥國; 미치노쿠노쿠니)의 우기담군(優耆曇郡; 우키타마노코호리)을 지키는 하이(蝦夷) 지리고(脂利古; 시리코)의 아들 마려(麻呂; 마로)와 철절(鐵折; 카나오리)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마려 등이 젊으나 차분하고 욕심이 없어서 마침내 지금은 채식을 하고 계를 잘 지킨다. 원하는 대로 출가하여 수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경신(7일)에 공

46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갖고 추는 춤을 말한다.

47 日嗣는 영적인 사건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원문은 물푸레나무를 뜻하는 榎로 되어 있지만, 혼은 츠키로 되어 있다. 츠키는 느티나무(케야키)의 옛날 이름이다.

49 正月 卯日に 지팡이로 악귀를 쫓는 중국의 풍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과 연회를 하고 의복을 주었다. 신유(8일)에 신라에 파견된 전중조신법마려(中臣朝臣法麻呂)⁵⁰ 등이 신라에서 돌아왔다. 임술(9일)에 출운국사(出雲國司; 이즈모노쿠니노미코토모치)에게 풍랑을 만난 외국인[蕃人]들을 왕경으로 올라오게 명하였다. 이 날 월(越; 코시)의 하이(蝦夷)의 승려 도신(道信)에게 불상 1구, 관정번(灌頂幡), 종(鐘), 발(鉢) 각 1구, 5색 비단 각 5척, 명주솜 5돈, 삼베 10단, 가래(鉏) 10매, 말안장 1구를 내려주었다. 축자대재(筑紫大宰) 속전진인조신(粟田真人朝臣; 아하타노마히토노아소미) 등이 준인(隼人; 하야히토) 174인과 아울러 베 50상(常), 소가죽 6매, 사슴가죽 50매를 바쳤다. 무진(15일)에 문무의 관인들이 떨감을 바쳤다. 기사(16일)에 백관들에게 음식을 내렸다. 신미(18일)에 천황이 길야궁(吉野宮; 요시노노미야)에 행차하였다. 갑술(21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2월 갑신삭 병신(13일)에 “축자의 방인(防人)⁵¹은 만기가 되었으면 교대하라⁵².”고 명하였다. 기유(26일)에 정광사 죽전왕(竹田王; 타케다노호오키미), 직광사 토사숙네근마(土師宿禰根麿; 하지노스쿠네네마로), 대택조신마(大宅朝臣麿; 오호야케노아소미마로), 등원조신사(藤原朝臣史; 후지와라노아소미후비토)⁵³, 무대사(務大肆) 당마진인앵정(當麻真人櫻井; 타기마노마히토사쿠라위)과 수적조신산수(穗積朝臣山守; 호즈미노아소미아마모리), 중신조신신마(中臣朝臣臣麿; 나가토미노아소미오미마로), 거세조신다익수(巨勢朝臣多益須; 코세노아소미타야스), 대삼륜조신안마(大三輪朝臣安麿; 오호미와노아소미야스마로)를 판사(判事)로 삼았다.

3월 계축삭 병자(24일)에 천하에 대사(大赦)를 시행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사면[常赦]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하였다.

50 원년 정월에 신라에 파견된 사신이다.

51 『日本書紀』 천지천황 3년 시세조에 설치 기사가 보인다.

52 『養老令』軍防令에 「凡兵士上番, 向京一年, 向防三年, 不計行程」이라 보인다.

53 藤原鎌足の 둘째 아들인 藤原不比等이다.

여름 4월 계미삭 경인(8일)에 투화한 신라인을 하모야(下毛野; 시모츠케노)에 살게 하였다. 을미(13일)에 황태자 초벽황자(草壁皇子)가 죽었다. 임인(20일)에 신라는 급찬 김도나(金道那) 등을 보내 영진인천왕의 상에 조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학문승 명충(明聰; 미야우소우), 관지(觀智; 쿠완치) 등을 돌려보내 주었다⁵⁴. 별도로 금동 아미타상, 금동 관세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각 1구, 채백(綵帛), 금(鎚), 능(綾)을 바쳤다. 갑진(22일)에 춘일왕(春日王; 카스가노오호키미)이 죽었다. 기유(27일)에 여러 관사의 사정(仕丁)에게 한 달에 4일을 휴가로 하라고 명하였다.

5월 계축삭 갑술(22일)에 토사숙네근마려(土師宿禰根麻呂; 하지노스쿠네마로)에게 명하여 신라의 조문사절 급찬 김도나(金道那) 등에게 “태정관의 경들이 칙을 받들어 선포한다. 2년에 전중조신법마려(田中朝臣法麻呂; 타나카노아소미노리마로) 등을 보내 대행천황(大行天皇)⁵⁵의 상을 알렸다. 그때 신라가 ‘신라에서는 칙을 받드는 사람은 원래 소판(蘇判)⁵⁶의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 때문에 법마려 등은 조칙을 알릴 수가 없었다. 전례를 말한다면 옛적에 난파궁치천하천황(難波宮治天下天皇)⁵⁷이 죽었을(崩) 때 거세도지(巨勢稻持; 코세노이나모치) 등을 보내 상을 알리는 날에 예찬(翳漭)⁵⁸ 김춘추(金春秋)가 칙을 받들었다⁵⁹. 그런데 지금 소판이 칙을 받든다고 하

54 두 승려 모두 신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明聰은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으며, 觀智는 慶雲, 和銅 연간에 維摩講師, 律師를 지냈고 716년에 죽었다.

55 천자가 죽고 시호가 없는 기간에 사용하는 호칭으로 여기서는 天武天皇을 말한다.

56 신라 17관등 중 제3위의 관등으로 迺浪, 逆判, 匣干이라고도 하였다. 蘇判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표기이다.

57 孝德天皇이다.

58 신라 17관등 중 제2위의 관등으로 伊尺浪, 伊浪, 一尺干이라고도 하였다. 翳浪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표기이다.

59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3년조(647)에 나오는 김춘추의 도왜기사를 말한다.

는 것은 전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근강궁치천하천황(近江宮治天下天皇)이 죽었을 때 일길찬 김살유(金薩儒) 등을 보내 조문하였다. 그런데 지금 급찬으로 조문함은 또한 전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신라에서는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먼 황조대부터 뱃머리를 갖추어 노가 마르는 일 없이 받들어 온 나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지금 배가 한 척뿐인 것은 역시 옛 법에 어긋난다. 또 ‘일본의 먼 황조대부터 청백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충성을 다하여 본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백한 마음을 훼손하고 거짓으로 아첨하려 한다. 이 때문에 조부와 별도로 보낸 물품을 아울러 봉인하여 돌려보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먼 황조대부터 널리 그대들을 인자하게 대해 온 덕을 꿀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더욱 노력하고 공경하여 삼가 직무를 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를, 천조는 넓은 마음으로 자애롭게 대할 것이다. 그대 도나(道那) 등은 이 칙을 받들어 그대의 왕에게 잘 전하라.”고 말하였다.

6월 임오삭(1일)에 의복을 축자대재 등에게 주었다. 계미(2일)에 황자 시기(施基; 시키), 직광사 좌미조신숙나마(佐味朝臣宿那鷹; 사미노아소미스쿠나마로), 우전조신제(羽田朝臣齊; 하타노아소미무고헤)[齊는 무고헤(牟五閤)라고 읽는다.], 근광사(勤廣肆) 이어부련마사(伊余部連馬飼; 이요베노무라지우마카히), 조기촌로인(調忌寸老人; 츠키노이미키오키나), 무대삼(務大參) 대반숙네수박(大伴宿禰手拍; 오토모노스쿠네테우치)과 거세조신다익수(巨勢朝臣多益須; 코세노아소미타야스) 등을 찬선언사(撰善言司)⁶⁰에 임명하였다. 경자(19일)에 대당의 속수언(續守言), 살홍각(薩弘恪)⁶¹ 등에게 벼[稻]를 각각 차등있게 주었다. 신축(20일)에 축자대재 속전진인

60 宋의 范泰가 『古今善言』을 편찬한 것을 모방하여 『善言』이라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관사를 말한다.

61 『日本書紀』의 편찬자로 추정되고 있다. 속수언은 14권에서 21권, 살홍각은 24권부터 27권까지 집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續日本紀』 文武 4년 6월에 의하면 살홍각은 올림

조신 등에게 학문승인 명충, 관지 등이 신라의 스승과 동료에게 보내기 위한 비단을 각각 140근씩 주라고 하였다. 을사(24일)에 축자의 소군(小郡)에서 신라의 조문사 김도나 등에게 접대하였다.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경술(29일)에 여러 관사에 법령⁶² 1부 22권을 나누어 주었다.

가을 7월 임자삭(1일)에 육오국(陸奧國)의 하이(蝦夷) 승려인 자득(自得)이 요청한 금동약사불상, 관세음보살상 각 1구, 종, 사라(娑羅)⁶³, 보장(寶帳)⁶⁴, 향로, 번(幡) 등과 같은 물건을 주었다. 이 날 신라의 조문사 김도나 등이 귀국하였다. 병인(15일)에 좌우경직(左右京職) 및 여러 국사(國司)에게 습사소(習射所)⁶⁵를 지으라 하였다. 신미(20일)에 병위(兵衛)를 사칭한 하내국(河內國; 카후치노쿠니) 삼천군(澁川郡; 시부카하노코호리) 사람인 백원광산(柏原廣山; 카시하하라노히로야마)을 토좌국(土左國; 토사노쿠니)에 유배하였다. 병위를 사칭한 광산을 붙잡은 병위 생부련호(生部連虎; 미부베노무라지토라)에게 추광삼(追廣參)의 지위를 주었다. 갑술(23일)에 월국(越國)의 하이(蝦夷) 팔조어(八釣魚; 야즈리나) 등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魚는 나(離)라고 읽는다.].

가을 8월 신사삭 임오(2일)에 백관을 신기관(神祇官)에 불러 모아 천신지기(天神地祇)에 관한 명을 받들게 하였다. 갑신(4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신(16일)에 섭진국(攝津國; 츠노쿠니)의 무고해(武庫海; 무코노우미)⁶⁶의 1천보(步)⁶⁷ 내, 기이국(紀伊國; 키노쿠니) 아제군(阿提郡; 아테노코호리)의 나기야(那

의 撰定에도 참가하였다.

62 天武천황 10년 2월에 제정을 명한 율령 중의 淨御原令을 말한다.

63 鑪器로 만든 밥그릇 형태의 佛具를 말한다. 불경을 읽을 때 쳐서 소리를 내는 도구이다.

64 불교 행사에 사용된 장막이다.

65 관인 혹은 병사들이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관련기사가 다음 8월 23일조에 보인다.

66 현재 兵庫縣 武庫川 하구 부근의 바다 및 그 해변을 말한다.

67 『양로령』 잡령에서 5尺 사방을 1步로 규정하였다. 즉 면적의 단위인데 1척을 30cm로

耆野; 나키노)의 2만 경(頃)⁶⁸, 이하국(伊賀國; 이가노쿠니) 이하군(伊賀郡; 이가노코호리) 신야(身野; 무노)의 2만 경내에서 어로와 수렵을 금지시키고 수호인을 두어, 하내국 대조군(大鳥郡; 오호토리노코호리)의 고각해(高脚海; 타카시노우미)에 준하게 하였다. 정유(17일)에 공경에게 각각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신축(21일)에 이에총령(伊豫總領; 이요노스베오사) 전중조신법마려(타나카노아소미노리마로) 등에 게 “찬길국(讚吉國; 사누키노쿠니)의 어성군(御城郡; 미키노코호리)에서 잡은 흰 제비를 풀어주어라.”라고 명하였다. 계묘(23일)에 활쏘기를 관람하였다.

윤8월 신해삭 경신(10일)에 국사(國司)들에게 “이번 겨울에 호적을 만들라. 9월까지 부랑자를 단속하여 붙잡아라. 그 병사는 국마다 4분의 1을 지정하여 무술을 익히게 하라.”고 명하였다. 정축(27일)에 정광사 하내왕(河内王; 카후치노오호키미)을 축자대재수(筑紫大宰帥)로 삼고, 무기를 주고 물건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직광이(直廣貳) 단비진인도(丹比真人嶋; 타지히노마히토시마)에게 직광일(直廣壹)을 주었다. 식봉⁶⁹ 1백 호를 늘려 이전의 것에 합쳤다.

9월 경진삭 기축(10일)에 직광삼 석상조신마(石上朝臣鷹; 이소노카미노아소미마로), 직광사 석천조신충명(石川朝臣虫名; 이시카하노아소미무시나) 등을 축자에 보내 관위 수여의 위기(位記)를 보내 주었다. 또한 신성(新城)⁷⁰을 시찰하였다.

겨울 10월 경술삭 경신(11일)에 천황이 고안성(高安城; 타카야스노키)⁷¹에 행차하였다. 신미(22일)에 직광사 하모야조신자마(下毛野朝臣子鷹; 시모츠케노노아소미

잡으면 약 2.25㎡이다.

68 頃は 실제로는 代라는 면적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3천6백 步가 1町步이고, 1정보는 5백이다.

69 원문은 封이다.

70 대재부 주변에 축성한 水城, 大野城, 椽城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日本書紀』 天武 천황 5년 是歲條 등에 보이는 新城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71 『日本書紀』 천지천황 6년 11월조 참조.

코마로)가 노비 6백 인을 해방시킬 것을 주청하였다. 주청한 대로 허가하였다.

11월 기묘삭 병술(8일)에 시중에서 추광이(追廣貳) 고전수석성(高田首石成 ; 타카타노오비토이하나리)이 세 가지의 무기를 익힌 것을 칭찬하여 물건을 주었다.

12월 기유삭 병진(8일)에 쌍륙(雙六)⁷² 놀이를 금하였다.

4년 봄 정월 무인삭(1일)에 물부마조신(物部鷹朝臣 ; 모노노베노마로노아소미)이 큰 방패를 세웠다. 그리고 신기백(神祇伯) 중신대도조신(中臣大嶋朝臣 ; 나카토미노오호시마노아소미)이 천신수사(天神壽詞)⁷³를 낭독하였다. 이것이 끝나자 기부숙네색부지(忌部宿禰色夫知 ; 이미베노스쿠네시코부치)가 신새(神璽)⁷⁴인 검과 거울을 황후에게 바쳤다. 황후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공경, 백료가 줄지어 일제히 배례하고 박수를 쳤다⁷⁵. 기묘(2일)에 공경, 백료가 배조하는 것이 원단의 의식과 같았다. 단비도진인(丹比嶋真人 ; 타지히노시마노마히토)과 포세어주인조신(布勢御主人朝臣 ; 후세노미누시노아소미)이 등극의 축하를 올렸다. 경진(3일)에 내전에서 공경에게 연회를 베풀고, 의상을 주었다. 임진(15일)에 백료가 장작[薪]⁷⁶을 바쳤다. 갑오(17일)에 천하에 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제외하였다. 유위자(有位者)에게 작(爵) 1급을 주었다. 부인이 없는 홀아비, 남편이 없는 과부, 독거자⁷⁷와 중병인 자, 가난하여 자활하지

72 6면체의 주사위 2개로 노는 놀이인데, 『養老律令』 雜律에서는 이를 도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놀이문화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73 천황 치세의 오랜 영광을 기원하는 축사이다.

74 황위를 표시하는 보물의 총칭으로 3종의神器이다.

75 大嘗祭의 의례에 따르면 5위 이상의 관인이 大極殿의 中庭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를 나타내는 版位에 꿇어앉아 한 차례에 여덟 번씩 네 차례 박수를 치는 의례를 말한다.

76 율령시대에 매년 정월 15일, 백관이 궁중에 헌상하는 薪, 혹은 그 의식을 말한다.

77 부모가 없는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을 말한다.

못하는 자에게 벼를 주고 조역을 면제하였다. 정유(20일)에 해부(解部)⁷⁸ 1백 인을 형부성(刑部省)에 임명하였다. 경자(23일)에 기내(畿內)의 천신지기(天神地祇)에게 폐백을 나누어 바쳤다. 또한 신사의 봉호(神戶)와 토지를 늘려주었다.

2월 무신삭 임자(5일)에 천황이 액상(腋上; 와키노카미)⁷⁹의 제방에 행차하여 공경대부의 말을 시찰하였다. 무오(11일)에 신라의 사문 전길(詮吉), 급찬 북조지(北助知) 등 50인이 귀화하였다. 갑자(17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인(19일)에 궁중에서 재(齋)를 행하였다. 임신(25일)에 귀화한 신라의 한나말(韓奈末) 허만(許滿) 등 12인을 무장국(武藏國)에 살게 하였다.

3월 정축삭 병신(20일)에 왕경과 기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연령 80세 이상인 자에게 각각 도궁(嶋宮; 시마노미야)의 벼 20속을 내렸다. 그중 관위가 있는 자에게는 벼 2단을 더 내렸다.

여름 4월 정미삭 기유(3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廣瀨大忌神; 히로세노오 호이미노카미)과 용전풍신(龍田風神; 타즈타노카제노카미)을 제사지냈다. 계축(7일)에 왕경과 기내의 기로(耆老)와 기녀(耆女)⁸⁰ 5,031명에게 한 사람당 벼 20속을 주었다. 경신(14일)에 “백관 및 기내 사람 가운데 관위가 있는 자는 6년으로 한하고, 관위가 없는 자는 7년으로 한하여⁸¹ 그 근무한 일수에 따라 9등으로 나누어라. 4등 이상은 고사령(考仕令)에 따라 덕목, 적부, 공적, 재능, 씨성(氏姓)의 고하를 심사하여 관위를 주겠다. 조복(朝服)은 정대일(淨大壹) 이하 광이(廣貳) 이상에는 흑자(黑紫), 정대삼(淨大參) 이하 광사(廣肆) 이상은 적자(赤紫), 정팔급(正八級)에는 적자(赤紫), 직팔급(直八級)에는 비(緋), 근팔급(勤八級)에는 심록(深綠), 무팔급(務八級)에는 천록(淺綠), 추팔급(追八級)에는 심표(深縹), 진팔급

78 解部는 소송, 재판 등에서 심문을 담당하는 하급 관인을 의미한다.

79 현재 奈良縣 御所市에 鎮坐하는 鴨都波神社 터에 小字掖上이 있다.

80 『養老令』 戶令에 66세 이상을 耆라고 한다.

81 고과평정의 기간(選限)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進八級)에는 천표(淺縹)⁸², 별도로 정광이(淨廣貳) 이상은 일부일부(一畝一部)⁸³의 능라(綾羅) 등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정대삼(淨大參) 이하 직광사(直廣肆) 이상은 일부이부(一畝二部)의 능라 등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비단⁸⁴ 허리띠와 흰바지는 관위의 상하를 묻지 말고 쓰도록 하라. 나머지는 종래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무진(22일)에 처음으로 각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가물었기 때문이다.

5월 병자삭 무인(3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을유(10일)에 백제의 남녀 21인이 귀화하였다. 경인(15일)에 내리에서 처음으로 안거(安居) 강설⁸⁵을 거행하였다.

6월 병오삭 신해(6일)에 천황이 박뢰(泊瀨; 하츠세)에 행차하였다. 경오(25일)에 관위가 있는 자를 모두 불러 관위의 서열과 연령을 말하도록 하였다.

가을 7월 병자삭(1일)에 공경과 백료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조복을 입었다. 무인(3일)에 천신지기(天神地祇)에게 폐백을 나누어 바쳤다. 경진(5일)에 황자 고시(高市; 타케치)를 태정대신(太政大臣)으로 삼았다. 그리고 단비도진인(丹比島真人)에게 정광삼(正廣參)을 주어 우대신(右大臣)으로 삼았다. 아울러 팔성(八省)의 백료들을 모두 임명하였다. 신사(6일)에 대재(大宰), 국사(國司)들을 모두 임명하였다. 임오(7일)에 “공경백료로 하여금 유위자(有位者)는 모두 지금부터 집안에서 조복을 입고 문이 열리기 전에 조정에 출근하라.”고 명하였다. 아마도 궁문 앞에 이르러서 조복을 입었던 것인가⁸⁶. 갑신(9일)에 “무릇 조당(朝堂)의

82 열은 남색이다.

83綾羅의 폭, 넓이를 말한다.

84 원문은 綺이다.

85 안거는 우기를 의미하는 범어이다. 『延喜式』 玄蕃條에 의하면 여름에 해당하는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러 절에 있는 승려를 궁중에 불러 경전을 강독하게 하고 수행시켰다.

86 이 문장은 『日本書紀』 편자의 註記로 보인다.

자리에서 친왕을 볼 때에는 일상과 같이 하라⁸⁷. 대신과 왕을 볼 때에는 조당 앞에 서라. 대신과 왕 이상일 경우⁸⁸에는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라.”라고 명하였다. 기축(14일)에 “조당의 자리에서 대신을 볼 때에는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였다. 이 날 거친 비단과 비단 실, 명주 솜, 피륙을 7사(寺)에 안거하는 사문 3,363명에게 시주하였다. 별도로 황태자⁸⁹를 위해 3사(寺)의 안거 사문 329명에게 시주하였다. 계사(18일)에 사람을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을 제사지냈다.

8월 을사삭 무신(4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을묘(11일)에 귀화한 신라인 등을 하모야국(下毛野國; 시모츠케노노쿠니)에 살게 하였다.

9월 을해삭(1일)에 모든 국사에게 “무릇 호적을 만들 때에는 모두 호령(戶令)에 의거하라.”고 명하였다. 을유(11일)에 “짐은 기이(紀伊)를 순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왕경의 전조(田租)⁹⁰와 구부(口賦)⁹¹를 걷지 말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정해(13일)에 천황이 기이(紀伊)에 행차하였다. 정유(23일)에 대당의 학문승 지종(智宗; 치소우)⁹², 의덕(義德; 기토쿠)⁹³, 정원(淨願; 차우구완)⁹⁴과 군정(軍丁)⁹⁵ 축자국(筑紫國) 상양미군(上陽畔郡; 카미츠아메노코호리)⁹⁶의 대반부박마

87 『養老令』 儀制令에서는 조당에서 관인들이 근무할 때 친왕과 태정대신을 보게 되면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88 본문에는 「二王」이라 되어 있다.

89 草壁皇子, 持統天皇 4년 4월 을묘에 죽었다.

90 토지세를 의미한다.

91 淨御原令의 調와 課役으로 일종의 인두세이다. 대보령제하에서의 調와 庸에 해당한다.

92 효덕기 백지 5년 2월 견당사로 갔던 인물이다.

93 효덕기 백지 4년 5월 견당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94 여기에서만 보인다.

95 丁은 징용의 대상이 되는 청장년을 말한다. 시정과 역정 등은 노동자이고, 군정은 병사이다.

96 『和名類聚抄』에는 筑紫國 上妻郡으로 현재의 福岡縣 八女郡 동부지역이다.

(大伴部博麻; 오호토모베노하카마)가 신라의 송사 대나말 김고훈(金高訓) 등을 따라 축자로 귀국하였다. 무술(24일)에 천황이 기이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갑진삭 무신(5일)에 천황이 길야궁(吉野宮)에 행차하였다. 계축(10일)에 대당의 학문승 지종(智宗) 등이 왕경에 이르렀다. 무오(15일)에 사자를 보내 축자대재 하내왕(河内王) 등에게 “신라의 송사 대나말 김고훈 등에게 하는 향응은 학생 토사숙네생(土師宿禰甥; 하지노스쿠네오히) 등을 보낸 송사의 예에 준하라. 위로하고 물건을 주는 것은 조서에 따르라.”고 말하였다. 을축(22일)에 군정(軍丁) 축자국 상양미군 사람 대반부박마에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姬天皇) 7년⁹⁷에 백제구원전쟁에서 그대는 당군의 포로가 되었다. 천명개별천황(天智天皇) 3년에 이르러 토사련부저(土師連富杼; 하지노무라지호도), 빙련로(氷連老; 히노무라지오유), 축자군살야마(筑紫君薩夜麻; 츠크시노키미사치야마), 궁삭련원보(弓削連元寶; 유게노무라지구완호우)의 아들 등 4인이 당인의 계략을 보고하려 하여도 의복과 식량이 없는 까닭에 이루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그래서 대반부박마가 토사부저 등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의복과 식량이 없어서 같이 가지 못한다. 바라건대 나의 몸을 팔아서 의식을 충당하라.’고 말하였다. 토사부저 등은 박마의 계획대로 하여 천조(天朝)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대는 혼자 이국에 체류한 지 금년이 30년이다. 짐은 조정을 존숭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자기를 팔아 충성을 표시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무대사(務大肆)의 관위와 아울러 굶은 비단 5필, 명주솜 10돈(屯), 삼베 30단(端), 벼 1천 속(束), 논 4정(町)을 내린다. 그 논은 증손까지 전한다. 또한 삼족의 부역을 면제하여 그 공적을 현창한다.”고 말하였다. 임신(29일)에 고시황자가 등원궁(藤原宮; 후지하라노미야)이 들어설 땅을 살펴보았다. 공경, 백료가 이를 따랐다.

97 齊明天皇이다.

11월 갑술삭 경진(7일)에 송사 김고훈 등에게 상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갑신(11일)에 칙을 받들어 처음으로 원가력(元嘉曆)⁹⁸과 의봉력(儀鳳曆)⁹⁹을 사용하였다.

12월 계묘삭 을사(3일)에 송사 김고훈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갑인(12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진(14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신유(19일)에 천황이 등원(藤原; 후지하라)에 행차하여 궁터를 보았다. 공경, 백료가 모두 따라갔다. 을축(23일)에 공경 이하에게 상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5년 봄 정월 계유삭(1일)에 친왕(親王), 제신(諸臣), 내친왕(內親王), 여왕, 내명부(內命婦) 등에게 관위를 내려주었다. 기묘(7일)에 공경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었다. 정광사 백제왕 여선광(余禪廣)¹⁰⁰, 직대사 원보(遠寶)¹⁰¹와 양우(良虞)¹⁰², 남전(南典)¹⁰³에게 많은 물품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을유(13일)에 황자 고시(高市)에게 식봉 2천 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하여 3천 호가 되었다. 정광이 황자 수적(穗積; 호즈미)에게는 5백 호를 더하였다. 정대삼 황자 천도(川嶋; 카하시마)에게는 1백 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해 5백 호가 되었다. 정광삼 우대신 단비도진인에게는 3백 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하여 5백 호, 정광

98 남조 송의 元嘉 20년(443) 何承天이 만든 역이다.

99 당의 麟德 2년(665) 李淳風이 만든 역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인덕력이라고 한다. 이 의봉력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00 『日本書紀』 天智천황 3년 3월조 참조.

101 百濟王禪廣의 孫, 昌成의 아들로 文武天皇 4년(700) 10월에 직광삼(정5위하)으로 常陸守를 역임하고 和銅 원년(708) 4월에 정5위상으로 左衛土督에 임명되었다. 동 6년(713)에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고, 天平 6년(734)에 사망하였다.

102 百濟王遠寶의 弟, 百濟王敬福의 아버지이다. 大寶 3년에 伊予守를 역임하고 養老 원년에 종4위하가 되었으며, 천평 9년(737)에 죽었다.

103 和銅 원년에 備前守를 역임하고 천평 9년에 종3위에 서임되었다.

사 백제왕 선광(禪廣)에게는 1백 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하여 2백 호가 되었다. 직대일(直大壹) 포세어주인조신(布勢御主人朝臣)¹⁰⁴과 대반어행숙네(大伴御行宿禰; 오호토모노미유키노스쿠네)¹⁰⁵에게는 80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해 3백 호가 되었다. 그밖에는 식봉을 더하여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병술(14일)에 “직광사 축자사익(筑紫史益; 츠쿠시노후비토마사루)¹⁰⁶은 축자대재부(筑紫大宰府)의 전(典)¹⁰⁷으로 임명된 지 지금 29년이다. 청백한 충성으로 봉사하여 결코 태만하지 않았다. 이에 식봉 50호, 굶은 비단 50필, 햇숨 25둔(屯), 삼베 50단(端), 벼 5천 속(束)을 내린다.”고 명하였다. 무자(16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을미(23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2월 임인삭(1일)에 천황이 공경들에게 “경들은 천황의 치세에 불전과 경장(經藏)을 만들어서 매일 육재(六齋)¹⁰⁸를 행하였다. 천황은 때때로 대사인(大舍人)을 보내어 물었다. 집의 치세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삼가고 불법을 숭상하라.”고 말하였다. 이 날 궁인(宮人)¹⁰⁹에게 위기(位

104 廣庭의 아버지이다. 持統天皇 元年(687) 정월 納言으로서 천무천황의 빈궁에서 弔詞를 하였고, 同4년 정월 천황의 즉위 때에는 丹比島와 함께 축하하였다. 同 8년 정월 氏上이 되었고, 이후 阿倍朝臣을 칭하였다. 同 10년 大納言, 大寶 元年(701) 右大臣으로 승진하였다. 동 13년에 죽었는데 그때의 위계는 左大臣從2位였다.

105 持統天皇 2년 11월 천무천황의 장송 때에 布勢御主人과 함께 弔詞를 하였다. 同 8년에 氏上이 되었고, 大寶元年 정월 사망할 때는 大納言正廣參이었다. 이후 正廣貳右大臣에 추증되었다.

106 여기에서만 보인다.

107 『養老令』 職員令에 大宰府의 제4등의 제4등에 大典 2人, 小典 2人이 있고 관위상당위는 大典이 정7위상, 小典이 정8위상이다.

108 在家の 사람이 심신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정진의 날로, 『養老令』 雜令 六齋日條에 「무릇 月의 6齋의 날에는 공사에 걸쳐 살생을 금한다.」고 하고, 『令義解』에는 8일, 14일, 23일, 29일, 30일을 6齋日이라 하고 있다.

109 後宮(內廷)에서 봉사하는 女官이다.

記)¹¹⁰를 주었다.

3월 임신삭 갑술(3일)에 공경에게 서청(西廳)에서 연회를 열었다. 병자(5일)에 천황이 공사(公私)의 말을 후원에서 관람하였다. 계사(22일)에 “만일 백성 가운데 아우가 형을 위해 팔려갔다면 양민에 속하게 하라. 만일 자식이 부모를 위해 팔렸다면 천민에 속하게 하라. 만일 빚 때문에 천민이 된 자는 양민에 속하게 하라. 그 사람이 노비와 결혼해서 낳은 소생이라 하여도 또한 모두 양민에 속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여름 4월 신축삭(1일)에 “만일 우지[氏]의 선조 때에 노비에서 면제되어 호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권속들이 다시 소송을 내어 자신의 노비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하였다. 대학박사(大學博士) 상촌주백제(上村主百濟; 헤노스구리쿠다라)¹¹¹에게 전조(田租) 1천 속을 주었다. 그 학업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신해(11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廣瀨大忌神)과 용전풍신(龍田風神; 타츠타노카제노카미)에 제사지냈다. 병진(16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임술(22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5월 신미삭 신묘(21일)에 백제순무미자(百濟淳武微子)¹¹²의 임신년의 공적을 칭송하고 직대삼(直大參)을 주었다. 아울러 명주 솜, 삼베를 내렸다.

6월 왕경 및 40개의 군(郡)과 국(國)에 비가 왔다. 무자(5월 18일)¹¹³에 “이 여

110 관위를 수여하는 辭令이다.

111 율령제하에서는 式部省의 大學寮에 박사(정6위하) 1인과 조교(정7위하) 2인을 둔다. 上村主百濟는 지통천황 7년 3월에는 勤廣貳, 慶雲 元年 2월에 종5위상이 된다. 망명백제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112 백제 멸망 후에 왜국에 망명한 귀족으로 생각된다. 임신년의 공적이란 후에 천무천황으로 즉위한 大海人皇子와 천지천황의 大友皇子 간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임신의 난에서의 공적을 말하는 것으로 百濟淳武微子は 대해인황자 측에 가담하여 싸운 것 같다. 『新撰姓氏祿』 右京諸蕃條에 「不破勝은 百濟國人인 淳武微子の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113 戊子是 5월 18일이기 때문에 본래는 5월조에 있어야 하지만, 『日本書紀』 편자가 이 詔

름의 장마는 철에 맞지 않다. 반드시 농사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조석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공경과 백료들은 술, 고기를 금하고 마음을 닦고 참회하도록 하라. 또한 왕경 및 기내(畿内)의 여러 절의 승려는 5일간 독경을 하도록 하라. 제발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명하였다. 4월부터 비가 내렸는데 이 달까지 계속되었다. 기미(20일)에 천하에 크게 사면을 행하였다. 다만 도적은 사면에서 제외하였다.

가을 7월 경오삭 임신(3일)에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이 날 이예국사(伊豫國司) 전중조신법마려(田中朝臣法麻呂) 등이 우화군(宇和郡; 우와노코호리) 어마산(御馬山; 미마노야마)의 백은(白銀) 3근 8량과 제련하지 않은 철 한 상자를 바쳤다. 병자(7일)에 공경에게 연회를 베풀고 조복을 하사하였다. 신사(12일)에 천황이 길야에서 돌아왔다. 갑신(15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廣瀨大忌神)과 용전풍신(龍田風神)에게 제사지냈다.

8월 기해삭 계묘(5일)에 대사(大射)를 관람하였다. 신해(13일)에 18씨(氏)[대삼륜(大三輪; 오호미와), 작부(雀部; 사자키베), 석상(石上; 이소노카미), 등원(藤原; 후지하라), 석천(石川; 이시카하), 거세(巨勢; 코세), 선부(膳部; 카시하데), 춘일(春日; 카스가), 상모야(上毛野; 카미츠케노), 대반(大伴; 오호토모), 기이(紀伊; 키), 평군(平群; 헤구리), 우전(羽田; 하타), 아배(阿倍; 아헤), 좌백(佐伯; 사헤키), 채녀(采女; 우네메), 수적(穗積; 호즈미), 아담(阿曇; 아즈미)]에게 그 조상들의 묘기(墓記)¹¹⁴를 바치라고 명하였다. 신유(23일)에 사자를 보내 용전풍신과 신농(信濃; 시나노)의 수파(須波; 스하), 수내(水内; 미누치)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를 6월조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곳에 잘못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114 『日本書紀』 持統천황 2년 11월조에 보이는 「여러 신료들은 각각 자신의 선조들이 섬겼던 상황을 말하고 차례로 나가 조사를 바쳤다.」라는 기록으로 추측하면, 선조의 사적을 내용으로 하는 묘기일 것이다.

9월 기사삭 임신(4일)에 음박사(音博士)¹¹⁵인 대당(大唐)의 속수언(續守言), 살홍각(薩弘恪), 서박사(書博士)¹¹⁶ 백제의 말사선신(末土善信)¹¹⁷에게 각각 은 20냥을 주었다. 정축(9일)에 정대삼 황자 천도(川嶋)가 죽었다(薨). 신묘(23일)에 좌백숙네대목(佐伯宿禰大目; 사헤키노스쿠네오호메)에게 직대이(直大貳)를 추존하였다. 아울러 부물(賦物)¹¹⁸을 내려주었다.

겨울 10월 무술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을사(8일)에 “무릇 천황의 능호(陵戸)¹¹⁹는 5호 이상으로 하라. 기타의 왕 등의 유공자는 3호로 하라. 만일 능호가 부족하면 백성으로 충당하라. 그들의 요역을 면제하고 3년에 한 번 교체하라.”고 말하였다. 경술(13일)에 기내(畿内) 및 제국에 장생지(長生地)¹²⁰ 각각 1백 보를 두게 하였다. 이 날 천황이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정사(20일)에 천황이 길야(吉野)에서 돌아왔다. 갑자(27일)에 사자를 보내 신익경(新益京; 신야쿠노미야코)¹²¹에서 진제(鎮祭)를 지내게 하였다.

11월 무진(1일)에 대상(大嘗)을 거행하였다. 신기백(神祇伯) 중신조신대도(中臣朝臣大嶋; 나카토미노아소미오호시마)가 천신수사(天神壽詞)를 낭독하였다. 임진(25일)에 공경에게 침구를 주었다. 을미(28일)에 공경 이하 주전(主典)에 이르기

115 音博士는 『養老令』 式部省 大學寮에 음박사 2인을 둔다고 하고, 그 주에 「掌教音」이라 하여 외국어의 발음을 가르치는 직무이다. 특히 唐人을 음박사에 둔 것은 양자강 유역의 뭇속에 대해 隋, 唐의 표준어인 漢音を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116 書博士는 『養老令』 式部省 大學寮에 음박사 2인을 둔다고 하고, 그 주에 「掌教書」라 하여 한자의 서체를 가르치는 직무이다. 음박사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교양과정에 해당한다.

117 末土善信은 백제의 망명귀족으로 末土는 末氏の 복성 표기이다. 天智紀 7년 4월조에 백제의 사신 末都師父의 이름이 보이는데, 동족일 가능성이 있다.

118 상주를 돕기 위해 주는 각종 물품이다.

119 山陵을 지키는 戸로서 노비와 같은 신분이다.

120 생물을 방생한다는 뜻으로 살생금단의 장소를 말한다.

121 藤原京을 말한다. 새로 넓게 조영한 경이란 뜻에서 新益京이라 하였다.

까지 향응을 베풀었다. 또 비단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정유(30일)에 신기관(神祇官)의 장상(長上)¹²² 이하 신부(神部)¹²³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받드는 파마국(播磨國; 하리마노쿠니), 인번국(因幡國; 이나하노쿠니)의 군사(郡司) 이하 남녀 백성에 이르기까지 향응을 베풀고 아울러 비단 등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12월 무술삭 기해(2일)에 의박사(醫博士)¹²⁴ 무대삼(務大參) 덕자진(德自珍)¹²⁵, 주금박사(呪禁博士)¹²⁶ 목소정무(木素丁武)¹²⁷, 사택만수(沙宅萬首)¹²⁸에게 각각 은 20량을 주었다. 을사(8일)에 “우대신에게 택지 4정(町), 직광이(直廣貳) 이상은 2정, 대삼 이하에게는 1정을 하사한다. 근(勤) 이하 무위(無位)까지는 호구에 따라 그 상호(上戶)는 1정, 중호(中戶)는 반정(半町), 하호(下戶)는 4분의 1을 하사한다. 왕들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하였다.

6년 봄 정월 정묘삭 경오(4일)에 황자 고시에게 식봉 2천 호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해 5천 호가 되었다. 계유(7일)에 공경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또 의복을 내렸다. 무인(12일)에 천황이 신익경(新益京)의 도로를 시찰하였다. 임오(16일)에 공경 이하 초위 이상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계사(27일)에 천황이 고궁

122 매일 출근하는 관을 長上官이라 하고, 이에 반해 교대로 출근하는 관을 番上官이라 한다.

123 神祇官에 소속된 관인으로 『養老令』 職員令에는 神祇官에 30명의 神部가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124 『養老令』 職員令의 宮内省 典藥寮條에 의하면 의박사 1인, 주금박사 1인을 두고, 제각기 醫生 40인, 주금생 6인을 교육한다. 관위는 정7위상이다.

125 德自珍의 德은 성이고, 自珍은 이름이다. 그는 백제인 망명귀족으로 본국에서의 관위와 직장에 따라 왜 왕권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받아 봉사하였다.

126 呪禁博士란 주술에 의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주금생을 가르치는 관리이다. 율령제하에서는 典藥寮에 呪禁博士 1인이 있었고, 종7위상에 상당한다. 呪禁 70인을 교육한다.

127 木素丁武의 木素는 木氏의 복성, 丁武는 이름이다.

128 沙宅은 沙氏의 복성, 萬首는 이름이다.

(高宮)¹²⁹에 행차하였다. 갑오(28일)에 천황이 고궁에서 돌아왔다.

2월 정유삭 정미(11일)에 제관(諸官)에게 “3월 3일에 이세(伊勢)에 가려고 한다.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 각종 의복을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음양박사(陰陽博士)¹³⁰ 사문 법장(法藏)¹³¹과 도기(道基)¹³²에게 각각 은 20량을 주었다. 을묘(19일)에 형부성(刑部省)에 경범자를 사면하라고 명하였다. 이 날 중납언(中納言) 직대이(直大貳) 삼륜조신고시마(三輪朝臣高市麿; 미와노아소미타케치마로)가 표를 올려 천황이 이세에 행차하는 것은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간언하였다.

3월 병인삭 무진(3일)에 정광사 광뢰왕(廣瀨王; 히로세노오호키미), 직광삼 당마진인지덕(當麻眞人智德), 직광사 기조신궁장(紀朝臣弓張; 키노아소미유미하리)을 유수관(留守官)으로 삼았다. 이때 중납언 삼륜조신고시마는 관위를 벗어 천황에게 바치고 “농사철에 행차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거듭 간하였다. 신미(6일)에 천황이 간언에 따르지 않고 마침내 이세로 행차하였다. 임오(17일)에 통과하는 지역인 신군(神郡; 카미노코호리) 및 이하(伊賀; 이가), 이세(伊勢; 이세), 지마(志摩; 시마)의 국조(國造) 등에게 관위를 주고 아울러 당년의 조역(調役)을 면제하였다. 또 행차를 모신 기병, 제 관사의 짐꾼, 행궁을 조영하는 장정은 당년의 과역을 면제하고 천하에 크게 사면하였다. 다만 도적은 사면에서 제외하였다. 갑신(19일)에 통과지역인 지마의 백성 남녀 가운데 나이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각각 벼 50속을 내렸다. 을유(20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가는 곳마다 군현의 관인과 백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물품을 내리고 가무를 베풀었다. 갑오(29일)에 “근강(近江; 아후미), 미농(美濃; 미노), 미장(尾張; 오히리), 삼

129 持統천황의 남편인 天武천황과 함께 기거했던 岡本宮을 가리킨다.

130 율령제하에서는 中務省의 陰陽寮에 陰陽博士가 1인이 있었고, 정7위하에 상당한다. 음양생 10인을 가르쳤다.

131 『日本書紀』 천무천황 14년 10월조 참조.

132 여기에서만 보인다.

하(參河; 미카하), 원강(遠江; 토호츠아후미) 등 여러 곳의 행차에 함께 했던 기병의 호(戶)와 여러 지역의 집꾼, 행궁을 조영한 장정은 당년의 조역(調役)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또 “천하의 백성 중 빈궁한 자에게 벼를 내려 남자는 3속, 여자는 2속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병신삭 정유(2일)에 대반숙네우국(大伴宿禰友國; 오호토모노스쿠네토 모쿠니)에게 직대이의 관위를 추증하고 아울러 부물(賦物)을 내렸다. 경자(5일)에 4기내(四畿内)¹³³의 백성 중 집꾼이 된 자는 당년의 조역(調役)을 면제하였다. 갑인(19일)에 사자를 보내어 광뢰대기신(廣瀨大忌神)과 용전풍신(龍田風神)에게 제사지냈다. 병진(21일)에 관위가 있는 자, 친왕(親王) 이하 진광사(進廣肆)에 이르기까지 난파(難波; 나니하) 대장(大藏; 오호쿠라)의 가래[鉏]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경신(25일)에 “무릇 계수(繫囚)¹³⁴와 현도(見徒)¹³⁵를 전원 방면하라.”고 명하였다.

5월 을축삭 경오(6일)에 아호행궁(阿胡行宮; 아고노카리미야)에 머물렀을 때 음식을 바친 기이국(紀伊國) 모루군(牟婁郡; 무로노코호리) 사람인 아고지해부하뢰마(阿古志海部河瀬麿; 아코시노아마노카하세마로) 등의 형제 3호에게 10년간 조역(調役)과 잡역을 면제하였다. 또 뱃사공 8인에게 당년의 조역을 면제하였다. 신미(7일)에 상모국사(相摸國司; 사가무노쿠니노미코토모치)가 붉은 까마귀¹³⁶ 새끼 두 마리를 바쳤다. “어포군(御浦郡; 미우라노코호리)에서 잡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병자(12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경진(16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신사(17일)에 대부와 알자(謁者)¹³⁷를 보내 유명한 산악과 대하에 기우제를

133 倭(大和), 山背, 攝津, 河内の 4국을 가리킨다. 奈良시대에는 河内國의 일부가 和泉國으로 분할되어 5畿内가 되었다.

134 범죄의 용의로 일시 구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35 현재 범죄인으로 복역 중인 자를 의미한다.

136 원문은 赤鳥이다.

지냈다. 갑신(20일)에 문기촌지덕(文忌寸智德 ; 후미노이미키치토코)에게 직대일(直大壹)의 관위를 추증하고 아울러 부물을 주었다. 정해(23일)에 정광사 난파왕(難波王 ; 나니하노오호키미) 등을 보내 등원궁지(藤原宮地 ; 후지하라노미야도코로)에서 진제(鎮祭)를 지냈다. 경인(26일)에 사자를 보내 이세, 대왜(大倭 ; 야마토), 주길(住吉 ; 스미노에), 기이(紀伊 ; 키) 네 곳의 대신(大神)에게 폐백을 바치고 신궁(新宮)에 보고하였다.

윤5월 을미삭 정유(3일)에 홍수가 났다. 사자를 보내 군국(郡國)을 순회하여 재해가 있어 자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곡(稻穀)을 빌려주고 산림과 연못에서 벌채와 어로를 허가하였다. 또한 왕경 및 4기내(四畿内)에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설하라고 명하였다. 무술(4일)에 사문 관성(觀成 ; 쿠완자우)¹³⁸에게 거친 비단(紵) 15필, 명주섬 30돈, 삼베 50단을 내렸다. 그리고 관성이 만든 연분(鉛粉)¹³⁹을 칭찬하였다. 정미(13일)에 이세태신(伊勢太神 ; 이세노오호카미)의 신관이 천황에게 “이세국의 금년 조역을 면제하였지만, 두 곳의 신군(神郡)에서 납입해야 할 적석 실 35근은 내년에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기유(15일)에 축자대재의 장관인 하내왕(河内王) 등에게 “사문을 대우(大隅)와 아다(阿多)에 보내 불교를 전하라. 또 대당의 대사 곽무종이 근강대진궁(近江大津宮)천황¹⁴⁰을 위하여 만든 아미타상을 올려 보내라.”고 말하였다.

6월 갑자삭 임신(9일)에 군국(郡國)의 장리(長吏)에게 칙을 내려 각 명산대천에 기도하게 하였다. 갑술(11일)에 대부와 알자(謁者)를 보내어 4기내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갑신(21일)에 직정(直丁)¹⁴¹ 8인에게 관위를 내렸다.

137 천황의 명을 연락하고 중개하는 일을 맡은 관인을 가리킨다.

138 『속일본기』 화동 5년 9월조에 대승도로 임명된 기사가 보인다.

139 납을 태워 분말로 만든 화장품을 말한다.

140 천지천황을 말한다.

141 각 관사에서 잡용에 근무하는 사정(仕丁)이다.

대내릉(大內陵)을 만들 때 잘 근무한 것을 포상한 것이다. 계사(30일)에 천황이 등원궁(藤原宮) 터를 시찰하였다.

가을 7월 갑오삭 을미(2일)에 천하에 대사면을 내렸다. 다만 10악(惡)¹⁴²과 도적은 사면에서 제외하였다. 상모국사(相模國司) 포세조신색포지(布勢朝臣色布智; 후세노아소미시코후치) 등, 어포군(御浦郡; 미우라노코호리) 소령(少領)[성과 이름이 빠졌다.]과 붉은 새를 잡은 녹도신상장(鹿嶋臣橡樟; 카시마노오미쿠스)에게 관위 및 물품을 내렸다. 어포군에 3년간 조역을 면제하였다. 경자(7일)에 공경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임인(9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갑진(11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廣瀨)와 용전(龍田)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신유(28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이 날 밤 형혹(熒惑)¹⁴³과 세성(歲星)¹⁴⁴이 한 걸음의 거리에서 보였다가 사라지고,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네 번이나 하였다.

8월 계해삭 을축(3일)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기묘(17일)에 비조황녀(飛鳥皇女; 아스카노히메미코)의 저택에 행차하였다. 그날로 궁으로 돌아왔다.

9월 계사삭 신축(9일)에 반전대부(班田大夫; 다타마히노마헤즈키미)¹⁴⁵ 등을 4기내(四畿內)에 파견하였다. 병오(14일)에 신기관이 신보서(神寶書) 네 권, 약(鑰)¹⁴⁶ 아홉 개, 목인(木印) 한 개를 바쳤다. 계축(21일)에 이세국사(伊勢國司)가 좋은 벼 두 다발을 바쳤다. 또한 월전국사(越前國司; 고시노미치노쿠치노쿠니노미코토모치)가 흰 나방을 바쳤다. 무오(26일)에 “흰 나방을 각록군(角鹿郡; 츠누가노코호

142 국가와 사회, 가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10개의 중죄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아지律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중국의 唐律 10惡(謀叛, 謀大逆, 謀反, 惡虐,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을 차용한 것이다. 大寶, 養老律에서는 不睦, 內亂을 제외한 8惡이다.

143 火星이다.

144 木星이다.

145 班田收受를 실시하는 관인이다.

146 자물쇠를 말한다.

리)¹⁴⁷의 포상빈(浦上濱; 우라카미노하마)¹⁴⁸에서 잡았다. 그래서 사반신(筭飯神; 케히노카미)¹⁴⁹에 식봉 20호를 더하여 이전의 것과 합쳐라.”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 임술삭 임신(11일)에 산전사어형(山田史御形; 아마다노후비토미카타)¹⁵⁰에게 무광사(務廣肆)의 관위를 내렸다. 이전에 사문이 되어 신라에 유학하였다. 계유(12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경진(19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11월 신묘삭 무술(8일)에 신라가 급찬 박억덕(朴億德)¹⁵¹, 김심살(金深薩)¹⁵² 등을 보내어 조공을 올렸다. 신라에 보내는 사신 직광사 식장진인로(息長眞人老; 오키나가노마히토오유)¹⁵³, 무대이 천내기촌련(川内忌寸連; 카후치노이미키츠라) 등에게 물품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신축(11일)에 신라의 박억덕에게 난파관(難波館)에서 향응을 베풀고 물품을 내렸다.

12월 신유삭 갑술(14일)에 음박사(音博士) 속수언(續守言), 살홍각(薩弘恪)에게 각각 네 정의 논을 주었다. 갑신(24일)에 대부들을 보내 신라의 조공물을 이세(伊勢), 주길(住吉), 기이(紀伊), 대왜(大倭), 토명족(菟名足) 등 다섯 개 신사에 바쳤다.

147 『日本書紀』 武烈천황 즉위전기 11월조의 ‘각록해’ 참조.

148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다.

149 현재 福井縣 敦賀市の 氣比신궁의 신으로 보인다.

150 신라에 유학승으로 파견된 山田史御形은 『續日本紀』 慶雲 4년에 정6위상, 和銅 3년 4월에 周防守에 임명되었고, 養老 4년 정월에 종5위상이 되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懷風藻』에는 오늘날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하는 大學寮의 大學頭に 있었다고 한다.

151 다음해에 귀국 기사가 보인다.

152 여기에만 보인다.

153 和銅 5년에 죽었는데, 종4위하와 右大辯, 병부경, 左京대부를 역임하였다. 다음해 3월 조에도 보인다.

7년 봄 정월 신묘삭 임진(2일)에 황자 고시(高市)에게 정광일(淨廣壹)의 관위를 내렸다. 황자 장(長)과 황자 궁삭(弓削)에게 정광위의 관위를 주었다. 이 날 천하의 백성에게 황색의 의복을 입게 하였고, 노비에게는 흑색 옷을 입게 하였다. 정유(7일)에 공경대부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계묘(13일)에 왕경 및 기내(畿內)의 유위자로서 80세 이상의 사람에게 이불 한 채와 거친 비단 두 필, 명주 솜 두 둔, 삼베 네 단을 주었다. 을사(15일)에 백제왕 선광(善光)에게 정광삼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부물을 내렸다. 병오(16일)에 왕경의 남녀 가운데 80세 이상과 곤궁한 자에게 삼베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선뢰(船漚)¹⁵⁴의 사문 법경(法鏡)¹⁵⁵에게 논 세 정을 주었다. 이 날 한인(漢人; 야아히토)¹⁵⁶ 등이 답가(踏歌)¹⁵⁷를 연주하였다.

2월 경신삭 임술(3일)에 신라가 사찬 김강남(金江南)¹⁵⁸, 한나마(韓奈麻) 김양원(金陽元)¹⁵⁹ 등을 보내어 왕의 상을 고하였다¹⁶⁰. 기사(10일)에 조경사(造京司)¹⁶¹ 의봉왕(衣縫王; 키누누히노오호키미)¹⁶² 등에게 조하여 공사 중에 파낸 시신을 거두게 하였다. 기축(30일)에 표류해 온 신라인 모자모례(牟自毛禮) 등 37인을 억덕(億德)¹⁶³ 등의 귀국길에 팔려 보냈다.

154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를 축조하는 승려이다.

155 여기에만 보인다.

156 백제 혹은 가야로부터 이주한 씨족의 후예들이다.

157 궁중의 연중행사 때 연주하는 음악의 일종으로 정월 15일에는 男踏歌, 16일에는 女踏歌를 연주하였다.

158 여기에만 보인다.

159 신라사절 金陽元은 天武 5년 10월에 ‘金陽原’이란 이름으로 보덕국의 고구려 사신을 데리고 온 일이 있다.

160 692년에 사망한 神文王의 告喪使이다.

161 藤原京의 조영을 담당하는 官司이다.

162 문무천황 3년에 정광사로서 越智山禪의 조영을 담당하였고, 慶雲 4년에 죽었다.

163 전년 11월에 왜국에 온 신라사신 朴億德을 가리킨다.

3월 경인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갑자(5일)에 대학박사 근광이(勤廣貳) 상촌주백제(上村主百濟; 우헤노스구리쿠다라)에게 식봉 30호를 내렸다. 유학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을미(6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경자(11일)에 직대길(直大貳) 갈원조신대도(葛原朝臣大嶋; 후지하라노아소미오호시마)에게 부물을 내렸다. 임인(13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을사(16일)에 신라에 보낼 사신 직광사(直光眞人老; 오키나가노마히토오유), 근대이(勤大貳) 대반숙네자군(大伴宿禰子君; 오호토모노스쿠네코키미) 등과 학문승 변통(弁通), 신예(神叡) 등에게 거친 비단, 명주솜, 삼베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또 신라왕에게 보낼 부물을 주었다. 병오(17일)에 천하에 뽕, 모시, 배, 밤, 붉은 무 등의 초목을 심을 것을 권장하였다. 오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여름 4월 경신삭 병자(17일)에 대부와 알자(謁者)를 보내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또 사자를 보내 광희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신사(22일)에 “내장료윤(內藏寮允)¹⁶⁴ 대반남인(大伴男人; 오호토모노오히토)¹⁶⁵이 장물죄에 걸렸다. 위 2계를 강등시키고 현직에서 해임한다. 전약(典鑰)¹⁶⁶ 치시다구(置始多久; 오키소메노오호쿠)¹⁶⁷와 토야대반(菟野大伴; 우노노오호토모)¹⁶⁸ 역시 장물죄에 걸렸다. 위 1계를 내리고 현직을 해임한다. 감물(監物)¹⁶⁹ 거세읍치(巨勢邑治; 코세노오호지)가 비록 물건을 자신이 갖지는 않았으나 사정을 알고도 범죄를 막지 않은 연유로 위 2계를 내리고 현직을 해임한

164 內藏寮는 금, 은, 옥 등 천황의 고가의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관사이며,允은 4등관 중 제3등관에 해당된다.

165 후에 사면되어 大寶 3년에는 중5위하의 大倭守, 衛門督, 長門守 등에 임명되었다.

166 궁문, 성문 등의 자물쇠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인이다.

167 『日本書紀』 孝德천황 백지 5년 2월조의 치시런대백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168 여기에만 보인다.

169 中務省 소속으로 물품의 출납과 管鑰(자물쇠의 출납)을 감찰하는 관사이다.

다. 그러나 치시다구(置始多久)는 임신년 싸움의 공이 커서 그 죄를 용서한다. 다만 장물은 율(律)에 따라 거두어들여라.”라고 말하였다.

5월 기축삭(1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을미(7일)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계묘(15일)에 무차대회를 내전에서 열었다.

6월 기미삭(1일)에 고구려의 사문 복가(福嘉)에게 환속을 명하였다. 임술(4일)에 인전조신광목(引田朝臣廣目; 히케타노아소미히로메), 수군예전(守君茹田; 모리노키미카리타), 거세조신마려(巨勢朝臣麻呂; 코세노아소미마로), 갈원조신신마려(葛原朝臣臣麻呂; 후지하라노아소미오미마로), 거세조신다익수(巨勢朝臣多益須; 코세노아소미타야스), 단비진인지수(丹比真人池守; 타지히노마히토이케모리), 기조신마려(紀朝臣麻呂; 기노아소미마로) 등 7인에게 직광사의 관위를 주었다.

가을 7월 무자삭 갑오(7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기해(12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신축(14일)에 대부와 알자(謁者)를 보내어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계묘(16일)에 대부와 알자를 보내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이 날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8월 무오삭(1일)에 등원궁(藤原宮) 터에 행차하였다. 갑술(17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무인(21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9월 정해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신묘(5일)에 다무령(多武嶺; 타무노미네)¹⁷⁰에 행차하였다. 임진(6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병신(10일)에 정어원천황(淨御原天皇)¹⁷¹을 위하여 무차대회를 내전에서 열었다. 죄수를 모두 방면하였다. 임인(16일)에 문옥기촌목간(蚊屋忌寸木間; 카야노이미키코노마)¹⁷²에게 직광삼

170 和歌山縣 牟婁郡 白濱町 湯崎 온천이다.

171 天武天皇이다.

172 蚊屋忌寸木間の 蚊屋氏は 가야계인 東韓氏의 일족으로 蚊屋은 「가야」로 혼독한다.

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부물을 내렸다. 이는 임신년의 공을 포상한 것이다.

겨울 10월 정사삭 무오(2일)에 “금년부터 친왕을 위시하여 아래의 진위(進位)에 이르기까지 비치한 무기를 검열하겠다. 정관(淨冠)에서 직관(直冠)에 이르기까지는 각각 갑옷 1영(領), 대도 1구(口), 활 1장(張), 화살 1구(具), 병(柄)¹⁷³ 1장(枚), 말안장을, 근관(勤冠)에서 진관(進冠)에 이르기까지는 각각 대도 1구, 활 1장, 화살 1구, 병 1매를 미리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기묘(23일)에 처음으로 국마다 인왕경(仁王經)을 강설하게 하였다. 4일에 걸쳐서 끝났다.

11월 병술삭 경인(5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임진(7일)에 탐라(耽羅) 왕자, 좌평(佐平)¹⁷⁴ 등에게 물건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을미(10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기해(14일)에 사문 법원(法員), 선왕(善往), 진의(眞義) 등을 보내 시험 삼아 근강국(近江國; 아후미노쿠니) 익수군(益須郡; 야스노코호리)의 예천(醴泉)¹⁷⁵을 마셔보게 하였다. 무신(23일)에 직광사 인전조신소마려(引田朝臣少麻呂; 히케타노아소미스쿠나마로)에게 직대사(直大肆)를 내렸다. 또 식봉 50호를 내렸다.

12월 병진삭 병자(21일)에 진법박사(陣法博士)¹⁷⁶ 등을 제국에 파견하여 학습하게 하였다.

8년 봄 정월 을서삭 병술(2일)에 직대일(直大壹) 포세조신어주인(布勢朝臣御主人; 후세노아소미미누시)과 대반숙네어행(大伴宿禰御行; 오호토모노스쿠네미유키)에게 정광사의 관위를 내렸다. 각각 2백 호의 식봉을 더했는데, 이전 것과 합하

173 활을 쏘 때 왼쪽 팔목 안쪽에 대는 가죽으로 만든 팔찌이다.

174 인명은 보이지 않는다.

175 『日本書紀』持統天皇 8년 3월 11일조에 의하면, 질병 등에 효능이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

176 전술에 숙달한 전문가를 의미한다.

여 5백 호였다. 모두 씨족의 수장으로 삼았다. 신묘(7일)에 공경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기해(15일)에 딸감[薪]을 바쳤다. 경자(16일)에 백관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신축(17일)에 한인(漢人)이 답가(踏歌)를 연주하였다¹⁷⁷. 5위 이상에게 대사(大射) 의식을 하게 하였다. 임인(18일)에는 6위 이하에게 대사 의식을 하게 하였다. 4일간 행하였다. 계묘(19일)에 당인(唐人)이 답가(踏歌)를 연주하였다. 을사(21일)에 등원궁(藤原宮)에 행차하였다. 당일로 궁으로 돌아왔다. 정미(23일)에 대당(大唐) 7인과 숙신(肅愼)의 2인에게 무광사(務廣肆)의 관위를 수여하였다. 무신(24일)에 갈야궁에 행차하였다.

3월 갑신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을유(2일)에 직광사 대택조신마려(大宅朝臣麻呂; 오호야케노아소미마로), 근대이 대기촌팔도(臺忌寸八嶋; 우테나노이미키야시마), 황서련본실(黃書連本實; 키후미노무라지혼지치)¹⁷⁸ 등을 주전사(鑄錢司)에 임명하였다. 갑자(11일)에 “무릇 관위가 없는 사람을 군사(郡司)로 임명할 때에는 대령(大領)에게는 진광이(進廣貳)를 주고, 소령(小領)에게는 진대삼(進大參)을 주라.”고 말하였다. 기해(16일)에 “7년 세차 계사에 근강국 익수군 도하산(都賀山; 츠가야마)에 예천(醴泉)이 솟아올랐다.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익수사(益須寺; 야스테라)에 숙박하며 치유하는 자가 많았다. 따라서 논 4정, 삼베 60단을 주고 익수군은 금년의 조역과 잡요를 면제하며, 국사(國司)의 장관(頭)¹⁷⁹으로부터 주전(主典)에 이르기까지 관위 1급을 올려주어라. 처음으로 예천(醴泉)을 발견한 갈야우충(葛野羽衝; 카도노노하츠키)과 백제토라라녀(百濟土羅羅女; 쿠다라노 츠라라메)에게는 각각 거친 비단 2필, 삼베 10단, 가래[鍬] 10구를 내려라.”라고 명하였다. 을사(22일)에 여러 신사에 폐백을 바쳤다. 병오(23일)에 신기관의

177 『日本書紀』 持統天皇 7년 정월 16일조 각주 참조.

178 『日本書紀』 天智天皇 10년 3월조의 黃書造本實 각주 참조.

179 大寶令과 養老令에서는 「守」라고 하고, 「頭」는 淨御原令에서 國司의 장관의 명칭이다.

장관으로부터 축부(祝部)¹⁸⁰에 이르기까지 164인에게 거친 비단, 삼베를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여름 4월 갑인삭 무오(5일)에 축자대재(筑紫大宰)의 장관 하내왕에게 정대사(淨大肆)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부물을 주었다. 경신(7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인(13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정해¹⁸¹에 천황이 길야궁에서 돌아왔다. 경오(17일)에 율사(律師) 도광(道光)에게 부물을 주었다.

5월 계미삭 무자(6일)에 공경대부에게 내전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계사(11일)에 금광명경(金光明經) 1백 부를 제국에 보내어 비치시켰다. 반드시 매년 정월 상현(上玄)¹⁸²에 그 경을 읽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국의 관물로 충당하게 하였다.

6월 계축삭 경신(8일)에 하내국 경황군(更荒郡 ; 사라라노코호리)에서 흰 산계(山鷄)를 바쳤다. 경황군의 대령(大領), 소령(小領)에게 각각 관위 1급을 내리고, 아울러 물건을 주었다. 그것을 잡은 형부조한국(刑部造韓國 ; 오사카베노미야즈코 카라쿠니)에게는 진광이를 내리고, 아울러 물건을 주었다.

가을 7월 계미삭 병술(4일)에 순찰사(巡察使)를 제국에 파견하였다. 정유(15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8월 임자삭 무진(17일)에 황녀 비조(飛鳥 ; 아스카)를 위하여 사문 104인을 출가시켰다.

9월 임오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을유(4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 신해삭 경오(20일)에 흰 박쥐를 잡은 비탄국(飛驒國 ; 히다노쿠니)

180 하급의 神職으로 『養老令』 神祇官에는 30명의 神部가 소속된다.

181 4월에 丁亥는 없다.

182 매월 음력 7~8일경의 달의 모습을 가리킨다.

황성군(荒城郡; 아라키노코호리) 사람 제국부제일(弟國部弟日; 오토쿠니베노오토히)에게 진대사(進大肆)의 관위를 내렸다. 아울러 거친 비단 4필과 명주 솜 4돈, 삼베 10단을 하사하였다. 그 호(戶)의 과역을 1대에 한하여 면제하였다.

11월 신사삭 병오(26일)에 사형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면하였다.

12월 경술삭 을묘(6일)에 등원궁(藤原宮)¹⁸³으로 천궁하였다. 무오(9일)에 백관이 배조하였다. 기미(10일)에 친왕 이하 군사(郡司) 등에 이르기까지 거친 비단, 명주솜, 삼베 등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신유(12일)에 공경대부와 연회를 하였다.

9년 봄 정월 경진삭 갑신(1일)에 황자 사인(舍人)에게 정광이(淨廣貳)를 수여하였다. 병술(7일)에 공경대부에게 내전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갑오(15일)에 땀감(黻)을 바쳤다. 을미(16일)에 백관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병신(17일)에 대사(大射) 의식을 거행하였다. 4일 만에 끝났다.

윤2월 기묘삭 병술(8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계사(15일)에 천황이 궁으로 돌아왔다.

3월 무신삭 기유(2일)에 신라가 왕자 김양림(金良琳), 보명살찬(補命¹⁸⁴薩浪) 박강국(朴強國) 등과 한나마 김주한(金周漢), 김충선(金忠仙) 등을 보내 국정(國政)을 주청(奏請)하고¹⁸⁵ 조(調)와 물품을 바쳤다. 기미(12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

183 藤原宮은 지통천황 8년(694) 12월에서 和銅 3년(710) 3월까지 15년 이상 존속하였다. 기단을 세우고 지붕에 기와를 올리는 축조기법은 신라의 영향일 것이다. 당시 일본은 670년에서 700년까지 당과는 통교가 없었고, 오직 신라와 교류하였다. 이 시기 신라의 견일본사는 21회, 일본의 견신라사는 10회로 30년간 매년 사절이 왕래하였다.

184 관위에 ‘補命’을 관칭한 것은 대사인 왕자 金良琳을 보좌하는 특별직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185 자국의 내정을 상대국에 보고하는 「國政의 奏請」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세계에서 중국의 책봉, 조공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례이자 정치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다. 임술(15일)에 천황이 길야에서 돌아왔다. 경오(23일)에 무광이(務廣貳) 문기촌박세(文忌寸博勢; 후미노이미키하카세), 진광삼(進廣參) 하역어제전(下譯語諸田; 시모노오사노모로타) 등을 다네(多禰; 다네)¹⁸⁶에 보내 만인(蠻人)들의 거처를 찾아 보게 하였다.

여름 4월 무인삭 병술(9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갑오(17일)에 하무조신하이(賀茂朝臣蝦夷; 카모노아소미에미시)에게 직광삼의 관위를 추증하고 아울러 부물을 하사하였다[원래의 관위는 근대일(勤大壹; 곤다이이치)이다.]. 문기촌적마려(文忌寸赤麻呂; 후미노이미키아카마로) 등에게 직대사의 관위를 추증하였고 아울러 부물을 주었다[원래의 관위는 대산중(大山中)이었다.].

5월 정미삭 기미(13일)에 준인(隼人; 하야토)과 대우(大隅; 오오스미)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정묘(21일)에 준인이 씨름하는 것을 서쪽 느티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6월 정축삭 기묘(3일)에 대부와 알자를 보내어 왕경 및 4기내(四畿內)의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올렸다. 임진(16일)에 여러 신료 가운데 나이 80세 이상 및 고질병자에게 물건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갑오(18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임인(26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가을 7월 병오삭 무진(23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신미(26일)에 신라에 보낼 사자 직광사 소야조신모야(小野朝臣毛野; 오노노아소미케노)¹⁸⁷와 무대이 이길련박덕(伊吉連博德; 이키노무라지하카토

중국 측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상대국은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 기사는 중국의 화이사상을 모방한 것으로 『日本書紀』 편찬시 신라를 번국으로 보려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생각된다.

186 현재 鹿兒島縣의 種子島로 율령국가의 중앙조정에서는 미개종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7 推古天皇 15년(607)에 견수사로 파견된 小野妹子의 孫으로 文武天皇 4년(700) 10월

코)¹⁸⁸ 등에게 물건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8월 병자삭 기해(24일)에 길야에 행차하였다. 을사(30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9월 을사삭 무신(4일)에 옥중의 죄인을 방면하였다. 경술(6일)에 소야조신모야(小野朝臣毛野) 등이 신라로 출발하였다.

10월 을해삭 을유(11일)에 토전(菟田; 우다)의 길은(吉隱; 요나바리)에 행차하였다. 병술(12일)에 길은에서 돌아왔다.

12월 갑술삭 무인(5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술(13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정대사 박뢰왕(泊瀨王; 하츠세노오호키미)에게 부물을 주었다.

10년 봄 정월 갑진삭 경술(7일)에 공경대부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갑인(11일)에 백제왕남전(百濟王南典)¹⁸⁹에게 직대사의 관위를 주었다. 무오(15일)에 땀감을 바쳤다. 기미(16일)에 공경, 백료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신유(18일)에 남문에서 공경, 백료의 대사(大射) 의식이 거행되었다.

2월 계유삭 을해(3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을유(13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3월 계묘삭 을사(3일)에 이규궁(二槻宮; 후타츠키노미야)에 행차하였다. 갑인(12일)에 월(越)의 도도(度嶋; 와타리노시마) 하이(蝦夷) 이내리무지(伊奈理武志; 이나리무시)와 숙신(肅愼)의 지량수예초(志良守叡草; 시라스에사우)에게 솜 의복, 적감색 비단[緋紺繩], 도끼 등을 주었다.

여름 4월 임신삭 신사(10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

에 筑紫大弐가 되고, 大寶 2년(702) 5월에 參議가 된다. 慶雲 2년(705) 11월에는 中務卿, 和銅 원년(708) 3월에는 中納言에 오른다. 和銅 7년(714) 4월 15일에 사망한다.

188 『日本書紀』 孝德天皇 5년 2월조 참조.

189 『日本書紀』 持統天皇 5년 정월조 참조.

사지내게 하였다. 무술(27일)에 이예국(伊豫國) 풍속군(風速郡; 카자하야노코호리) 사람 물부약(物部藥; 모노노베노쿠스리)과 비후국(肥後國; 히노미치노시리노쿠니) 피석군(皮石郡; 카하시노코호리) 사람 임생제석(壬生諸石; 미부노모로시)에게 추대이(追大貳)의 관위를 주었다. 아울러 각각 거친 비단 4필과 실 10구(鉤), 삼베 20단, 가래 20구(口), 벼 1천 속, 논 4정을 주었다. 호의 조역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오랫동안 당나라 땅에서 고생한 일을 위로하였다¹⁹⁰. 기해(28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5월 임인삭 갑진(3일)에 대금상(大錦上) 진조강수(秦造綱手; 하다노미야즈코츠나)에게 기촌(忌寸; 이미키) 성을 하사하였다. 을사(4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기유(8일)에 미장숙네대우(尾張宿禰大隅; 오히리노스쿠네오호스미)에게 직광사의 관위를 수여하였다. 아울러 논 40정(町)을 하사하였다. 갑인(13일)에 대박련백지(大狛連百枝; 오호코마노무라지모모에)에게 직광사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부물을 하사하였다.

6월 신미삭 무자(18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병신(26일)에 길야에서 돌아왔다.

가을 7월 신축삭(1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인(2일)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무신(8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대기신과 용전풍신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경술(10일)에 후황자존(後皇子尊)¹⁹¹이 죽었다(薨).

8월 경오삭 갑오(25일)에 다신품치(多臣品治; 오호노오미호무지)에게 직광일의 관위를 내리고, 아울러 물건을 하사하였다. 처음부터 모신 공로와 굳게 관문을 지킨 일을 현상한 것이다¹⁹².

190 백제부흥전쟁 때 왜군으로 참전했다가 당의 포로가 된 후 귀국한 사실을 말한다.

191 天武천황의 황자인 高市皇子, 황태자인 草壁황자의 사후 태정대신이 된 高市황자를 後皇子尊이라고 하였다.

192 임신의 난 때 大海人皇子(天武天皇) 측에서 처음부터 싸운 일을 말한다.

9월 경자삭 갑인(15일)에 약앵부조신오백뢰(若櫻部朝臣五百瀨; 와카사쿠라베노 아소미이호세)에게 직대일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부물을 하사하였다. 처음부터 따라 모신 공로를 현창한 것이다.

겨울 10월 기사삭 을유(17일)에 우대신 단비진인(丹比真人; 다지히노마히토)에게 가마와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이는 관직에서 물러난 것을 위로한 것이다. 경인(22일)에 정광삼 우대신 단비진인에게 자인(資人)¹⁹³ 120인을 주었다. 정광사 대납언 아배조신어주인(阿倍朝臣御主人; 아헤노아소미미누시)과 대반숙네어 행에게는 각각 80인을 주었다. 직광일 석상조신마(石上朝臣麿)와 직광이 등원조신불비등(藤原朝臣不比等; 후지하라노아소미후히토)에게는 각각 50인을 주었다

11월 기해삭 무신(10일)에 대관대사(大官大寺)의 사문 변통(弁通)에게 식복 30호를 주었다.

12월 기사삭(1일)에 칙지로 금광명경을 읽게 하였기 때문에 매년 12월 말 일에 행실이 깨끗한 10인을 출가시켰다.

11년 봄 정월 갑진(7일)에 공경대부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무신(11일)에 나라 안의 부인과 지아비를 잃은 자, 독거자, 고질병자, 가난하여 자활이 어려운 자에게 벼를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계축(16일)에 공경백료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2월 정묘삭 갑오(28일)에 직광일 당마진인국견(當麻真人國見; 타기마노마히토 쿠니)을 동궁대부(東宮大傅)¹⁹⁴로 삼았다. 직광삼 노진인적견(路真人跡見; 미치노 마히토토미)을 춘궁대부(春宮大夫)¹⁹⁵로 삼았다. 직대사 거세조신속지(巨勢朝臣粟

193 율령제하의 5위 이상, 혹은 대납언 이상의 고위관료들에게 하사한 從者인데, 율령제 시행 전의 속에서 분화되었다.

194 율령제하에서 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인이다.

195 東宮을 관리하는 春宮坊의 장관이다.

持 ; 코세노아소미야하모치)를 차관으로 삼았다.

3월 정유삭 갑진(8일)에 무차대회를 춘궁(春宮)에서 열었다.

여름 4월 병인삭 기사(4일)에 만선자(滿選者)¹⁹⁶에게 정위(淨位)에서 직위(直位)까지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임신(7일)에 길야궁에 행차하였다. 기묘(14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와 용전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이 날 길야에서 돌아왔다.

5월 병신삭 계묘(8일)에 대부와 알자를 보내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6월 병인삭 정묘(2일)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신미(6일)에 조하여 경기(京畿)의 여러 절에서 경을 읽게 하였다. 신사(16일)에 5위 이상을 보내어 왕경의 절을 청소하게 하였다. 갑신(19일)에 폐백을 신기(神祇)에게 나누어 바쳤다. 신묘(26일)에 공경백료가 처음으로 천황의 병을 위해 발원한 불상을 만들었다. 계묘에 대부와 알자를 보내 제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가을 7월 을미삭 신축(7일)의 야밤에 상습 도적 109인을 사면하였다. 이들에게 각각 삼베 4상(常)을 주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각각 벼 20속을 주었다. 병오(12일)에 사자를 보내 광뢰와 용전에게 제사지냈다. 계해(29일)에 공경백료가 불상의 개안회를 약사사(藥師寺)에서 열었다.

8월 을축삭(1일)에 천황이 궁중에서 방침[策]을 정하여 황태자에게 천황의 자리를 양위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30

196 6년을 기한으로 해서 출근일수를 9등급으로 나뉘 4등 이상은 6년째에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상위의 관위를 주는 것으로, 滿選者는 6년을 채운 자를 말한다.

高天原廣野姬天皇 持統天皇

高天原廣野姬天皇，少名鷗野讚良皇女，天命開別天皇第二女也，母曰遠智娘[更名美濃津子娘也]，天皇深沈有大度，天豐財重日足姬天皇三年，適天淳中原瀛真人天皇爲妃，雖帝王女，而好禮節儉，有母儀德，天命開別天皇元年，生草壁皇子尊於大津宮。

十年十月，從沙門天淳中原瀛真人天皇，入於吉野，避朝猜忌，語在天命開別天皇紀。

天淳中原瀛真人天皇元年夏六月，從天淳中原瀛真人天皇，避難東國，鞠旅會衆，遂與定謀，廼分命敢死者數萬，置諸要害之地。

秋七月，美濃軍將等與大倭桀豪，共誅大友皇子，傳首詣不破宮。

二年，立爲皇后，皇后從始迄今，佐天皇定天下，每於侍執之際，輒言及政事，多所毘補。

朱鳥元年九月戊戌朔丙午，天淳中原瀛真人天皇崩，皇后臨朝稱制。

冬十月戊辰朔己巳，皇子大津謀反發覺，逮捕皇子大津，并捕爲皇子大津所誣誤直廣肆八口朝臣音櫛·小山下壹伎連博德，與大舍人中臣朝臣臣麻呂·巨勢朝臣多益須·新羅沙門行心，及帳內礪杵道作等，卅餘人，庚午，賜死皇子大津於譯語田舍，時年廿四，妃皇女山邊，被髮徒跣，奔赴殉焉，見者皆歔歔，皇子大

津，天淳中原瀛真人天皇第三子也。容止牆岸，音辭俊朗。爲天命開別天皇所愛。及長辨有才學，尤愛文筆。詩賦之興，自大津始也。丙申，詔曰，皇子大津謀反，誅誤吏民帳內不得已。今皇子大津已滅，從者當坐皇子大津者，皆赦之。但礪杵道作流伊豆。又詔曰，新羅沙門行心，與皇子大津謀反，朕不忍加法。徙飛驒國伽藍。

十一月丁酉朔壬子，奉伊勢神祠皇女大來，還至京師。癸丑，地震。

十二月丁卯朔乙酉，奉爲天淳中原瀛真人天皇，設無遮大會於五寺，大官·飛鳥·川原·小墾田豐浦·坂田。壬辰，賜京師孤獨高年布帛，各有差。

閏十二月，筑紫大宰獻三國高麗·百濟·新羅百姓男女，并僧尼六十二人。

是歲，蛇犬相交。俄而俱死。

元年 春正月丙寅朔，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適殯宮而慟哭焉。納言布勢朝臣御主人誅之。禮也。誅畢衆庶發哀。次梵衆發哀。於是，奉膳紀朝臣真人等奉奠。奠畢，膳部采女等發哀。樂官奏樂。庚午，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適殯宮而慟哭焉。梵衆隨而發哀。庚辰，賜京師年自八十以上，及篤癯，貧不能自存者絀綿，各有差。甲申，使直廣肆田中朝臣法麻呂與追大貳守君荊田等，使於新羅，赴天皇喪。

三月乙丑朔己卯，以投化高麗五十六人，居于常陸國。賦田受稟，使安生業。甲申，以花縵進于殯宮。比曰御蔭。是日，丹比真人麻呂誅之。禮也。丙戌，以投化新羅十四人，居于下毛野國。賦田受稟，使安生業。

夏四月甲午朔癸卯，筑紫大宰獻投化新羅僧尼及百姓男女廿二人，居于武藏國。賦田受稟，使安生業。

五月甲子朔乙酉，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適殯宮而慟哭焉。於是，隼人大隅阿多魁帥，各領已衆，互進誅焉。

六月癸巳朔庚申，赦罪人。

秋七月癸亥朔甲子，詔曰，凡負債者，自乙酉年以前物，莫收利也。若既役身者，不得役利。辛未，賞賜隼人大隅阿多魁帥等三百卅七人，各有差。

八月壬辰朔丙申，嘗于殯宮。此曰御青飯也。丁酉，京城耆老男女，皆臨慟哭於橋西。己未，天皇使直大肆藤原朝臣大嶋·直大肆黃書連大伴，請集三百龍象大德等於飛鳥寺，奉施袈裟。人別一領。曰，此以天淳中原瀛真人天皇御服所縫作也。詔詞酸割，不可具陳。

九月壬戌朔庚午，設國忌齋於京師諸寺。辛未，設齋於殯宮。甲申，新羅遣王子金霜林·級浪金薩慕及級浪金仁述·大舍蘇陽信等，奏請國政，且獻調賦。學問僧智隆附而至焉。筑紫大宰，便告天皇崩於霜林等。即日，霜林等，皆着喪服，東向三拜，三發哭焉。

冬十月辛卯朔壬子，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并諸國司國造及百姓男女，始築大內陵。

十二月辛卯朔庚子，以直廣參路真人迹見，爲饗新羅勅使。

是年也，大歲丁亥。

二年 春正月庚申朔，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適殯宮而慟哭焉。辛酉，梵衆發哀於殯宮。丁卯，設無遮大會於藥師寺。壬午，以天皇崩，奉宣新羅金霜林等，金霜林等，乃三發哭。

二月庚寅朔辛卯，大宰獻新羅調賦，金銀絹布，皮銅鐵之類十餘物，并別所獻佛像，種種彩絹·鳥馬之類十餘種，及霜林所獻金銀彩色·種種珍異之物，并八十餘物。己亥，饗霜林等於筑紫館。賜物各有差。乙巳，詔曰，自今以後，每取國忌日，要須齋也。戊午，霜林等罷歸。

三月己未朔己卯，以花縵進于殯宮。藤原朝臣大嶋誅焉。

五月戊午朔乙丑，以百濟敬須德那利，移甲斐國。

六月戊子朔戊戌，詔，令天下，繫囚極刑，減本罪一等。輕繫皆赦除之。其令

天下皆半入今年調賦.

秋七月丁巳朔丁卯, 大雩. 旱也. 丙子, 命百濟沙門道藏請雨. 不崇朝, 遍雨天下.

八月丁亥朔丙申, 嘗于殯宮, 而慟哭焉. 於是, 大伴宿禰安麻呂誅焉. 丁酉, 命淨大肆伊勢王, 奉宣葬儀. 辛亥,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九月丙辰朔戊寅, 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冬十一月乙卯朔戊午, 皇太子率公卿百寮人等與諸蕃賓客, 適殯宮而慟哭焉. 於是, 奉奠, 奏楮節舞. 諸臣各舉己先祖等所仕狀, 遞進誄焉. 己未, 蝦夷百九十餘人, 負荷調賦而誄焉. 乙丑, 布勢朝臣御主人·大伴宿禰御行, 遞進而誄. 直廣肆當麻真人智德, 奉誄皇祖等之騰極次第. 禮也. 古云日嗣也. 畢葬于大內陵.

十二月乙酉朔丙申, 饗蝦夷男女二百一十三人於飛鳥寺西槻下. 仍授冠位, 賜物各有差.

三年 春正月甲寅朔, 天皇朝萬國于前殿. 乙卯, 大學寮獻杖八十枚. 丙辰, 務大肆陸奧國優嶮¹曇郡城養蝦夷脂利古男, 麻呂與鐵折, 請剔鬢髮爲沙門. 詔曰, 麻呂等, 少而閑雅寡欲, 遂至於此, 蔬食持戒, 可隨所請, 出家修道. 庚申, 宴公卿賜袍袴. 辛酉, 遣新羅使人田中朝臣法麻呂等, 還自新羅. 壬戌, 詔出雲國司, 上送遭值風浪蕃人. 是日, 賜越蝦夷沙門道信, 佛像一軀, 灌頂幡·鍾鉢各一口, 五色綵各五尺, 綿五屯, 布一十端, 鍬一十枚, 鞍一具. 筑紫大宰粟田真人朝臣等, 獻隼人一百七十四人, 并布五十常, 牛皮六枚, 鹿皮五十枚. 戊辰, 文武官人進薪. 己巳, 賜百官人等食. 辛未, 天皇幸吉野宮. 甲戌, 天皇至自吉野宮.

二月甲申朔丙申, 詔, 筑紫防人, 滿年限者替. 己酉, 以淨廣肆竹田王·直廣肆土師宿禰根麻呂·大宅朝臣麻呂·藤原朝臣史·務大肆當麻真人櫻井, 與²穗

1 소학관본에서는 ‘嚙’라고 적고 있다.

積朝臣山守·中臣朝臣臣麻呂·巨勢朝臣多益須·大三輪朝臣安麻呂，爲判事。

三月癸丑朔丙子，大赦天下。唯常赦所不免，不在赦例。

夏四月癸未朔庚寅，以投化新羅人，居于下毛野。乙未，皇太子草壁皇子尊薨。壬寅，新羅遣級浪金道那等，奉弔瀛真人天皇喪，并上送學問僧明聰·觀智等。別獻金銅阿彌陀像·金銅觀世音菩薩像·大勢至菩薩像，各一軀，綵帛錦綾。甲辰，春日王薨。己酉，詔，諸司仕丁，一月放假四日。

五月癸丑朔甲戌，命土師宿禰根麻呂，詔新羅弔使級浪金道那等曰，太正官卿等，奉勅奉宣，二年，遣田中朝臣法麻呂等，相告大行天皇喪。時新羅言，新羅奉勅人者，元來用蘇判位。今將復爾。由是，法麻呂等，不得奉宣赴告之詔。若言前事者，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崩時，遣巨勢稻持等，告喪之日，翳浪金春秋奉勅。而言用蘇判奉勅，卽違前事也。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崩時，遣一吉浪金薩儒等奉弔。而今以級浪奉弔，亦違前事。又新羅元來奏云，我國，自日本遠皇祖代，並舳舻不干楫，奉仕之國。而今一艘，亦乖故典也。又奏云，自日本遠皇祖代，以清白心仕奉，而不惟竭忠宣揚本職，而傷清白，詐求幸媚。是故，調賦與別獻，並封以還之。然自我國家遠皇祖代，廣慈汝等之德，不可絕之。故彌勤彌謹，戰戰兢兢，修其職任，奉遵法度者，天朝復益廣慈耳。汝道那等，奉斯所勅，奉宣汝王。

六月壬午朔，賜衣裳筑紫大宰等。癸未，以皇子施基·直廣肆佐味朝臣宿那麻呂·羽田朝臣齊[齊，此云牟五閉。]·勤廣肆伊余部連馬飼·調忌寸老人，務大參大伴宿禰手拍與巨勢朝臣多益須等，拜撰善言司。庚子，賜大唐續守言·薩弘恪等稻。各有差。辛丑，詔筑紫大宰粟田真人朝臣等，賜學問僧明聰·觀智等，爲送新羅師友綿各一百四十斤。乙巳，於筑紫小郡，設新羅弔使金道那等，賜物各有差。庚戌，班賜諸司令一部廿二卷。

秋七月壬子朔，付賜陸奧蝦夷沙門自得，所請金銅藥師佛像·觀世音菩薩像。

2 소학관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各一軀，鍾·娑羅·寶帳·香爐·幡等物。是日，新羅弔使金道那等罷歸。丙寅，詔左右京職及諸國司，築習射所。辛未，流僞兵衛河內國澁川郡人柏原廣山于土左國，以追廣參，授捉僞兵衛廣山兵衛生部連虎。甲戌，賜越蝦夷八釣魚等，各有差[魚，此云雛.]。

秋八月辛巳朔壬午，百官會集於神祇官，而奉宣天神地祇之事。甲申，天皇幸吉野宮。丙申，禁斷漁獵，於攝津國武庫海一千步內，紀伊國阿提郡那耆野二萬頃，伊賀國伊賀郡身野二萬頃，置守護人，准河內國大鳥郡高脚海。丁酉，賞賜公卿，各有差。辛丑，詔伊豫總領田中朝臣法麻呂等曰，讚吉國御城郡所獲白鷺³，宜放養焉。癸卯，觀射。

閏八月辛亥朔庚申，詔諸國司曰，今冬，戶籍可造，宜限九月，糺捉浮浪，其兵士者，每於一國，四分而點其一，令習武事。丁丑，以淨廣肆河內王，爲筑紫大宰師，授兵仗及賜物，以直廣壹，授直廣貳丹比真人嶋，增封一百戶通前。

九月庚辰朔己丑，遣直廣參石上朝臣麻呂·直廣肆石川朝臣蟲名等於筑紫，給送位記，且監新城。

冬十月庚戌朔庚申，天皇幸高安城。辛未，直廣肆下毛野朝臣子麻呂，奏欲免奴婢陸佰口，奏可。

十一月己卯朔丙戌，於中市，褒美追廣貳高田首石成之閑於三兵賜物。

十二月己酉朔丙辰，禁斷雙六。

四年 春正月戊寅朔，物部麻呂朝臣樹大盾，神祇伯中臣大嶋朝臣讀天神壽詞，畢忌部宿禰色夫知奉上神璽劍鏡於皇后，皇后卽天皇位，公卿百寮，羅列匝拜，而拍手焉。己卯，公卿百寮，拜朝如元會儀。丹比嶋真人與布勢御主人朝臣，奏賀騰極。庚辰，宴公卿於內裏，仍賜衣裳。壬辰，百寮進薪。甲午，大赦天下，唯

3 소학관본에서는 ‘鷺’이라고 적고 있다.

常赦所不免，不在赦例。賜有位人爵一級。鰥寡孤獨篤癯貧不能自存者，賜稻蠲服調役。丁酉，以解部一百人，拜刑部省。庚子，班幣於畿內天神地祇，及增神戶田地。

二月戊申朔壬子，天皇幸于腋上陂，觀公卿大夫之馬。戊午，新羅沙門詮吉·級瀨北助知等五十人歸化。甲子，天皇幸吉野宮。丙寅，設齋於內裏。壬申，以歸化新羅韓奈末許滿等十二人，居于武藏國。

三月丁丑朔丙申，賜京與畿內人，年八十以上者，嶋宮稻人廿束。其有位者，加賜布二端。

夏四月丁未朔己酉，遣使祭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癸丑，賜京與畿內耆老耆女，五千卅一人，稻人廿束。庚申，詔曰，百官人及畿內人，有位者限六年，無位者限七年。以其上日，選定九等，四等以上者，依考仕令，以其善最功能，氏姓大小，量授冠位。其朝服者，淨大壹已下，廣貳已上黑紫，淨大參已下，廣肆已上赤紫，正八級赤紫，直八級緋，勤八級深綠，務八級淺綠，追八級深縹，進八級淺縹，別淨廣貳已上，一富一部之綾羅等，種種聽用。淨大參已下，直廣肆已上，一富二部之綾羅等，種種聽用。上下通用綺帶白袴。其餘者如常。戊辰，始祈雨於所所。旱也。

五月丙子朔戊寅，天皇幸吉野宮。乙酉，百濟男女廿一人歸化。庚寅，於內裏始安居講說。

六月丙午朔辛亥，天皇幸泊瀨。庚午，盡召有位者，唱知位次與年齒。

秋七月丙子朔，公卿百寮人等，始着新朝服。戊寅，班幣於天神地祇。庚辰，以皇子高市，爲太政大臣，以正廣參，授丹比嶋真人，爲右大臣。并八省百寮，皆遷任焉。辛巳，大宰·國司，皆遷任焉。壬午，詔，令公卿百寮，凡有位者，自今以後，於家內着朝服，而參上未開門以前，蓋昔者到宮門而着朝服乎。甲申，詔曰，凡朝堂座上，見親王者如常。大臣與王，起立堂前，二王以上，下座而跪。己丑，詔曰，朝堂座上，見大臣，動坐而跪。是日，以絁絲綿布，奉施七寺安居沙

門, 三千三百六十三, 別爲皇太子, 奉施於三寺安居沙門, 三百廿九, 癸巳, 遣使者, 祭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八月乙巳朔戊申, 天皇幸吉野宮,

乙卯, 以歸化新羅人等, 居于下毛野國,

九月乙亥朔, 詔諸國等曰, 凡造戶籍者, 依戶令也, 乙酉, 詔曰, 朕將巡行紀伊之, 故勿收今年京師田租口賦, 丁亥, 天皇幸紀伊, 丁酉, 大唐學問僧智宗·義德·淨願, 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 從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 還至筑紫, 戊戌, 天皇至自紀伊,

冬十月甲辰朔戊申, 天皇幸吉野宮, 癸丑, 大唐學問僧智宗等, 至于京師, 戊午, 遣使者, 詔筑紫大宰河內王等曰, 饗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 准上送學生土師宿禰甥等送使之例, 其慰勞賜物, 一依詔書, 乙丑, 詔軍丁筑紫國上陽咩郡人大伴部博麻曰, 於天豐財重日足姬天皇七年, 救百濟之役, 汝爲唐軍見虜, 洎天命開別天皇三年, 土師連富杼·氷連老·筑紫君薩夜麻·弓削連元寶兒, 四人, 思欲奏聞唐人所計, 緣無衣糧⁴, 憂不能達, 於是, 博麻謂土師富杼等曰, 我欲共汝, 還向本朝, 緣無衣糧⁵, 俱不能去, 願賣我身, 以充衣食, 富杼等, 依博麻計, 得通天朝, 汝獨淹滯他界, 於今卅年矣, 朕嘉厥尊朝愛國, 賣己顯忠, 故賜務大肆, 并絕五匹·綿一十屯·布卅端·稻一千束·水田四町, 其水田及至曾孫也, 免三族課役, 以顯其功, 壬申, 高市皇子觀藤原宮地, 公卿百寮從焉,

十一月甲戌朔庚辰, 賞賜送使金高訓等, 各有差, 甲申, 奉勅始行元嘉曆與儀鳳曆,

十二月癸卯朔乙巳, 送使金高訓等罷歸, 甲寅, 天皇幸吉野宮, 丙辰, 天皇至自吉野宮, 辛酉, 天皇幸藤原觀宮地, 公卿百寮皆從焉, 乙丑, 賞賜公卿以下, 各

4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有差.

五年 春正月癸酉朔，賜親王・諸臣・內親王・女王・內命婦等位。己卯，賜公卿飲食衣裳，優賜正廣肆百濟王余禪廣・直大肆遠寶・良虞與南典，各有差。乙酉，增封，皇子高市二千戶，通前三千戶。淨廣貳皇子穗積五百戶。淨大參皇子川嶋百戶，通前五百戶。正廣參右大臣丹比嶋真人三百戶，通前五百戶。正廣肆百濟王禪廣百戶，通前二百戶。直大壹布勢御主人朝臣與大伴御行宿禰八十戶，通前三百戶。其餘增封，各有差。丙戌，詔曰，直廣肆筑紫史益，拜筑紫大宰府典以來，於今廿九年矣。以清白忠誠，不敢怠惰。是故，賜食封五十戶・絁十五匹・綿廿五屯・布五十端・稻五千束。戊子，天皇幸吉野宮。乙未，天皇至自吉野宮。

二月壬寅朔，天皇詔公卿等曰，卿等，於天皇世，作佛殿經藏，行月六齋。天皇時時遣大舍人問訊。朕世亦如之。故當勤心，奉佛法也。是日，授宮人位記。

三月壬申朔甲戌，宴公卿於西廳。丙子，天皇觀公私馬於御苑。癸巳，詔曰，若有百姓弟爲兄見賣者，從良。若子爲父母見賣者，從賤。若准貸倍沒賤者，從良。其子雖配奴婢所生，亦皆從良。

夏四月辛丑朔，詔曰，若氏祖時所免奴婢，既除籍者，其眷族等，不得更訟，言我奴婢。賜大學博士上村主百濟大稅一千束，以勸其學業也。辛亥，遣使者祭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丙辰，天皇幸吉野宮。壬戌，天皇至自吉野宮。

五月辛未朔辛卯，褒美百濟淳武微子壬申年功，賜直大參，仍賜絁布。

六月，京師及郡國冊，雨水。戊子，詔曰，此夏陰雨過節，懼必傷稼，夕惕迄朝憂懼，思念厥愆，其令公卿百寮人等，禁斷酒食，攝心悔過。京及畿內諸寺梵衆，亦當五日誦經，庶有補焉。自四月雨，至于是月。己未，大赦天下。但盜賊不在赦例。

秋七月庚午朔壬申，天皇幸吉野宮。是日，伊豫國司田中朝臣法麻呂等獻宇和郡御馬山白銀三斤八兩・鈔一籠。丙子，宴公卿。仍賜朝服。辛巳，天皇至自吉

野。甲申，遣使者祭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八月己亥朔辛亥，詔十八氏[大三輪·雀部·石上·藤原·石川·巨勢·膳部·春日·上毛野·大伴·紀伊·平群·羽田·阿倍·佐伯·采女·穗積·阿曇。]上進其祖等墓記。辛酉，遣使者祭龍田風神，信濃須波·水內等神。

九月己巳朔壬申，賜音博士大唐續守言·薩弘恪，書博士百濟末士善信，銀人廿兩。丁丑，淨大參皇子川嶋薨。辛卯，以直大貳，贈佐伯宿禰大目，并賜賻物。

冬十月戊戌朔，日有蝕之。乙巳，詔曰，凡先皇陵戶者，置五戶以上，自餘王等，有功者置三戶。若陵戶不足，以百姓充，免其徭役。三年一替。庚戌，畿內及諸國，置長生地，各一千步。是日，天皇幸吉野宮。丁巳，天皇至自吉野。甲子，遣使者鎮祭新益京。

十一月戊辰，大嘗。神祇伯中臣朝臣大嶋讀天神壽詞。壬辰，賜公卿袞。乙未，饗公卿以下至主典，并賜絹等，各有差。丁酉，饗神祇官長上以下，至神部等，及供奉播磨因幡國郡司以下，至百姓男女，并賜絹等，各有差。

十二月戊戌朔己亥，賜醫博士務大參德自珍·呪禁博士木素丁武·沙宅萬首，銀人廿兩。乙巳，詔曰，賜右大臣宅地四町，直廣貳以上二町，大參以下一町，勤以下至無位，隨其戶口，其上戶一町，中戶半町，下戶四分之一，王等亦准此。

六年 春正月丁卯朔庚午，增封皇子高市二千戶，通前五千戶。癸酉，饗公卿等，仍賜衣裳。戊寅，天皇觀新益京路。壬午，饗公卿以下，至初位以上。癸巳，天皇幸高宮。甲午，天皇至自高宮。

二月丁酉朔丁未，詔諸官曰，當以三月三日，將幸伊勢。宜知此意，備諸衣物。賜陰陽博士沙門法藏·道基銀廿兩。乙卯，詔刑部省，赦輕繫。是日中納言直大貳三輪朝臣高市麻呂，上表敢直言，諫爭天皇，欲幸伊勢，妨於農時。

三月丙寅朔戊辰，以淨廣肆廣瀨王·直廣參當摩⁶真人智德·直廣肆紀朝臣弓張等，爲留守官。於是，中納言三輪朝臣高市麻呂，脫其冠位，擎上於朝，重諫

曰，農作之節，車駕未可以動。辛未，天皇不從諫，遂幸伊勢。壬午，賜所過神郡，及伊賀·伊勢·志摩國造等冠位，并免今年調役，復免供奉騎士·諸司荷丁·造行宮丁今年調役，大赦天下，但盜賊不在赦例。甲申，賜所過志摩百姓，男女年八十以上，稻人五十束。乙酉，車駕還宮，每所⁷到行，輒會郡縣吏民，務勞賜作樂。甲午，詔免近江·美濃·尾張·參河·遠江等國供奉騎士戶，及諸國荷丁·造行宮丁今年調役，詔令天下百姓，困乏窮者稻，男三束，女二束。

夏四月丙申朔丁酉，贈大伴宿禰友國直大貳，并賜賻物。庚子，除四畿內百姓，爲荷丁者，今年調役。甲寅，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丙辰，賜有位親王以下，至進廣肆，難波大藏鑒，各有差。庚申，詔曰，凡繫囚見徒，一皆原散。

五月乙丑朔庚午，御阿胡行宮時，進贊者紀伊國牟婁郡人阿古志海部河瀨麻呂等，兄弟三戶，服十年調役·雜徭，復免挾抄八人，今年調役。辛未，相摸國司，獻赤鳥鸕⁸二隻。言，獲於御浦郡。丙子，幸吉野宮。庚辰，車駕還宮。辛巳，遣大夫謁者，祠名山岳瀆請雨。甲申，贈文忌寸智德直大壹，并賜賻物。丁亥，遣淨廣肆難波王等，鎮祭藤原宮地。庚寅，遣使者，奉幣于四所，伊勢·大倭·住吉·紀伊大神，告以新宮。

閏五月乙未朔丁酉，大水，遣使循行郡國，稟貸災害不能自存者，令得漁採山林池澤，詔令京師及四畿內，講說金光明經。戊戌，賜沙門觀成，絁十五匹·綿卅屯·布五十端，美其所造鉛粉。丁未，伊勢太神奏天皇曰，免伊勢國今年調役，然應輸其二神郡，赤引絲參拾伍斤，於來年，當折其代。己酉，詔筑紫大宰率河內王等曰，宜遣沙門於大隅與阿多，可傳佛教，復上送大唐大使郭務悰，爲御近江天津宮天皇所造阿彌陀像。

6 소학관본에서는 ‘麻’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8 소학관본에서는 ‘雛’라고 적고 있다.

六月甲子朔壬申，勅郡國長吏，各禱名山岳瀆。甲戌，遣大夫謁者，詣四畿內，請雨。甲申，賜直丁八人官位。美其造大內陵時，勤而不懈。癸巳，天皇觀藤原宮地。

秋七月甲午朔乙未，大赦天下。但十惡·盜賊，不在赦例。賜相模國司布勢朝臣色布智等·御浦郡少領[闕姓名]與獲赤烏者鹿嶋臣橡樟，位及祿。服御浦郡三年調役。庚子，宴公卿。壬寅，幸吉野宮。甲辰，遣使者，祀廣瀨與龍田。辛酉，車駕還宮。是夜，熒惑與歲星，於一步內，乍光乍沒，相近相避四遍。

八月癸亥朔乙丑，赦罪。己卯，幸飛鳥皇女田莊。即日還宮。

九月癸巳朔辛丑，遣班田大夫等於四畿內。丙午，神祇官奏上神寶書四卷·鑰九箇·木印一箇。癸丑，伊勢國司獻嘉禾二本。越前國司獻白蛾。戊午，詔曰，獲白蛾於角鹿郡浦上之濱，故增封筭飯神廿戶，通前。

冬十月壬戌朔壬申，授山田史御形務廣肆。前爲沙門，學問新羅。癸酉，幸吉野宮。庚辰，車駕還宮。

十一月辛卯朔戊戌，新羅遣級浪朴億德·金深薩等進調。賜擬遣新羅使直廣肆息長眞人老·務大貳川內忌寸連等祿，各有差。辛丑，饗祿新羅朴億德於難波館。

十二月辛酉朔甲戌，賜音博士續守言·薩弘恪水田。人四町。甲申，遣大夫等，奉新羅調於五社，伊勢·住吉·紀伊·大倭·菟名足。

七年 春正月辛卯朔壬辰，以淨廣壹授皇子高市。淨廣貳授皇子長與皇子弓削。是日，詔令天下百姓，服黃色衣。奴皐衣。丁酉，饗公卿大夫等。癸卯，賜京師及畿內，有位年八十以上，人衾一領·繩二匹·綿二屯·布四端。乙巳，以正廣參，贈百濟王善光。并賜賻物。丙午，賜京師男女，年八十以上，及困乏窮者布，各有差。賜船瀨沙門法鏡水田三町。是日，漢人等，奏蹈歌。

二月庚申朔壬戌，新羅遣沙浪金江南·韓奈麻金陽元等，來赴王喪。己巳，詔

造京司衣縫王等，收所掘尸。己丑，以流來新羅人牟自毛禮等卅七人，付賜億德等。

三月庚寅朔，日有蝕之。甲午，賜大學博士勤廣貳上村主百濟，食封卅戶，以優儒道。乙未，幸吉野宮。庚子，賜直大貳葛原朝臣大嶋賻物。壬寅，天皇至自吉野宮。乙巳，賜擬遣新羅使直廣肆息長真人老·勤大貳大伴宿禰子君等，及學問僧辨通·神叡等，絕綿布，各有差。又賜新羅王賻物。丙午，詔，令天下，勸殖桑紵梨栗蕪菁等草木，以助五穀。

夏四月庚申朔丙子，遣大夫謁者，詣諸社祈雨。又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辛巳，詔，內藏寮允大伴男人坐贓，降位二階，解見任官。典鑰置始多久與菟野大伴，亦坐贓，降位一階，解見任官。監物巨勢巳治，雖物不入於己，知情令盜之。故降位二階，解見任官。然置始多久，有勤勞於壬申年役之，故赦之。但贓者依律徵納。

五月己丑朔，幸吉野宮。乙未，天皇至自吉野宮。癸卯，設無遮大會於內裏。

六月己未朔，詔高麗沙門福嘉還俗。壬戌，以直廣肆，授引田朝臣廣目·守君荻田·巨勢朝臣麻呂·葛原朝臣臣麻呂·巨勢朝臣多益須·丹比真人池守·紀朝臣麻呂，七人。

秋七月戊子朔甲午，幸吉野宮。己亥，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辛丑，遣大夫謁者，詣諸社祈雨。癸卯，遣大夫謁者，詣諸社請雨。是日，天皇至自吉野。

八月戊午朔，幸藤原宮地。甲戌，幸吉野宮。戊寅，車駕還宮。

九月丁亥朔，日有蝕之。辛卯，幸多武嶺。壬辰，車駕還宮。丙申，爲清御原天皇，設無遮大會於內裏。繫囚悉原遣。壬寅，以直廣參，贈蚊屋忌寸木間，并賜賻物，以褒壬申年之役功。

冬十月丁巳朔戊午，詔，自今年，始於親王，下至進位，觀所儲兵。淨冠至直冠，人甲一領·大刀一口·弓一張·矢一具·鞆一枚·鞍馬。勤冠至進冠，人大刀

一口·弓一張·矢一具·靱一枚，如此預備。己卯，始講仁王經於百國。四日而畢。

十一月丙戌朔庚寅，幸吉野宮。壬辰，賜耽羅王子·佐平等，各有差。乙未，車駕還宮。己亥，遣沙門法員·善往·眞義等，試飲近江國益須郡醴泉。戊申，以直大肆，授直廣肆引田朝臣少麻呂，仍賜食封五十戶。

十二月丙辰朔丙子，遣陣法博士等，教習諸國。

八年 春正月乙酉朔丙戌，以正廣肆，授直大壹布勢朝臣御主人與大伴宿禰御行。增封人二百戶，通前五百戶，並爲氏上。辛卯，饗會卿等。己亥，進御新。庚子，饗百官人等。辛丑，漢人奏請踏⁹歌。五位以上射。壬寅，六位以下射。四日而畢。癸卯，唐人奏踏¹⁰歌。乙巳，幸藤原宮。卽日還宮。丁未，以務廣肆等位，授大唐七人與肅慎二人。戊申，幸吉野宮。

三月甲申朔，日有蝕之。乙酉，以直廣肆大宅朝臣麻呂·勤大貳臺忌寸八嶋·黃書連本實等，拜鑄錢司。甲子，詔曰，凡以無位人，任郡司者，以進廣貳授大領，以進大參授小領。己亥，詔曰，粵以七年歲次癸巳，醴泉涌於近江國益須郡都賀山，諸疾病人，停宿益須寺，而療差者衆，故入水田四町·布六十端，原除益須郡今年調役雜徭。國司頭至日，進位一階。賜其初驗醴泉者，葛野羽衝·百濟土羅羅女，人純二匹·布十端·鍬十口。乙巳，奉幣於諸社。丙午，賜神祇官頭至祝部等，一百六十四人純布，各有差。

夏四月甲寅朔戊午，以淨大肆，贈筑紫大宰率河內王。并賜賻物。庚申，幸吉野宮。丙寅，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丁亥，天皇至自吉野宮。庚午，贈律師道光賻物。

9 소학관본에서는 ‘踏’이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서는 ‘踏’이라고 적고 있다.

五月癸未朔戊子，饗公卿大夫於內裏。癸巳，以金光明經一百部，送置諸國。必取每年，正月上玄讀之。其布施，以當國官物充之。

六月癸丑朔庚申，河內國更荒郡，獻白山鷄。賜更荒郡大領・小領，位人一級。并賜物。以進廣貳，賜獲者刑部造韓國。并賜物。

秋七月癸未朔丙戌，遣巡察使於諸國。丁酉，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八月壬子朔戊辰，爲皇女飛鳥，度沙門一百四口。

九月壬午朔，日有蝕之。乙酉，幸吉野宮。癸卯，以淨廣肆三野王拜筑紫大宰率。

冬十月辛亥朔朔庚午，以進大肆，賜獲白蝙蝠者飛驒國荒城郡弟國部弟日。并賜絁四匹・綿四屯・布十端。其戶課役，限身悉免¹¹。

十一月辛巳朔丙午，赦殊死以下。

十二月庚戌朔乙卯，遷居藤原宮。戊午，百官拜朝。己未，賜親王以下，至郡司等，絁綿布，各有差。辛酉，宴公卿大夫。

九年 春正月庚辰朔甲申，以淨廣貳，授皇子舍人。丙戌，饗公卿大夫於內裏。甲午，進御薪。乙未，饗百官人等。丙申，射。四日而畢。

閏二月己卯朔丙戌，幸吉野宮。癸巳，車駕還宮。

三月戊申朔己酉，新羅遣王子金良琳・補命薩浪朴強國等，及韓奈麻金周漢・金忠仙等，奏請國政。且進調獻物。己未，幸吉野宮。壬戌，天皇至自吉野。庚午，遣務廣貳文忌寸博勢・進廣參下譯語諸田等於多禰，求蠻所居。

夏四月戊寅朔丙戌，遣使者，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甲午，以直廣參，贈賀茂朝臣蝦夷。并賜賻物[本位勤大壹。]以直大肆，贈文忌寸赤麻呂。并賜賻物[本位

¹¹ 소학관본에서는 ‘免’이라고 적고 있다.

大山中.].

五月丁未朔己未, 饗隼人大隅. 丁卯, 觀隼人相撲於西槻下.

六月丁丑朔己卯, 遣大夫謁者, 詣京師及四畿內諸社請雨. 壬辰, 賞賜諸臣年八十以上及痼疾, 各有差. 甲午, 幸吉野宮. 壬寅, 至自吉野.

秋七月丙午朔戊辰, 遣使者, 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辛未, 賜擬遣新羅使直廣肆小野朝臣毛野·務大貳伊吉連博德等物, 各有差.

八月丙子朔己亥, 幸吉野. 乙巳, 至自吉野.

九月乙巳朔戊申, 原放行獄徒繫. 庚戌, 小野朝臣毛野等, 發向新羅.

十月乙亥朔乙酉, 幸菟田吉隱. 丙戌, 至自吉隱.

十二月甲戌朔戊寅, 幸吉野宮. 丙戌, 至自吉野. 賜淨大肆泊瀨王賻物.

十年 春正月甲辰朔庚戌, 饗公卿大夫. 甲寅, 以直大肆, 授百濟王南典. 戊午, 進御薪. 己未, 饗公卿百寮人等. 辛酉, 公卿百寮, 射於南門.

二月癸酉朔乙亥, 幸吉野宮. 乙酉, 至自吉野.

三月癸卯朔乙巳, 幸二槻宮. 甲寅, 賜越度嶋蝦夷伊奈理武志, 與肅慎志良守叡草, 錦袍袴·緋紺繩·斧等.

夏四月壬申朔辛巳, 遣使者, 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戊戌, 以追大貳, 授伊豫國風速郡物部藥, 與肥後國皮石郡壬生諸石. 并賜人繩四匹·絲十鈎·布廿端·鍬廿口. 稻一千束·水田四町. 復戶調役. 以慰久苦唐地. 己亥, 幸吉野宮.

五月壬寅朔甲辰, 詔大錦上秦造綱手, 賜姓爲忌寸. 乙巳, 至自吉野. 己酉, 以直廣肆, 授尾張宿禰大隅. 并賜水田四十町. 甲寅, 以直廣肆, 贈大貳連百枝. 并賜賻物.

六月辛未朔戊子, 幸吉野宮. 丙申, 至自吉野.

秋七月辛丑朔, 日有蝕之. 壬寅, 赦罪人. 戊申, 遣使者, 祀廣瀨大忌神與龍田風神. 庚戌, 後皇子尊薨.

八月庚午朔甲午，以直廣壹，授多臣品治，并賜物。褒美元從之功與堅守關事。
九月庚子朔甲寅，以直大壹，贈若櫻部朝臣五百瀬，并賜賻物，以顯元從之功。
冬十月己巳朔乙酉，賜右大臣丹比真人輿杖，以哀致事。庚寅，假賜正廣參位
右大臣丹比真人，資人百廿人，正廣肆大納言阿倍朝臣御主人・大伴宿禰御行，
並八十人，直廣壹石上朝臣麻呂・直廣貳藤原朝臣不比等，並五十人。
十一月己亥朔戊申，賜大官大寺沙門辨通，食封冊戶。
十二月己巳朔，勅旨，緣讀金光明經，每年十二月晦日，度淨行者一十人。

十一年 春正月甲辰，饗公卿大夫等。戊申，賜天下鰥寡孤獨篤癯貧不能自存
者稻，各有差。癸丑，饗公卿百寮。

二月丁卯朔甲午，以直廣壹當麻真人國見，爲東宮大傅，直廣參路真人跡見爲
春宮大夫，直大肆巨勢朝臣栗持爲亮。

三月丁酉朔甲辰，設無遮大會於春宮。

夏四月丙寅朔己巳，授滿選者，淨位至直位，各有差。壬申，幸吉野宮。己卯，
遣使者，祀廣瀬與龍田。是日，至自吉野。

五月丙申朔癸卯，遣大夫謁者，詣諸社請雨。

六月丙寅朔丁卯，赦罪人。辛未，詔讀經於京畿諸寺。辛巳，遣五位以上，掃
灑京寺。甲申，班幣於神祇。辛卯，公卿百寮，始造爲天皇病，所願佛像。癸卯，
遣大夫謁者，詣諸社請雨。

秋七月乙未朔辛丑夜半，赦常鑿盜賊一百九人，仍賜布人四常。但外國者，稻
人廿束。丙午，遣使者，祀廣瀬與龍田。癸亥，公卿百寮，設開佛眼會於藥師寺。

八月乙丑朔，天皇定策禁中，禪天皇位於皇太子。

ㄱ

- 가라(加羅) 552
- 가량정산(加良井山) 467, 468
- 가루(可婁) 370, 375
- 가마다(迦摩多) 52
- 가부(家部) 344
- 가사(袈裟) 375, 376
- 가사군(訶沙郡) 460
- 가파리빈(加巴利濱) 335
- 각가(覺哥) 47
- 각복모(角福牟) 372
- 각승(覺勝) 246
- 각신(角臣) 500
- 간인대후(間人大后) 349, 350
- 간인련(間人連) 505
- 간인련대개(間人連大蓋) 339, 453
- 간인련어구(間人連御廬) 283
- 간인련염개(間人連鹽蓋) 70
- 간인황녀(間人皇女) 116, 180, 355
- 간인황후(間人皇后) 250
- 간전(墾田) 318
- 갈성(葛城) 14, 143
- 갈성령(葛城嶺) 276
- 갈성복초(葛城福草) 206
- 갈성산(葛城山) 473
- 갈성신오나라(葛城臣烏那羅) 24
- 갈성오나라량신(葛城烏奈良臣) 35
- 갈성왕(葛城王) 470
- 갈성직(葛城直) 488
- 갈성직반촌(葛城直磐村) 16
- 갈성치견양련망전(葛城稚犬養連網田)
154
- 갈성하군(葛城下郡) 501
- 갈성현(葛城縣) 87
- 갈성황자(葛城皇子) 116
- 갈야(葛野) 81, 157
- 갈야군(葛野郡) 356
- 갈원조신대도(葛原朝臣大嶋) 576
- 갈원조신신마려(葛原朝臣臣麻呂) 577
- 감도강(甘櫛岡) 157
- 감도구(甘櫛丘) 294
- 감라촌(甘羅村) 404
- 감물나(甘勿那) 468
- 감자(邯子) 445, 446
- 감지대사(堪遲大舍) 84

감포(紺布) 358
 갑비국(甲斐國) 552
 강군의(岡君宜) 251
 강본(岡本) 280
 강본궁(岡本宮) 62, 117, 282, 427
 강수희황녀(糠手姫皇女) 107
 개금(蓋金) 306, 347
 개문(蓋文) 31
 개별황자(開別皇子) 123
 개신(改新) 193
 개안공양(開眼供養) 375
 객선(客船) 316
 거세덕네신(巨勢德禰臣) 205
 거세덕타고신(巨勢德陀古臣) 234
 거세덕타신(巨勢德陀臣) 162
 거세덕태신(巨勢德太臣) 148, 181, 284
 거세도지(巨勢稻持) 555
 거세사(巨勢寺) 516
 거세신(巨勢臣) 497
 거세신덕태(巨勢臣德太) 142
 거세신비등(巨勢臣比等) 417, 427
 거세신비량부(巨勢臣比良夫) 24
 거세신약(巨勢臣藥) 247
 거세신자단(巨勢臣紫檀) 205
 거세신전신역어(巨勢神前臣譯語) 339
 거세원신(巨勢猿臣) 35
 거세인신(巨勢人臣) 369, 377
 거세조신다익수(巨勢朝臣多益須) 547, 554, 556, 577
 거세조신마려(巨勢朝臣麻呂) 577
 거세조신마사(巨勢朝臣馬飼) 510
 거세조신숙지(巨勢朝臣粟持) 509, 585
 건두파사달아(乾豆波斯達阿) 304
 건무(建武) 224, 287
 건아(健兒) 341
 건왕(建王) 285
 건황자(建皇子) 359
 견강(肩岡) 63
 견상(犬上) 417
 견상건부군(犬上健部君) 178
 견상군(犬上君) 339, 499
 견상군백마려(犬上君白麻呂) 280
 견상군어전초(犬上君御田鋤) 76
 견상천(犬上川) 417
 견양련대반(犬養連大伴) 474
 견양련오십군(犬養連五十君) 420, 423
 견양오십군(犬養五十君) 206
 견염(堅鹽) 234
 견염원(堅鹽媛) 13, 73
 겸인(兼人) 135
 경(輕) 73
 경도(京都) 354
 경부련(境部連) 502
 경부련석적(境部連石積) 357, 477
 경부련약(境部連藥) 419
 경부마리세신(境部摩理勢臣) 109
 경부숙네석적(境部宿禰石積) 509
 경부숙네제어(境部宿禰鮒魚) 512
 경부신(輕部臣) 499

경부신(境部臣) 50, 85, 113
 경부신마리세(境部臣摩理勢) 73
 경부신웅마려(境部臣雄摩呂) 83
 경부조신족뢰(輕部朝臣足瀨) 510
 경사(京師) 487
 경사(輕寺) 516
 경수덕나리(敬須德那利) 552
 경시(輕市) 481
 경왕(鏡王) 441
 경작조(鏡作造) 491
 경황자(輕皇子) 142, 152, 176
 경희왕(鏡姬王) 487
 계(契) 195
 계장(計帳) 197
 계필가력(契苾加力) 332
 계화(髻花) 55
 고교공(高橋公) 496
 고구려(高句麗) 397, 445, 446
 고독고년(孤獨高年) 548
 고려궁지(高麗宮知) 191
 고려화사(高麗畫師) 301
 고시(高市) 63
 고시군(高市郡) 424
 고시대사(高市大寺) 447
 고시사(高市社) 425
 고시천황(高市天皇) 146
 고시현주(高市縣主) 491
 고시현주허매(高市縣主許梅) 424
 고시황자(高市皇子) 406, 409,
 412~414, 426, 469
 고시흑마려(古市黑麻呂) 406
 고안령(高安嶺) 365
 고안성(高安城) 357, 366, 367,
 422, 451, 558
 고여(姑如) 353
 고여(姑女) 454
 고인대시황자(古人大市皇子) 177,
 191
 고인대형(古人大兄) 147, 176, 190
 고인대형황자(古人大兄皇子) 150,
 358
 고인태자(古人太子) 190
 고인황자(古人皇子) 116, 190
 고전수근마려(高田首根麻呂) 247
 고전수신가(高田首新家) 407, 510
 고전추(高田醜) 232
 고창군(高倉郡) 454
 고천원광야희천황(高天原廣野姬天皇)
 545
 고판왕(高坂王) 401, 414, 415, 487
 고표인(高表仁) 118, 119
 고향박사흑마려(高向博士黑麻呂) 219
 고향사현리(高向史玄理) 179
 고향신(高向臣) 499
 고향신국압(高向臣國押) 149
 고향신마려(高向臣麻呂) 482
 고향신우마(高向臣宇麻) 109
 고향왕(高向王) 275
 고향조신마려(高向朝臣麻呂) 507
 고향한인현리(高向漢人玄理) 67, 122
 고향흑마려(高向黑麻呂) 225
 고향금(高黃金) 253

곁나진수(谷那晉首) 343, 371
 곁직근마려(谷直根麻呂) 421
 곁직염수(谷直塩手) 420
 곤륜(崑崙) 135
 골곡강(滑谷岡) 142
 과야국(科野國) 313
 곁무중(郭務惊) 346~348, 352, 367, 377, 397
 곁장거(郭丈舉) 253
 관가(官家) 34
 관군(官軍) 342
 관록(觀勒) 52, 85
 관상(觀常) 507
 관새(關塞) 195
 관성(觀成) 572
 관원(菅原) 63
 관위(官位) 349
 관위(冠位) 55, 344, 370
 관위 19계(冠位十九階) 228
 관정번(灌頂幡) 484
 관지(觀智) 555
 괘주(括州) 297
 광뢰(廣瀨) 27, 453, 458, 464
 광뢰대기신(廣瀨大忌神) 560, 566, 567, 571, 580
 광뢰야(廣瀨野) 481
 광뢰왕(廣瀨王) 478, 493, 509
 광자(廣子) 16
 교기(翹岐) 135, 145
 구거작조(勾宮作造) 489
 구노신마려(久努臣麻呂) 452, 453
 구마기(久麻伎) 364, 454
 구마노리성(久麻怒利城) 309
 구마예(久麻藝) 444
 구비가매(俱毗柯梅) 206
 구석군(龜石郡) 442
 구원(勾原) 27
 구전승인인(駒田勝忍人) 409
 구판궁(麿坂宮) 122
 구판도(櫛坂道) 422
 구호풍총이황자(麿戶豐聰耳皇子) 46
 구호풍총이황자명(麿戶豐聰耳皇子命) 80
 구호황자(麿戶皇子) 15, 24
 국기(國記) 79, 162
 국민(國民) 343
 국변성(國辨成) 307, 311
 국사(國司) 58, 147, 183
 국승길사수계(國勝吉士水鷄) 137
 국인(國人) 342
 국조(國造) 52, 58
 국현신(國懸神) 515
 군가(郡家) 405
 군국(軍國) 365
 군대랑(君大郎) 162
 군령(郡領) 184
 군사(郡司) 195
 군선(軍善) 139, 146
 굴강(堀江) 79
 궁내경(宮內卿) 475
 궁내관대부(宮內官大夫) 482
 궁문(宮門) 16

궁삭련(弓削連) 503
 궁삭련원보(弓削連元寶) 563
 궁삭황자(弓削皇子) 440
 궁수아미타(宮首阿彌陀) 251
 궁인(宮人) 360
 궁지(宮地) 367
 궁처왕(宮處王) 509
 권궁(權宮) 145
 꿇례(跪禮) 485
 궤책야(置辻野) 367
 귀부(鬼部) 182
 귀실복신(鬼室福信) 308, 335
 귀실집사(鬼室集斯) 349, 366, 371
 귀실집신(鬼室集信) 372
 귀지(貴智) 310, 311
 규곡(規曲) 21
 규관(圭冠) 495
 규본촌주승마려(規本村主勝麻呂) 514
 규해(紕解) 315, 339, 340
 굴낭(橋娘) 360
 굴사(橋寺) 473
 굴풍일(橋豐日) 13, 45, 46, 61
 굴풍일천황(橋豐日天皇) 13, 22, 275
 근강(近江) 140, 196, 354, 355, 402, 416, 450
 근강각신신반개(近江脚身臣飯蓋) 83
 근강경(近江京) 398
 근강국(近江國) 62, 79, 145, 350, 362, 367, 450, 578
 근강궁(近江宮) 378
 근강궁치천하천황(近江宮治天下天皇) 556
 근강대진궁(近江大津宮) 116, 572
 근강신만(近江臣滿) 32
 근강조(近江朝) 464
 근강조정(近江朝廷) 399, 409, 412, 417
 근련금신(根連金身) 409
 금강정(金綱井) 423, 424
 금관(錦冠) 223
 금광명경(金光明經) 462, 474, 572, 580, 585
 금대황녀(錦代皇女) 31
 금라금수(金羅金須) 372
 금래(今來) 143, 230
 금발(金鉢) 375
 금성곡(金城谷) 286
 금전성(金田城) 357
 금직수구승(錦織首久僧) 71
 금직수적저(錦織首赤猪) 113
 금직조(錦織造) 488
 금직조소분(錦織造小分) 478
 금책(金策) 336
 금찬(級漚) 362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 24, 35
 기내(畿內) 196, 366, 455, 567
 기내국(畿內國) 195, 196
 기노강(岐奴江) 340
 기대인신(紀大人臣) 369, 377
 기마리기타신(紀麻利耆陀臣) 205
 기미(岐味) 136
 기부(忌部) 446

기부련(忌部連) 501
 기부련수(忌部連首) 478
 기부목련(忌部木菓) 208
 기부수수(忌部首首) 473
 기부수자마려(忌部首子麻呂) 183
 기부수자인(忌部首子人) 418
 기부숙네색부지(忌部宿禰色夫知) 559
 기성도궁어우천황(磯城嶋宮御宇天皇)
 186
 기성현주(磯城縣主) 491
 기성황자(磯城皇子) 442, 516
 기신(紀臣) 497
 기신가다마려(紀臣訶多麻呂) 447
 기신가좌마려(紀臣訶佐麻呂) 457
 기신견마려(紀臣堅麻呂) 468
 기신대음(紀臣大音) 422
 기신아폐마려(紀臣阿閉麻呂) 416,
 419, 445, 448
 기신염수(紀臣鹽手) 109
 기신희마려기태(紀臣乎麻呂岐太) 239
 기이(紀伊) 562, 574
 기이국(紀伊國) 557, 571
 기장(磯長) 80
 기장릉(磯長陵) 34
 기조신궁장(紀朝臣弓張) 518, 570
 기조신진인(紀朝臣眞人) 517, 549
 기주인련(紀酒人連) 507
 기주인직(紀酒人直) 491
 기촌(忌寸) 496
 기황녀(紀皇女) 441
 길대상(吉大尙) 372
 길비국(吉備國) 116, 410
 길비국수(吉備國守) 411
 길비대재(吉備大宰) 469
 길비도황조모(吉備嶋皇祖母) 210
 길비도황조모명(吉備嶋皇祖母命) 146
 길비립신수(吉備笠臣垂) 190
 길사(吉士) 49
 길사구(吉士駒) 246, 254
 길사금(吉士金) 35
 길사기미(吉士岐彌) 352
 길사목련자(吉士木蓮子) 35
 길사반금(吉士磐金) 83
 길사소유(吉士小鮪) 364
 길사웅마려(吉士雄摩呂) 119
 길사장단(吉士長丹) 246, 254
 길사침간(吉士針間) 352
 길야(吉野) 177, 294, 376, 378,
 412, 546
 길야궁(吉野宮) 281, 396, 469,
 554, 563, 576, 584
 길야대형왕(吉野大兄王) 191
 길야산(吉野山) 190
 길야수(吉野首) 491
 길야인(吉野人) 494
 길야태자(吉野太子) 190
 길은(吉隱) 583
 김강남(金江南) 575
 김고훈(金高訓) 563
 김다수(金多遂) 235
 김도나(金道那) 555
 김동엄(金東嚴) 362, 364

김락수(金洛水) 451
 김만물(金萬物) 375, 378
 김물유(金物儒) 505
 김미하(金美賀) 452
 김비소(金比蘇) 451
 김살거(金薩舉) 551
 김살유(金薩儒) 444, 556
 김석기(金釋起) 484
 김세세(金世世) 467
 김소물(金消勿) 467
 김수(金受) 338
 김승원(金承元) 444~446
 김심살(金深薩) 574
 김압실(金押實) 427
 김약필(金若弼) 476
 김양림(金良琳) 581
 김양원(金楊原) 462
 김양원(金陽元) 575
 김이익(金利益) 445
 김인술(金仁述) 551
 김일세(金壹世) 481
 김장지(金長志) 492
 김주산(金主山) 492, 493, 507
 김주한(金周漢) 581
 김지산(金祇山) 444
 김지산(金池山) 445
 김지상(金智祥) 512
 김천충(金天冲) 451
 김청평(金淸平) 461, 465
 김춘추(金春秋) 225, 335, 555
 김충선(金忠仙) 581

김충평(金忠平) 481, 482
 김풍나(金風那) 451
 김항나(金項那) 472
 김호유(金好儒) 461
 김홍세(金紅世) 467, 468
 김효복(金孝福) 451
 김흠길(金欽吉) 461

L

나대진(娜大津) 315
 나라역어혜명(奈羅譯語惠明) 67
 나말(奈末) 72, 77, 69
 나솔(那率) 31
 난파(難波) 28, 47, 54, 64, 345,
 426, 446
 난파군(難波郡) 136
 난파궁치천하천황(難波宮治天下天皇)
 555
 난파기궁(難波碕宮) 227
 난파길사(難波吉士) 49
 난파길사(難波吉士) 목련자(木蓮子)
 51
 난파길사(難波吉士) 신(神) 51
 난파길사국승(難波吉士國勝) 281
 난파길사남인서(難波吉士男人書) 300
 난파길사삼강(難波吉士三綱) 409
 난파길사소규(難波吉士小規) 118
 난파길사신자(難波吉士身刺) 109
 난파길사팔우(難波吉士八牛) 119

난파길사호상(難波吉士胡床) 242
 난파대군(難波大郡) 117
 난파련(難波連) 507
 난파련대형(難波連大形) 478
 난파사(難波社) 49
 난파선구(難波癰龜) 206
 난파왕(難波王) 509
 난파장병풍기(難波長柄豐碕) 192
 난파장병풍기궁(難波長柄豐碕宮) 243
 난파진(難波津) 136
 난파협옥부읍(難波狹屋部邑) 200
 난파황자(難波皇子) 24
 남가라(南迦羅) 50
 남부대사(南部大使) 474
 남생(男生) 356
 남연(南淵) 21, 62
 남연산(南淵山) 457
 남연선생(南淵先生) 153
 남연한인청안(南淵漢人請安) 67
 남의(男依) 400, 409
 남해사자(南海使者) 509
 남언(納言) 475
 내관가(內官家) 82
 내대신(內大臣) 366
 내락(乃樂) 359, 416, 421
 내락산(乃樂山) 417
 내목물부이구비(來目物部伊區比) 115
 내목사인조(來目舍人造) 488
 내목신(來目臣) 189, 499
 내목신염룡(來目臣塩籠) 422
 내목황자(來目皇子) 15, 52
 내신(內臣) 178, 361
 내안전(內安殿) 477
 내장의봉조(內藏衣縫造) 493
 내좌평(內佐平) 136
 노공(路公) 496
 노미직(蘆尾直) 209
 노반박사(鐘盤博士) 32
 노수리산(怒受利山) 308
 노야찬량황녀(鷗野讚良皇女) 545
 노야황녀(鷗野皇女) 359, 359
 노원군신(盧原君臣) 341
 노직익인(路直益人) 408
 노진인적견(路眞人迹見) 551, 585
 녹사(錄史) 492
 녹심(鹿深) 406
 녹심산(鹿深山) 418
 뇌전(瀨田) 419, 469
 능군(綾君) 500
 능귀문(綾貴文) 32
 능등신마신룡(能登臣馬身龍) 303
 능마려(能麻呂) 479
 니부저지(泥部抵枳) 409
 니부조(泥部造) 489
 니자낭(尼子娘) 441

다기황녀(多紀皇女) 513
 다네(多禰) 582
 다네도(多禰嶋) 463, 472, 480

다네인(多禰人) 484
 다다라(多多羅) 50
 다무(多武) 452
 다무령(多武嶺) 577
 다수나(多須那) 61
 다수나(多須奈) 34
 다신(多臣) 500
 다신장부(多臣蔣敷) 334
 다신품치(多臣品治) 400, 416, 492, 584
 다조신품치(多朝臣品治) 509
 단궁강(檀弓岡) 147
 단마(但馬) 450
 단마황녀(但馬皇女) 440
 단비(丹比) 422
 단비공(丹比公) 496
 단비공마려(丹比公麻呂) 465
 단비대안(丹比大眼) 206
 단비도진인(丹比島真人) 559, 561
 단비소택련국습(丹比小澤連國襲) 291
 단비심목(丹比深目) 206
 단비진인(丹比真人) 585
 단비진인도(丹比真人嶋) 483, 558
 단비진인마려(丹比真人麻呂) 549
 단비진인지수(丹比真人池守) 577
 단비판(丹比坂) 232
 단파(丹波) 450
 단파국(丹波國) 460, 501
 단파신(丹波臣) 208
 달상둔(達相通) 353
 달솔(達率) 337, 338, 340, 350, 371, 372
 담구산(膽駒山) 149, 150, 276
 담로(淡路) 450
 담로국(淡路國) 291
 담록도(膽鹿嶋) 295
 담진서(膽振鉏) 294
 담징(曇徵) 69
 담해국(淡海國) 348
 담향와신안배(膽香瓦臣安倍) 406, 416
 답가(踏歌) 579
 답발춘초(答怱春初) 350, 372
 당국(唐國) 64, 351
 당군(唐軍) 334
 당마(當麻) 423
 당마공(當麻公) 16, 496
 당마공광도(當摩公廣嶋) 411
 당마공광마려(當摩公廣麻呂) 452
 당마공순(當麻公楯) 480
 당마공풍빈(當麻公豐濱) 477
 당마진인광마려(當麻真人廣麻呂) 507
 당마진인국견(當摩真人國見) 517
 당마진인국견(當麻真人國見) 585
 당마진인앵정(當麻真人櫻井) 554
 당마진인지덕(當麻真人智德) 553
 당마황자(當摩皇子) 54
 당인(唐人) 335, 336, 374, 454
 대각간(大角干) 363
 대강황녀(大江皇女) 360
 대강황녀(大江皇女) 440
 대건(大建) 344
 대관대사(大官大寺) 447, 485, 585

대구용선(臺久用善) 373
 대군(大郡) 66, 243, 446
 대군궁(大郡宮) 244
 대극전(大極殿) 160, 477
 대금관(大錦冠) 178, 223
 대금상(大錦上) 344
 대금중(大錦中) 344
 대금하(大錦下) 344, 478
 대금하위(大錦下位) 475
 대기신(大忌神) 453, 456, 458, 464, 494
 대기촌팔도(臺寸八嶋) 579
 대납언(大納言) 370
 대내릉(大內陵) 551
 대단수산(大丹穗山) 158
 대당(大唐) 341, 342, 352, 356, 363, 366, 367
 대택신(大宅臣) 497
 대택신군(大宅臣軍) 84
 대덕(大德) 55
 대도(貸稻) 210
 대도(大刀) 344
 대래황녀(大來皇女) 440, 443, 449
 대련(大連) 17
 대례(大禮) 55
 대마(對馬) 352
 대마국(對馬國) 357
 대마국사(對馬國司) 376
 대마국수(對馬國守) 448
 대마도(對馬島) 349
 대민(代民) 192
 대박련백지(大狍連百枝) 584
 대박사(大博士) 463
 대박조(大狍造) 488
 대박조백지(大狍造百枝) 479
 대박해(大伯海) 314
 대반강수련(大伴糠手連) 31
 대반경련(大伴鯨連) 108
 대반군도적(大伴君稻積) 288
 대반남인(大伴男人) 576
 대반두옥련(大伴杜屋連) 470
 대반련(大伴連) 84
 대반련교(大伴連嚮) 24
 대반련국마려(大伴連國麻呂) 454
 대반련남취부(大伴連男吹負) 488
 대반련마래전(大伴連馬來田) 404
 대반련마사(大伴連馬飼) 142
 대반련마양(大伴連馬養) 118
 대반련망다(大伴連望多) 487
 대반련설(大伴連嚮) 51
 대반련안마려(大伴連安麻呂) 415, 493
 대반련어행(大伴連御行) 452
 대반련우국(大伴連友國) 402
 대반련취부(大伴連吹負) 413, 414, 419
 대반박(大伴狍) 34
 대반박련(大伴狍連) 229
 대반박본련대국(大伴朴本連大國) 404
 대반비라부련(大伴毗羅夫連) 20
 대반빈소수자(大伴嬪小手子) 36
 대반사련(大伴昨連) 70

대반설련(大伴嚙連) 35, 66
 대반숙네수박(大伴宿禰手拍) 556
 대반숙네안마려(大伴宿禰安麻呂) 512, 552
 대반숙네어행(大伴宿禰御行) 509, 553, 578
 대반숙네우국(大伴宿禰友國) 571
 대반숙네자군(大伴宿禰子君) 576
 대반어행숙네(大伴御行宿禰) 565
 대반장덕련(大伴長德連) 177, 235
 대반협수언련(大伴狹手彦連) 33
 대백황녀(大伯皇女) 314
 대법흥사(大法興寺) 36
 대변관(大辨官) 467
 대봉(大縫) 344
 대분군치견(大分君稚見) 468
 대분군치신(大分君稚臣) 409, 420
 대분군혜척(大分君惠尺) 400, 409, 453
 대사(大舍) 69, 72
 대사신(大使臣) 353
 대사회(大射會) 367
 대산(大山) 407, 416
 대산상(大山上) 228, 344, 482
 대산중(大山中) 344
 대산하(大山下) 228, 344
 대삼륜군(大三輪君) 497
 대삼륜조신고시마려(大三輪朝臣高市麻呂) 518
 대삼륜조신안마(大三輪朝臣安鷹) 554
 대삼륜진상전영군(大三輪眞上田迎君) 460
 대삼륜진상전자인군(大三輪眞上田子人君) 459
 대상(大相) 370
 대생부다(大生部多) 156
 대수(大繡) 228
 대수장군(大樹將軍) 365
 대승경전(大乘經典) 139
 대시련(大市連) 207
 대시수(大市首) 75
 대시조소관(大市造小坂) 20
 대신(大臣) 17, 347, 366
 대신(大信) 55
 대신왕(大神王) 26
 대씨(大氏) 344
 대야(大野) 351, 405
 대야군(大野君) 500
 대야군과안(大野君果安) 418
 대와사(大窪寺) 516
 대왜(大倭) 546, 572, 574
 대왜국(大倭國) 450
 대왜련(大倭連) 507
 대우(大隅) 484, 550, 572, 582
 대우왕(大友王) 375
 대우직(大隅直) 508
 대우촌주고충(大友村主高聰) 53
 대우황자(大友皇子) 361, 369, 370, 377, 378, 395, 410, 419, 546
 대을상(大乙上) 228, 344
 대을중(大乙中) 344
 대을하(大乙下) 229, 344, 472

대의(大義) 55
 대인(大人) 417
 대인(大仁) 55
 대일본국(大日本國) 341
 대자(大紫) 228, 344, 346
 대장(大藏) 366
 대장군(大將軍) 363
 대장성(大藏省) 378
 대장의봉조마려(大藏衣縫造麻呂) 280
 대장직광우(大藏直廣隅) 406
 대재(大宰) 446
 대전황녀(大田皇女) 355, 359, 439
 대전희황녀(大田姬皇女) 314
 대정사(大井寺) 423
 대좌평(大佐平) 135, 444
 대주직(大柱直) 79
 대지(大智) 55
 대직(大織) 228, 344
 대직관(大織冠) 366
 대직수미(臺直須彌) 205
 대진(大津) 154, 422, 546
 대진궁(大津宮) 546
 대진포(大津浦) 297
 대진황자(大津皇子) 401, 440, 469, 506
 대청관(大靑冠) 224
 대초료제(大鷦鷯帝) 240
 대춘일신(大春日臣) 497
 대취(大炊) 379
 대탕인련(大湯人連) 503
 대택신겸병(大宅臣鎌柄) 339
 대택왕(大宅王) 471
 대택조신마(大宅朝臣鷹) 554
 대택조신마려(大宅朝臣麻呂) 579
 대파왕(大派王) 120
 대파황자(大派皇子) 142
 대판(大坂) 421, 426
 대판관(大判官) 279
 대판기장릉(大坂磯長陵) 255
 대판련(大判連) 501
 대판산(大坂山) 472
 대하내직강수(大河內直糠手) 64
 대하내직시복(大河內直矢伏) 118
 대학료(大學寮) 449, 553
 대학박사(大學博士) 566, 576
 대해숙네포(大海宿禰蒲) 517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 394
 대형(大兄) 356
 대형명(大兄命) 177
 대화(大化) 180
 대화상(大花上) 228
 대화하(大花下) 228
 대황제(大皇弟) 343, 361, 364, 409
 대후(大后) 375
 대흑관(大黑冠) 224
 덕마려(德摩呂) 68
 덕부(德富) 462
 덕솔(德率) 31
 덕자진(德自珍) 569
 덕정상(德頂上) 372
 덕제법사(德齊法師) 34
 덕집득(德執得) 340

도가류(都加留) 298
 도관(道觀) 247
 도광(道光,) 246
 도구(道久) 376, 377
 도군(嶋郡) 52
 도궁(嶋宮) 396, 427, 455
 도기(道基) 570
 도기사라(都岐沙羅) 288
 도녀(嶋女) 61
 도노신우감(都努臣牛甘) 494
 도노조신우사(都努朝臣牛飼) 507, 509
 도대신(島大臣) 113
 도대신(嶋大臣) 79, 162
 도도(渡嶋) 285
 도도(渡島) 302
 도도기류산(都都岐留山) 309
 도등(道登) 188, 237
 도라(都羅) 444, 465
 도목숙네(稻目宿禰) 22, 88
 도복(道福) 248
 도사(道師) 496
 도소(道昭) 246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 137
 도수신(道守臣) 500
 도수신마려(道守臣麻呂) 364
 도신(道信) 554
 도엄(道嚴) 31, 246
 도염포(桃染布) 358
 도원묘(桃原墓) 88
 도자(刀子) 358
 도자(刀自) 368
 도장(道藏) 487, 552
 도치(稻置) 496
 도통(道通) 246
 도행(道行) 364
 도현(道顯) 305
 도화라국(觀貨邏國) 282
 도황조모명(島皇祖母命) 346
 도흔(道欣) 68
 독유(督儒) 365
 돌궐(突厥) 332
 동경(東京) 298
 동국(東國) 36, 156, 354, 402, 450, 458
 동궁(東宮) 15, 375, 376, 394, 395
 동궁대부(東宮大傅) 585
 동궁대황제(東宮大皇弟) 366, 370
 동도장군(東道將軍) 419
 동산도(東山道) 32, 508
 동산사자(東山使者) 509
 동엄(東嚴) 363
 동요(童謠) 355, 368, 372
 동한장직아리마(東漢長直阿利麻) 297
 동한직(東漢直) 464
 동한직구(東漢直駒) 36
 동한직반정(東漢直磬井) 36
 동해도(東海道) 32, 508
 동해사자(東海使者) 509
 둔전사(屯田司) 404
 둔창(屯倉) 64
 등백판(藤白坂) 291
 등원(藤原) 63, 71, 359

등원궁(藤原宮) 359, 563, 577,
579, 581
등원궁지(藤原宮地) 572
등원내대신(藤原內大臣) 364~366
등원대신(藤原大臣) 440
등원부조(藤原部造) 488
등원씨(藤原氏) 366
등원조신대도(藤原朝臣大嶋) 509, 550
등원조신불비등(藤原朝臣不比等) 585
등원조신사(藤原朝臣史) 554

□

마나문노(麻奈文奴) 32
마려자황자(麻呂子皇子) 16
마리세신(摩理勢臣) 113
마무(馬武) 287
마사(馬飼) 177
마사부조(馬飼部造) 518
마사조(馬飼造) 182
마속왕(麻績王) 453
마자대신(馬子大臣) 20
마자숙네(馬子宿禰) 18, 36, 46
만선자(滿選者) 586
만인(蠻人) 582
만지(萬智) 337
말도사부(末都師父) 361
말사선신(末士善信) 568
명간(名墾) 196
명신어대팔주일본근자천황(明神御大八

洲日本根子天皇) 486
명신어우일본왜근자천황(明神御宇日本
倭根子天皇) 200
명신어우일본천황(明神御宇日本天皇)
181
명일향사(明日香寺) 484
명장(名張) 427, 514
명충(明聰) 555
모루온천(牟婁溫湯) 283
모루진(牟婁津) 291
모부인(母夫人) 363
모삭사(摩削寺) 158
모자모례(牟自毛禮) 575
모정도(茅渟道) 230
모정랑(茅渟娘) 359
모정왕(茅渟王) 133
모정현(茅渟縣) 28
모치(毛治) 239
모테(牟豆) 343
목소귀자(木素貴子) 343, 371
목소정무(木素丁武) 569
목신마려(木臣麻呂) 232
묘가(昴加) 484
묘덕(妙德) 34
묘위(妙位) 253
무가왕(武家王) 411
무고행궁(武庫行宮) 223
무덕(武德) 116
무량수경(無量壽經) 245
무방(畝傍) 75
무방산(畝傍山) 115, 158

무부련(巫部連) 502
 무자(武子) 146
 무장국(武藏國) 495, 549, 560
 무조(巫鳥) 473
 무차대회(無遮大會) 548
 묵판(墨坂) 422
 문고고자(文賈古子) 31
 문기춘박세(文忌寸博勢) 582
 문기춘적마려(文忌寸赤麻呂) 582
 문부금(門部金) 249
 문부직(門部直) 488
 문부직대도(門部直大嶋) 479
 문수(文首) 490
 문옥기춘목간(蚊屋忌寸木間) 577
 문옥채녀(蚊屋采女) 116
 문옥황자(蚊屋皇子) 116
 문토(問菟) 295
 물부궁삭대련(物部弓削大連) 147
 물부궁삭수옥련(物部弓削守屋連) 14
 물부대련(物部大連) 22
 물부련(物部連) 497
 물부련마려(物部連麻呂) 421, 461,
 463, 482
 물부련웅(物部連熊) 333
 물부마조신(物部麿朝臣) 559
 물부박정련유(物部朴井連鮪) 290
 물부박정련추자(物部朴井連椎子) 190
 물부수(物部首) 488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 17, 19,
 24, 27, 28
 물부수일향(物部首日向) 410, 415

물부웅군련(物部雄君連) 457
 물부의망련을등(物部依網連乙等) 83
 물부의망련포(物部依網連抱) 65
 물부이전조염(物部二田造鹽) 232
 물부팔판(物部八坂) 20
 물소[水牛] 374
 미경궁(味經宮) 236
 미노왕(彌努王) 509
 미농(美濃) 398, 450, 501
 미농국(美農國) 183, 310, 399, 457
 미농시집련(美濃矢集連) 505
 미농왕(美濃王) 405, 447, 452
 미농진자랑(美濃津子娘) 358
 미마지(味摩之) 74
 미무(彌武) 279
 미자진(尾資津) 308
 미장(尾張) 216, 450, 501
 미장국(尾張國) 183, 291, 460
 미장국사(尾張國司) 412
 미장련(尾張連) 502
 미장숙네대우(尾張宿禰大隅) 584
 민(旻) 229
 민법사(旻法師) 179
 민부(民部) 344
 민직대화(民直大火) 406
 민직소유(民直小鮪) 421

박강국(朴強國) 581
 박근수(朴勤修) 452
 박대법사(狍大法師) 188
 박덕(博德) 358
 박뢰(泊瀨) 470
 박뢰부(泊瀨部) 22, 46
 박뢰부천황(泊瀨部天皇) 22
 박뢰부황녀(泊瀨部皇女) 442
 박뢰부황자(泊瀨部皇子) 18, 24
 박뢰왕(泊瀨王) 114, 487, 583
 박뢰재궁(泊瀨齋宮) 443, 449
 박뢰중왕(泊瀨仲王) 112
 박무마(朴武麻) 451
 박수부자마려(狍豎部子麻呂) 249
 박시전래진(朴市田來津) 337, 342
 박시진조전내진(朴市秦造田來津) 190
 박억덕(朴億德) 574
 박자파(朴刺破) 463
 박정(朴井) 77
 박정련(朴井連) 205
 박정련웅군(朴井連雄君) 398, 402
 박정련자마려(朴井連子麻呂) 475
 반구(斑鳩) 15, 51, 148
 반구궁(斑鳩宮) 60, 80, 110
 반구사(斑鳩寺) 62, 150, 366
 반금(磐金) 49
 반뢰행궁(磐瀨行宮) 315
 반성촌주은(磐城村主殷) 349
 반여(磐餘) 14

반여(磐餘) 18
 반여지상릉(磐餘池上陵) 21
 반전(班田) 244
 반전대부(班田大夫) 573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 197
 반조(伴造) 52, 147, 344
 반주책(磐舟柵) 228
 발일미자(埴日比子) 372
 방명군(方名君) 121
 방인(防人) 195, 377, 554
 배세청(裴世淸) 64
 백가(白加) 32
 백금후원(白錦後苑) 511
 백기조(伯耆造) 490
 백록원사(白鹿園寺) 237
 백매순(白昧淳) 32
 백발부련등(白髮部連燈) 242
 백발부조(白髮部造) 489
 백불(百佛) 375
 백설조장형(百舌鳥長兄) 206
 백설조토사련토덕(百舌鳥土師連土德)
 255
 백저사보연(白猪史寶然) 505
 백제(白堤) 18, 414
 백제국(百濟國) 336
 백제군(百濟君) 237
 백제군풍장(百濟君豐璋) 239
 백제궁(百濟宮) 123
 백제네군(百濟禰軍) 352
 백제대사(百濟大寺) 141
 백제대정(百濟大井) 138

백제사(百濟寺) 189
 백제사인(百濟使人) 134
 백제선(百濟舶) 243
 백제순무미자(百濟淳武微子) 566
 백제신여(百濟新與) 512
 백제왕(百濟王) 335, 337, 340,
 342, 345, 448, 449
 백제왕남전(百濟王南典) 583
 백제원묘광(百濟媛妙光) 34
 백제인(百濟人) 350
 백제조(百濟造) 490
 백제진장(百濟鎭將) 345, 356, 370
 백촌(白村) 341
 백촌강(白村江) 341
 백치(白雉) 236
 범천내련(凡川內連) 507
 범하내직(凡河內直) 488
 범해련(凡海連) 504
 법관(法官) 467
 법관대보(法官大輔) 371
 법도(法度) 370
 법두(法頭) 189
 법룡사(法隆寺) 368
 법변(法辨) 363
 법사(法師) 230
 법승(法勝) 253
 법원(法員) 578
 법인(法忍) 514
 법장(法藏) 570
 법장법사(法藏法師) 511
 법정(法定) 69
 법정조(法定照) 34
 법제랑원(法提郎媛) 116
 법주왕(法主王) 15
 법총(法聰) 356, 357
 법화경(法華經) 62
 법흥사(法興寺) 32, 177, 375
 벽전수(辟田首) 75
 변정(辨正) 246
 변통(弁通) 576, 585
 병위(兵衛) 16
 병정관(兵政官) 452
 복가(福嘉) 577
 복량(福亮) 188
 복림승(福林僧) 447
 복부미신(福富味身) 31
 복신(福信) 334, 336, 337, 339,
 340, 449
 복양(福揚) 495
 복인(福因) 82
 복초부조(福草部造) 488
 봉강사(蜂岡寺) 55
 봉신지마(逢臣志摩) 401
 봉자황자(蜂子皇子) 31
 부가변(富加抔) 397
 부간(富干) 452
 부곡(部曲) 194
 부사(副使) 353
 부제신(富制臣) 205
 북륙도(北陸道) 33
 북월(北越) 417
 북임서리산(北任叙利山) 309

북조지(北助知) 560
 북질지(北叱智) 72
 불사리(佛舍利) 31
 불지귀(弗知鬼) 50
 불파(不破) 310, 409, 416
 불파궁(不破宮) 415, 426
 불파도(不破道) 409
 비라부련(毗羅夫連) 21
 비조(飛鳥) 28, 32, 88, 548, 580
 비조강(飛鳥岡) 117
 비조사(飛鳥寺) 282, 414, 463, 550
 비조의봉조(飛鳥衣縫造) 32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359, 427, 439
 비조천원(飛鳥川原) 317
 비조천원궁(飛鳥川原宮) 278
 비조판개궁(飛鳥板蓋宮) 276
 비조판개신궁(飛鳥板蓋新宮) 145
 비조황녀(飛鳥皇女) 360
 비지도(比知島) 377
 비탄국(飛驒國) 580
 비후국(肥後國) 584
 비후국사(備後國司) 442
 빈(嬪) 16, 358
 빈궁(嬪宮) 16, 378
 빈대(濱臺) 362
 빙련(氷連) 504
 빙련노인(氷連老人) 247, 253
 빙련로(氷連老) 563
 빙상군(氷上郡) 501
 빙상낭(氷上娘) 440, 441

빙상부인(氷上夫人) 482

人

사공(寺工) 31
 사니구나(沙尼具那) 287
 사대주신(事代主神) 425
 사라(娑羅) 557
 사라라마사조(娑羅羅馬飼造) 490
 사마(司馬) 356, 357
 사마달등(司馬達等) 61
 사문(沙門) 346, 363, 364, 376
 사미각종(沙彌覺從) 307
 사비(沙鼻) 340
 사비복부(四比福夫) 350
 사사(寺司) 189
 사수루(師需婁) 468
 사위(舍衛) 294, 449
 사인(舍人) 148, 362
 사인련강충(舍人連糠虫) 482
 사인조강충(舍人造糠虫) 482
 사인황자(舍人皇子) 440
 사인희왕(舍人姬王) 54
 사정(仕丁) 473
 사주(四州) 338
 사찬(沙漣) 365, 375, 378
 사천왕(四天王) 377
 사천왕사(四天王寺) 27, 47, 81, 227
 사천왕상(四天王像) 26
 사탁(沙喙) 312, 362, 481

사탁부(沙喙部) 69, 72, 235
 사택만수(沙宅萬首) 569
 사택소명(沙宅昭明) 371, 444
 사택손등(沙宅孫登) 377
 사택천복(沙宅千福) 307
 사파(娑婆) 53
 사파련(娑婆連) 54
 사호신대구(社戶臣大口) 419
 산과야(山科野) 364
 산기(山碕) 250
 산도공(山道公) 496
 산배(山背) 63, 450
 산배대형(山背大兄) 89
 산배대형왕(山背大兄王) 108, 148
 산배련(山背連) 507
 산배박오적마려(山背狛烏賊麻呂) 479
 산배부소전(山背部小田) 403, 409
 산배신(山背臣) 498
 산배신일립(山背臣日立) 53
 산배직(山背直) 488
 산배직백족(山背直百足) 461
 산배직소림(山背直小林) 403
 산배화사(山背畫師) 59
 산배희왕(山背姬王) 513
 산변군안마려(山邊君安摩呂) 409
 산변황녀(山邊皇女) 360
 산부련(山部連) 504
 산부왕(山部王) 408, 417
 산양사자(山陽使者) 509
 산어정(山御井) 367
 산음사자(山陰使者) 509
 산전(山田) 230
 산전(山前) 421
 산전군(山田郡) 357, 379, 460
 산전사(山田寺) 249
 산전사어형(山田史御形) 574
 살류생(薩蘘生) 472
 살유(薩儒) 446
 살홍각(薩弘恪) 556, 568, 574
 삼국공(三國公) 496
 삼국공마려(三國公麻呂) 239
 삼국마려공(三國麻呂公) 229
 삼국왕(三國王) 110
 삼국인(三國人) 208
 삼국진인우족(三國眞人友足) 509
 삼택길사(三宅吉士) 490
 삼택길사입석(三宅吉士入石) 454
 삼택련(三宅連) 502
 삼택련석상(三宅連石床) 407, 475
 삼도(三島) 151
 삼륜군고시마려(三輪君高市麻呂) 415, 424
 삼륜군근마려(三輪君根麻呂) 339
 삼륜군대구(三輪君大口) 206
 삼륜군소초료(三輪君小鶴鷄) 119
 삼륜군역(三輪君逆) 16
 삼륜군옹수(三輪君甕德) 239
 삼륜군자수(三輪君子首) 407, 416
 삼륜문옥군(三輪文屋君) 149
 삼륜산(三輪山) 151
 삼륜색부군(三輪色夫君) 189
 삼륜율외군동인(三輪栗隈君東人) 182

삼륜인전군난파마려(三輪引田君難波麻呂) 495
삼륜조신고시마(三輪朝臣高市麿) 570
삼미성(三尾城) 420
삼보(三寶) 19
삼부(三部) 374
삼성(三成) 148
삼십삼천(三十三天) 377
삼야왕(三野王) 411, 478, 494
삼야현주(三野縣主) 493
삼전사(三田耜) 118
삼제악(三諸岳) 17
삼족오(三足烏) 237
삼중군(三重郡) 408
삼진포(三津浦) 297
삼하(參河) 216
삼하대반직(三河大伴直) 209
삼한(三韓) 159, 227, 337
삼한관(三韓館) 117
삼하(澁河) 25
상궁(上宮) 15
상궁구호풍충이태자(上宮廐戶豐聰耳太子) 47
상궁대낭희왕(上宮大娘姬王) 143
상궁풍충이(上宮豐聰耳) 80
상내왕(桑內王) 475
상륙국(常陸國) 373, 549
상륙낭(常陸娘) 360
상명(桑名) 427
상명군(桑名郡) 409, 412
상모국(相摸國) 454

상모야국(上毛野國) 291
상모야군(上毛野君) 499
상모야군삼천(上毛野君三千) 478, 480
상모야군치자(上毛野君稚子) 339, 340
상모야군형명(上毛野君形名) 120
상부(上部) 370
상부대상(上部大相) 468
상설(霜雪) 444
상신(上臣) 363
상신상(相新嘗) 461
상아(象牙) 375
상안(常安) 188
상야(上野) 52
상야국(上野國) 89
상여왕(上女王) 23
상원련인족(桑原連人足) 495
상원촌주가도(桑原村主訶都) 513
상전왕(桑田王) 478
상주국(上柱國) 351, 352, 356
상촌주광부(上村主光父) 472
상촌주백제(上村主百濟) 566, 576
새상(塞上) 135, 312
새성(塞城) 239
색부고낭(色夫古娘) 360
색불(色弗) 473
생국혼사(生國魂社) 175
생령신(生靈神) 425
생부련호(生部連虎) 557
서련(書連) 508
서명천황(舒明天皇) 107, 113
서박사(書博士) 568

서부대형(西部大兄) 474
 서수근마려(書首根摩呂) 403
 서수근마려(書首根麻呂) 416
 서전(西殿) 377
 서직마려(書直麻呂) 251
 서직약(書直藥) 410, 413
 서직지덕(書直智德) 403, 482
 서직현(書直縣) 122
 서한대마려(西漢大麻呂) 299
 서해사(西海使) 281
 석견국(石見國) 283
 석도현(釋道顯) 335, 336
 석마제미(昔麻帝彌) 32
 석상부조(石上部造) 489
 석상산(石上山) 281
 석상신궁(石上神宮) 448
 석상조신마(石上朝臣磨) 558, 585
 석상조신마려(石上朝臣麻呂) 518
 석상지(石上池) 304
 석성(石城) 339
 석수도(石手道) 421
 석승(石勝) 479
 석천부인(石川夫人) 513
 석천신(石川臣) 498
 석천왕(石川王) 408, 469
 석천조신충명(石川朝臣虫名) 509, 558
 석촌명(石寸名) 16
 석탕행궁(石湯行宮) 314
 선광(善光) 34, 449
 선광왕(善光王) 345
 선덕(善德) 34
 선덕신(善德臣) 48
 선부(膳夫) 483
 선부신백의(膳部臣百依) 207
 선사(船史) 490
 선사룡(船史龍) 68
 선사왕평(船史王平) 65
 선사혜척(船史惠尺) 162
 선신(善信) 33
 선신(膳臣) 497
 선신니(善信尼) 32
 선신대반(膳臣大伴) 70
 선신마루(膳臣摩漏) 484
 선신아니(善信阿尼) 23
 선신엽적(膳臣葉積) 279
 선신하타부(膳臣賀拏夫) 24
 선왕(善住) 578
 선지충(善智聰) 34
 선지혜(善智惠) 34
 선통(善通) 34
 설재(設齋) 122
 섭진(攝津) 450
 섭진국(攝津國) 27, 79, 473, 557
 성천신(星川臣) 500
 성천신마려(星川臣麻呂) 474
 세천산(細川山) 457
 소간전(小墾田) 54, 278, 414, 464
 소간전궁(小墾田宮) 231, 142
 소간전궁어우천황(小墾田宮御宇天皇)
 187
 소간전신(小墾田臣) 113, 498

소간전신마려(小壘田臣麻呂) 480
 소간전저수(小壘田猪手) 409
 소간전풍포(小壘田豐浦) 548
 소견(小建) 344, 473
 소군(小郡) 426
 소군궁(小郡宮) 221
 소금(小錦) 352
 소금관(小錦冠) 224
 소금상(小錦上) 344
 소금중(小錦中) 344
 소금하(小錦下) 344, 349
 소금하위(小錦下位) 482
 소나라(素奈羅) 50
 소덕(小德) 55
 소도(小刀) 344
 소례(小禮) 55
 소록신(小錄臣) 208
 소류성(疏留城) 336
 소박외조(小泊瀨造) 490
 소봉(小縫) 344
 소부련(掃部連) 502
 소부련각마려(掃部連角麻呂) 235
 소산상(小山上) 228
 소산중(小山中) 344
 소산하(小山下) 228, 344, 372
 소수(小繻) 228
 소수련소마려(掃守連小麻呂) 248
 소수자(小手子) 31
 소승도(小僧都) 447
 소시강상릉(小市岡上陵) 355
 소신(小信) 55

소씨(小氏) 344
 소아과안신(蘇我果安臣) 377, 369
 소아대신(蘇我大臣) 27, 53, 137
 소아대신도목숙네(蘇我大臣稻目宿禰)
 16
 소아도대신(蘇我島大臣) 116
 소아도목숙네(蘇我稻目宿禰) 187
 소아련대신(蘇我連大臣) 346
 소아마자대신(蘇我馬子大臣) 26
 소아마자숙네(蘇我馬子宿禰) 14, 18,
 23, 30, 32, 35, 187
 소아마자숙네대신(蘇我馬子宿禰大臣)
 19, 24
 소아빈하상낭(蘇我濱河上娘) 37
 소아산전마려대신(蘇我山田麻呂大臣)
 359
 소아산전석천마려대신(蘇我山田石川麻
 呂大臣) 358
 소아신과안(蘇我臣果安) 427
 소아신일향(蘇我臣日向) 229
 소아신적형(蘇我臣赤兄) 427
 소아신하이(蘇我臣蝦夷) 134
 소아우대신(蘇我右大臣) 200
 소아적형(蘇我赤兄) 366
 소아적형대신(蘇我赤兄大臣) 360,
 441
 소아적형신(蘇我赤兄臣) 289, 364,
 369, 377
 소아전구신천굴(蘇我田口臣川堀) 190
 소아조원(蘇我造媛) 233
 소아창마려신(蘇我倉麻呂臣) 109

소아창산전마려(蘇我倉山田麿呂) 153
 소아창산전석천마려신(蘇我倉山田石川
 麻呂臣) 178
 소아풍포하이신(蘇我豐浦蝦夷臣) 70
 소아하이신(蘇我蝦夷臣) 108
 소야신(小野臣) 499
 소야신매자(小野臣妹子) 63, 69
 소야조신모야(小野朝臣毛野) 582
 소양신(蘇陽信) 551
 소을상(小乙上) 229, 344
 소을중(小乙中) 344
 소을하(小乙下) 229, 344, 472
 소의(小義) 55
 소인(小仁) 55
 소인고(蘇因高) 64
 소자(素子) 116
 소자(小紫) 228, 344
 소자군(小姉君) 22
 소자부련(小子部連) 504
 소자부련서구(少子部連鋤鉤) 412,
 427
 소장군(蘇將軍) 332
 소정방(蘇定方) 305
 소족원(小足媛) 180
 소죽전사신(小竹田史身) 349
 소지(小智) 55
 소직(小織) 228, 344
 소청관(小青冠) 224
 소치전련(小治田連) 505
 소하과안신(蘇賀果安臣) 396
 소하신과안(蘇賀臣果安) 417

소하신안마려(蘇賀臣安麻侶) 395
 소하적형신(蘇賀赤兄臣) 396
 소화상(小花上) 228
 소화하(小花下) 228
 소흑관(小黑冠) 224
 속간(東間) 510
 속마교(續麻郊) 313
 속수언(續守言) 318, 339, 556,
 568, 574
 속전세목신(粟田細目臣) 71
 속전신(粟田臣) 498
 속전신반충(粟田臣飯蟲) 238
 속전신세목(粟田臣細目) 142
 속전신진인(粟田臣眞人) 482
 속전조신진인(粟田朝臣眞人) 507
 속전진인조신(粟田眞人朝臣) 554
 속진강(栗津岡) 420
 속진시(栗津市) 420
 손등(孫登) 311
 솔모(率母) 463
 송령(松嶺) 276
 수강련단비련(手繼連丹比連) 503
 수계법(受戒法) 23
 수관(繡冠) 223
 수군대석(守君大石) 290, 333, 352
 수군예전(守君蒔田) 577
 수산공(守山公) 496
 수상(繡像) 188
 수성(水城) 349
 수신(首信) 31
 수안산(須岸山) 297

수엽(樹葉) 32
 수옥대련(守屋大連) 18
 수적교신(穗積朝臣) 230
 수적신(穗積臣) 50, 498
 수적신백족(穗積臣百足) 410, 414, 415
 수적신사(穗積臣昨) 204
 수적신오백지(穗積臣五百枝) 415
 수적조신산수(穗積朝臣山守) 554
 수적조신충마려(穗積朝臣虫麻呂) 512
 수적황자(穗積皇子) 441
 수주황녀(水主皇女) 361
 수지매(首智買) 69
 수취조(水取造) 488
 수파궁(水派宮) 20
 숙네(宿禰) 496
 숙신(肅愼) 292, 462, 579, 583
 숙전진(熟田津) 314
 숙하이(熟蝦夷) 298
 순절무(楯節舞) 553
 승준천황(崇峻天皇) 22
 습부(習部) 72
 습사소(習射所) 557
 승도(僧都) 486
 승릉(僧隆) 53
 승만경(勝鬘經) 62
 승민(僧旻) 118
 승인(僧忍) 246
 승정(僧正) 486
 승조양(勝鳥養) 118
 승해련(勝海連) 20
 시경(市經) 290
 시기황자(施基皇子) 361
 시본신(柿本臣) 499
 시본신원(柿本臣猿) 481
 시사(市司) 301
 시전부조(矢田部造) 76, 488
 시집련(矢集連) 504
 시학사(侍學士) 239
 식봉(食封) 194
 식율왕(殖栗王) 484
 식율황자(殖栗皇子) 15
 식장(息長) 419
 식장공(息長公) 496
 식장산전공(息長山田公) 142
 식장족일광액(息長足日廣額) 142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107, 134, 146, 180, 275, 331
 식장진인로(息長眞人老) 574, 576
 신가황녀(新家皇女) 485
 신궁(新宮) 378
 신기백(神祇伯) 151
 신농(信濃) 228
 신농국(信濃國) 484
 신농판(信濃坂) 88
 신도(神嶋) 249
 신라도(新羅道) 252
 신라왕(新羅王) 363, 378
 신라원선묘(新羅媛善妙) 34
 신라인(新羅人) 335
 신모군광(身毛君廣) 399
 신보서(神寶書) 573

신복부련(神服部連) 503
 신부(神部) 52
 신사복초(神社福草) 209
 신상(新嘗) 460
 신성(新城) 462, 482
 신예(神叡) 576
 신익경(新益京) 569
 신일본만여언천황(神日本磐餘彦天皇)
 425
 신자(新字) 482
 신전군(神前郡) 350
 신전부련(新田部連) 504
 신전부미마려(新田部米麻呂) 290
 신전부황녀(新田部皇女) 360, 440
 신전부황자(新田部皇子) 441
 신한인광제(新漢人廣濟) 68
 신한인대국(新漢人大國) 67
 신한제문(新漢濟文) 74
 신협군승우(身狹君勝牛) 113
 신협사(身狹社) 425
 신협신(身狹臣) 153
 신흥군(神戶郡) 77
 실원수어전(室原首御田) 247
 심장둔창(深章屯倉) 149
 십사(十師) 243
 13계(十三階) 223
 십시황녀(十市皇女) 441, 450, 466
 12계(十二階) 55
 씨상(氏上) 344

○

아고지해부하뢰마(阿古志海部河瀬鷹)
 571
 아다(阿多) 484, 518, 550, 572
 아담련(阿曇連) 85, 86, 207, 501
 아담련도부(阿曇連稻敷) 397, 478
 아담련비라부(阿曇連比羅夫) 134
 아담련비라부련(阿曇比羅夫連) 336
 아담련협수(阿曇連頰垂) 283, 368
 아담비라부련(阿曇比羅夫連) 332
 아담사(阿曇寺) 248
 아담산배련비라부(阿曇山背連比羅夫)
 135
 아도(阿都) 19
 아도련(阿刀連) 504
 아두(阿斗) 70
 아두련약(阿斗連藥) 512
 아라라(阿羅羅) 50
 아리마(阿利麻) 307
 아마미인(阿麻彌人) 484
 아배거증배신(阿倍渠曾倍臣) 191
 아배구노조신마려(阿倍久努朝臣麻呂)
 518
 아배내마려신(阿倍內摩呂臣) 178
 아배내신조(阿倍內臣鳥) 73
 아배대신(阿倍大臣) 227
 아배신(阿陪臣) 33, 66, 284, 497
 아배신마려(阿倍臣摩呂) 87
 아배신인(阿倍臣人) 25
 아배씨(阿倍氏) 152

- p>아배인전비라부신(阿倍引田比邏夫臣) 333
p>아배인전신(阿倍引田臣) 304
p>아배인전신비라부(阿倍引田臣比邏夫) 339
p>아배조신(阿倍鳥臣) 65
p>아배조신어주인(阿倍朝臣御主人) 585
p>아배조자신(阿倍鳥子臣) 71
p>아배창제마려대신(阿倍倉梯麻呂大臣) 179, 359
p>아배창제만려대신(阿倍倉梯萬侶大臣) 182
p>아배황녀(阿陪皇女) 359
p>아부련(兒部連) 502
p>아부인전신비라부(阿部引田臣比羅夫) 292
p>아우(阿于) 462
p>아좌(阿佐) 49
p>아직사(阿直史) 491
p>아파기(阿波伎) 316
p>아폐(阿閉) 427
p>아폐신(阿閉臣) 500
p>아폐신대룡(阿閉臣大籠) 70
p>아폐황녀(阿閉皇女) 450
p>아호행궁(阿胡行宮) 571
p>악적길사(鰐積吉事) 456
p>악전(鰐田) 284
p>악전포(鰐田浦) 285
p>안달(安達) 247
p>안덕(安德) 338
p>안두련아가포(安斗連阿加布) 409
p>안두련지덕(安斗連智德) 403
p>안마려(安摩侶) 395
p>안배마려신(安倍麻呂臣) 108
p>안부다수내(鞍部多須奈) 21
p>안부덕적(鞍部德積) 86
p>안부사마달등(鞍部司馬達等) 34
p>안예(安藝) 141
p>안예국(安藝國) 78, 242
p>안작(鞍作) 134
p>안작득지(鞍作得志) 159
p>안작복리(鞍作福利) 63
p>안작신(鞍作臣) 160
p>안작조(鞍作鳥) 60
p>안전신(岸田臣) 499
p>안전신마려(岸田臣麻呂) 335
p>안택(安宅) 243
p>안팔마군(安八磨郡) 400
p>안하(安河) 419
p>압군(鴨君) 498
p>압군하이(鴨君蝦夷) 421
p>압무군하이(鴨茂君蝦夷) 415
p>압반부사모시(押坂部史毛屎) 19
p>압판련(押坂連) 205
p>압판릉(押坂陵) 146
p>압판언인대형황자(押坂彦人大兄皇子) 133
p>압판직(押坂直) 154
p>애전신(涯田臣) 208
p>액구(掖久) 115
p>액구인(掖玖人) 77, 117, 484
p>액상(腋上) 75, 560

액야군(狹夜郡) 335
 액전부련(額田部連) 503
 액전부련비라부(額田部連比羅夫) 70
 액전부련생(額田部連甥) 189
 액전부비라부련(額田部比羅夫連) 71
 액전부련비라부(額田部連比羅夫) 65
 액전부탕좌련(額田部湯坐連) 233
 액전부황녀(額田部皇女) 45
 액전희왕(額田姬王) 441
 앵정(櫻井) 74
 앵정사(櫻井寺) 33
 앵정신(櫻井臣) 498
 앵정신화자고(櫻井臣和慈古) 110
 앵정전부련(櫻井田部連) 502
 앵정전부련담정(櫻井田部連膽淨) 30
 야상(野上) 412, 413
 야중천원사만(野中川原史滿) 234
 약덕(若德) 116
 약사사(藥師寺) 476, 551
 약사혜일(藥師惠日) 116, 251
 약앵부신(若櫻部臣) 499
 약앵부조신오백뢰(若櫻部朝臣五百瀨)
 585
 약탕인련(若湯人連) 503
 약필(若弼) 479
 약협(若狹) 450
 양귀문(陽貴文) 32
 양규궁(兩槻宮) 280
 양제(煬帝) 78
 양호사(陽胡史) 53
 어굴원(御窟院) 515
 어굴전(御窟殿) 512
 어명부황녀(御名部皇女) 359
 어명입부(御名入部) 210
 어사대부(御史大夫) 369
 어우군(於友郡) 301
 어조(語造) 490
 억례복류(億禮福留) 343, 350, 371
 언옥사(言屋社) 301
 언인대형(彦人大兄) 210
 언인대형황자(彦人大兄皇子) 107
 언인황자(彦人皇子) 20
 엄추(奄鄒) 353
 여도현(餘姚縣) 298
 여의수(余宜受) 278
 여자신(余自信) 343, 371
 여자신(餘自信) 366
 여자진(餘自進) 309
 여저군(礪杵郡) 457
 여저도작(礪杵道作) 547, 548
 여정조경(廬井造鯨) 423
 여풍(餘豐) 151
 여풍장(余豐璋) 311
 역군(逆君) 17
 역마(驛馬) 195
 역사(驛使) 37
 역어전(譯語田) 547
 역어전궁어우천황(譯語田宮御宇天皇)
 187
 역어전천황(譯語田天皇) 18, 34
 역정신(櫟井臣) 499
 연(連) 147, 496

연(椽) 351
 연마(椽磨) 356, 358
 염옥련소과(鹽屋連小戈) 291
 염옥련제어(鹽屋連鮒魚) 290
 염옥옹어(鹽屋鯽魚) 209
 영(鈴) 195, 197
 영개(令開) 31
 영공(英公) 363
 영관(靈觀) 507
 영근(令斤) 31
 영록(鈴鹿) 407, 427
 영록관사(鈴鹿關司) 408
 영록군(鈴鹿郡) 407
 영록산도(鈴鹿山道) 407
 영운(靈雲) 188, 118
 영위(令威) 31
 영조율사(聆照律師) 31
 영취산(靈鷲山) 228
 예전천황(譽田天皇) 240
 예진자(羿眞子) 374
 오경(五經) 69, 372
 오국(吳國) 68
 오당로(吳唐路) 297
 오백중낭(五百重娘) 441
 오백지(五百枝) 410
 오성(吾城) 404, 473
 옥도성(屋島城) 357
 옥수신(玉手臣) 501
 옥원왕(屋垣王) 460
 옥조련(玉祖連) 504
 옥진(玉陳) 53
 옥창부읍(玉倉部邑) 417
 와박사(瓦博士) 32
 완자련(椀子連) 209
 왕경(王卿) 471
 왜(倭) 501, 518
 왜경(倭京) 398, 427
 왜국(倭國) 154, 185, 230, 357
 왜마사부조련(倭馬飼部造連) 472
 왜마사수(倭馬飼首) 148
 왜마사조(倭馬飼造) 489
 왜문련(倭文連) 504
 왜종한지흥(倭種韓智興) 253
 왜직(倭直) 488
 왜직룡마려(倭直龍麻呂) 479
 왜한련(倭漢連) 508
 왜한문직마려(倭漢文直麻呂) 190
 왜한사문지유(倭漢沙門智由) 354
 왜한서직현(倭漢書直縣) 135
 왜한직(倭漢直) 483
 왜한직복인(倭漢直福因) 67
 왜한직비라부(倭漢直比羅夫) 183
 왜한직현(倭漢直縣) 242
 왜한직황전정비라부(倭漢直荒田井比羅夫) 222
 왜한판상직(倭漢坂上直) 79
 왜화사음도(倭畫師音禱) 463
 왜희왕(倭姬王) 358
 외안전(外安殿) 477
 외약료(外藥寮) 449
 용건자(勇健者) 287
 용명천황(用明天皇) 13

용미련(春米連) 505
 용전(龍田) 421, 452, 458, 464
 용전산(龍田山) 472
 용전풍신(龍田風神) 560, 566, 567, 571, 580
 우기담군(優耆曇郡) 553
 우대신(右大臣) 369, 377
 우마(宇麻) 444
 우속조(羽束造) 490
 우용위랑장(右戎衛郎將) 351
 우전(羽田) 73
 우전공(羽田公) 496
 우전공사국(羽田公矢國) 417, 420
 우전공팔국(羽田公八國) 492
 우전신(羽田臣) 208
 우전조신제(羽田朝臣齊) 556
 우전진인팔국(羽田真人八國) 513
 우파좌(宇婆左) 287
 우폐직궁(宇閉直弓) 494
 운차(雲車) 334
 운총(雲聰) 53
 웅(雄) 233
 웅산현령(熊山縣令) 356
 웅성(雄成) 64
 웅의(雄依) 409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356
 원가력(元嘉曆) 564
 원강(遠江) 141
 원강국(遠江國) 454
 원지낭(遠智娘) 358, 359, 545
 원흥사(元興寺) 69
 월(越) 33, 140, 141, 228, 277
 월국(越國) 49, 193, 362
 월국수(越國守) 292
 월도군이라도매(越道君伊羅都賣) 361
 월로(越路) 362
 월전국사(越前國司) 573
 월주(越州) 297, 316
 월해(越海) 484
 위나공고견(韋那公高見) 428
 위나공반초(韋那公磐鉏) 410, 413
 위문부(衛門府) 160
 위북(葦北) 68
 위아하(衛我河) 422
 위타(委陀) 50
 유간빈(有間濱) 285
 유간온천(有間溫泉) 118
 유간온탕궁(有間溫湯宮) 121
 유간황자(有間皇子) 180, 282
 유낭(乳娘) 180
 유덕고(劉德高) 253, 351, 352
 유부(乳部) 143
 유수사(留守司) 401
 유신(庾信) 363
 유인원(劉仁願) 345, 356, 370
 유진향읍(有眞香邑) 28
 육오(陸奧) 277, 455
 육오국(陸奧國) 88, 553, 557
 육인신(穴人臣) 499
 육인신대마려(穴人臣大麻呂) 441
 육인신안(穴人臣鴈) 32
 육인조로(穴人造老) 479

육입룡(肉入籠) 295
 율령(律令) 370
 율외(栗隈) 63
 율외수(栗隈首) 488
 율외수덕만(栗隈首德萬) 360
 율외왕(栗隈王) 374, 411, 452, 457
 율외채녀흑녀(栗隈采女黑女) 111
 율전왕(栗前王) 362
 율태(栗太) 419
 율태군(栗太郡) 349
 율하녀왕(栗下女王) 111
 융(隆) 307
 은(殷) 349
 은고(恩古) 311
 은군(隱郡) 405
 은솔(恩率) 31
 은하(恩荷) 285
 을상(乙相) 353
 음박사(音博士) 568, 574
 음양료(陰陽寮) 449
 음양박사(陰陽博士) 570
 음양사(陰陽師) 494
 의덕(義德) 247
 의망(依綱) 64
 의망둔창(依綱屯倉) 138
 의망련치자(依綱連稚子) 283
 의박사(醫博士) 569
 의봉력(儀鳳曆) 564
 의봉왕(衣縫王) 575
 의사(意斯) 182
 의성승(義成僧) 447
 의조(義照) 514
 의통(義通) 253
 의해(衣揩) 25
 의향(義向) 248
 이고기나(伊高岐那) 483
 이관(理官) 480
 이규궁(二槻宮) 583
 이기사마려(伊岐史麻呂) 206
 이기사을등(伊岐史乙等) 118
 이길련박덕(伊吉連博德) 357, 582
 이길련박덕서(伊吉連博德書) 296
 이길박덕(伊吉博得) 253
 이내리무지(伊奈理武志) 583
 이도군(伊刀郡) 472
 이두(伊豆) 548
 이두도(伊豆嶋) 79, 453, 463, 497
 이리(耳梨) 51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 136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136
 이리도덕(耳梨道德) 232
 이리지(伊利之) 279
 이미매(伊彌買) 81
 이복부련(伊福部連) 502
 이세(伊勢) 401, 407, 416, 427,
 450, 501, 574
 이세국(伊勢國) 405
 이세국사(伊勢國司) 573
 이세대신(伊勢大神) 159
 이세신궁(伊勢神宮) 14, 449, 513
 이세신사(伊勢神祠) 548
 이세아부견경(伊勢阿部堅經) 149

이세왕(伊勢王) 239, 317, 362, 492, 496, 552
 이세태신(伊勢太神) 572
 이수진(李守眞) 371, 374
 26계(二六階) 344
 이어부림마사(伊余部連馬飼) 556
 이예(伊豫) 314, 496
 이예국(伊豫國) 584
 이예총령(伊豫總領) 558
 이하(伊賀) 406, 501
 이하국(伊賀國) 445, 558
 이하군(伊賀郡) 406
 이하신(伊賀臣) 500
 이하채녀택자낭(伊賀采女宅子娘) 361
 이하황자(伊賀皇子) 361
 이향천(餌香川) 30
 익전사명창(杵田史名倉) 463
 익전직금중(益田直金鍾) 510
 인단비련(靛丹比連) 503
 인변국(因幡國) 569
 인벽련(忍壁連) 502
 인벽황자(忍壁皇子) 402, 442, 448, 469, 478, 506
 인왕경(仁王經) 462, 578
 인전조신광목(引田朝臣廣目) 577
 인전조신소마려(引田朝臣少麻呂) 578
 인파(因播) 453
 인파국(因播國) 472
 인판직대마려(忍坂直大摩侶) 410, 413
 인해조(忍海造) 490
 인해조경(忍海造鏡) 479
 인해조능마려(忍海造能麻呂) 466
 인해조대국(忍海造大國) 448
 인해조소룡(忍海造小龍) 360
 일고황녀(日高皇女) 485
 일기도(壹岐嶋) 141
 일기도(壹岐島) 349
 일기련박덕(壹伎連博德) 547
 일기사(壹伎史) 490
 일기사한국(壹伎史韓國) 422, 423, 425
 일길찬(一吉漣) 481
 일문(日文) 67
 일본(日本) 335
 일본세기(日本世紀) 305, 366
 일신(日神) 14
 일체경(一切經) 454
 일향(日向) 72, 254
 임나(任那) 34, 50
 임사기산(任射岐山) 309
 임생부(壬生部) 62
 임신(林臣) 151, 500
 입록(入鹿) 160, 161
 입신(笠臣) 501
 입신(立身) 224
 입신제석(笠臣諸石) 357

자관(紫冠) 223, 250

자귀(鈐) 358

자대이궁(子代離宮) 200

자대입부(子代入部) 210

자득(自得) 557

자마려(子麻呂) 301

자사(自斯) 146

자성공(茨城公) 496

자전련(茨田連) 504

자전지(茨田池) 146

자전황자(茨田皇子) 16

자추야(荊萩野) 406, 417

작록(爵祿) 337

작부신(雀部臣) 497

장덕(將德) 32

장문(長門) 367

장문국(長門國) 350, 455

장미직진묵(長尾直眞墨) 421

장병두(長柄杜) 475

장사주반수(樟使主磐手) 410

장생지(長生地) 568

장용사옥(藏庸舍屋) 515

장육불상(丈六佛像) 21

장직(長直) 158

장진(長津) 315

장진궁(長津宮) 332, 334

장황자(長皇子) 440

재궁(齋宮) 466

재신(宰臣) 179

재일봉조(財日奉造) 489

저릉(箸陵) 424

저명공(猪名公) 496

저명공고견(猪名公高見) 239

저사련(猪使連) 505

저사련자수(猪使連子首) 505

저수련(猪手連) 54

적견수적수(迹見首赤禱) 27

적견역가(迹見驛家) 471

적견적도(迹見赤禱) 20

적경연(迹驚淵) 470

적산(赤石) 196

적석(赤石) 54

적수(赤穗) 466, 482

적식(積殖) 406

적신진교(的臣眞嚙) 23

적염조덕족(赤染造德足) 406

적저(赤猪) 230

적태천(迹太川) 408

전구신(田口臣) 208

전구신축자(田口臣筑紫) 232

전군(前軍) 340

전단향(施檀香) 375

전래진(田來津) 339

전마(傳馬) 195

전목련(田目連) 149, 504

전목황자(田目皇子) 16

전무(田舞) 374

전변사조(田邊史鳥) 252

전변소우(田邊小隅) 418

전복부조(殿服部造) 488

전부(傳符) 197
 전부능루(前部能婁) 353
 전부련국인(田部連國忍) 482
 전선(戰船) 341
 전세(田稅) 366
 전신령(田身嶺) 280
 전장(田莊) 194
 전장군(前將軍) 332, 339
 전정직길마려(田井直吉麻呂) 479
 전중궁(田中宮) 120
 전중신(田中臣) 82, 498
 전중신단사(田中臣鍛師) 481
 전중신족마려(田中臣足麻呂) 407, 417
 전중조신법마려(田中朝臣法麻呂) 549, 554, 555, 558, 567
 전촌황자(田村皇子) 89, 108
 전형황녀(田形皇女) 441
 점성대(占星臺) 450
 점전(苫田) 32
 정광사(淨廣肆) 493
 정대(淳代) 284, 285
 정상군(井上君) 205
 정소(政所) 295
 정안산(攄岸山) 316
 정어원궁(淨御原宮) 116
 정족책(淳足柵) 226
 정중창태옥부(淳中倉太玉敷) 45
 정중창태주부(淳中倉太珠敷) 45, 133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14, 107
 정진(正珍) 311
 정혜(定惠) 246, 253
 제경대부(諸卿大夫) 161
 제명천황(齊明天皇) 275
 제왕(諸王) 361
 제왕(弟王) 362
 제왕자(弟王子) 135, 145
 제천왕(諸天王) 26
 제황자(諸皇子) 161
 제회신(諸會臣) 505
 조(調) 337, 338, 353
 조경사(造京司) 575
 조공련(爪工連) 504
 조기훈로인(調忌寸老人) 556
 조룡산(鳥籠山) 419
 조명군(朝明郡) 408
 조법령전(造法令殿) 484
 조사(調使) 454
 조산대부(朝散大夫) 345, 351, 352
 조상사(弔喪使) 137
 조수담해(調首淡海) 403
 조신(朝臣) 496
 조신인(調信仁) 278
 조원보(趙元寶) 253
 조유(朝孺) 475
 조유괘루모절(助有卦婁毛切) 484
 조집사(朝集使) 204
 조창(朝倉) 316
 조창군(朝倉君) 205
 조창궁(朝倉宮) 315
 조창굴광정궁(朝倉橘廣庭宮) 315

조창사(朝倉社) 315
 조취조(鳥取造) 488
 족배(足坏) 479
 존장(尊長) 186
 종고(鐘鼓) 373
 좌대신(左大臣) 369, 377, 396
 좌미군(佐味君) 500
 좌미군소마려(佐味君少麻呂) 421
 좌미군숙나마려(佐味君宿那麻呂) 415
 좌미조신소마려(佐味朝臣少麻呂) 509
 좌미조신숙나마(佐味朝臣宿那磨) 556
 좌백련(佐伯連) 501
 좌백련고승(佐伯連栲繩) 281
 좌백련광족(佐伯連廣足) 452, 480
 좌백련남(佐伯連男) 410
 좌백련단경수(佐伯連丹經手) 23
 좌백련대목(佐伯連大目) 402
 좌백련동인(佐伯連東人) 109
 좌백련자마려(佐伯連子麻呂) 154
 좌백부자마려(佐伯部子麻呂) 191
 좌백숙네광족(佐伯宿禰廣足) 509
 좌백자마려련(佐伯子麻呂連) 353
 좌평(佐平) 335, 337, 339, 343, 356, 366, 371, 446
 주국(柱國) 352
 주금박사(呪禁博士) 569
 주길(住吉) 276, 574
 주길대신(住吉大神) 515
 주방(周芳) 53
 주방국(周芳國) 480
 주방총령(周芳總令) 510
 주유(州柔) 337, 339, 340, 342
 주유(州柔城) 342
 주인공(酒人公) 496
 죽도(竹島) 249
 죽세사(竹世土) 69, 77
 죽전(竹田) 90
 죽전대덕(竹田大德) 406
 죽전왕(竹田王) 509
 죽전황자(竹田皇子) 20, 24
 준덕(俊德) 474
 준인(隼人) 278, 484, 518, 550, 554, 582
 준하국(駿河國) 313
 중객(中客) 445
 중군(中軍) 342
 중대형(中大兄) 176
 중신(中臣) 446
 중신간인련로(中臣間人連老) 252
 중신겸자련(中臣鎌子連) 151, 176
 중신겸족련(中臣鎌足連) 250
 중신궁지련오마려(中臣宮地連烏摩呂) 64, 73
 중신금련(中臣金連) 367, 369, 377, 396
 중신내신(中臣內臣) 346, 362
 중신대도조신(中臣大嶋朝臣) 559
 중신덕(中臣德) 207
 중신련(中臣連) 497
 중신련국(中臣連國) 82, 83
 중신련금(中臣連金) 426, 427
 중신련대도(中臣連大嶋) 478, 482, 492

증신련미기(中臣連彌氣) 109, 111
 증신련압웅(中臣連押熊) 225
 증신련정월(中臣連正月) 208
 증신부약자(中臣部若子) 373
 증신승해련(中臣勝海連) 19
 증신조신대도(中臣朝臣大嶋) 568
 증신조신신마(中臣朝臣臣鷹) 554
 증신조신신마려(中臣朝臣臣麻呂) 547
 증신주인련(中臣酒人連) 502
 중장군(中將軍) 339
 즉어호직(鰓魚戶直) 249
 즐연(櫛淵) 196
 증네련한견(曾禰連韓犬) 453, 482
 지국(智國) 253
 지기군(志紀郡) 25
 지기마려(芝耆摩呂) 74
 지기상군(志紀上郡) 155
 지기황자(芝基皇子) 469, 516
 指南차(指南車) 354
 지달(智達) 283
 지량수예초(志良守叡草) 583
 지릉(智隆) 551
 지리고(脂利古) 553
 지마(志摩) 401, 402
 지만사찬(知萬沙浪) 243
 지변(知辨) 247
 지변쌍규궁(池邊雙規宮) 14
 지상(智祥) 346
 지세이(智洗爾) 81, 82
 지세지(智洗遲) 83
 지유(智踰) 292

지적(智積) 135
 지전군(池田君) 500
 지존(智尊) 420
 지종(智宗) 253, 563
 지총(知總) 246
 지총(知聰) 253
 지통(智通) 288
 지통천황(持統天皇) 545
 지하한인혜은(志賀漢人慧隱) 67
 지흥(智興) 316
 직관(織冠) 223, 334
 직불상(織佛像) 377
 진(秦) 230
 진경(津輕) 285
 진경군(津輕郡) 287
 진기춘석승(秦忌寸石勝) 516
 진나(珍那) 463
 진대장조만리(秦大藏造萬里) 289
 진련(秦連) 508
 진모(眞毛) 445
 진법박사(陣法博士) 578
 진사(秦寺) 81
 진수련(津守連) 503
 진수련길상(津守連吉祥) 296
 진수련대해(津守連大海) 137
 진신구루(津臣偃婁) 283
 진신원(眞神原) 32
 진야수제자(眞野首弟子) 74
 진예(津刈) 277
 진오사(秦吾寺) 233
 진우족(秦友足) 419

진의(眞義) 578
 진인(眞人) 496
 진조(秦造) 488
 진조강수(秦造綱手) 474, 584
 진조웅(秦造熊) 414
 진조전래진(秦造田來津) 333, 334
 진조하승(秦造河勝) 54, 70, 157
 진진천(津振川) 402
 진필(秦筆) 363
 질(質) 219, 279
 질낭(姪娘) 359

天

차전생반(次田生磐) 376
 차전창인심족(次田倉人碁足) 479
 차지군(車持君) 500
 찬기국(讚岐國) 379
 찬길국(讚吉國) 357, 558
 찬파라(贊波羅) 372
 창력도(倉歷道) 417
 창련(倉連) 502
 창산전대신(倉山田大臣) 229
 창성(昌成) 448
 창신소시(倉臣小屎) 239
 창장직마려(倉牆直麻呂) 421
 창제(倉梯) 30, 466, 491
 창제강릉(倉梯岡陵) 36
 창하(倉下) 83
 채녀(采女) 200, 483, 549

채녀신(采女臣) 498
 채녀신마례지(采女臣摩禮志) 109
 채녀신사주마려(采女臣使主麻呂) 232
 채녀신죽라(采女臣竹羅) 480
 채녀신축라(采女臣筑羅) 494
 채녀조(采女造) 491
 채녀조신죽라(采女朝臣竹羅) 509
 채녀조신축라(采女朝臣筑羅) 517
 책양(柵養) 277
 책호(柵戶) 226
 천곡(川曲) 407
 천국배개광정(天國排開廣庭) 45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13, 22

천궁(天宮) 280
 천내기춘련(川內忌寸連) 574
 천내마사조(川內馬飼造) 489
 천내직현(川內直縣) 479
 천내한직(川內漢直) 488
 천도(川嶋) 365
 천도황자(川嶋皇子) 360, 475, 478,
 506
 천뢰사인조(川瀬舍人造) 489
 천만풍일천황(天萬豐日天皇) 331,
 276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331,
 393, 394, 397, 545
 천변신(川邊臣) 499
 천복(千福) 311
 천불상(千佛像) 242
 천신수사(天神壽詞) 559, 568

천신지기(天神地祇) 377, 557
 천원(川原) 548
 천원련가니(川原連加尼) 496
 천원사(川原寺) 249, 443, 508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淳中原瀛真人天皇) 393, 545
 천조태신(天照太神) 408
 천조태신궁(天照太神宮) 443
 천집조(薦集造) 489
 천풍재중일족희천황(天豐財重日足姬天皇) 133, 175, 275, 331, 355, 545, 563
 천황기(天皇記) 79, 162
 천황녀(泉皇女) 360
 첨하군(添下郡) 456
 청관(靑冠) 224
 청산(靑蒜) 287
 청안(靑安) 122
 초난검(草薙劍) 364
 초벽길사(草壁吉士) 490
 초벽길사반금(草壁吉士磐金) 135
 초벽길사진적(草壁吉士眞跡) 137
 초벽련(草壁連) 502
 초벽련추경(草壁連醜經) 236
 초벽황자(草壁皇子) 402, 555
 초벽황자존(草壁皇子尊) 439, 469, 506, 546
 초위(初位) 344
 초치검(草薙劔) 514
 초향부길사대형(草香部吉士大形) 477
 초향수희황녀(酢香手姬皇女) 14, 16

촌국련남의(村國連男依) 399, 416
 촌국련웅의(村國連雄依) 458
 촌수(村首) 194
 촌옥(村屋) 423
 촌옥신(村屋神) 425
 충신(寵臣) 16
 추고천황(推古天皇) 45
 추하이(麤蝦夷) 298
 축관(祝官) 495
 축부(祝部) 139
 축자(筑紫) 48, 52, 35, 37, 282, 349, 352, 367, 374, 397, 454
 축자관(筑紫館) 552
 축자국(筑紫國) 134, 349, 350, 411, 467, 562
 축자군살야마(筑紫君薩野馬) 376
 축자군살야마(筑紫君薩夜麻) 563
 축자대재(筑紫大宰) 68, 145, 410, 460, 465, 548, 549, 554, 580
 축자대재부(筑紫大宰府) 376, 565
 축자대재수(筑紫大宰帥) 233, 558
 축자도독부(筑紫都督府) 357
 축자사익(筑紫史益) 565
 축자사자(筑紫使者) 509
 축자삼택련득허(筑紫三宅連得許) 505
 축자솔(筑紫率) 362, 364, 374
 춘궁대부(春宮大夫) 585
 춘일신(春日臣) 25
 춘일황자(春日皇子) 24
 춘추지(春秋智) 305, 306
 출운국(出雲國) 77, 292

출운국사(出雲國司) 554
 출운국조(出雲國造) 301
 출운신박(出雲臣伯) 417, 420
 충봉(衝棚) 334
 충승(忠勝) 239, 312
 충원(忠元) 451, 453
 취부(吹負) 412, 422, 424
 취옥희존(炊屋姬尊) 23, 30
 취옥희천황(炊屋姬天皇) 14
 취옥희천황기(炊屋姬天皇紀) 15
 취옥희황후(炊屋姬皇后) 16
 치견양련(稚犬養連) 503
 치시다구(置始多久) 577
 치시련대백(置始連大伯) 252
 치시련토(置始連菟) 416, 419, 424
 치앵부신오백뢰(稚櫻部臣五百瀨) 402,
 409
 치협왕(稚狹王) 415, 466
 친지주지(親智周智) 72
 칠부련(漆部連) 503
 칠부우배(漆部友背) 409
 칠부조형(漆部造兄) 20
 침복기성(枕服岐城) 343
 침수향(沈水香) 375
 칭제(稱制) 332

E

타교(打橋) 368
 타라(墮羅) 449

타라인(墮羅人) 282
 탁기황녀(託基皇女) 442
 탁부(喙部) 69
 탐라(耽羅) 351, 353, 356, 364,
 444, 454, 465, 471, 578
 탐라왕(耽羅王) 364, 454, 552
 탕마려(湯麻呂) 207
 탕목령(湯沐令) 400
 태랑미태(太良未太) 31
 태유낭(太蕤娘) 441
 태정대신(太政大臣) 369
 태진(太秦) 157
 택부황자(宅部皇子) 23
 테례(豆禮) 343
 테례성(豆禮城) 342
 토도(菟道) 352, 376, 396
 토도교(菟道橋) 398
 토도련(菟道連) 505
 토려(菟礪) 207
 토명족(菟名足) 574
 토사련(土師連) 502
 토사련마수(土師連馬手) 404, 409
 토사련반촌(土師連磐村) 23
 토사련부저(土師連富杼) 563
 토사련신(土師連身) 231
 토사련저수(土師連猪手) 54
 토사련진부(土師連眞敷) 483
 토사련천도(土師連千嶋) 419
 토사련팔수(土師連八手) 248
 토사사파(土師娑婆) 148
 토사사파련(土師娑婆連) 148

토사사파련저수(土師娑婆連猪手) 147
 토사숙네근마(土師宿禰根鷹) 554
 토사숙네근마려(土師宿禰根麻呂) 555
 토사숙네생(土師宿禰甥) 505, 563
 토사연토(土師連菟) 70
 토사팔도련(土師八嶋連) 20
 토수명(菟穗名) 295
 토야대반(菟野大伴) 576
 토야마사조(菟野馬飼造) 491
 토야황녀(菟野皇女) 394
 토전(菟田) 73, 404, 473, 583
 토전군(菟田郡) 154, 405
 토전박실고(菟田朴室古) 191
 토전야(菟田野) 71
 토전제석(菟田諸石) 149
 토좌(土左) 460
 토좌국(土左國) 497
 토좌대신(土左大神) 451
 토측(土側) 243
 토화라국(吐火羅國) 254

II

파다신(波多臣) 497
 파다신광정(波多臣廣庭) 83
 파마(播磨) 54, 450, 447
 파마국(播磨國) 62, 569
 파마국사(播磨國司) 335
 파미신(波彌臣) 500
 판관(判官) 184, 492

판본강수신(坂本糠手臣) 70
 판본길사장형(坂本吉士長兄) 137
 판본신(坂本臣) 500
 판본신강수(坂本臣糠手) 25, 51
 판본신재(坂本臣財) 421
 판본재신(坂本財臣) 444
 판상직국마려(坂上直國麻呂) 406
 판상직로(坂上直老) 415
 판상직웅모(坂上直熊毛) 413
 판전(坂田) 548
 판전공(坂田公) 496
 판전공뢰(坂田公雷) 461
 판전군(坂田郡) 62, 348
 판전니사(坂田尼寺) 62
 판전사(坂田寺) 21
 판합부련도적(坂合部連稻積) 297
 판합부련반적(坂合部連磐積) 247
 판합부련반초(坂合部連磐鋸) 279
 판합부련석적(坂合部連石積) 352
 판합부련석포(坂合部連石布) 295
 판합부련약(坂部連藥) 290
 판합부석포련(坂合部石布連) 296
 팔구(八口) 418
 팔구조신음강(八口朝臣音槿) 547
 팔구채녀유녀(八口采女鮪女) 112
 팔국경(八掬脛) 248
 팔복신(八腹臣) 73
 패강(溟江) 334
 패전(稗田) 421
 편강(片岡) 75
 편현(片縣) 310

평군신(平群臣) 208, 497
 평군신신수(平群臣神手) 25
 평군신우지(平群臣宇志) 84
 평군신자수(平群臣子首) 478
 평석야(平石野) 421
 평포(平浦) 294
 폐뢰변도(弊賂辨嶋) 303
 포류련(布留連) 505
 포복례(匍匐禮) 485
 포사수만(布師首磐) 376
 포생군(蒲生郡) 367
 포생야(蒲生野) 361
 포생하(蒲生河) 79
 포세신이마려(布勢臣耳麻呂) 363
 포세어주인조신(布勢御主人朝臣) 559,
 565
 포세조신어주인(布勢朝臣御主人) 517,
 549, 553, 578
 포조부만(捕鳥部萬) 28
 포파군(飽波郡) 456
 표함(表函) 352
 풍국법사(豐國法師) 19
 풍신(風神) 458, 464
 풍어식취옥희천황(豐御食炊屋姬天皇)
 15, 45, 107
 풍어식취옥희천황기(豐御食炊屋姬天皇
 紀) 15
 풍이충성덕(豐耳聰聖德) 15
 풍장(豐章, 豐璋) 117, 312, 334,
 336, 337, 340, 342
 풍재천황(豐財天皇) 178

풍충이법대왕(豐聰耳法大王) 15
 풍포궁(豐浦宮) 46
 풍포대신(豐浦大臣) 120, 154, 155
 풍포사(豐浦寺) 112
 풍포황자(豐浦皇子) 16
 피성(避城) 337, 338
 피진나(被珍那) 462

ㅎ

하내(河內) 54, 63, 450, 518
 하내국(河內國) 138, 557
 하내국사(河內國司) 29
 하내기장(河內磯長) 47
 하내서수(河內書首) 280
 하내왕(河內王) 563, 572
 하내직경(河內直鯨) 366
 하내한련(河內漢連) 508
 하내한직지(河內漢直贄) 71
 하도신(下道臣) 500
 하도황자(河嶋皇子) 469
 하등극사(賀騰極使) 137
 하마행궁(蝦蟇行宮) 220
 하모야(下毛野) 555
 하모야국(下毛野國) 549, 562
 하모야군(下毛野君) 500
 하모야조신자마(下毛野朝臣子鷹) 558
 하무조신하이(賀茂朝臣蝦夷) 582
 하변백지신(河邊百枝臣) 333
 하변신(河邊臣) 78

- 하변신기박(河邊臣磯泊) 206
 하변신네수(河邊臣禰受) 83
 하변신마려(河邊臣麻呂) 251, 278
 하변신반관(河邊臣磐管) 207
 하변신백의(河邊臣百依) 206
 하변신백지(河邊臣百枝) 465
 하변신자수(河邊臣子首) 481
 하부대상(下部大相) 468
 하상낭(河上娘) 37, 37
 하야국사(下野國司) 457
 하역어제전(下譯語諸田) 582
 하이(蝦夷) 32, 120, 141, 185,
 228, 362, 375, 482, 483, 557,
 583
 하취문(賀取文) 302
 학문니(學問尼) 33
 한도승가사(韓島勝娑婆) 376
 한산구직대구(漢山口直大口) 242
 한아찬(韓阿漣) 444
 한인(韓人) 161
 한인선충(漢人善聰) 34
 한정(韓政) 161
 한지흥(韓智興) 299
 한직(漢直) 158, 413
 한황자(漢皇子) 275
 합판산(合坂山) 196
 항나(項那) 474
 해견도(海見嶋) 282
 해견양련(海犬養連) 505
 해견양련승마려(海犬養連勝麻呂) 160
 해석류시(海石榴市) 65
 해석류시궁(海石榴市宮) 18
 행심(行心) 547
 향산(香山) 281
 향소전(向小殿) 473
 허만(許滿) 560
 허세신대마려(許勢臣大麻呂) 109
 허세조신신단노(許勢朝臣辛檀努) 506
 허솔모(許率母) 372
 헌법 17조(憲法十七條) 55
 현견양련(縣犬養連) 503
 현견양련대반(縣犬養連大伴) 402
 현견양련수강(縣犬養連手綱) 496
 현견양숙네대려(縣犬養宿禰大侶) 509
 현견양숙네대반(縣犬養宿禰大伴) 517
 현도치(縣稻置) 184
 현리(玄理) 220
 현무약광(玄武若光) 354
 현장법사(玄奘法師) 288
 혈록도(血鹿嶋) 453, 463
 혈수부간인황녀(穴穗部間人皇女) 15,
 47
 혈수부조(穴穗部造) 489
 혈수부황자(穴穗部皇子) 16, 22
 혈호국(穴戶國) 241
 혈호국사(穴戶國司) 236
 협시보살(挾侍菩薩) 21
 협정련(狹井連) 337, 504
 협정련빈랑(狹井連檳榔) 333, 334
 협협파(狹狹波) 196
 형부조(刑部造) 488
 형부조한국(刑部造韓國) 580

형산(兄山) 196
 혜관(惠灌) 87
 혜광(惠光) 81
 혜린(惠隣) 188
 혜묘(惠妙) 188, 253, 476
 혜미(惠彌) 68
 혜숙(惠宿) 31
 혜시(惠施) 246
 혜식(惠寔) 31
 혜운(惠雲) 122, 188
 혜은(惠隱) 122, 245
 혜일(惠日) 82
 혜자(惠資) 245
 혜자(慧慈) 47, 48
 혜제(惠齊) 80, 81
 혜조(惠照) 246
 혜중(惠衆) 31
 혜지(惠至) 188
 혜척(惠尺) 401, 402
 혜총(惠總) 31
 혜총(慧聰) 48
 호복(好福) 462
 호세천황(護世四王) 26
 호예(戶莪) 64
 호적(戶籍) 197, 367
 홍려시(鴻臚寺) 66
 홍청(弘聽) 475
 화공(畫工) 32
 화덕사(和德史) 207
 화이(和珥) 75
 화이부신군수(和珥部臣君手) 399, 416
 화잠(和釐) 412
 환보(桓父) 468
 활전촌(活田村) 473
 황극천황(皇極天皇) 133
 황대제(皇大弟) 398
 황릉(荒陵) 48
 황문조(黃文造) 489
 황서련대반(黃書連大伴) 550
 황서련본실(黃書連本實) 579
 황서조대반(黃書造大伴) 400, 404
 황서조본실(黃書造本實) 373
 황서화사(黃書畫師) 59
 황손(皇孫) 355
 황전(荒田) 479
 황전미련마려(荒田尾連麻呂) 510
 황전미직적마려(荒田尾直赤麻呂) 418
 황제황자(皇弟皇子) 19
 황조대형(皇祖大兄) 210
 황조모존(皇祖母尊) 178, 276, 332
 황태후천황(皇太后天皇) 355
 회계현(會稽縣) 297
 회림강(檜笠岡) 54
 회외(檜隈) 73, 79
 회외사(檜隈寺) 516
 회외사인조(檜隈舍人造) 488
 회외천황(檜隈天皇) 23
 횡산(橫山) 18
 횡하(橫河) 196, 405, 419
 효덕천황(孝德天皇) 175
 후강본천황(後岡本天皇) 476

후강본천황릉(後岡本天皇陵) 469

후부(後部) 462

후비조강본궁(後飛鳥岡本宮) 280

후장군(後將軍) 333

후황자존(後皇子尊) 584

흉방군(胸方君) 500

흉형군덕선(胸形君德善) 441

흑관(黑冠) 224

흑산(黑山) 231

흑원낭(黑媛娘) 361

흔주사마(沂州司馬) 351

흥지(興志) 230

역자 소개

연민수(延敏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규슈[九州]대학 문학박사

논저 : 『고대한일관계사』(1998, 혜안), 『일본역사』(편저, 1998, 보고사), 『고대한일교류사』(2003, 혜안), 『일본고중세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공편, 2005, 혜안),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역서, 2011, 동북아역사재단), 『한반도의 전방후원분』(공저, 2011, 학연문화사) 외 다수

김은숙(金恩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츠크바[筑波]대학 문학박사

논저 : 『한국사』 7(공저, 19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공저, 1998, 국사편찬위원회), 『時代轉換과 歷史認識』(공저, 2001, 솔), 『21世紀の歷史認識と國際理解』(공저, 2002, 明石書店),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공저, 2010, 경인문화사), 『日韓で考える歴史教育』(공저, 2010, 明石書店) 외 다수

이근우(李根雨)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교토[京都]대학 수학

논저 : 『고대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2006, 인물과사상사),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공역, 2011, 동북아역사재단), 『부산 속의 일본』(2012, 부경대학교출판부), 『속일본기 1~3』(역서, 2009~2012, 지식올만드는지식), 『전근대한일관계사』(공저,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 다수

정효운(鄭孝雲)

동의대학교 교수,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문학박사

논저 : 『고대한일정치교섭사연구』(1995, 학연문화사), 『일본고대왕권 국가민족형성사 개설』(역서, 2005, 제이앤씨), 『동아시아의 타자인식』(공저, 2006, 제이앤씨),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공저, 2007, 경인문화사), 『백제의 문물교류』(공저, 200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공저, 2010, 국학자료원) 외 다수

나행주(羅幸柱)

대진대학교 일본학과 강의교수,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박사

논저 : 『일본의 봉건제』(공역, 1991, 신서원), 「古代朝日関係における質の意味」(199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질’」(2006, 『일본역사연구』 24),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2008, 『한일관계사연구』 29), 『일본문화사전』(공저, 2010, 도서출판문), 『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공저, 2012) 외 다수

서보경(徐甫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도쿄[東京]대학 사료편찬소 연수

논저 : 「鐵製品을 매개로 한 百濟와 倭의 交渉」(200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임나문제와 한일관계』(공저, 2005, 경인문화사), 「百濟を媒介とする高句麗と倭との交渉」(2008), 「達率日羅를 통해 본 倭系百濟官僚」(2010), 「고대 일본의 治水事業과 韓人」(2012, 『한일관계사연구』 43),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2012) 외 다수

박재용(朴宰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박사, 조예치[上越]교육대학 수학

논저 :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공저, 2008), 「『일본서기』의 편찬과 백제 관련 문헌 연구」(2009, 한국교원대학교), 『무령왕릉 그 안에 담긴 백제의 숨결』(2012), 『백제와 주변세계』(공저, 2012, 진인진), 『한권 백제』(공저, 2013, 로도스), 『삶이 있는 이야기 충남』(공저, 2013, 웅기장이), 『고대 최고의 외교전략가, 김춘추』(역서, 2013, 역사공간) 외 다수



동북아역사자료총서 125

역주 일본서기 3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10일

엮은이 연민수, 김은숙, 이근우, 정효운, 나행주, 서보경, 박재용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11-6 94910

ISBN 978-89-6187-308-6 94910(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3024298)

